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1호 2023.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발해사 사료의 활용과 연구: 한국사료 편

임상선 |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자료에 인용된 중국 사서 7
권은주 | 유인식의 『대동사(大東史)』에 보이는 '대동'과 발해 인식 49
성희란 | 중국 근대 발해사 저술에 활용된 한국사료 검토 89

논문

강승우 |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 분포 특징과 전개 양상 초탐(初探) 145
정재균 | 5~6세기 중국(中國) 북방 민간결사(民間結社) 의읍(義邑)의 구조에 관하여
– 읍직(邑職)과 읍직 보유자를 중심으로 193
이병건 | 발해 영광탑과 한국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 비교 251
김성환 |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 편찬 287
조원진 |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331
최은진 |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식민지 조선 당국의 대응 369
이원택 |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407

자료소개

이종수 |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西豐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497

서평

박정민 | 조선 전기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木村拓, 汲古書院, 2021) 537
한 담 |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항미원조』 서평
–『항미원조』(백지운, 창비, 2023) 553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56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The Utilization and Research of Balhae Historical Materials: Korean Historical Materials

Lim Sangsun ▮ Chinese Original Source Cited in Balhae History Data from Goryeo to the Early Joseon Period 7

Kwen Eunju ▮ Recognition of 'Daedong' and Balhae in Yoo Insik's *The Daedong History*(『大東史』) 49

Cheng Jilan ▮ A Review of Korean Historical Records Used in the Writings of Balhae's History in Modern China 89

Articles

Kang Seaungwoo ▮ A Prelimina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Prehistoric Cultural Distribution in Liaoxi Area 145

Jung Jaegyun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Yiyi(義邑) in Northern China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193

Lee Byeonggun ▮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Yeong-gwang Pagoda in Balhae and Brick Style Stone Pagoda in South Korea 251

Kim Sunghwan ▮ The Yuan Dynasty's "*Zhuguo-chenfu-chuanji*(『諸國臣服傳記』)" and Historical Compilation of Goryeo Dynasty 287

Cho Wonchin ▮ Critical Review on Kija Joseon in Joseon Dynasty 331

Choi Eunjin ▮ Colonial Joseon Authorities Response to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and Massacres of Koreans 369

Rhee Wontaek ▮ Translation of Some Hand-Written Memo abou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in Hang-gil Old House Diary and its Historical Value 407

Introduction to Documents

Lee Jongsu ▮ Uncompleted Excavations, Unsolved Mysteries, Who is the Owner of the Tomb?: The Cemetery at Xichagou in Xifeng –Northeast Ethnics Cemetery in Western Han Dynasty 497

Book Review

Park Jungmin ▮ A New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537

Han Dam ▮ The Chinese in the Korean War: Book Review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by Jiwoon Baik 5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발해사 사료의 활용과 연구: 한국사료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1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자료에 인용된 중국 사서

임상선 | 대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고려 시기 자료 중 중국 사서
III. 조선 전기 자료 중 중국 사서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발해는 신라, 당,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한 동아시아 고대 국가 중 하나이다. 발해에 대한 언급과 계승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사 체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발해와 같은 시기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이 남긴 기록, 고려 시기의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제왕운기(帝王韻紀)』 등의 기록, 그리고 조선 시대에 편찬된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발해사 기록은 한국의 발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두 권의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1]은 앞의 자료를 비롯하여 신라로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편찬된 발해사 자료의 원문과 역주 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국내 발해사 연구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에 수록된 자료들은 독자적 출전을 가진 것과 중국 측 자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에 수록된 조선 전기까지의 발해사 자료의 중국 측 인용 문헌을 분석하였다. 신라와 고려 시기 자료 중 문헌명이 없는 경우는 서술 내용 분석을 통하여 문헌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려 시기로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동안 국내 발해사 인식 형성에 중국 사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 투고: 2023년 7월 23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1 권은주·강성봉·김진광·임상선, 2021,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총서 62,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권2, 동북아역사재단. 본서는 고구려연구재단이 200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발해사 관련 한국사료의 원문을 모아 간행한 『발해사 자료집(상)』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내용과 자료를 보완한 국내 발해사 자료에 대한 역주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고려 시기 자료 중 중국 사서

발해사에 대한 초기 기록인 고려 시기 자료는 서명이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서명이 없더라도 출전을 추정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1.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주축이 되어 왕명으로 1145년에 편찬한 기전체(紀傳體) 사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의 역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해는 물론 가야, 옥저, 부여 등에 대한 서술은 부족한 감이 있다.

『삼국사기』의 발해사에 기술은 신라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내용만 실려 있으나, 국내 자료가 소략할 경우에는 중국 사서를 적극 활용하였다.[2]

〈표 1〉의 자료 ①은 『삼국사기』의 발해와 관련된 서술에 보이는 중국 문헌명은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있는 기록으로, 발해국의 남해·압록·부여·책성의 네 부(府)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인데, 그중 책성부로부터 신라 천정군 사이에 모두 39개의 역이 있다는 내용이다.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역주에 의하면, 『고금군국지』 원명은 『고금군국현도사이술(古今郡國縣道四夷述)』로 총 40권이며 『사이술(四夷述)』 또는 『고금군군지(古今郡國志)』로 약칭되었고, 지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당나라 정치가이자 인문학자인 가탐(730~805)의 저술이다.[3] 발해의 4개 부는 『신당서』 발해전(渤海傳)에 관련 내용이 있으나,[4] 책성부에서 천정군까지 39개 역이

2 전덕재, 2018,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143쪽.

3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 27쪽 역주 35와 36.

4 『新唐書』 권219, 列傳제144, 北狄, 渤海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삼국사기』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①	賈躭古今郡國志云: 渤海國南海鴨淥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 至柵城府, 凡三十九驛.	『삼국사기』 권제37, 「잡지」 6, 지리 4, 백제	古今郡國志
②	三十二年(733, 개원 21) 秋七月, 唐玄宗 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大僕員外卿金思蘭歸國,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金思蘭本王族, 先因入朝, 恭而有禮, 因留宿衛, 及是 委以出疆之任.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32년	
③	開元二十一年, 大唐遣使敎諭曰: 靺鞨渤海, 外稱蕃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 相爲掎角. 聞有舊將金庾信孫允中在, 須差此人爲將. 仍賜允中金帛若干. 於是, 大王命, 允中弟允文等四將軍, 率兵會唐兵, 伐渤海.	『삼국사기』 권제43, 「열전」 제3, 김유신 하 부록 손자 윤중·윤문	
④	(의자왕 25年) 儀鳳中, 以隆爲熊津都督帶方郡王, 遣歸國, 安輯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 以統之. 時新羅强, 隆不敢入舊國, 寄理高句麗死. 武后又以其孫敬襲王, 而其地, 已爲新羅渤海靺鞨所分, 國系遂絶.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6, 의자왕	
⑤	高句麗始居中國北地, 則漸東遷于浿水之側. 渤海人武藝曰: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則可謂地勝而兵强. 至于季末, 君臣昏虐失道, 大唐再出師, 新羅援助, 討平之. 其地多入渤海靺鞨, 新羅亦得其南境, 以置漢朔溟三州及其郡縣, 以備九州焉.	『삼국사기』 권제37, 「잡지」 6, 지리 4, 고구려	
⑥	其文集, 有上大(太)師侍中狀云 … 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隴右.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 開元二十年, 怨恨天朝, 將兵掩襲登州, 殺刺史韋俊. 於是明皇帝大怒, 命內史高品何行成太僕卿金思蘭, 發兵過海攻討. 仍就加我王金某, 爲正太尉持節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 以冬深雪厚, 蕃漢苦寒, 勅命廻軍.	『삼국사기』 권제46, 「열전」 제6, 최치원	

있다는 아래의 내용은 『삼국사기』가 유일한 출처이다.

『삼국사기』는 자료 ① 이외에 대부분의 발해사 관련 내용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자료 ②와 ③은 732~733년 발해와 당, 신라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 ②의 성덕왕 32년(당 개원 21년)조는 발해와 당, 신라의 전쟁 관련 내용이고, ③은 당나라가 신라에 보낸 칙유문이다. 신라본기는 733년 발해가 당의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登州)를 침입하고, 이에 당 현종이 숙위로 있던 김사란을 신라에 귀국하도록 하여 성덕왕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였으나 공이 없이 귀환했다는 내용이다. 두 기록은 아래와 같이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 그리고 『책부원구(冊府元龜)』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後十年, 武藝遣大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 帝馳遣門藝發幽州兵擊之, 使太僕卿金思蘭使新羅, 督兵攻其南. 會大寒, 雪深丈, 士凍死過半, 無功而還. (『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渤海)

(開元)二十年, 武藝遣其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刺史韋俊. 詔遣門藝往幽州徵兵以討之, 仍令太僕員外卿金思蘭往新羅發兵以攻其南境. 屬山阻塞凍, 雪深丈餘, 兵士死者過半, 竟無功而還. (『舊唐書』 권199下, 列傳 제149下, 北狄, 渤海靺鞨)

(開元) 二十一年正月庚申, 命太僕卿員外置同正員金思蘭, 使于新羅. 思蘭本新羅之行人, 恭而有禮, 因留宿衛, 及是, 委以出疆之任, 且便之也.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 20, 褒異 제2)

자료 ②의 발해의 당 공격과 귀환에 대한 서술이 『신당서』와 『구당서』의 발해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신당서』와 『구당서』는 이 외에도 『삼국사기』에서 주요하게 활용되었다.[5] 고려에서는 1042년에 새로 『당서(唐書)』를 간행할 정도로 『신당서』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6] 숙위로 있던 김사란이 '出

5 『삼국사기』 본문에는 『신당서』와 『구당서』가 다수 인용되고, "若新·舊唐書皆云, '卞韓苗裔, 在樂浪之地.'"(『삼국사기』 권제34, 雜志 제3, 地理 1, 新羅)와 같이 『신당서』, 『구당서』가 함께 인용되기도 하였다.

6 己亥, 東京副留守崔顯, 判官羅旨說, 司錄尹廉, 掌書記鄭公幹等奉制, 新刊兩漢書與唐書, 以進, 並賜爵. (『高麗史』 권6, 世家 권제6, 靖宗 8년 2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疆之任'을 맡은 내용은 『책부원구』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가 발해의 등주 공격을 733년으로 편년한 것은 이후의 고려, 조선의 발해사 자료에 영향을 주었는데, 『책부원구』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7] 그러나 발해의 등주 공격은 『구당서』 발해전에 기록된 732년, 즉 개원 20년이고, 『책부원구』의 기록은 현종의 명을 받은 김사란이 신라로 귀국한 시기를 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④와 ⑤는 백제와 고구려의 영역을 논하는 중에 기술된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백제 본기와 고구려 지리는 양국이 멸망한 후, 그 땅이 발해와 신라가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④의 백제 본기는 의봉(676~679) 중에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615~682)의 행적을 적으며, 백제의 땅을 신라, 발해말갈이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이다. ⑤의 고구려 지리 기록은 고구려 멸망 후 그 땅이 대부분 발해말갈에 들어가고 신라는 그 남쪽을 얻어 한, 삭, 명 3주와 군현을 설치했다고 한다.

백제 본기의 내용은 『신당서』 백제전의 "儀鳳時, 進帶方郡王, 遣歸藩. 是時, 新羅彊, 隆不敢入舊國, 寄治高麗死. 武后又以其孫敬襲王, 而其地已爲新羅渤海靺鞨所分, 百濟遂絶"[8]을 참조한 것이다. 백제의 땅이 신라와 발해 말갈에 들어간 시기가 의봉 중인 듯이 서술하고 있으나, 실상은 부여융이 측천무후에 의해 대방군왕이 된 이후이니, 대략 698년 발해 건국 전후일 것이다. 다만, 백제의 땅은 신라가 차지한 것은 옳지만, 발해가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아마도 웅진도독부가 677년 고구려 땅인 건안고성(建安故城)에 교치되었고, 발해 건국 이후 요동을 발해가 차지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9] 고구려 지리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남경을 차지한 것은 『신당서』 신라전의 "詔復法敏官爵. 然多取百濟地, 遂抵高麗南境矣. 置尙·良·康·熊·全·武·漢·

7 『삼국사기』는 선덕왕 12년(643) 추 9월조와 같이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冊府元龜』(권991, 外臣部, 備御제4, 唐太宗 貞觀 17년 9월 庚辰)의 내용을 전재한 경우도 있다(이강래, 1996,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94쪽 참조).

8 『신당서』 권220, 列傳 145, 東夷 百濟傳.

9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 26쪽 주31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朔·溟九州"[10] 기록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지리는 발해의 군사력을 고구려와 비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출전은 『신당서』 발해전의 "門藝 … 謂武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 是背唐也. 唐大國, 兵萬倍我, 與之產怨, 我且亡.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為敵, 可謂雄彊."이다.[11] 다만, 이 이야기는 문예가 무예에게 한 말인데, 『삼국사기』는 무예가 한 말인 듯이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 밖에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도 개원 20년 발해의 등주 공격과 신라의 참전 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최치원의 문집에 수록된 「상태사시중장(上大(太)師侍中狀)」이 출전이다. 그 내용이 〈표 1〉의 자료 ⑥이다. 앞의 신·구당서의 기록과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인명과 직위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김사란이 귀국할 때 내사 고품과 하행성이 동행했고, 성덕왕에게 추가 책봉한 작위 등은 신·구당서 등에 없는 내용이다. 아마도 신·구당서 등과 다른 당대의 자료를 최치원이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와 당 연합군이 발해 공격 여정에 '바다(海)'를 건너는 듯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사는 명황제가 내사 고품·하행성[12]·대복경 김사란에게 바다를 건너, 신라의 병을 동원하여 발해를 공격하라

---

10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爲安東鎭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法敏遣使入朝謝罪, 貢篚相望, 仁問乃還, 辭王, 詔復法敏官爵. 然多取百濟地, 遂抵高麗南境矣. 置尙·良·康·熊·全·武·漢·朔·溟九州, 州有都督, 統郡十或二十, 郡有大守, 縣有小守. (『신당서』 권220, 열전 제145, 東夷, 신라)

11 門藝曾充質子至京師, 開元初還國, 至是謂武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 是背唐也. 唐, 大國, 兵萬倍我, 與之產怨, 我且亡.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為敵, 可謂雄彊,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衆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신당서』 권219, 열전 제144, 북적, 발해)

12 당나라 張九齡이 작성한 「勅新羅王金興光書三首」에 김사란과 하행성이 함께 신라로 온 내용이 있다. (勅, 新羅王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上柱國金興光. 賀正使金竭集作碣丹等至, 兼得所進物, 省表具知. 海路艱阻, 朝賀不闕, 歲益忠謹, 日以嗟稱, 所謂君子爲邦, 動必由禮. 頃者渤海靺羯, 不識恩信, 自恃荒遠, 且爾逋誅. 卿疾惡之情, 常以奮厲, 故去年遣中使何行成, 與金思蘭同往, 欲以叶謀, 比聞此賊困窮, 偷生海曲, 惟以抄竊, 作梗道路, 卿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당서』 발해전에도 김사란이 신라로 가 병사를 독려하여 그 남쪽을 공격하도록 하였을 뿐, 바다와 관련된 기술이 없다.[1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국사기』는 가탐의 군국지 이외에 출전을 밝히지 않은 기록은 대체로 『신당서』와 『구당서』 발해전과 『책부원구』의 기록을 참조하였고, 최치원의 글은 앞의 자료와는 다른 계통의 것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의 발해 기사는 그 후의 발해사 자료에서도 재인용되었다.

2.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유사』의 발해 기사도 고려와 조선시대 사서에서 주요하게 인용되었다.

『삼국사기』에서 발해를 별도로 다루지 않은 것과 달리,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 말갈발해(靺鞨渤海)를 설정함으로써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적극 반영하였다. 말갈발해조의 설명은 다양한 사료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중국 문헌으로는 『통전(通典)』, 『군국지(郡國志)』, 『후위서(後魏書)』, 『지장도(指掌圖)』가 있다.

먼저 『통전』을 인용하여 발해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통전』은 당나라 시기 두우(杜佑, 735~812)가 편찬한 것인데, 현재의 『통전』에는 위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별도의 자료인 것으로 생각된다.[14] 발해의 민족, 건국자, 해동

隨近伺隙. 掩襲取之. 奇功若有所成, 重賞更何所愛. 適欲多有寄附, 實恐此賊抄奪, 不可不防. 豈資窮寇? 待蕩滅之後, 終無所惜. 昨金志兼等到, 頓緣事物. 未及還期, 忽嬰疹疾, 遽令救療, 而不幸殂逝. 相次數人, 言念殊鄉, 載深軫悼. 想卿聞此, 良以增懷. 然死者生之常, 固其命也. 固當理遣, 無以累情. 秋初尚熱, 卿及首領百姓以下, 並平安好. 今有答信物, 及別寄少信物, 並付金信忠往, 至宜領取, 遣書指不多及. 『文苑英華』 권471, 蕃書4, 張九齡, 勅新羅王金興光書三首1)

13 임상선, 2019, 「8세기 신라의 渤海·唐 전쟁 참전과 浿江 보루 설치」, 『新羅史學報』 45.

14 『삼국유사』에는 『통전』 서명이 4회 등장하는데, 그중 紀異편의 '말갈발해'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삼국유사』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⑦	通典云, 渤海本栗末靺鞨, 至其酋柞榮立國, 自號震旦. 先天中【玄宗王子】,[15] 始去靺鞨號, 專稱渤海. 開元七年【己未】, 柞榮死, 謚爲高王. 世子襲立, 明皇賜典冊襲王, 私改年號.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後唐天成初, 契丹攻破之, 其後爲丹所制.【三國史云, 儀鳳三年 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渤海. 開元二十年間, 明皇遣將討之. 又聖德王三十二年, 玄宗甲戌, 渤海靺鞨, 越海侵唐之登州, 玄宗討之. 又新羅古記云, 高麗舊將柞榮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太伯山南, 國號渤海. 按上諸文, 渤海乃靺鞨之別種, 但開合不同而已. 按指掌圖, 渤海在長城東北角外.】 賈躭郡國志云, 渤海國之鴨淥南海扶餘橐城四府, 幷是高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地理志, 朔州領縣有泉井郡, 今湧州.】至橐城府三十九驛. 又三國史云, 百濟末年, 渤海靺鞨新羅分百濟地.【據此, 則靺鞨海又分, 爲二國也.】羅人云, 北有靺鞨, 南有倭人, 西有百濟, 是國之害也. 又靺鞨地接阿瑟羅州. 又東明記云, 卒本城地連靺鞨【或云今東眞】. 羅第六祇摩王十四年【乙丑】, 靺鞨兵大入北境, 襲大嶺柵, 過泥河. 後魏書, 靺鞨作勿吉. 指掌圖云, 挹婁與勿吉, 皆肅愼也. 黑水, 沃沮, 按東坡指掌圖, 辰韓之北, 有南北黑水. 按東明帝立十年, 滅北沃沮. 溫祚王四十二年, 南沃沮二十餘家, 來投新羅. 又赫居世五十二年, 東沃沮來獻良馬, 則又有東沃沮矣. 指掌圖, 黑水在長城北, 沃沮在長城南.	『삼국유사』 권1, 紀異 1, 말갈발해	通典 指掌圖 郡國志 後魏書

성국, 지리, 그리고 멸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발해가 본래 속말말갈이며 그 추장 조영이 나라를 세우고 진단이라 불렀으며, 선천 중에 말갈 칭호를 버리고 발해라 칭했다. 고왕에 이어 세자가 즉위하니 명황(현종)이 책봉을 하니 사사로이 연호를 고쳤다.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니 땅에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후당 천성 초에 거란의 공격을 받아 거란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발해 멸

'七十二國'조의 내용은 현재의 『통전』에 보이지 않는다.

15 이 글에서는 본문보다 글자 크기가 작은 細註를 "【玄宗王子】"와 같이 【 】에 표시한다. 이하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망 앞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16]

세주의 『삼국사(三國史)』는 의봉 3년(678)에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태백산 아래에 모여 나라를 발해라 했고, 발해 전쟁에서 현종의 조치를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삼국사기』 권46, 열전 6, 최치원전과 성덕왕 때의 기록이다. 그런데 발해를 건국한 시기를 의봉 3년이라 한 것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의봉 3년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이 그 유민을 하남(河南)과 농우(隴右)로 옮긴 해이지,[17] 발해를 건국한 연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라고기(新羅古記)』가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잔병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 발해를 건국했다고 하는데, 발해가 건국된 곳을 '태백산 남쪽'이라 한 점은 신·구당서에 없는 서술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인용할 때, 내용 전체가 아니라 축약하여 인용하고 있다

다만, 나라를 세운 후의 칭호를 『신당서』 발해전은 '진국(震國)'이라 했으나, 『삼국유사』는 '진단(震旦)'이라 달리 표기하고 있다. 진단이 불교 경전에서 인도 천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중국을 뜻하는 말인 지나(支那)로서[18] 동토(東土)의 의미가 있으므로, 진국을 동쪽의 나라라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이래 발해 초기 국호를 진단이라 한 자료에는 『삼국사절요(三國史

16 발해 멸망 이전은 『신당서』를 참조하였더라도 발해 멸망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는 『신당서』 발해전의 서술 범위를 넘어선다. 『통전』의 내용이 『文獻通考』 발해전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송영대, 2019, 「『삼국사기』·『삼국유사』 찬자의 『통전』 활용과 인식 고찰」, 『韓國史硏究』 186, 183~185쪽), 『문헌통고』는 『삼국유사』 이후인 14세기 초에 간행되었다.

17 『구당서』 고려전에는 "儀鳳中, 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遼東都督, 封朝鮮王, 居安東, 鎭本蕃爲主. 高藏至安東, 潛與靺鞨相通謀叛. 事覺, 召還, 配流邛州, 幷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라며, 의봉 중이라 하였다. (『舊唐書』 권199上, 列傳 제149上, 東夷, 高麗)

18 振旦或作震旦, 或言眞丹, 皆一也. 舊譯云漢國, 經中亦作脂那, 今作支那. 此無正翻, 直云神州之摠名. (『一切經音譯』 권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節要)』,[19] 『동사찬요(東史纂要)』,[20]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21] 『동사보유(東史補遺)』[22] 등이 있다.

가탐의 저술인 『군국지』의 발해 4부와 신라 천정군에서 추(책)성부까지 39역이 있다는 기술은 앞에서 언급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전을 『삼국사기』라 하지 않고 가탐의 『군국지』라 한 것은 당시 존재하던 이 자료를 일연이 직접 보았거나, 혹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았으나 출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의 하나일 것이다. 4부의 기술 순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일부 다르다.

말갈발해조의 인용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장도(指掌圖)』이다. 『지장도』는 발해의 위치를 설명할 때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연이

---

19 渤海郡王太祚榮卒.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祚榮父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勾麗餘燼, 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旦, 先天中 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爲忽汗州都督. 自是始去靺鞨之號, 稱渤海. 至是死, 其國私謚爲高王. 子武藝嗣, 斥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 私改年號曰仁安.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三國史節要』 권제11, 성덕왕 18년)

20 十八年【開元七年己未】. 渤海郡王太祚榮卒, 私謚高王, 子武藝嗣.【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祚榮父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勾麗餘燼, 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旦. 先天中, 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自是始去靺鞨之號, 稱渤海. 至是死, 子武藝嗣, 斥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東史纂要』권제1 중, 성덕왕)

21 渤海國. 東史曰, 渤海國本粟末靺鞨, 即高勾麗別種. 隋煬帝時, 其渠帥度地稽, 率其部來降, 居之柳城. 其後, 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香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勾麗之亡, 餘燼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旦. 先天中, 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自是始去靺鞨之號, 稱渤海. 至新羅正(聖)德王時, 祚榮死. 子武藝嗣, 拓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東國地理志』, 附 渤海國)

22 十八年, 渤海郡王太榮祚卒, 子武藝嗣.【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也. 祚榮父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 國號震旦. 先天中, 封渤海郡王, 自是始去靺鞨之號. 斥大土宇, 東北諸夷皆畏之. 遂爲海東盛國】. (『東史補遺』 권제2, 성덕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의 지리적 공간을 파악하는 데 『지장도』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장도』는 발해는 만리장성의 동북각 바깥에 있고, 흑수는 장성 북에 있고, 남북 흑수가 있다고 한다. 말갈발해조의 『지장도』는 송대(宋代)에 만들어진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이고, 설명은 그 안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古今華夷區域摠要圖)〉를 보고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23]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에 비해 다수의 사서를 제시하며, 말갈발해조의 전거를 밝힌 것은 서술 내용이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중국 문헌 중 『통전』은 현존하지 않으나 인용한 내용이 『신당서』 발해전과 유사하고, 『지장도』는 송대 『역대지리지장도』로서 발해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3. 『제왕운기(帝王韻紀)』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제왕운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가 기술되어 있다. 상권(上卷)에는 서(序)에 이어 중국 역사의 요점을 신화시대부터 원(元)에 이르기까지를 기술하고, 그 끝에 중국의 '정통상전송(正統相傳頌)'으로

〈표 3〉 『제왕운기』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⑧	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 【今南柵城也. 五代史曰, 渤海本粟靺鞨, 居營州東.】 於周則天元甲申【羅之滅麗後, 十七年也.】, 開國乃以渤海名. 至我太祖八乙酉, 【後唐莊宗同光元(三)年也.】 擧國相率朝王京. 誰能知變先歸附, 禮部卿與司政卿. 【禮部卿大和鈞 · 司政卿左右將軍大理著 · 將軍申德 · 大德 · 志元等, 六百戶來附.】 歷年二百四十二, 其間幾君能守成.	『제왕운기』 권하(下), 前麗舊將大祚榮	

23 임상선, 2007,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指掌圖'」, 『동북아역사논총』 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리하였으며, 하권(下卷)은 크게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와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로 나눌 수 있다.

『제왕운기』의 발해 기사는 발해 건국과 발해 유민의 고려 내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권의 세주에서 '발해는 본래 속말갈이며, 영주 동쪽에 거주한다'고 한 것은 발해를 한국 역사의 일원으로 간주한 것이다.[24] 이 내용을 『오대사(五代史)』에서 인용하였다.

> 渤海, 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 唐高宗滅高麗, 徙其人散處中國, 置安東都護府於平壤以統治之. 武后時, 契丹攻北邊, 高麗別種大乞乞仲象與靺鞨酋長乞四比羽走遼東, 分王高麗故地, 武后遣將擊殺乞四比羽, 而乞乞仲象亦病死. 仲象子祚榮立, 因并有比羽之眾, 其眾四十萬人, 據挹婁, 臣于唐. 至中宗時, 置忽汗州, 以祚榮為都督, 封渤海郡王, 其後世遂號渤海. 其貴族姓大氏, 開平元年, 國王大諲譔遣使者來, 訖顯德常來朝貢. 其國土物產, 與高麗同. 諲譔世次·立卒, 史失其紀. (『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 제3, 渤海)

『제왕운기』가 인용한 『오대사』는 『신오대사(新五代史)』 발해전이다. 『신오대사』는 송 인종 때 구양수가 1053년 전후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며, 후량이 건국된 907년부터 후주 현덕 7년(960)까지 54년이 서술 범위이다.[25] 『제왕운기』는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太白山) 남성(南城)에서 주 측천(則天: 측천무후) 원년 갑신(684)에 건국하였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해 건국은 684년, 역사는 242년이라 하고, 장소를 태백산 남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른 자료와 대비된다.

태백산 남쪽을 발해 건국지로 기록한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삼국사기』 최

24 石井正敏, 1978,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新羅～李朝」,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5;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32쪽.

25 동북아역사재단, 2011, 「『신오대사(新五代史)』 외국전 해제」, 『舊五代史·新五代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104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치원 열전[26]과 『삼국유사』에 인용된 신라고기[27]에도 보인다. 태백산 남쪽이 발해의 건국지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당서』 발해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高麗滅, 率眾保挹婁之東牟山, 地直營州東二千里, 南比新羅, 以泥河為境, 東窮海, 西契丹. 築城郭以居, 高麗逋殘稍歸之. 萬歲通天中, 契丹盡忠殺營州都督趙翷反,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東走,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 武后封乞四比羽為許國公, 乞乞仲象為震國公, 赦其罪. 比羽不受命, 后詔玉鈐衛大將軍李楷固·中郎將索仇擊斬之. 是時仲象已死, 其子祚榮引殘痍遁去, 楷固窮躡, 度天門嶺, 祚榮因高麗·靺鞨兵拒楷固, 楷固敗還. 於是契丹附突厥, 王師道絕, 不克討. 祚榮即幷比羽之眾,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 (『신당서』 권219, 열전 제144, 북적, 발해)

발해전 첫 부분에서는 발해의 건국과 건국 과정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던 자로서 성은 대씨(건국 주체)이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건국 시기), 무리(건국 집단)를 이끌고 읍루의 동모산(건국지)을 차지하니, 그곳은 영주 동쪽 2천 리가 된다. 이어지는 기록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만세 통천 중(건국 시기), 걸걸중상·걸사비우·고려여종(건국 주체)이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 오루하를 사이에 둔 곳에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 측천무후가 보낸 이해고가 공격해 오자, (태백산의 동북에서) 달아나며 천문령을 넘어 고려와 말갈병과 함께 이해고를 무찔렀다. 이어서 걸사비우의 무리를 합하여 건국하고 스스로 진국왕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신당서』 발해전의 건국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동 지역은 영주-요

26 『삼국사기』 권제46, 열전 제6, 최치원.

27 『삼국유사』 권1, 紀異 1, 말갈발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태백산 동북, 오루하-천문령-읍루의 동모산(영주로부터 2,000리)이다. 발해를 건국한 집단은 태백산 동북에서 1차 정착하고, 이해고의 공격을 천문령을 넘어간 곳에서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와 같이 『신당서』 발해전을 중심으로 발해의 건국 과정을 이해한다면, 『제왕운기』와 같이 발해의 건국을 태백산 동쪽으로 설정하는 것은 태백산 부근에서의 1차 정착을 사실상의 발해 건국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해고의 토벌과 최종 정착을 만세통천 연간이라고 한다면, 태백산 부근에서의 1차 정착은 그 이전이 된다. 『제왕운기』 이외에 발해 건국지를 태백산 부근이라고 하는 자료는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신라고기』와 『삼국사절요』[28]가 있다.

『제왕운기』는 중국 문헌 중 『신오대사』를 인용하고,[29] 발해 건국 과정에서 태백산 부근에서의 1차 정착을 건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역옹패설(櫟翁稗說)』

고려 후기 학자·정치가 이제현(李齊賢, 1288~1367)이 1342년(충혜왕 3) 56세 되던 해에 편찬한 『역옹패설』은 역사·인물의 일화, 시화와 세태담 등을 수록한 시화 잡록집이다.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집에서 '발해와 고려가 혼인(婚姻)한 사이'라는 사실이 기록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30]

자료 ⑨의 『통감』은 『자치통감』을 말하며, 이미 『삼국사기』에도 주요하게 인용된 바 있다.[31] 발해와 고려 사이의 결혼에 대한 『자치통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 『三國史節要』 권제11, 성덕왕 18년.

29 『제왕운기』는 발해 이외에 고구려의 출자를 설명하는 細註에서도 『오대사』를 인용하였다. (五代史曰, 高句麗扶餘別種也. 『帝王韻紀』 권下, 高句麗紀)

30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 46쪽, 『역옹패설』 해제.

31 『삼국사기』는 각 왕의 生卒 등에 대한 서술에서 『자치통감』(혹은 『통감』으로 표기)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선덕왕의 죽음에 대하여 "八日, 王薨. 謚曰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역옹패설』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⑨	通鑑載, 我太祖因胡僧襪羅, 言於晋高祖曰, 渤海我婚姻也. 其王爲契丹所虜, 請與朝廷共擊取之. 高祖不報. 及少帝與契丹爲仇, 襪羅復言之, 少帝欲使我擾契丹東邊, 以分其兵勢, 遣郭仁遇使我. 見其兵甚弱, 向者襪羅之言, 特誇誕耳, 其言如是. 後唐淸泰三年, 契丹立石敬瑭爲帝, 是爲晋高祖, 與契丹約爲父子. 歲輸金帛三十萬疋兩. 是年百濟王甄萱逃奔歸我, 請討逆子神劒, 太祖親征擒滅之. 而新羅王金溥亦納土入朝, 三韓旣一. 乃偃兵息民, 聿修文敎. 渤海將軍申德禮禮部卿太和鈞工部卿太德譽等數千萬人, 前後冒化來投. 若其與渤海結婚姻, 則國史未之見也. 以我太祖深謀遠略, 不務功名, 豈不知五季之世, 中原板蕩, 不足與有爲乎. 豈不知石郎之與帝耙, 其交不可以間乎. 又豈不遣一使, 而因異域之僧, 越海而謀於新造未集之晋, 欲爲渤海, 報仇於方强之契丹乎. 且郭仁遇之來也, 果能盡見我兵之虛實强弱乎. 晋之君臣, 前惑襪羅之言, 後信仁遇之語, 遂謂我太祖爲誇誕, 豈不謬乎.	『역옹패설』 前集 권1	通鑑

(冬10월) 初, 高麗王建用兵吞滅鄰國, 頗強大.【事見二百八十一卷高祖天福元年. 麗, 力之翻.】因胡僧襪囉言於高祖曰:「勃海, 我婚姻也, 其王爲契丹所虜, 請與朝廷共擊取之.」高祖不報. 及帝與契丹爲仇, 襪囉復言之.【襪, 望發翻. 囉, 魯何翻. 復, 扶又翻.】帝欲使高麗擾契丹東邊以分其兵勢; 會建卒, 子武自稱權知國事, 上表告喪, 十一月, 戊戌, 以武爲大義軍使·高麗王, 遣通事舍人郭仁遇使其國,【使, 疏吏翻.】諭指擊契丹.【畏契丹知之, 不形諸詔命, 以詔指諭之而已.】仁遇至其國, 其兵極弱, 曁者襪囉之言, 特建爲誇誕耳, 實不敢與契丹爲敵.【宋白曰: 晉天福中, 有西域僧襪囉來朝, 善火卜. 俄辭高祖, 請遊高麗, 王建甚禮之. 時契丹併勃海之地有年矣, 建因從容謂襪

德, 葬于狼山【唐書云, 貞觀二十一年卒. 通鑑云, 二十二年卒." 以本史考之, 通鑑誤也.】(『삼국사기』 권제5, 新羅本紀 제5, 善德王 16년 1월 8일)라며 세주에서 『통감(자치통감)』을 인용하고, 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囉曰:「勃海本吾親戚之國, 其王爲契丹所虜, 吾欲爲朝廷攻而取之, 且欲平其舊怨. 師迴, 爲言於天子, 當定期兩襲之.」禕囉還, 具奏, 高祖不報. 出帝與契丹交兵, 禕囉復奏之. 帝遣郭仁遇飛詔諭建, 深攻其地以牽脅之. 會建已卒, 武知國事, 與其父之大臣不叶, 自相魚肉. 內難稍平, 兵威未振, 且夷人怯懦, 禕囉之言, 皆建虛誕耳.】仁遇還, 【還, 從宣翻.】武更以他故爲解. 【爲說以自解.】(『資治通鑑』 권제285, 後晉紀 6, 開運 2년)

『자치통감』에는 호승 말라와 고려 태조의 이야기를 본문에 기술하고, 이어서 송백(宋白)의 말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역옹패설』은 이 중 본문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다.

발해사와 관련된 내용은 고려와 발해의 혼인에 대한 고려 태조의 언급이다. 『자치통감』의 원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고려 태조가 호승 말라에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고려가 군사로써 이웃 나라를 탄멸할 정도로 자못 강대했기 때문이었다. 고려가 강대하다는 것은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와 (후)백제를 격파함으로써 동이의 여러 나라가 복속했다는 같은 책 281권의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32] 후진 고조(재위 936~942) 재위 중 고려에 온 서역승 말라에게 왕건이 말하길, 발해와 자신이 혼인한 친척의 나라이고, 그 사로잡힌 왕을 구하고 구원(舊怨)을 풀고자 하니, 후진과 함께 공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조는 답하지 않았고, 개운 2년(945) 10월에 거란과 다투던 출제가 곽인우를 보냈으나, 가서 보니 실상은 고려의 군세가 매우 약한 것을 보고 지난날 말라의 말이 과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곽인우는 당시 고려는 왕건이 죽고 그 아들 무(武, 惠宗)가 즉위했으나 대신과 형제간의 불화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거란을 공격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역옹패설』은 고려와 발해의 친척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32 高麗王建, 用兵, 擊破新羅百濟, 於是東夷諸國, 皆附之. 有二京六府九節度百二十郡. (『資治通鑑』 권제285, 後晉紀 6, 開運 2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흡수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으나 국사(國史)에 발해와 혼인을 맺었다는 기록이 없고, 둘째, 심원한 지모와 원대한 책략을 가진 태조가 능력 없는 후진과 손잡고 거란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셋째, 사신도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승려의 말만 듣고 발해를 위해 한창 강성한 거란에게 원수를 갚고자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옹패설』은 고려와 발해의 혼인이 없었고, 또한 태조가 후진과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태조가 유력한 호족(豪族)과의 혼인을 통하여 신분적으로나 실질상으로 왕실의 안정과 권위의 증대를 꾀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발해의 유력한 인물과의 혼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해유민 출신으로서 고려에 내투한 인물 중에 고모한(高模翰)이 태조의 공주와 결혼한 바 있고, 발해세자 대광현(大光顯)은 많은 관리와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으므로 상당한 군사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태조와 발해 왕녀, 혹은 태조의 딸과 대광현 간의 혼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33]

Ⅲ. 조선 전기 자료 중 중국 사서

고려에 이어 건국한 조선은 창업의 정당성을 역사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시기 역사 정리 작업에 나섰다. 고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데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의 역사학은 역사를 통해 정치적 교훈을 얻으려는 실용적 측면이 강하였고, 편찬 주체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관료였다.[34]

33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30~144쪽.

34 박인호, 2021, 『한국사학사대요』, 이회문화사, 82~8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는 조선 왕조의 고려 왕조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 정리 결과물이다. 정인지(鄭麟趾, 1396~1478)·김종서(金宗瑞, 1383~1453) 등이 완성한 기전체 형식의 『고려사』는 조선 초 명분론과 자존의식 고양을 배경으로 여러 차례 개수를 거쳐 사료의 원형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려시대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이다.

『고려사』에 수록된 발해 기사는 대부분 고려로 귀화한 유민(遺民) 관련 내용이고 출전도 고려 측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발해국에 대한 총론적인 서술은 중국 문헌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표 5〉의 자료 ⑩의 『고려사』 세가는 태조 8년(925) 9월, 발해 유민이 고려로 내투하였다는 기록에 이어 발해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세가의

〈표 5〉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⑩	八年 … 秋九月, 丙申, 渤海將軍申德等五百人來投.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謨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勾麗人大祚榮, 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幷有扶餘肅愼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 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 衆數十萬. 隣于我境, 而與契丹世讎. 至是, 契丹主謂左右曰: 世讎未雪, 豈宜安處. 乃大擧攻渤海大諲譔, 圍忽汗城. 大諲譔戰敗乞降, 遂滅渤海. 於是, 其國人來奔者相繼.	『고려사』 권제1, 世家 1, 태조 8년	
⑪	十二月, 契丹滅渤海.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勾麗人大祚榮, 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併有扶餘肅愼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 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 衆數十萬. 隣于我境, 而與契丹世讎. 契丹主大擧攻渤海, 圍忽汗城, 滅之, 改爲東丹國. 其世子大光顯及將軍申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譽左右衛將軍大審理小將冒豆干檢校開國男朴漁工部卿吳興等, 率其餘衆, 前後來奔者, 數萬戶. 王待之甚厚, 賜光顯姓名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 僚佐皆賜爵.	『고려사절요』 권제1, 태조 8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용 중 『신당서』·『구당서』의 발해전과 『요사(遼史)』 본기에서 유사한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渤海本粟末靺鞨也.'는 『신당서』의 '渤海, 本粟末靺鞨'과 일치한다. '唐武后時, 高勾麗人大祚榮, 走保遼東.'에서 '唐武后時'는 『신당서』와 『구당서』에는 모두 '만세통천중'이라 했고, '走保遼東'은 『신당서』의 '東走,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과 연결시킬 수 있다.

『신당서』는 동주한 주체를 '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이라 하고, 『고려사』는 '高勾麗人大祚榮'이라 한다. '高勾麗人大祚榮'은 발해 건국자에 대한 『고려사』의 주요한 인식이며, 『구당서』의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와 연결된다. '고구려인 대조영'과 『고려사』 첫 부분의 '渤海本粟末靺鞨'이 서로 배치되는 의미가 아니라면, 『고려사』는 속말말갈을 고구려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은 『신당서』에서는 '睿宗先天中, 遣使拜祚榮為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為忽汗州, 領忽汗州都督, 自是始去靺鞨號, 專稱渤海.'라 하고, 『구당서』는 '睿宗先天二年, 遣郎將崔訢往冊拜祚榮為左驍衛員外大將軍·渤海郡王'이었다.

'幷有扶餘肅愼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 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 衆數十萬.'은 『신당서』의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海北諸國. …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為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를 참고한 것이라 하겠다. 발해가 '隣于我境'이라는 것은 『구당서』의 '南與新羅相接'과 통한다.

그 이후 발해의 멸망에 대한 기술은 『요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而與契丹世讎. 至是, 契丹主謂左右曰: 世讎未雪, 豈宜安處. 乃大擧攻渤海大諲譔'은 천찬(天贊) 4년 12월 을해(乙亥)조의 '詔曰 所謂兩事, 一事已畢, 惟渤海 世讎未雪, 豈宜安駐. 乃擧兵親征渤海大諲譔.'[35]과 내용이 일

35 『遼史』 권2, 本紀 제2, 太祖 耶律阿保機 下, 天贊 4년 12월 乙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치한다. 그리고 '圍忽汗城. 大諶譔戰敗乞降, 遂滅渤海.'는 천찬 5년 춘정월(春正月) 병인(丙寅)조의 '是夜圍忽汗城. 己巳, 諶譔請降.'[36]의 내용과 통한다. 마지막 '於是, 其國人來奔者相繼.'는 발해 유민의 고려로의 내투를 설명한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⑪의 『고려사절요』의 발해사 개요는 『고려사』와 비슷하지만 발해 멸망 설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려사』와 비교할 때, 거란주가 발해 공격에 앞서 좌우 신하에게 한 말인 "世讎未雪, 豈宜安處."가 생략되고, 대인선의 항복과 발해 멸망을 간단히 '滅之'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改爲東丹國"이라며, 발해를 동단국으로 개칭 사실을 『요사』에서 추가하였으나, 마지막의 '於是, 其國人來奔者相繼'은 삭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발해에 대한 기본 인식은 '渤海本粟末靺鞨'을 비롯한 지리, 관제 등은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취하고, 발해 멸망 서술은 『요사』의 내용과 통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주요한 발해 인식인 '高勾麗人大祚榮'은 『구당서』의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와 연결되며, 앞에 기술된 '渤海本粟末靺鞨'에도 부합되는 표현일 것이다. 결국 대조영은 속말말갈이며, 속말말갈은 고구려별종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삼국사절요』에서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이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삼국사절요』는 1476년(성종 7) 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이 편찬한 단군조선으로부터 삼국의 멸망까지를 다룬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조선시대 삼국시대 역사 인식의 기본 틀이 된 점, 그리고 『삼국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자료를 일부 보완한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37]

---

36 『遼史』 권2, 本紀 제2, 太祖 耶律阿保機 下, 天贊 5년 春正月 丙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국사절요』에는 11건의 발해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38] 그 가운데 발해국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과 732년 발해와 당 사이의 전쟁에 대한 기술은 〈표 6〉과 같다.

〈표 6〉 『삼국사절요』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⑫	十八年 … 渤海郡王太祚榮卒.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祚榮父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勾麗餘燼, 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旦, 先天中 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爲忽汗州都督. 自是始去靺鞨之號, 稱渤海. 至是死, 其國私謚爲高王. 子武藝嗣, 斥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 私改年號曰仁安.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삼국사절요』 권제11, 성덕왕 18년(719)	
⑬	三十二年 秋七月, 帝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郎金思蘭歸, 仍授王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渤海南鄙. 諭曰: 靺鞨渤海, 外稱藩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爲掎角. 帝又曰: 聞舊將金庾信孫允中之賢, 可爲將, 遣之. 仍賜允中金帛. 於是王命允中等四將, 率兵會唐軍伐渤海.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思蘭本王族, 先因入朝, 恭謹有禮, 因留宿衛, 及是乃還.	『삼국사절요』 권제11, 성덕왕 32년 (733)	

〈표 6〉의 자료 ⑫의 『삼국사절요』 성덕왕 18년조도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가령, '渤海本粟末靺鞨'이라 한 점, 걸걸중상과 대조영을 부자 관계라 한 점, '渡遼水 保太白山東'이라 한 점이다. 그리고 '先天中 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爲忽汗州都督. 自是始去靺鞨之號, 稱渤海. 至是死, 其國私謚爲高王. 子武藝嗣, 斥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 私改年號曰仁安.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의 부분이 『신당

37 『사료총서』 권1, 『삼국사절요』 '해제', 122쪽 참조.

38 김종복,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한국고대사연구』 62, 182~1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발해전의 내용이다. 『구당서』 발해전과 관련된 부분은 '高勾麗別種'이라 하고, 대조영이 "驍勇善騎射. 高勾麗餘燼, 稍稍歸之"하여 건국하였다고 한 부분이 서로 통한다.

『삼국사절요』가 발해국의 성격을 고구려와 연관시키는 점에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와 같다. 『삼국사절요』의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은 '발해는 속말말갈이니, 곧 고구려별종'이라는 의미이니, 이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高勾麗人大祚榮'이라 한 것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39] 나아가 조선 후기 발해사 자료 중에서도 『삼국사절요』의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과 유사한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조선 시기 발해 자료의 '고려별종' 관련 기록

내용	출전
唐以大祚榮 爲渤海郡王.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國通鑑』 권제10, 新羅紀, 성덕왕 12년 조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史纂要』 권제1 중, 성덕왕 18년
東史曰, 渤海國本粟末靺鞨, 即高勾麗別種	『東國地理志』 부(附) 발해국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也	『東史補遺』 권제2, 성덕왕 18년
靺鞨本粟末靺鞨, 高勾麗別種	『東事』 권제3, 말갈
唐以大祚榮爲渤海郡王.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國通鑑提綱』 권제11, 성덕왕 11년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東國歷代總目』 성덕왕 12년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也	『東史會綱』 권제3 하, 성덕왕 12년
許眉叟作渤海列傳, 頗欠詳. 渤海本粟末靺鞨, 高句麗別種	『星湖僿說』 권제21, 經史門, 渤海
[補]地志曰: 渤海國, 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增補文獻備考』 권제13, 輿地考1, 渤海國

39 송나라 사람들의 '渤海本高麗之別種'(『宋史』 권491, 列傳제250, 外國7, 渤海國)이라는 인식도 비슷한 의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밖에 『동사강목(東史綱目)』 권제4 하, 효소왕 9년조의 "有乞乞仲象者, 與高句麗別種靺鞨粟末部落乞四比羽及高句麗餘種"도 '고구려별종인 靺鞨 粟末部落의 걸사비우와 고구려 여종'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은 속말말갈이 고구려별종이라는 뜻이 된다. 또한 『동사강목』 권제6 상, 경종 4년조에 인용된 『송원강목(宋元綱目)』이 '渤海本高句麗別種'이라 한 것도 『고려사』, 『고려사절요』, 『삼국사절요』의 발해 인식과 다르지 않다. 『삼국사절요』에서 표명된 속말말갈이 고구려별종이며, 고구려인이라는 인식은 조선 전기의 공통된 발해사 인식이고, 그 이후의 발해사 자료에서도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절요』에 있는 성덕왕 때의 발해와의 전쟁 관련 기록인 자료 ⑬(표 6)은 〈표 1〉에 제시한 자료 ②를 참조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32년조의 내용(②)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 그리고 『책부원구』의 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현종의 칙유는 『삼국사기』 권제43, 「열전」 제3, 김유신 하 부록 손자 윤중·윤문조에 기록되어 있다.

3.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통감』은 간행 이후 조선의 학자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동국통감』의 고대 부분은 『삼국사절요』, 고려시대는 『고려사절요』를 근간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40]

『동국통감』에는 13건의 발해사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 발해국의 건국으로부터 멸망, 유민에 이르기까지 발해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41]

〈표 8〉의 자료 ⑭의 내용은 『신당서』 백제전(百濟傳)을 인용한 것이다.[42] 자

40 박인호, 2021, 앞의 책, 91~93쪽.

41 김종복, 2011, 앞의 글, 182~185쪽.

42 隆不敢入舊國, 寄治高麗死. 武后又以其孫敬襲王. 而其地已爲新羅渤海靺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8〉 『동국통감』의 발해 관련 기록

구분	내용	출전	비고
⑭	六年【唐嗣聖三年】, … 武后 以高臧孫寶元 爲朝鮮郡王, 又以義慈孫敬襲百濟王. 其舊地, 已爲我國渤海靺鞨所分.	『동국통감』 권제9, 「新羅紀」 신문왕 6년(686)	
⑮	十二年【唐玄宗開元元年】(713년) … 唐以大祚榮 爲渤海郡王.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祚榮父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句麗餘燼, 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諸國. 中宗時, 遣子入侍, 至是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爲忽汗州, 領忽汗州都督. 自是始去靺鞨號, 專稱渤海.	『동국통감』 권제10, 「新羅紀」 성덕왕 12년(713)	
⑯	二十五年【唐開元十四年】, 唐以渤海大門藝爲大驍衛將軍. 初黑水靺鞨使者朝唐, 帝以其地建黑水州, 置長史. 武藝召其下謀曰: 黑水始假途於我, 與唐通, 今請唐官, 不吾告, 是必與唐, 謀攻我也. 乃遣弟門藝, 發兵擊黑水. 門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 是背唐也. 唐大國, 兵萬倍我, 與之産怨, 我且亡. 昔高勾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彊,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衆比高勾麗三之一, 王將違之, 無乃不可乎. 武藝不聽, 强遣之. 門藝懼奔唐, 詔拜左驍衛將軍. 武藝使使暴門藝罪惡, 請誅之. 有詔處之安西, 好報曰: 門藝窮來歸我, 誼不可殺, 已投之惡地. 幷留使者不遣, 詔李道邃諭旨, 武藝知之. 上表曰: 大國當示人以信, 豈得爲此欺誑. 帝以道邃等漏洩, 左遷之, 暫遣門藝詣嶺南, 以報之.	『동국통감』 권제10, 「新羅紀」 성덕왕 25년(726)	
⑰	三十二年【唐開元二十一年】 秋七月, 帝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郎金思蘭歸, 仍授王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渤海南鄙. 諭曰: 靺鞨渤海, 外稱藩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爲掎角. 帝又曰: 聞舊將金庾信孫允中之賢, 可爲將, 遣之, 仍賜允中金帛. 於是王命允中等四將, 率兵, 會唐軍, 伐渤海.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思蘭本王族, 先因入朝, 恭謹有禮, 因留宿衛, 及是乃還.	『동국통감』 권제10, 「新羅紀」 성덕왕 32년(733)	
⑱	五年【唐大和四年】(830), 渤海王仁秀卒, 仁秀祚榮弟野勃四世孫也. 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宇, 唐詔加檢校司空. 自祚榮以來, 數遣諸生, 詣京師大學,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以肅愼故地爲上京, 曰龍泉府, 領龍湖渤三州. 其南中京, 曰顯德府, 領盧顯鐵湯榮興六州.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塩穆賀四州. 沃沮故地爲南京, 曰南海府, 領沃	『동국통감』 권제11, 「新羅紀」 흥덕왕 5년(8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晴椒三州. 高麗故地爲西京, 曰鴨淥府, 領神桓豊正四州. 曰長嶺府, 領瑕何二州. 扶餘故地爲扶餘府, 常屯勃兵扞契丹, 領扶仙二州. 鄚頡府領鄚高二州. 挹婁故地爲定理府, 領定潘二州. 安邊府領安瓊二州. 卒賓故地爲卒賓府, 領華益建三州. 拂涅故地爲東平府, 領伊蒙沱黑比五州. 鐵利故地爲鐵利府, 領廣汾蒲海義歸六州. 越喜故地爲懷遠府, 領達越懷紀富美福邪芝九州. 安遠府領寧郿慕常四州. 又郢銅涑三州, 爲獨奏州. 涑州以其近涑沫江, 蓋所謂粟末水也. 其禮樂官府制度, 大抵倣象中國云.		
⑲	三年【後唐同光四年 明宗天成元年 甄萱三十五年 高麗太祖九年】(926) 春, 契丹滅渤海. 契丹主自去年冬, 侵渤海, 攻西鄙諸部, 遂進圍扶餘城, 至是拔之. 遂進兵圍忽汗城, 渤海王大諲譔戰敗乞降. 契丹主命以兵衛諲譔及族屬出城, 改渤海爲東丹國, 忽汗爲天福城, 冊太子倍爲人皇王, 以主之. 置諲譔於臨潢之西, 賜名曰烏魯古. 於是, 渤海世子大光顯 及 將軍申德 禮部卿大和鈞 均老 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顚 左右衛將軍大審理 小將冒豆干 檢校開國男朴漁 工部卿吳興等, 率其餘衆, 前後來奔高麗者 數萬戶. 麗王待之甚厚, 賜光顯姓名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 僚佐皆賜爵.	『동국통감』 권제12, 「新羅紀」 경애왕 3년(926)	
⑳	四年【宋大平興國四年】 夏六月 … 渤海酋帥大鸞河降于宋, 宋以爲渤海都指揮使. 鸞河祚榮之遺種也.	『동국통감』 권제13, 「高麗紀」 경종 4년(979)	

료 ⑮는 발해사에 대한 개요적 기술이다. 내용 중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諸國. 中宗時, 遣子入侍,"는 『신당서』 발해전의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海北諸國"을 전재하고, '中宗時, 遣子入侍,'는 이어지는 "中宗時, 使侍御史張行岌招慰, 祚榮遣子入侍. 睿宗先天中,"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삼국사절요』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43] 다만, 『동국통감』이 발해

所分, 百濟遂絶. (『新唐書』 권220, 列傳 145, 東夷 百濟傳)

43 十八年 … 渤海郡王太祚榮卒.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祚榮父乞乞仲象與其徒, 渡遼水 保太白山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勾麗餘燼, 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旦, 先天中 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爲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말갈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역사와 관계가 없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은 앞의 전후 문장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44] 이것은 『동국통감』의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에서 앞의 '渤海本粟末靺鞨'이라는 구절에 사로잡혀 다음의 '卽高勾麗別種'을 도외시한 해석이다. 『동국통감』은 앞의 『삼국사절요』와 마찬가지로 속말말갈을 고구려별종, 즉 고구려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 8〉 ⑯의 『동국통감』 성덕왕 25년(726)조에서 당의 흑수주 설치, 대문예와 대무예의 흑수 토벌 다툼, 대문예의 당 망명과 그 처리에 대한 기사는 고려, 조선의 사서 중에서 『동국통감』이 처음으로 인용하는 것이다. 내용은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전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앞부분의 "二十五年【唐開元十四年】, 唐以渤海大門藝爲大驍衛將軍."은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開元七年, 祚榮死, 玄宗遣使弔祭, 乃冊立其嫡子桂婁郡王大武藝襲父為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忽汗州都督,"이 원문이다.[45] 그러나 『동국통감』은 대무예를 대문예로, 좌효위대장군을 대효위장군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다. '初黑水靺鞨使者朝唐' 이하 부분에 대한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未幾, 黑水靺鞨使者入朝, 帝以其地建黑水州, 置長史臨總. 武藝召其下謀曰, 黑水始假道於我與唐通, 異時請吐屯於突厥, 皆先告我, 今請唐官不吾告, 是必與唐腹背攻我也. 乃遣弟門藝及舅任雅相發兵擊黑水. 門藝嘗質京師, 知利害, 謂武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 是背唐也. 唐, 大國, 兵萬倍我, 與之產怨, 我且亡.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為敵, 可謂雄彊,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眾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武藝不從. 兵至境, 又以書固諫. 武藝怒, 遣從兄壹夏代將, 召門藝, 將殺之. 門藝懼, 傴路自歸, 詔拜
>
> 汗州都督. 自是始去靺鞨之號, 稱渤海. 至是死, 其國私謚爲高王. 子武藝嗣, 斥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 私改年號曰仁安.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삼국사절요』 권제11, 성덕왕 18년)

44 石井正敏, 1978. 앞의 글; 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35쪽.

45 『舊唐書』 권199下, 列傳 제149 下, 北狄, 渤海靺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左驍衛將軍. 武藝使使暴門藝罪惡, 請誅之. 有詔處之安西, 好報曰, 門藝窮來歸我, 誼不可殺, 已投之惡地. 幷留使者不遣, 別詔鴻臚少卿李道邃·源復諭旨. 武藝知之, 上書斥言 陛下不當以妄示天下, 意必殺門藝. 帝怒道邃·復漏言國事, 皆左除, 而陽斥門藝以報. (『신당서』 권219, 열전 제144, 북적, 발해)

또한 〈표 8〉의 자료 ⑰의 성덕왕 32년조는 『삼국사절요』와 일치한다.[4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사절요』의 내용은 『삼국사기』 본기와 열전의 내용을 합친 것이다. 『동국통감』은 『신당서』 발해전의 발해 관련 내용을 신라사를 다루며 함께 인용하고 있다. 『동국통감』이 발해의 역사를 신라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 인식의 체계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동국통감』이 신라와 발해 중 신라를 정통(正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7]

『동국통감』은 대인수의 즉위, 해동성국, 발해 5경 15부 62주 기록을 흥덕왕 5년조(자료 ⑱)에 편성하였다. 발해가 해동성국이 된 것을 이때로 간주한 것이다. 내용은 대부분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48]

---

46 『삼국사절요』 권제11, 성덕왕 32년조.

47 『동국통감』이 발해를 우리 역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고려 태조의 거란 사신 처우에 대한 『동국통감』 찬자의 평이다. 태조 25년(942) 10월, 거란의 사신을 귀양보내고, 낙타를 굶어 죽게 한 일(『고려사』 권2, 세가 권제2, 태조 25년 10월)에 대하여 '契丹之失信於渤海, 何與於我, 而爲渤海報復, 拒其來使'(『동국통감』 권제13, 高麗紀, 태조 25년)라고 한 비판이 발해가 고려·조선과 관계가 없다는 『동국통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石井正敏, 1978, 앞의 글; 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34~36쪽), 이 기사에는 국방과 외교 문제에 국한되고 있으며 발해 민족문제에 대한 본질적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이만열, 1981, 「朝鮮後期의 渤海史認識」, 『韓沽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백산자료원 편, 1989, 『渤海史 硏究 論選集』, 59~61쪽). 그러므로 이 기록은 거란에 대하여 和親이 아닌 적대 정책을 취한 태조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 ⑲의 경애왕 3년조에 발해의 멸망을 『요사』의 내용을 인용하며 서술하고 있다. '忽汗爲天福城, 冊太子倍爲人皇王, 以主之. 置諶讌於臨潢之西, 賜名曰烏魯古.'라고 한 부분은 『동국통감』이 처음으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⑳은 발해 대조영의 후손인 대난하(大鸞河)가 송에 투항하자 송이 발해도지휘사로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송사(宋史)』에 기록되어 있다.

> 太平興國四年, 太宗平晉陽, 移兵幽州, 其酋帥大鸞河率小校李勛等十六人, 部族三百騎來降, 以鸞河為渤海都指揮使. … 九年春, 宴大明殿, 因召大鸞河慰撫久之. 上謂殿前校劉延翰曰: 「鸞河, 渤海豪帥, 束身歸我, 嘉其忠順. 夫夷落之俗, 以馳騁為樂, 候高秋戒候, 當與駿馬數十匹, 令出郊遊獵, 以遂其性.」因以縉錢十萬并酒賜之. (『宋史』 권491, 列傳 제250, 外國 7, 渤海國)

대난하 기록을 인용하며 조선에서 처음으로 『송사』가 인용된 것이다. 『송사』는 『요사』, 『금사(金史)』와 함께 원 지정(至正) 3~5년(1343~1345) 사이에 탈탈(脫脫) 등이 북송(北宋)과 남송(南宋)(960~1279)의 역사를 정리한 정사이다. 대난하에 대한 서술은 『동국통감』 이후 『성호사설(星湖僿說)』과 『동사강

---

48 從父仁秀立, 改年建興, 其四世祖野勃, 祚榮弟也. 仁秀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宇, 有功, 詔檢校司空·襲王. … 初, 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為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以肅慎故地為上京, 曰龍泉府, 領龍·湖·渤三州. 其南為中京, 曰顯德府, 領盧·顯·鐵·湯·榮·興六州. 濊貊故地為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鹽·穆·賀四州. 沃沮故地為南京, 曰南海府, 領沃·晴, 椒三州. 高麗故地為西京, 曰鴨淥府, 領神·桓·豐·正四州; 曰長嶺府, 領瑕·河二州. 扶餘故地為扶餘府, 常屯勁兵扞契丹, 領扶·仙二州; 鄚頡府領鄚·高二州. 挹婁故地為定理府, 領定·潘二州; 安邊府領安·瓊二州. 率賓故地為率賓府, 領華·益·建三州. 拂涅故地為東平府, 領伊·蒙·沱·黑·比五州. 鐵利故地為鐵利府, 領廣·汾·蒲·海·義·歸六州. 越喜故地為懷遠府, 領達·越·懷·紀·富·美·福·邪·芝九州; 安遠府領寧·郿·慕·常四州. 又郢·銅·涑三州為獨奏州. 涑州以其近涑沫江, 蓋所謂粟末水也. … 大抵憲象中國制度如此. (『新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渤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목(東史綱目)』에도 보인다.[49]

이상의 『동국통감』의 발해 건국, 해동성국, 지리, 멸망, 고려 관련 내용은 조선의 발해 역사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Ⅳ.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두 권의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은 신라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편찬된 발해사 자료의 원문과 역주 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국내 발해사 연구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에 수록된 조선 전기까지의 발해사 자료의 사료명이 있는 중국 측 인용 문헌을 분석하였다. 발해사에 대한 초기 기록인 고려 시기 자료는 필요에 따라 서명이 없더라도 출전을 추정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삼국사기』는 신라 본기 등과 같이 국내 자료가 소략할 경우에는 중국 사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삼국사기』의 발해와 관련된 서술에서 보이는 중국 문헌명은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이다. 발해국의 남해·압록·부여·책성의 네 부(府)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인데, 그중 책성부로부터 신라 천정군 사이에 모두 39개의 역(驛)이 있다는 내용이며, 이곳이 유일한 출처이다.

출전을 밝히지 않은 발해사 관련 내용 중 732~733년 발해와 당, 신라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다. 733년 발해가 당의 등주(登州)를 침입하자, 당 현종(玄宗)이 숙위로 있던 김사란(金思蘭)을 신라로 귀국하도록 하여 성덕왕(聖德王)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였으나 공이 없이 귀환했다는 내용이다. 『구

49 後數年, 其酋首大鬻河降于宋, 宋以爲渤海都指揮使. 祚榮之遺種也. (『성호사설』 권제21, 經史門, 渤海)
己卯四年, 是歲, 宋以大鬻河爲渤海都指揮使. (『동사강목』 권제6 상, 경종 4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발해전, 그리고 『책부원구(冊府元龜)』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영역을 논하는 중에 기술된 발해와 관련된 내용은 『신당서』 백제전과 『신당서』 신라전에 있고, 『신당서』 발해전은 잘못 인용한 부분도 있다.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발해 기사도 고려와 조선시대 사서에서 주요하게 인용되었다. 『삼국사기』에서 발해를 별도로 다루지 않은 것과 달리, 일연(一然)은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 말갈발해(靺鞨渤海)조를 설정함으로써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적극 반영하였다.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다양한 자료 가운데 중국 문헌은 『통전(通典)』, 『군국지(郡國志)』, 『후위서(後魏書)』, 『지장도(指掌圖)』가 있다. 『통전』은 당나라 두우(杜佑, 735~812)가 편찬한 것인데, 현재의 『통전』에는 말갈발해조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 별도의 자료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 멸망 이전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인용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장도』이다. 발해의 위치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지장도』는 송대에 만들어진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이고, 설명은 그 안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古今華夷區域摠要圖)〉를 보고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와 같이 발해 초기 국호를 진단(震旦)이라 표기한 자료에는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사찬요(東史纂要)』,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동사보유(東史補遺)』 등이 있었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제왕운기(帝王韻紀)』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발해 건국과 발해 유민의 고려 내투에 대하여 기술하고, 『오대사(五代史)』에서 '발해본속말갈(渤海本粟靺鞨)'이라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발해의 건국이 태백산(太白山) 부근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 이 부근에서 1차로 정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현(李齊賢, 1288~1367)이 1342년에 편찬한 『역옹패설(櫟翁稗說)』에는 '발해와 고려가 혼인(婚姻)한 사이'란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호승 말라(襪囉)와 고려 태조의 이야기를 본문에 기술하고, 이어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주(細註)인 송백(宋白)의 말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고려에 이어 건국한 조선은 창업의 정당성을 역사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 시기에 대한 역사 정리 작업에 나섰다.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발해에 대한 기본 인식인 '渤海本粟末靺鞨'을 비롯한 지리, 관제 등은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취하고, 발해 멸망 서술은 『요사(遼史)』의 내용과 통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주요한 발해 인식인 '고구려인대조영(高勾麗人大祚榮)'은 『구당서』 발해전의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그리고 『신당서』 발해전의 '渤海本粟末靺鞨'과도 부합되는 표현이다. 결국 대조영은 속말말갈이며, 속말말갈은 고구려별종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는 1476년 간행된 편년체의 역사서로서 조선시대의 삼국시대 역사 인식의 기본 틀이 되었다. 『삼국사절요』도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삼국사절요』가 발해국의 성격을 고구려와 연관시키는 점에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와 같다. 『삼국사절요』의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은 '발해는 속말말갈이니, 곧 고구려별종'이라는 의미이니, 이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高勾麗人大祚榮'이라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속말말갈이 고구려별종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인식은 조선 전기의 공통된 발해사 인식이고, 그 이후의 발해사 자료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조선 후기 발해사의 한국사 편입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은 간행 이후 조선의 학자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동국통감』의 고대 부분은 『삼국사절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고려사절요』를 근간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동국통감』의 발해사 관련 서술은 전체적으로 『삼국사절요』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동국통감』이 발해가 말갈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역사와 관계가 없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은 앞의 전후 문장을 오해한 것이다. 『동국통감』은 『삼국사절요』와 마찬가지로 속말말갈을 고구려별종, 즉 고구려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국통감』이 발해의 역사를 신라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 인식의 체계상으로도 의미가 작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않다. 『동국통감』이 신라와 발해 중 신라를 정통(正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국통감』은 발해 유민인 대난하(大鸞河)와 관련하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송사(宋史)』를 인용하였다. 『동국통감』의 발해 건국, 해동성국, 지리, 멸망, 고려 관련 내용은 조선의 발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高麗史』.

『舊唐書』.

『東國歷代總目』.

『東國地理志』.

『東國通鑑』.

『東國通鑑提綱』.

『東事』.

『東史綱目』.

『東史補遺』.

『東史纂要』.

『東史會綱』.

『文苑英華』.

『文獻通考』.

『三國史記』.

『三國史節要』.

『星湖僿說』.

『宋史』.

『新唐書』.

『遼史』.

『一切經音譯』.

『資治通鑑』.

『帝王韻紀』.

『增補文獻備考』.

『冊府元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행본

권은주·강성봉·김진광·임상선, 2021,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총서 62,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권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11, 『舊五代史·新五代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박인호, 2021, 『한국사학사대요』, 이회문화사.

이강래, 1996,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논문

김종복,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한국고대사연구』 62.

송영대, 2019, 「『삼국사기』·『삼국유사』 찬자의 『통전』 활용과 인식 고찰」, 『韓國史硏究』 186.

이만열, 1981, 「朝鮮後期의 渤海史認識」, 『韓沽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백산자료원 편, 1989, 『渤海史 硏究 論選集』.

임상선, 2007,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의 '指掌圖'」, 『동북아역사논총』 18.

_____, 2019, 「8세기 신라의 渤海·唐 전쟁 참전과 浿江 보루 설치」, 『新羅史學報』 45.

전덕재, 2018,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石井正敏, 1978,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新羅～李朝」,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5;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자료에 인용된 중국 사서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두 권의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2021)은 신라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편찬된 발해사 자료의 원문과 역주 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국내 발해사 연구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사료 편에 수록된 조선 전기까지의 발해사 자료의 사료명이 있는 중국 측 인용 사서를 분석하였다. 발해사에 대한 초기 기록인 고려 시기 자료는 필요에 따라 서명이 없더라도 출전을 추정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 이외에 출전을 밝히지 않은 기록은 대체로 『신당서(新唐書)』와 『구당서(舊唐書)』 발해전(渤海傳)과 『책부원구(冊府元龜)』의 기록을 참조하였고, 최치원(崔致遠)의 글은 다른 계통의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의 발해 기사는 그 후의 발해사 자료에서도 재인용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기이편(紀異篇)에 말갈발해(靺鞨渤海)조를 설정함으로써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적극 반영하였다. 말갈발해조에 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 다양한 자료 가운데 중국 문헌은 『통전(通典)』, 『군국지(郡國志)』, 『후위서(後魏書)』, 『지장도(指掌圖)』가 있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제왕운기(帝王韻紀)』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발해 건국과 발해 유민의 고려 내투에 대하여 기술하고, 『오대사(五代史)』에서 '발해본속말갈(渤海本粟靺鞨)'이라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발해의 건국이 태백산(太白山) 부근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 이 부근에서 1차로 정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현(李齊賢, 1288~1367)이 1342년에 편찬한 『역옹패설(櫟翁稗說)』에는 '발해와 고려가 혼인(婚姻)한 사이'라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고려에 이어 건국한 조선은 창업의 정당성을 역사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 시기에 대한 역사 정리 작업에 나섰다.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발해에 대한 기본 인식인 『신당서』 발해전과 『요사(遼史)』의 내용과 통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주요한 발해 인식인 '고구려인대조영(高勾麗人大祚榮)'은 『구당서』 발해전의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그리고 『신당서』 발해전의 '渤海本粟末靺鞨'과도 부합되는 말이다. 결국 대조영은 속말말갈이며, 속말말갈은 고구려별종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는 1476년 간행된 편년체의 역사서로서 조선시대의 삼국시대 역사 인식의 기본 틀이 되었다. 『삼국사절요』도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삼국사절요』의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은 '발해는 속말말갈이니, 곧 고구려별종'이라는 의미이니, 이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高勾麗人大祚榮'이라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속말말갈이 고구려별종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인식은 조선 전기의 공통된 발해사 인식이고, 그 이후의 발해사 자료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조선 후기 발해사의 한국사 편입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의 발해사 관련 서술은 전체적으로 『삼국사절요』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동국통감』은 『삼국사절요』와 마찬가지로 속말말갈을 고구려별종, 즉 고구려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국통감』이 발해의 역사를 신라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 인식의 체계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동국통감』이 신라와 발해 중 신라를 정통(正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국통감』은 발해 유민인 대난하(大鸞河)와 관련하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송사(宋史)』를 인용하였다. 『동국통감』의 발해 건국, 해동성국, 지리, 멸망, 고려 관련 내용은 조선의 발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제왕운기(帝王韻紀)』, 『역옹패설(櫟翁稗說)』,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inese Original Source Cited in Balhae History Data from Goryeo to the Early Joseon Period

Lim Sangsun

The literature cited by the Chinese side with the name of the historical data of the period up to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included in the *Balhae History Data Series*, was analyzed.

Samguksagi(『三國史記』) mostly referred to *Shindangseo*(『新唐書』), *Gudangseo*(『舊唐書』), Balhaejeon(渤海傳) and *Chaebuwongu*(『冊府元龜』) for the records that did not disclose the source other than Gatam(賈躭)'s *Gogeumgungukji*(『古今郡國志』). The article on Balhae in *Samguksagi* was re-quoted in later records of Balhae history.

Samgukyusa(『三國遺事』) reflected the history of Balhae as part of Korean history by setting up the Malgal Balhae(靺鞨渤海) article in the Gii section(紀異篇). Among the various materials cited in Malgalbalhaejo, Chinese literature includes *Tongjeon*(『通典』), *Gungukji*(『郡國志』), *HuWuiseo*(『後魏書』), *Jijangdo*(『指掌圖』).

Jewangungi(『帝王韻紀』) also deals with Balhae as part of Kore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istory. It describes the founding of Balhae and the refugees of Balhae, and quotes the contents of 'Malgal from Balhae's origin' in *Ohdaesa*(『五代史』). The fact that Balhae was founded near Mt.Taebaek(太白山) indicates that Balhae was first settled in this area during the founding process. *Yeokongpaeseol*(『櫟翁稗說』) quoted the record of *Zizhi-Tongjian*(『資治通鑑』), 'the time between Balhae and Goryeo(高麗) were married'.

Joseon(朝鮮), which was founded following Goryeo, set out to organize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 in order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its founding in history. It is in line with the contents of *Sindangseo* Balhaejeon and *Yosa*(『遼史』), the basic perception of Balhae in *Goryeosa*(『高麗史』) and *Goryeosajeolyo*(『高麗史節要』). 'Koguryo Indaejoyeong(高勾麗人大祚榮)', a major perception of Balhae in *Goryeosa* and *Goryeosajeolyo*, is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in *Gudangseo* before Balhae, and '渤海本粟末靺鞨' in *Shindangseo* before Balhae. A word that is too congruent. In the end, Dae Jo-yeong(大祚榮) means Koguryo people(高句麗人).

Samguksajeolyo(『三國史節要』) is a chronicle of history published in 1476, and it quotes a lot of contents from *Shindangseo* Balhaejeon. '渤海本粟末靺鞨, 卽高勾麗別種' in *Samguksajeolyo* means 'Balhae is the one who speaks secretly, that is, Koguryo byeoljong', which is in line with *Goryeosa* and *Goryeosajeolyo*, '高勾麗人大祚榮'. The perception that Sokmalmalgal(粟末靺鞨) is a Koguryo byeoljong(高句麗別種) and a Koguryo people(高句麗人) is a common perception of Balhae histor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Balhae history materials after that also followed. Furthermore, Balhae in the late Joseon Dynasty became a clue to the perception that it was Korea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Balhae in *Dongguktonggam*(『東國通鑑』) has many similarities with the contents of *Samguksajeolyo* as a whole. *Dongguktonggam* considers Sokmalmalgal as a Koguryo byeoljong, that is, Koguryo people, just like Samguksajeolyo. The fact that *Dongguktonggam* describes the history of Balhae together with the history of Silla is not small in terms of the systemic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t is clear that *Dongguktonggam* regards Silla as authentic among Silla and Balhae, but it does not exclude the history of Balhae from our history. *Dongguktonggam* cited *Songsha*(『宋史』) for the first time in Joseon in relation to Daenanha(大鸞河), a refugee from Balha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founding of Balhae, Haedong Seongguk(海東盛國), geography, destruction, and Goryeo in *Dongguktonggam*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Balhae in Joseon.

Keywords: *Samguksagi*(『三國史記』), *Samgukyusa*(『三國遺事』), *Jewangungi*(『帝王韻紀』), *Yeokongpaeseol*(『櫟翁稗說』), *Goryeosa*(『高麗史』), *Goryeosajeolyo*(『高麗史節要』), *Samguksajeolyo*(『三國史節要』), *Dongguktonggam*(『東國通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2

유인식의 『대동사(大東史)』에 보이는 '대동'과 발해 인식

권은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대동'의 개념과 범위
III. 발해 인식과 '대동사'에서의 위치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현재 한국 학계에서 발해사의 위치는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시대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사의 한 시대를 차지할 만큼 시기 구분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연구자의 규모나 연구 주제의 폭은 크지 않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기본적으로 발해인의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해사가 한국사 체계에 가장 늦게 편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며 돌궐·신라·당·일본 등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외교 교섭에서 한문으로 쓰여진 외교문서를 주고받았다. 특히 720~730년대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 및 대문예의 당 망명으로 빚어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과 주고받았던 외교문서와 727년 일본에 보낸 무왕의 국서를 보면 발해는 일찍부터 전문적인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 이런 역량은 한편으로 발해가 이른 시기부터 왕조의 역사를 기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발해는 제3대 문왕 대에 이미 황제국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후 당나라로부터 '수레와 글이 본래 일가를 이룬다(車書本一家)'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문화 발전을 이뤄냈다. 따라서 유득공은 『발해

---

* 투고: 2023년 7월 23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1 발해 국서(외교문서)와 관련해서는 권은주, 2018, 「발·일 '國書' 분쟁과 '中臺省牒'」, 『大丘史學』 130; 김종복, 2017, 「8세기 초 발해·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신라의 외교전략-나당간의 국서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126; 연민수, 2012, 「발해·일본의 교류와 상호인식-國書의 형식과 年報問題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1; 廣瀨憲雄, 2012, 「渤海の対日本外交文書について一六国史と『類聚国史』の写本調査からー」, 『続日本紀研究』 398, 続日本紀研究会; 黃渭周, 2007, 「渤海 外交文書의 實狀과 그 文體的 特徵」, 『大東漢文學』 26; 宋基豪, 1993, 「渤·日 國書를 중심으로 본 9세기의 발해사회」, 『汕耘史學』 7, 고려학술문화재단; 山田英雄, 1974, 「日唐羅渤海間の國書について」, 『伊藤信夫教授還曆記念 日本考古學 古代史論集』, 吉川弘文館 등의 연구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의 서문에서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탄하며 "어떤 사람은 '발해가 요나라한테 멸망되었는데 고려가 무엇으로 그 역사를 짓겠는가?'라고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발해는 중국을 본받았으니 반드시 사관을 두었을 것이다"[2]라고 하였다.

발해 멸망 이후 발해의 역사 기록은 사라졌지만,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간접적으로 남은 기록과 주변국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 발해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선학들은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조들이 남긴 기록 속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전근대 시기의 사료 및 근대 사가들이 남긴 역사서의 발해사 인식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하다.[3] 이 글 역시 그 일환이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유인식의 『대동사』[4]는 넓은 의미에서 민족주의

---

2 유득공, 『발해고』 서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2, 동북아역사재단, 381쪽.

3 발해사 인식을 시대별로 분석·정리한 글로는 김진광, 2022, 「조선시대 사서에 담긴 발해 지리 인식의 추이 검토」, 『白山學報』 124; 김은국, 2019,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계승 인식」, 『한국고대사 계승 인식 I 전근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김종복, 2006, 「渤海史 認識의 推移-南北國時代論을 중심으로-」, 『史林』 26; 이효형, 2004, 「고려시대 발해·발해 유민 인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53; 최혜주, 2004, 「한말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박인호, 2004, 「전통시대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鄭鎭憲, 1999, 「渤海史 史料와 渤海史 認識의 變遷-高麗時代의 史書에 실린 渤海 記事를 중심으로-」, 『高句麗硏究』(현 『高句麗渤海硏究』) 6; 趙仁成, 1994, 「高麗 初·中期의 歷史繼承意識과 渤海史 認識」,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古代篇·高麗時代篇』, 刊行委員會; 全瑛河, 1993, 「韓末·日帝時期의 新羅·渤海認識」, 『泰東古典硏究』 10; 崔圭成, 1992, 「民族主義史學者들의 統一新羅와 渤海에 대한 歷史認識」, 『산운사학』 6집; 한규철, 1992, 「고려에서 독립운동기까지의 발해사 인식」, 『역사비평』 18호; 宋基豪, 1991,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발해관」, 『韓國史硏究』 72; 李萬烈, 1981, 「朝鮮後期의 渤海史 認識」, 『韓·玏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등이 있다. 개별 역사가와 사료에 대한 연구는 너무 다양하여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다.

4 이 글에서 분석한 『大東史』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06년에 출판한 영인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학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일·반제국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 역사학은 1908년 신채호의 『독사신론』에서 출발하여 1910년대 대종교 계열의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시기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박은식·신채호가 거론되며 김교헌·이상룡·유인식 등도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5] 유인식의 『대동사』는 한문사서로서 근대 역사학의 기준으로 보면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17세기 이래 발전되었던 단기정통론(檀箕正統論)을 계승·발전시켜 단군정통론(檀君正統論)으로 나아갔고, 신라정통론과 중화주의(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발해를 자국사로 확실히 인식했던 민족주의 역사학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6]

그런데 유인식의 역사인식과 『대동사』의 발해사 인식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연구가 있지만, 발해사 서술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론으로 쓴 것은 김종복의 글 한 편밖에 없다.[7] 김종복의 글에서는 『대동사』의 편찬 배경, 단군정통론과 남북조(南北朝)의 설정, 그리고 『대동사』에서 남북조에 해당하는 시기를 6기로 구분하여 6기에 해당하는 발해사 서술을 꼼꼼히 분석하여 유인식의 발해사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앞선 연구를 참고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검토함으로써, 유인식의 발해사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2019년 발해사 관련 한국사료를 조사하기 위해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하여, 김형수 선생님(현재 진흥원 국학진흥본부 본부장)께 조언을 구하였다. 마침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大東史』 영인본을 선물해주셔서, 이 책의 全文을 필자가 직접 분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좋은 자료를 주신 김형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족주의사학' 항목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

6 김종복, 2013b, 「중화주의의 극복과 역사인식의 변화-柳寅植의 『大東史』를 중심으로-」, 『사총』 79 참조.

7 유인식의 역사 및 발해사 인식과 관련한 글로는 兪賢淑, 1986, 「東山 柳寅植研究」,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玄季順, 1992, 「東山 柳寅植의 社會思想 小考」, 『한국학연구』 4; 金喜坤, 1997, 「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朴杰淳, 2000, 「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學報』 2; 김종복, 2013b, 위의 글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인식이 그렸던 '대동(大東)'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대동의 역사' 즉 '대동사'의 실제 서술에서 '대동'의 이상과 실상이 일치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발해와 관련한 서술 속에 계통과 영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해를 '대동사'에서 어떠한 위치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동'의 개념과 범위

유인식의 『대동사』는 1912년경부터 집필하여, 1917년 초고를 완성하였고 이후 1923년까지 계속 수정하여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그리고 앞선 연구들에서 『대동사』에 보이는 역사인식과 서술에 신채호와의 교류, 김택영의 『동사집략(東史輯略)』, 김교헌의 『신단실기(神壇實記)』·『신단민사(神壇民史)』 및 대종교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단군정통론으로 묶을 수 있는 이들의 민족관과 만주와 한반도에 살던 대동민족을 동일문화권으로 묶어 보는 인식은 조선 후기부터 단초가 보이며, 한말 유학 지식인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신유학자나 계몽주의자, 대종교계,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공유했던[9]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단군정통론에 입각한 '대동민족관', '대동주의'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유인식의 『대동사』에서 '대동'의 개념 및 범위는 무엇일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

8 김종복, 2013b, 앞의 글, 37~38쪽. 그런데 필자가 『大東史』를 검토한 결과, 조선을 '本朝'라고 한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 1910년대 이전에 원고 일부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9 권은주, 2019, 「박은식의 역사 저술에 보이는 역사관과 한국 고대 북방사 인식」, 『한국고대사 계승 인식Ⅱ 근현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38~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대동의 개념

'대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되는 '중국(中國)'의 개념을 살펴보자. '중국'은 국가 개념이 아니며, 동일한 가치 체계 혹은 문화양식 및 정치체제 혹은 사회 질서의 공유의식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의식이 동일한 시기에 표현될 때는 일정한 지리적 범주를 의미하고, 상이한 시기에 적용될 때는 일정한 역사적 범주를 가리켜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역사는 '중국'이라 불리는 공간과 '중국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중국'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에 따라 변화 상황을 엄밀히 살펴야 되며, '중국사'의 범주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범위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설명은 '대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우리 역사에서 대동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자칭에는 동국(東國), 동방(東方), 동토(東土), 동하(東夏), 아동(我東), 아동방(我東邦), 해동(海東) 등의 용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동국 계열의 우리 이름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단일 시기의 단일 국가를 지칭할 때는 그 지리적 범주가 당연히 그 국가의 영토와 일치하지만, 부동한 시기일 경우에는 각 나라의 영토 변화와 함께 지리적 범주도 달라진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과거 '아(我)'로 포괄할 수 있는 나라의 통칭(統稱)일 때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통일 국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동시기에 다국(多國)이 공존하거나 다종족이 공존했던 시기도 있어 실제적 '아'와 역사 기억공동체로서의 '아'는 유동적이었다. 그 유동적인 '아'를 고정시켜나가는 작업이 바로 정통론(正統論)에 입각한 역사 체계화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발해를 우리 역사에 확실히 포함시키면서 한국사 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다. 즉, '대동'의 개념이 정립되고 '대동사'의 역사적 범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발해사가 부동의 한국사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

10 김한규, 1994, 「우리 나라의 이름-"東國"과 "海東" 및 "三韓"의 槪念-」, 『李基百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下)』, 一潮閣, 14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국 계열의 이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름들은 중국, 중원, 중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중국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정치적·역사적·문화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동국 계열의 이름은 당시의 국가가 존재하는 공간적 범주나 지배 대상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조선 시기에 국가와 시대의 단속성을 초월한 역사적 실체를 가리키게 되었다.[11] 그런데 전근대 시기에 동국 계열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보통 중국을 의식한 것은 분명하며, 적어도 조선시대에 동국 개념은 세계의 중심에 중국이 있고 사방에 사국이 위치한다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상당한 규범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는 중국을 중심에 둔 방향개념보다 서의 상대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최치원이 중국 유학을 '동인서학(東人西學)'이라고 하여 세계의 극동에 위치한 의미로 동국을 자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해동' 역시 타칭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자칭으로 사용되면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12] 그리고 조선 후기 다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여, 단군정통론과 함께 발해사를 동국의 범주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여기서 '대동'은 자존의 의미로 사용된 바, 동국 계

11 김한규, 1994, 앞의 글, 1430쪽.

12 해동은 일정한 공간 안에 동시에 병존하는 몇 개의 국가 혹은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삼국을 비롯하여 발해와 일본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데 김한규는 해동의 경우, 타칭으로 시작하여 일정한 문화적 권역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신라, 고려, 조선 등의 영역이 한반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해동의 범주 역시 일반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東國 계열의 이름과 본질적으로 그 성격과 출현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동국 범주에서 배제되었던 요동과 일본열도가 왕왕 해동의 일부로 표현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해동은 중국 입장에서 발해(바다) 이동, 즉 요동과 한반도에 위치한 정치적 공동체의 총칭으로 중국이 인식한 해동 세력에 한반도 북부와 요동지방, 이후 한반도 남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한규, 1994, 위의 글, 1438~1442쪽). 필자는 '해동'을 단순히 여러 국가의 총칭이자 중국인의 인식만 통해 본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중국 소재 한국고대사 관련 금석문의 발견과 관련 연구로 자칭으로서의 '해동'에 대한, 그리고 발해를 포함한 동국, 동사에 대한 이해들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는 별고를 통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열 이름 중 가장 민족주의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유인식 역시 국체의 존중을 표하기 위해 '동사' 앞에 '대'자를 더해 책명을 지었다고 『대동사』의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13]

전통사학에서 근대사학 전환기에 초기 민족주의 사학자들에서 보이는 '대동' 인식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한 연구를 참고하면, 조선 전기부터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있어왔고, 『동국사략(東國史略)』 등 '동국'을 칭하는 사서가 다수 편찬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중국과 대등하다고 여긴 자주적 역사인식의 바탕하에 동국을 칭했고, 실학자들은 '동국' 또는 '해동'을 자주적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서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18세기 후반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繹史)』, 이종휘의 『동사(東史)』는 이후 만주를 중심으로 한 대종교의 역사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동국 계열의 이름은 계몽사학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 교과서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동'이라는 이름은 동국 계열 이름 중 가장 민족주의적인 이름으로, 이를 서명으로 한 역사서는 단순한 중화주의, 중국부용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민족이 전제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대동'이 서명에 들어간 것으로는 헌종대 홍경모가 저술한 『대동장고(大東掌攷)』부터 근대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용되었던 『대동역사(大東歷史)』(1905), 『보통교과대동역사략』(1906), 『대동역사』(1906), 『초등대동역사』(1909) 등의 교과서가 있다. 황의돈이 저술한 『대동청사(大東靑史)』(1909)는 민족주의 사가가 저술한 최초의 통사로 꼽힌다. '대동'은 조선시대의 '동국'에서 한말 민족주의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민족사를 확대와 팽창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된다.[14] 유인식의 『대동사』는 이러한 큰 흐름을 반영한 역사서인 것이다.[15]

---

13 유인식, 『大東史』 凡例, "一. 編成, 名以東史, 而加一大字, 以表國體之尊重.":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大東史(上)』, 한국국학진흥원, 9쪽.

14 박걸순, 2006, 「朴殷植의 歷史認識과 大東史觀」, 『국학연구』 11, 69~71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대동의 공간적 범주와 대상

이제 『대동사』에서 그리고 있는 대동의 공간적 범주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살펴봄으로써, 유인식의 '대동'과 '대동사'가 '단군정통론'에 입각한 대동민족 및 대동민족사의 이상과 실제 일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유인식이 그렸던 대동의 공간적 범주는 그가 책머리에 제시한 〈대동연혁지총도〉[16]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유인식은 이 지도를 통해 대동의 공간적 범주를 시각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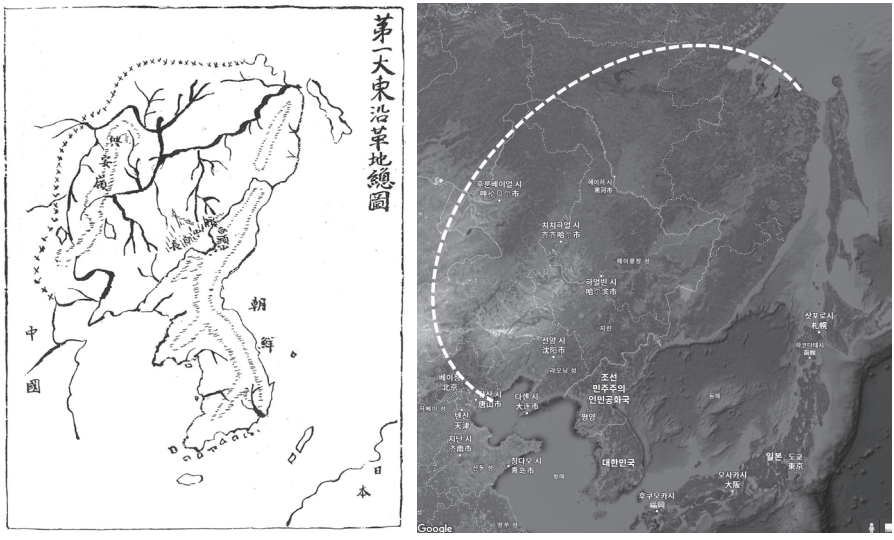


그림 1 (좌) 대동연혁지총도, (우) 대동의 공간적 범주

15 1920년대가 되면서 한국사 저술의 서명은 '대동' 대신 '조선'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발해와 신라의 병칭인 '남북조' 대신 '동북국', '남북국'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변화를 보인다(김종복, 2017,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한국사연구』 179, 199쪽).

16 유인식, 『大東史』 第一大東沿革地總圖: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구글 지도에 표시해보면, 〈그림 1〉의 (우)와 같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현재 중국의 동북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서쪽으로 고비사막의 동쪽에 있는 대흥안령(大興安嶺) 권역 및 러시아의 연해주와 시베리아 남쪽의 아무르강(흑룡강) 남북쪽 넓은 지대를 포괄하고 있다. 예전 만주(만추리아)로 불리던 공간과 한반도를 합친 공간을 대동의 공간적 범주로 그린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대동'을 단군의 후예이자 '만한통칭(滿韓統稱)'이라고 개념화한 것과 공간적으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동의 공간적 범주 안에 있던 역사상의 주인공들이 모두 '대동민족'으로 '대동사'의 주체로 그려지고 있었는가. Ⅱ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유인식은 『대동사』에서 대동민족의 총칭을 단군의 후예인 '배달족(倍達族)'이라고 하고 다섯 지파(조선족, 북부여족, 예맥족, 옥저족, 숙신족)와 별족(탐라족)으로 나누고 다시 북부여족의 네 지파 중 선비족(거란족)을 꼽고 있다. 이는 분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구성적인 면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요동지역(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계통인 예맥계(고조선, 부여, 옥저, 고구려 등), 숙신계(읍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 동호계(선비, 거란 등)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이는 〈대동연혁 국차도〉[17]의 내용을 보면, 결국 『대동사』에서 실제 주류가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은 현재 한국사 체계에서 다루는 대상 및 범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동연혁 국차도〉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면, 〈그림 2〉에서 파란색 점선 박스로 표시한 속말, 숙신, 여진이 세웠던 동하(東夏)·금(金)·청(淸)이나 동호계가 세웠던 삼연(三燕)이나 요(遼) 등의 국가는 나와 있지 않다. 〈대동역대일람도〉[1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민족의 개념을 만주에

17 유인식, 『大東史』 諸二大東沿革國次圖: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4쪽.

18 유인식, 『大東史』 第四大東歷代一覽圖: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7~8쪽. 일람도에 거론된 국명으로는 단씨조선, 기자조선, 부여, 동부여, 위만조선, 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가야, 발해, 갈사, 태봉, 후백제, 고려, 이씨조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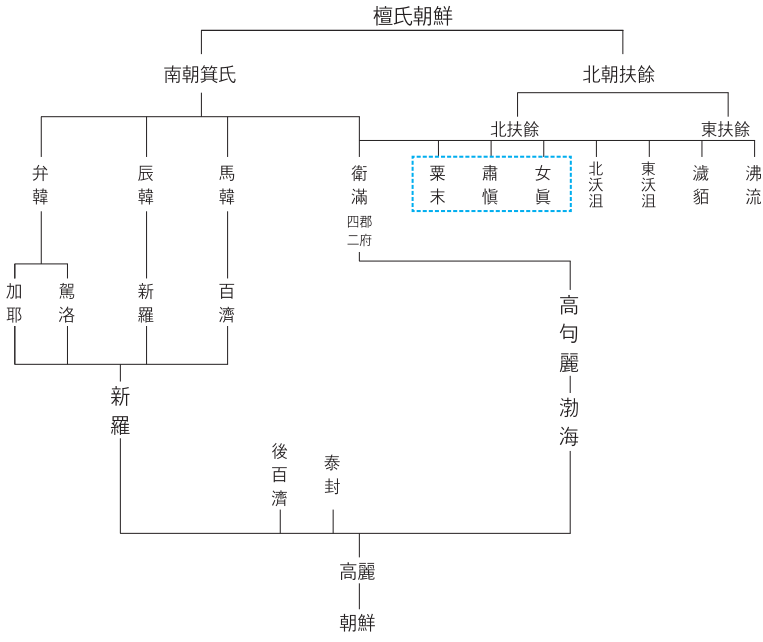


그림 2 대동연혁 국차도

살았던 역사상의 종족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이나 관념일 뿐 유인식의 '대동'은 실제 동국·동사 단계의 아국(我國)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범례에서 "예로 일본, 몽골, 거란 등의 나라는 아국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역시 중국의 예에 의거하여 따로 주기하여 기년(紀年)을 본래 기사의 아래에 쓴다"[19]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거란

이다. 그리고 씨명과 연대, 국도가 분명하지 않아 일람도에 뺀 사례로 말갈, 예맥, 옥저, 창해, 비류, 황룡, 탐라, 우산, 행인, 실직, 이벌, 소문, 감문 등의 나라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역시 거란이나 여진, 만주족 등이 세웠던 나라는 언급하지 않았다.

19 유인식, 『大東史』 凡例, "一. 如日本蒙古契丹等國, 與我國有關係處, 亦依中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경우 대동의 공간적 범주에서 활동했던 주요 민족이며, 유인식 자신이 배달족의 다섯 지파 중 북부여족의 선비 지파에 포함시켰으면서도 국차도에서는 누락시켰고, 아국에서는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은 본기(本紀)의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단씨조선기(檀氏朝鮮紀)부터 남북조기(南北朝紀), 고려기(高麗紀), 조선기(朝鮮紀)에 이르기까지, 『대동사』의 서술 주인공인 대동은 고조선, 삼한, 삼국, 부여, 백제, 발해, 후백제, 태봉, 고려, 조선뿐이었고, 거란, 여진, 만주 등의 민족과 그들이 세운 나라는 관계사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다. 즉, 이들은 객체이자, 조연 내지 엑스트라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가-1. 인선(諲譔: 발해 마지막 왕) 때에 거란에 병탄되어 대씨가 드디어 멸망했으니 … 또 은종(殷宗: 隱繼宗)은 투항하여 고려 왕을 알현하며 세 번 절하였으니, 나라를 잃은 사람에게는 삼배가 예법이었다. 이로 미루어보니 그 국속의 아름다움이 대씨의 문치가 남겨준 교화가 아니겠는가? 애석하다. 이백여 년 문명 역사가 전해지지 않음이여. 대씨 이후로는 그 땅이 여진과 거란같이 모전갖옷의 고향(氈裘之鄕)이 되었구나.[20]

가-2. 태조(왕건)는 동국이 분열된 날을 직면하고 통일의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발해가 이미 멸망하여 고구려의 옛 강역, 즉 요심(遼瀋) 일대의 땅이 거란에게 함몰되었으니, 이에 태조는 이미 군사를 비축하고 무예를 연마시켜서 조선의 옛 강역을 회복할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발해를 진멸시킨 것을 거란의 죄로 삼아 그와 절교하였던 것이다.[21]

가-3. 그의 본심을 살펴서 논해보면, (최)영의 뜻은 참으로 크다. 대개 요심은 천하의 요충지인데, 고구려와 발해가 망한 후로 거란과 몽골의 영역이 되

例, 分註書紀年於本事下.":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11쪽.

20 유인식, 『大東史』 권1,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365쪽.

21 유인식, 『大東史』 권2, 高麗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3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 고려 오백 년간 압록강 서쪽의 한 걸음도 엿보지 못하고 … 원명(元明) 교체기에 우리 구강(舊疆)을 회복하지 못하고 … 이조(李朝) 오백 년 이래로 명청의 제압을 받아 다시는 떨치지 못하게 되었다. 가령 사천 년 단군의 구강을 타가(他家)에게 맡기고 묻지 않았던 것은 대개 위화도 회군에서 비롯된 것이다.[22]

가-1은 발해 멸망 이후 발해 유민이 고려에 투항한 것과 관련한 서술인데, 여진과 거란을 '모전갖옷'으로 비유하고 있다. 털로 짠 양탄자와 가죽으로 만든 옷(또는 털가죽옷)은 오랑캐로 취급되었던 유목과 수렵을 주경제로 했던 이들의 상징물이다. 따라서 여진과 거란을 '전구(氈裘)'라고 부른 것은 오랑캐로서 아국과 구분한 것이다.[23] 가-2와 가-3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땅인 요심 지역이 거란과 몽골의 영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강이면서 회복해야 할 조선의, 단군의 옛 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차지했던 거란과 몽골을 타가로 부르고 있어 역시 아국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상과 실상

정리하면, 유인식은 『대동사』에서 실학시대 이래로 단기정통론에서 단군정통론의 역사인식 계보를 이으며, 한반도에서 만주를 포함한 '만한(滿韓)'의 역사공간을 대동의 공간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런 공간의 설정은 바로 민족 범위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단군을 정점으로 대동의 공간에서 살았던 여러 종족을 모두 그 후예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동민족'이다. 유인식은 단씨조선 이래, 북조 부여와 남조 기씨 아래에 통일 왕조인 고려로 이어지기까지 존

22 유인식, 『大東史』 권2, 高麗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770~771쪽.

23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 흉노, 몽골(원), 여진, 거란 등을 '氈裘', '氈裘之孽'로 불렀던 것이 확인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했던 정치 세력과 집단을 족통(族統)의 전개와 남북의 방위에 따라 구분한 이른바 남북조사관을 제시하고, 국가사 중심이 아니라 민족사 중심의 국가사를 서술하여 민족사의 진폭을 넓혔다고 평가되었다.[24]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대동의 주체와 정통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는 한민족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유인식의 역사인식의 한계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유인식에게 영향을 줬던 신채호는 중국과 동국민족의 영토적 경계를 요하로 설정하며, 동국의 공간적 범주를 그렸다. 그리고 『독사신론(讀史新論)』에서는 '동국'의 영토에 살던 '동국인종'을 대조선(대단군)주의에 입각하여 선비족, 부여족, 지나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 6종으로 구분하였다. 그중에서 부여족이 "형질상·정신상으로 다른 다섯 종족을 정복, 흡수하여 우리나라 민족의 역대 주인이 된 종족은 실로 부여족 한 종족에 불과하니, 대개 사천 년 우리나라의 역사는 부여족의 흥망성쇠의 역사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부여족을 주족(主族)인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객족(客族)인 조연 내지 엑스트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25]

그렇다면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대동민족주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은식은 어떠한가. 박은식은 단군의 후예를 배달족으로 부르고, 조선족, 북부여족, 예맥족, 옥저족, 숙신족의 오파로 구분하였다. 박은식은 『대동고대사론』의 제명에 '능칭만한(能稱滿韓)'이라고 덧붙일 정도로 만주와 한반도의 동질성을 강조하였다. 『몽배금태조』에서는 "만주와 한국은 원래 한 나라이고 그 백성은 원래 동족이며 모두 단조(壇祖: 단군)의 신성한 후예이다"라고 하였다. 박은식이 여진족까지 동족으로 간주한 것은 신채호보다 좀 더 이상적인 동국(대동)

24 박걸순, 2006, 앞의 글, 77~78쪽.

25 신채호의 민족인식에 대해서는 이우진, 2019, 「신채호의 민족에 대한 상상과 영웅 양성-『독사신론』과 영웅론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5; 윤영실, 2011, 「근대계몽기 신채호의 민족론에 나타난 '아(我)'의 의미」, 『한국학연구』 2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노자, 2010, 「1900년대 초반 신채호 '민족' 개념의 계보와 동아시아적 맥락」,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5집 등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박은식도 단군을 주체족으로, 기자를 객족으로 하여, 객족이 주체족에 동화되는 역사를 그렸고, 그 전개에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박은식의 '대동민족' 역시 과거 만주에 있었던 모든 종족을 실제적으로 하나의 동족으로 여겼다기보다는 관념론에 가까웠던 것이다.

신채호나 박은식 등이 숙신에서 만주족까지 이어지는 일맥을 조선, 예맥, 북부여족과 동등하게 단군의 후예로서 실제적 '아'의 범주에서 생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유인식의 '대동', '대동사' 인식이 그만의 한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근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만한'을 하나의 공간, 하나의 범민족으로 이해하거나 확장하려 했던 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놓인 현실적 문제, 독립운동의 공간으로서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민족 세력의 확대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26] 유인식의 역사인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발해 인식과 '대동사'에서의 위치

일제 침탈기에 민족주의역사학은 우리 민족과 역사 공간의 외연을 만주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적인 '대동사'의 주인공은 현재 한국사 체계에서 다루는 주인공과 일치하였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 시기와의 확실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발해에 대한 인식과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선조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다. 발해와 동시기에 살았던 신라인 최치원은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에 붙어 있던 보잘것없는 속말말갈'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양면적인 인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도 보이며, 고려와 조선의 기록에도 마찬가지

26 권은주, 2019, 앞의 글, 39~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27] 양면적 인식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극복되어 가는데, 송기호는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접국가로의 인식 단계, 두 번째는 고구려 계승국으로의 인식 단계(영토 계승 인식 단계 → 영토 및 주민 계승 인식 단계), 세 번째는 독립국으로서의 인식 단계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침내 발해를 신라와 대등한 독립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28]

1. 계통 인식

이러한 인식 단계로 보면, 유인식의 발해 인식은 세 번째 단계의 발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인식은 독립국 발해를 어떤 성격의 나라로, '대동사'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의 인식은 결국 현대 한국사 체계에서 발해와 신라를 함께 남북국시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 나-1. 구사(舊史)는 기씨(箕氏: 기자)조선이 곧바로 단씨(檀氏: 단군)의 계통과 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면, 기자가 처음 거주했던 조선은 광녕(廣寧)과 영평(永平)의 사이였다.【중국 성경성 근처 땅】 이때에 단씨는 북쪽의 예지(濊地)로 옮기고,【북부여】 통서(統緖)가 끊어지지 않았다. 기씨가 단군의 계통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로소 남북조로 나뉘어 남쪽은 기씨에게 속하고, 북쪽은 부여에 속하였다. 기씨 이후에는 다시 위씨(衛氏: 위만)·사군이부(四郡二府)·고구려·발해가 북조가 되었다. 마한·신라·백제·가락(駕洛)은 남조가 되었다. 그리고 고려부터 본조(조선)에 이르기까지는, 즉 통일로 쓰는 것이 역사의 사례로 부합한다.[29]

27 권은주, 「서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권2, 동북아역사재단, 7~12쪽.

28 宋基豪, 1991, 앞의 글.

29 유인식, 『大東史』 凡例: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2. 기미 3052년【신라 성덕 17, 발해 태조 21】 봄, 발해왕이 돌아가시니(薨), 시호를 고왕(高王)이라고 했다. 아들 무예(武藝)가 왕위에 오르며, 인안(仁安)으로 개원했다.【『강역고(疆域考)』에 이르길, 새왕이 개원하였으니 곧 전왕(前王)이 건원(建元)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에 전해지지 않는다.】[30]

나-1은 범례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서 본 〈대동역사 국차도〉를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계통 인식에 의거하여, 유인식은 고려 이전까지 대동의 역대를 남북조 시기로 보고, 신라를 남조로 발해를 북조로 해서 함께 「남북조기 남조 신라-후백제, 북조 발해-태봉」이라는 기명(紀名)의 본기에 통사이자 편년체로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나-2는 서술 방식의 사례이다. 해당 본기에서는 간지와 단기(檀紀) 연도를 먼저 제시하고 신라 왕과 발해 왕의 재위 기년을 나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각 연도 기사에서는 사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발해사이든 신라사이든 월일 순으로 먼저 기록하였다. 그리고 발해 왕의 죽음을 신라 왕과 동일하게 '사(死)'로 표시하지 않고 '훙(薨)'으로 썼다.

그런데 발해가 신라와 대등한 독립국으로서 남북조로 인식된 기반에는 송기호가 지적한 두 번째 인식 단계, 즉 고구려 계승국으로서 발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된다. 여기에는 족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그것은 현재 한·중 학계의 발해 역사 귀속 논쟁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3〉은 유인식이 대동민족의 계통을 그린 〈대동족통도〉[31]이다.

유인식은 〈대동족통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대동의 족통 원류에 대해 「단씨조선기」에서 "족통의 원류는【실기(實紀)를 보니】 단군의 후예는 배달족이라 하며,

30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己未三0五二【羅聖德十七, 渤太祖二十一】春, 渤海王薨, 謚曰高王, 子武藝立, 改元仁安【疆域考曰, 新王改元則前王建元明矣, 而史失矣.】.":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96쪽.

31 유인식, 『大東史』 大東族統圖: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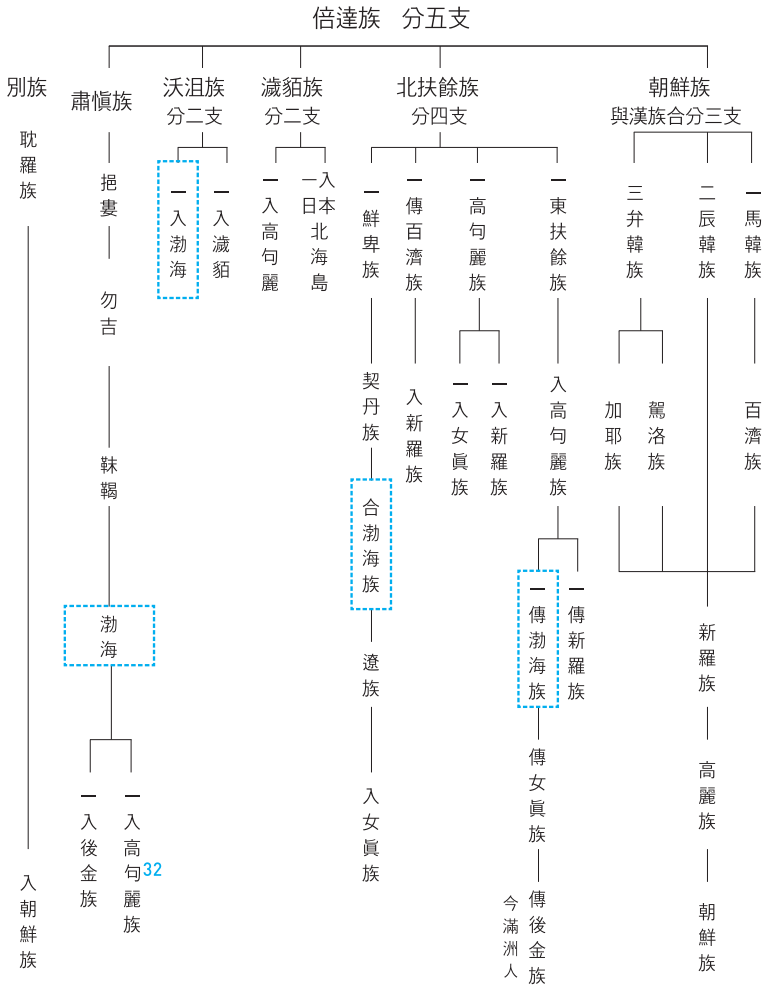


그림 3 대동족통도

32 '高麗'의 오기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뉘어 다섯 파가 되니, 첫째는 조선족, 둘째는 북부여족, 셋째는 예맥족, 넷째는 옥저족, 다섯째는 숙신족이다. 조선족는 세 가지로 나뉘니, 하나는 진한족, 하나는 변한족, 하나는 한족(漢族) 무리【기자의 후예】와 합하여 마한족【진한은 신라족에 전해지고, 신라는 고려에 전해져, 지금 조선족에 전해졌다. 변한은 가락족에 전해지고, 가락은 신라족에 들어갔다. 마한족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백제와 합쳐지고, 하나는 고구려와 합쳐져 정안족(定安族)에 전해졌다】이며, 북부여족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는 동부여족으로 전해지고, 하나는 고구려족으로 전해지고, 하나는 백제족으로 전해지고, 하나는 규봉(圭封)[33]과 합하여 선비족이 되었다.【동부여는 고구려족에 들어갔고, 고구려는 다시 나뉘어 두 가지가 되었는데, 하나는 신라족과 합쳐졌고, 하나는 발해족과 여진족에 전해졌다. 여진은 금족에 전해졌는데, 즉 지금의 만주족이다. 백제와 신라는 합쳐져 고려족에 들어갔다. 선비는 거란족에 전해졌고, 거란은 발해와 합하여 요족에 전해지고 여진족에 들어갔다.】예맥족은 나뉘어 두 가지가 되었고, 하나는 일본 북해도에 들어가고, 하나는 고구려족에 들어갔다. 옥저족은 나뉘어 두 가지가 되었고, 하나는 예맥과 합쳐졌고, 하나는 발해족에 들어갔다. 숙신족은 읍루족에 전해졌고, 읍루는 물길족에, 물길은 말갈족에 전해졌다. 말갈은 발해에 합쳐졌다. 이것이 족통의 원류이다. 백두산(白山) 남북조의 모든 민족(滿民族)은 단군의 혈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생각건대 그 세대가 멀리 옮기며 가지가 나뉘고 분파가 구별되었다"[34]라고 설명하고 있다.

발해족의 계통을 정리하면 배달족 5파(족) 중 조선족(삼한)을 제외하고, 모두 발해족으로 연결하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북부여족은 첫째, 동부여 → 고구

33 圭封의 용례를 찾아본 결과 箕子碑에 "[箕]準與燕以浿水爲界, 燕人衛滿亡名, 聚黨渡浿水, 求居西界, 賜以圭封之百里…"라는 내용이 있다(『도동연원록』 권1, 「箕子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여기서 규봉은 준왕이 위만에게 봉지로 준 땅이다.

34 유인식, 『大東史』 권1, 檀氏朝鮮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8~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 → 발해로, 둘째, 선비 → 거란 → 발해로 이어지고, 옥저족은 발해로, 숙신족은 읍루 → 물길 → 말갈 → 발해로 이어지고 있다. 예맥족은 곧바로 발해로 연결 짓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고구려족·옥저족과 이어지고 있어 간접적으로 발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선 시기에 발해의 계통을 단순히 고구려 또는 속말말갈로 보았던 것보다 진전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발해사 관련 서술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다-1. 태백산(太白山)의 변(辨)【실기를 보니】… 단군이 태백산 단목(檀木)의 아래로 내려 왔다. 단은 향목(香木)이다. 그런고로 후인이 드디어 그 임금을 불러 단군이라 하였다. 그 백산(白山)의 이름은 묘향(妙香)이라 한다. 삼국사(三國史: 삼국사기) 최치원전의 상태사장(上太史狀)에 이르길, 고구려 유종(遺種)이 북쪽으로 태백산 아래를 의지하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의 백두산을 가리키며, 위쪽에서 소위 장백산(長白山)이라고 하는데, 바로 단군이 내려온 땅이다.[35]

다-2. 갑진 2317년【신라 시조 41, 고구려 유리 2, 백제 시조 2】백제 왕이 신료들에게 일러 말하길, 말갈이 우리 북쪽 경계와 연이어져 있어 속임수가 많으니 마땅히 병기를 수선하고 양곡을 쌓아서 막아 지킬 계획을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 창강 김씨가 이르길, … 삼대 이전에는 숙신이라 하였고, 한위(漢魏) 때에는 읍루라고 하였고, 북위(北魏) 때는 물길이라고 하였다. 이윽고 다시 변하여 말갈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7부가 있는데, 하나는 속말(粟末)【뒤에 발해국이 되었다】이라 하고, … 정씨(丁氏: 정약용)의 강역고에 말갈의 이름이 처음 원위(元魏) 말에 나왔고, … 발해 대씨(大氏)가 우리 북도(北道)를 점거하길 이백여 년으로 발해는 본래 말갈【속말부】이다.[36]

---

35 유인식, 『大東史』 권1, 檀氏朝鮮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0~21쪽.

36 유인식, 『大東史』 권1, 南北朝紀 南朝箕氏馬韓 北朝衛滿平壤: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67~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3. 을해 3032년【신라 효소왕 7, 발해 태조왕 대조영 원년】 발해 태조 대조영이 자립하여 왕이 되고 국호를 진국(震國)이라 하였다. ① 선조는 속말말갈인인데, 대(大)【성이다】걸걸중상(乞乞仲象)이란 자가 있어 고구려에 붙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 무리로 당나라 영주(營州)로 옮겨가 머물렀다. 당 무후(武后: 측천무후) 13년, 거란(契丹)의 진충(盡忠)이 당에 반란하여 영주도독 조휘(趙翬)를 죽였다. 영주의 난으로 중상이 마침내 말갈인 걸사비우(乞四比羽) 및 고구려 남은 무리와 함께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고, 태백산【지금의 백두산】을 지키고, 동쪽으로 오루하(奧婁河)【지금의 영고탑(寧古塔) 경계에 있다】로 막아 벽을 세우고 스스로 지켰다. 당 무후가 진국공(震國公)으로 책봉했으나, ② 중상이 받지 않고 말하길, "나는 고구려의 옛 신하로, 당이 군사를 일으켜 나의 종국(宗國)을 멸망시켰으니 나와 원수인데 의리상 작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무후가 노하여 대장 이해고(李楷固)를 보내 격퇴하게 하였다. … 조영이 비우의 무리를 함께 이끌고 동모산(東牟山)을 차지하여 축성하고【뒤에 중경(中京)으로 삼았다】 그곳에서 머물렀다. 돌궐(突厥)과 사귀고 병사를 내어 사방을 토벌하였다. ③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다 회복하였고 부여, 옥저 등지를 점거하였다. 땅이 수천 리에 이르자 개국하여 건원하였다.【연호는 전해지지 않는다.】[37]

다-1에서 발해를 '고구려의 유종', 즉 고구려의 남은 종족으로 표현한 것은 최치원의 글이다. 다-2에서 발해가 속말말갈이라는 것은 김택영과 정약용의 글을 옮긴 것이다. 다-3의 ①은 발해의 계통을 서로 달리 기록한 다-1과 2를 절충한 듯한 구절인데, 그 원전은 『신당서』 발해 열전이다. 발해의 계통에 대해 이와 같이 상이한 내용을 전재했으면서도 유인식은 별다른 논박을 하지 않았다.

37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91~2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것은 앞서 보았듯 유인식이 그린 발해족의 계통은 고구려와 말갈 모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족통도나 원류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실제 발해사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대개 고구려와 말갈 두 계통만 나오며 주로 종족 계통과 관련해서는 속말말갈로,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관계로 나온다. 다종족국가였던 고구려와 발해의 실상에서 보자면, 이것은 모순된 기록이 아니다. 유인식에게 걸걸중상과 대조영은 단군의 후예인 속말말갈 계통이면서 고구려의 옛 신하로서 종국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기 때문에(다-②,③) 대동민족의 정통이자 '대동사'의 주류로 인정되는 것이다.[38]

2. 영역 인식

앞선 연구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실학 시기에서 대한제국기를 거쳐 초기 민족주의 사학에 이르기까지 단기정통론에서 단군정통론으로 발전하면서, 강역에 대한 관심은 발해사의 서술 증가와 우리 역사 체계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즉, 조선 후기의 백두산정계비 문제와 한말에서 근대 초기까지 조청국경회담과 조선인의 간도 개척 및 이주, 독립공간으로서의 만주에 대한 관심 등이 그러하다. 유인식이 많이 참조했던 김택영의 『동사집략(東史輯略)』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변명강역(辨明疆域)'인데, 대부분 정약용의 『강역고』를 인용하고 있다. 유인식 역시 그러한데, "대개 우리나라[我國]의 선유(先儒)들은 스스로 강역을 축소하고 국한시켜 압록(강) 서쪽을 타국으로 만들었으니, 우리의 강역(我疆)을 보지 않고 등한시하여버린 것이다. 대씨는 고구려의 옛 신하로 그 강토를 수복하고 만한의 두 경계를 넘어 차지하였다"[39]라는 서술에서 이점이 분명

38 다-②의 경우, 기존 사서에는 확인되지 않는 구절인데 유인식의 상상이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동사』 이전 사서에서 발해의 영역 확장과 등주 공격과 관련하여 '前王(고구려)의 땅을 다 되찾았다'(『증보문헌비고』), '전왕의 치욕을 갚았다'(『강계고』) 등의 표현이 확인되는데, 이런 인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9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5경 15부 위치 비정

新唐書	疆域考	大東史
上京龍泉府	寧古塔 虎兒哈河 南岸 古大城	虎兒河 동쪽, 영고탑 隔水地
中京顯德府	額敦山, 艾丹城=건국지	상경 남쪽 300里
東京龍原府	鍾城 또는 鏡城	鍾城 북쪽
南京南海府	咸興	咸興
西京鴨綠府	虞芮, 慈城 북쪽 강 건너	遼의 綠州
長領府	興京 東界	興京 東界
扶餘府	開原縣	開原
鄚頡府	부여 서북쪽	부여 서북쪽
定理府	瀋陽	瀋陽
安邊府	興京 북쪽, 심양 동쪽	興京 서북쪽
率賓府	興京 서남쪽	興京 서남쪽
東平府	烏喇 동쪽, 영고탑 서쪽	烏喇 동쪽, 영고탑 서쪽
鐵利府	두만강 북쪽, 興開湖 남쪽	두만강 북쪽
懷遠府	영고탑 좌우 북쪽의 땅	영고탑 북쪽
安遠府	영고탑 좌우 북쪽의 땅	미상

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유인식은 발해 강역에 대한 관심만큼, 실제 스스로 발해의 지리에 대한 고증에 충실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표 1〉은 『대동사』와 『강역고』에 보이는 발해 5경 15부의 위치를 비교한 것이다.[40] 표면상 차이가 보이는 곳은

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92~293쪽.

40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322쪽. 조선시대 사료에 보이는 발해 5경 15부의 지리비정은 김진광, 2022, 「조선시대 사서에 담긴 발해 지리 인식의 추이 검토」, 『백산학보』 124; 宋基豪, 1991, 앞의 글이 참고된다. 〈표 1〉에서 『강역고』 부분은 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 곳이다. 우선 중경현덕부의 경우 전자는 상경 남쪽 300리로 후자는 액돈산(額敦山)이라고 하여 표현이 다르지만, 액돈산은 바로 상경 남쪽 300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곳이다. 다음 서경압록부는 전자는 요나라의 녹주(綠州)라고 하였고, 후자는 우예(虞芮), 자성(慈城)이라고 하였다. 녹주는 『요사(遼史)』 지리지에 본래 고구려의 고국(故國)으로, 발해가 서경압록부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예는 현재 평안북도 자성군 장토면에 해당하는데, 세종 25년(1443)에 설치한 4군의 하나이다. 이곳은 압록강 건너 서쪽의 집안과 가깝고 동북쪽은 현재 서경압록부로 추정되는 임강(臨江) 지역과 가깝다. 그런데 정약용은 서경압록부에 대해 논하며 『요사』 지리지의 녹주를 언급하고 곧 우예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따라서 위치를 미상으로 표기한 안원부를 제외하고, 『대동사』는 『강역고』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인식이 직접 발해의 지리를 고증하지 않은 것은 발해의 건국지와 국도 및 발해 현덕부 위치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태백산의 변」에서는 최치원의 「상태사장」에 나오는 "고구려 유종이 북쪽으로 태백산 아래에 의지하여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는 구절에서 태백산이 지금의 백두산을 가리킨다고 하였다.[41] 즉, 발해 건국지가 백두산 아래인 것이다. [단기] 3032년조에 보이는 발해 건국 기사에서도, 발해 태조 대조영 원년 "영주의 난으로 [걸걸]중상이 마침내 말갈인 걸사비우 및 고구려 남은 무리와 함께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고, 태백산【지금의 백두산】을 지키고, 동쪽으로 오루하【지금의 영고탑 경계에 있다】로 막고, 벽을 세워 스스로 지켰다. … 조영이 비우의 무리를 함께 이끌고 동모산을 차지하고 축성하여【뒤에 중경으로 삼았다.】…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다 회복하였고 부여, 옥저 등지를 점거하였다"[42]라고 하

기호의 글 중 '〈표 3-1〉 지리 고증 비교표'를 활용하였다.

41 유인식, 『大東史』 권1, 檀氏朝鮮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0~21쪽.

42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291~2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백두산을 언급하고, 오루하가 영고탑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영고탑은 발해 상경용청부가 있었던 흑룡강성 영안(寧安) 지역이다. 그런데 또 유인식은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축성하였는데 이를 중경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즉, 그는 건국지가 중경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그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

『대동사』의 〈대동역대 일람도〉[43]를 보면 발해는 단씨조선, 기씨조선, 부여, 동부여, 위만조선, 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가야, 발해, 갈사(曷思), 태봉, 후백제, 고려, 이씨조선 17개의 국명 중 12번째로 나오는데, 국도를 요양(遼陽)이라고 하였다. 「평양패수변(平壤浿水辨)」에서는 요동에 있는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고, 광녕과 영평이 기자의 봉지(封地)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평양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요사』에 발해 현덕부는 평양성인데, 요나라가 발해를 격파하고 동경으로 고쳤고, 지금의 요양현이라고 하였다.[44] 그런데 요양은 발해의 수도가 된 적이 없다. 이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양 지역으로 발해 유민을 사민하며,[45] 그 중심지가 되었던 상황이 와전된 것이다.

〈표 2〉 대동역대 일람도 중 발해 부분

國名	姓	始祖名	歷代	國都	今名
渤海	大	祚榮	十四	遼陽	中國 盛京省

43 유인식, 『大東史』 권1, 第四 大東歷代一覽圖: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7~8쪽. 역대일람도를 수록하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의 교과서인 『(보통교과) 東國歷史』(현채, 1899), 『신정동국역사』(원영의·유근, 1906), 『(보통교과) 大東歷史略』(대한국민교육회, 1906)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 김종복, 2013a, 「대한제국기 역사서의 고대사 인식과 유교적 사유체계의 변동」,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348쪽.

44 유인식, 『大東史』 권1, 檀氏朝鮮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21~27쪽.

45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 동단국을 건립하였는데, 928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요양 지역으로 동단국을 옮겼다. 요양 지역은 982년까지 거란의 東京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인식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리 서술을 하였을까. 이것을 단순히 학자로서의 불성실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그가 실증보다 중시했던 무엇인가가 있었을까.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발해의 지리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실증보다는 그 강역의 연고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패수변」을 다시 보면, 요동에 있는 또 하나의 평양의 연혁이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온 고유의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해 현덕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며, 요심 일대는 곧 단기의 구강이자 천하 용무(用武)의 땅으로 단기씨 이래로 발해 대씨에 이르기까지 '동방(東方)의 승국(勝國)'이 있었던 땅이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사(前史)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인 고구려의 옛 땅을 발해가 차지한 것과 함께 남북조를 이뤘던 신라와의 경계가 발해의 지리와 관련된 서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1. [고려 덕종 경강왕 계유 2년] 다산 정씨의 「서북로연혁속」에서 이르길,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사(唐司)【9도독부(都督府)】가 점차 멀어져 패서(浿西)의 땅이 몰락하여 도적의 소굴이 된 지 이백여 년인데, 오직 압수(鴨水: 압록강)의 가장자리만을 발해가 얻었다.[46]

라-2. [갑오 2307년【신라 시조 31, 고구려 동명왕 11】] 창강 김씨가 이르길, 북옥저는 지금 육진(六鎭)의 땅이고, 남옥저는 지금 함흥(咸興) 등지이다. 주

東丹國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녔고, 금대까지 발해 유민의 주요 거점지이자 발해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사정은 후대에 요양이 발해의 수도로 인식되는 기억의 착종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 동단국과 관련해서는 이효형, 2005, 「渤海의 멸망과 遺民의 諸樣相: 東丹國 관련 渤海遺民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2; 나영남, 2011, 「10세기 동북아 국제정세와 거란의 요동정책」, 『역사문화연구』 39; 임상선, 2019a, 「동단국의 운영과 발해유민」,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임상선, 2019b, 「발해 멸망 후 건립된 동단국의 외교 활동」, 『역사와 교육』 29 등의 연구가 참고된다.

46 유인식, 『大東史』 권2, 高麗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44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몽 이래로 고구려가 남북옥저의 땅을 잠식하였고, 고구려가 쇠퇴함에 미쳐서는 남옥저는 신라가 얻었다. 고구려가 망하자 북옥저는 발해에 들어갔다."[47]

라-3. [무진 3001년【신라 문무왕 7, 고구려 보장왕 26】]『강역고』에 이르길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이 9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신라는 단지 그 남경만을 얻고, 뒤에 발해말갈이 9부의 땅을 나누어 점거하였다. 당이 통제할 수 없자 드디어 패강 이남을 버리고 신라에게 주었다.[48]

라-4. [을해 3068년【신라 성덕왕 33, 발해 무왕 인안 16】] 처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땅이 모두 당에 들어갔으나 신라는 단지 그 남경만 얻었고, 발해가 점차 강해지자 9도독부의 땅을 모두 가졌다.[49]

라-5. [정축 3070년【신라 성덕왕 35, 발해 무왕 인안 18】] 무왕 때에 더욱 땅을 크게 개척하여 남쪽으로 신라와 니하(泥河)를 경계로 하였다. 동쪽은 대해에 미치며, 서쪽으로 거란을 압박하니, 동북 여러 부가 모두 두려워하여 복속하고 신속(臣屬)하였다.『강역고』에 이르길, 발해는 고구려의 옛 서북의 땅을 본거지로 하여 나라가 세워졌다. 모두 강리(疆理)에 들어간 것이 남북 길이 삼천 리이다. 니하는 강릉(江陵)의 북쪽 니천(泥川)으로, 발해와 신라가 니하를 경계로 삼았다. 즉, 양양(襄陽) 이북은 대개 발해가 차지하였다. 당 천보 이후에 이르러 철관(鐵關)【지금 철령】 이남을 신라가 다시 소유한 까닭에 경덕왕이 삭정군(朔庭州)【지금 안변】과 천정군(泉井郡)【지금 덕원】을 설치하였다.[50]

---

47 유인식,『大東史』권1, 南北朝紀 南朝箕氏馬韓 北朝衛滿平壤: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63쪽.

48 유인식,『大東史』권2, 南北朝紀 南朝 新羅 百濟 北朝 高句麗: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270쪽.

49 유인식,『大東史』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299쪽.

50 유인식,『大東史』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위의 책, 299~3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6. 신유 3114년【신라 헌덕왕 원년, 발해 무왕 대흥 44】7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 패강 남쪽의 주군(州郡)을 안무(按撫)하게 하였다. 이때를 살펴보면 [按] 발해가 강성하여 땅을 압록(강)까지 개척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땅의 경계는 패남으로 그쳤을 뿐이다.[51]

라-1~6은 모두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9도독부, 북옥저 등)을 얻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공존하며 패수와 니하를 경계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라-2의 경우 북옥저가 발해족의 구성에 들어갔다고 보는 계통 인식의 근거가 되면서도, 고구려를 이어 발해와 신라가 남북옥저의 땅을 나눠 차지하고 서로 경계를 이룬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라-5는 발해가 이미 무왕 때 크게 땅을 개척하여 남쪽으로 신라와 니하로 경계를 삼았고, 동쪽은 대해에 미치며, 서쪽으로 거란을 압박하고, 동북 여러 부가 모두 두려워하여 복속하여 신속할 정도로 국세를 떨쳤음을 보여준다. 유인식은 이러한 발해를 고구려의 옛 땅이자 단군의 옛 땅을 회복한 '대동사'의 주인공으로 여겼다. 그리고 동방의 성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요동의 소유가 핵심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발해의 지리 영역에 대한 실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동방성국(東方盛國), 북국 발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인식은 발해의 계통에서 대동민족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배달족 5파 중 4파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1파인 조선족(삼한)도 결국 발해와 함께 고려족과 조선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5파 모두와 연결되는 족통을 그렸다. 실제적으로는 속말말갈 계통이면서 고구려의 구신(舊臣)으로 주로 서술되었지만, 종국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대동민족의

51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3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통이자, '대동사'의 주류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발해의 영역 인식에서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정약용의 『강역고』 단계의 지리 고증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발해가 '고구려의 강토를 수복'하고, '만한'의 두 경계를 넘어 요동까지 차지하여 신라와 남북조를 이룬 것은 '대동의 공간적 범주'를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1. 고사(古史)를 살펴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한 것으로 하고서, 발해기는 곧 조금의 대강도 보이지 않는다. 김창강의 집략에 이르러 그 역사를 대략 기록하였으나, 맞수(敵偶)로 대하지 않고, 신라사에 속하게 하였다. 대개 우리나라(我國)의 선유들은 스스로 강역을 축소하고 국한시켜 압록(강) 서쪽을 타국으로 만들었으니, 우리의 강역(我疆)을 보지 않고 등한시하여 버린 것이다. 대씨는 고구려의 옛 신하로 그 강토를 수복하고 만한의 두 경계를 넘어 차지하였다. 또한 당의 작위를 받지 않음에 말이 엄하고 의로움이 올발랐으며, 의연하게 옛 구방(舊邦: 고구려)을 사랑하는 뜻을 품었다.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역년(歷年)이 길게 이어져 나라가 무강(武强)하고 제도가 찬란히 갖추어져 역시 가히 동방(東方)의 성국(盛國)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고구려는 단군의 정통을 이었으니, 삼국에서 특별히 종국(宗國)이라 일컬을 만하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하여 일어난 것이 발해라면, 곧 폄하하여 내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럼으로 고려 천수(天授) 9년(919) 이전은 신라와 함께 병렬시켜서 나누어 남북조라 이를 뿐이다.[52]

마-2. 경오 3123년【신라 원성왕 5, 발해 문왕 대흥 53】3월, 일길찬 백어(伯魚)를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발해는 신라의 북쪽에 있는 까닭에 신라인이 북국이라 하였다. 삼국사의 원성왕기를 살펴보면, 백어를 북국에 사신으로

52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292~29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냈다고 하고, 최고운이 지은 「사불허북국거상표(謝唐不許北國居上表)」【본집(本集)과 동문선(東文選)에 수록】에서 발해가 강대함으로써 망령되이 위차(位次)를 두고 다툰 것에 대해 말하였는데, 바로 소위 북국이라는 것은 곧 발해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순암(順庵) 안씨(安氏: 안정복)의 강목(綱目)에서 그 표문(表文)을 인용하여 특별히 쓴 것이다. 이는 바로 정다산, 홍연천(洪淵泉) 등 제가(諸家)가 미치지 못한 바인데, 안씨가 홀로 이를 발휘하였으니, 어찌 동사에 끼친 공을 말하지 않겠는가. 지금 특별히 발해 두자를 백어의 아래에 써서 북국으로 증명할 뿐이다.[53]

마-1에 보이는 '동방의 성국'은 여러 차례 보이는 데, 「평양패수변」에서 보이는 '동방승국(東方勝國)'도 같은 의미이다. 발해는 『신당서』, 『자치통감』, 『옥해』 등에는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요사』에는 '요동성국'으로 나온다. 고전에 나오는 '해동'과 '요동'이 아닌, '동방'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도성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바다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해동'이나 요동 지역으로 공간을 한정한 '요동'이 아닌, 중국 중심 세계관, 즉 중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서방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세계관에서의 한 축으로서 '동방'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즉, 유인식은 세계사라는 큰 틀에서 발해를 '동방성국'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은 독립국으로서의 발해 인식 단계에서 더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동사' 안에 신라와 대등하게 북국 발해로 그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한 것이다. 마-2에서 안정복을 칭찬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53 유인식, 『大東史』 권3, 南北朝紀 南朝新羅 後百濟 北朝渤海 泰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312~3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맺음말

지금까지 유인식의 『대동사』에 보이는 '대동'과 발해 인식을 살펴보았다. 유인식이 『대동사』를 쓸 무렵, 단군정통론에 입각하여 '만한'을 아울러 민족과 그 역사 공간을 확대하였던 일명 '대동민족관', '대동주의'는 시대정신이었다. 유인식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대동'과 '대동사'를 이해하였고, 그 속에서 발해를 인식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대동과 비슷하게 사용했던 '동국' 계열의 이름은 과거 '아'와 '아국'으로 인식되는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과 대별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유동적인 '아'를 정통론에 입각한 역사 체계화 과정에서 고정시켜나갔고, '대동'의 개념이 정립되고 '대동사'의 역사적 범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발해사가 부동의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대동'이라는 이름은 동국 계열 이름 중 가장 민족주의적인 이름이었고, 이를 이름으로 붙인 역사책의 등장은 민족사를 확대와 팽창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대동사』 역시 이러한 큰 흐름을 반영한 역사서이다.

『대동사』에서 그린 '대동'은 단군의 후예이자 '만한통칭'으로서의 배달족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을 대동의 공간적 범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대동연혁 국차도〉나 본기의 서술을 보면 배달족 5파가 모두 '대동사'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고조선, 삼한, 삼국, 부여, 백제, 발해, 후백제, 태봉, 고려, 조선이 주인공이었고, 거란, 여진, 만주 등은 객체이자 조연 내지 엑스트라였다. 이처럼 '대동사'에 실제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대동'에 대한 이상과 실상이 다른 것은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나 박은식의 역사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유인식을 포함하여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만한'을 하나의 공간, 하나의 범민족으로 이해하거나 확장하려 한 것이, 당시 우리 민족이 놓인 현실적 문제, 독립운동의 공간으로서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민족 세력의 확대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과 역사 공간의 이상적 확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발해사가 이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기보다 더 확실히 한국사 체계에 자리 잡은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발해를 인접국가 → 고구려계승국 → 독립국으로의 인식 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발해를 신라와 대등한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남북국론의 기초를 다졌다. 유인식의 『대동사』는 세 번째 단계의 발전적 모델로, 계통과 영역 모두에서 단군의 정통을 잇고, 고구려를 계승했으며, 신라와 남북국을 이룬 것으로 그렸다. 계통에서는 배달족 5파 중 북부여족, 예맥족, 옥저족, 숙신족과 직접적으로 이어졌고, 조선족(삼한)과는 고려족을 거쳐 조선족으로 이어지며, 5파 모두와 연결되었다. 실제적으로는 속말말갈 계통이면서 고구려의 구신으로 주로 서술되었는데,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다종족국가인 고구려와 발해의 실상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동사』에서 발해가 종국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 것은 대동 강역을 온전히 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발해 영역 서술은 실증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지만, 발해가 단군의 정통을 이은 종국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남국 신라와 함께 북국을 이루었음을 강조하며, '만한'의 경계를 넘어 영토를 차지한 것과 요동 점유, 신라와의 국경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발해를 '동방성국'이라고 한 것은, 중국 중심 세계관, 즉 중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서방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세계관에서의 한 축으로서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방'을 사용하였다. 발해를 독립국으로서 신라와 대등하게 '대동사' 안에서 남북조로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라는 큰 틀에서 발해를 위치 지었다는 점에서 발해사 인식의 진전이자 사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유인식이 『대동사』의 저술 목적인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54]

54 "一. 卷首付地圖, 次付沿革圖, 次付族統圖, 又付各國姓名年代國都表, 俾便閱覽. 而考疆域之盈縮, 閱族統之盛衰, 則俾愛國之心, 油然而生." 유인식, 『大東史』 권1, 凡例: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앞의 책, 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1,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2, 동북아역사재단.

유인식, 『大東史』: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6, 『大東史(上)』, 한국국학진흥원.

논문

권은주, 2019, 「박은식의 역사 저술에 보이는 역사관과 한국 고대 북방사 인식」, 『한국 고대사 계승 인식 Ⅱ 근현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김은국, 2019, 「고려~조선 전기 발해사 계승 인식」, 『한국고대사 계승 인식 Ⅰ 전근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김종복, 2006, 「渤海史 認識의 推移-南北國時代論을 중심으로-」, 『史林』 26.

_____, 2013a, 「대한제국기 역사서의 고대사 인식과 유교적 사유체계의 변동」,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_____, 2013b, 「중화주의의 극복과 역사인식의 변화-柳寅植의 『大東史』를 중심으로-」, 『사총』 79.

_____, 2017,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한국사연구』 179.

김진광, 2022, 「조선시대 사서에 담긴 발해 지리 인식의 추이 검토」, 『白山學報』 124.

김한규, 1994, 「우리 나라의 이름-"東國"과 "海東" 및 "三韓"의 槪念-」, 『李基百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下)』, 一潮閣.

金喜坤, 1997, 「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李萬烈, 1981, 「朝鮮後期의 渤海史 認識」, 『韓·仇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朴杰淳, 2000, 「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學報』 2.

_____, 2006, 「朴殷植의 歷史認識과 大東史觀」, 『국학연구』 11.

박노자, 2010, 「1900년대 초반 신채호 '민족' 개념의 계보와 동아시아적 맥락」,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5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인호, 2004, 「전통시대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宋基豪, 1991,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발해관」, 『韓國史硏究』 72.
兪賢淑, 1986, 「東山 柳寅植硏究」,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실, 2011, 「근대계몽기 신채호의 민족론에 나타난 '아(我)'의 의미」, 『한국학연구』 2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이우진, 2019, 「신채호의 민족에 대한 상상과 영웅 양성-『독사신론』과 영웅론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5.
이효형, 2004, 「고려시대 발해·발해 유민 인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53.
全瑛河, 1993, 「韓末·日帝時期의 新羅·渤海認識」, 『泰東古典硏究』 10.
鄭鎭憲, 1999, 「渤海史 史料와 渤海史 認識의 變遷-高麗時代의 史書에 실린 渤海記事를 중심으로-」, 『高句麗硏究』(현 『高句麗渤海硏究』) 6.
趙仁成, 1994, 「高麗 初·中期의 歷史繼承意識과 渤海史 認識」,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古代篇·高麗時代篇』, 刊行委員會.
崔圭成, 1992, 「民族主義史學者들의 統一新羅와 渤海에 대한 歷史認識」, 『산운사학』 6집.
최혜주, 2004, 「한말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한규철, 1992, 「고려에서 독립운동기까지의 발해사 인식」, 『역사비평』 18호.
玄季順, 1992, 「東山 柳寅植의 社會思想 小考」, 『한국학연구』 4.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족주의사학' 항목 참조, 네이버 지색백과 서비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유인식의 『대동사(大東史)』에 보이는 '대동'과 발해 인식

권은주

발해 멸망 이후 발해인이 남긴 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한국사에서 발해의 역사가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시대로 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선학들은 간접적으로 남은 기록을 통해 발해사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켜 왔다. 유인식의 『대동사』는 17세기 이래 발전되었던 단기정통론(檀箕正統論)을 계승·발전시켜 단군정통론(檀君正統論)으로 나아갔고, 신라정통론과 중화주의(사대주의)를 극복하였으며, 발해를 자국사로 확실히 인식했던 민족주의 역사학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유인식이 『대동사』에서 그린 '대동'은 단군의 후예이자 '만한통칭(滿韓統稱)'으로서의 배달족(倍達族)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을 대동의 공간적 범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배달족 5파가 모두 '대동사'에서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이들은 주체와 객체로 구분되었다. '대동사'에 그려진 '대동'에 대한 이상과 실상이 다른 것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만한'을 하나의 공간, 하나의 범민족으로 이해하거나 확장하려한 것이, 당시 우리 민족이 놓인 현실적 문제, 독립운동의 공간으로서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민족 세력의 확대 필요성에서 비롯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과 역사 공간의 이상적 확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발해사가 이전 시기보다 더 확실히 한국사 체계에 자리 잡은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발해를 인접국가 → 고구려계승국 → 독립국으로의 인식 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발해를 신라와 대등한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남북국론의 기초를 다졌다. 유인식의 『대동사』는 세 번째 단계의 발전적 모델로, 계통과 영역 모두에서 단군의 정통을 잇고 고구려를 계승했으며, 신라와 남북국을 이룬 것으로 그렸다. 계통에서는 배달족 5파 모두와 연결되었고, 강역은 단군 조선의 정통을 이었던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 것으로 보았다. 발해가 고구려의 구신(舊臣)으로 종국(宗國)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 것은 대동 강역을 온전히 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여기에서 나아가 발해를 '동방성국(東方盛國)'이라고 하여, 발해를 독립국으로서 신라와 대등하게 '대동사' 안에서 남북조로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라는 큰 틀에서 발해를 위치 지었다는 점에서 발해사 인식의 진전이자 사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유인식, 대동사(大東史), 대동(大東), 발해(渤海), 발해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cognition of 'Daedong' and Balhae in Yoo Insik's *The Daedong History*(『大東史』)

Kwen Eunju

After the fall of Balhae, the historical record left by the Balhae people was not passed down, and it took a long time for the history of Balhae to be defined as the period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long with the unified Silla in Korean history. Preceding scholars have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Balhae through the indirect records.

Yoo Insik's *The Daedong History*(『大東史』: *The Great east History*) inherited and developed the orthodox theory of Dan-Gi(檀箕), which had been developed since the 17th century, and proceeded to the orthodox theory of Dangun(檀君).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early form of nationalist historiography that overcomes Silla's orthodox theory and Chineseism(toadyism) and recognizes Balhae as its own history.

The 'Daedong(大東: Great east)' depicted by Yoo Insik in *The Daedong History* is a descendant of Dangun and the Baedal(倍達) trib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s ‘Manhan joint name(滿韓統稱)’ And, their space is drawn in the spatial category of Daedong. However, not all of the five groups of the Baedal tribe are the main characters in ‘Daedong History’. They are divided into subject and obj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and the actual situation of ‘Daedong’ in ‘Daedong History’ is that nationalist historians tried to understand and expand ‘Manhan’ as a single space and a pan-ethnic group. This is because of the real problems faced by the nation, the interest in Manchuria as a spac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need to expand the power of the nation.

The greatest result of this ideal expansion of ethnicity and historical space is that the history of Balhae has been more firmly established in the Korean historical system than in previous periods. Practical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recognized Balhae as a neighboring state → a successor state to Koguryo → an independent country.

Yoo In-sik’s *The Daedong History* is a model of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stage, and it is depicted as succeeding Dangun’s legitimacy in both lineage and territory, succeeding Koguryo, and forming Silla and the North and South Koreas. In terms of lineage, it was connected to all five Baedal tribes, and The territory was seen as a restoration of the old land of Koguryo, which inherited the legitimacy of Dangun-Joseon. Restoring the old land of Koguryo, the former vassal of Koguryo, has the same meaning as the completion of Daedong.

Furthermore, Balhae was called “Eastern Powerful Kingdom(東方盛國),” and not only did Balhae become an independent country on an equal footing with Silla from *The Daedong History* into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but it also positioned Balhae within the broa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amework of world history. Therefore, it is a development of Balhae history recognition, and it is also of historical significance.

Keywords: Yoo Insik, *The Daedong History*(『大東史』: The Great east History), Daedong(大東: Great east), Balhae(渤海), Balhae recogni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3

중국 근대 발해사 저술에 활용된 한국사료 검토

성희란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I. 머리말
II. 당안의 『발해국지』와 활용된 한국사료
III. 황유한의 『발해국기』와 활용된 한국사료
IV.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과 활용된 한국사료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이 글은 주로 중국 근대 발해사 전문 저서인 『발해국지』·『발해국기』·『발해국지장편』에 활용된 한국사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말 동북지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응하여 관인·학자들은 동북 역사지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근대의 발해사 전문 저서는 청이 멸망한 후 출현하였는데, 이는 청의 유신이나 만주족 유민이 만주족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시기 동북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컸다. 특히 일본은 만몽사 연구와 만선사 연구를 앞세워 만주와 몽골 독립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고 조선 합병에 이어 동북지역을 병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근대의 발해사 전문 저서는 러시아의 침략과 일본의 만몽사와 만선사 연구에 대응하여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당안의 『발해국지』는 발해가 멸망한 후 거의 1,0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중국에서 찬술된 첫 발해 역사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러나 활용한 자료가 적고 고증이 엄밀하지 못한 면도 있다. 황유한의 『발해국기』는 『발해국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수집·수록하였다. 특히 1920년대 당시 한국학계의 발해 인식을 보여주는 황의돈의 『조선역사』[1] 등을 인용·소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일본의 사서를 참조하여 발해사의 내용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 투고: 2023년 7월 21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1 황의돈의 『조선역사』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신편조선역사』와 『중등조선역사』 중에 어느 것을 참고했는지 알 수 없으나, 김육불의 교록(『渤海國記校錄』, 金毓黻 撰)에서 알 수 있듯이 황유한은 1판·2판을 본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황유한이 『신편조선역사』 1·2판 및 『중등조선역사』 1·2판을 모두 참고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선역사』로 표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 『발해국기』 역시 발해 관련 사료를 충분히 수록한 것이 아니고, 고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은 한·중·일 발해 관련 사료를 거의 모두 수집·수록하였고, 또 금석문 등 고고학 자료를 더하여 대량 보완하였다. 동시에 앞의 두 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고증도 비교적 정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발해사 연구의 거작으로 불리고 있다.

당안(唐晏, 1857~1920)의 『발해국지』에는 『동국통감』과 『고려사』 등 한국 사료가 인용되었고, 황유한(黃維翰, 1867~1930)의 『발해국기』는 황의돈의 『조선역사』, 서상우의 『발해강역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약용의 『대조선강역고』, 『삼국사기』, 『고려사』 등을 참고하였다. 김육불(金毓黻, 1887~1962)의 『발해국지장편』에는 『삼국사기』·『삼국유사』·『동국사략』·『고려사』·『동국통감』 등에서 발해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고, 『동국여지승람』·『해동역사』·『발해고』·『발해세가』 등을 참고하였다.

이상 발해 저서들은 주로 발해 관련 자료를 집성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저자의 취사선택과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저서가 편찬된 배경과 저자의 발해 인식을 살펴보고, 어떠한 한국사료들이 활용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Ⅱ·Ⅲ·Ⅳ장에서 각기 당안의 『발해국지』, 황유한의 『발해국기』,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의 저자 생애와 저술동기 및 발해에 대한 인식과 저서에 활용된 한국사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당안의 『발해국지』와 활용된 한국사료

1. 생애와 저술 동기

당안의 본명은 진균(震鈞)으로 성은 과이가(瓜爾佳)이고 자는 재정(在廷)이며 호는 섭강도인(涉江道人)이다. 만주 양홍기(鑲紅旗) 사람으로 청말 저명한 학자였다. 신해혁명으로 청이 멸망하자 성명을 당안으로, 자를 원소(元素)로 고쳤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의 시조는 천명 2년(1617)에 후금에 귀순하여 이등시위로서 청 태조·태종을 섬겼고, 그 후 세조를 호종하여 북경으로 오게 되었다.[2] 당안은 12세 후손이며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맡아왔다. 당안의 부친은 거인(擧人)으로 호부랑(戶部郎)의 관직에 올랐고 양주에 파견되었다. 동치 7년(1868) 10세인 당안은 부친을 따라 강남으로 갔고, 광서 6년(1880)에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다. 2년 후인 24세에 순천향시(順天鄕試) 거인에 합격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진사에 들지는 못하였다.

광서 26년(1900) 경자년 서태후가 서쪽으로 피난 갈 때 당안도 함께 서안으로 갔다. 광서 28년(1902)에 여녕부(汝寧府)에서 근무하였고, 광서 32년(1906)에는 지감천현사(知甘泉縣事)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그만두고 섬서도원(陝西道員)을 맡게 되었다. 선통 2년(1910)에는 경사대학당에서 교직을 맡았다. 이때 강녕장군 철량(鐵良)이 당안을 강녕팔기학당 총판으로 초빙하여 당안은 강녕부로 가서 주방성(駐防城)의 인재교육에 몰두하였다. 얼마 안 되어 신해혁명이 일어나 혁명군이 강녕성을 함락하자, 당안은 재산과 그림 등 소장품을 거의 상실한 채 이름을 고치고 상해로 은둔하였다.

그 후 정요신(鄭堯臣)이 당안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당안은 그를 도와 『용계정사총서(龍溪精舍叢書)』 120책을 교정·간행하였다. 또한 당안은 유승간(劉承幹)을 도와 교정·출판하는 일을 하였다. 1914년 북경에 청사관(淸史館)이 설립되었고 총찬(總纂)이었던 보희(寶熙)가 당안을 협수(協修) 직에 초빙하였으나 당안은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그 후(1917) 당안은 상해에서 여택문사를 설립하고 제자를 받아들여 경학을 가르쳤다. 이때 당안은 양정분(梁鼎芬)·주효장(朱孝臧)·정효서(鄭孝胥) 등과 가깝게 지냈다. 1920년 여택문사의 이름을 고쳐 회명문시사(晦鳴文詩社)라 하였다. 같은 해 여름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4세였다. 당안의 저술은 신중하고 엄밀하여 단방(端方)·성욱(盛昱)·양종희(楊鐘羲) 등과 함께 만주문학의 버팀목으로 불렸다.[3] 『발해국지』는 1919년에 유

2 (淸)震鈞 著, 1982, 『天咫偶聞』 卷10, 北京古籍出版社, 2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승간·양종희의 서(序)를 붙여 유승간이 집록한 구서재총서(求恕斋叢書)의 하나로 간행되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당안의 주요 저서로는 『천지우문(天咫偶聞)』 10권, 『발해국지』 4권, 『경자서행기사(庚子西行紀事)』 1권, 『팔기시원소전(八旗诗媛小传)』 1권, 『팔기인저술존목(八旗人著述存目)』 1권, 『양한삼국학안(兩漢三國學案)』 11권, 『국조서인집략(國朝書人輯略)』 11권, 『낙양가람기구심(洛陽伽蓝記鉤沈)』, 시집 『향렴집발미(香簾集發微)』 1권, 『섭강시고(涉江詩稿)』 등이 있다.

당안은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점령, 1884년 중국 프랑스 전쟁, 1900년 8국 연합군의 북경 침략,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과 의화단 운동을 겪었으며 최종 청의 멸망을 목도하였다. 특히 청말은 제국주의의 침입과 함께 국내 혁명당의 배만사상(排滿思想)이 전국을 휩쓸던 시기였다. 혁명당은 청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서구의 종족주의와 중국의 화이관을 내세워 이민족인 만주족 정권을 내몰고 한족 정권의 광복을 되찾아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이에 대해 만주 기인들은 혁명당의 주장은 협소한 민족주의에 불과하여 지향할 것이 아니며, 응당 국가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집권층인 만주기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청국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주의를 형성함으로써 분열을 막고자 한 것이다. 오택성은 당시 사회를 근세사회로 보면서 근세는 국가사회로 발전되었으니 무릇 일국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곧 일국의 국민이라고 하였다. 민족이 발전하여 국민이 되었고 속인주의에 이어 속지주의가 되었으니 다시 종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 융복은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벌써 역사의 지난 일이 되었고 국가주의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주의가 바로 서구 발달의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중국이 국가주의가 발달한 시대로 진입하려면 본 민족의 이익만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어느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세운다면 중국은 사분오열하게 될

3 王重民, 1992, 「唐晏傳」, 『冷廬文藪』 上, 上海古籍出版社, 243쪽.

4 烏澤聲, 1907, 「滿漢問題」, 『大同報』 第1期, 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라고 경고하였다.[5] 청 황실의 손위(遜位) 조서에도 5족의 영토가 합쳐 하나의 중화민국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6]

만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승간은 『발해국지』 서문에서 "국가가 불행하여 사설(邪說)이 횡행하고 흉험한 소인들이 소란을 피우며 만한을 분열시키는 풍조가 발기되더니 끝내 종묘사직이 전복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숙신이 처음 봉해진 것이 먼 삼후(요·순·성왕) 때이며 후금에 이르러 황제가 탄생하였으니 천하가 마침내 창성하게 되었음을 알게 했더라면, 혹시 난폭한 설(說)과 패역한 행동이 이처럼 극단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해국지』의 만한분리 풍조에 대한 주장을 빌려 숙신이 삼후 시기부터 이미 중원과 밀접한 관계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청말 혁명당의 리더 손중산은 1895년 광주봉기에서 실패한 후 일본 등 해외로 망명하여, 일본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장차 혁명이 승리하여 정부를 세우게 되면 만주를 일본에게 내어주겠다는 언약을 수차례 하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지원을 얻어 "달로(韃虜)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혁명당의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배만 사조는 일본의 만선일체론에 힘을 실어주었고 서로 의기투합하였다. 실제로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무렵부터 만선사 연구를 가장 앞서서 주창했던 시라토리 쿠라키치는 만주와 조선의 역사지리 연구의 필요성을 왕성하게 제창하기 시작하였다.[7]

즉, 당안이 『발해국지』를 편찬할 당시 내적으로는 배만 사조를 앞세워 한족 정권이 만주족 정권을 대체하고 공화국을 세웠으며, 외적으로는 일본이 만선일체론을 앞세워 조선 합병에 이어 만주까지 병탄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당안은 만주기인의 일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일국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곧 일국의

---

5 隆福, 1907, 「現政府與革命黨之比較」, 『大同報』 第5期, 4쪽.

6 中國第二歷史檔案館, 1991, 『中華民國史檔案數據彙編』 第二輯, 江蘇古籍出版社, 72쪽.

7 박찬흥, 2007, 「일제 '만선사학'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7, 95~9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만주족 정권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였다. 당안의 이러한 생각은 『발해국지』에도 투영되어 나타난다. 우선 『발해국지』「원시」편에서 그의 찬술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발해는 옛날 숙신이다. 우순이 요를 계승하여 처음으로 덕화로 복종하게 되었다. 『대대예기(大戴禮記)』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사해(四海)라고 부른 것이다. 성왕이 대를 이어받자 와서 즉위를 축하하였다. 『상서』에는 『회숙신지명(賄肅愼之命)』[8]을 보존하고 제후에 열거하였다. 그러므로 주양왕이 제후에게 고할 때 숙신과 연박(燕亳)을 병칭하였다. 그가 봉건의 국가가 된 것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고 태백이 구오에 봉해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함에 이르러 그 땅을 진번·임둔·낙랑·현도 4군으로 삼았으니, 숙신의 땅이 마침내 봉역 내에 있게 되었다. 동한 이후에는 처음 공손연에 의해 차단되었다가 다시 모용황에게 점령되었다. 이에 부여·고구려·예맥·옥저가 다투어 차지하였으니 옛날의 형세가 처음으로 변화되었다. 그 후 읍루·물길·말갈의 이칭이 있었는데 사실인즉 1개 부의 이름일 뿐이지, 숙신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변한 적이 없다. 당 초에 이르러 사리씨(舍利氏)가 스스로 세워 진국왕이라 하였는데, 당 중종이 발해군왕으로 봉하니 발해라는 이름이 처음 있게 되었다. 건국한 지 거의 300년이 되어 처음 거란에게 멸망되었지만, 재차 금에 의해 지켜지고 만주에 의해 다시 흥성하게 되었다. 비록 변천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숙신의 후예라는 것은 영구히 변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발해는 물길에서 나왔다. … 발해의 선조는 속말부에서 나왔고 성은 사리씨인데, 발해로 봉해짐에 이르러 성을 고쳐 대씨라 하였다. 요·금에 이르러서도 대씨의 잔존이 여전히 있었다. 또한 고려에 들어간 자는 성을 고쳐 왕씨라 하였다. 옛날 당 장건장의 『발해국기』 3권이 있었는데 『신당서』「예문지」에 보이지만,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다. 그 후 여러 책에는 간략히 한두 건만 언급했을 뿐이다. 유독 『당서』와 『책부원귀』에 기재된 발해 기사가 그나마 많아서 국조에서 이를 근간

8 『尚書』「周書」, 周官, "成王既伐東夷 肅愼來賀 王俾榮伯作賄肅愼之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만주원류고』를 완성하였다. 아래로 『거란국지』·『대금국지』·『송막기문』·『통지』·『오대회요』·『동국통감』 등 여러 책에 각기 기술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결국 발해 일국의 기사를 일일이 서술하여 책을 완성한 자는 없다. 내가 스스로 자세히 헤아리지 못하고 사사로이 옛 사람의 『거란국지』와 『대금국지』의 예를 빌리고, 흩어진 것들을 끌어 모아서 옛 이야기들을 정리·배열하였다. 이로써 훗날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는 숙신, 아래로는 금과 만주에 이어지는 시말을 규명하여 손금 보듯 환하게 하려 한다. 일대의 흥행을 충분히 알고자 한다면 그 문물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먼저 여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흥망성쇠의 두서를 잡아내는 것도 족히 후세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해가 위로는 숙신, 아래로는 금과 청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발해는 만주족의 역사인데 발해의 사서가 없으니 기타 사서에 흩어진 발해 기사를 모아서 『발해국지』를 편찬한다고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만주족의 시원인 숙신과 중원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만주족과 한족의 깊은 연원을 설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숙신-발해-금-청으로 이어지는 만주족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다.

당안은 청의 멸망을 매우 애통해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감정은 『발해국지』「기년」 사론에서 발해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논하여 말한다. 걸걸중상이 패망한 잔당과 함께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를 보호한 것은 태왕이 빈(邠)을 떠난 것[9]과 마찬가지이다. 고왕 조영이 창업의 뜻으로 가시밭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초를 닦은 것은 구천이 월을 부흥시킨 것과 유사하다. 국토가 건립됨에 이르러서는 이내 문치와 덕치로 다스렸다. 제도를 고치고 관호를 세우고 군현을 설치하였다. 또한 사대의 예를 다하였고 서류를 필사하는 관리를 파견하였으니, 끝내 중원과 발을 맞추게 되었고 중국과 필적하게 되었다.

9 『孟子』「梁惠王下」, 여기서 태왕은 주 문왕의 조부를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방의 영역이 5,000리에 이르고 국가가 300년을 유지하였다. 당시 사방에서는 이를(발해를) 뛰어넘는 자가 거의 없었으니 역시 융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이랄씨(야율씨)가 갑자기 흥하여 끝내 그 침대 옆(세력 범위)을 잠식하였으니, 긴 밤의 꿈에서 아니 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은 비록 대대로 모면할 수 없지만, 은허에 자란 보리이삭[10]과 주 왕실에 줄줄이 늘어선 기장[11]에 관한 일화를 돌이켜보니, 원래 천추(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감개는 같은 것이었다. 옛날 굴영군이 이르기를 "누가 영도(郢都)의 두 동문을 황폐하게 만들었는가?"[12]라고 하였다. 유갱생이 이르기를 "군주는 안정을 욕망하지 않는 자가 없지만 늘 위태로워지고, 생존을 욕망하지 않는 자가 없지만 늘 멸망한다"[13]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말은 진실로 침통하도다. 그러나 또한 죽을 때까지 국가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존망의 원인이 인간사에 의해 일어나고 하늘의 뜻에 의해 성사되는 것인데 보잘것없는 구설을 그 사이에 둘 수 있겠는가? 오호! 그런데 무측천이 처음에 걸걸중상을 진국공으로 봉하였고, 천제는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 끝내 완안(금 황실 성)과 애신(청 황실 성)의 기틀을 일으켰으니, 천명의 귀속이 이곳 징조이다.

당안은 발해 멸망을 언급하면서 「맥수가」와 「서리」 및 「애영」의 일화를 들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아픔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 국가의 흥망은 예로부터 면치 못할 일이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천제는 동방에서 나오는 것이니 발해가 멸망하고 금·청이 세워진 것은 천명이 돌아온 것이라고 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게 될 이곳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발해 멸망에 대한 사론을 빌어 저자의 청 멸망에 대한 슬픔과 추억 및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10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麥秀.
11 『詩經』 「王風」, 黍離.
12 『楚辭』 「九章」, 哀郢.
13 『漢書』 卷36 「楚元王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고 「이성열전(異姓列傳)」의 사론에서는 발해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이 함께 발해국을 구성하였다고 토로하면서, 청을 멸망으로 몰고 간 민족 모순에 대한 그의 국가주의적 생각을 투영하고 있다.

> 세상에서는 발해의 발흥은 대개 고구려의 유업을 편승하였으므로 그 토지와 인민의 절반은 고구려에서 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고구려 초기에는 또 어디서 (여업을) 취한 것일까? 옛날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조선은 숙신의 남부에 있었는데, 혜제 말기에 이르러 연나라 사람 위만이 차지하였다. 한 무제가 위씨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사군을 설치하였으니, 이른바 진번·임둔·낙랑·현도가 이것으로, 그 땅은 한나라에 속하였다. 당시 또 이른바 진번·진국이 있었다. 번(番)의 발음을 응소는 반(盤)이라 하였고, 또 번한이라 하였으니 (진번은) 바로 변한(弁韓)이다. 진국은 바로 진한이다. 살펴보건대 진한이 나중에 신라로 바뀌고 변한 또한 신라의 소유로 된 것이 모두 한나라 선원 연간이니, 이는 진번이 비록 군이 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상실되었던 것이다. 한나라가 망할 때까지 낙랑·현도만이 중국에 귀속했을 뿐이다. 『한서』에서 또 '옛날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망명한 자들이 모두 조선에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땅이 당시 숙신과의 경계라는 것이다. (이 땅에) 기자가 거주하니 조선이 되었고, 위만이 차지하니 고구려가 되었다. 또 춘추시대에 초나라와 오나라는 모두 만이라고 불리며 상국을 업신여기며 제나라나 진나라와 교대로 중국을 주관하다가, 마침내 중국이 되었다. 만약 당시에 숙신에도 초나라 장왕이나 오나라 부차 같은 자들이 있었다면 역사서가 또 세가에 편입시켜 대대로 화하의 후예로 칭했을 것이다. 그러한즉 발해의 신하들은 숙신의 후예인가, 조선의 갈래인가, 연·제·양한의 유망민인가? 누가 분명히 알아내고 누가 분명히 분석하랴! 청나라 황실이 처음 천명을 받을 때, 조선인이 귀화해 온 자는 규정에 따라 만주적에 편입시켜서, 박씨·김씨·왕씨·이씨 등이 모두 씨족 통보(通譜)에 수록되었으니 그 본원을 얻었다.

위의 사론에서는 발해 시기에 이르러 숙신·조선·연제·양한 등의 후예들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두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유업을 편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당안은 숙신·조선·연제·양한 등의 후예들이 모두 발해국의 신하였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조선인이 청에 귀화해 오면 만주적에 편입하여 청국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다. 당안은 어느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국가를 이룬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안은 청말 만주족 관인으로서 만주족과 관련된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중 만주족의 역사로서 『발해국지』를 편찬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청의 지배계층인 만주족만의 역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오래전부터 만주족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발해국지』에 활용된 한국사료

『발해국지』에 활용된 한국사료는 『동국통감』과 『고려사』 등이 있다.

『발해국지』 권1 「후기년」에 대연림의 흥료국을 기록하면서 『동국통감』에서 대연림이 대조영의 7세손이라고 한 내용을 주로 달았다.

> 太平九年八月 東京舍利軍詳穩大延琳東國通鑒曰 大祚榮七世孫.

그리고 권2 「지리지」에서 발해의 독주주인 영주를 기록하면서 『동국통감』의 내용을 인용하여 위치비정을 하였다.

> 郢州 獨奏州 … 又按 東國通鑒載 興遼國遣郢州刺史李匡祿來告急 則郢州地近高麗矣.

권2 「직관지」에서 무관직을 기록하면서 『동국통감』에 검교개국남 박어가 있으니 발해에도 5등 봉작이 있었다고 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東國通鑒有檢校開國男朴漁 則渤海亦有五等封爵.

권4 「혈유열전(孑遺列傳)」에서 대광현·대원균·대화균·대복모·신덕·대심리·박어·오흥·모두간 등은 『동국통감』을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大光顯 諡譔之世子也 渤海既亡 光顯率其遺臣大元鈞等奔高麗 高麗王錫光顯名曰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東國通鑒

大元鈞 官司政同上

大和鈞 官禮部卿同上

大福謨 官工部卿同上

申德 官將軍同上

大審理 官左右衛將軍同上

朴漁 檢校開國男同上

吳興 官工部卿同上

冒豆干 官小將 以上八人 皆隨世子奔高麗者.

이상 『발해국지』에서 인용 혹은 소개된 『동국통감』의 내용은 모두 『동국통감』이 『고려사』「세가」의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당안은 『고려사』의 관련 내용을 보지 못하여 다만 『동국통감』의 상기 내용을 인용한 듯하다. 그러나 그가 『고려사』를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권2 「풍속지」 사론에서는 『고려사』(권64 지18 예6 오복제도)를 참고하여 참최·재최·대공·소공·사마 기간 휴가일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법은 만주 풍속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論曰 考高麗史 五服給暇 斬衰給百日 齊衰期給三十日 大功給二十日 小功給十五日 緦麻給七日 其法 滿洲風俗所本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국지』가 가장 많이 인용한 『동국통감』에서는 고려 태조가 거란에 대해 행한 정책을 두고 "거란이 발해에 신의를 저버린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발해를 위하여 보복을 한다고 하는가"[14]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동국통감』의 발해 인식을 당안이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동국통감』 외에 다른 한국 사서를 보지 못한 것인지는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Ⅲ. 황유한의 『발해국기』와 활용된 한국사료

1. 생애와 저술 동기

황유한의 자는 신보(申甫)이고 호는 가계(稼溪)이며 강서 숭인현 사람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는데, 황유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독서로 출세하여 이름을 날렸다. 12세 때 이미 음운에 능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박학다식하고 특히 시에 능하였다. 광서 22년(1894)에 향시에 응하여 거인(擧人)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진사에 합격하여 병부 직방사주사(職方司主事) 등 직을 담당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삼성은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여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광서 33년(1907), 서세창이 동삼성총독에 임명되면서 황유한을 육군 도련공소 참의(督練公所參議)로 위임하도록 상주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호란부 지부(呼蘭府知府)로 발령되었다. 호란은 원래 부도통이 관할하였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도적이 많았다고 한다. 황유한은 도적을 다스리려면 우선 사회를 재정비하고 교화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취임 후 그는 학정을 뿌리 뽑고자 친히 속리들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농사짓도록 권유하고, 수리(水利)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나무를 많이 심고, 습예국(習藝局)·위생국을 세웠다. 또한 소학

14 『동국통감』 권13, 고려 태조 25년 사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교와 중학교를 여러 곳 창설했으며, 굉문학사(宏文學社)를 창립하여 친히 학사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도적을 다스리는 데는 지방을 지키는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순경을 임용하였으며, 상과 벌이 엄격하고 공정하여 아침에 도적이 생기면 저녁에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혜민(惠民)'과 '보민(保民)'의 취지에서 출발하여 나쁜 규정을 혁파하고 세금을 경감하였으며 현안을 제때에 정리하여, 1년 만에 호란은 크게 다스려지는 상황이 나타났다.[15]

호란은 하얼빈과 인접해 있고, 송화강과 동청철로(東清鐵路)가 종횡무진하고 있어 러·일 등 식민지 개척자들이 수시로 입국하여 교섭할 일이 많고 까다로웠지만, 황유한은 늘 조약을 기반으로 그들의 입국을 막았다. 예를 들어, 선통 원년(1909) 6월에 러시아 함선이 호란하에 진입하여 아무도 감히 저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황유한이 호란하는 결코 공공하천이 아니므로 외부인의 선박이 조약을 어기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극렬히 논쟁하자,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 퇴각하였다. 동삼성 총독 석량(錫良)은 송화강·흑룡강의 선박이 매년 대량의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배들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이에 황유한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항해권은 러시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겠냐고 따졌다. 그러자 석량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를 철수하지 않았다.[16]

선통 2년(1910년) 3월, 황유한은 용강지부(龍江知府)로 발령되었다. 그는 용강부 재임 중 도박·아편 등의 악습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하였는데, 아편을 판매하는 상인과 누차 타일러도 고치지 않는 도박꾼은 발견 즉시 모두 체포하였다. 또 당시에 눈강(嫩江)이 범람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그는 상평창을 만들어 식량을 구매·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싼값에 팔아 이재민을 구제하여 청 조정의 표창을 받았다. 이때 동북에는 페스트가 유행하여 사망자가 아주 많았고 용강부 내에서 하루에 수십·수백 명이 죽었다. 이에 성소재지 치치하얼에

15 畢叢良, 2005, 「政績可收循史傳 晚年猶著致編書-黃維翰及其三部學術名著」, 『黑龍江社會科學』 93, 90쪽.

16 畢叢良, 2005, 위의 글, 9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역회를 설립하고 황유한이 회장을 맡았는데, 그는 중국과 서양 의사들을 초빙하여 방역과 구호에 나서 수많은 환자를 살렸다. 몇 개월간의 참담한 운영을 거쳐서야 전염병 발생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그도 여러 차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나 다행히 죽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민정사(民政使) 조연(趙淵)이 방역 일로 순무 주수모(周樹模)와 모순이 발생하여 탄핵·파직되었고, 황유한도 연루되어 선통 3년(1911) 2월 12일에 "방역에 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죄목을 쓰고 파면되었다.[17] 그 후 고향에 돌아가 은둔생활을 하다가 신해혁명이 일어난 후 북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북경에 거주하면서 그는 시인들이 조직한 문학 단체인 만사(漫社)에 가입하였고 동시에 저술에 몰두하였다.

황유한의 저술은 매우 풍부하며 동북 역사와 관련하여 『호란부지』 12권, 『흑수선민전』 24권, 『발해국기』 3편 등을 찬술하였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흑룡강통지』·『동삼성염법지(東三省鹽法志)』·『강서통지(江西通志)』 등 편찬에 참여하였고, 국사관·국립변역관(國立編譯館) 등 편찬 기관들이 그를 편수관으로 초빙하였으며, 『길림현지목록』과 『영길현지』의 편찬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흑룡강산수지(黑龍江山水志)』·『몽복지(蒙服志)』·『역대명인생졸연표(歷代名人生卒年表)』·『무군농산고략(撫郡農產考略)』 등 저술이 있다.[18]

황유한의 개인 저서는 대부분 흑룡강을 중심으로 찬술되었다. 『호란부지』는 그가 호란부에 취임한 후 흑룡강성에 성·부·현지가 없으므로 지방지를 편찬할 뜻을 가진 것이다. 이 책은 1908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선통 2년(1910)에 탈고하였으나, 얼마 후 용강으로 관직을 옮기고 질병·전쟁 등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전체 원고가 거의 소실되었다. 민국 원년(1912) 귀향 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원고를 보충하였으나, 약 10분의 3·4는 손실되었다.[19] 결국 민국 4년(1915)에 완성되었으니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은

17 畢叢良, 2005, 위의 글, 91쪽.

18 聞衡, 1997, 「黃維翰與黑水先民傳」, 『黑龍江史志』 第五期, 40쪽.

19 畢叢良, 2005, 앞의 글, 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히 내정·외교·재무 부세 등 주요 항목들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외국의 침략과 압박으로 변방 위기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저자의 경세치용의 학문을 보여주고 있다.[20]

『흑수선민전』은 그가 용강부에 취임하면서 편찬에 뜻을 두었다. 정치에 종사하면서 여유 시간에 고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흑수선민전』을 찬술한 것이다. 이 책은 1922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간행되었으며 한·위 시기부터 청 말기에 이르는 근 470명의 흑룡강성 소수민족 선현들의 사적을 수록하였다.[21]

그 후 『발해국기』를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 황유한은 1929년에 『발해국기』 초고를 완성하고 아직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듬해(1930) 6월 북경에서 병사하였으니 향년 64세였다. 그가 죽은 후에 포봉관이 유고를 정리·보완하면서 진원신(陳元愼, 황유한의 제자)의 건의하에 『발해국기』 하편 「재건국」편은 목차만 두고 삭제하였고, 원래 「재건국」편의 내용은 관련된 각 편에 나누어 실었다. 나중에 또 왕수남(王樹楠)이 유고를 심사·결정하여 서문을 쓰고 1935년에 간행하였다.[22]

황유한은 흑룡강 지역으로 파견된 관인으로 흑룡강에 대한 애착과 국가를 위해 흑룡강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의 15년에 걸쳐 『호란부지』에 이어 『흑수선민전』을 편찬하였고, 그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흑룡강성에도 영토를 두고 있던 발해국의 역사를 찬술하였다. 『발해국기』 「자서」[23]에서 그의 편찬 동기를 살펴볼 수 있다.

> 발해는 청주(靑州)와 영주(營州) 두 주 사이에 위치하는데, 한이 그 서남쪽 육지에 발해군을 두었고, 당은 그 북쪽 육지에 발해국을 세웠다. 바다 옆에서 나온 것

20 畢叢良, 2005, 위의 글, 92쪽.
21 畢叢良, 2005, 위의 글, 92쪽.
22 畢叢良, 2005, 위의 글, 92쪽.
23 黃維翰, 1934, 「『渤海國記』自序」, 『遼海叢書』, 遼海書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발(勃)이라고 하며, 발(渤)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문구가 아니지만, 후세에 계속 사용하였다. 발해는 당의 동쪽 먼 곳에 있는 대국으로 지역은 5천 리이고 5경을 두었다. 부 15개, 주 62개를 두었으며, 각기 현을 거느렸으니 그 수는 주의 몇 배나 되었다. 당 무후 성력 2년 기해년부터 당 명종 천성 2년 정해년까지 15~16세대 전해졌으며 229년을 넘겼다. 전장제도(典章制度)와 법규는 중국과 비슷하니, 그 얼마나 문치가 성대하였는가. 동쪽 먼 곳의 여러 국가는 상투를 틀고 만이 복장을 입는 토속이 성하여 정치 교화로 그 나라 풍속을 바꿀 수 없었는데, 부여부터 그 이후로 모두 그러하였다. 외지고 누추한 곳에 있으면서 대국의 풍이 있는 것은 오로지 발해뿐이다. 발해는 마땅히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거란에게 소멸되면서 마침내 역사를 잃고, 거란은 역시 스스로 이민족으로 만족하였다. 『당서』 태화 연간에 유주판관 장건장의 『발해국기』 3권이 있었는데, 왕응린이 『옥해』에 발해 기사를 기록하면서 일부분만 인용하였으니, 그 책은 이미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근세에 만주 진균의 『발해국지』가 있고, 조선 서상우의 『발해강역고』가 있다. 진씨는 자료의 채택이 협소하고 서씨는 요동 땅을 빠뜨렸으니, 각기 득실이 있다. 지금 여러 서적을 망라하고 해외 사서까지 더하여 책 3편을 썼으니 여전히 『발해국기』라고 부르며, 외진 곳의 패국의 오래된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니, 대체로 역시 흔들리지 않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우선 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그 서남쪽에 한이 발해군을 설치하였고 그 동북쪽에는 당이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중국 동쪽의 여러 국가는 풍속이 중국과 다르며 교화로도 그 풍속을 바꿀 수 없었는데 오로지 발해만 중국과 비슷하여 대국의 풍이 있다고 보았다. 당 장건장이 『발해국기』 3권을 편찬하였으나 거의 산실되었고, 당안의 『발해국지』와 서상우가 소개한 『발해강역고』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발해 역사 3편을 찬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책 이름은 장건장의 『발해국기』와 동일하게 지었다. 즉, 황유한은 자신이 흑룡강성에 관원으로 파견된 것을 당 조정에서 장건장을 발해에 파견했던 것과 성격을 동일시했던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발해국기』상편「국통」첫 부분의 논왈을 통해 황유한의 발해 인식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

> 논하여 말한다. 발해는 속말부가 건국하였는데, 속말은 말갈7부 중 하나이다. 그 선조는 숙신으로, 고려가 부여에서 나온 것과는 기원이 다르니 갈래는 자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오제의 자손 중에 지극히 먼 동북쪽에 좌천되어 거주하는 자가 있었다. 나필의『노사(路史)』에 대정씨(大庭氏)의 후손에 대씨가 있다고 하였으니, 속말이 혹시 그 후예인가? 이진충이 영주를 함락시킨 데는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그 계획에 참여했을 것이다. 무후가 죄를 사하고 상공(上公)의 작위를 준 것은 그들의 결탁을 갈라놓으려고 한 것이다. 용감하고 의리 있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는 언제나 사람들의 중시를 받기 마련이니, 이국타향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평범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발해의 국통을 속말말갈에서 찾고 있으며 그 선조는 숙신으로,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온 것과는 원류가 당연히 다르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대씨가 대정씨의 후예는 아닐까라고 하면서 선사시대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국통」의 마지막 논왈에서는 발해에 이르러 이미 중국의 예속(禮俗)을 채택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논하여 말한다. 발해의 세차(世次)는 신구『당서』와『책부원귀』에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대위해 일세는 오직『당회요』에만 보일 뿐 기타 사서에는 모두 결여되어 있다. 걸걸중상부터 대인선까지 대체로 16세대가 전해졌다. 당대의 제번(諸蕃)은 돌궐·회골·토번이 제일 강하고, 가장 오래 유지된 것은 거란이다. 그러나 세차가 인멸되고 내란이 많아 사분오열되었다. 발해국은 홀한해에 위치하면서 부자간에 대대로 전해지거나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받았으니, 묵돌(冒頓)이나 다섯 선우(單于)가 왕위 쟁탈을 위해 서로 죽였던 일 같은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비록 동북방의 오랑캐이지만 우리는 중국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황유한은 발해가 비록 중국 동북방의 오랑캐이지만 중국의 예속을 사용하고 중국이 되고자 했다고 보았다. 즉, 그는 한유가 한 말을 빌려 오랑캐의 예속을 사용하면 오랑캐가 되는 것이고, 중국의 예속을 사용하고 동화되면 중국이 되는 것[24]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발해와 중국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해국기』 상편 「종족」의 논왈에서는 발해가 각 종족의 융합을 이루어낸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논하여 말한다. 발해는 말갈에서 일어났다. 말갈 여러 부는 각기 추장이 있고 옛날에는 통일되지 못했으며, 게다가 조선·부여·고려·예맥·옥저 여러 국가의 유민도 합쳐졌으니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의복·주거지 등 습속이 달랐다. … 한이 창해·진번 등 여러 군을 설치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폐지하거나 옮겼고,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했지만 10여 년 만에 옮겼으며, 요동에 관서가 있었으나 민들도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발해에 소속된 국·부나 종족은 많았지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으니, 그 책략과 습속에 따라 다스리는 이치는 필히 다른 사람을 크게 능가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외를 유지하며 200여 년 동안 이어지면서 해산되지 않았을까. 발해가 비록 멸망했지만 요·금·원·명 시대에 그 사람들과 종족은 오랫동안 사서에 실리며 우수하게 여겨져왔으니, 마치 외국사서에서 진인(秦人)·한인(漢人)·당인(唐人)이라 부르는 것과 서로 나란히 하는 것이다. …

여기서 황유한은 우선 발해가 말갈 여러 부와 조선·부여·고려·예맥·옥저의 유민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지역은 한과 당에서도 다스리지 못했는데 발해가 비로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종족들은 발해 시기에 융합되어 발해 멸망 후에도 오랫동안 발해인으로 불려왔다고 보았다. 즉, 발해가 여러 종족을 잘 다스렸다고 높게 평가한 이면에는 청이 중

24 韓愈, 『原道』, "孔子之作春秋也 諸侯用夷禮則夷之 進於中國則中國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을 통일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강조하고자 한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25]

이상을 종합하면 황유한의 발해 인식도 당안과 거의 다름없다. 발해는 속말말갈이 세운 국가이고 대조영 역시 속말말갈 출신이며, 숙신-발해-금-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정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신당서』의 기록을 취신하였다. 그리고 황유한은 청의 관인으로 청 정부 및 만주기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2. 『발해국기』에 활용된 한국사료

『발해국기』에 활용된 한국사료는 황의돈의 『조선역사』, 서상우의 『발해강역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약용의 『대조선강역고』, 『고려사』 등이 있다.

우선 『발해국기』 상편 「국통」 대조영조에서 황의돈의 『조선역사』가 대조영을 태조라고 칭한 것을 인용하였다.

> 渤海太祖高王大祚榮太祖之稱從海圓黃義敦朝鮮歷史.

다음 대흠무조에 『조선역사』를 인용하여 입당 유학 및 신라와 통교, 그리고 태평성세를 누렸다는 등 부분을 기록하였고, 연도와 관련하여 『조선상세사』[26]의 연도를 주로 달아 소개하였다.

---

25 황유한의 이러한 인식은 그가 『흑수선민전』에서 "오늘날 천하는 일가를 이루었으니 이쪽 강토와 저쪽 경계의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한 데서도 나타난다(황유한, 1987, 『黑水先民傳』, 吉林文史出版社, 2쪽, "今者天下一家 無此疆彼界之別").

26 『발해국기』 下篇 「比鄰新羅」에서 小田省吾의 『朝鮮上世史』라고 한 부분이 있기에, 『발해국기』에 보이는 『조선상세사』는 모두 小田省吾의 『朝鮮上世史』로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自是數遣諸生入唐就學 並通好新羅朝鮮歷史.

四十九年東南徙都東京新書貞元時朝鮮上世史貞元二年.

王偃武修文 國境太平 人民謳歌之朝鮮歷史.

또 대화여조에도 『조선역사』 발해왕통표를 인용하여 기록한 부분이 있다.

渤海成王大華璵 … 文王欽茂之孫父宏臨早死既嗣位復還都上京改年中興數月薨謚曰成王弟嵩璘嗣新書華璵在位久暫無文今從朝鮮歷史渤海王統表.

대명충조에서는 『신당서』에 따라 대명충이 즉위 1년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조선역사』에는 즉위 반년 만에 죽었다고 했다는 것을 주로 달았다.

渤海簡王大明忠 … 改年太始立一歲薨朝鮮歷史立半年卒今從新書.

대인수조에서는 대인수가 발해 강역을 개척한 것을 기록하면서 『당서』·『요사』·『조선역사』 세 책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六年遣大聰叡五十人入唐備宿衛王在位朝貢於唐者十聘日本者六自康王大嵩璘以來狃於文治國勢衰弱王南畧新羅北討海北諸國開拓境宇號稱中興唐書仁秀討伐海北諸國開大境宇遼史地理志唐元和中渤海大仁秀南定新羅北畧諸部開置郡縣黃義敦朝鮮歷史大仁秀南畧新羅邊境北滅越喜虞婁鐵利率賓拂涅諸國又踰黑水埽平海北諸部國勢中興今約三書文意為之.

대건황조에는 '조선사 연표'를 인용하여 사망연도를 기록하였다.

渤海王大虔晃 … 十二年卒朝鮮史年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현석조에서 경왕이라는 시호는 '조선역사 연표'를 따른 것이라고 주를 달았다. 그리고 즉위년과 졸년 미상이라고 기록하면서 '조선역사 연표'의 연도를 주를 달아 소개하였다.

> 渤海景王大玄錫 … 景王謚從朝鮮歷史年表 … 改年未詳朝鮮史年表元年庚寅 … 卒年未詳謚景王朝鮮史年表在位三十一年庚申則為唐昭宗光化三年也.

대인선조에서 즉위년은 '조선사 연표'의 연도를 소개하였고, 『조선역사』에서 궁예와 전쟁한 부분을 인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조선사 연표'를 인용하여 시호를 애왕이라고 기록하였다.

> 渤海哀王大諲譔 … 朝鮮史年表謂嗣立於唐昭宗改元天復之歲則是元年太歲辛酉也 … 四年新羅弓裔稱帝五年弓裔攻我南鄙邊將尹誼以鶻巖城附之王怒使將軍達姑狄盛兵攻新羅登州大敗喪其師邊將高子羅復叛朝鮮歷史 … 謚哀王朝鮮史年表.

이상 『발해국기』 상편 「국통」에서 『조선역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김육불이 교록(校錄)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덧붙인 것이 있다. 김육불은 근대인 황의돈이 『조선역사』를 편찬하여 조선의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는데, 책에서 대조영을 발해 '태조'라고 칭한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27] 또 황유한이 참조한 '조선사 연표'와 '조선역사 연표'는 황의돈의 『조선역사』에 부록된 연표라고 하면서,[28] 황유한이 말하는 '경왕'·'애왕'의 시호는 근거가 없

27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渤海國志三種』, 天津古籍出版社, 168쪽(金毓黻 撰, 1933, 『渤海國記校錄』).

28 김종복은 황유한이 인용한 『朝鮮歷史年表』 내지 『朝鮮史年表』는 小田省吾의 『朝鮮史大系年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김종복, 2018, 「중국 근대의 발해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해는 신라 경애왕 3년인데, 『동국사략』 권1에 "渤海至景哀王時 契丹攻滅之"라고 하여 말이 명백하지 못하므로 '경애' 두 글자를 각기 발해 두 왕의 시호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29]

다음 『발해국기』 상편 「종족」에서 고구려를 소개하면서 조선사[30]를 인용하였고, 그 외 신라 왕족 성씨와 관련하여 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의 『조선사표(朝鮮史表)』를 참고한 부분도 있다.

> 亦有肅愼扶餘宇文契丹種人朝鮮史西川王十一年 拔肅愼檀城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又 文咨明王三年 扶餘王及妻孥以國來降.
>
> 金氏朴氏疑新羅王族大原利武朝鮮史表 新羅國朴氏十王 金氏十八王.

『발해국기』 상편 「예속」에도 다음과 같이 『조선역사』를 인용하였다.

> 武王文王及大彝震大虔晃大玄錫俱遣諸生肄業唐太學朝鮮歷史 … 大光晟大元謙光晟咸和四年朝於唐後唐嘗以元謙試國子監丞朝鮮歷史作光晨元兼無姓當指二人言也 高元固等號為碩學徐昂治天歷傳授日本宣明歷大簡之以畫名朝鮮歷史.

이에 대해 김육불은 당 선명력을 일본에 전해준 사람은 오효신으로 서앙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앙은 당의 사람으로 발해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는 『조선역사』의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3판 『조선역사』에는 서앙이라는 이름을 이

인식-민국시대의 渤海三書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20쪽).

29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앞의 책, 168쪽(金毓黻 撰, 1933, 『渤海國記校錄』).

30 여기서 조선사는 『조선역사』일 것으로 생각되나 더 면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미 삭제했으니 대체로 그 오류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1]

『발해국기』 중편 「지리」에서 우선 상경용천부의 천도 시간에 대하여 『조선상세사』의 연도를 주로 달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上京龍泉府 … 四十九年東南徙東京新書貞元時朝鮮上世史貞元二年.

다음 동경용원부조에서는 『발해강역고』·『조선상세사』·『삼국사기』를 인용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東京龍原府 在上京東南 濊貊故地 當作沃沮故地 徐相雨渤海疆域考 此本沃沮故地而曰濊貊故地者 沃沮在北 濊貊在南 壤地相接相錯 以致於混稱歟 … 一曰柵城府 案 柵城之名 漢魏即有之 金富軾三國史記 高麗王宮四十六年 王東巡柵城 … 又曰 高麗王位宮 二十一年 漢平州人夏瑤 以百姓一千餘家來投 安置柵城 … 文王大興四十八年自上京東南徙都焉 新書貞元時 朝鮮上世史貞元二年.

즉, 동경용원부 고지와 관련하여 『신당서』 권219 「북적열전」 발해전에는 "예맥고지를 동경으로 삼았고 용원부라 불렀다"라고 하였지만, 황유한은 동경용원부가 옥저고지라고 보았다. 그 근거는 서상우의 『발해강역고』에서 "본디 옥저고지인데 예맥고지라고 일컬은 것은 옥저가 북쪽에 있고 예맥이 남쪽에 있으나, 영토가 서로 접하고 서로 들쑥날쑥하여 헷갈리게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데 있다. 또 책성을 소개하면서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주를 달았고, 동경용원부의 천도 시간에 대하여 『조선상세사』의 연도를 주로 달아 소개하였다.

서경 압록부조에는 『조선상세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하였다.

---

31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앞의 책, 168쪽(金毓黻 撰, 1933, 『渤海國記校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西京鴨淥府 … 正州沸流郡 本沸流王故地 國為公孫康所並 後屬高麗 渤海置州 後升為郡 有沸流水今日沸流江 … 朝鮮上世史以奉天佟佳江當之誤矣.

즉, 비류수의 위치비정에서는 『조선상세사』가 동가강을 비류수로 본 것을 비판하면서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리부조에서는 불함산을 조선 사서에서는 백두산이라고 한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定理府 挹婁故地 … 不咸山橫亙奉吉之交暨朝鮮咸鏡南道平安北道 不咸山中國史志作長白山 朝鮮史志作白頭山.

즉, 정리부를 기록하면서 불함산을 중국 사서에서는 장백산이라 하고 조선 사서에서는 백두산이라고 한다고 소개하였다.

또 솔빈부조에서 안정복 『동사강목』과 정약용의 『대조선강역고』 및 서상우의 『발해강역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率賓府 率賓故地新書渤海傳 率賓 舊未聞 疑指卒本言之 … 安鼎福東史綱目 丁若鏞大朝鮮疆域考曰 文學博士那珂通世氏 松井氏 白鳥庫吉氏 皆主江北說 卒本在佟佳江則那珂通世氏說也 安氏丁氏則謂在興京 徐氏疆域考卒本 率賓 音之轉而訛 今咸鏡道三水府西北鴨綠江內外地也.

즉, 솔빈을 졸본으로 추측하고 졸본의 위치를 고증하면서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정약용의 『대조선강역고』의 위치비정과 이들 책에 나오는 일본 학자들의 위치비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 서상우의 『발해강역고』에서 졸본은 솔빈의 음이 변하여 와전된 것이고 함경도 삼수부 서북쪽의 압록강 내외 지역이라고 한 것을 소개하였다.

영주조에는 『고려사』를 인용하여 주를 달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郢州 … 高麗史 顯宗世家 興遼國遣郢州刺史李匡祿來告急.

『발해국기』 중편 「직관」 외관조에 『조선역사』를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選法文武並用朝鮮歷史.

즉, 『조선역사』를 인용하여 외관의 임용 방법은 문무 겸용이라고 기록하였다.

『발해국기』 중편 「인물」 대광현조는 『고려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大光顯 哀王諶譔之世子也 渤海亡之八年 率眾數萬 奔高麗 時為高麗王王建天授十七年甲午秋七月也 賜姓名王繼 附之宗譜 特授元輔 守白州以奉其祀 元輔者 摩震國王弓裔所置官 高麗王王建因之 尋廢 若唐散官特進之類 白州屬高麗畿內道 賜姓王者 高麗國姓也鄭麟趾高麗史世家二.

『발해국기』 하편 「비린신라(比鄰新羅)」에는 발해가 고구려 북쪽 국경이므로 조선사에서 발해를 북조, 신라를 남조로 부른다고 소개하고, 『삼국사기』와 『조선상세사』를 인용하여 주를 단 부분이 있다.

渤海 高句麗北境也 故朝鮮史以渤海爲北朝 新羅爲南朝云 … 武王仁安五年新羅聖德王徵何瑟羅道丁夫二千人築長城於北境備我也小田省吾朝鮮上世史何瑟羅道江原道江陵方面 … 文王五十三年 新羅王金敬信以一吉飡伯魚使於我 定王永德四年 新羅王金彦昇以給飡崇正使於我 其史均書曰 使於北國三國史記 新羅官制十七等 七曰一吉飡 九曰級發飡 省文作給飡 北國猶北朝 謂渤海也 宣王建興九年彦升征漢山諸州郡萬人築長城浿江長三百里亦備我也三國史記漢山郡在今朝鮮京城之北 朝鮮歷史謂宣王南定新羅新唐書謂渤海有弁韓故地 疑當此時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즉, 지리적으로 발해는 고구려 북쪽 경계이므로 조선사에서 발해를 북조, 신라를 남조로 부른다고 해석하였다. 신라가 문왕 53년(790)과 정왕 영덕 4년(812)에 우리(발해)에게 사신을 보낸 것을 『삼국사기』에서 모두 북국에 사신을 보냈다고 기록했음을 소개하고, 북국이란 마치 북조와 같은 것으로 발해를 일컫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역사』에서 선왕이 남으로 신라를 평정했다고 한 것과 『신당서』에서 발해가 변한 고지를 영유하게 되었다고 이른 것을 선왕 건흥 9년(827)의 일로 추정하였다. 또한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조선상세사』에서 하슬라주는 강원도 강릉 방면으로 보았다고 주를 달아 소개했고, 신라의 관제와 한산군의 위치에 대해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을 주로 달았다.

『발해국기』 하편 「유민」에서 『조선역사』를 인용하여 대조영의 후손 열만화가 정안국을 칭했다고 기록하였다.

建國改元 自稱定安國 立大祚榮裔孫烈萬華朝鮮歷史.

이에 대해 김육불은 『송서』 「외국전」에서 정안국은 마한의 종이라고 했는데 비록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열만화가 대조영 후손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32] 그 후의 국왕 오현명이 스스로 발해의 유민이라 하였으니 다만 발해 명문 중의 하나일 뿐이지, 이로 인해 그 국왕을 발해 왕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어 대저 『조선역사』에서 말하는 발해의 역사 사건은 매번 독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인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33]

「유민」편에는 『고려사』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기록하거나 주로 달기도 하였다.

---

32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위의 책, 172쪽(金毓黻 撰, 1933, 『渤海國記校錄』).

33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위의 책, 172쪽(金毓黻 撰, 1933, 『渤海國記校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鐵利國 唐鐵利部也利高麗史同遼史作驪北盟會編作離 在黃龍府北 數自通於唐 見朝貢中國篇 亦嘗附渤海使通於日本 見日本史 後為渤海鐵利府 渤海之屬於契丹 改府為州 鐵利遺民仍建國稱王 遼史所謂鐵驪國王府是也 國介於契丹高麗二大國間 聘使不絕 周顯德元年甲寅 其國王那沙遣女真萬豆如高麗 獻馬及貂鼠青鼠皮 高麗王亦遣使報聘 其後複請歷日於高麗 高麗許之 宋開寶間 亦嘗貢馬於宋 遼聖宗開泰元年 送兀惹戶百餘至賓州 遼賜以絲絹 那沙以佛像儒書為請 遼主複賜以護國仁王佛像一易詩書春秋禮記各一部 國雖小 崇尚文教 猶有渤海諸王風也 女真侵遼邊 遼發黃龍府鐵驪軍拒之 當亦那沙主國時事 遼命鐵利與越里篤奧裏米剖阿里蒲奴裡五部歲貢貂皮六萬五千馬三百 又置屬國軍 有事則遣徵兵 或下詔專征 不從者 討之助眾多寡多從其便 無常額 鐵利兀惹皆與焉 天祚天慶三年 鐵利偕兀惹同歸女真 與遼絕 又十一年而遼亡遼史高麗史契丹國志.

興遼國大延琳者 渤海國始祖大祚榮裔孫也鄭麟趾高麗史作大祚榮七世孫世數疑有誤 為契丹東京舍利軍詳穩 時戶部使韓紹勛厚斂 民不堪命 延琳因以舉事 遼聖宗太平九年 囚留守駙馬蕭孝先及南陽公主 殺韓紹勛等 即位號其國為興遼 建元天慶 以大延定為太師 劉忠正爲行營都部署 大慶翰李匡祿等為寧郢各州刺史鄭麟趾高麗史世家五 … 郢州刺史李匡祿詣高麗乞援聞國亡 遂留不歸高麗史.

其奔高麗者 高麗太祖乙酉八年九月丙申 渤海將軍申德等五百人來附 庚子禮部卿大和鈞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謇左右衛將軍大審理等一百戶來附 丁亥十年三月 工部卿吳興等百一十人來附 此知國之將亡而先去之者也 戊子十一年正月 渤海國亡 秋七月 渤海人大儒範率眾來附 九月 隱繼宗等來附 見於天德殿 三拜 人謂失禮 大相含弘曰 失土人三拜 古之禮也 己丑十二年九月 渤海正近等三百人來附 甲午十七年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眾數萬來奔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見宗子篇 同賜僚佐爵軍士田宅有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戊戌二十一年 渤海樸升以三千餘戶來附 景宗己卯四年 渤海人數萬來附高麗史.

발해가 멸망한 후 왕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고려로 내부하였기 때문에 『고려사』에는 그 유민들의 사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해국기』 「유민」편에 『고려사』의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 『발해국기』 하편 「잡지(雜識)」에 『고려사』를 인용하여 만부교사건을 기록하였다.

渤海亡之十五年 契丹遣使如高麗修好 遺橐駝五十匹 高麗王建以契丹嘗與渤海連合 背盟滅其國 甚無道 不足遠結為鄰 遂絕交聘 流其使三十人於海島 系橐駝萬夫橋下皆餓斃高麗史.

이상과 같이 황유한의 『발해국기』에 활용된 한국사료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당안의 『발해국지』에 비해 수집·수록한 사료가 풍부하나 당안과 마찬가지로 대조영 등에 관한 기록에서 『신당서』의 내용을 위주로 수록하였다.

Ⅳ.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과 활용된 한국사료

1. 생애와 저술 동기[34]

김육불은 요녕성 요양현 한군정홍기 사람이다. 1908년 봄, 21세 나이로 봉천성립중학당에 입학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국회청원운동'이 일어났고 봉천성에

34 김육불의 생애와 저술 동기는 주로 졸고(성희란, 2021, 「중국 근현대의 동북변경과 발해사 연구」, 『사총』 102, 4장)를 참고·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도 속히 국회를 열 것을 청하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지만, 정부에서 의논이 길어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김육불은 여러 학교의 대표와 함께 자의국(咨議局)으로 가서 의장 오경렴 앞에서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며 국회를 속히 열 것을 청원하였다.[35] 그는 1913년 가을 북경대학 중문학과에 합격·입학하였고, 1916년 졸업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교편을 잡았다. 1920년 10월, 그는 고향사람인 손기창을 따라 치치하얼로 가서 흑룡강성 교육청 과장을 맡게 되었다.[36] 1921년 봄에는 손기창과 함께 길림시로 갔고, 이후 8년 동안 장춘시와 길림시를 오가며 관직 생활을 하였다. 김육불은 장기간 요녕·길림·흑룡강 3성의 정계에 종사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학문을 틈틈이 연구하였다. 이 시기 김육불은 초기에는 시사(詩詞) 창작에 몰두하다가 1923년부터 사학연구로 방향을 바꾸었다.

1929년 3월, 김육불은 심양으로 돌아와 동북정무위원회 기요처(機要處) 주임비서를 맡게 되었고, 1931년 4월 18일에는 장학량이 그를 요녕성정부 위원 겸 교육청 청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주사변이 발발한 직후 4일 동안 김육불은 줄곧 요녕성정부 주석 장식의의 집에 있다가 일본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장식의에 이어 일본군에게 통제되었고, 3개월 정도 연금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장식의가 일본군에게 투항하고 봉천성 성장을 맡게 되어 김육불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김육불은 만주국 봉천성도서관 부관장 및 '일만문화협회(日滿文化協會)' 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협회의 간행물인 『만주학보』의 편집을 책임졌다.[37] 이 시기 김육불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북지역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에 열중하였고, 『발해국지장편』 20권과 「보유(補遺)」 1권, 『요해총서』 10집, 『봉천통지』 100책, 『선통정기(宣統政記)』 13권 등을 출판하였다.

---

35 金景芳, 1986, 「金毓黻傳略」, 『史學史研究』 第3期, 71쪽.

36 金景芳, 1986, 위의 글, 71~72쪽.

37 王力, 2017, 「遼東文人之冠金毓黻」, 『文存閱刊』 4期, 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36년 4월 13일 그는 안동에서 출국하여 일본 동경으로 향하였고,[38] 7월에는 일본에서 가명으로 여객선을 타고 상해로 탈출하였다. 같은 해 9월부터 중앙대학 사학과에서 동북사를 강의하였다. 1937년 5월 요녕성 출신인 유상청이 안휘성 성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곧바로 김육불을 초빙하여 성정부 위원 겸 비서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안휘성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유상청이 퇴직하면서 김육불도 직무를 그만두고 중경으로 갔다. 1938년 봄, 일본의 침략을 피해 중경으로 옮긴 중앙대학에 다시 들어가 사학과 교수 및 주임을 맡았다.[39] 1941년 가을, 김육불은 동북대학 총장인 장계분(臧啟芬)의 요청하에 동북대학으로 옮겨가서 교직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그는 『지림(志林)』 간행물을 책임·편집하고 동시에 『동북통사』 상권을 출판하였다. 1943년 가을, 그는 동북대학 문학원 원장을 맡게 되었고[40] 이때 교육부장 진입부(陳立夫)의 소개로 국민당에 가입하였다.[41] 1944년 겨울, 동북대학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는데 학생자치회의 일부 학생이 김육불의 만주국 체류를 문제 삼아 비방하자 사임을 결심하였다. 1945년 2월, 마침 중앙대학에서 그를 초빙하자 세 번째로 중앙대학에 돌아가 교직을 맡게 되었다. 이때 중경상무인서관(重慶商務印書館)에서 그의 『중국사학사』를 출판하였고, 동북대학교에서 『동북요람(東北要覽)』을 조판·인쇄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후 김육불은 국민정부 감찰원 감찰위원 등직을 맡았다. 1947년 2월부터 국사관 주북평판사처 주임 및 동북대학 사학과 교수 등을 겸임하였다.[42]

1949년 1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북경을 해방하였다. 1월 중순에

---

38 金毓黻, 1993, 『靜晤室日記』, 遼沈書社, 2658쪽.

39 初國卿, 2012, 「遼東文人之冠-紀念金毓黻先生逝世50週年」, 『沈陽故宮博物院院刊』 第12輯, 124쪽.

40 初國卿, 2012, 위의 글, 124쪽.

41 張曉唯, 2011, 「金毓黻在五十年代」, 『書屋』 第2期, 34쪽.

42 王力, 2017, 앞의 글, 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미 대만에 도착한 김육불의 두 아들은 빈번하게 편지를 보내와 대만에 와서 잠시 피신하도록 다그쳤지만, 그는 자신에게 심양의 문물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문헌 서적이 모두 북경에 보관되어 있기에 포기하면 물고기가 물을 잃은 것과 같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43] 같은 해 4월, 김육불은 심양에서 박물관 및 문물사무를 인계한 후 옛 국사관을 따라 북경대학 문과연구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원래의 국사관 북평판사처 주임직도 민국 사료연구실 주임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북경대학 교수직을 겸임하였고, 보인대학교에서 강의를 겸하였다.[44]

1952년, 김육불은 중국과학원 역사연구소 제3소로 전근되어 연구원직을 맡았다. 주된 임무는 지진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이었고, 또 범문란을 협조하여 『중국통사간편』 제2집을 교정하는 것이었다. 1960년, 김육불은 『발해국지장편』에 대한 마지막 수정을 진행했는데, 보완한 여러 내용 중에 당시 새로 발견된 「장건장묘지명」에 대한 고증만 해도 5,000여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임종까지도 이 책을 수정·완성하지 못하였고[45] 1962년에 생을 마감하였으니 향년 76세였다.

김육불은 봉천 사람으로 그가 『발해국지장편』을 편찬하게 된 것은 고향 땅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24년에 이미 『발해국지』 찬술계획을 세웠고, 1928년에는 『발해국지장편』이라고 책 이름을 정하였다. 오랜 시간 발해 사료를 수집하고 수시로 고증하여 일기에 적어두었다가,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관동군에게 연금되어 있는 동안 『발해국지장편』 20권을 거의 작성하였다. 그 후 또 1년이란 시간을 들여 수정·보완을 거치고 1934년 5월에 천화산관에서 정식으로 출판하였다.

김육불은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봉천으로 와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동북지역은 봉천군벌이 할거하는 상황이었다. 김육불은 당안보다 30세, 황유한보다는

43 張曉唯, 2011, 앞의 글, 34쪽.

44 金景芳, 1986, 앞의 글, 73쪽.

45 邢玉林, 1991, 「東北史壇巨擘金毓黻」, 『中國邊疆史地研究』 第2期, 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세 어렸고 봉천군벌하에서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당안이나 황유한과 달리 청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덜한 것 같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발해사를 찬술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발해국지장편서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찬술 동기를 밝히고 있다.

> 나는 예전부터 요동의 땅을 고찰할 때마다 발해를 떠올렸다. 그로 인하여 숙신의 후예가 나라를 세운 규모는 사리에서 시작되어 완안에서 융성하였고, 애신에서 극에 달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금과 청의 역사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발해의 역사서는 아직도 없으니, 이를 근심하게 되었다. 뒤이어 당안이 『발해국지』 4권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먼저 내 마음을 얻었음을 깊이 기뻐하여 급히 구해 보니, 사료를 수집한 것이 풍부하지 않고 논증도 소략함이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내가 생각하던 『발해국지』가 아니었다. 작년에 친구 종광생(鍾廣生)이 나에게 말하길 황유한도 이런 책을 찬술했다고 해서, 빌려서 베끼도록 부탁했지만 오랫동안 구할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 다행히 한가함을 만났으니 상자를 열고 책을 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예전에 섭렵하였던 자료들을 취하여 정리하다 보니 20권이 되었다. 서명은 당씨의 그전 이름을 취하되 장편 2자를 붙였으니, 스승 황간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46]

김육불은 숙신의 후예가 세운 국가 중 발해의 사서가 없는 것이 근심되어 발해사 편찬에 뜻을 두었다. 당안의 『발해국지』를 구해 보았으나 사료의 수집이 적고 논증도 소략하다고 느껴 『발해국지장편』을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발해국지장편』은 발해 관련 사료를 폭넓게 수집·수록하였으므로 발해 대조영이 속말말갈이라는 『신당서』 등의 사료 외에 『구당서』·『신오대사』·『책부원귀』·『당회요』·『오대회요』·『자치통감』·『송사』·『송회요』 등에서 발해 혹은 대조영이 고구려별종이라고 한 사료들을 「총략」에 수록하였다. 사료를 충분히

46 역문은 김종복, 2018, 앞의 글, 22쪽을 참조하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집·수록하고 그 기초 위에서 고증·고찰을 했기 때문에 대씨는 고구려 후예이나 대씨가 다스리는 발해는 속말말갈 거주 지역에서 건국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즉, 통치자는 고구려인이나 민은 속말말갈 등으로 추정하고, 다스려지는 수많은 민을 위주로 국가 명칭을 칭하기 때문에 속말말갈이라 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2. 『발해국지장편』에 활용된 한국사료

『발해국지장편』은 권1·2「총략」상·하를 두어 당대에서 원대까지의 사서에 나오는 발해 관련 사료를 첫머리에 집성해놓았다.[47] 권1「총략」상은 중국 고대의 발해 사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권2「총략」하는 한국과 일본 고대의 발해 사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국지장편』에 활용된 한국사료는 주로 권2「총략」하에 수록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8·11·12「신라본기」, 『삼국사기』 권43·46「열전」, 『해동역사』 권11, 『삼국유사』 권1「말갈발해」, 『삼국유사』 권2「효성왕」, 『동국사략』 권2, 『고려사』 권1·2·5·7·14「세가」, 『고려사』 권86「연표」, 『고려사』 권92「최언의전」, 『고려사』 권93「최승로전」, 「최사위전」, 『고려사』 권94「곽원전」, 「유소전」, 『고려사』 권123「유행간전」, 『동국통감』 상 권11·12·13·16·20 등에서 발해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기록하였다.[48]

이 밖에 『발해국지장편』 권14「지리고」 동경용원부조에 『삼국사기』 권37에 인용된 가탐 『고금군국지』를 다시 인용하여 신라 정천군에서 책성까지 무릇 39개 역이 있다고 수록하였다. 또 「지리고」에서 발해의 남쪽 변경을 추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발해고의 견해를 주로 달아 소개하였다.

---

47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앞의 책, 291쪽(金毓黻, 1934, 『渤海國志長編』 卷二「總略」下).

48 권2「總略」下에 수록된 한국사료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泥河在南海府之南 日人以德源以北之龍興江當之 自當以此爲渤海之南界 丁鏞大韓疆域考云 泥河者 我江陵之北泥川水也 新羅慈悲王時 徵何瑟羅人 築泥河城 又炤知王時 追擊句麗靺鞨兵于泥河之西 卽此地也.

『발해국지장편』 권15「직관고」 정당성 좌우사정을 논하면서 『동국통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左右司政各一人居左右平章事之下 爲大內相之貳 … 又案 東國通鑒 高麗太祖九年春 契丹滅渤海 司政大元鈞等前後來奔 此卽政堂省左右司政之官.

또「직관고」 정당성 삼부육사를 논하면서 『동국통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又案 東國通鑒載 渤海亡時 有禮部大和鈞來奔.

「직관고」 선조성 좌우상을 고찰하면서 『고려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참고하였다.

又案 高麗史 崔彦撝傳紀渤海宰相 烏炤度朝唐 此王瑋璋年間事也.

「직관고」에 거란이 설치한 발해 직관을 고찰하면서 『고려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참고하였다.

謹案 高麗史 大道行郎仕契丹 爲渤海軍監門軍 正奇叱火爲監門隊 高真祥爲判官 王光祿爲孔目 此皆渤海軍諸官之可考者.

『발해국지장편』 권17「식화고」 옥저의 면을 기록하면서 『동국여지승람』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과 같이 참고하였다.

> 又案 東國輿地勝覽 鏡城一帶產絲 絲即繭也 此亦爲沃州產綿之証.

권18 「문징(文徵)」에서는 김충신이 현종에게 올린 표의 내용을 『삼국사기』와 『책부원귀』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 臣所奉進止 令臣執節 本國發兵馬 討除靺鞨 有事續奏者 臣自奉聖旨 誓將致命 當此之時 爲替人金孝方身亡 便留臣宿衛 臣本國王 以臣久侍天庭 遣使從姪志廉代臣 今已到訖 臣即合還 每思前所奉進止 無忘夙夜 陛下先有制 加本國王興光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載臨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祇 蠢爾夷俘 計己悔禍 然除惡除本 布憲惟新 故出師義貴乎三捷 縱敵患貽於數代 伏望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稚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臣等復乘桴滄海 獻捷丹闈 効毛髮之功 荅雨露之施 臣所望也 伏惟陛下圖之.

이상의 한국사료를 활용한 외에도 『고려사절요』, 한치윤의 『해동역사』, 서상우의 『발해강역고』, 유득공의 『발해고』, 홍석주의 『발해세가』, 영순태씨족보 등을 참고하였다. 또 「보유」편에서는 황유한의 『발해국기』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부른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중국 근대의 발해사 전문저서인 『발해국지』·『발해국기』·『발해국지장편』의 저자 생애와 찬술 동기 및 이들 저서에 활용된 한국사료를 살펴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았다.

당안이 『발해국지』를 편찬할 당시 내적으로는 배만사조를 앞세워 한족 정권이 만주족 정권을 대체하여 공화국을 세웠고, 외적으로는 일본이 만선일체론을 앞세워 조선 합병에 이어 만주까지 병탄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당안은 만주기인의 일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일국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곧 일국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만주족 정권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였다. 당안의 이러한 생각은 『발해국지』에도 투영되어 나타났다.

당안은 청말 만주족 관인으로서 만주족과 관련된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중 『발해국지』는 만주족의 역사인 발해사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청의 지배계층인 만주족의 역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오래전부터 만주족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안은 『발해국지』의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중국 사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국사료인 『동국통감』과 『고려사』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였다. 당안은 숙신-발해-금-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정했고 대조영을 속말말갈로 보았다. 대조영 등에 대한 기록은 『신당서』의 내용을 위주로 하였다.

황유한은 청 멸망 후 군벌이 할거하던 시기에 북경에 거주하면서 『발해국기』를 찬술하였다. 그는 1908년부터 1922년까지 『호란부지』에 이어 『흑수선민전』을 편찬하였다. 흑룡강의 지방지와 흑룡강 역대 인물들에 대해 이미 편찬하였으니, 흑룡강에도 영토를 두고 있던 발해의 역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황유한은 청말 흑룡강에 파견된 관인으로서 흑룡강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강했고 흑룡강과 관련된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중 『발해국기』는 발해의 풍속이 중국과 비슷하여 이 곳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찬술했다고 하였다. 이 책은 발해가 중국과 풍속이 비슷하고 중국이 되고자 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만주족의 역사로서 발해를 서술한 것이다.

황유한의 『발해국기』는 당안의 『발해국지』에 비해 수집·수록한 사료가 풍부하다. 특히 조선 후기나 일제강점기 한국 측 발해 연구를 소개·인용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 한국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보는 주장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황유한의 발해 인식은 당안과 거의 다름없다. 숙신-발해-금-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정한 것과 대조영을 속말말갈이라고 한 것, 그리고 대조영에 대한 기록에서 두 사람 모두 『신당서』의 내용을 취신한 것 등이 동일하다.

김육불은 봉천 사람으로 그가 『발해국지장편』을 편찬하게 된 것은 고향 땅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김육불이 『발해국지장편』을 찬술할 당시 중국 동북지역은 봉천군벌이 할거하는 상황이었다. 김육불도 청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는 봉천군벌하에서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청에서 관직을 맡았던 당안이나 황유한과 달리 청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덜한 것 같았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발해사를 찬술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도 당안과 마찬가지로 만주족의 일인으로서 청이 멸망한 후 만주족의 역사인 발해사를 편찬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은 발해 관련 사료를 폭넓게 수집·수록하였으므로, 당안과 황유한이 취신한 『신당서』의 사료 외에도 『구당서』 등에서 대조영이 고구려별종이라고 한 사료들을 「총략」에 수록하였다. 사료를 충분히 수집·수록하고 그 기초 위에서 고증·고찰을 했기 때문에 대씨는 고구려 후예이나 대씨가 다스리는 발해는 속말말갈 거주 지역에서 건국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즉, 통치자는 고구려인이나 민은 속말말갈 등으로 추정하고, 다스려지는 수많은 민을 위주로 국가 명칭을 칭하기 때문에 속말말갈이라 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책은 만주족의 역사로서 발해사를 찬술하는 동시에 고구려 및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발해국지』·『발해국기』·『발해국지장편』의 공통점이라면 당안·황유한·김육불은 모두 숙신-발해-금-청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정했고, 발해가 200여 년 존속되면서 발해국의 여러 종족이 융합되어 발해인을 형성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발해사 전문저서는 더 이상 출현하지 않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1980년대에 발해사 전문저서가 다시 간행되기 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작하였다. 현재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민국 시기 발해 전문저서에서 강조하는 만주족 역사인 발해사를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뿌리는 바로 근대 시기 중국에서 찬술되었던 『발해국지』, 『발해국기』, 『발해국지장편』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발해사 인식의 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저서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은 여기에 활용된 한국사료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한중 간 역사인식의 상호 영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구당서』, 『동국통감』, 『맹자』, 『사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상서』, 『시경』, 『신당서』, 『아방강역고』, 『원도』, 『초사』, 『한서』, 『해동역사』.

단행본

金毓黻, 1993, 『靜晤室日記』, 遼沈書社.

唐晏·黃維翰·金毓黻 撰, 王承禮·張中澍 點校, 1992, 『渤海國志三種』, 天津古籍出版社.

王重民, 1992, 『冷廬文藪』 上, 上海古籍出版社.

中國第二歷史檔案館, 1991, 『中華民國史檔案數據彙編』 第二輯, 江蘇古籍出版社.

(淸)震鈞 著, 1982, 『天咫偶聞』, 北京古籍出版社.

黃維翰, 1934, 「『渤海國記』自序」, 『遼海叢書』, 遼海書社.

_____, 1987, 『黑水先民傳』, 吉林文史出版社.

논문

김종복, 2017,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南北國論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9.

_____, 2018, 「중국 근대의 발해사 인식-민국시대의 渤海三書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박찬흥, 2007, 「일제 '만선사학'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7.

성희란, 2021, 「중국 근현대의 동북변경과 발해사 연구」, 『사총』 102.

金景芳, 1986, 「金毓黻傳略」, 『史學史研究』 第3期.

聞衡, 1997, 「黃維翰與黑水先民傳」, 『黑龍江史志』 第5期.

烏澤聲, 1907, 「滿漢問題」, 『大同報』 第1期.

王力, 2017, 「遼東文人之冠金毓黻」, 『文存閱刊』 第4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隆福, 1907,「現政府與革命黨之比較」,『大同報』第5期.
張曉唯, 2011,「金毓黻在五十年代」,『書屋』第2期.
初國卿, 2012,「遼東文人之冠-紀念金毓黻先生逝世50週年」『沈陽故宮博物院院刊』第12輯.
畢叢良, 2005,「政績可收循史傳 晚年猶著致編書-黃維翰及其三部學術名著」,『黑龍江社會科學』93.
邢玉林, 1991,「東北史壇巨擘金毓黻」,『中國邊疆史地研究』第2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국 근대 발해사 저술에 활용된 한국사료 검토

성희란

당안의 『발해국지(渤海國志)』는 발해가 멸망한 후 거의 1,0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중국에서 찬술된 첫 발해 역사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러나 자료의 채택이 적고 고증이 엄밀하지 못한 면도 있다. 황유한의 『발해국기(渤海國記)』는 『발해국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수집·수록하였고, 특히 20세기 초 당시 한국학계의 발해 인식을 보여주는 황의돈의 『조선역사』 등을 인용·소개하였으며, 이 외에도 일본 사서를 참조하여 발해사의 내용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해국기』 역시 발해 관련 사료를 충분히 수록한 것이 아니고, 고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육불의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은 한·중·일 발해 관련 사료를 거의 모두 수집·수록하였고 금석문 등 고고학 자료를 더하여 대량 보완하였다. 동시에 앞의 두 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고증도 비교적 정확하게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발해사 연구의 거작으로 불리고 있다.

주제어: 발해국지, 발해국기, 발해국지장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Review of Korean Historical Records Used in the Writings of Balhae's History in Modern China

Cheng Jilan

Dang An's *Balhae Guk Ji* is groundbreaking as it represented the first Balhae history book written in China, nearly 1,000 years after the fall of Balhae. However, it could still be criticized that *Balhae Guk Ji* relied on only a limited number of historical sources and its historical evidence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Balhae Guk Ji*, Hwang Yu Han's *Balhae Guk Gi* gathered and incorporated a greater number of historical sources. In Particular, *Balhae Guk Gi* cited and introduced Hwang Ui Don's *Joseon YeokSa*, which represented the recognition of Balhae's history by Korean historians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t is also noteworthy that *Balhae Guk Gi provided additional* details about Balhae's history by referencing Japanese research. Nonetheless, *Balhae Guk Gi* also lacked sufficient Balhae-related historical materials and fell short in terms of historical evidenc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im Yuk Bul's *Balhae Guk Ji Jang Pyeon* compiled and encompassed nearly all historical records about Balhae across Korea, China, and Japan. Its comprehensiveness was further enhance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valuable archaeological findings, such as Geumseokmun materials. Meanwhile, *Balhae Guk Ji Jang Pyeon* could be hailed as a masterpiece in the field of Balhae's historical research, as it not only corrected inaccuracies in two previous historical writings but also conducted further research with precision.

Keywords: Balhae Guk Ji, Balhae Guk Gi, Balhae Guk Ji Jang Pye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新羅聖德王三十二年秋七月 唐玄宗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卿金思蘭歸国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金思蘭本王族 先因入朝恭而有禮, 因留宿衛 及是委以出疆之任三國史記 八 新羅本紀.

三十二年春正月 入唐宿衛左領軍衛員外將軍金忠信上表曰 臣所奉進止 令臣執節本國 發兵馬 討除靺鞨 有事續奏者書已見前卷 以下從略 帝許焉同上.

憲康王十二年春 北鎮奏 狄國人入鎮 以片木掛樹而歸 遂取以獻 其木書十五字云 寶露國與黑水國人共向新羅國和通同上 十一 新羅本紀.

景明王五年二月 靺鞨別部達姑衆來寇北邊 時太祖按即高麗太祖將堅權鎮朔州 率騎擊 大破之 匹馬不還 王喜 遣使移書謝於太祖同上 十二 新羅本紀.

開元二十一年 大唐遣使教諭曰 靺鞨渤海 外稱藩翰 内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 相爲掎角 聞有舊將金庾信孫允中在 須差此人爲將 仍賜允中金帛若干 於是 大王命允中 弟允文等四將軍 率兵會唐兵 伐渤海同上四十三 列傳.

崔致遠 字孤雲 王京新羅沙梁部人也 年十二 入唐求學 乾符元年 禮部侍郎裴瓚下 一舉及第 其文集有上太師侍中新羅國狀云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国號爲渤海 開元二十年 怨恨天朝 將兵掩襲登州 殺刺史韋俊 於是 明皇帝大怒 命内史高品按應作侃何行成大僕卿金思蘭 發兵過海攻討仍就加我王金某 爲正大尉持節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 以冬深雪厚 蕃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苦寒 勑命迴軍 至今三按應作二百餘年 一方無事 滄海晏然 此乃我武烈大王之功也同上 四十六 列傳.

玄宗遣內使高侃 何行成與金思蘭同使新羅 諭王曰 渤海外稱藩屛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擊其南鄙 又敕新羅名將金庾信孫允中爲將 賜金帛 王遣允中等四將 率兵會唐師共擊渤海 會天寒 士卒凍死 皆罷歸海東繹史 十一 引新羅史 疑此即因三國史記連綴而成 非別有新羅史也.

通典云 渤海本栗末靺鞨 至其酋祚榮立國 自號震旦 先天中玄宗王子 始去靺鞨號 專稱渤海 開元七年己未 祚榮死 謚爲高王 世子襲立 明皇賜典冊襲王 私改年號 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後唐天成初 契丹攻破之 其後爲丹所制三國史云 儀鳳三年 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伯山下 國號渤海 開元二十年間 明皇遣將討之 又聖德王三十二年 玄宗甲戌渤海靺鞨越海侵唐之登州 玄宗討之 又新羅古記云 高麗舊將祚榮姓大氏聚殘兵立國於大伯山南 國號渤海 按上諸文 渤海乃靺鞨之別種 但開合不同而已 按指掌圖 渤海在長城東北角外 賈躭郡國志云 渤海國之鴨淥南海扶餘柵城四府並是高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地理志朔州領縣有泉井郡 今湧州至柵城府三十九驛 又三國史云 百濟末年 渤海靺鞨新羅分百濟地拠此則鞨海又分為二國也 羅人云 北有靺鞨南有倭人西有百濟 是國之害也 又靺鞨地接阿瑟羅州 又東明記云 卒本城地連靺鞨或云今東真 羅第六祇麻王十四年乙丑 靺鞨兵大入北境 襲大嶺柵過泥河 後魏書靺鞨作勿吉 指掌圖云 挹婁與勿吉皆肅慎也 黑水沃沮按東坡指掌圖 辰韓之北有南北黑水三國遺事 一 靺鞨渤海.

開元二十一年癸酉, 唐人欲征北狄按此指渤海 請兵新羅同上 二 孝成王.

唐以大祚榮爲渤海郡王 及卒 私謚曰高王 子武藝立 渤海本粟末靺鞨 祚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父乞乞仲象保太白山東 祚榮嗣 驍勇善騎射 高句麗餘燼稍稍歸之 乃建國號震 地方千里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之地 至後 孫仁秀開大境宇 有五京十二應作五府六十二州 遂爲海東盛國 至景哀王時 契丹攻滅之 以爲東丹國 其世子及大臣等皆降于高麗東國史略 二 又圖書集成 方輿彙編 邊裔典 四十一 渤海部匯考亦引此文 改稱朝鮮史略.

高麗太祖八年按太祖建元天授 秋九月丙申 渤海將軍申德等五百人來投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 均老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謨 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幷有扶餘肅愼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 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 衆數十萬 隣于我境 而與契丹世讎 至是 契丹主謂左右曰 世讎未雪 豈宜安處 乃大擧 攻渤海大諲譔 圍忽汗城 大諲譔戰敗乞降 遂滅渤海 於是 其國人來奔者相繼 十二月戊子 渤海左首衛小將冒豆干 檢校開國男朴漁等 率民一千戶來附高麗史 一 世家.

十年三月甲寅 渤海工部卿吳興等五十人 僧載雄等六十人來投同上.

十一年三月戊申 渤海人金神等六十戶來投 秋七月辛亥 渤海大儒範率民來附 九月丁酉 渤海人隱繼宗等來附 見於天德殿三拜 人謂失禮 大相含弘曰失土人三拜 古之禮也同上.

十二年六月庚申 渤海人洪見等 以船二十艘 載人物來附 九月丙子 渤海正近等三百餘人來投同上.

十七年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來投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特授元甫 守白州 以奉其祀 賜僚佐爵 軍士田宅 有差 十二月 渤海陳林等一百六十人來附同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二十一年 是歲 渤海人朴昇, 以三千餘戶來投同上.

二十五年十月 契丹遣使來 遣橐駝五十匹 王以契丹嘗與渤海連和 忽生疑貳 背盟殄滅 此甚無道 不足遠結爲隣 遂絶交聘 流其使三十人于海島 繫橐駝萬夫橋下 皆餓死同上.

景宗四年 是歲 渤海人數萬來投同上 二 世家.

顯宗二十年八月乙未 東女眞大相噲拔率其族三百餘戶來投 賜渤海古城地處之 九月 戊午 契丹東京將軍大延琳遣大府丞高吉德 告建國 兼求援 延琳渤海始祖大祚榮七代孫 叛契丹 國號興遼 建元天興 十二月庚寅 興遼國大應作太師大延定引東北女眞 與契丹相攻 遣使乞援 王不許 自此路梗 與契丹不通 壬辰 命西北面判兵馬事柳韶赴鎭 以備興遼同上 五 世家.

二十一年丙寅 興遼國又遣水部員外郎高吉德 上表乞師 五月乙丑 契丹水軍指麾使虎騎尉大道李卿等六人來投 自是 契丹渤海人來附甚衆 七月乙丑興遼國行營都部署劉忠正遣寧州刺史大慶翰 賫表來乞援 九月丙辰 興遼國郢州刺史李匡祿來 告急 尋聞國亡 遂留不歸 甲戌 遣金哥如契丹 賀收復東京 乙亥 契丹遣千牛將軍羅漢奴來 詔曰 近不差人往還 應爲路梗 今渤海偸主 俱遭圍閉 並已歸降 宜遣陪臣 速來赴國 必無虞慮 十月 契丹奚哥 渤海民五百餘人來投 處之江南州郡同上.

二十二年三月 契丹渤海民四十餘人來投同上.

德宗于顯宗二十二年五月即位 七月丁卯 丁卯 渤海監門軍大道行郎等十四人來投 己巳 渤海諸軍判官高眞祥孔目王光祿 自契丹 持牒來投同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元年正月戊戌 渤海沙志明童等二十九人來投 二月戊申 渤海史通等十七人來投 五月丁丑 渤海薩五德等十五人來投 六月辛亥 渤海于原作亏音若己等十二人來投 乙卯 渤海所乙史等十七人來投 七月丙申 渤海高城等二十人來投 甲辰 契丹羅骨等十人來投 十二月癸丑 渤海寄叱火等十一人來投 處之南地同上.

文宗四年四月癸酉 渤海開好等來投同上 七 世家.

睿宗十一年三月壬寅 鄭良稷自遼東京還 時東京渤海人作亂 殺留守蕭保先立供奉官高永昌 僭稱皇帝 國號大元 建元隆基 良稷至 詐稱官銜 上表稱臣以國家所遣留守土物贈永昌 得厚報 及還 匿不奏 事覺 有司請下獄治之 從之 十二月 渤海四十四人來同上 十四 世家 按 十二年三月辛卯 遼來遠城牒云 東京渤海背亂 又移牒寧德城云 東京渤海續有背叛 以後則不復見.

後唐同光三年 契丹天贊四年 高麗太祖天授八年 契丹滅渤海國 世子大光顯來附同上 八十六 年表.

崔彦撝 初名愼之 慶州人 性寬厚 自少能文 新羅末 年十八 游學入唐 禮部侍郎薛廷珪下及第 時渤海宰相烏炤度子光贊 同年及第 炤度朝唐 見其子名在彦撝下 表請曰 臣昔年入朝登第 名在李同之上 今臣子光贊宜升彦撝之上 以彦撝才學優贍 不許 年四十二 始還新羅同上 九十二 崔彦撝傳.

成宗元年 正匡承老上書曰 若契丹者, 與我連境, 宜先修好, 而彼又遣使求和. 我乃絶其交聘者, 以彼國嘗與渤海連和, 忽生疑貳, 不顧舊盟, 一朝殄滅. 故太祖以爲無道之甚, 不足與交, 所獻駱駝, 亦皆弃而不畜. 其深策遠計, 防患乎未然, 保邦于未危者, 有如此也. 渤海旣爲丹兵所破, 其世子大光顯等, 以我國家擧義而興, 領其餘衆數萬戶, 日夜倍道來投. 太祖憫念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深, 迎待甚厚, 至賜姓名, 又附之宗籍, 使奉其本國祖先之禋祀. 其文武叅佐以下, 亦皆優沾爵命. 其急於存亡繼絶, 而能使遠人來服者, 又如此也同上 九十三 崔承老傳.

契丹東京將軍大延琳叛 自稱興遼國 刑部尙書郭元 請乘機取鴨江東岸 士威與徐訥等上書 以爲不可 元固執攻之 竟不克 延琳所署太師大延定 引東北女眞 與契丹相攻 遣使乞援 王議諸輔臣 士威與平章事蔡忠順言 兵者危事 不可不愼 彼之相攻 安知非我利耶 但可修城池 謹烽燧 以觀其變 王從之同上 九十三 崔士威傳.

二十年 興遼反契丹 遣使求援 元密奏王曰 鴨江東畔 契丹保障 今可乘機取之 崔士威徐訥金猛等 皆上書言其不可 元固執 遣兵攻之 不克 慚恚發疽而卒同上 九十四 郭元傳.

契丹東京將軍大延琳叛 自稱興遼 來求援 王不許 時韶以西北面判兵馬事遭喪 王下敎起復曰 古者三年之喪 卒哭 金革之事無避 漢丞相翟方進遭喪既葬三十日 除服視事 今興遼來請師 恐有邊警 卿宜馳往邊上 以備之同上 九十四 柳韶傳.

知銀臺事左司郎中劉忠正 本渤海人 無他技能 亦甚寵於王穆宗 王嘗以水房人吏 分屬二人其一人謂閤門舍人庾行簡 出入驕從 僭擬無極 王不豫 行簡忠正並直宿於內 宰臣請入寢問疾 行簡傳旨曰 體氣漸平 取別日召見 宰相再請不許 王欲迎大良院君爲後 行簡欲不迎立 王慮事洩 戒蔡忠順勿令行簡知之 及康兆作亂 殺行簡等七人同上 一百二十二 嬖幸庾行簡傳.

新羅聖德王十二年十月 唐以大祚榮爲渤海郡王 渤海本粟末靺鞨 即高句麗別種 祚榮父乞乞仲象與其徒度遼水 保太白山東 仲象死 祚榮嗣 驍勇善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射 高句麗餘燼稍稍歸之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諸國 中宗時 遣子入侍 至是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衛忽汗州 領忽汗州都督 自是去靺鞨號 專稱渤海東國通鑒 上.

十八年春 渤海郡王大祚榮卒 私謚曰高王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服之同上.

二十五年 唐以渤海大門藝爲左驍衛將軍 初 黑水靺鞨使者朝唐 帝以其地建黑水州 置長史 武藝召其下謀曰 黑水始假途于我與唐通 今請唐官不吾告 是必與唐謀攻我也 乃遣弟門藝發兵擊黑水 門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是背唐也 唐 大國 兵萬倍我 與之產怨 我且亡 昔高句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強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眾比高句麗三之一 王將違之 無乃不可乎 武藝不聽 強遣之 門藝懼 奔唐 詔拜左驍衛將軍 武藝使使暴門藝罪惡 請誅之 有詔 處之西安 好報曰 門藝窮來歸我 誼不可殺 已投之惡地 並留使者不遣 詔李道邃諭旨 武藝知之 上表曰 大國當示人以信 豈得爲此欺誑 帝以道邃等漏洩 左遷之 暫遣門藝詣嶺南 以報之同上.

三十二年七月 帝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仆員外郎金思蘭歸 仍授王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渤海南鄙 諭曰 靺鞨渤海外稱藩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爲犄角 帝又曰 聞舊將金庾信孫允中之賢 可爲將遣之 仍賜允中金帛 於是王命允中等四將 率兵會唐軍閱渤海 會大雪余丈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同上.

三十三年正月 金忠信入唐宿衛 爲左領軍衛員外將軍 上表曰 臣奉進止 令臣執節本國 發兵討除靺鞨 有事續奏者云云書已見前 帝許焉同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景德王二十一年 唐冊欽茂爲檢校太尉渤海國王 先是武藝死 謚武王 子欽茂立 徙上京 直舊國三百里忽汗河之東 及欽茂死 謚文王同上.

興德王五年 渤海王仁秀卒 仁秀 祚榮弟野勃四世孫也 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宇 唐詔加檢校司空 自祚榮以來 數遣諸生詣京師大學 習識古今制度 至是 遂爲海東盛國同上 十一.

景哀王三年高麗太祖九年春 契丹滅渤海 契丹主自去年冬侵渤海 攻西鄙諸部 遂進圍扶餘城 至是拔之 遂進兵圍忽汗城 渤海王大諲譔戰敗乞降 契丹主命以兵衛諲譔及族屬出城 改渤海爲東丹國 忽汗爲天福城 冊太子倍爲人皇王以主之 置諲譔於臨潢之西 賜名曰烏魯古 於是 渤海世子大光顯及將軍申德 禮部卿大和鈞 均老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謨 左右衛將軍大審理小蔣冒豆干 檢校開國男樸漁 工部卿吳興等 率其余眾前後來奔高麗者數萬戶 麗王待之甚厚 賜光顯姓名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 僚佐皆賜爵同上 十二.

敬順王二年 高麗太祖十一年八月 渤海人隱繼宗等投高麗 麗王引見于天德殿 繼宗等三拜 人謂失禮 大相含弘曰 失土人三拜 古之禮也同上.

高麗太祖二十五年十月 契丹遣使來歸橐駝五十匹 王以契丹嘗與渤海聯合忽生疑貳 不顧舊盟 一朝殲滅 此爲無道之甚 不足遠結爲鄰 絕其交聘 流其使三十人于海島 系橐駝萬夫橋下 皆餓死同上 十三.

景宗四年六月 渤海酋帥大鸞河降于宋 宋以爲渤海都指揮使 鸞河 祚榮之遺種也同上.

顯宗二十年九月 契丹東京將軍大延琳遣大府丞高吉德告建國 兼求援 延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渤海始祖大祚榮七代孫 叛契丹 國號興遼 建元天興 十一月 參知政事郭元卒 元性清廉 工文詞 歷位台省 以吏能稱 然不自重 與李作仁厚善 人以此譏之 及興遼叛 密奏曰 鴨江東畔 契丹保障 今可乘機取之 崔士威徐訥金猛等皆上書不可 元固執遣兵攻之 不克 慚恚發疽而卒 十二月 興遼國太師大延定引東北女真與契丹相攻 遣使乞援 王議諸輔臣 侍中崔士威 平章事蔡忠順言 兵者危事 不可不慎 彼之相攻 安知非我利耶 但可修城池 謹烽燧 以觀變耳 王從之 自此路梗 與契丹不通 起復西北面叛兵馬事柳韶赴鎮 時興遼求援不許 故遣韶備之同上 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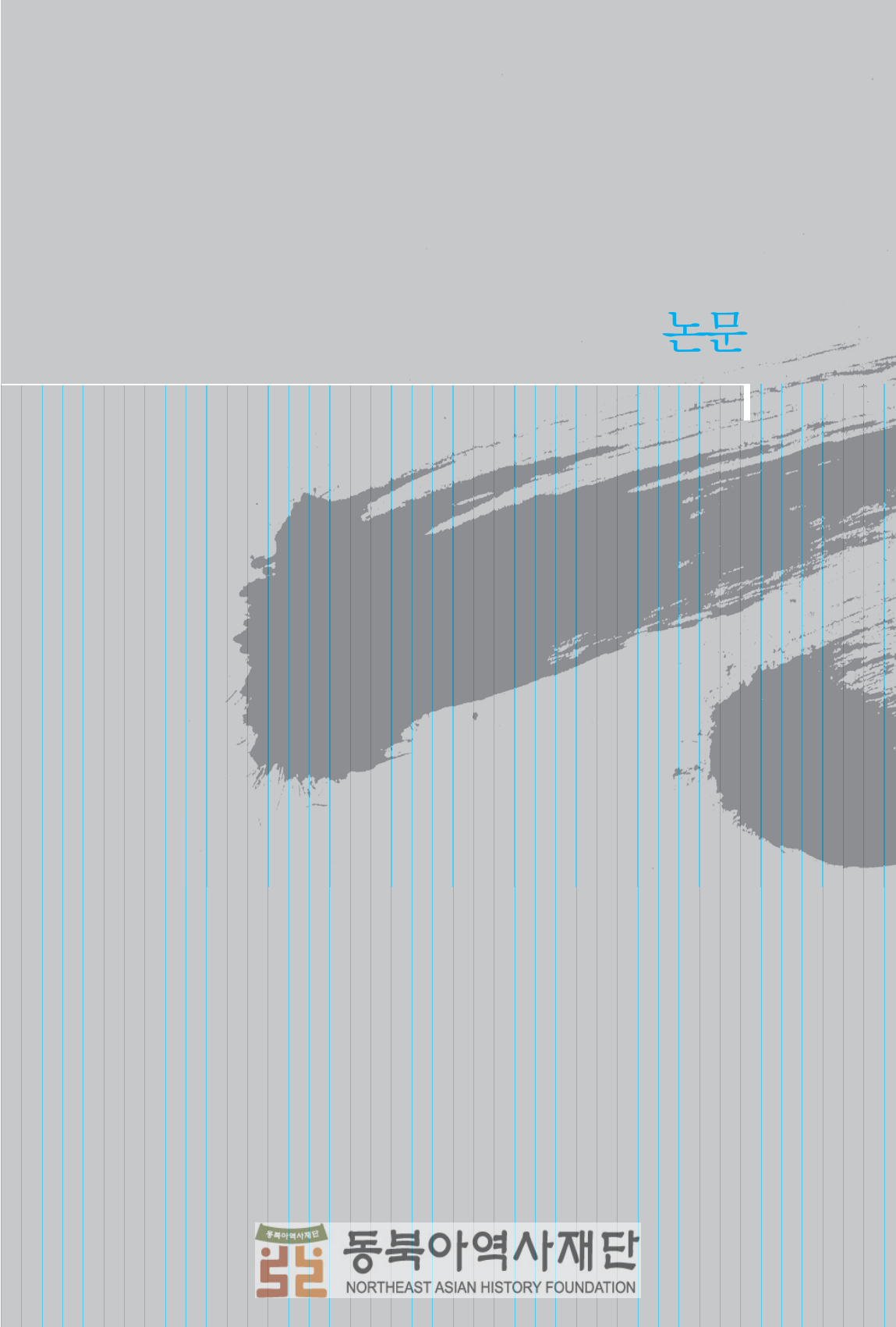
二十一年正月 興遼國遣水部員外郎高吉德上表乞師 五月 契丹水軍指麾使虎騎尉大道李卿等六人來投 自是契丹渤海人來附甚眾 七月 興遼國行營都部署劉忠正遣寧州刺史大慶翰 賫表來乞援 九月 興遼國郢州刺史李匡祿來告急 尋聞國亡 遂留不歸 遣金哥如契丹 賀收復東京 契丹遣千牛將軍羅漢奴來 詔曰 近不差人往還 應爲路梗 今渤海儉主 俱遭圍閉 並已歸降 宜遣陪臣速來赴國 必無虞慮 軍羅漢奴來 詔曰 近不差人往還 應爲路梗 今渤海儉主 俱遭圍閉 並已歸降 宜遣陪臣 速來赴國 必無虞慮 十月 契丹奚哥 渤海民五百餘人來投 處之江南州郡同上.

睿宗十一年三月 鄭良稷自遼東京還 時東京渤海人作亂 殺留守蕭保先 立供奉官高永昌 僭稱皇帝 國號大元 建元隆基 良稷至 詐稱官銜 上表稱臣 以國家所遣留守土物贈永昌 得厚報 及還 匿不奏 事覺 有司請下獄治之 十二月 渤海四十四人來投同上 二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4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 분포 특징과 전개 양상 초탐(初探)

강승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I. 머리말
II.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분포 현황
III.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전개 양상 및 특징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요서(遼西)지역에서는 홀로세(Holocene) 기후최적기에 들어 서요하(西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문화가 끊임없이 탄생, 번성, 소멸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와 지형 특성으로 농경과 유목 경제가 혼합적으로 나타났으며, 또 북방계 유목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다른 문화권들과는 구분되는 독창적인 문화가 번성하였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신석기시대에서 초기 청동기시대까지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소하서(小河西), 흥륭와(興隆窪), 부하(富河), 조보구(趙寶溝), 홍산(紅山), 소하연(小河沿), 하가점하층(夏家店下層)과 같은 선사시대 문화들이 존재했음이 밝혀졌고, 각 문화에 대한 발굴 및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남긴 수많은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을 통해 삶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는 20세기 초 일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후 프랑스 예수회 신부인 리쌍(Emile Licent)과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스웨덴 학자 안데르손(J.G. Andersson), 중국 양사영(梁思永) 고고팀, 일본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 등이 연이어 요서지역을 조사하여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을 발견하였다.[1] 1950년대부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고고학 발굴을 통해 선사시대 문화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기 시작

* 투고: 2023년 7월 11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정리 및 보충하여 작성하였음(강승우, 2022, 「서요하유역 하가점하층문화 사회발전단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 李少兵·索秀芬, 2006, 「建國前遼西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2006-2, 89~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였다. 이후 선사시대 각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중국에서는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2001~2015)"이 시행되면서 중지역에 비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고고 중국-홍산 사회 문명화 과정 연구(考古中國-紅山社會文明化進程研究)"가 진행되면서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고 중국"은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뒤이어 등장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2020년에서 203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경내의 인류기원, 문명기원, 중화문명 형성, 통일다민족국가 건립과 발전, 중화문명의 세계문명사적 위치 등 핵심 주제에 대해 고고 항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는 2016년 12월 중국 전국문물국장(全國文物局長) 회의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초기에는 하상주(夏商周) 시기 심화 연구, 장강 유역 연구 등에 집중되었으나,[3] 2021년 11월 "홍산 사회 문명화 과정 연구"가 "고고 중국" 중대 항목에 포함되었고,[4] 2022년 4월 내몽골자치구문물고고연구원(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院)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고 중국-홍산 사회 문명화 과정 연구" 실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5]

이러한 일련의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요서지역 선사시대 고고문화 연구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며, 현지 관련자들에 따르면 홍산문화 우하량(牛河梁)

---

2 「"考古中國"重大項目申報管理指南(2020-2035年)」, 『國家文物局』, 2020.8.17, http://www.ncha.gov.cn/art/2020/9/15/art_2407_120.html

3 「國家文物局將啟動"考古中國"研究」, 『光明日報』, 2016.12.26, http://www.ncha.gov.cn/art/2016/12/26/art_1960_136112.html

4 「紅山社會文明化進程研究項目納入"考古中國"重大項目」, 『中新網』, 2021.11.21, http://cul.china.com.cn/2021-11/21/content_41800751.htm

5 「"考古中國-紅山社會文明化進程研究"全面啟動」, 『內蒙古日報』, 2022.4.17, http://nmg.news.cn/xwzx/2022-04/17/c_1128567304.ht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적 외에도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大甸子), 성자산(城子山) 유적 등에서도 대규모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향후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기존의 연구 성과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향후 발표될 성과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주로 주요 유적과 유물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유적 정보들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분포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를 대상으로 문물지도집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분포 분석 연구를 실시한 연구 성과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미국-중국 합동조사단이 적봉 서부에 위치한 영금하(英金河)와 그 지류인 음하(陰河) 및 반지전하(半支箭河) 하류 유역 약 1,100km^{2}를 조사한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6]

이후 드레난(Drennan), 등명여(滕銘予) 등은 이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서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시대 문화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간분석 연구를 실시하였고,[7] 이후 등명여의 제자인 진명환(陳明換)은 문물지도집을 활용하여 중국 동

6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7 Robert D. Drennan, Christian E. Peterson, Lü Xueming, Zhu Da, & Hou Shenguang, 2014, "Settlement and Social Dynamics in the Upper Daling and Chifeng Regions of Northeastern China", *Asian Archaeology 2014-2*, pp. 50~76; 滕銘予, 2006, 「GIS在赤峰市西南部環境考古研究中的實踐與探索」, 『邊疆考古研究』 5, 226~256쪽; 滕銘予, 2007, 「GIS在西拉木倫河以南地區環境考古研究中的初步應用」, 『內蒙古文物考古』 2007-1, 81~105쪽; 滕銘予, 2009a, 「半支箭河中遊先秦時期遺址分布的空間考察」,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49, 73~80쪽; 滕銘予, 2009b, 「半支箭河中遊先秦時期遺址的分群與結構」, 『中華文明探源工程論文集-社會與精神文化卷(1)』, 科學出版社, 183~208쪽; 滕銘予, 2009c, 「GIS在半支箭河中遊環境考古中的應用」, 『考古與文物』 2009-1, 91~99쪽; 滕銘予, 2009d, 「GIS在內蒙古敖漢旗環境考古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 중서부 지역 청동기시대 유적들의 공간분포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8] 이외에도 최근에는 왕림(王琳) 등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들의 유적 공간분포 변화를 GIS로 분석하여 기후 변화를 추정한 연구,[9] 위엔 위잉(Yuan Yuying)이 연산과 요하 지역 선사시대 문화들의 진화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 연구,[10] 문물지도집에 수록된 하가점하층문화의 토성 유적을 정리하고, 이를 기존의 발굴 성과와 함께 분석하여 하가점하층문화 토성 유적의 성격을 파악한 연구,[11]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유구를 GIS를 이용하여 경관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12]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요서의 일부 지역 혹은 일부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들의 전반적인 분포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번 분석에서는 요서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시작인 소하서문화 시기부터 문자가 기록된 청동예기가 등장하기 이전인 하가점하층문화 시기까지의 유적 분포 현황을 확인하고 그 전개 양상을 일부나마 살펴보고자 하였다.

究中的初步應用與探索」, 『華夏考古』 2009-3, 120~144쪽; 滕銘予, 2009, 『GIS支持下的赤峰地區環境考古研究』, 科學出版社.

8 陳明換, 2014, 「GIS支持下的中國東北地區中西部夏至戰國時代人地關系初步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9 王琳·武虹·賈鑫, 2016, 「西遼河地區史前聚落的時空演變與生業模式和氣候曆史的相關性研究」, 『地球科學進展』 31, 1159~1171쪽.

10 YUAN Yuying, 2019, “Cultural evolution and spatial-temporal distribution of archaeological sites from 9.5-2.3 ka BP in the Yan-Liao region, China”, *JOURNAL OF GEOGRAPHICAL SCIENCES*(29), pp. 449~464.

11 김봉근, 2021,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토성의 현황과 과제」, 『고조선단군학』 44, 139~168쪽.

12 강승우·양홍진, 2018, 「夏家店下層文化 城子山산성의 성격과 기능」, 『선사와고대』 56, 5~39쪽; 강승우, 2022a, 「서요하유역 하가점하층문화 사회발전단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승우, 2022b, 「GIS를 활용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묘지 무덤 조성순서와 묘지 존속기간에 관한 시론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75, 7~6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번 연구에 사용한 유적 데이터는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발간한 『문물지도집(文物地圖集)』「내몽골자치구분책(內蒙古自治區分冊)」, 「요령분책(遼寧分冊)」, 「하북분책(河北分冊)」, 「북경분책(北京分冊)」, 「천진분책(天津分冊)」[13]에 수록된 유적 정보 위주로 활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일부 문물지도집에 누락된 발굴 및 지표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총 6,005개 유적을 DB화하였다. 문물지도집에 수록된 유적 정보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중국 정부가 시행한 2차 전국문물조사(全國文物普查)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요서지역 선사시대 유적 정보 중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이 주가 되는 GIS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14]

GIS 분석에는 Esri사(社)의 Arcgis Pro를 주로 활용하였고, 수치고도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30m 해상도의 Aster GDEM을 사용하였다. 분석 프로세스는 먼저 지리보정(Geo referencing) 기법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자료를 공간화하여 DB를 만들었다. 이를 GIS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유적들의 위치, 시기, 면적 등의 정보를 반영하는 지도로 표현하여 각 시기별 선사시대 고고 문화들의 공간분포 특징을 시론적이나마 분석하고자 한다.

Ⅱ.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분포 현황

요서지역은 일반적으로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와 그 지류인 노합하(老哈河),

13 國家文物局 主編, 2003, 『中國文物地圖集: 內蒙古自治區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14 王琳·武虹·賈鑫, 2016, 앞의 글, 1159~1171쪽. *제3차 전국문물조사에서 실시한 유적의 목록은 대부분 제2차 전국문물조사 당시 유적 목록과 동일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이길목륜하(烏爾吉木倫河), 맹극하(孟克河), 교래하(教來河) 등으로 구성된 서요하 유역과 대·소릉하(大·小凌河) 유역 등이 포함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요녕성 서부 지역의 조양시(朝陽市), 호로도시(葫蘆島市), 금주시(錦州市), 부신시(阜新市)와 내몽골 동남부 지역의 적봉시(赤峰市), 통료시(通遼市) 등이 해당하며,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유적들은 주로 서랍목륜하 이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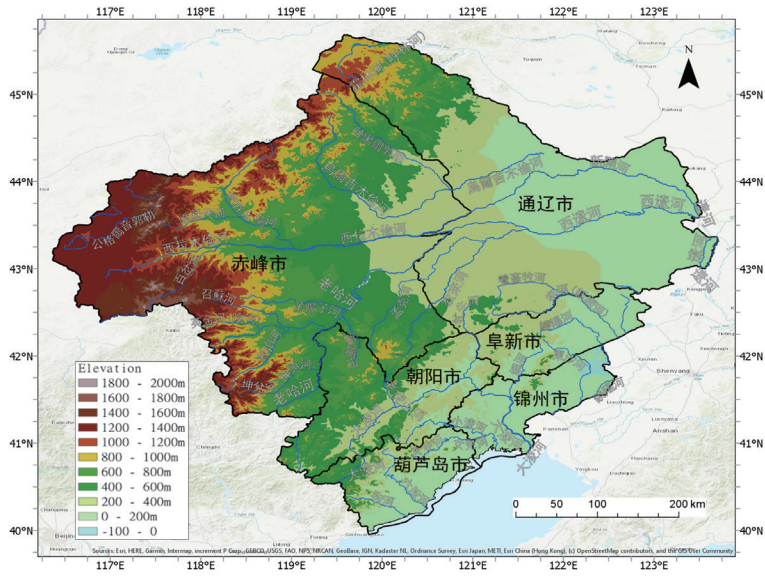


그림 1 서요하 유역 지형도

15 고고학에서 요서지역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내몽골자치구(內蒙古自治區) 동부와 요령성(遼寧省) 서부를 포괄하는 서요하 유역을 가리킨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李少兵·索秀芬, 2006, 「建國前遼西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2006-2, 89~95쪽 참조. *일부 유적은 연산산맥 이남 하북성 지역과 요동지역에서도 발견되나 수량이 적고 유적의 면적들이 작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서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는 시기에 따라 소하서, 흥륭와, 부하, 조보구, 홍산, 소하연, 하가점하층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16] 각 시기별 연대는 대략적으로 소하서문화가 지금으로부터 약 8,200년 이전,[17] 흥륭와문화가 8,200~7,400년 전,[18] 조보구-부하 문화가 7,200~6,500년 전,[19] 홍산문화가 6,700~5,000년 전,[20] 소하연문화가 약 5,000~4,500년 전,[21] 하가점하층문화가 약 4,000~3,5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22] 이번 연구에서는 유적의 면적 정보를 대입하여 시기에 따른 각 문화의 유적 분포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23] 더 나아가 유적 면적 크기에 따라 거주 인구가 비례한다는 가정 아래 유적 간의 위계(位階)

16 劉國祥, 2006, 「西遼河流域新石器時代至早期青銅時代考古學文化概論」,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9, 113~122쪽.

17 楊虎·林秀貞, 2009, 「內蒙古敖漢旗小河西遺址簡述」, 『北方文物』 2009-2, 3~6쪽; 索秀芬, 2005, 「小河西文化初論」, 『考古與文物』 2005-1, 23~26쪽; 索秀芬·郭治中, 2004, 「白音長汗遺址小河西文化遺存」, 『邊疆考古研究』 2004-3, 301~310쪽.

18 楊虎·劉國祥, 1997, 「內蒙古敖漢旗興隆窪聚落遺址1992年發掘簡報」, 『考古』 1997-1, 1~26쪽.

19 趙賓福, 2011, 「遼西地區漢以前文化發展序列的建立及文化縱橫關系的探討」, 『東洋學』 49, 1~22쪽; 朱延平, 1994, 「富河文化的若幹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15쪽.

20 복기대, 2019, 『홍산문화의 이해』, 우리역사연구재단, 77~78쪽.

21 趙賓福, 2011, 앞의 글, 193~194쪽.

22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4000~3500 yr BP로 알려져 있으나, 지주산(蜘蛛山) 유적의 수륜교정연대가 기원전 2466~2147년이고, 곽대순은 풍하(豐下) 하층의 연대가 이에 상당하기 때문에 연대 상한을 기원전 240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궈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546쪽; 王惠德, 2000, 「夏家店下層文化的發現與研究」,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00-5, 33~42쪽; 복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65~69쪽].

23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많다는 점, 일부 구역만 조사되었거나, 혹은 유적이 파괴되어 당시의 면적을 알 수 없는 유적들이 있다는 점, 또 동일 지점에서 여러 시기 유구가 함께 발견되었을 때 시기에 따른 유적 면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적 면적 정보만 사용하여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을 시론적이나마 살펴보고자 하였다.[24] 일반적으로 충분히 발달한 취락은 대형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에 중형 유적이 자리하고, 다시 중형 유적 주변에 소형 유적들이 포진하여 유적 규모가 커질수록 유적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25] 다만 대부분의 유적이 시굴 및 지표 조사만 진행된 상황이어서 각 유적의 성격이 단순 취락 유적인지, 혹은 무덤이나 제사 유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소하서문화

소하서문화는 요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신석기문화로 무문(無紋)의 협사 홍갈색 통형관과 수혈식 주거지가 각각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이다.[26] 1984년 오한기박물관(敖漢旗博物館)에서 오한기 우고토향(牛古吐鄕) 천근영자촌(千斤營子村) 부근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발견된 문화와 구분되는 유물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목두영자향(木頭營子鄕) 소하서촌(小河西村) 등 10여 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유적들을 발견한 후 천근영자유형으로 명명하였다.[27] '소하서문화'라는 명칭은 1987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내몽골공작팀이 오한기 맹극하(孟克河) 인근에 위치한 소하서(小河西) 유적을 발굴한 후

24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앞의 책, 62쪽.

25 렌프류(Renfrew)는 유적의 크기에 따라 유적 간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동식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적 크기의 변이 폭이 좁고 모든 유적들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와 반대로 국가사회에서는 유적 크기의 변이 폭이 넓고, 소촌, 농장, 대형 마을, 도시 등으로 구성되어 위계성을 보여준다. 취락 분포 양상이 위계를 띨수록 그 사회도 위계적으로 볼 수 있다(Colin Renfrew · Paul Bahn, 2012,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6th edition, *Thames & Hudson*, p. 175).

26 楊虎 · 林秀貞, 2009, 앞의 글, 3~6쪽; 索秀芬, 2005, 앞의 글, 23~26쪽.

27 邵國田, 2004, 『敖漢旗文物精華』, 內蒙古文化出版社, 9~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처음으로 붙인 것이다.[28] 소하서문화는 독립된 문화가 아니라 흥륭와문화 초기 단계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9]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소하서문화 유적은 총 35개이다(그림 2). 유적별 면적은 100m²에서 5만m² 사이로 크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 산, 언덕 등 주변 지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표 1). 요서지역 지형도(그림 1)를 참고하면 소하서문화 유적은 주로 해발고도 400~800m 지대에 분포하며, 규모가 큰 강이나 강 하류 저지대로는 진출하지 않았다. 분포도를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 대부분이 교래하(教来河)와 맹극하(孟克河) 중상류 유역과 노합하(老哈河) 중류에 집중되어 있어 일견 이 지역이 중심 지역으로 보인다. 노합하 지류인 양장자하(羊肠子河)와 서랍목륜하 중류 사이에도 중대형 유적이 발견되었다. 양장자하와 서랍목륜하를 잇는 소랑하(少郎河) 유역으로 강의 크기가 작아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서랍목륜하 하류의 중형 유적과 노합하의 지류인 석백하(錫泊河) 유역의

---

28 楊虎, 1990, 「敖漢旗榆樹山, 西梁遺址」, 『中國考古學年鑒1989』, 文物出版社, 131~132쪽. 발굴 책임자인 양호(楊虎)는 소하서문화가 주거지 형태와 건축 방법, 기물 유형과 일부 유물의 형태에서 흥륭와문화와 일정 정도 유사성이 있으나 양자 간에 뚜렷한 차이도 있다고 하였다.

29 ① 색수분(索秀芬)·곽치중(郭治中)은 내몽골 임서현(林西縣) 백음장한(白音長汗) 유적에서 "흥륭와1기문화 백음장한유형" 주거지가 소하서문화 지층을 파괴한 것을 확인하여 소하서문화가 8200 yr BP보다 빠르다고 결론지었다(索秀芬·郭治中, 2004, 앞의 글, 301~310쪽). ② 소하서 유적 발굴책임자였던 양호(楊虎)는 유수산(榆樹山), 서량(西梁) 유적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흥륭와 1기문화보다 약간 늦은 것으로 나타나 소하서문화가 흥륭와문화 연대 범위에 포함되므로 "흥륭와문화 소하서유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楊虎·林秀貞, 2009, 앞의 글, 3~6쪽). ③ 진국경(陳國慶)은 소하서문화가 '흥륭와문화 최초 1기'라 평하였다(陳國慶, 2004, 「興隆窪文化分期及相關問題探討」, 『邊疆考古研究』 2004-3, 9~22쪽). ④ 조빈복(趙賓福)과 두전위(杜戰偉)는 소하서문화가 독립된 문화이며, 흥륭와문화의 전신이라고 주장하였다(趙賓福·杜戰偉, 2014, 「小河西文化檢析」, 『考古學研究』 2014-1, 17~25쪽). * ①~④의 주장과는 달리 박진호와 복기대는 소하서문화의 연대 범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하서문화가 흥륭와문화 초기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진호·복기대, 2016, 『요서지역 초기 신석기문화 연구-소하서·흥륭와문화를 중심으로』, 주류성, 179~1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형 유적이 각각 소하서문화 분포권의 북쪽과 남서쪽 외곽을 형성하고 있다.

소하서문화 유적들은 대형, 중형, 소형 유적 수가 비슷하고, 인접한 강들인 노합하, 맹극하-교래하 유역에 중대형 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전형적인 취락 분포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분포범위에 비해 발견된 유적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취락 분포 패턴과 연결지어 보면 소하서문화 유적이 아직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거나, 유적 규모와 유적 간 위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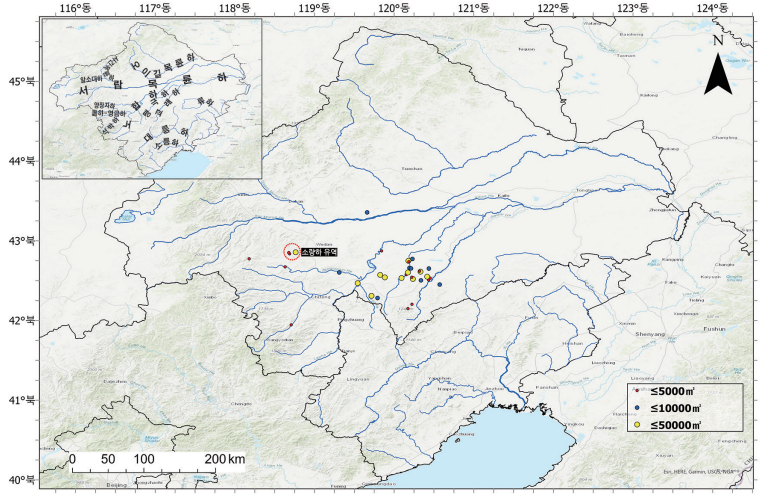


그림 2 소하서문화 유적 분포도

〈표 1〉 소하서문화 유적 정보 분석표

면적(m^2)	유적 개수
≦5,000	15
≦10,000	9
≦50,000	11
총계	35

면적 평균	11,374m^2
표준편차	11,940m^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능성이 있다.

한편, 소하서문화가 흥륭와문화 초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30] 흥륭와문화 분포범위가 소하서문화 분포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두 문화 유물 성격에 공통점이 많다는 점, 두 문화 유적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 소하서문화 유적 크기의 편차에 따른 위계구조가 흥륭와문화보다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타당성 있어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두 문화가 구분이 된다는 주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하였다.[31]

2. 흥륭와문화

흥륭와문화는 '人'자 혹은 '之'자 문양을 새긴 협사 갈색 통형관과 수혈식 주거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환호(環濠)가 요서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옥기가 발견되었다. 또 사해(查海) 유적에서는 용 모양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32] 1982년 오한기 보국토향(寶國吐鄕) 흥륭와촌(興隆窪村)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1985년 정식으로 '흥륭와문화'라 명명되었다.[33] 발견 초기에는 사해 유적을 따로 구분하여 사해문화로 부르거나 흥륭와-사해문화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흥륭와문화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34]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흥륭와문화 유적은 총 132개이다(그림 3). 유적은 주

30 박진호·복기대, 2016, 위의 책, 179~186쪽.

31 趙賓福·杜戰偉, 2014, 앞의 글, 17~25쪽.

32 楊虎·劉國祥, 1997, 앞의 글, 1~26쪽; 궈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230~250쪽.

33 杨虎·朱延平·孔昭宸·杜乃秋, 1985, 「内蒙古敖漢旗興隆窪遺址發掘簡報」, 『考古』 1985-10, 865~874쪽.

34 索秀芬, 2006,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산이나 언덕 등 고지대에 자리해 있으며, 면적은 100~100만m²로 편차가 크다(표 2). 소하서문화에 비해 유적 규모에 층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중형 유적 규모가 소하서문화 대형 유적과 맞먹는다. 규모가 큰 유적일수록 그 수량이 확연히 줄어들어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낸다.

유적 분포도에서 흥륭와문화 분포구역은 크게 소하서문화 때부터 중심 구역이던 맹극하-교래하 중상류 유역과 흥륭와문화 때 신흥 발전지구인 서랍목륜하 중상류와 그 지류인 알소대하(嘎蘇代河)와 사간목륜하(查幹木倫河) 유역, 서요하 하류 유역,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 이동 부신 사해 유적 등으로 대별된다. 오이길목륜하 상류에도 유적이 발견되어 흥륭와문화 분포범위가 소하서문화와 대비하여 대폭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하서문화 시기에 중심지역을 형성한 맹극하 유역과 노합하 중류 유역은 흥륭와문화 시기에는 소형 유적들이 드문드문 분포하는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보다 동쪽인 교래하 유역에 유적이 밀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교래하 중하류 유역으로도 취락이 확산된다. 교래하 중상류 동안이 유적 밀집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유적 규모를 통해 4단계의 위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노합하-맹극하-교래하 구역에서 중심지역이 교래하 유역으로 이동한 것은 이 지역이 서요하 유역과 노로아호산 이동 요령성으로 흥륭와문화가 확산되는 기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요하 하류와 요령성 부신에 큰 유적이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홍산문화 시기에도 서요하 유역과 노로아호산 이동 지역에 중대형 유적을 형성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흥륭와문화의 확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6).

교래하 이서 지구에서는 서로 연결된 수계망을 타고 노합하 유역에서 서랍목륜하 유역과 영금하-음하 유역으로 소형 유적들이 퍼져나간 양상을 보여준다. 양장자하와 서랍목륜하 사이 소랑하 유역은 소하서문화 시기부터 이미 유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흥륭와문화 시기 유적이 증가하면서 서랍목륜하 상류와 그 지류인 알소대하 유역에 5단계 유적 위계 구조가 나타난다. 이 지역은 큰 강의 상류이면서 여러 지류가 유입하는 곳으로 해발고도 1,000~1,200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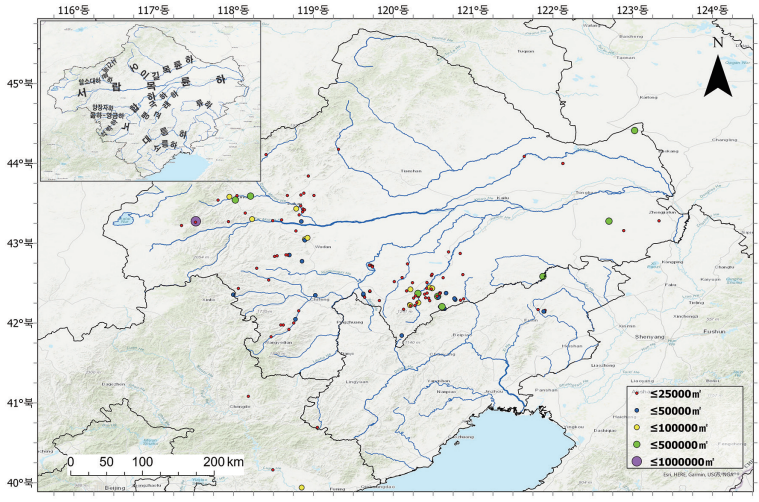


그림 3 흥륭와(사해)문화 유적 분포도

〈표 2〉 흥륭와문화 유적 면적 분석표

면적(m^2)	유적 개수
≦25,000	92
≦50,000	19
≦100,000	11
≦500,000	8
≦1,000,000	1
미상	1
총계	132

면적 평균	37,586m^2
표준편차	101,902m^2

인 산지와 해발고도 800~1,000m인 고지대가 강 유역의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다(그림 1,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조보구문화

조보구문화는 1982년 오한기 지역 문화재 조사 때 표면에 기하학적 문양을 압인한 마연 협사 흑갈색 토기 표본을 채집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1986년 유진상(劉晉翔)과 양호(楊虎)가 이끈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오한기 신혜진(新惠鎮) 조보구(趙寶溝) 유적 등을 발굴조사한 후 정식으로 조보구문화라고 명명하였다.[35] 조보구문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유물은 석기이다. 발달된 세석기와 석제 농기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토기는 협사 황갈색 토기가 대다수이고 니질 홍색 토기 등이 소량 발견된다. 토기의 형식은 흥륭와문화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통형관과 구연부에 붉은 띠를 두른 발(紅頂鉢)이 많고, 흥륭와문화에서는 볼 수 없던 준형기(尊形器)와 권족기(圈足器), 두형기(豆形器) 등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문양은 눌러 찍거나 새겨 넣은 'Z'자문 등 기하문(幾何紋)이 많고, 사슴 등 동물을 새긴 문양도 발견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의 수혈식이며, 등고선을 따라 일렬로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36] 줄지어 규칙적으로 배열된 집자리는 흥륭와문화와 유사하지만, 흥륭와문화와는 달리 거주지 주변에 해자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7]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조보구문화 유적은 총 106개이다(그림 4). 유적별 면적은 3만m^2 이하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중형 및 대형 유적이 많지 않다(표 3). 흥륭와문화 시기에 보이던 대형 유적들이 사라지고 유적 위계가 단순해졌다. 소하서문화 시기와 비슷하게 노합하, 맹극하와 교래하 사이에 유적들이 밀집되어

35 蘇秉琦, 1986, 「燕山南北·長城地帶考古工作的新進展-一九八四年八月在內蒙古西部地區原始文化座談會上的報告提綱」, 『內蒙古文物考古』, 1~4쪽; 劉晉祥·朱延平, 1988, 「內蒙古敖漢旗趙寶溝一號遺址發掘簡報」, 『考古』 1988-1, 1~6쪽; 궈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287~288쪽.

36 董新林, 1996, 「趙寶溝文化研究」, 『考古求知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72~185쪽.

37 董新林, 1996, 위의 글, 172~1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고, 서랍목륜하 유역에도 위계 구조를 보이는 유적 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영금하-음하 유역에는 큰 유적이 보이지 않아 조보구문화 시기에도 문화 중심지역은 서랍목륜하 유역과 노합하-맹극하-교래하 유역이었던 듯하다. 오이길목륜하 유역에 대형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주변에 더 작은 유적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교래하 중상류 유역이 유적 분포권의 동쪽 한계선을 형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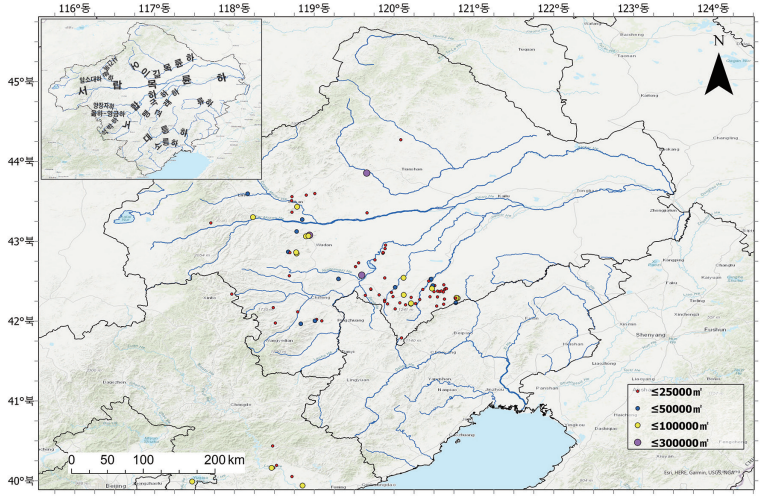


그림 4 조보구문화 유적 분포도

〈표 3〉 조보구문화 유적 면적 분석표

면적(m^2)	유적 개수
≦25,000	75
≦50,000	12
≦100,000	16
≦300,000	3
총계	106

면적 평균	30,613m^2
표준편차	47,607m^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동쪽으로는 흥륭와문화 시기보다 분포범위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북쪽으로는 오이길목륜하 유역까지 이르러 남북으로 긴 분포범위를 나타낸다. 오이길목륜하 유적을 포함하면 조보구문화는 소하서문화처럼 강 하류 저지대와 고산지대에는 분포하지 않고 해발고도 400~800m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승덕시(承德市), 당산시(唐山市) 지역에서도 조보구문화로 추정되는 유적이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흥륭와문화 시기에도 이 지역에서 일부 발견되었지만 조보구문화 시기에 수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크고 작은 유적이 함께 발견되어 유적 간의 위계성도 일부 보이기 시작한다. 흥륭와 및 조보구문화 시기에 대·소릉하 지역과 발해만 연안에서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석백하 등 노합하의 지류를 통해 연산을 넘어 교류 혹은 이주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부하문화

부하문화는 1957년 내몽고문물공작조(內蒙古文物工作組)가 적봉시 파림우기(巴林左旗) 부하진(富河鎮) 부하구문촌(富河溝門村) 북쪽의 부하구문(富河溝門) 유적을 처음 조사한 이후, 1962년 서광기(徐光冀)를 발굴책임자로 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내몽골공작대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처음으로 부하문화(富河文化)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38] 처음에는 부하문화의 연대가 홍산문화 보다 늦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로선 조보구문화와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9] '之'자 문양을 압인(壓印)하여 새긴 협사 회갈색 통형관과 소권족발(小圈足鉢)이 대표적이며, 토기 벽이 흥륭와문화 토기보다 얇고 두께가 균일하다. 석기와 동물뼈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38 徐光冀, 1964,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 1964-1, 1~5쪽.

39 朱延平, 1994, 앞의 글, 115쪽; 趙賓福, 2011, 앞의 글, 1~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 복골(卜骨)이 발견되었다.[40]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부하문화 유적은 총 44개로 다른 시기 문화들보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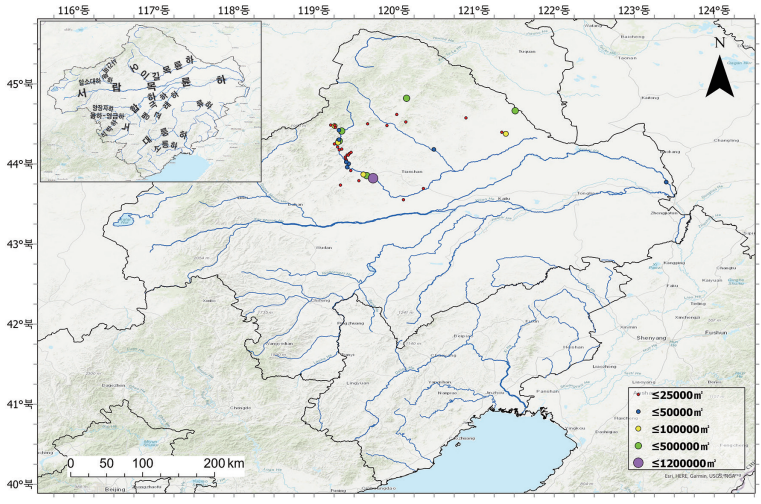


그림 5 부하문화 유적 분포도

〈표 4〉 부하문화 유적 면적 분석표

면적(m^2)	유적 개수
≦25,000	27
≦50,000	7
≦100,000	4
≦500,000	5
≦1,200,000	1
총계	44

면적 평균	69,623m^2
표준편차	188,239m^2

40 궈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04~30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량이 적은 편이다. 유적별 면적 크기는 편차가 큰 편이며, 1개의 유적[남만(南灣) 유적]의 크기가 120만m^2에 달해 해당 문화의 중심지로 추정된다(표 4). 북위 43.5° 이북 합흑이곽륵(哈黑爾郭勒)과 과이심곽륵(科爾心郭勒)에만 유적이 존재한다. 유적이 분포해 있는 지대의 해발고도는 200~800m로 편차가 심하며, 주로 하천을 주위에 입지해 있다. 대부분 오이길목륜하(烏爾吉木倫河)를 따라 크기가 다양한 유적이 집중 분포하여 유적 간의 위계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5).

5. 홍산문화

홍산문화는 1935년 일본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등이 적봉 홍산후(紅山後) 유적을 발굴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1950년대에 들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홍산문화'라 명명하게 되었다.[41] 이후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문화의 면모가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따르면 6700~5000 yr BP경으로 조보구문화와 200년가량에 걸쳐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다.[42] 주거지는 장방형 수혈식 건축물이 많고,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분포한다. 환호를 두른 유적들도 발견된다. 토기는 협사 회갈색 토기가 주를 이루는데, Z자문과 각획문(刻劃紋)이 새겨진 통형관이 많다. 니질 채도(彩陶)인 관(罐), 옹(甕), 발(鉢)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구연이 경사지게 잘린 사구기(斜口器)와 삼족기(三足器)가 출현하였다. 무덤에서 옥기가 대량 출토되어 옥기 제작과 사용이 번성했음을 보여준다. 단(壇)·묘(廟)·총(塚)으로 조합된 적석총 유적은 제사 유적으로 추정되며, 전문적으로 토기를 생산한 가마터 유적 등이 발견

41 張興德, 200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3쪽; 복기대, 2019, 앞의 책, 19~30쪽; 尹達, 1955, 「關於赤峰紅山後的新石器時代遺址」, 『中國新石器時代』, 三聯書店.

42 복기대, 2019, 위의 책, 77~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다.[43]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홍산문화 유적은 총 987개이고, 추가로 발굴 및 지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참조하여 5개의 유적을 추가[44]하여 총 992개의 유적을 DB화하였다. 이전 시기보다 유적의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적별 면적은 100m²에서 800만m² 사이로 편차가 커서 유적 간의 위계가 이전 시기들보다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5). 면적이 가장 큰 유적은 능원시(凌源市) 우하량(牛河梁) 유적으로 유적군 전체를 하나의 유적으로 간주하여 면적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오한기의 분자지(份子地) 유적이 450만m², 통료시의 파언탑라(巴彦塔拉) 유적이 400만m²로 대규모 유적에 해당하나 발굴 혹은 지표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하천을 따라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홍산문화 시기부터 교래하 이동 지역으로 분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랍목륜하의 하류 지역과 그 지류인 신개하(新開河) 및 유하(柳河) 지역에 면적이 큰 유적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홍산문화 시기부터 동쪽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소릉하 유역에도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며 발해만 연안까지 확장되었으나 유적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대릉하(大凌河) 중상류 지역에서 홍산문화 유적이 416곳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45]

---

43 李恭篤, 1977, 「遼寧敖漢旗小河沿三種原始文化的發現」, 『文物』 1977-12, 1~12쪽; 오대양, 2014,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5, 199~258쪽.

44 李恭篤, 1977, 위의 글, 1~12쪽; 王惠德·薛志強·吉迪·劉景嵐, 1998, 「陰河中下遊石城的調查與研究」,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9, 15~61쪽; 任學軍·邵國田, 2000, 「尹家店山城調查簡報」, 『內蒙古文物考古』 2000-2, 52~55쪽; 吉平·鄭鈞夫·胡春佰, 2012, 「內蒙古科左中旗哈民忙哈新石器時代遺址2010年發掘簡報」, 『考古』 2012-3, 11~19쪽; 陳國慶主編, 2012, 『赤峰上機房營子與西梁』, 科學出版社, 11~25쪽.

45 齊澤垚, 「大凌河中上遊地區紅山文化考古調查取得階段性成果」, 『中國社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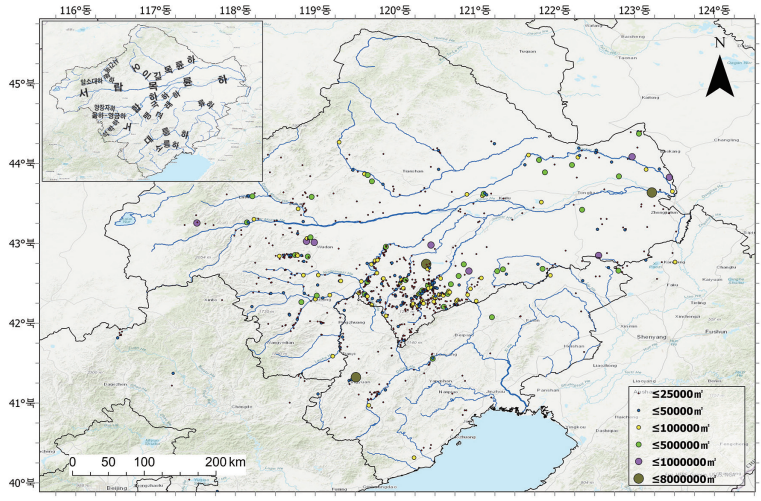


그림 6 홍산문화 유적 분포도

〈표 5〉 홍산문화 유적 면적 분석표

면적(m^2)	유적 개수
≦25,000	734
≦50,000	128
≦100,000	70
≦500,000	36
≦1,000,000	8
≦8,000,000	3
미상	13
총계	992

면적 평균	45,978m^2
표준편차	327,762m^2

科學網』, 2019.7.24, http://www.cssn.cn/kgx/kgdt/201907/t20190724_4938564.s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지만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위치와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분포 양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북쪽으로는 서랍목륜하 이북 지역까지 크고 작은 유적들이 진출하였고, 서남쪽으로는 기북(冀北)지역과 당산 및 북경, 천진 지역에서도 소형 유적들이 일부 발견되어 홍산문화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모두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부의 저지대에서 서부의 고지대까지 유적이 모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6).

6. 소하연문화

소하연문화는 1921년 스웨덴 학자 안데르손이 호로도시 사과둔(沙鍋屯)에서 처음 발견하였다.[46] 이후 1974년 적봉시 오한기 소하연향(小河沿鄕) 백사랑영자(白斯朗營子) 남대지(南臺地)에서 취락 유적을 발굴조사한 후 '소하연문화'로 정식 명명하였다.[47] 홍산문화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서 후홍산문화(後紅山文化)라고도 불린다.[48] 소하연문화의 주거지는 타원형의 수혈식 건축물로 크기가 작으며, 단실과 쌍실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 무덤은 소형만 발견되었으며 주로 수혈식 토광묘이다. 앙신굴지장 위주이나 합장묘도 소량 보인다. 토기는 세승문(細繩紋), 각화그물문(刻劃網絡紋)을 장식한 통형관과 평행선, 사선, 삼각문을 장식한 발(鉢), 관(罐), 두(豆) 위주이다. 이 외에 부호가 새겨진 토기와 채도 등이 발견되었다.[49]

---

46 安特生, 1923, 「奉天錦西縣沙鍋屯洞穴層」, 『中國古生物誌』丁種第一號第一冊, 农商部地質調查所.

47 李恭篤, 1977, 앞의 글, 1~12쪽.

48 索秀芬·李少兵, 2008, 「小河沿文化年代和源流」, 『邊疆考古研究』 2008-12, 57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1998, 『大南溝—後紅山文化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62쪽.

4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編著, 1998, 위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소하연문화는 총 91개로 홍산문화 시기에 비해 유적의 분포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유적은 면적이 50m²에서 15만m²로 크지 않으나 맹극하와 교래하 사이에 한 유적[분자지(份子地) 유적]은 크기가 450만m²에 달할 정도로 크다. 그 규모는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에 필적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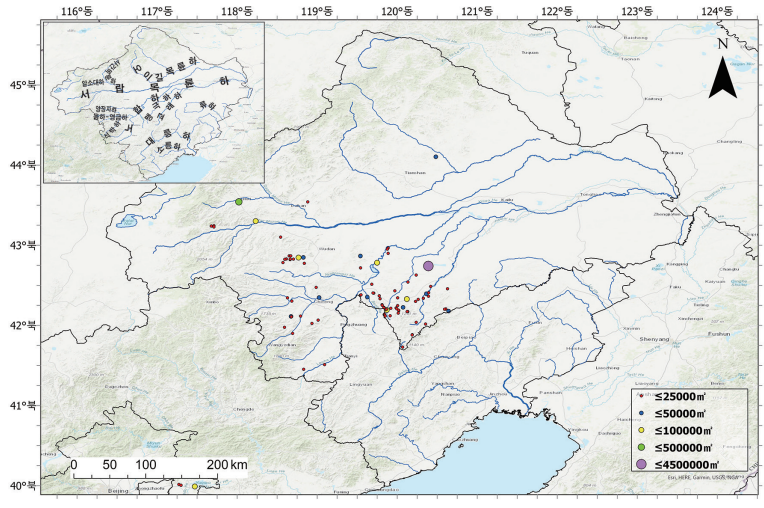


그림 7 소하연문화 유적 분포도

〈표 6〉 소하연문화 유적 면적 분석표

면적(m²)	유적 개수
≦25,000	72
≦50,000	9
≦150,000	7
≦4,500,000	1
미상	2
총계	91

면적 평균	67,597m²
표준편차	475,867m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큰 유적군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지표조사만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 면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50] 유적 간의 규모의 편차가 커서 위계관계가 뚜렷하나, 이전 시기인 홍산문화에 비하면 발견된 유적의 수량도 적고, 위계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적봉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통료와 요녕성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 또 북경 부근에서도 일부 발견되는 점이 조보구문화의 분포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표 6, 그림 7).

7. 하가점하층문화

하가점하층문화는 1935년 일본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등이 적봉 홍산후(紅山後) 유적을 발굴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51] 이후 1960년대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유관민(劉官民), 서광기(徐光冀) 등이 적봉 송산구(松山區) 하가점(夏家店)에서 발굴을 진행한 후 이곳에서 두 종류의 청동문화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가점하층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52] 초기 주거지는 주로 단실 원형 수혈식이다. 중후기에는 단실이거나 내실과 외실로 구분되며, 돌이나 흙으로 지면에 벽체를 세웠고, 평면은 원형으로 지상식이다. 취락은 무리를 지어 분포한다. 대부분 하천 양안의 대지, 언덕, 산 정상 등에 위치하며, 석벽이나 토벽을 쌓은 유적과 환호를 두른 유적이 종종 보인다. 무덤은 대부분 장방형의 토광수혈묘이며, 매장 방식은 단인측신직지장(單人側身直肢葬)이 주이다. 토기는 협사 회도와 갈도가 가장 많이 보이고, 니질 회도와 흑도, 홍도도 발견된다. 기형으로는 력(鬲), 언(甗), 정(鼎), 관(罐), 두

50 문물지도집에는 유적의 면적이 450만m^2로 되어 있으나, 지표조사 결과 600만m^2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田廣林, 1995, 「關於西遼河地區早期農耕時代城的起源及其發展」,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6, 1~7쪽; 邵國田, 1993, 「概述敖漢旗的紅山文化遺址分布」, 『中國古代北方文化國際學術研討會會議材料』).

51 濱田耕作·水野淸一, 1938, 『赤峰紅山後』, 東方考古學叢書甲種 第6冊.

52 궈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536~5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豆), 준(尊), 호(壺), 규(鬹), 작(爵) 등이 있다. 청동기는 귀고리와 반지 같은 소형 장식품과 수수영자(水手營子)에서 출토된 동병과(銅柄戈)가 있다. 청동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흙으로 만든 도범 등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무리를 이뤄 분포하는 석성(石城)과 대규모 천문관측 및 제사 유적은 하가점하층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53]

문물지도집에 소개된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은 총 5,042개이며, 추가로 발굴 및 지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참조하여 88개의 유적[54]을 추가하여 총 5,130개의 유적을 DB화하였다.[55] 유적의 면적이 24m²에서 120만m²까지 다양하나 대형

53 복기대, 2002, 앞의 책, 15~100쪽; 궈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위의 책, 536~539쪽; 강승우·양홍진, 2018, 앞의 글, 5~39쪽.

54 佟柱臣, 1957, 「赤蜂東八家石城址勘查記」, 『考古通訊』 1957-6, 15~22쪽; 劉謙, 1986, 「錦州山河營子遺址發掘報告」, 『考古』 1986-10, 873~881쪽; 「凌源發現夏家店下層文化祭祀遺址」, 『中國文物報』, 1992.2.23; 郝維彬, 1996, 「內蒙古庫倫旗南泡子崖夏家店下層文化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 11~14쪽; 王惠德·薛志強·吉迪·劉景嵐, 1998, 앞의 글, 15~61쪽; 王成生 외, 2000, 「遼寧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41~82쪽; 陳國慶·王立新, 2008, 「內蒙古赤峰市康家灣遺址2006年發掘簡報」, 『考古』 2008-11, 15~23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3a, 「興城馬圈子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 164~227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3b, 「興城望寶山青銅時代發掘報告」, 『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 236~248쪽; 徐韶鋼 외, 2012, 「遼寧阜新縣代海遺址發掘簡報」, 『考古』 2012-11, 7~22쪽; 陳國慶主編, 2012, 앞의 책, 144~156쪽; 王仁旺·劉海文·黨鬱, 2013, 「通遼市奈曼旗小東溝遺址發掘簡報」, 『草原文物』 2013-2, 24~35쪽; 司偉偉 외, 2014, 「遼寧阜新縣界力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2014-6, 3~18쪽; 賈洪榛主編, 2014, 『夏家店下層文化在赤峰-從二道井子遺址說起』, 內蒙古人民出版社, 107~108쪽; 褚金剛·崔蕾 외, 2015, 「遼寧錦州西大砬子遺址發掘簡報」, 『北方民族考古』(第2輯), 1~15쪽; 褚金剛·劉潼, 2015, 「遼寧錦州龍台遺址發掘簡報」, 『東北史地』 2015-9, 19~28쪽; 霍東峰·夏豔平·朱永剛, 2016, 「內蒙古庫倫旗三家子遺址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2016-1, 61~82쪽; 崔蕾·張壯, 2018, 「遼寧錦州天橋東山青銅時代遺址考古發掘簡報」, 『北方民族考古』(第6輯), 1~10쪽; 連吉林, 2018, 「內蒙古赤峰高家台子遺址」, 『大眾考古』 2018-12, 12~13쪽.

55 문물지도집 하북성 분책에서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이 하북성 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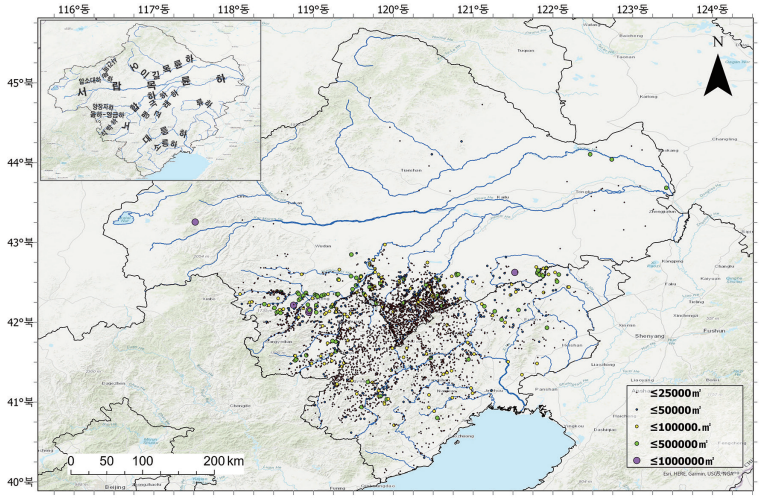


그림 8 하가점하층문화 유적 분포

〈표 7〉 하가점하층문화 유적 면적 분석표

면적(m^2)	유적 개수
≦25,000	4,583
≦50,000	303
≦100,000	132
≦500,000	74
≦1,200,000	5
미상	33
총계	5,130

면적 평균	12,769m^2
표준편차	39,579m^2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대타두문화로 정의하여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에서 제외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적에 대한 발굴이나 지표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그 면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표 7). 크고 작은 유적들이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유적 간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의 중심지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밀도 분석을 통해 음하-영금하 지역, 오한기 서부 지역, 오한기 동부 지역, 유하 지역의 유적의 밀집도가 눈에 띄게 높아서 각각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은 모두 북위 42~43°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56]

이전 시기와 달리 주로 서랍목륜하 이북 지역에서는 유적이 적게 발견되고, 이남 지역 전역에 걸쳐 높은 밀도로 분포해 있다. 특히 대·소릉하 지역에도 많은 유적이 발견되어 발해만 연안까지 세력권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해발고도가 1,500m 이상에 달하는 서부 지역에서 해발고도가 0m 이하에 달하는 동부 지역까지 유적이 발견된다. 특히 음하-영금하 지역에는 중대형 유적이 하천을 따라 줄지어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노합하와 대릉하를 따라 조양시에도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부신(阜新)시 쪽으로도 활발하게 확장한 모습이다(그림 8).

Ⅲ.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전개 양상 및 특징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유적 위치 정보를 시기별로 DB화 및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시기별 문화의 전개 과정을 일부나마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유적의 위치 및 면적 정보를 토대로 커널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es) 분석을 실시하여 시기별 분포범위와 중심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57] 또 전개 양상

56 강승우, 2022, 앞의 글, 63~66쪽.

57 커널밀도 분석은 탐색 반경 내에 분포한 유적 수를 탐색 반경의 면적으로 나눠 밀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셀의 크기(output cell size)는 원시자료인 분석단위(격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2km로 설정하였고, 탐색반경(search radius)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석 중에 발견한 일부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향후 연구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1. 기후 변화에 따른 선사시대 문화의 전개 양상

〈그림 9~15〉를 살펴보면 소하서문화 시기에서 하가점하층문화 시기까지 적봉 오한기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줄곧 북위 42~43° 지역에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맹극하와 교래하의 상류 지역인 오한기가 줄곧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오한기 이외에도 서랍목륜하 상류지역, 음하-영금하 유역 등에서도 중심지가 형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시기별 분포범위는 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이심(科爾沁) 사막은 홍적세 후기에 형성되었으며, 홀로세 들어 전 지구적 기후 파동의 영향으로 홀로세 기후최적기에 두 차례에 걸쳐 큰 확장과 축소를 겪었다.[58] Xia Zheng-kai(夏正楷)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과이심 사막의 첫 번째 대규모 축소는 8000~5000 yr BP에 발생했으며 이 지역의 홀로세 기후최적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에 흥륭와, 조보구, 홍산문화로 대표되는 원시농경 문화가 서랍목륜하 유역에서 발전하였다. 사막의 첫 번째 대규모 확장은 5000~4000 yr BP에 소하연문화 시기에 발생하였고, 기후 악화에 따라 농경지 파괴, 경작지 감소, 농업경제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졌다. 사막의 두 번째 대규모 축소는 4000~3300 yr BP의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발생하였고, 비교적 온난습윤한 삼림초원 환경이 형성

10km로 설정하였다(커널밀도 분석법 시행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박종철·박지훈, 2011.6, 「충남 천안 백석동 청동기 시대 주거지 밀집 구역의 지형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 297~312쪽 참조). 또 유적이 클수록 거주 인구수가 많다고 가정하여 면적 크기를 반영하여 밀도분석을 진행하였다.

58 夏正楷·鄧輝·武弘麟, 2000, 「內蒙西拉木倫河流域考古文化演變的地貌背景分析」, 『地理學報』 2000-3, 3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어 농업경제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3300 yr BP 이후 사막의 두 번째 대규모 확장이 발생하였다.[59]

화분 분석을 바탕으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피터 웨이밍쟈(Peter Wei Mingjia)의 연구에 따르면 8,000 yr BP경에는 기후가 여전히 건조하였지만 기온은 1,000년 전보다 3~4℃가량 상승하여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북위 41° 이남 지역은 초원이 드넓은 개방삼림지대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막과 반사막 지대는 초원지대로 변모하였다. 7,000 yr BP경에는 현재보다 온도가 1~2℃가량 상승하였고, 연간 강수량이 지난 시기보다 50~100mm가량 상승하여 450~500mm 수준에 다다랐다. 이는 상대적으로 습하고 따뜻한 기후로 바뀌어 수목이 증가하였고, 개방삼림지대는 숲으로 바뀌었다. 6,000 yr BP경에는 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로 바뀌었다. 현재보다 약 5℃가량 더 높고, 연평균 강수량은 450mm 정도로 홀로세 이후 가장 건조한 환경으로 바뀌어서 고밀도 숲은 다시 개방삼림지대로 돌아가거나 훨씬 더 낮은 밀도의 숲으로 되돌아갔다. 5,000 yr BP경에는 이전 시기보다 최소 1℃ 이상 낮아졌으나 강수량은 연평균 450mm로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산비탈이 노지와 초원으로 덮여 있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식생 변화는 크지 않았다. 4,000 yr BP경에는 이전보다 온도가 하강하였고 약간 습하여 현재와 비슷한 기후환경이 조성되었다. 식생은 이전 시기와 비슷하여 대부분의 사면에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60]

이러한 요서지역에서의 고기후 변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시기별 유적 분포의 변천이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북부에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는 8.5 ka BP에 시작되었으며 그전에는 춥고 건조하였다. 홀로세 기후 최적기에 들어 기온과 강수량이 급격히 상승했고 점진적으로 거주에 적합한 수

59 夏正楷 · 鄧輝 · 武弘麟, 2000, 위의 글, 333~334쪽.

60 Peter Wei Ming Jia, 2005,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NORTHEAST CHINA", *Department of Archaeology The University of Sydney*, Doctoral dissertation, pp. 98~1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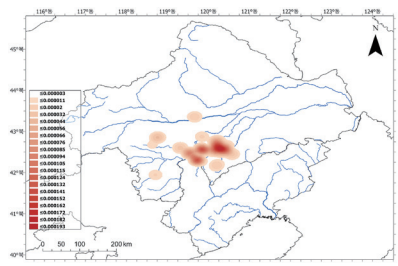


그림 9 소하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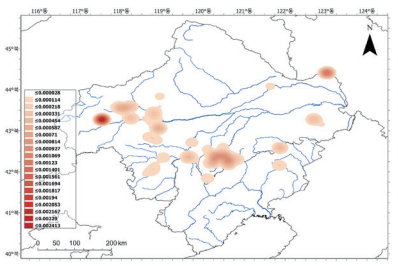


그림 10 흥륭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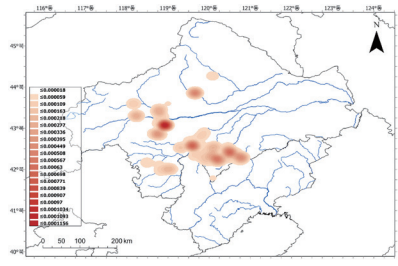


그림 11 조보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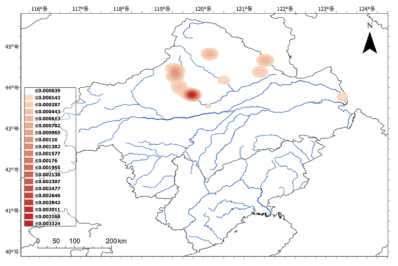


그림 12 부하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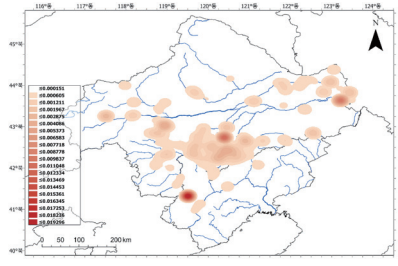


그림 13 홍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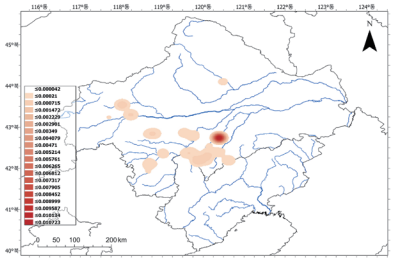


그림 14 소하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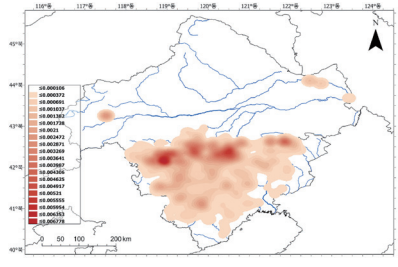


그림 15 하가점하층문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준으로 안정되었다.[61] 8000년까지 점차 기온이 상승하고 삼림지대와 초원지대가 증대하였다.[62] 이는 요서지역에 인구 증가를 야기하였고, 응집한 결과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요서지역에 소하서, 흥륭와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림 9, 10). 이후 7000년 이전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대하여 삼림지대가 증가하면서 서랍목륜하 이북지역도 거주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뀌었다.[63] 이에 따라 조보구, 부하문화 시기의 유적 분포가 북쪽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12). 6,000년 전경에는 홍산문화 시기로 강수량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온도가 대폭 증가하였다.[64] 서랍목륜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모두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서랍목륜하 이북 지역이 거주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5,000년 전경에는 이전 시기보다 강수량이 비슷하고 온도가 일부 하강하였다.[65] 이후 4000년경 전까지 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유적 분포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4,000년 전경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는 기온이 하강하였다.[66] 이에 따라 유적 분포가 전반적으로 남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온이 떨어졌어도 강수량이 증가하여 식생이 발달하였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농경이 확산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5).

2. 여러 시기 문화가 중복 발견되는 유적

하나의 유적에서 여러 시기의 유구나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 시기 이상의 문화가 중복된 유적을 정리해보면 〈표 8, 9〉 및

61 YUAN Yuying, 2019, 앞의 글, p. 456.
62 Peter Wei Ming Jia, 2005, 앞의 글, p. 102.
63 Peter Wei Ming Jia, 2005, 위의 글, pp. 102~103.
64 Peter Wei Ming Jia, 2005, 위의 글, p. 103.
65 Peter Wei Ming Jia, 2005, 위의 글, p. 103.
66 Peter Wei Ming Jia, 2005, 위의 글, p. 1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6〉과 같다. 다른 시기 문화와 중복으로 발견되는 유적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하가점하층문화와 홍산문화 시기이다. 소하서, 흥륭와, 조보구, 부하 문화는 홍산문화와 중복 발견되는 유적의 비율이 높고, 소하연문화는 홍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 모두 중복되는 유적의 비율이 높다. 홍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는 서로 중복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다수 시기가 중복되는 유적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오한기 지역의 수천(水泉) 유적으로 지표조사 결과 흥륭와-조보구-홍산-소하연-하가점하층문화 5개 시기의 선사시대 유물이 동시에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면적은 대략 1만 8,000m²이다.[67] 하지만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4개의 선사시대 문화 요소가 동시에 발견된 유적으로는 발굴 조사가 진행된 백음장한(白音长汗) 유적이 대표적이며 흥륭와-조보구-홍산-

〈표 8〉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별 중복 유적 개수 분석표

문화명	총 유적 개수	중복 발견되는 유적 개수													
		소하서		흥륭와		조보구		부하		홍산		소하연		하가점하층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소하서	35	17	43.6%	1	0.6%	3	2.2%	0	0.0%	10	1.0%	0	0.0%	8	0.2%
흥륭와	132	1	2.6%	37	23.4%	13	9.4%	1	2.2%	51	4.9%	9	8.0%	46	0.9%
조보구	106	3	7.7%	13	8.2%	21	15.1%	1	2.2%	66	6.3%	6	5.3%	29	0.6%
부하	44	0	0.0%	1	0.6%	1	0.7%	35	77.8%	8	0.8%	0	0.0%	0	0.0%
홍산	992	10	25.6%	51	32.3%	66	47.5%	8	17.8%	608	57.9%	30	26.5%	277	5.3%
소하연	91	0	0.0%	9	5.7%	6	4.3%	0	0.0%	30	2.9%	34	30.1%	34	0.7%
하가점하층	5,130	8	20.5%	46	29.1%	29	20.9%	0	0.0%	277	26.4%	34	30.1%	4785	92.4%

* 표에서 음영 처리한 셀의 수치는 해당 문화 유물만 단독으로 출토된 유적이다.
** 하나의 유적에서 여러 시기 문화가 중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합계가 총 유적 개수보다 많다.

67 國家文物局 主編, 2003, 앞의 책, 2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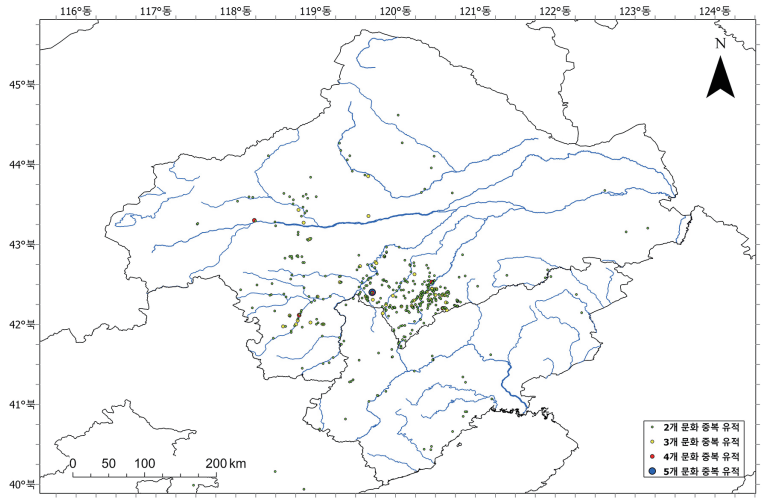


그림 16 두 종류 이상의 선사시대 문화가 중복하여 발견된 유적의 위치

〈표 9〉 두 종류 이상의 선사시대 문화 요소가 함께 발견된 유적의 개수

중복 문화 수	구분	발견 유적 수
5	흥륭와－조보구－홍산－소하연－하가점하층	1
4	소하서－조보구－홍산－하가점하층	1
	흥륭와－조보구－홍산－소하연	1
	흥륭와－조보구－홍산－하가점하층	1
	흥륭와－홍산－소하연－하가점하층	1
	조보구－홍산－소하연－하가점하층	1
3	소하서－조보구－홍산	1
	소하서－홍산－하가점하층	1
	흥륭와－조보구－홍산	5
	흥륭와－홍산－소하연	2
	흥륭와－홍산－하가점하층	12
	흥륭와－소하연－하가점하층	3
	조보구－홍산－하가점하층	15
	부하－조보구－홍산	1
	홍산－소하연－하가점하층	8
2	소하서－흥륭와	1
	소하서－조보구	1
	소하서－홍산	7
	소하서－하가점하층	6
	흥륭와－조보구	5
	흥륭와－부하	1
	흥륭와－홍산	28
	흥륭와－소하연	1
	흥륭와－하가점하층	28
	조보구－홍산	39
	조보구－소하연	3
	조보구－하가점하층	10
	부하－홍산	7
	홍산－소하연	16
	홍산－하가점하층	236
	소하연－하가점하층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하연 4개 시기의 문화가 동시에 발견되었다.[68] 하지만 이외에 대부분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유적들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적들이 위치한 지역은 식량과 자원의 확보가 원활하고, 교통, 교역 및 안전 등이 발달하여 다른 지역보다 거주에 용이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 유적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 간의 상관관계와 발전상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는 문물지도집과 발굴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많은 수량의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유적 정보를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각 시기 문화의 유적 분포 특징을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하서문화 시기부터 하가점하층문화 시기까지 유적 분포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나마 유적의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들은 주로 서랍목륜하와 그 지류인 노합하, 맹극하, 교래하 및 대·소릉하 유역 등지의 하천을 따라 분포해 있다. 적봉시 오한기의 맹극하와 교래하 유역과 노합하 유역은 소하서문화 시기부터 하가점하층문화 시기까지 줄곧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아서 줄곧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기에 따라 서랍목륜하 상류지역, 음하-영금하 유역 등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이 등장하여 문화별 중심지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나뉘어 밀집 분포하고 있어 중심지가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비교적 거리가 먼 곳에도 유적 간의 왕래를 통해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 國家文物局 主編, 2003, 위의 책, 142쪽; 郭治中·索秀芬·包青川, 1993, 「内蒙古林西县白音长汗新石器时代遗址发掘简报」, 『考古』 1993-7, 577~586쪽; 郭治中·索秀芬, 2002, 「内蒙古林西县白音长汗新石器时代遗址1991年发掘简报」, 『文物』 2002-1, 4~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 각 중심지에서는 여러 시기 문화가 중복적으로 발견되는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이 중심지들이 식량과 자원의 확보가 원활하고, 교통, 교역 및 안전 등 거주에 용이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적 면적 크기를 통해 당시 유적 간의 위계관계도 추정해볼 수 있다. 소하서문화는 분포범위에 비해 발견된 유적의 수량이 적어서 유적 규모와 유적 간 위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흥륭와문화는 소하서문화에 비해 유적 규모에 층서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유적 간 위계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조보구문화 시기에는 다시 대형 유적들이 사라지고 유적 위계구조가 단순해졌다. 부하문화는 서랍목륜하 북부지역으로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오이길목륜하를 따라 유적 간의 위계구조가 뚜렷이 나타난다. 홍산문화 시기에는 거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우하량 유적군과 같은 초대형 유적이 등장하였고, 위계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하연문화 시기에는 유적의 분포범위와 수량이 확연히 줄어들지만 여전히 위계구조가 뚜렷하다.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들어서는 유적의 수량이 확연히 늘어나고 여전히 위계구조가 뚜렷하지만 홍산문화나 소하서문화 시기와 같은 초대형 유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시리아 카부르(Khabur) 삼각주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에는 유적 위계구조가 뚜렷하다가 철기시대에 유적 규모가 작아지고 고루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청동기시대에는 이동이 제한되어 근거리 유적 간에 교류하고 유리한 지점에 입지한 곳으로 물자, 정보, 사람이 대형유적으로 집중되었고, 철기시대에는 중심 권력이 나타나면서 그 영역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워져 인근의 대형 중심지로 몰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유적이 골고루 분포할 수 있다고 보았다.[69] 이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이전 시기에 비해 대형 유적이 줄어들고,

69 Peter Demján et al., 2022, "Long time-series ecological niche modelling using archaeological settlement data: Tracing the origins of present-day landscape", *Applied Geography*(141), pp. 1~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수의 유적이 골고루 분포하게 된 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기후와 생업의 변화에 따른 시기별 유적 분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8000~5000 yr BP는 홀로세 기후최적기에 해당하여 점차 온도가 상승한다. 소하서, 흥륭와, 조보구 문화 시기에 맹극하-교래하 중상류 유역과 노합하 유역에서 유적이 발견되지만,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하, 홍산 문화 시기에는 서랍목륜하 이북지역까지 유적 분포범위가 확장되었다. 수렵채집과 기초적인 농경만 시행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홍산문화 시기에는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적의 수량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 5000~4000 yr BP에 온도가 하강하면서 소하연문화의 분포범위가 확연히 축소되었고, 농업 생산력의 저하로 유적의 수량이 급감한다. 이후 4000 yr BP부터 기온이 하강하여 하가점하층문화는 서랍목륜하 이남 지역으로 국한되었으나, 강수량의 증가로 식생이 발달하였고 농경의 발달로 인해 유적의 수량이 대폭 증가하여 유적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70]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는 분포범위가 넓고 유적의 수량이 많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많아서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지역 전문가는 적봉 남부지역에서만 3만 개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하였으며,[71] 최근에는 대릉하 중상류 지역에서 홍산문화 유적이 416곳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다.[72] 이 외에도 조양(朝陽) 지역에서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의 대규모 토성 유적들이 발견되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73] 향후 중국에서 "고고 중국-홍산 사회 문명화 과정 연구"가 실시된다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

70 夏正楷 · 鄧輝 · 武弘麟, 2000, 앞의 글, 329~336쪽.

71 任學軍 · 邵國田, 2000, 앞의 글, 52쪽.

72 齊澤垚, 앞의 글, 2019.7.24.

73 요서지역 선사시대 유적 발굴에 다수 참여했던 복기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이 많고, 조양지역에서도 대규모 토성 유적들이 발견되어 하가점하층문화의 주요 중심지역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와 관련된 유적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요서지역 고고학 연구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中华民族共同体)' 의식을 고양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대량의 유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요서 주변 지역의 고고 문화의 DB를 업데이트하여 문화권 교류 양상도 시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한국의 상고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방대한 자료를 수집 및 DB로 정리하고 이를 지도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개인이 진행하는 데 작업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모든 고고학적인 연구성과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각화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는 현지조사가 동반되어야만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고, 현지 상황에 따른 유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5,000 이상의 대축척지도가 필요하나 문물지도집은 대부분 1:200,000 이상의 소축척 지도를 사용하여 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7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질의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여러 시기의 문화가 중복 발견되는 유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면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전개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4 왜곡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고고학적 물질자료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정훈진·강동석, 2010, 「고고학적 공간정보의 취득관리와 GIS」, 『야외고고학』 9, 153~1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권다순·장싱더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박진호·복기대, 2016, 『요서지역 초기 신석기문화 연구-소하서·흥륭와문화를 중심으로』, 주류성.

복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賈洪榛 主編, 2014, 『夏家店下層文化在赤峰-從二道井子遺址說起』, 內蒙古人民出版社.

國家文物局 主編, 2003, 『中國文物地圖集: 內蒙古自治區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_____,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滕銘予, 2009, 『GIS支持下的赤峰地區環境考古研究』, 科學出版社.

邵國田, 2004, 『敖漢旗文物精華』, 內蒙古文化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1998, 『大南溝—後紅山文化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陳國慶 主編, 2012, 『赤峰上機房營子與西梁』, 科學出版社.

濱田耕作·水野淸一, 1938, 『赤峰紅山後』, 東方考古學叢書甲種 第6冊.

Renfrew, Colin & Bahn, Paul, 2012,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6th edition, Thames & Hudson.

논문

강승우, 2022a, 「서요하유역 하가점하층문화 사회발전단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논문.
_____, 2022b, 「GIS를 활용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묘지 무덤 조성순서와 묘지 존속기간에 관한 시론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75.
강승우·양홍진, 2018, 「夏家店下層文化 城子山산성의 성격과 기능」, 『선사와고대』 56.
김봉근, 2021,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토성의 현황과 과제」, 『고조선단군학』 44.
박종철·박지훈, 2011.6, 「충남 천안 백석동 청동기 시대 주거지 밀집 구역의 지형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
복기대, 2019, 『홍산문화의 이해』, 우리역사연구재단, 77~78쪽.
오대양, 2014,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5.
정훈진·강동석, 2010, 「고고학적 공간정보의 취득관리와 GIS」, 『야외고고학』 9.

郭治中·索秀芬, 2002, 「内蒙古林西县白音长汗新石器时代遗址1991年发掘简报」, 『文物』 2002-1.
郭治中·索秀芬·包青川, 1993, 「内蒙古林西县白音长汗新石器时代遗址发掘简报」, 『考古』 1993-7.
霍東峰·夏豔平·朱永剛, 2016, 「内蒙古庫倫旗三家子遺址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2016-1.
吉平·鄭鈞夫·胡春佰, 2012, 「内蒙古科左中旗哈民忙哈新石器時代遺址2010年發掘簡報」, 『考古』 2012-3.
董新林, 1996, 「趙寶溝文化研究」, 『考古求知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佟柱臣, 1957, 「赤峰東八家石城址勘查記」, 『考古通訊』 1957-6.
滕銘予, 2006, 「GIS在赤峰市西南部環境考古研究中的實踐與探索」, 『邊疆考古研究』 5.
_____, 2007, 「GIS在西拉木倫河以南地區環境考古研究中的初步應用」, 『内蒙古文物考古』 2007-1.
_____, 2009a, 「半支箭河中遊先秦時期遺址分布的空間考察」,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49
_____, 2009b, 「半支箭河中遊先秦時期遺址的分群與結構」, 『中華文明探源工程論文集-社會與精神文化卷(1)』, 科學出版社.
_____, 2009c, 「GIS在半支箭河中遊環境考古中的應用」, 『考古與文物』 200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09d, 「GIS在內蒙古敖漢旗環境考古研究中的初步應用與探索」, 『華夏考古』 2009-3.
司偉偉 외, 2014, 「遼寧阜新縣界力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2014-6.
徐光冀, 1964,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 1964-1.
徐韶鋼 외, 2012, 「遼寧阜新縣代海遺址發掘簡報」, 『考古』 2012-11.
索秀芬, 2005, 「小河西文化初論」, 『考古與文物』 2005-1.
_____, 2006,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索秀芬·郭治中, 2004, 「白音長汗遺址小河西文化遺存」, 『邊疆考古研究』 2004-3.
索秀芬·李少兵, 2008, 「小河沿文化年代和源流」, 『邊疆考古研究』 2008-12.
邵國田, 1993, 「概述敖漢旗的紅山文化遺址分布」, 『中國古代北方文化國際學術研討會會議材料』.
蘇秉琦, 1986, 「燕山南北·長城地帶考古工作的新進展--一九八四年八月在內蒙古西部地區原始文化座談會上的報告提綱」, 『內蒙古文物考古』.
安特生, 1923, 「奉天錦西縣沙鍋屯洞穴層」, 『中國古生物誌』丁種第一號第一冊, 农商部地質調查所.
楊虎, 1990, 「敖漢旗榆樹山, 西梁遺址」, 『中國考古學年鑒1989』, 文物出版社.
楊虎·劉國祥, 1997, 「內蒙古敖漢旗興隆窪聚落遺址1992年發掘簡報」, 『考古』 1997-1.
楊虎·林秀貞, 2009, 「內蒙古敖漢旗小河西遺址簡述」,『北方文物』 2009-2.
杨虎·朱延平·孔昭宸·杜乃秋, 1985, 「內蒙古敖漢旗興隆窪遺址發掘簡報」, 『考古』 1985-10.
連吉林, 2018, 「內蒙古赤峰高家台子遺址」, 『大眾考古』 2018-12.
王琳·武虹·賈鑫, 2016, 「西遼河地區史前聚落的時空演變與生業模式和氣候曆史的相關性研究」, 『地球科學進展』 31.
王成生 외, 2000, 「遼寧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王仁旺·劉海文·黨鬱, 2013, 「通遼市奈曼旗小東溝遺址發掘簡報」, 『草原文物』 2013-2.
王惠德, 2000, 「夏家店下層文化的發現與研究」,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0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王惠德·薛志強·吉迪·劉景嵐, 1998,「陰河中下遊石城的調查與研究」,『昭烏達蒙族師專學報』1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3a,「興城馬圈子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
_____, 2003b,「興城望寶山青銅時代發掘報告」,『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
劉謙, 1986,「錦州山河營子遺址發掘報告」,『考古』1986-10.
劉國祥, 2006,「西遼河流域新石器時代至早期青銅時代考古學文化概論」,『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9.
劉晉祥·朱延平, 1988,「內蒙古敖漢旗趙寶溝一號遺址發掘簡報」,『考古』1988-1.
尹達, 1955,「關於赤峰紅山後的新石器時代遺址」,『中國新石器時代』, 三聯書店.
李恭篤, 1977,「遼寧敖漢旗小河沿三種原始文化的發現」,『文物』1977-12.
李少兵·索秀芬, 2006,「建國前遼西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發現與研究」,『內蒙古文物考古』2006-2.
李延祥·陳建立·朱延平, 2014,「克什克騰旗喜鵲溝古礦遺址考察」,『東北亞古代聚落與城市考古國際學術研計會論文集』, 科學出版社.
任學軍·邵國田, 2000,「尹家店山城調查簡報」,『內蒙古文物考古』2000-2.
張興德, 2005,『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褚金剛·劉潼, 2015,「遼寧錦州龍台遺址發掘簡報」,『東北史地』2015-9.
褚金剛·崔蕾 외, 2015,「遼寧錦州西大砬子遺址發掘簡報」,『北方民族考古』(第2輯).
田廣林, 1995,「關於西遼河地區早期農耕時代城的起源及其發展」,『昭烏達蒙族師專學報』16.
趙賓福, 2011,「遼西地區漢以前文化發展序列的建立及文化縱橫關系的探討」,『東洋學』49.
趙賓福·杜戰偉, 2014,「小河西文化檢析」,『考古學研究』2014-1.
朱延平, 1994,「富河文化的若幹問題」,『內蒙古文物考古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陳國慶, 2004,「興隆窪文化分期及相關問題探討」,『邊疆考古研究』2004-3.
陳國慶·王立新, 2008,「內蒙古赤峰市康家灣遺址2006年發掘簡報」,『考古』2008-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陳明換, 2014,「GIS支持下的中國東北地區中西部夏至戰國時代人地關系初步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崔蕾·張壯, 2018,「遼寧錦州天橋東山青銅時代遺址考古發掘簡報」,『北方民族考古』, 第6輯.

夏正楷·鄧輝·武弘麟, 2000,「內蒙西拉木倫河流域考古文化演變的地貌背景分析」,『地理學報』 2000-3.

郝維彬, 1996,「內蒙古庫倫旗南泡子崖夏家店下層文化遺址調查簡報」,『北方文物』.

Demján, Peter, et al., 2022, "Long time-series ecological niche modelling using archaeological settlement data: Tracing the origins of present-day landscape", *Applied Geography*(141).

Drennan, Robert D., Peterson, Christian E., Xueming, Lü, Da, Zhu, & Shenguang, Hou, 2014, "Settlement and Social Dynamics in the Upper Daling and Chifeng Regions of Northeastern China", *Asian Archaeology 2014-2*.

Wei Ming Jia, Peter, 2005,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NORTHEAST CHINA", *Department of Archaeology The University of Sydney*, Doctoral dissertation.

YUAN, Yuying, 2019, "Cultural evolution and spatial-temporal distribution of archaeological sites from 9.5-2.3 ka BP in the Yan-Liao region, China", *JOURNAL OF GEOGRAPHICAL SCIENCES*(29).

기타 자료

「"考古中國"重大項目申報管理指南(2020-2035年)」,『國家文物局』, 2020.8.17, http://www.ncha.gov.cn/art/2020/9/15/art_2407_120.html

「"考古中國-紅山社會文明化進程研究"全面啟動」,『內蒙古日報』, 2022.4.17, http://nmg.news.cn/xwzx/2022-04/17/c_1128567304.htm

「國家文物局將啟動"考古中國"研究」,『光明日報』, 2016.12.26, http://www.ncha.gov.cn/art/2016/12/26/art_1960_136112.html

「淩源發現夏家店下層文化祭祀遺址」,『中國文物報』, 1992.2.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凌河中上遊地區紅山文化考古調查取得階段性成果」,『中國社會科學網』, 2019.7.24, http://www.cssn.cn/kgx/kgdt/201907/t20190724_4938564.shtml
齊澤垚,「大凌河中上遊地區紅山文化考古調查取得階段性成果」,『中國社會科學網』, 2019.7.24, http://www.cssn.cn/kgx/kgdt/201907/t20190724_4938564.shtml
「紅山社會文明化進程研究項目納入"考古中國"重大項目」,『中新網』, 2021.11.21, http://cul.china.com.cn/2021-11/21/content_41800751.ht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요서지역 선사시대 문화 분포 특징과 전개 양상 초탐(初探)

강승우

요서지역에서는 홀로세 이후 서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문화들이 끊임없이 탄생, 발전, 소멸하였다. 2000년대 들어 "중화문명탐원공정"이 실시되면서 요서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최근 중국 정부에서 "고고 중국-홍산 사회 문명화 과정 연구"를 발표하면서 요서지역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대규모 발굴조사와 연구가 예상된다. 이에 지금까지 발표된 유적 정보들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분포 양상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요서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는 줄곧 오한기(敖漢旗) 지역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와서 오랜 기간에 걸쳐 중심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시기에 따라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 상류, 노합하(老哈河), 음하(陰河)-영금하(英金河), 대·소릉하(大·小凌河) 등지에도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서 시기별로 중심지가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 문화의 전개 양상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8000~5000 yr BP는 요서지역 홀로세 기후최적기에 해당하며,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 홍산 문화 시기에는 서랍목륜하 이북지역까지 유적 분포가 확장된다. 하지만 5000~4000 yr BP에는 온도가 하강하며 소하연문화의 분포범위가 확연히 축소되었다. 이후 4000 yr BP에는 기온은 하강하였으나 강수량 증가로 인해 식생이 발달함에 따라 하가점하층문화가 서랍목륜하 이남 지역에서 번성하였다.

주제어: 요서지역, 선사시대, 고고중국, 유적 분포, 지리정보시스템(GI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 Prelimina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Prehistoric Cultural Distribution in Liaoxi Area

Kang Seaungwoo

As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e “Archaeological China - A Study on the Civilization Process of Hongshan Society(考古中國-紅山社會文明化進程研究)”, excavation and research on prehistoric sites in the Liaoxi area are expected. Accordingly, DB was created by organizing historical information published so far,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development process were analyzed by visualizing it using GIS. The prehistoric culture of the Liaoxi area has always been the highest density in the Aohanqi region, and it seems that it has served as a center for a long time. The development of culture by period was great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The 8000~5000 yr BP corresponds to the Holocene climate optimal period in the Liaoxi region, and as the temperature gradually rises, the distribution of historical sites expands to the north of the Xilamulun river during the Fuhe and Hongsh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ulture periods. However, the temperature dropped between 5000 and 4000 yr BP, and the distribution range of Xiaoheyan culture was significantly reduced. Since then, the temperature has fallen at 4000 yr BP, but as vegetation has developed due to increased precipitation, Lower Xiajiadian culture has flourished in the south of Xilamulun River.

Keywords: Liaoxi area, prehistoric period culture, China archeology, historical distribution, GI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5

5~6세기 중국(中國) 북방 민간결사(民間結社) 의읍(義邑)의 구조에 관하여

– 읍직(邑職)과 읍직 보유자를 중심으로

정재균 | 충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의읍(義邑)의 구성원과 읍직(邑職)
III. 지역사회에서 읍직 보유자의 존재 양태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5~6세기는 불교가 중국 북방의 기층사회에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된 시기이다. 그 지표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조상(造像)이다. 남북조 당시에 이미 불교를 "상교(象教/像教)"라고 지칭할 정도로 조상은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의 하나였다. 당시에 만들어진 각종 유형의 조상, 곧 금동상과 석상의 광배(光背)나 대좌(臺座), 석굴상이나 마애상 부근의 석벽, 그리고 조상비(造像碑) 등에는 이른바 조상기(造像記)가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상기에는 조상 당사자의 주관적 신앙이나 원망(願望)이 서술된 것 외에도 조상에 참여한 다양한 신분을 가진 공양자(供養者)의 성명을 기록한 제명(題名)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조상기 중에는 공통의 신앙을 매개로 조상과 재회(齋會) 등의 종교행사를 거행할 목적으로 결성된 신앙결사단체로 '합읍(合邑)'·'읍회(邑會)'·'제읍(諸邑)'·'법의(法義)'·'읍의(邑義)'·'읍의(邑儀)'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의읍(義邑)'이라는 단체가 등장한다.[1] 북조조상기에 등장하는 의읍은 불

---

* 투고: 2023년 7월 23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1 이러한 민간결사단체의 명칭과 관련하여 山崎宏는 "邑義는 邑의 法義라는 의미에서, 邑人은 邑義의 사람 명칭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그 단체를 法義의 邑, 즉 義邑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이론적이다"라고 지적하였다(山崎宏, 1942, 「隋唐時代に於ける邑義及び法社」, 『支那中世佛教の展開』, 東京: 法藏館, 768쪽). 이에 반해 佐藤智水는 이들 단체에 관해 사료에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료 분석상의 개념으로 '邑義'를 사용하고 있다(佐藤智水, 2006, 「中國における初期の「邑義」について(上)」, 『佛教文化研究所紀要』 45, 77쪽). 또 郝春文은 '邑'을 지역 개념이 아닌 어떠한 하나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성한 종교단체로 '邑'이라는 글자가 어느 정도 結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南北朝 시기 石刻 자료에는 '邑'·'邑義'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義邑'이라는 용어는 唐 이후에 출현하였음을 지적하였다(郝春文, 2006, 『中古時期社邑研究』,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71쪽). 劉淑芬은 '義'의 역사를 고찰하며 石刻 자료에 보이는 '邑義'라는 용어는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교 신도들만이 아니라 도교 신도들이 조직한 것도 발견된다. 게다가 의읍은 대개 그 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신앙의 중심인 사원이 소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직되고 있다. 의읍이 조직되는 범위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넘어 몇 개의 촌락 혹은 군(郡)이나 현(縣) 등 행정구역 단위로 결성될 때도 있으나,[2] 대개 생활공동체인 촌(村)이나 도시 등 현실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이다.[3] 따라서 조상기 중의 의읍은 북조 지역사회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상이며, 특히 조상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성명을 기록한 공양자 제명은 해당 의읍이 조직된 지역사회의 구성 혹은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의읍조상기의 제명에는 의읍 구성원들이 가진 관직이나 신분만이 아니라 의읍의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호칭하는 직함(職銜)[이하 읍직(邑職)으로 약칭]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곧 제명에 기록된 의읍 구성원의 성씨, 관직, 신분 및 읍직을 조

칭으로 '邑義'을 사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北朝 시기의 불교 신앙결사단체의 명칭을 '義'와 '義邑'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劉淑芬, 2007, 「中古佛教政策與社邑的轉型」, 『唐研究』 13, 235~238쪽; 劉淑芬, 2009, 「香火因緣-北朝的佛教結社」, 黃寬重 主編, 『中國史新論: 基層社會分冊』, 臺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219~220쪽). 근래 倉本尙德은 이 단체의 명칭에 대한 議論들을 검토한 후 북조 시기 造像 등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신앙단체의 명칭에 대해 수많은 실례를 조사·분석하여 '邑義'가 북조 시기 조상기에 자주 출현하지만, 대부분 집단으로서의 명칭은 아니고 그 구성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邑義'가 造像 등의 덕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도 있고 집단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倉本尙德, 2016, 『北朝佛教造像銘研究』, 京都: 法藏館, 32~38쪽). 이 글에서는 山崎宏, 劉淑芬의 견해를 따라 '邑義'를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그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북조조상기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義邑'을 불교신앙조직의 분석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北魏 孝靜帝 武定 7년(549) 기년을 가진 〈高嶺以東諸村邑義造像記〉와 같이 여러 村의 거주민들이 의읍을 조직한 경우도 있으며, 雍州 北地郡에 속한 3개 縣의 거주민들이 의읍을 결성한 孝明帝 正光 4년(523) 기년을 가진 〈雍州北地郡宜郡·同官·土門三縣邑子250人等造像記〉와 같은 사례도 있다. 다만 몇 개의 촌이나 현 또는 군 단위로 의읍이 조직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3 拙稿, 2019, 「北朝시기 義邑造像記 자료의 성격과 가치」, 『중국고중세사연구』 54, 20~26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하여 분석한다면, 이주민과 토착민의 관계, 호(胡)·한(漢) 외의 다양한 종족 간의 관계 등 북조 시기 지역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의읍이 생활공동체인 지역사회의 거주민들 가운데에서 조상이나 재회 등 종교 활동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자는 이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결코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 공통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단체를 이끌고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의읍을 발기하여 조직하는 과정부터 그 의읍의 대표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더욱이 단체라는 특성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조상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읍조상기에 기재된 공양자 제명에 등장하는 '읍주(邑主)'·'읍사(邑師)'·'유나(維那)' 및 '상주(像主)' 등 다종다양한 읍직이 주목된다. 읍직 명칭을 통해 읍직을 보유한 당사자의 역할을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공양자 제명은 의읍에 참여한 구성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치 혹은 그와 관계된 신분 등을 추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읍직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된다.

제명에 기록된 의읍의 구성원은 관인, 승려 및 민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관인은 대개 자신이 가진 작(爵)이나 관함(官銜)을 성명 앞에 명기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현임(現任) 관함만이 아니라 전임(前任)이나 가수(假授) 혹은 지방관에게 벽제(辟除)된 것도 기록하고 있다. 승려들의 경우 자신의 법명 앞에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사문(沙門)' 및 '사미(沙彌)'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신분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반면 일반민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제기(題記)와 달리 제명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민(民)'이라고 명기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혹은 적관(籍貫)이나 거주 지역 혹은 '불제자(佛弟子)'나 '청신사(淸信士)'·'청신녀(淸信女)' 등으로 기재하거나 단지 성명만 기록한 사례도 있다. 관인이나 승려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대개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관이나 거주 지역 혹은 자신의 성명 등만 기재한 이들은 무위무관(無位無官)인 '민'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의해야 할 것은 의읍 안에서 지위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읍직의 보유 여부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제(北齊) 무성제(武成帝) 하청(河淸) 2년(563) 〈엄수등중수고탑기(嚴壽等重修故塔記)〉에 보이는 다수의 승려는 모두 '비구'·'비구니'로 기록되어 있다.[4] 이 조상기는 마모된 부분과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아 '읍사'가 확인되지 않지만, 의읍조상기 전체에서 볼 때 '비구'와 '비구니'와 같은 호칭만 기재한 것은 단순히 출가자라는 신분 이외에는 어떠한 특징도 없다. 이들 출가자 역시 의읍에서는 단지 한 명의 참여자일 뿐이고, '읍자(邑子)·비구' 등으로 기록된 승려들은 '읍자'와 같은 일반 회원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5] 그리고 '읍주', '유나', '공양주(供養主)' 등의 읍직을 가진 승려는 다만 조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읍의 관리 계통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출자를 하는 등의 연유로 읍직을 보유한 데 불과하다. 이러한 까닭에 의읍 구성원이 가진 다종다양한 읍직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실 읍직의 명칭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의읍의 대표자로서 '읍주',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운영자로서 '유나', 일반회원으로서 '읍자', 읍의(邑義)들의 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교화승인 '읍사'라는 것이[6] 근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이해였다. 그리고 현재까

---

4 北齊 武成帝 河淸 2년(563) 〈嚴壽等重修故塔記〉, "光明主 楊元明, 比丘 法融, 比丘 □□, …, 邑子 嚴長貴, 邑子 董定城, … 比丘尼 道勝, 比丘 尼惠超, … 塔主 楊洪暉, 淸信 陳敬始, …", 顔娟英 主編, 2008, 『北魏佛敎石刻拓片百品』, No. 77,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210~211쪽.

5 西魏 文帝 大統 17년(551) 〈道俗37人造像記〉, "邑子·比丘 惠景, 邑子·比丘 惠海, 邑子·比丘 惠雲, 邑子·比丘 僧成, …", 顔娟英 主編, 2008, 위의 책, No. 54, 140~141쪽; 北周 武帝 建德 3년(574) 〈□崇儁等造像記〉, "邑子 比丘", 北京圖書館金石組 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 8冊, 162쪽; 北齊 武成帝 河淸 2년(563) 〈嚴壽等重修故塔記〉, "光明主 楊元明, 比丘 法融, 比丘 □□, …, 邑子 嚴長貴, 邑子 董定城, … 比丘尼 道勝, 比丘 尼惠超, … 塔主 楊洪暉, 淸信 陳敬始, …", 顔娟英 主編, 2008, 위의 책, No. 77, 210~ 2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오춘원(郝春文)은 의읍조상기에 보이는 읍직들을 출자(出資)를 통해 가지는 재주(齋主)·상주(像主) 등의 공덕주(功德主)와 실질적 의읍의 수령 두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 읍직의 역할과 그 연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7] 첫째, 읍직이 번다하고, 시기와 지역이 다른 의읍에서 수령(leader)의 명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지역이 같은 의읍에서 수령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다. 둘째, 동일한 명칭의 읍직이라도 각 의읍에서 지위와 역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셋째, 각 의읍에서 수령의 수도 큰 차이가 있다.

리우슈펀(劉淑芬)에 의하면 읍직은 ① 의읍의 집사(執事), ② 종교인, ③ 조상과 관련된 활동에 출자가 비교적 많은 구성원, ④ 복합형 직함, ⑤ 의읍의 구성원 등 5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8] 그의 분류법에서 ① 의읍의 집사란 대체로 읍주, 유나 등과 같이 의읍의 지도자 및 운영과 관리에 관계된 읍직이고, ② 종교인은 의읍의 지도자로 승려가 담당한 읍사와 비구·비구니·사미 등 승려를 가리킨다. ③ 조상과 관련된 활동에 출자가 비교적 많은 구성원이란 공덕주가 가지는 읍직을 말한다. 이 읍직의 명칭들은 대체로 불상이나 보살상의 조성 경비, 재회 및 그와 관계된 의식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의읍의 조상 활동 중 사원과 관련하여 비용을 출자한 것에서 연유하는데, 예컨대 상주, 재주, 속인사주(俗人寺主) 등이 있다. ④ 복합형 직함에 대해 리우슈펀은 의읍의 참가자가 둘 이상의 읍직을 보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복합형 직함의 사례로 동위(東魏) 효정제(孝靜帝) 흥화(興和) 4년(542)의 〈이씨합읍조상기(李氏合邑造像記)〉에 기록된 "도읍·금상·의정주·장락태수(都邑·金像·義井主·長樂太守) 이차(李次)", "도

6 山崎宏, 1942, 앞의 글, 775~780쪽; 佐藤智水, 1977, 「北朝造像銘考」, 『史學雜誌』 86-10, 33쪽.

7 郝春文, 2006, 앞의 책, 134~139쪽.

8 劉淑芬, 2009, 앞의 글, 2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나·대상비주(都維那·大像碑主) 이현족(李顯族)" 및 "팔관재주·도유나(八關齋主·都維那) 이원(李元)"을 거론하였다.[9] 장락태수 이차, 이현족 및 이원은 각각 관리와 관련된 '도읍주'와 '도유나', 출자로 획득할 수 있는 공덕주 계통의 '금상주'와 '의정주', '대상비주', '팔관재주'를 겸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이한 두 유형의 읍직이 병렬될 경우 복합형 직함이라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 의읍의 구성원은 대개 제명에 읍자, 읍생(邑生) 등으로만 기록된 자로서, 이들은 의읍의 일반 참여자이다.

리우슈펀이 제시한 읍직의 분류는 하오춘원이 제시한 것보다 구체적이며, 의읍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그 분류법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읍사'를 의읍에서 종교·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② 종교인이 아니라 ① 의읍의 집사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비구' 등으로만 기재된 승려는 의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보유한 읍직이 없으므로 의읍 내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은 일반 참여자이다. ④ 복합형 직함의 경우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장락태수 이차가 보유한 '도읍·금상·의정주'라는 읍직들은 각기 상이한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 즉, '도읍주'는 의읍에서 맡은 기능이 있으나, '금상주'의 경우 단지 조상에서 출자한 경제적 기여에 기인한 읍직으로서 성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읍직들이 설령 병렬되어 있더라도, 이를 하나의 읍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것은 이현족과 이원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하오춘원과 리우슈펀 두 사람의 읍직 분류를 통해 의읍이 조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읍직 구조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읍직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보아 의읍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계통과 조

9 〈李氏合邑造像記〉, "都邑·金像·義井主·長樂太守 李次", "都維那·大像碑主 李顯族", "八關齋主·都維那 李元",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43, 110~1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출자로써 획득되는 공덕 계통, 그리고 의읍 안에서 명확한 임무나 역할을 부여받지 않은 평범한 구성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부류의 의읍 구성원 중 우선 명확한 역할이 없는 일반회원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으로 공덕 계통과 관리 계통의 읍직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례를 통해 읍직 보유자들을 분석해보고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존재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의읍(義邑)의 구성원과 읍직(邑職)

1. 의읍의 일반회원

의읍 구성원의 다수는 제명에 읍자(邑子)·읍인(邑人)·읍생(邑生) 및 법의(法義) 등으로 불리는 일반회원이다. 제명 중 일반회원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읍자'이다. 읍자가 처음 출현하는 것은 산서 동부에서 만들어진 북위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20년(496)의 〈이도흥등조상기(李道興等造像記)〉이지만, 제기에 '읍자'가 등장할 뿐 제명에 간각된 의읍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읍자를 보유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남(河南) 용문석굴 고양동(古陽洞)에 있는 선무제(宣武帝) 경명(景明) 3년(502)의 〈손추생등조상기(孫秋生等造像記)〉와 경명 연간(500~505)의 〈양대안조상기(楊大眼造像記)〉[10]의 비액(碑額) 부분에 '읍자상(邑子像)'이라는 명문(銘文)이 큰 글씨로 새겨져 있지만, 두 사례 모두 공양인 개개인에게 읍자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 읍직이 없는 의읍의 구성원에게 읍자를 처음 붙인 것은 경명 4년(503)의 〈염촌읍자72인등조상기(閻村邑子72人等造像記)〉이다.[11]

10 〈楊大眼造像記〉, 毛遠明, 2009, 『漢魏六朝碑刻校注』 4冊, 北京: 綫藏書局, 13~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일반회원 호칭의 분포 상황과 초출(初出) 시기

邑職名稱		邑子			邑人			邑生			邑義			法義			王人		
地方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483)	●(505)		●(535)	無		無	●(513)		●(545)	無		無	無		無	無		無
河南	123(500)	●(502)	●(538)	●(547)	無	●(565)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山西	80(483)	●(496)	●(544)	●(540)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河北	38(503)	無	●(540)		無	●(554)		無	無		●(516)	●(547)		無	無		無	●(549)	
山東	72(476-490)	●(525)	●(548)		無	●(548)		無	無		無	●(548)		無	●(540)		無	●(554)	
未詳	31(500)	●(513)	●(543)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538)	無	無	無	無

※ 범례: 이하 〈표 8〉까지 동일

1. 표에 설정한 '陝西(甘肅)', '河南', '山西', '河北', '山東'은 조상기의 출토지 혹은 소재지를 현재의 省名으로 표시한 것이다.
2. 438건의 義邑造像 중 紀年을 확인할 수 없어 朝代를 비정할 수 없는 7건과 安徽 지역의 4건을 제외한 42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3. 동일 의읍 내 邑職 중 '都'·'大' 등이 붙는 것, 예컨대 '都維那'·'大都維那'가 '維那'와 함께 출현한 경우 '維那'로 일괄 처리하였다.
4. '( )'는 각 지방에서 의읍조상 혹은 읍직의 初出 시기를 표기한 것이다.

〈표 1〉은 읍자 외에 일반회원을 지칭하는 읍생, 읍인 및 법의 등을 현재의 '섬서(陝西[감숙(甘肅) 포함])', '하남(河南)', '산서(山西)', '하북(河北)', '산동(山東)' 다섯 지방으로 구분하여 그 초출(初出)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읍생은 섬서 서부와 감숙 지방에서만 사용되고, 읍인이나 법의 등은 하북

11 〈閻村邑子72人等造像記〉, 胡海帆·湯燕 編, 2012, 『1996-2012 北京大學圖書館新藏金石托本菁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산동 등의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 북조 시기 의읍에서 읍자 외에 일반회원을 칭하는 호칭은 널리 쓰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 수도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읍자 이외의 '법의'·'왕인(王人)'과 같은 특이한 호칭들은 대개 한정된 지역 내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여겨진다.[12]

그런데 '읍(邑)'은 남북조 시기에서도 '촌읍(村邑)', '읍리(邑里)' 등 취락 지역의 범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 말 자체에 내포된 뜻은 분명히 지역이다. 따라서 '읍'은 기본적으로 촌과 같은 일정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진신강등조상기(陳神姜等造像記)〉에 새겨진 '합읍인(合邑人)'에서 '읍인'은 문맥상 의읍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읍인을 모은다'라고 할 때 그 출발점에 있는 '읍'은 의읍의 구성원을 모집하는 사람이 사는 지역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읍인'과 같은 일반회원으로 가장 광범하게 사용된 '읍자'는 본래 동향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13]

의읍조상기에서 '읍'은 종교단체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읍자'가 의읍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신앙단체인 내의 사람' 혹은 '같은 신도'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읍'은 일정한 지역이나 동일한 거주지를 의미하는 세속적 세계와 신앙단체라는 종교적 세계를 이어주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조 시기 의읍은 지역사회의 향촌질서 혹은 공동체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 성격도 가진 단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

12 공양자 題名에 淸信士, 淸信女 등이나 혹은 아무런 호칭 없이 성명만 기록된 사람들도 흔하게 보인다. 이에 대해 郝春文은 化主가 의읍의 회원이 아닌 자들을 勸化하여 의읍의 종교 활동에 출자하게 하고, 이들은 비용을 내고 조상과 같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였다. 郝春文, 2006, 앞의 책, 143쪽.

13 『史記』 卷89, 「張耳陳餘列傳」, 2584쪽, "漢九年, … 中大夫泄公曰: 「臣之邑子, 素知之. 此固趙國立名義不侵爲然諾者也.」"; 『漢書』 卷76, 「尹翁傳」, 3207쪽, "(尹翁)徵拜東海太守, 過辭廷尉于定國. 定國家在東海, 欲屬託邑子兩人, 令坐後堂待見. [顔師古의 注: "邑子, 同邑人之子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공덕 계통의 읍직

조상기의 제명에는 상주(像主), 재주(齋主), 개명주(開明主), 광명주(光明主) 등과 같은 읍직 명칭을 보유한 구성원들이 보인다. 이러한 읍직은 대부분 의읍의 운영을 관리하는 직무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무관하고, 조상 활동에서 보시(布施)한 금액의 다과를 보여주는 공덕주로서의 표지일 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덕 계통의 읍직은 불상이나 보살상 혹은 탑 등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대거나 조상의 완료 후 거행하는 의식 및 재회에 필요한 경비를 출자한 경우 및 조상 사업에서 사원과 관련한 비용을 전담하였을 때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덕주로 대표적인 예가 상주이다. 이것은 하북 지역에서 북위 선무제 경명 4년(503) 〈고복덕합300인조상기(高伏德合300人造像記)〉[14]에 처음 등장한 이후, 다른 읍직에 비해 빠르게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어 유나와 더불어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상주는 조상 활동에서 불상이나 보살상의 제작에 출자한 자가 보유하였다. 예컨대 북위 효명제(孝明帝) 신구(神龜) 2년(519)의 〈최근조상기(崔懃造像記)〉에 의하면 상주 최근(崔懃)은 불상의 제작에 전(錢) 9천(千)을 출자하였고,[15] 북제 후주(後主) 무평(武平) 원년(570)의 〈동홍달40인등조상기(董洪達40人等造像記)〉에는 동복은(董伏恩)이 전 5백 문(文)으로 도석상주(都石像主) 한 구를 샀다고 기록하였다.[16]

상주는 화북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한 읍직이었던 만큼 단순히 공덕주로서 역

14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6, 12~14쪽.

15 〈崔懃造像記〉, "齊州東淸河郡俞縣人崔懃, 削減身資, 造石像一軀·二侍菩薩, … 像主崔懃, 用錢九千. … 法儀兄弟廿五人, 各錢一百, 裁佛金色. 陳安生·」賀孟奴·馬文智·焦伯奴·史曇貞·皇市·仇猛略·仇僧利·王曇玉·徐敬·侯叵當·孫文·徐惠愛·翟敵·魏繼淑·王智通·仇迷·仇强·榮文敬·賀僧德. [像]主崔懃·法儀主賀神達·史僧度·王承·王文展·次葙.",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5~36쪽.

16 〈董洪達40人等造像記〉, "武平二年十一月廿七日, 用錢五百文買都石像主一區.",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90, 238~2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상주류(像主類) 읍직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像主			石像主			扶像主			起像主			某面像主			某佛像主		
地域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 (483)	● (520)		● (538)	無		無	無		無	無		● (573)	● (520)		● (556)	無		● (573)
河南	123 (500)	● (517)	● (538)	● (547)	無	無	● (554)	無	無	無	無	● (559)	無	● (523)	● (552)	● (547)	無	● (545)	無
山西	80 (483)	● (513)	● (538)	● (540)	● (530)	無	● (567)	● (519)	● (557)	● (547)	● (521)	● (542)	● (540)	無	● (558)	無	無	● (546)	● (547)
河北	38 (503)	● (503)	● (549)	● (565)	無	無		無	無		無	● (569)	無	無	無		無	● (565)	
山東	72 (476–490)	● (519)	● (537)		無	● (537)		無	無		無	● (547)	無	無	無		無	● (564)	
未詳	31 (500)	● (533)	● (543)	● (563)	無	無	無	無	無	無	無	● (574)	無	無	無	● (563)	無	無	無

할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북위 효명제 정광(正光) 6년(525)의 〈소호인등19인조상기(蘇胡仁等19人造像記)〉에는 "상주 소호인은 읍(邑)의 19인과 함께 석가상 1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으며, 비음(碑陰)의 제명에서도 맨 앞에 기재되어 있다.[17] 이는 상주 소호인이 의읍을 발기한 대표자이면서 의읍의 운영을 총괄하는 주재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북위 효무제(孝武帝) 영희(永熙) 3년(534) 〈한현조등조상기(韓顯祖等造像記)〉의 제명에는 수미탑주(須彌塔主) 한현조(韓顯祖)에 이어서 상주(象主) 한법성(韓法成), 광명주(光明主) 동탁세(董託世), 읍주(邑主) 이도(李道), 재주

17 〈蘇胡仁等19人造像記〉, "正光六年歲次乙巳五月十五日, 像主蘇胡仁合邑十九人, 造釋迦像一區. … 像主蘇胡仁, 邑先劉歡欣, 邑先□□, … 邑子□永□, 邑子□□奴, …."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27~3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 북위(北魏) 영희(永熙) 3년(534) 〈한현조등조상기(韓顯祖等造像記)〉[『한위육조비각교주 漢魏六朝碑刻校注』 7책, 82쪽]

(齋主) 진충(陳忠), 유나(唯[維]那) 가소희(賈韶憘), 유나 진진(陳珍)이 순서대로 기록된 후, 의읍의 일반회원인 읍자들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읍주와 유나는 의읍의 지도자나 주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읍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읍의 대표자이자 주재자의 경우 제기에 읍의를 이끄는 자로 주로 등장하거나 제명에서 현요한 위치에 새겨지는 때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읍주 이도와 유나 가소희, 진진보다 앞서 등장하는 수미탑주인 한현조, 상주 한법성, 광명주 동탁세가 이 의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여지가 있다. 적어도 이 의읍에서 읍주 이도와 유나 가소희, 진진은 의읍의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기보다는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였을 것이고, 의읍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재자이자 대표자의 역할은 제명의 처음에 등장하는 수미탑주 한현조이고 상주 한법성, 광명주 동탁세는 한현조를 보좌하여 의읍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오춘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주의 종류는 1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18] 예를 들어 다른 읍직과 마찬가지 상주라는 용어 앞에 '대(大)', '도(都)'

18 郝春文, 2006, 앞의 책, 1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을 붙인 '대상주(大像主)'와 '도상주(都像主)' 등은 일반적으로 '상주'보다 상위에 있음을 표시한다. 그리고 '석상주(石像主)'·'금상주(金像主)'와 같이 재질에 따른 것, '당양상주(當陽像主)'·'북면상주(北面像主)' 및 '남면상주(南面像主)'와 같은 사면조상비(四面造像碑)의 각 면의 방향에 따른 것, '시석주(施石主)'나 '비주(碑主)'와 같이 비석을 구매하기 위해 출자한 것, '석가상주(釋迦像主)'·'리륵상주(彌勒像主)'와 같은 구체적인 존상(尊像)의 명칭을 붙인 것, '탑주(塔主)'·'부도주(浮圖主)' 및 '천궁주(天宮主)' 등 탑과 관련된 것, '비천주(飛天主)'·'사자주(師子主)' 등 상(像) 하나하나의 명칭을 붙인 것 등 상주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것이다.[19]

상주 외에 공덕 계통의 읍직으로 조상 완료 후 거행하는 재회 등 불교의식과 관련된 재주와 개명주 등의 종류도 있다. '재(齋)'는 중국 전통에서 볼 때 신에게 제사 지낼 수 있게 심신을 청결히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을 의미하지만,[20] 불교에서는 심신을 청정하게 하여 참회하거나 승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혹은 병을 낫도록 기원하는 것 등 다양한 목적에서 집단으로 거행하는 의례를 가리킨다.[21] 재주는 의읍조상기에 '재주'·대재주'·'도재주'·'부재주(副齋主)'·'남면재주(南面齋主)'·'좌상재주(左廂齋主)' 및 '팔관재주(八關齋主)'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재주는 북위 효명제 신구 2년(519)의 〈장건도70인등조상기(張乾度70人等造像記)〉의 사례처럼 혹 재회의 집행에서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22]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읍조상기에 보이는 재주는 재가신도가

19 倉本尙德에 의하면 북위 시기 산서 남부지역의 조상기에는 山崎宏이 造像의 발기자로 본 '起像主'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扶像主'와 '迎像主' 등 지역색이 강한 읍직이 보인다고 한다. 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05쪽.

20 『孟子注疏』 권8下, 「離婁章句下」, 272쪽, "雖有惡人, 齋戒沐浴, 則可以祀上帝."(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1 劉淑芬, 1993, 「五至六世紀華北鄉村的佛教信仰」,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63-3, 529~530쪽.

22 倉本尙德은 이처럼 재주를 승려가 맡을 때에는 재회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0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읍에서 재주는 재회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이해된다.[23]

재주는 북위 선무제 연창(延昌) 2년(513)의 기년을 가진 〈기혜광등읍자100인조상기(祁惠光等邑子100人造像記)〉에 처음 등장한 이후,[24] 유나나 상주만큼은 아니지만 북조 시기에 널리 보급되었다. 섬서와 산동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재주와 관련된 읍직의 출현이 늦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에서 재주가 출현하기 이전 재회가 거행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조상이 완료되면 보통 부처의 덕을 높이기 위해 혹은 개안이나 개광 의식과 함께 재를 열고, 또 정기적으로 재회를 거행하기 때문이다.[25] 이와 관련하여 하오춘원은 북조 시기 의읍을 단지 조상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조상을 완료한 후 해산하는 의읍과 조상을 완료한 이후에도 재회 등 불교 활동에도 종사하는 지속성을 가진 의읍으로 구분하였다. 팔관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재회에 관계된 팔관재주는 바로 이런 후자에 해당하는 의읍과 관계된 읍직일 것이다.[26]

광명주는 선무제 경명 원년(500)의 〈우백양조상기(牛伯陽造像記)〉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27] 개명주는 효정제 흥화 4년(542)의 〈병·분·진·옹사주제인등조상기(幷汾晉雍四州諸人等造像記)〉에 비로소 출현하여 그 등장 시기가 비교적 늦은 편이다. 광명주와 개명주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불상의 낙성일에 개

23 郝春文, 2006, 앞의 책, 147쪽.

24 〈邑子100人造像記〉, 佐藤智水, 2007, 「中國における初期の邑義について(中)」, 『龍谷大學佛教文化研究所』 46, 235쪽.

25 劉淑芬, 2009, 앞의 글, 265쪽.

26 의읍조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재회를 언급하는 경우는 '八關齋'가 거의 유일하다. 다만 정기적인 八關齋會라면 매회 그 비용을 한 개인이 계속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상정되는데, '팔관재주'라는 읍직을 가진 자가 한 명이라면 六齋日 등의 정기적인 팔관재회를 의읍이 지속적으로 거행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蘇鉉淑, 2016, 「6世紀 北朝의 宗教造像과 鄕村景觀」, 『中國古中世史硏究』 42, 390~391쪽.

27 〈牛伯陽造像記〉, 石松日奈子, 1997, 「北魏河南の一光三尊像」, 『東方學報』 69, 2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재주류(齋主類) 및 개·광명주류(開·光明主類) 읍직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齋主			八關齋主			開·光明主		
地域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483)	無		●(544)	無		無	●(531)	無	●(556)
河南	123(500)	●(517)	●(538)	●(547)	無	●(540)	無	●(500)	●(541)	●(551)
山西	80(483)	●(518)	●(542)	●(540)	無	●(561)	無	●(518)	●(538)	●(548)
河北	38(503)	●(516)	●(549)		無	無		無	●(549)	
山東	72(476－490)	無	●(564)		無	無		無	●(547)	
未詳	31(500)	●(513)	●(564)	無	無	無	無	●(500)	●(537)	無

광 혹은 개안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 개안의식은 불교의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인 만큼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읍조상기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출현하는 읍직이다.

의읍이 조상을 완료한 이후 개안의식을 거행하였다는 것은 서위(西魏) 문제(文帝) 대통(大統) 4년(538)의 〈읍사법초합읍30인조상기(邑師法超合邑30人造像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상기에는 "비구 법초개불안(法超開佛眼)", "비구 법총개미한백호(法忩開眉閒白豪)"라고 기록되어 있다.[28] 조상을 완성한 후 승려인 법초가 개안의식을 행하고 법총은 미간의 백호에 개광의식을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우슈펀은 8세기 일본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에서 거행된 노사나불(盧舍那佛)의 〈대불개안(大佛開眼)〉 의식과 관련된

28 〈邑師仇法超合邑30人造像記〉, 高峽 主編, 1999, 『西安碑林全集』 197冊, 廣東: 廣東經濟出版社·深川: 海天出版社, 1246~12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록을 검토한 후, 개안의식의 주재는 승려들이 주관하는 것이고 광명주와 개명주는 모두 조상을 완성한 후 개안의식을 행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읍직임을 지적하였다.[29] 즉, 광명주나 개명주가 의읍의 개안의식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단지 그 의식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만 공양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즉, 이것들은 공덕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읍직이다.

상주와 재주, 그리고 개명주 등과 같은 공덕주의 표지인 읍직은 다종다양하다. 이들 일부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의읍이 조상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무를 담당하거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공덕주는 의읍의 조상 활동이나 의식 진행에 필수적인 자금을 보시의 명목으로 출자하고, 이로 인해 공덕 계통의 읍직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읍조상기에서 이 계통의 읍직을 보유한 자들은 대개 지역사회 내에서 재력이 풍부한 이들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덕 계통의 읍직은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대체로 6세기 이후에 등장한다. 물론 공덕 계통의 읍직의 출현이 늦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의례가 거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출현 시기가 늦은 공덕 계통의 읍직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계통의 읍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가진 이들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종교단체인 의읍이 점차 조직화·의례화되어가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성격이 강화됨을 의미할 것이다.

3. 관리·운영 계통의 읍직

관리 계통의 읍직은 의읍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의읍을 지도하거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것과 의읍과 조상 활동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9 劉淑芬, 1993, 앞의 글, 527~5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일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읍직

의읍의 지도와 총괄을 담당하는 읍사 및 읍주·유나 등과 같은 읍직 외에도 조상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읍직들도 존재한다. 이 읍직들은 대체로 불교에서 연유한 것과 세속의 관직 명칭이나 중국 전통의 사(社) 등의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화주(化主)는 의읍조상기에 권화주(勸化主) 혹은 교화주(敎化主) 등으로도 나타나며, 명칭 그대로 의읍이 조상 등의 종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읍은 조상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조상을 완료하면 곧바로 해산하는 비교적 느슨한 조직과 조상 이외의 종교 활동을 통해 장기간 존속하는 비교적 엄격한 조직으로 분류되는데,[30] 이 두 종류의 의읍에서 화주의

〈표 4〉 화주(化主)·전좌(典坐)·향화류(香火類) 읍직(邑職)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化主			典坐			香火		
地域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483)	●(517)		●(535)	●(520)		●(535)	●(513)		●(535)
河南	123(500)	無	●(536)	無	●(508)	●(567)	●(570)	●(508)	●(538)	無
山西	80(483)	●(521)	●(538)	●(554)	無	無	●(564)	無	●(538)	●(562)
河北	38(503)	無	無		無	無		無	●(549)	
山東	72(476－490)	無	●(564)		無	無		無	無	
未詳	31(500)	無	無	●(563)	無	●(564)	無	無	●(567)	無

30 郝春文, 2006, 앞의 책, 142~1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할은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화주는 사람들을 의읍에 참여시키도록 권화하는 것 및 모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종 의읍의 발기인이자 조직자로서 의읍의 주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의읍의 회원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읍의 회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기부를 모아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에 종사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비교적 낮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읍직으로 향화(香火)와 전좌(典坐)도 있다. 구라모토 히사노리(倉本尙德)의 설명에 의하면 행향(行香)의 직임은 석도안(釋道安)이 제정한 승니궤범(僧尼軌範)·불법헌장(佛法憲章) 3례(例)[31]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대중에게 향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각자 걸맞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정좌(定座)와 관계된 역할을 전좌가 담당하였다고 한다. 하오춘원 역시 향화의 역할을 분향(焚香)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더해 점등(點燈)도 함께 하였음을 지적하였다.[32] 그렇다면 향화와 전좌의 직무 모두 불교 의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읍직은 사원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임에도 주로 섬서 지방의 도교 조상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읍위(邑謂)와 치율(治律)은 섬서 지방에서만 확인되는 읍직이며, 모두 북위 선무제 정시(正始) 5년(508)의 기년을 가진 〈번령주조상기(樊令周造像記)〉에서 처음 등장한다.[33] 구라모토 히사노리에 의하면 읍위의 직무는 조상의 발원문을 소리 내어 읽는 것으로 읍주와 상주 다음으로 지위가 높으며, 치율의 경우 그 명칭에서 보듯이 의읍의 회원이 계율을 위반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을 직무로 하였다고 추정하였다.[34]

---

31 『高僧傳』 권5, 「釋道安傳」, 183쪽, "制僧尼軌範, 佛法憲章, 條爲三例: 一曰行香, 定座, 上講經, 上講之法. 二曰常日六時行道, 飮食, 唱時法. 三曰布薩, 差使, 悔過等法."

32 郝春文, 2006, 앞의 책, 147쪽.

33 佛教拓片研讀小組 編, 2002,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藏北魏紀年佛教石刻拓本目錄』,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5〉 치율(治律)·읍위(邑謂)·전록(典錄)·탄관(彈官)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治律			邑謂			典錄			彈官		
地域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483)	●(520)		●(535)	●(517)		●(535)	●(505)		●(535)	●(505)		●(535)
河南	123(500)	無	無	無	無	無	無	●(508)	無	●(570)	無	無	無
山西	80(483)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538)	無	無	●(548)
河北	38(503)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山東	72(476－490)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未詳	31(500)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전록(典錄)과 탄관(彈官)은 북위 선무제 정시 2년(505)의 〈풍신육등220인조상기(馮神育等220人造像記)〉[35]에 처음 등장한 이래 섬서 지역에서 도교조상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자의 구체적인 직무와 연원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탄관의 경우 지방의 역(役)과 자금의 모집을 관리하는 조직인 '탄(憚)'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36] 탄관이 '탄(憚)'에서 유래

34 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97쪽.

35 〈馮神育等220人造像記〉,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11, 26~29쪽.

36 彈官에 대해 李淞과 張澤珣은 後漢代의 '僤'이라고 하는 공동으로 田을 구입해 그 수확을 父老職의 부담에 충당하는 後漢 시대의 석각에 보이는 조직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李淞, 2002, 『長安藝術與宗教文明』, 北京: 中華書局; 張澤珣, 2009, 『北魏關中道教造像記研究-附造像碑文錄』, 澳門: 澳門大學出版中心, 26쪽. 그런데 後漢代의 '僤'은 河南 偃師의 〈侍廷里父老僤買田約束石券〉과 延律津의 〈劉熊碑〉 등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河南 지역의 의읍조상기에는 彈官이 보이지 않는다. 彈官은 陝西 지역의 도교 계통의 의읍조상에 집중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였다면, 그 역할은 아마도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상술한 읍직들의 명칭 중 화주·전좌 및 향화 등은 불교와 관계된 읍직이고, 읍위와 치율 및 전록은 유래를 알 수 없다. 지역사회 내의 전통적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탄관의 존재는 의읍이 불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유전되던 전통이나 향촌조직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신앙결사인 의읍이 결코 지역사회와 유리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2) 의읍의 지도(指導)·총괄(總括) 읍직(邑職)

기존 연구에서 의읍의 지도자 및 주재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 '읍사' 및 '읍주'·'유나'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읍을 지도하거나 주재한 읍직이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읍조상기 중에는 전통적 향촌조직이나 관직 명칭과 유사한 '읍로(邑老)'·'읍정(邑正)'·'읍중정(邑中正)' 및 '읍장(邑長)'과 같은 읍직들이 기록되어 있다. 〈표 6〉은 이러한 읍직들이 처음 등장한 시기를 지방별로 정리한 것이다.

하오춘원(郝春文)의 연구에 의하면 읍장은 북위의 삼장에서, 읍로는 향리의 삼로(三老)에서 각각 유래하였다. 그리고 읍중정은 위진남북조 시기 중정관(中正官)을 연원으로 하며, 읍정은 그 약칭이라고 하였다. 이들 읍직의 지위와 직임에 대해서 읍중정과 읍정 및 읍장은 제명에서 읍사·읍주·유나 및 상주와 개명주 등의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의읍 내에서 지위가 높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의읍 내 여러 수령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다만 읍로는 그 명칭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인망을 갖춘 연로한 이들에 대한 존칭이고 구체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제명에서 항상 의읍의 수령과 같은 열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37]

보이는데, 彈官이 '憚'에서 유래하였다면 북조 시기 도교 계통의 의읍이 '憚'과 같은 옛 조직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여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7 郝春文, 2006, 앞의 책, 147~1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6〉 읍로(邑老)·읍정(邑正)·읍중정(邑中正)·읍장(邑長)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邑老			邑正			邑中正			邑長		
地域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 (483)	● (505)		● (535)	● (505)	● (546)	● (535)	無		無	無		● (548)
河南	123 (500)	● (519)	● (550)	無	● (500~503)	● (541)	無	● (517)	● (543)	無	無	無	無
山西	80 (483)	無	無	無	● (518)	無	● (540)	● (530)	● (536)	無	無	無	● (560)
河北	38 (503)	無	無		無	● (549)		無	● (549)		無	無	
山東	72 (476~490)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未詳	31 (500)	無	● (543)	無	● (517)	無	無	無	● (564)	無	無	無	無

분명 현재의 자료 상황들만으로는 이들 읍직이 담당한 구체적인 직임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중 읍중정의 경우 비교적 직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북제 후주 무평(武平) 6년(575)의 〈공사합읍22인조상기(鞏舍合邑22人造像記)〉의 제기에는 공사(鞏舍)가 읍(邑)의 22인 등과 함께 석상 1구를 만들었다고 했으며, 제명에서는 비구·읍사 승보(僧寶)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38] 공사는 읍중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기에 이름을 올린 것이나 제명에서 위치를 볼 때 이 의읍에서 발기인이자 대표자인 것은 분명하다. 제기에 읍사와 읍중정 외에는 읍자만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공사는 읍사를 보좌한 의읍의 부책임자였거나 실질적 주재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북위 정광 4년(523)의 〈동성국등조상기(董成國等造像記)〉에는 동성국(董成國), 동만각(董万慤) 두 명

38 〈鞏舍合邑22人造像記〉, "鞏舍合邑廿二人等, 敬造石像一區. … 比丘邑師僧寶, 邑中正鞏舍, 邑子陳樹, …", 毛遠明, 2009, 앞의 책, 10冊, 77~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읍정이 제기의 양 옆에 기록되어 있다.[39] 읍정 이외의 읍직은 개명주만 보이고, 위치나 순서에서 볼 때 이 의읍을 주재하는 것은 두 명의 읍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읍중정과 읍정의 역할은 의읍의 사무를 주재하거나 보좌하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주목되는 것이 하오춘원의 견해에 대한 리우슈펀과 장쩌쉰(張澤珣)의 반론이다. 이들은 의읍조상기에 보이는 읍로와 읍정을 한대(漢代) 이래 이사(里社)의 사무를 주관한 '이정(里正)'과 '부로(父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즉, 서진(西晉) 시기 〈당리이사비(當利里社碑)〉에 보이는 '사로(社老)', '사정(社正)'이 한대 이사의 이정과 부로의 변형인 것처럼 의읍 역시 이사에서 사용되던 직함을 연용하였다는 것이다.[40] '읍중정'과 '읍정'이 같은 조상기에 보이는 사례도 보이기 때문에[41] 이러한 리우슈펀과 장쩌쉰의 견해는 매우 타당하며, 한대 이사에서 유래한 읍정과 읍중정은 구분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서진의 〈당리이사비〉에는 '사재(社宰)'·'사축(社祝)' 등과 같은 한대 이사에서 실제 종교 사무를 관장하는 직함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가(寧可)는 〈당리이사비〉에 기록된 '사정(社正)'·'사사(社史)'·'사연(社椽)' 및 '사로(社老)'가 서진 향관(鄕官)의 호칭과 한대 '이부로(里父老)'를 모방한 비종교적 명칭임을 지적하고, 이것을 한대 이사의 사무가 이정과 부로의 직임이었을 때의 흔적이며 서진 시기 사(社)가 제사 이외에 다른 세속적 활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42] 그렇다면 전국시대 이래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행정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부로'와 '이정'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 '읍로'와 '읍정'의 직임 역시 의읍을 주재 혹은 보좌와 관계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유나는 〈표 7〉에서 보듯이 북조 전 시기,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행한

39 〈董成國等造像記〉,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206~207쪽.

40 劉淑芬, 2009, 앞의 글, 236쪽; 張澤珣, 2009, 앞의 글, 25쪽.

41 北周 武帝 天和 5년(570) 〈普屯康邑契造像記〉, 北京魯迅博物館·上海魯迅記念館 編, 1986, 『魯迅輯校石刻手稿』 2函5冊,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985쪽.

42 寧可, 1979, 「記晉當利里社碑」, 『文物』 1979-12, 5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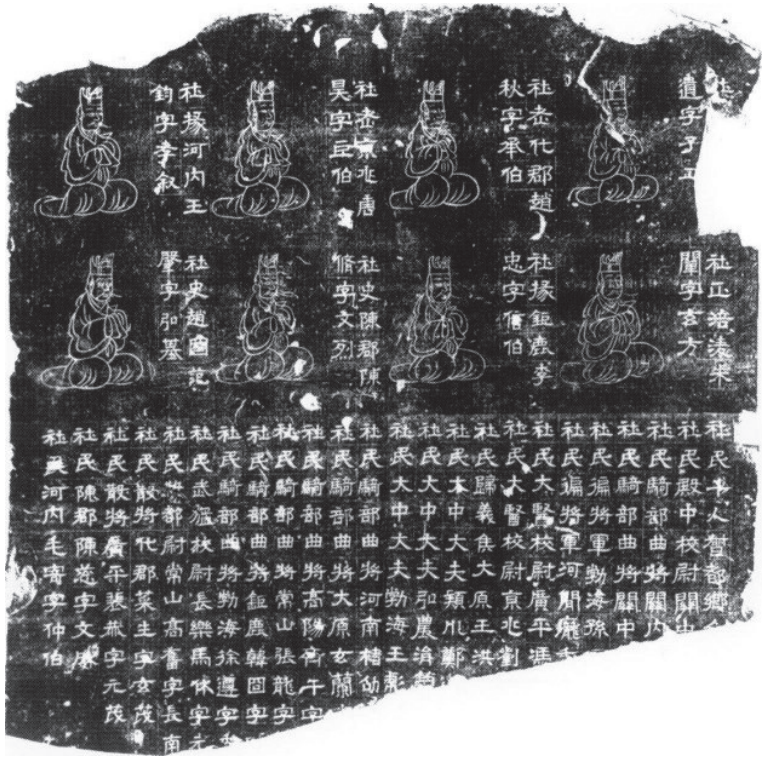


그림 2 〈당리이사비(當利里社碑)〉[『위진석각자료선주(魏晉石刻資料選注)』, 59쪽]

읍직이다. 본래 유나는 동진(東晉)·십육국(十六國) 시기에 이미 사원의 집사를 담당하는 역직(役職)으로 설치되어 있었다.[43] 동진의 승려 축도일(竺道壹)은 내·외전에 박통하고 계율을 엄수하여 당시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뭇 승려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사방에서 찾아와 당시 사람들이 그를 '구주도유나(九州都維那)'라고 불렀다고 한다.[44] 북위에서는 중앙과 지방에 승관(僧官)을 설치하였

43 謝重光, 1986, 「晉-唐僧官制度考略」, 何兹全 主編, 『五十年來漢唐佛教寺院經濟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323~3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7〉 읍사(邑師)·유나(維那)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邑師			維那		
地域	義邑造像 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 (483)	● (505)		● (538)	● (505)		● (535)
河南	123 (500)	● (500)	● (536)	無	● (500)	● (536)	● (547)
山西	80 (483)	● (483)	● (538)	● (538)	● (496)	● (536)	● (538)
河北	38 (503)	無	無		● (503)	● (541)	
山東	72 (476~490)	無	無		● (476~490)	● (537)	
未詳	31 (500)	無	● (536)	無	● (500)	● (548)	0/1

는데, 승조(僧曹)의 장관인 사문통(沙門統)의 차관으로 각각 도유나와 유나를 두었다. 도유나와 유나는 중앙과 지방에서 사문통이 관장하는 승적(僧籍)과 인첩(印牒) 등의 사무를 보좌하고 계율의 집행과 검사를 담당하였다.[45]

읍직으로서 유나는 일반적으로 북위의 승관인 도유나와 유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 부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한다.[46] 실제로 용문석굴 고양동의 선무제 영평(永平) 2년(509) 〈읍사도훈등조상기(邑師道暈等造像記)〉의 제기에 "읍사(邑師) 도훈(道暈), 읍주(邑主) 가원영(賈元英), 유나(維那) 음왕승(陰王勝)·한사제(韓思齊)·□견희(□見憘) 12인(人) 등(等)"[47]으로 기록된 것처럼,

44 『高僧傳』 卷5, 「竺道壹傳」, 207쪽, "壹既博通內外, 又律行淸嚴, 故四遠僧尼咸依附諮稟, 時人號曰九州都維那.", 北京: 中華書局, 1992.

45 白文固, 1984, 「南北朝隋唐僧官制度探究」, 『世界宗教研究』 1984-1 참조.

46 塚本善隆, 1941, 「龍門石窟に現れたる北魏佛教」, 水野淸一·長廣敏雄, 『龍門石窟の研究』, 東京 : 座右寶刊行會, 222쪽; 郝春文, 2006, 앞의 책, 1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나가 대개 읍사나 읍주와 함께 의읍조상기에 등장할 때에는 '읍사-읍주-유나'의 순서로 제기나 제명에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이 경우 유나는 의읍의 종교·정신적 지도자인 읍사와 의읍의 사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이자 지도자인 읍주를 보좌하는 부책임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유나가 의읍의 대표자 혹은 주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례도 없지 않다. 예컨대 청주(青州) 낙릉군(樂陵郡) 양신현(陽信縣)에서 476년에서 49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장도과등조상기(青州張道果等造像記)〉의 제명에는 도유나와 유나가 함께 나타난다.[48] 이 제기에는 도유나 장도과(張道果)가 읍의 78인 등을 이끌어 미륵상 1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명에는 가장 앞에 도유나 장도과를 비롯한 총 3명의 도유나와 8명의 유나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제기에 이름을 올린 것과 제명에서 간각된 순서에



그림 3 〈청주장도과등조상기(青州張道果等造像記)〉(京NAN0815X)

47 吳元眞 主編, 2000, 『(北京圖書館藏)龍門石窟造像題記拓本全編』 1,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52쪽.

48 〈張道果等造像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所藏 石刻拓本資料 nan0815x.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보면, 도유나인 장도과는 이 의읍의 발기인이자 대표자였다. 게다가 도유나와 유나 이외의 다른 읍직은 보이지 않는다. 북위의 승관 제도에서 중앙에 두어진 도유나가 지방에 두어진 유나에 비해 지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읍에서 도유나와 유나 역시 그 지위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 조상기의 제기의 내용 및 제명에 기록된 순서를 볼 때 도유나는 이 의읍에서 실질적인 주재자이자 대표자이고, 유나는 그 부책임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북위 효문제 태화 20년(496)의 기년을 가진 〈이도흥등조상기(李道興等造像記)〉에는 두 명의 도유나가 등장한다.[49] 의읍에 참여한 자들의 제명이 간각된 조상비의 좌·우 측면 중 우측에 도유나를 보유한 곽교(郭僑)와 필광(畢廣) 두 사람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읍직을 보유한 자는 보이지 않는다.[50] 〈이도흥등조상기〉에서 도유나인 곽교와 필광 두 사람이 의읍의 지도자이자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또 산동성 임치현(臨淄縣)에서 발견된 효명제 정광 3년(522)의 〈청신녀장승남등합읍조상기(淸信女張勝男等合邑造像記)〉에는 7명의 유나가 보이며, 다른 읍직은 보이지 않는다.[51] 산서성과 산동성에서 발견된 위의 조상기들에서 도유나와 유나가 의읍에서 총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 까닭은 대개 읍주가 해당 지역에서 늦게 출현한 정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읍이 신앙단체인 이상 이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고 교화하는 읍직 역시 존재하였을 것이다. 산기광(山崎宏)은 이러한 역할을 읍사의 몫으로 보았다. 그는 당시 지방에서 활동하던 교화승들이 읍사를 맡았으며, 이들은 하나의 의읍에

49 佐藤智水, 2007, 앞의 글, 187~188쪽.

50 이 造像碑의 정면에는 題記와 더불어 建興太守 李道興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위치는 불상을 가운데에 두고 題記와 떨어져 刊刻되어 있으며 보유한 읍직이 없다. 또한 의읍 구성원들의 성명이 기록된 題名이 造像碑의 좌우 측면에 간각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건흥태수 이도흥은 이 의읍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기보다, 효문제 태화 20년 이 조상비가 세워진 건흥군의 태수로서 이름만 기록한 형식적 참여일 가능성이 크다.

51 佐藤智水, 2012, 「中國における初期の「邑義」について(下): 北魏における女性の集団造像」, 『佛教文化研究所紀要』 51, 1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의읍을 지도·교화하였다고 하였다.[52] 하오춘원 또한 읍사를 불교 사원의 법사(法師)에서 유래한 의읍 내의 법사로 보았으며, 의읍의 구성원과 부처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의읍의 정신적 지도자임을 지적하였다.[53] 이처럼 의읍의 종교적·정신적 지도자로서 읍사는 당연히 제명에서 가장 앞에 혹은 현요한 위치에 기록되어 있다.[54] 이는 의읍 내에서 읍사의 위상이 높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504~515년 사이 섬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양관등읍자45인조상기(田良寬等邑子45人造像記)〉에는 "읍사주(邑師主)"라는 읍직이 나온다.[55] 또 효명제 신구 3년(520) 〈읍사안승정합읍자67인조상기(邑師晏僧定合邑子67人造像記)〉의 경우 제명에 "읍사"로 기록된 안승정(晏僧定)이 제기에는 "사주(師主)"로 적혀 있다.[56] 이러한 사례들은 읍사가 의읍에서 '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의읍의 운영을 총괄하는 읍주는 섬서 지방의 경우 북위 효명제 정광 원년(520) 〈왕자열등조상기(王子悅等造像記)〉에 비로소 등장하므로, 위의 두 조상기에서 읍사주와 사주는 당시 의읍의 실질적인 주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

52 山崎宏은 寺院에 정주하지 않고 촌락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단속한 기록(『魏書』, 권114, 「釋老志」, 3038쪽)과 釋法通이 邑義를 많이 두고 월마다 齋會를 세웠다는 기사([唐] 釋道宣, 2014, 『續高僧傳』 권25, 「釋法通傳」, 北京: 中華書局) 및 북위 용문석굴에 刊刻된 복수의 조상기에 동일한 邑師의 이름이 보이는 것 등을 근거로, 북조 시기 읍사는 교화승이 담당한 것으로 보았다. 즉, 山崎宏은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의읍에서 읍사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의읍을 지도·교화하였다는 점에서 遊化性과 兼任性을 지닌다고 하였다. 山崎宏, 1942, 앞의 글, 780쪽.

53 郝春文, 2006, 앞의 책, 134쪽.

54 근래 倉本尙德은 洛陽 龍門石窟의 의읍조상기들의 사례를 통해 낙양 천도 이후 북위시기 帝都 부근에서는 '邑師-邑主-維那'의 서열로 기록되는 것이 기본적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02쪽.

55 〈田良寬等邑子45人造像記〉, 高峽 主編, 1999, 앞의 책, 105, 87~90쪽.

56 〈邑師晏僧定合邑子67人造像記〉, 高峽 主編, 1999, 위의 책, 197, 11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읍사가 이처럼 의읍의 종교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주재자의 역할까지 담당한 것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읍사가 북조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운강 석굴에 조영된 효문제 태화 7년(483)의 〈읍의신사녀등54인조상기(邑義信士女等54人造像記)〉인데, 여기에는 성명이 기록된 4명의 읍사상(邑師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 읍사상은 각 열의 선두에 위치하여 본존상(本尊像)을 향해 공양자상들을 이끄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크기도 공양자상들보다 1.5배나 된다. 게다가 이 조상기에는 읍사 이외의 읍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읍사는 교화와 종교의례 등을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읍을 주재하는 역할도 담당하였음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서위 문제 대통 4년(538) 〈읍사법초도속30인조상기(邑師法超道俗30人造像記)〉나 북제 후주 무평 2년(571) 〈비구도략등읍의300여인조상기(比丘道略等邑義300餘人造像記)〉 등의 사례에 보이는 읍사들은 의읍의 사무 주재의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의읍의 발기와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읍의 대표자였던 것은 분명하다.[57]

이처럼 읍사는 의읍의 교화와 지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읍직이며, 일부 의읍의 경우 읍사가 실질적인 주재자이자 대표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수집한 의읍조상기 중 하북과 산동 지방에서 조직된 의읍 중에는 읍사가 보이지 않으며, 북조 시기 읍사가 두어진 의읍은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오춘원은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북조 시기 의읍 등의 불교단체의 흥기와 발전을 읍사의 지도와 권화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읍사의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는 읍사가 그 신분적 특

57 〈邑師法超道俗30人造像記〉, "是以邑師法超, 道俗三十人等, … 敬造石像一區", 高峽 主編, 1999, 앞의 책, 197, 1246~1250쪽; 〈比丘道略等邑義300餘人造像記〉, "是以邑師比丘僧道略, 體白六道, 獨懷二覺, 雄才勇志, 總判三乘, 澄華皎淨. … 故知二鼠之暴不停. 四蛇之毒長在, 遂能共邑義三百餘人等, 託志菩提, 建崇弘願, 石出藍田, 求工班爾, 敬造神碑一所, 尊像八堪." 嚴可均, 1958,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北京: 中華書局, 38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성으로 인해 의읍의 일반 수령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각의 의읍에서 행한 역할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즉, 읍사가 의읍의 발기인이자 조직자의 역할을 한 사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어떤 의읍에서는 단순히 종교 교리나 의례의 지도를 행하는 일종의 명예직에 불과한 경우도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58] 〈표 7〉에서 보듯이 읍사 출현의 지역적 편차나 그 수량을 생각하더라도, 선행 연구들은 읍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시한 감이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읍주를 살펴보자. 읍주류 명칭의 지방별 분포와 초출 시기를 정리한 〈표 8〉에서 보듯이, 이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남성 용문석굴 고양동에 있는 선무제 경명 3년(502)의 기년을 가진 〈손추생등조상기〉이다. 〈손추생등조상〉의 비액에는 "읍주(邑主)·중산대부(中散大夫)·형양태수(滎陽太守) 손도무(孫道務)"라고 새겨져 있고, 제명에는 15인의 유나와 다수의 공양인들의 이름이 보인다.[59]

의읍을 대표하거나 주재하는 자는 그의 성명이 제기에 기록하거나 제명에서 순서상 맨 앞이나 현요한 위치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때 읍주가 의읍의 대표자 혹은 주재자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같은 고양동에 있는 경명(景明) 3년의 기년을 가진 〈고수해백도등조상기(高樹解百都等造像記)〉이다. 제기에 의하면 "읍주 고수, 유나 해백도 등 32인이 석상 한 기를 만

58 郝春文, 2006, 앞의 책, 144쪽.

59 〈孫秋生等造像記〉, 毛遠明, 2009, 앞의 책, 3冊, 350쪽. 그런데 題記에 "大代太和 7년 신성현의 공조 손추생, 신성현 공조 유기조와 200인 등은 삼가 석상 한 기를 만들었습니다(大代太和七年, 新城縣功曹孫秋生·新城縣功曹劉起祖二百人等, 敬造石像一區.)"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형양태수 손도무가 읍주로서 의읍을 총괄하는 주재자 혹은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題記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조상 사업을 진행한 의읍의 결성을 발기하고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 것은 신성현의 공조인 손추생과 유기조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倉本尙德은 읍주 손도무는 의읍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조상 사업을 후원한 결과 '邑主'라는 읍직을 보유한 것이라고 보았다. 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8〉 읍주류(邑主類) 읍직(邑職)의 분포 상황과 초출 시기

邑職名稱		邑主			法義(儀)主			王主		
地域	義邑造像總數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北魏	東魏北齊	西魏北周
陝西(甘肅)	83(483)	●(520)		●(535)	無		無	無		無
河南	123(500)	●(502)	●(538)	●(547)	無	無	無	無	無	無
山西	80(483)	●(510)	●(542)	●(540)	無	無	無	無	無	無
河北	38(503)	無	●(549)		●(504)	無		無	●(549)	
山東	72(476~490)	無	●(560)		●(519)	●(540)		無	●(554)	
未詳	31(500)	●(517)	●(548)	無	無	無	無	無	無	無

들었습니다”[60]라고 하는데, 읍주인 고수가 유나 해백도와 함께 이 의읍을 발기하고 이끈 실질적 주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북제 후주 무평 3년(572) 〈훈선사등50인조상기(暈禪師等50人造像記)〉의 제기에는 제명에 읍주로 기록된 훈선사(暈禪師)만 의읍의 대표자로 언급되어 있다. 제명에서도 훈선사가 가장 앞에 위치하며, 그 뒤를 이어 선방주(禪房主), 비구, 유나 및 읍인 등이 나열되어 있다.[61] 제기에 의읍의 대표자로 거론된 것과 제명에서의 위치와 순서는 이 의읍에서 훈선사가 읍주로서 가지는 지위와 실질적인 주재자임을 반영하고 있다.

60 〈高樹解百都等造像記〉, “景明三年五月卅日, 邑主高樹·維那解百都卅二人等造石像一區.”, [淸] 陸增祥 編, 『八瓊室金石補正』 卷12, 27쪽(林榮華 校編, 1977, 『石刻史料新編』 1輯 6冊, 臺北: 臺灣新文豐出版公司, 4191쪽);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53~354쪽.

61 〈暈禪師等50人造像記〉, 毛遠明, 2009, 앞의 책, 10冊, 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앞서 본 〈한현조등조상기〉의 제기 4~5행에는 "합읍지인(合邑之人)"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제명에 기록된 읍주 이도는 "수미탑주 한현조, 상주 한법성, 광명주 동탁세"와 "재주 진충, 유나 가소희" 사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62] 기재된 순서에 의하면 이 의읍의 대표자 혹은 주재자는 읍주인 이도가 아니고 수미탑주 한현조가 된다. 읍주인 이도는 이 의읍에서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위 공제(恭帝) 3년(556)의 〈여비광통등합읍조상기(荔非廣通等合邑造像記)〉의 예는 이와 다르다. 제명에서 도읍주를 가진 여비광통(荔非廣通)은 제명에서 대상개명주(大像開明主) 여비합영(荔非合榮), 보살개명주(菩薩開明主)·우파이(優婆夷) 당흑남(黨黑男), 보살개명주(菩薩開明主)·청신(淸信) 당법강(黨法姜)에 이어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제기에 읍직을 표기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63] 그러나 의읍을 발기하거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제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비광통이 이 의읍의 중심 인물임은 확실하다.

읍직의 칭호 앞에 '도'·'대도' 등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읍주도 도읍주, 대도읍주 등으로 그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사례가 있다. 만약 이 읍직들이 하나의 의읍에 동시에 출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읍주보다 도읍주가, 도읍주보다 대도읍주가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북주(北周) 명제(明帝) 무성(武成) 원년(559)의 〈강아노조상기(絳阿魯造像記)〉 비음의 제명 3층에 '도읍주 장남인(張男引)'과 '도읍주 혜회호(惠廻好)', 그 아래 4층에 '읍주 장도대(張道隊)'와 '읍주 전흑복(田黑伏)'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64] 이것은 읍주와 같은 관리 계통의 읍직만이 아니라 상주·재주 및 화주 등 공덕 계통의 읍직도 같다.

읍주의 연원을 하오춘원은 서진 시기의 불교 사원에 보이는 사주(寺主)에서

62 〈韓顯祖等造像記〉, 毛遠明, 2009, 앞의 책, 7冊, 82쪽.

63 〈荔非廣通等合邑造像記〉, 陝西省考古研究所·白水縣文物管理委員會, 2005, 「陝西白水北宋妙覺寺塔基及地宮發掘」, 『考古與文物』 2005-4, 14쪽.

64 〈絳阿魯造像記〉,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2013,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3卷(北周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5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찾았다. 그는 사원과 승려들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의읍은 자연히 사원 주재자의 명칭을 모방하여 그들의 수령을 읍주라고 불렀고, 심지어 읍주를 사읍주(寺邑主)로 불렀다고 하였다. 서위 무제 대통 3년(537) 〈백실등조중흥사석상기(白實等造中興寺石像記)〉의 제명에서 확인되는 "사읍주(寺邑主), 복파장군(伏波將軍), 남양·신야 2군 태수(南陽·新野二郡太守) 조문영(趙文榮)" 등 15명의 '사읍주'가 그 예이다. 사읍주란 사원과 의읍의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읍주의 연원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의읍에서 속인이 보유한 '사주'는 '사읍주'의 약칭으로 보았다.[65]

하지만 리우슈펀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제명에 기록된 속인들이 보유한 사주(寺主)가 사원을 세우기 위해 자금을 내거나 땅을 기부한 자를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것이다.[66] 실제로 〈백실등조중흥사석상기〉의 제명에는 15명의 '사읍주' 앞에 "중흥사(中興寺)·석상(石像)·석가행상(釋迦行像)·부도(浮圖)를 만든 유나주와 읍자의 명단은 좌측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향읍주(鄕邑主) 종상(宗上)"이라는 인물도 보인다.[67] 또 〈이씨합읍조상기〉의 경우 '도읍주 이차'와 함께 '사주 비구 법상(法尙)'·'사주 이원안(李元安)'이 함께 나타난다.[68] 그렇다면 '(도)읍주'는 사주나 사읍주와 별개의 읍직이다. 읍주와 사주의 관련성을 강조한 하오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의읍조상기에서 '읍'이 간혹 불교의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말 자체에 내포된 뜻은 분명히 촌과 같은 일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본다면 '읍주'는 함께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종교단체의 주재자 혹은 대표자를 의미하며, 당시 사원의 삼강(三綱) 중 하나로 강기(綱紀)를 담당한 사직(寺職)이었던 사주(寺主)와는 그 의미나 역할 모두 다르다. 그리고 읍주

65 郝春文, 2006, 앞의 책, 139쪽.

66 劉淑芬, 2007, 앞의 글, 320~323쪽.

67 〈白實等造中興寺石像記〉,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37, 91~92쪽.

68 〈李氏合邑造像記〉, 魯迅, 1986, 「魯迅輯校石刻手稿」(3函 18册),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8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읍'이 일정 지역 내 불교단체를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표자 혹은 주재자라는 의미의 '주'는 당시 널리 존재하던 오주(塢主)·둔주(屯主)·벽주(壁主) 혹은 성주(城主) 등과 같은 명칭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듯하다.

읍주는 산서와 섬서 지방에서 각각 510년 및 520년에 등장한 반면, 하북과 산동 지방에서는 비교적 늦은 동위 및 북제 시기에 이르러서야 보인다. 그런데 하북과 산동 지역의 경우 '법의주(法義主)'라는 읍직도 존재한다. 하북에서는 북위 선무제 정시 원년(504) 〈고낙주70인등조상기(高洛周70人等造像記)〉에 "법의주"라는 읍직이 보이지만,[69] 이후 법의주는 보이지 않는다.

산동 지방에서 법의주가 처음 등장하는 사례는 "법의주 하신달(賀神達)"이 기록된 북위 효명제 신구 2년(519)의 〈최근조상기〉이다.[70] 이 법의주라는 읍직은 하북 지방과 달리 비록 사례는 많지 않으나 산동 지방에서 북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의주'가 기록된 의읍조상기의 경우 제기에는 "법의(法義[儀])"·"법의형제(法義[儀]兄弟)"·"법의형제자매(法義[儀]兄弟姉妹)"로 표현하고, 제명에서는 일반회원에게 "법의"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읍주가 보이지 않는다.[71] 그렇다면 산동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법의주는 곧 읍주와 마찬가지로 의읍의 주재자 혹은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왕주(王主)'이다. 이것은 동위 말부터 북제 시기 하북과 산동 지방에서만 출현하는데, '왕주'란 표현이 나오는 의읍의 구체적인 정황은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다. 구라모토 히사노리에 의하면 '왕주'는 조상기에 "왕주비구(王主比丘)"·"왕주비구승(王主比丘僧)" 등으

69 〈高洛周70人等造像記〉, 詹文宏 等 主編, 2015, 『燕趙碑刻: 先秦秦漢魏晉南北朝卷』 上冊,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20~222쪽.

70 〈崔懃造像記〉, "法儀兄弟廿五人, … 法儀主賀神達, …",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5~36쪽.

71 山東 지역의 法義(혹은 法儀)에 관해서는 佐藤智水, 2006, 앞의 글, 82쪽 및 劉淑芬, 2009, 앞의 글, 254~25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표현되어 모두 승려가 담당했고, 이들이 의읍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72] 왕주가 두어진 의읍은 하북과 산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창주(滄州)에 속하던 지역, 그것도 오늘날 황하 하구 북단에 위치한 하북성 황화시(黃驊市)와 산동성 무체시(無棣市)에서만 각각 3건과 2건의 의읍 조상기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왕주'는 지역성이 매우 강한 읍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지역사회에서 읍직 보유자의 존재 양태

읍직은 의읍의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자 혹은 조상과 불교의례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내어놓은 공덕주의 표지이기 때문에, 읍직을 보유한 자들이 의읍의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읍이 지역사회의 거주민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읍직 보유자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의읍의 결성이나 활동을 주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읍직 보유자들이 읍직을 가질 수 있었던 조건이나 사유를 의읍조상기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읍직 보유자들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생활공동체로서 지역사회는 그 거주민 구성이 하나의 성씨를 중심으로 하거나 여러 성씨가 섞여 지내는 두 종류의 취락 형태가 보편적이었다.[73] 의읍은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의 거주민들을 구성원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의읍조상기의 제명에 기록된 구성원들의 성씨들을 통계해보면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74] 이하에서는 하나의 성씨를

72 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57쪽.

73 侯旭東, 2005, 『北朝村民的生活世界』, 北京: 商務印書館, 60~66쪽.

74 예컨대 하나의 성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의읍의 사례로는 北魏 宣武帝 景明 4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심으로 결성된 의읍과 여러 성씨가 참여한 의읍의 전형적 사례를 나누어 검토해보겠다.

먼저 하나의 성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의읍의 사례로 용문석굴 고양동에 있는 북위 선무제 경명 3년(502)의 〈고수해백도등조상기〉를 살펴보겠다. 이 조상기를 만든 의읍에는 제기에 기록된 읍주 고수와 유나 해백도 및 제명에 기록된 30명을 포함한 총 32명이 참여하고 있다.[75] 이들을 성씨별로 분류해보면, 고씨(高氏)는 18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고, 해씨(解氏)가 2명, 왕(王)·하후(夏侯)·위(魏)·좌(左)·사마(司馬)·신(辛)·개(蓋)·장(張)·양(楊)·등(鄧)·손(孫)·설(薛) 등 1명씩인 성씨 12개로 모두 14개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 의읍에서 읍직의 보유는 최다 성씨 고씨인 고수가 의읍의 주재자인 읍주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씨 다음으로 다수 성씨인 해씨의 해백도가 부책임자에 해당하는 유나를 가지고 있다. 고수와 해백도가 이 의읍이 결성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상기의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의읍에 참여한 성씨의 인원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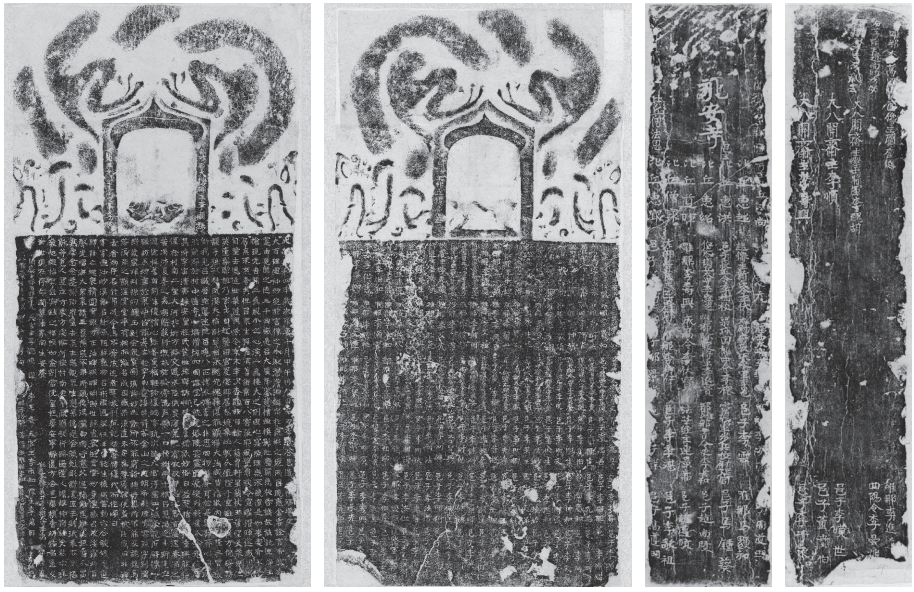
의읍에 참여한 성씨의 인원수와 읍직 보유의 관계를 하나의 성씨가 절대 다

---

(503) 〈閻村邑子72人等造像記〉(胡海帆·湯燕 編, 2012, 앞의 책, 68쪽)가 있다. 題名에 기록된 의읍 구성원의 대다수는 閻氏이며, 이 의읍이 결성된 곳은 題記에 기록된 村의 명칭에서 보듯이 閻氏를 위주로 한 집성촌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성씨 위주가 아닌 여러 성씨들이 참여한 사례로는 青州 北海郡 都昌縣 新王村에서 만들어진 東魏 孝靜帝 武定 2년(544) 〈王貳郎法義300人等造像記〉(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46, 116쪽)가 있다. 이 題名에서 승려와 판독 불가능한 이들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전체 참여자의 수는 180여 명이며, 그중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한 성씨는 王氏이나 40여 명에 불과하다.

75 〈高樹解百都等造像記〉, "景明三年五月卅日, 邑主高樹·維那解百都卅二人等造石像一區. 願元世父母及現世眷屬, 來身神騰九空, 迹登十地. 三有同願. 高買奴·高惡子·王僧寶·夏侯林宗·高留祖·魏洪度·高乞德·高文成·左芝·高安都·高楚之·高郎胡·司馬保·解佰勍·高文紹·高天保·辛英芝·蓋定王·張定光·高南征·高曇保·高副·高洛珎·楊洪佰·高思順·鄧通生·高珎保·孫山起·薛文達·高天生.", [清] 陸增祥 編, 『八瓊室金石補正』 卷12, 27쪽(林榮華 校編, 1977, 『石刻史料新編』 1輯 6冊, 4191쪽);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53~3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양(碑陽)(淑德大學 軸195826) / 비음(碑陰)(同 軸195827) / 碑左側(同 軸195829)/ 碑右側(同 軸195828)

그림 4 〈이씨합읍조상기(李氏合邑造像記)〉

수를 차지하는 집성촌으로 여겨지는 동위 효정제 흥화 4년(542) 〈이씨합읍조상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명을 통해 이 의읍에 참여한 이들의 성씨와 인원수를 살펴보면, 비양(碑陽)에는 상단의 불감(佛龕) 좌우에 "도유나·대상비주 이현족"(좌), "개이불광명주(開二佛光明主)·낙주종사(洛州從事) 이표(李豹)"(우)가 새겨져 있고, 비신(碑身)에 간각된 제기 다음에 "도읍·금상·의정주·장락태수 이차"를 시작으로 "금상주 이규(李逵)", "천궁주 이앵무(李鸚鵡)" 등 13명의 이씨 성을 가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비음에는 상단의 불감 양 옆으로 "개불주(開佛主)·비구승 담개(曇蓋)"(우), "북면상주 이보진(李寶珍)"(좌)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제명에는 156명의 참여자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깨지거나 마모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7명을 제외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0명은 모두 이씨이다. 또 비의 좌우측에는 승려 9명과 조씨(趙氏) 2명, 마씨(馬氏) 2명, 유(劉)·장(張)·병(邴)·연(連)·변(邊)·주(周)·고씨(高氏)가 각 1명, 이씨(李氏)가 15명, 성씨(姓氏) 판독이 불가능한 2명이 새겨져 있다. 우측에는 이씨 9명과 조(趙)·동(董)·열씨(閱[염(閻?)]氏)각 1명의 성명이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비에 기록된 인원은 모두 222명이고, 이 중 승려가 10명이다. 제명에서 성씨가 확인되는 속인 203명 가운데 이씨는 188명이고, 기타 조·마·유·장·병·연·변·주·고·동·열씨가 총 14명이며, 모두 남성으로 추정된다. 판독이 불가능한 9명을 모두 이성(異姓)으로 가정하면 승려를 포함한 의읍 구성원 전체에서 이씨는 약 84.7%를 차지한다. 게다가 승려를 제외하면 88.6%나 되고, 여기에 판독 불가능한 9명을 더하면 그 비율은 92.6%까지 높아진다. 의읍 구성원의 비율에서 보듯이 〈이씨합읍조상기〉는 이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제기의 기년(紀年) 아래에 "이씨합읍조□상비송문(李氏合邑造□像碑頌文)"[76]이라고 간각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스스로가 의읍을 결성할 당시부터 이씨의 종족 결사(結社)라고 인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씨가 중심이 된 의읍에서 읍직을 보유한 자들에 대해 살펴보면, 제기의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지금 말세에 이차와 이현족 100여 인은(然今季末李次·李顯族百餘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차는 금상·의정주, 이현족은 대상비주라는 공덕 계통의 읍직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 의읍의 주재자를 담당하는 도읍주와 부책임자를 담당하는 도유나도 보유하고 있다. 제기의 내용과 두 사람이 보유한 읍직 및 제명에서의 위치를 고려해보면, 이 두 사람이 이 의읍의 대표자이자 주도자이다.

읍주는 이차 외에 비음의 제명에 도읍주 1명, 비좌측에 '읍주비구' 1명이 보

76 〈李氏合邑造像記〉, "大魏興和四年歲次降婁十月甲午朔八日辛丑, 李氏合邑造□像碑頌文", 詹文宏 等 主編, 2015, 앞의 책, 上冊, 265쪽; 毛遠明, 2009, 앞의 책, 7冊, 3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다. 유나는 비양에 상단에 위치한 불감 옆에 기록된 이현족 외에 유나 이낙도(李洛都), 보살주·유나 이화(李和) 등 3명이 보이고, 비음의 제명에 대도유나 2명, 도유나 12명, 유나 29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의 좌우측에 도유나 1명, 유나 8명이 있다. 읍주비구 혜홍(惠洪), 유나 마현화(馬顯和)를 제외하면 이 의읍에서 읍주와 유나를 보유한 자는 모두 이씨이다.

공덕 계열을 보면, 이차가 가진 금상주와 이현족이 가진 대상비주 외에도 상주·사면상주·기상주(起像主) 및 보살주 등 다수의 상주류 읍직을 보유한 이들이 보인다. 재주류 읍직으로는 비양에 "팔관재주·도유나 이원"과 "팔관재주 이시매(李市買)"가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대팔관재주·팔관재주·재주 등이 있다. 이 외에 광명주와 사주·천궁주·도장주(道場主)·청정주(淸淨主) 및 공양주 등 공덕 계열의 읍직들을 보유한 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 중 "개불주·비구승 담개", "팔관재주·보국사주·비구 법상", "우보살주 조상이(趙尙頤)", "□상주 열강덕(閱康德)" 및 "법화경주(法華經主) 연경숭(連景嵩)"을 제외하면 공덕 계열 읍직의 대부분을 이씨가 보유하고 있다.

이 의읍에서 이씨는 참여자 가운데 출가자를 제외하면 대략 9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읍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읍이 조직된 곳에 대해 제기(題記)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시 촌의 남쪽 2리 황하(大河) 북쪽 기슭에(復於村南二里, 大河北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조상비가 오늘날 하남성 활현성(滑縣城) 북쪽에서 출토된 것[77]을 고려하면, 이 의읍이 조직된 곳은 당시 사주(司州) 동군(東郡) 관할의 황하 이북에 소재하였던 촌으로 추정된다. 의읍 구성원과 읍직 보유자의 수에서 볼 때 이 촌은 이씨의 집성촌이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집성촌 혹은 동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의읍일 경우 읍직을 보유하는 데 더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하나의 성씨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닌 여러 성씨가 섞인 의읍에서 읍

77 淸 光緖 연간 河南省 滑縣城 북쪽에 위치한 康李村에서 출토되었다.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43, 110쪽; 詹文宏 等 主編, 2015, 앞의 책, 上冊, 2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직 보유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제 문선제(文宣帝) 천보(天保) 8년(557)의 〈유비조상기(劉碑造像記)〉에는 대읍사와 읍사를 담당한 4명의 출가자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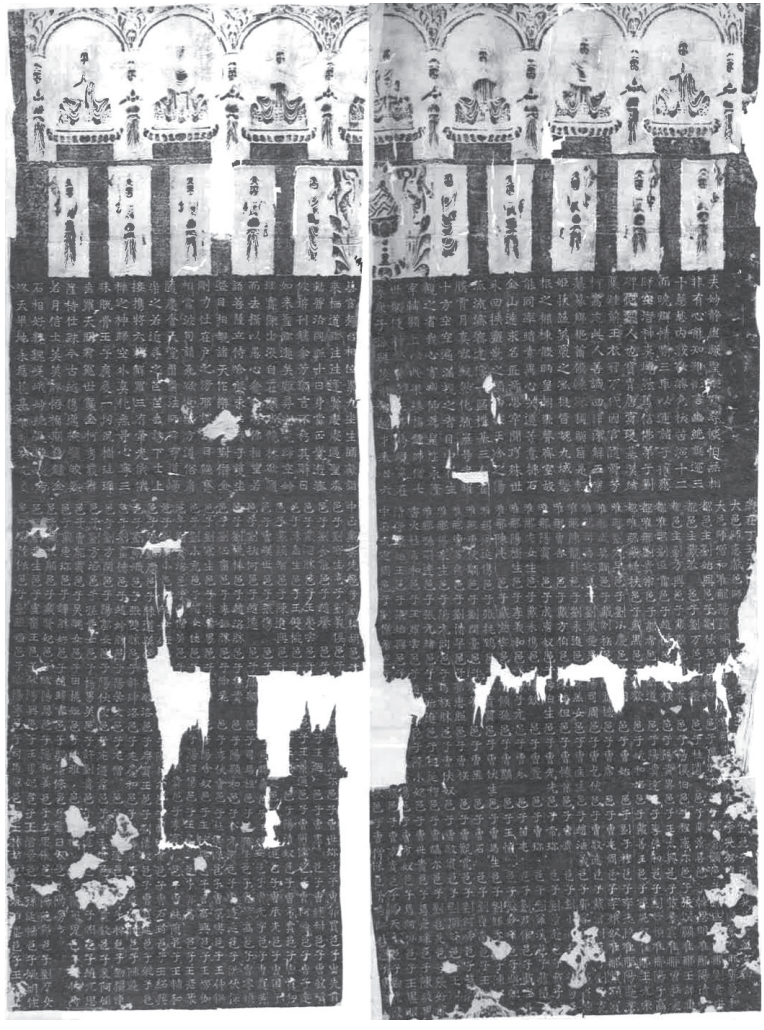


그림 5 〈유비조상기(劉碑造像記)〉(『북위불교석각탁편백품(北魏佛教石刻拓片百品)』 No. 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하면, 총 38개 성씨 328명이 의읍 구성원으로 기록되어 있다.[78] 의읍에 참여한 각 성씨와 인원수를 살펴보면, 조씨(曹氏) 61명, 유씨(劉氏) 48명, 양씨(陽氏) 34명, 대씨(戴氏) 33명, 왕씨(王氏) 27명, 진씨(陳氏) 14명, 조씨(趙氏) 11명, 이씨(李氏) 10명, 장씨(張氏) 10, 곽씨(郭氏) 9, 사마(司馬)·마(馬)씨 각 6명, 손씨(孫氏) 5명, 요(姚)·좌(左)·허(許)씨 각 4명, 두(杜)·성(成)·서(徐)·구양(歐陽)씨 각 3명, 한씨(韓氏) 2명이다. 또 1명씩 참여한 성씨는 번(樊)·정(程)·묘(苗)·악(樂)·환(桓)·개(介)·주(朱)·초(焦)·풍(馮)·회(回)·석(席)·사(謝)·배(裴)·오(吳)·전(田)·담(譚)·노(盧)·형(邢)·맹(孟)씨 등 19개이며, 판독할 수 없는 성씨 미상이 9명이다. 의읍에 참여한 성씨들에서 보면 이 의읍은 적어도 38개의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읍직에 대해 살펴보면, 이 의읍에 참여한 4명의 승려는 대읍사와 읍사를 각각 2명씩 담당하고 있다. 속인이 담당한 읍직으로는 도읍주, 도유나나 유나, 중정과 향화 등 관리 계통의 읍직이 다수 두어졌고, 공덕 계통의 읍직은 청정 하나만 보인다. 각 성씨별로 보유한 읍직은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성씨는 유씨(劉氏)이다. 유씨는 의읍에서 주재를 담당하는 도읍주와 도유나를 각각 2명씩 보유하고 있으며, 유나도 2명이 가지고 있다. 보유한 읍직들에서 볼 때 유씨가 이 의읍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씨가 의읍에 참여한 인원수는 조씨(曹氏)에 비해 적지만 중요 읍직을 보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제기에 의하면 이 의읍의 발기인이자 대표자인 유비(劉碑)를 현창하고 있기 때문에,[79] 이 의읍의 결성과 활동에서 유씨가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78 〈劉碑造像記〉,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63, 159~160쪽.

79 〈劉碑造像記〉, "然篤信佛弟子劉碑, 河澗人也. 寶胄唐資, 瓊基漢緒, 襲踵前王, 衣冠万代, 因官隨爵, 芳柯嵩龍. 此人善識四非, 深解五業, 纂募鄉邦酋領, 懷珠獨照. 皆是軒姬棻蔬, 英裔之孤挺, 晉魏九域, 磐根之樑棟. 殷昺皇朝, 飛聲齊室. 故能同率緇素, 異心共遵等意, 採石金山, 遠求名匠, 奇思罕聞, 巧殊世外, 四挾靈鷲之顯, 西據王舍之陽, 派流濟濟, 建像一區.", 顔娟英 主編, 2008, 위의 책, No. 63, 15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9〉 〈유비조상기(劉碑造像記)〉의 성씨별 읍직(邑職) 보유 현황

	曹 (61)	劉 (48)	陽 (34)	戴 (33)	王 (27)	陳 (14)	李 (10)	郭 (9)	司馬 (6)	孫 (5)	左 (4)	杜 (3)	成 (3)
邑主		都2		都1									
唯那	5	都2, 2	8	都1	2	2	1	1	1	1	1		1
中正				1									1
香火												1	
淸淨				1									

보유한 읍직에서 볼 때 유씨 외에 의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대씨(戴氏)이다. 〈표 9〉에서 보듯이 대씨는 33명만 참여하고 있으나 도읍주와 도유나를 각 1명씩 보유하고 있으며, 중정과 청정도 각 1명씩 담당하고 있다. 제기의 내용을 통해 대씨가 도읍주와 도유나를 보유할 수 있었던 사유나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제명에서도 유씨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씨·유씨 및 양씨(陽氏) 다음으로 많은 인원수가 의읍에 참여하고 있고 의읍의 주재와 부책임을 맡은 읍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씨는 이 조상비를 세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상정된다.

조씨(曹氏)는 의읍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읍직 보유자는 유나를 가진 5명에 그치고 있다. 참여 인원수에서 3번째인 양씨(陽氏)는 8명이 유나를 보유하고 있다. 의읍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두 성씨의 구체적인 역학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참여 인원수가 적은 양씨가 보다 많은 유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씨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들 외에 왕씨(王氏)와 진씨(陳氏)가 각각 2명의 유나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읍직을 보유한 성씨들은 모두 참여 인원수가 10명 이하에 그치고 있다.

여러 성씨가 의읍을 구성할 경우 각 종족이 보유한 읍직은 대체로 참여한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을 〈고수해백도등조상기〉를 통해 보았고, 또 하나의 성씨가 다수인 의읍에서 읍직은 그 성씨의 구성원이 주로 차지하는 것을 〈이씨합읍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기〉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비조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읍에 참여한 종족들이 보유한 읍직들은 각 종족의 세력이나 위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역사회에서 종족이 가진 의읍을 결성·주도할 만한 역량의 유무, 혹은 종족을 대표하는 인물의 영향력 등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읍직을 보유하는 것은 종족 세력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지만, 예컨대 출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권력이나 명망 등의 요소들도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의읍조상기에서 관인이 읍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현재 기년(紀年)이 확인되는 것 가운데 관인이 읍직을 보유한 최초의 사례는 중산대부·형양태수 손도무가 읍주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용문석굴 고양동에 새겨진 북위 선무제 경명 3년(502)의 〈손추생등조상기〉이다.[80] 또 하남성 언사(偃師)에서 효명제 정광 4년(523)에 여남령(汝南令) 석영봉(石靈鳳)이 읍주를 맡고 소역장군(掃逆將軍) 적흥조(翟興祖)가 유나를 담당한 의읍이 보인다.[81] 이 외에 산서성 평정현(平定縣)에서 동위 효정제 원상(元象) 원년(538)에 대표자로 의읍을 발기한 병주좨주(幷州祭酒)·통대로사(通大路使) 장법락(張法樂)이 석굴대상주(石窟大像主)를 보유한 사례,[82] 북제 무성제 하청 2년(563) 〈양아고현촌합읍조상기

80 〈孫秋生等造像記〉,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50쪽. 倉本尙德은 〈孫秋生等造像記〉에 보이는 邑主 孫道務는 의읍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조상 활동을 후원하는 역할로 '읍주'라는 직함을 가지되었다고 보았다(倉本尙德, 2016, 앞의 글, 106쪽). 그런데 조상의 상단에 큰 글자로 刊刻된 "邑子像" 좌측에는 "邑主·中散大夫·滎陽太守 孫道務"가, 우측에는 "寧遠將軍·中散大夫·潁川太守·安城令 白犢"이 새겨져 있다. 백독은 읍직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 의읍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의 성명이 새겨진 위치에서 볼 때 그가 조상 활동을 단순히 후원만 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도무가 보유한 '邑主'는 단순히 조상 활동을 후원하는 역할로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81 〈翟興祖等造像記〉, 李獻奇, 1985, 「北魏正光四年翟興祖等人造像碑」, 『中原文物』 1985-2, 21~22쪽.

82 題記에는 張法樂이 가진 '侍中·使持節·驃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大行臺令公·幷州刺史下祭酒·通大路使'라는 官名을 기재하였고, 題名에서는 '幷州祭酒·□□□□·石窟大像主'로 기록하고 있다. 〈紅林渡佛龕記〉, [清] 胡聘之 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陽阿故縣村合邑造像記)〉에 대재주를 보유한 외병참군(外兵參軍) 고경안(高慶安)과 대도읍주를 가진 장류참군(長流參軍) 유□□(劉□□) 등이 보인다.[83] 이처럼 주현의 장관 등 상급 관인들부터 지방의 하급 관인에 이르기까지 읍직을 보유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방관인만이 아니라 기층조직의 관리자들이 읍직을 보유한 사례도 보인다. 예컨대 북주 시기 관중(關中)에 소재한 강족(羌族)의 거주지에서 만들어진 의읍조상비로 추정되는 〈여비씨조상기(荔非氏造像記)〉에는 "읍주·전이정(前里正) 여비희□(荔非熹□)"와 "전좌·촌정(村正) 여비중상(荔非仲祥)"으로 기록된 두 명의 여비씨(荔非氏)가 보인다.[84] 제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여비희□는 전임 이정이고, 여비중상은 현임 촌정이다.[85] 이들은 각각 국가의 향촌조직인 '리'와 촌락공동체인 '촌'의 책임자로 이해된다.[86] 여비희□와 여비중상은 강족(羌族)의 대성인 여비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공간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의읍이 조직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춘 지도자였을 것이다.

『山右石刻叢編』 卷1, 12쪽(林榮華 校編, 1977, 『石刻史料新編』 1輯 20冊, 14952~14953쪽).

83 〈陽阿故縣村合邑造像記〉, [清] 胡聘之 輯, 『山右石刻叢編』 卷2, 11~12쪽(林榮華 校編, 1977, 『石刻史料新編』 1輯 20冊, 14971쪽).

84 高峽 主編, 1999, 앞의 책, 卷106, 149~151쪽; 馬長壽, 1985, 『碑銘所見前秦至隋初的關中部族』, 74~75쪽; 魏宏利, 2017, 『北朝關中地區造像記整理與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45쪽.

85 北周의 향촌조직은 西魏 文帝 大統 10년(544)경 北魏 때 제정된 三長制를 族·黨-閭·里에 기초한 二長制로 대체한 것을 따랐다. 西魏·北周의 향촌제도에 관해서는 福島繁次郎, 1962, 「北周の村落制」, 『中國南北朝史研究』, 東京: 教育書籍 참조.

86 〈荔非氏造像記〉에 보이는 '里正'은 北周 二長 중 閭里의 설치된 正長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周書』 卷23, 「蘇綽傳」, 388쪽; 『北史』 卷63, 「蘇綽傳」, 2236쪽). 그러나 唐代에 鄕村에 설치된 村正을 고려하면 이 조상기에 보이는 '村正' 역시 村의 책임자로 생각되지만, 남북조 시기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荔非氏造像記〉에 보이는 '村正'이 다른 지역에서도 통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이 의읍이 결성된 村에서 그 책임자를 부르는 호칭일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인이나 촌락의 지도자들이 의읍에 참여하는 경우 대개 읍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의읍에 참여한 관인 모두가 읍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87] 다수의 사례에서 볼 때 관직을 보유하거나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의읍의 조상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읍직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공덕 계통의 읍직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관리 계통의 읍직을 보유하거나 의읍의 대표자인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의읍조상기에 많이 보이는 것은 공덕 계통의 읍직이다. 의읍은 조상·조탑의 건립 및 재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의읍의 활동에 소모되는 자금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예컨대 〈최근조상기〉에서 보듯이 의읍의 회원들이 각각 100전을 내어놓은 것처럼,[88] 의읍이 진행할 종교 활동을 위해 약속된 얼마간의 금전, 즉 회비를 모금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자금은 풍부해지고 개개인의 부담액은 경감된다. 조상기에 200인, 300인 혹은 1,000인 등으로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의읍의 조상 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일이 중요하였고, 더 많은 출자를 통해 공덕 계통의 읍직을 보유할 수 있다.

조상 활동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져 원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북제 후주 무평 원년(570) 〈양영향등읍의80인조상기(楊暎香等邑義80人造像記)〉에 의하면 이 의읍은 돌을 구입하고 석장(石匠)까지 초빙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해져 조상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개휴현령(介休縣令) 양경신(楊景

87 예컨대 〈李氏合邑造像記〉에는 隴西太守 李普文·高都太守 李原·武德太守 李元貴·安定縣令 李世承 등이 邑子로 기록되어 있고, 北周 保定 원년(561) 〈合邑生130人等造像記〉에는 驃騎將軍·都督 趙和, 建中將軍·統軍 賈洪遵 등이 邑生으로 기재되어 있다(陳瑞琳, 1985, 「甘肅定寧縣出土北周弗像」, 『考古與文物』 1985-4, 109쪽). 이처럼 의읍의 일반회원으로 참여한 관인의 사례들은 의읍 조상기에 기록된 관직은 단순히 신분의 표기일 뿐이고, 관인 역시 의읍에 참여한 한 명의 구성원임을 시사한다.

88 〈崔懃造像記〉, "法儀兄弟廿五人, 各錢一百.", 毛遠明, 2009, 앞의 책, 5冊, 35~36쪽. 王素·李方, 1997, 『魏晉南北朝敦煌文書編年』,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信)으로부터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원조받아 조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개휴현령 양경신과 공조 좌도영, 주부 상관□지는 각각 재주와 비주라는 공덕 계통의 읍직을 보유하게 되었고, 제명에 '齋主·介休縣令 楊景信', '碑主·介休縣功曹 左道榮', '碑主·介休縣主簿 上官□智'로 새겨졌다.[89]

최근은 조상을 위해 9,000전을 내고 상주를 보유하였고, 개휴현령 양경신과 그의 속료들도 조상에 부족한 자금을 대고 각각 재주와 비주를 가졌다. 지역사회에서 재력이 충분하다면 최근이나 양경신의 사례처럼 출자를 통해 읍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북조 시기 의읍조상기에 보이는 상주나 재주 등과 같은 공덕 계통의 읍직 보유자들은 출자를 통해 읍직을 획득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풍부한 경제력을 갖춘 자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읍직의 보유는 각 의읍마다 처한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개 읍직의 보유는 의읍에 참여한 종족이 가진 지역사회에서의 역량, 예컨대 참여 인원수의 다소 혹은 정치력이나 재력을 갖춘 종족의 대표자나 유력자의 유무 혹은 역량의 차이에 따라 달라졌다. 하나의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의읍에서는 참여 인원수가 많을수록 해당 종족 구성원이 읍직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여러 성씨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지역사회인 경우 읍직의 보유는 참여 인원수에 따라 어느 정도 배분되는 정황을 볼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종족의 영향력 혹은 종족의 대표자나 유력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읍직 보유자는 그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현직 관인이거나 신망을 갖춘 자 혹은 출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소유한 자가

89 〈楊暎香等邑義80人造像記〉, "(題記) 清信士女楊暎香·任買女等邑義八十人, … 製像四龕, 因碑建號, 採石求匠, 事未有成. 遇縣令楊君, □悟獨曉, 善於開導. 君字景信, 弘農人也. 爰自蒞止, 流惠爲□ … 今經始畢功, 實蒙勸奬. … (供養者題名) 齋主介休縣令楊景信息師□侍□, 碑主介休縣功曹左道榮侍佛, 碑主介休縣主薄上官□智侍佛.", 顔娟英 主編, 2008, 앞의 책, No. 91, 242~2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많다. 관인이나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신망이 높은 자들은 대체로 의읍의 대표자이거나 관리 계통의 읍직을 보유하고, 재력을 가진 이들은 주로 공덕 계통의 읍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공덕 계통의 읍직은 지역사회 내에서든, 외부에서 참여하든 출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비교적 보유하기가 용이했던 것 같다. 의읍의 지도자로서 읍직 보유자는 하나의 성씨를 위주로 하는 의읍이든 여러 성씨가 참여한 의읍이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정치력이나 재력 등을 갖추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력자임은 분명하다.

Ⅳ. 맺음말

북조 시기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의읍은 5~6세기 화북의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의읍조상기는 서술의 조악함과 내용의 난삽함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탓에, 이것을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료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극히 적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양자 제명을 중심으로 의읍 구성원들을 검토해보았다.

구성원들은 공양자 제명에 자신의 성명 앞에 신분을 드러내는 관함 등의 표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읍은 관인, 승려 및 일반민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읍 안에서 지위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읍직의 보유 유무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읍직 구조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읍직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보아 의읍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계통과 조상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출자로써 획득되는 공덕 계통, 그리고 의읍 안에서 명확한 임무나 역할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 구성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을 '섬서[감숙 포함]'·'하남'·'산서'·'하북' 및 '산동' 다섯 지방으로 나누어 그 초출 시기를 정리하고, 각각의 읍직들의 직임과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았다. 의읍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원이며, 그 명칭으로 가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널리 사용된 것은 '읍자'였다. 여기에서 '읍'은 종교단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촌과 같은 일정한 지역 곧 의읍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킨다.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읍자'는 본래 동향의 사람을 가리키고, 의읍은 지역사회의 거주민들에 의해 조직된다. 따라서 북조 시기 의읍은 지역사회의 향촌질서 혹은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종교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의읍의 이러한 성격은 공덕 계통의 읍직에서도 확인된다. 공덕 계통의 읍직은 조상 활동이나 의식 진행에 필수적인 자금을 출자하여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읍조상기에서 확인되는 이 계통의 읍직 보유자들은 대개 지역사회 내에서 재력이 풍부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공덕 계통의 읍직들은 6세기 이후에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계통의 읍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가진 이들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관리 계통의 읍직들은 의읍의 지도 및 총괄하는 것과 조상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 그 명칭의 유래와 직임을 검토해보았다. 의읍이 종교 단체라는 속성상 화주·전좌·향화와 읍사·유나와 같이 불교와 도교 등 종교와 관련된 읍직 명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탄관'이라든지 '읍로'·'읍정'·'읍중정'·'읍장'과 같이 지역사회 내 전통적 조직이나 세속의 관직 명칭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많다. 특히 관리 계통의 읍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읍주'이다. '읍주'가 촌과 같은 의읍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종교단체의 주재자 혹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는 대표자 혹은 주재자라는 의미에서 당시 널리 존재하였던 오주·둔주·벽주 혹은 성주 등과 같은 명칭들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의읍이 비록 조상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종교단체임에도 그 내부의 읍직들 가운데 지역사회에 유전되던 전통이나 질서 혹은 세속의 관직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는 사실은 의읍이 결코 지역사회와 유리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아울러 화북 각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한 의읍이 조상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만큼 의읍의 구성과 활동 방식 등의 공통점도 확인되지만, 지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시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도 뚜렷하다. 이것은 의읍이 국가권력이나 교단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속성을 가진 신앙단체임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의읍에서 그 구성원이 읍직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여러 성씨가 의읍을 결성할 경우 각 종족이 보유한 읍직은 대체로 참여한 인원수에 비례하고 있었고, 하나의 성씨가 다수인 의읍의 경우 읍직은 그 성씨의 구성원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읍에 참여한 종족들이 보유한 읍직들은 각 종족의 세력이나 위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종족이 가진 의읍을 결성·주도할 만한 역량의 유무, 혹은 종족을 대표하는 인물의 영향력 등에 의해 비롯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출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권력이나 명망 등의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의읍에서 읍직을 보유한 자들은 적어도 지역사회의 거주민 혹은 자신의 종족이나 향당을 이끌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역량을 갖춘 이들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6세기 북방에서 성행하였던 의읍의 구조를 조상기의 제명에 기록된 읍직들을 분석하는 것은 북조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조시기 지역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시도이다. 의읍 내에 설치된 읍직의 역할과 그것을 보유한 이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의읍 성립의 기반이 된 지역사회의 일면을 복원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요 읍직보유자의 경우 해당 지역사회와 관계된 관인이나 기층조직의 관리자, 재력가 등 유력자가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화북 향촌사회의 지배구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명망 혹은 지배력과 재력을 갖춘 읍직 보유자들의 양태 및 그들이 의읍을 조직하거나 참여한 의도 및 목적과 관련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별고를 통해 검토를 기약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唐] 道宣 撰, 郭紹林 點校, 2014, 『續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唐] 房玄齡, 1974, 『晉書』, 北京: 中華書局.

[唐] 令狐德棻, 1971, 『周書』, 北京: 中華書局.

[唐] 李百藥, 1972, 『北齊書』, 北京: 中華書局.

[唐] 李延壽, 1974, 『北史』, 北京: 中華書局.

[北齊] 魏收, 1974, 『魏書』, 北京: 中華書局.

[梁] 釋慧皎 撰, 湯用彤 校注, 湯一玄 整理, 1992, 『高僧傳』, 北京: 中華書局.

도록

高文·高成剛 編, 1990, 『四川歷代碑刻』,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高峽 主編, 1999, 『西安碑林全集』(25函 200冊), 廣東: 廣東經濟出版社·深川: 海天出版社.

毛遠明, 2009, 『漢魏六朝碑刻校注』(全11冊), 北京: 綫藏書局.

北京魯迅博物館·上海魯迅記念館 編, 1986, 『魯迅輯校石刻手稿』 2函5冊,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2013,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全7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陝西耀縣藥王山博物館·陝西省臨潼市博物館·北京遼金城垣博物館 編, 1996, 『北朝佛道造像碑精選』,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顔娟英 主編, 2008, 『北魏佛教石刻拓片百品』,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吳元眞 主編, 2000, 『(北京圖書館藏)龍門石窟造像題記拓本全編』 1,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詹文宏 等 主編, 2015, 『燕趙碑刻: 先秦秦漢魏晉南北朝卷』(上·下冊),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행본

馬長壽, 1985,『碑銘所見前秦至隋初的關中部族』, 北京: 中華書局.

嚴可均, 1958,『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北京: 中華書局.

魏宏利, 2017,『北朝關中地區造像記整理與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劉淑芬, 2008,『中古的佛教與社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林榮華 校編, 1977-2006,『石刻史料新編』(全4輯), 臺 : 臺灣新文豐出版公司.

張澤珣, 2009,『北魏關中道教造像記研究-附造像碑文錄』, 澳門: 澳門大學出版中心.

郝春文, 2006,『中古時期社邑研究』,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胡海帆 · 湯燕 編, 2012,『1996-2012 北京大學圖書館新藏金石托本菁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侯旭東, 2005,『北朝村民的生活世界』, 北京: 商務印書館.

宮川尙志, 1956,『六朝史研究: 政治 · 社会篇』,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大村西崖, 1915,『支那美術史雕塑篇』, 東京: 佛書刊行會圖像部.

山崎宏, 1942,『支那中世佛教の展開』, 東京: 法藏館.

松原三郎, 1966,『(增訂)中國佛教彫刻史研究』(2冊: 圖版 · 釋文篇),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95,『中國佛教彫刻史論』, 東京: 吉川弘文館.

楊伯達 著, 松原三郎 譯, 1985,『理もわた中國石の研究』, 東京: 東京美術.

倉本尙德, 2016,『北朝佛教造像銘研究』, 京都: 法藏館.

논문

蘇鉉淑, 2016,「6世紀 北朝의 宗教造像과 鄕村景觀-銘文 分析을 통해 본 公共的 佛道造像碑의 立地와 性格」,『中國古中世史研究』42.

寧可, 1979,「記晉當利里社碑」,『文物』1979年 12期.

劉淑芬, 1993,「五至六世紀華北鄕村的佛教信仰」,『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63-3.

_____, 2007,「中古佛教政策與社邑的轉型」,『唐研究』13.

_____, 2009,「香火因緣-北朝的佛教結社」, 黃寬重 主編,『中國史新論: 基層社會分冊』, 臺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石松日奈子, 1997,「北魏河南の一光三尊像」,『東方學報』69.
小笠原宣秀, 1932,「支那南北朝佛教と社會教化」,『龍谷史壇』10.
佐藤智水, 1977,「北朝造像銘考」,『史學雜誌』86卷 10期.
_____, 2006,「中國における初期の「邑義」について(上)」,『佛教文化研究所紀要』45.
_____, 2007,「中國における初期の邑義について(中)」,『龍谷大學佛教文化研究所』46.
_____, 2012,「中國における初期の「邑義」について(下): 北魏における女性の集団造像」,『龍谷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51.
塚本善隆, 1941,「龍門石窟に現れたる北魏佛教」, 水野清一·長廣敏雄,『龍門石窟の研究』, 東京: 座右寶刊行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6세기 중국(中國) 북방 민간결사(民間結社) 의읍(義邑)의 구조에 관하여

읍직(邑職)과 읍직 보유자를 중심으로

정재균

5~6세기 북조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던 신앙단체인 의읍(義邑)이 남긴 조상기에는 조상 당사자의 주관적 신앙(信仰)이나 원망(願望)이 서술된 것 외에도 조상에 참여한 다양한 신분을 가진 공양자(供養者)의 성명을 기록한 제명(題名)이 새겨져 있다. 제명을 통해 관인, 승려 및 일반민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의읍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읍 내에서 개개인의 지위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읍직(邑職)의 보유 여부로 구분되었다. 읍직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보아 의읍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계통과 조상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출자로써 획득되는 공덕 계통, 그리고 의읍 안에서 명확한 임무나 역할을 부여받지 않은 평범한 구성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의읍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회원의 명칭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읍자(邑子)'였다. '읍(邑)'의 기본적인 뜻은 촌(村)과 같은 일정한 지역, 곧 의읍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광범위하게 사용된 '읍자(邑子)'는 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래 동향(同鄕)의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읍은 지역사회의 향촌질서 혹은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종교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의읍의 이러한 성격은 공덕 계통의 읍직에서도 확인된다. 공덕 계통의 읍직은 조상 활동이나 의식 진행에 출자하여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읍조상기에서 확인되는 이 계통의 읍직 보유자들은 대개 지역사회 내에서 재력이 풍부한 이들이었을 것이다. 공덕 계통의 읍직들이 6세기 이후에나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이 계통의 읍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가진 이들의 필요로 의해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관리 계통의 읍직들은 의읍의 지도와 총괄하는 것과 조상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종교단체라는 속성상 의읍에는 불교·도교와 관련된 명칭의 읍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사회 내 전통적 조직이나 세속의 관직 명칭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많다. 의읍에 두어진 읍직들 가운데 지역사회에 유전되던 전통이나 질서 혹은 세속의 관직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는 사실은 의읍이 결코 지역사회와 유리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아울러 화북 각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한 의읍이 조상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만큼 의읍의 구성에서 공통점도 확인되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의읍이 국가권력이나 교단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강한 사회성을 가진 신앙단체임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의읍에서 읍직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을 검토해 보면, 여러 성씨가 의읍을 결성할 경우 각 종족이 보유한 읍직은 대체로 참여한 인원수에 비례하고 있었고, 하나의 성씨가 다수인 의읍의 경우 읍직은 그 성씨의 구성원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의읍에 참여한 종족들이 보유한 읍직들은 각 종족의 세력이나 위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종족이 가진 의읍을 결성·주도할 만한 역량의 여부, 혹은 종족을 대표하는 인물의 영향력 등에 의해 비롯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출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권력이나 명망 등의 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의읍에서 읍직을 보유한 자들은 적어도 지역사회의 거주민 혹은 자신의 종족이나 향당을 이끌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역량을 갖춘 이들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북조(北朝), 의읍(義邑), 읍직(邑職), 의읍조상기(義邑造像記), 지역사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Yiyi(義邑) in Northern China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Jung Jaegyun

Yiyi(義邑)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subjects to understand the local community of North China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and was widely popular in the Northern Dynasties. Yiyi was composed of identitie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monks, and the general public. In Yiyi, individuals were not determined by their social status, but by their Yiyi positions(邑職). Yiyi positions(邑職)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a management system for operating the affairs; a public system acquired for contribution for religious activities; and an ordinary member without a clear mission.

"Yi(邑)" also means a religious organization, but the basic meaning refers to the area where the members live. The general member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Yiyi was called Yizi(邑子). "Yizi" originally refers to people from the same hometown.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Yiyi during the Northern Dynasties is a religiou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rganization with a social character. This nature of Yiyi can also be confirmed in the Yiyi positions of the beneficence system. Yiyi positions is to be granted by contribution for ancestral activities. Therefore, the Yiyi positions holders, identified in the Yiyi Sculpture inscription, were wealthy within the community. Yiyi positions appear only after the 6th century, suggesting that they were created due to the need of those who had enough wealth.

Yiyi positions may be overseeing and taking charge of specific general tasks necessary for the ancestral process. The Yiyi positions are from its religious nature and from traditional organizations or government office.

Yiyi is an organization formed for the same ancestors and commonalities, but differences between provinces and periods are also clear. This suggests that Yiyi is not controlled by state power or denomination, but is a religious organization with strong sociality voluntarily organized within the community.

The Yiyi positions held by the tribes participating in Yiyi also differed depending on the power of each tribe. This was because it was caused by the ability to form and lead, or the influence of the person representing the tribe. In addition, factors such as the wealth or the power and reputation that affects the local community were at work. It can be seen that those who held town posts in Yiyi were at least residents of the community or those who had the ability to maintain and lead the community.

Keywords: Northern Dynasty, *Yiyi*, *Yiyi* positions, *Yiyi* Sculpture inscription, local commun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6

발해 영광탑과 한국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 비교

이병건 | 동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교수

I. 머리말
II.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현황
III. 발해 영광탑과 전탑계 모전석탑 조영특징 비교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고유섭을 비롯한 선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석탑의 나라, 중국은 전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라고 한다.[1] 그만큼 각 국가나 지역마다 탑을 세우는 방식은 주어진 자연·지리적 여건에 따라 재료와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대부분 석탑만 남아 있고 전탑은 수가 매우 적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탑은 경주권역, 대구권역, 안동권역, 중부권역에서만 몇 기 존재한다.[2] 숫자도 적거니와 순수하게 흙을 빚어 구운 벽돌로 만든 탑이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만든 모전석탑(模塼石塔)이 대부분이다.

연구자는 2008년 발해 전탑(영광탑, 정효공주무덤탑터, 마적달탑터)과 주변 국가(중국, 한국) 전탑과의 비교를 통해 발해 전탑의 건축적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3] 또한 2010년 한국의 순수 전탑 6기(안동법흥사지칠층전탑, 안동운흥동오층전탑, 안동조탑리오층전탑, 칠곡송림사오층전탑, 청도불령사전탑, 여주신륵사다층전탑)와 발해 영광탑의 건축형식을 비교하는 글을 발표한 바도 있다.[4] 한반도에는 순수 전탑은 몇 기밖에 없지만 모전석탑, 즉 재료는 돌이지만 이를 벽돌처럼 재단하여 쌓은 탑은 여러 기 존재한다. 그 모델은 기존의 순수 전탑이었을 것

---

* 투고: 2023년 7월 22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R1F1A1074048).

1 高裕燮, 2010a, 『朝鮮塔婆의 硏究 上』 總論篇 又玄 高裕燮 全集3, 悅話堂, 301쪽.

2 박흥국, 2000,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04쪽.

3 이병건, 2008, 「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탑의 건축적 의미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1호, 135~184쪽.

4 이병건, 2010, 「발해 영광탑과 한강이남 전탑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高句麗渤海硏究』 第38輯, 101~1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한반도 지역 건축은 여러 방면에서 같은 시기에 존속했던 발해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 상관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아직은 미약하나마 연구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발해 강역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길림성 장백현 발해 영광탑과 5기의 국내 모전석탑이 어떠한 조영특징이 있는지를 비교·고찰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모전석탑은 크게 전탑계와 석탑계로 나눌 수 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처럼 돌을 벽돌처럼 재단하여 조적식으로 탑을 조영한 전탑계와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처럼 가구식 구조를 기본으로 한 석탑계이다. 이 가운데 영광탑처럼 조적식으로 구성되어 구조형식을 비교할 수 있는 유형은 전탑계 모전석탑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대상은 발해 영광탑과 국내에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으로 국한하였다. 특히 정암사 수마노탑은 쌓은 돌이 마치 벽돌처럼 규격화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영광탑과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다룰 항목은 탑의 재료, 평면과 입면형식 그리고 구조형식이다. 구조형식은 다시 기단부(무덤칸 포함), 탑신부(탑신과 옥개 부분), 상륜부로 나뉜다. 글의 전개순서는 제Ⅱ장에서는 5기의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발해 영광탑 현황은 이미 발표된 글로[6] 대신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발해 영광탑과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상의 특징을 비교해보았다.

---

5 이병건, 2017, 「발굴보고서로 탐구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高句麗渤海研究』 第58輯, 7~34쪽.

6 이병건, 2010, 앞의 글, 103~10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현황

1.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7]

이 석탑은 경주 분황사 초입 지금의 대웅전 앞쪽에 자리하고 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으로 634년(선덕여왕 3년) 분황사 창건과 동시에 건립되었다고 추정되나 뒤에 몇 차례 보수되어 어느 정도까지 원형인지 알 수 없다. 층수는 원래 9층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3층까지 남아 있고, 높이는 9.3m에 이른다(국보 제30호).



그림 1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전경(2021년 10월 필자 촬영)

7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 대한 내용은 '박경식, 2008, 『한국의 석탑』, 178~181쪽'과 '천득염, 2002, 『전탑』(빛깔 있는 책들 220), 대원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훼손·정비·개보수 등으로 변화된 부분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단부는 한 변 길이 약 13m, 높이 약 1.06m의 막돌허튼층쌓기 토축(土築) 단층기단인데, 밑에는 상당히 큰 돌을 사용하였고, 윗부분 마감 갑석은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하였다. 몇 곳에서 불국사 대웅전 영역 기단에서처럼 돌 그랭이질 모습도 보인다. 기단부 윗면은 탑신부 부분 밑이 약 36cm 정도 높아 경사를 이루어 빗물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네 모서리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 한 마리씩을 배치하였는데, 두 마리는 수컷, 두 마리는 암컷이라고 하나 두 마리는 마치 물개처럼 보인다. 원래는 6마리였고, 탑 만들 당시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탑신부를 보면 현재 3층까지 남아 있으며 회흑색·흑갈색의 화성암인 안산암을 작은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쌓았는데 위의 폭이 아래 폭보다 약간 좁다. 전체가 길이 30~45cm, 두께 4.5~5cm의 크기로 다듬어 탑신부를 구축한 까닭에 마치 전탑과 같은 인상을 준다. 1층 탑신석 네 면에는 입구가 뚫려 있는 감실을 개설하고, 입구 좌우에 거의 원각(圓刻)에 가까운 인왕상(仁王像)을 배치하였으며, 두 짝의 돌문을 달아 여닫게 하였다. 지금 감실 안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으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몸과 머리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 1층 탑신석 4면에 감실을 개설한 예는 백제계 시원적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볼 수 있다. 4면에 통로를 개설하고 그 중심에 심주(心柱)를 세우는 목탑 조영과 형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2층과 3층 탑신석은 1층에 비하여 높이가 현저하게 줄어서 장중한 감을 준다.

탑신부 옥개석은 벽돌 1매의 두께로 처마를 삼고 아래 위에 탑신을 향하여 감축되는 옥개받침과 낙수면(落水面) 층단이 있다. 옥개받침은 1층부터 6단, 6단, 5단이며, 낙수면은 1층과 2층이 10단이고, 3층은 층단 없이 내림 경사면을 이루었다. 원래는 각 층이 층단을 이루며 9층까지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상륜부에는 화강암으로 된 앙화(仰花)만 남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8]

이 석탑은 경북 영양읍에서 안동으로 가는 31번 도로변에서 반변천(半邊川) 옆 밭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탑이 위치한 마을은 오래전부터 봉감(鳳甘)으로 불려 일명 '봉감탑'이라고도 한다. 탑은 돌과 흙을 섞어 만든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과 상륜부 노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는 11m에 이른다(국보 제187호).

기단부는 돌과 흙을 섞어 만든 3단의 석축으로 막돌허튼층쌓기한 단층기단이다. 그 위로는 3단의 탑신 굄 받침을 두었는데, 제일 아랫단은 상면만 다듬은 높은 판석 11매를 사용하여 1단 놓았고, 그 위로는 얇게 다듬은 모전 석재 2단을 들여쌓았다. 벽체를 조적한 벽돌형 석재보다 길고 두껍다.

탑신부는 5층으로 1층에 비해 2층부터 급격한 체감을 보인다. 탑신부를 구성한 돌은 주황색(붉은색)의 퇴적암인 수성암질 이암(泥岩)이다. 1층 탑신석은 총 18단으로 쌓아 올렸다. 탑신 남면에는 화강암 장대석으로 하인방과 문설주, 상인방을 놓아 문비를 설치하고, 내부로는 감실을 마련하였다. 문비의 문설주와 상인방에는 호형(弧形)의 문비형을 조각하여 짜 맞추었는데, 이 같은 문비 형식은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서 시작되어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등 통일신라시대 모전석탑과 전탑의 문비에도 나타난다. 감실 내부 입구의 상인방과 하인방에는 회전 돌기축 홈이 남아 있어 원래는 문을 달아 개폐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내부는 비어 있다. 특이한 것은 2층부터 5층까지 탑신 중간 부분에 2단씩의 돌출 턱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는 쌓은 석재 규모가 크며, 위는 낮고 짧다. 이는 안동역 앞에 있는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과 같이 기와지붕을 구성하고자 기와를 얹어 고정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부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1층에서 5층으로 7·6·5·5·5단이며, 상면 낙수면 층단

8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에 대한 내용은 '박경식, 2008, 위의 책, 459~465쪽'과 '천득염, 2002, 위의 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훼손·정비·개보수 등으로 변화된 부분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2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전경(2020년 7월 필자 촬영)

은 모두 5단이다.

상륜부에는 2000년 수리 당시에 보수하여 새롭게 추가된 노반만 남아 있다.

이 탑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모전석탑처럼 돌을 작게 다듬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큼직큼직하게 다듬어 돌의 숫자를 최소화하여 쌓아 올린 것이다. 한편, 1989년 해체·수리에서 몇 가지 특징적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5층 지붕의 중앙에서 약 30~35cm×40~50cm의 직사각형 구멍이 발견되었고, 아래로 향할수록 넓어져 4층에서는 50~55cm×70~75cm로 3층 탑신 상부까지 이어져 있었다. 특히 4층 탑신에서 나무기둥 흔적이 발견되어 심주(心柱)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석탑과 모전석탑 건립기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해체 결과 모전석들이 외부로 노출된 부분만 다듬어져 있었고, 탑 내부로 감춰지는 부분은 가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뿌리가 긴 돌들이 내부의 다른 돌이나 흙으로 단단히 다져져 있어 횡력이 보강되어 탑이 오래 서 있는 내구성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5층 상부와 탑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가 발견되어 원래 탑 지붕에 기와를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탑이 위치한 주변 밭에는 기와 파편과 청자 파편이 많이 흩어져 있을 뿐 사찰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다. 1930년대 일본인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의 조사로 처음 알려졌으며, 1944년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의 『朝鮮の石塔』에 소개되면서 알려졌다.[9] 이후 1981년과 1988년 해체보수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의 방수처리, 2000년의 기단 보수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모전석탑의 재료 특성상 파손 및 결실이 두드러져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탑은 한국에 남아 있는 모전석탑 가운데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탑이다. 또한 완전한 해체수리를 통하여 탑 내부와 기단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영양 삼지동 모전석탑 등 모전석탑이 영양 지역에 집중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 탑 연구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10]

이 탑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2리 반변천과 인접한 평지의 영성사(永成寺)란 절 마당에 위치한다. 영양군청에서 남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으로 영양읍의 남쪽에 해당한다. 탑에서 북쪽으로 반변천을 건너 200m 거리에 영양 현일동 삼층석탑(보물 제610호)과 영양 현동 당간지주(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85호)가

9 杉山信三, 1944, 『朝鮮の石塔』, 彰國社, 170~171쪽. 이 책에는 '英陽春甘洞五層石塔'으로 소개되어 있다.

10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에 대한 내용은 '안선우, 2008, 「慶北 北部地域의 模塼石塔 硏究」, 『안동사학』 제13집, 1~54쪽'과 '영양군청, 2017,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보고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훼손·정비·개보수 등으로 변화된 부분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이러한 입지적 현황으로 보아 이 탑 또한 경북지역 전탑과 모전석탑의 입지 특징 중 하나인 강안형(江岸形)에 해당한다. 탑의 소재지 주변 일원에서 시행한 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 시대 회청색 경질토기 파편과 고려시대 평기와 파편이 수습되어 탑의 제작시기를 짐작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 기존의 조사에서도 탑의 축성연대를 통일신라 후대 또는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영성사 부지 내에 위치하나 이 절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이 탑은 기단부, 탑신부 그리고 근래에 보강한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탑의 높이는 6.98m 정도이다. 1972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1979년 해체 보수되었으며, 2020년 보물 제2069호로 승격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단부는 잘 다듬어진 장방형 석재를 쌓아 올린 석축기단이다. 석축 한 변의 길이가 724cm, 높이가 280cm 정도이다. 그러나 땅이 남-북 방향으로 조금 경사져 있어 석축 높이는 사면이 모두 다르다. 또한 석축기단과 지대석 사이에



그림 3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2020년 7월 필자 촬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흙이 덮여 있어 기단의 원래 모습은 알 수 없다.

탑신부는 화강암의 괴 위에 5층으로 조성되어 있다. 괴인 탑신받침은 하나의 석재로 끝부분을 약 3cm 정도 깎아내 각형 2단으로 조성하였다. 탑신받침 동면 좌측에 지름 11.5cm 정도의 둥근 홈이 파여 있는데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탑신받침인 괴의 크기는 길이 272cm, 높이 14cm 정도이다. 탑신석은 괴돌에서 약 15cm 정도 더 들어가서 흑회색 점판암을 사용하여 5층으로 쌓았다. 층을 이룬 석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듬으려 노력은 하였으나 끝부분이 둥그스름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특히 2cm 정도의 줄눈을 넣은 1~3층까지의 탑신에는 부분적으로 납작한 강돌을 넣기도 하였다. 또한 4층과 5층은 줄눈이 없는 대신 석재로 3층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정교하게 벽돌처럼 다듬어져 있다. 각 층별로 단부 처마 부분의 석재들은 둥그스름하게 다듬어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초층 탑신 남면에는 감실이 있다. 주변의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감실이 직사각형인 데 비해 이곳은 정사각형에 가깝다. 감실 입구 양쪽에는 화강석으로 된 문주석을 설치하여 감실을 견고하게 하였다. 양쪽 문주석에는 당초문을 양각하여 장식하였다. 그러나 감실 상·하인방과 문비는 최근 것으로 보인다. 문비는 나무틀에 사격자 살을 끼워 넣었다. 감실 크기는 높이 69cm, 폭 58cm, 깊이 54cm 정도이다. 현재 감실 내부에는 흰색 부처상이 봉안되어 있다.

1층 탑신의 크기는 길이 243cm, 높이 155cm 정도이며, 석재를 12단으로 쌓아 올렸다. 2층 탑신부터는 석재를 7, 6, 5, 5단으로 쌓아 올렸는데, 2층은 1층에 비해 급격하게 체감되었지만, 이 이상부터는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옥개석은 내쌓기와 들여쌓기를 반복하면서 옥개받침과 낙수면을 만들었다. 옥개수는 단층 옥개로 전탑이나 모전석탑에서 일반적인 형식이다. 옥개받침수는 1층부터 7, 6, 4, 4, 4단이며, 낙수면수는 1층부터 7, 6, 4, 4, 5단으로 5층을 제외하고는 옥개받침과 낙수면 수가 같다. 국내 전탑이나 모전석탑 경우 낙수면보다 옥개받침 수가 적거나 같은 것이 일반적인 반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만큼 쌓은 석재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각 층단의 들여쌓기 정도는 5~6cm 정도이고, 1층 옥개의 길이는 328cm 정도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륜부는 탑의 5층 옥개석 위에 화강암을 다듬어 노반을, 그 위에 복발과 앙화를 올려놓았는데 최근에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4.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11]

이 석탑은 제천에서 영월로 가는 방향 2km 전방 산을 등지고 있는 넓은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이 창락사(蒼樂寺) 터인데 주변 논밭과 함께 최근에 지은 사찰건물 세 동이 탑 뒤편에 자리하였다. 원래의 전체적인 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큰 편이다. 절터는 2003~2008년까지 한 차례의 시굴조사와 세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34개 동의 건물터와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제작시기가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기와편이 출토되어 이곳의 역사성을 증명하였다. 창락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이래 조선 중기까지 존속하다가 17세기경에 폐사되었다. 현재 탑을 중심으로 주변을 공원으로 말끔하게 정비해놓았다.

탑은 높은 토단에 막돌 외벌대 장대석 단층기단 위에 회흑색 변성암인 셰일질 점판암으로 만든 7층 모전석탑으로 높이는 9.1m에 이른다(보물 제459호).

기단부는 단층으로, 여러 매의 자연석으로 구성하였다.

탑신부는 7매의 다듬은 탑신받침 굄 1단 위에 7층으로 조성되어 있다. 1층에 비해 2층부터 급격한 체감을 보이고 있다. 2층부터 옥개받침과 낙수면 부분을 채우는 벽돌형 석재 때문에 탑신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돌을 벽돌처럼 다듬은 모전 석재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 길이와 너비는 대략 28~52cm 정도이고, 두께는 4~7cm이다. 1층 탑신석은 높이가 네 모서리에 있는 화강암 기둥과 같고 너비는 2.8m이다. 네 모서리에는 높이 1.37m, 너비 21cm 크기의 단면이 네모난 화강암 기둥이 서 있는데, 이것은 다른 전탑이나 모전석탑에서는

11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에 대한 내용은 '박경식, 2008, 앞의 책, 465~466쪽'과 '천득염, 2002, 앞의 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훼손·정비·개보수 등으로 변화된 부분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4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2022년 11월 필자 촬영)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또한 남쪽과 북쪽 면에는 화강암으로 하인방을 깔고, 문설주 2개를 세우고, 상인방을 얹은 높이 1.37m, 너비 1.08m 크기의 네모난 감실이 있다. 여기에 문비(門扉)가 달려 있는데, 남쪽면의 것은 개폐가 가능하지만, 북쪽면의 것은 음각으로 깊게 선만 새겨놓았다. 남북 모두 문비 중앙에 문고리 구멍이 뚫려 있다. 동쪽과 서쪽의 면석은 전체를 모전 석재로 쌓았던 데 반해, 남쪽과 북쪽의 면석은 화강암 기둥과 네모난 문 사이에만 모전 석재로 쌓았다. 탑신석의 모든 면에는 회(灰)를 덧칠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석탑이 상주 석심회피탑(石心灰皮塔)과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진 석탑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두께 1cm 정도의 백회 줄눈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탑신부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1층에서 7층으로 8·8·8·7·7·6·6단이며, 낙수면 층단은 1층에서 7층으로 9·8·8·7·7·6·6단이다. 추녀가 짧고 좁은 편이라 처마선이 수평을 이루었다. 1층을 제외한 각 층 옥개석 모서리에는 위아래로 풍경을 달았던 관통 구멍이 나 있으며, 아직도 일부에는 풍경을 달았던 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만든 고리가 남아 있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다. 다만 7층 옥개석 꼭대기에는 한 변이 70cm 정도인 낮은 노반만 남아 있고, 그 중심에 지름 17cm의 둥근 구멍이 있는데, 구멍 주변에는 연꽃이 조각되었다. 이 구멍은 6층 탑신까지 뚫려 있으며, 찰주(擦柱)를 꽂았던 구멍으로 보인다. 또한 7층 옥개석 윗면에서는 꽃무늬가 뚫새김된 청동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원래 정상부에 청동으로 만든 상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보수시 원추형 석재를 덮어 침수를 방지하였다.

이 석탑은 1967년에 해체 수리되었는데, 당시 5층 탑신에서 길이 50~54cm, 높이 31cm 크기의 각 변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네모난 화강암 석재가 발견되었다. 석재의 중심에는 한 변이 13.5cm이고 깊이가 4.5~5.5cm인 네모난 사리구멍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없었다. 조성 방법이나 부재의 가공 수법 등으로 보아 이 석탑의 건립 시기는 신라 말이나 고려 초인 10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12]

이 석탑은 정선 정암사 적멸보궁 뒤편 가파른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탑 뒤편으로 난 좁은 급경사를 이룬 산비탈을 올라 축대를 쌓아 평평한 대지를 만들고 여기에 석탑을 세웠다. 벽돌처럼 돌을 다듬어 올린 모전석탑이다. 층수는 7층이며, 높이는 9m에 이른다. 보물 제410호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6월 25일 국보로 승격되었다(국보 제332호).

기단부는 모를 죽인 화강암 석재를 6단으로 점차 들여쌓아 올려 구성하였는데, 맨 윗부분에는 탑신부를 받치기 위해 2단의 굄을 또다시 마련하였다.

12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한 내용은 '박경식, 2008, 위의 책, 466~469쪽'과 '천득염, 2002, 위의 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훼손·정비·개보수 등으로 변화된 부분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5 정암사 수마노탑 전경(2022년 11월 필자 촬영)

탑신부 탑신석을 보면 1층 탑신은 너비가 1.78m, 높이가 1.02m로, 단면이 네모나게 17단으로 정돈된 다듬은 벽돌형 석회석을 쌓아 만들었다. 이후 2층은 11단, 3층 9단, 4층 7단, 5층 5단, 6층 5단, 7층 3단으로 쌓았다. 각 층별 폭과 높이(탑신+옥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탑신부를 구성한 돌은 회녹색의 퇴적암인 수성암질 석회암으로 길이 30~40cm, 두께 5~7cm로 일정한 크기이다. 다듬은 정도가 정밀하여 돌 표면이 깔끔하며, 잘 정돈되어 있어 실제 벽돌처럼 보인다. 서쪽 면 중앙에는 조적된 동질의 석재로 네모난 틀을 짜서 만든 감실이 설치되어 있다. 장대석으로 하인방과 문설주, 상인방을 놓아 문비를 꾸몄다. 문비는 1매의 판석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세로 줄을 파 넣어 2짝의 문을 표현했으며, 문의 중심부에는 철로 만든 문고리를 달았었다. 상인방은 길이 62cm, 높이 6cm이고, 하인방은 길이 89.5cm, 높이 5.5cm이고, 양쪽 문주석은 높이 62cm, 폭 11(좌)·12(우)cm이다. 문짝 폭은 42cm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정암사 수마노탑 층별 폭과 높이 일람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탑신 적석 층수		17단	11단	9단	7단	5단	5단	3단
탑신 폭(cm)		178	160	140	133	166	88	69
높이 (cm)	탑신 높이	102	53.5	43.5	34.5	30.0	25.5	16.2
	옥개 높이	77.5	68.5	59.5	50.5	41.5	32.5	23.5
	합계	179.5	122	103	85	71.5	58	39.7
폭 : 높이 비율		1 : 1.01	1 : 0.76	1 : 0.74	1 : 0.64	1 : 0.43	1 : 0.65	1 : 0.58

탑신부 옥개석은 전탑 특유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고 있고, 처마는 좁은 편이다. 옥개석 전각(轉角) 부분에서 처마가 위로 솟아 보이도록 하단을 위로 치켜 깎아놓았다. 전각에는 위아래에 풍경을 달았던 관통 구멍이 뚫려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층 지붕돌 일부에만 풍경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달아놓았다. 아랫면인 옥개받침은 1층이 7단이지만(7·6·5·4·3·2·1),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서 7층은 1단이다. 윗면인 낙수면도 1층이 9단이지만(9·8·7·6·5·4·3),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서 7층은 3단이다. 옥개받침보다 낙수면 수가 2단씩 많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드는 현상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료인 벽돌형 석회암이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료는 돌이지만 벽돌과 같이 잘 다듬었다.

상륜부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노반 위에 벽돌처럼 깎은 2매의 돌이 얹혀 있고, 다시 그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상륜이 설치되었다. 청동제 상륜은 꽃무늬를 뚫새김으로 새긴 오륜탑을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를 줄여 올려놓고, 그 위에 복발 모양을 두었으며, 보륜 위에는 병 모양을 얹었는데, 병의 목에서 네 가닥으로 돌출된 끝부분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맨 꼭대기에는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크게 굽은 수연(水煙) 모양을 올렸고, 병의 목에서 나온 쇠로 만든 자물쇠인 철쇄(鐵鎖)는 3층 지붕돌까지 연결되었다.

이 석탑은 규모가 거대한 편은 아니지만 형태와 조성 수법이 정교하다. 탑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 옥개석 모서리 밑면이 위로 치솟은 것은 건립 시기의 양식을 잃지 않은 것이고, 청동제 상륜의 뚫새김 수법 또한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석탑 앞에는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조각된 연꽃무늬나 안상무늬 등은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석탑은 오래전부터 각 층의 돌이 없어지거나 파손되어, 1964년부터 보수 문제가 논의되다가, 1972년에 해체 복원하였다. 해체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3층 옥개석부터 기단부 사이에서 5개의 탑지석이 발견되었고, 기단부 맨 아랫부분 밑의 적심부에서는 청동합, 은제외합, 금제외합 등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이 석탑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탑지석에 의하면 현재의 석탑은 1653년(효종 4)에 중건된 것이다. 다만 석탑 앞의 배례석이나 정암사에 전하는 여러 유물을 비교하면, 처음 건립된 시기는 늦어도 고려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Ⅲ. 발해 영광탑과 전탑계 모전석탑 조영특징 비교

이 장에서는 발해 영광탑을 중심으로 이와 비교되는 한국의 전탑계 모전석탑 5기를 대상으로 서로의 조영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조영특징'이란 건축적 입장에서 탑의 재료, 평면 및 입면,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구조는 ㉠ 기단부, ㉡ 탑신부의 탑신석과 옥개석, ㉢ 상륜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발해 영광탑의 경우 기단부 아래에 무덤칸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기단부 항목에 넣어 함께 논해보았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에는 총 21기의 모전석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물론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된 것만 의미하며,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나 기록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예를 들면 상주 석심회피탑(石

13 박흥국, 2000, 앞의 책, 1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心灰皮塔) 같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국내에 있는 모전석탑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재료가 돌로써 벽돌처럼 쌓아서(造積式) 탑을 조영한 '전탑계 모전석탑'과 쌓은 재료가 돌로써 석탑처럼 적층하여(積層式) 탑을 조영한 '석탑계 모전석탑'이다.[15] 연구대상인 전탑계 모전석탑은 ①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하 약칭 '분황사탑'), ② 영양 산해리 모전석탑(이하 약칭 '산해리탑'), ③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이하 약칭 '현리탑'), ④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이하 약칭 '장락동탑'), 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하 약칭 '정암사탑')이 있다. 각 항목별로 조영특징을 비교해보겠다. 전반적인 조영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한국의 전탑계 모전석탑과 발해 영광탑 종합분석표에 정리되어 있다.

1. 재료

이번 연구대상인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5기는 모전석탑(模塼石塔)이므로 당연히 쌓은 재료가 모두 석재이다. 분황사탑은 흑갈색과 회흑색의 화성암계 안산암, 산해리탑은 주황색의 퇴적암계 수성암질 이남(泥岩), 현리탑은 회흑색과 흑갈색의 점판암, 장락동탑은 회흑색의 변성암계 셰일질 점판암, 정암사탑은 회녹색의 퇴적암 수성암질 석회암(瑪瑙石)이다. 우리나라의 석탑과 석탑계 모전석탑 재료가 화성암계 화강암인 데 반해 5기의 국내 연구대상 탑은 이보다 연하여 재단이 잘되는 돌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암사탑은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는 마노석으로 조영하여 탑의 정교함을 더하였다.

---

14 박홍국은 '전탑계 모전석탑'을 '모전석탑'으로, '석탑계 모전석탑'을 '전탑형 석탑'으로 이름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탑재 가공 상태, 감실 유무 및 배치, 인왕상 유무, 기단형태 등에 따라 보다 자세하게 세분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박홍국, 2000, 위의 책, 28~33쪽.

15 석탑계 모전석탑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경식 외 14인 지음, 2017,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정선군·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282~2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면 영광탑은 돌이 아닌 벽돌로 조성한 순수 전탑이다. 회흑색과 붉은색 계통 벽돌을 혼합해서 사용하였다. 물론 국내 전탑도 주는 회흑색이지만 각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붉은색 계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영광탑을 쌓은 벽돌을 비롯한 발해 전탑의 재료는 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마적달탑터에서 나온 벽돌을 숫돌 대용으로 썼다는 것이[16] 이를 증명해 준다. 영광탑 벽돌 크기는 18×18×6cm, 36×36×6cm, 16×19.5×6cm, 다각형 벽돌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하였다. 영광탑은 지하에 무덤칸을 만들고 그 위를 탑으로 구성하다 보니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벽돌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영광탑은 한국의 모전석탑과 용도 면에서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께는 6±1cm로 일정하였다.

한국의 벽돌형 석재 크기를 보면 정암사탑은 길이 30~40cm에 두께 5~7cm로 영광탑의 벽돌 두께와 유사하였다. 분황사탑은 길이 30~45cm에 두께 4.5~5cm, 장락동탑은 길이 28~52cm에 두께 4~7cm이다. 그런데 산해리탑은 탑신 부분을 쌓은 석재 크기가 위층으로 가며 점차 작아진다. 현리탑도 아래와 위층의 줄눈 간격과 석재의 생김새와 크기가 많이 다르다. 다듬은 정도를 봐도 정암사탑은 벽돌처럼 잘 다듬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나머지 4기의 전탑계 모전석탑은 크기도 다양했지만 다듬은 정도도 정암사탑보다 훨씬 거칠었다. 정암사탑은 재료가 석재지만 전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교하고 일정한 크기로 석재를 잘 다듬어 쌓았다. 같은 모전석탑일지라도 석재 재료나 다듬기 정도에 따라 탑으로서의 완성도는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 평면과 입면형식

처음 한반도에 조영되기 시작한 불탑은 목조의 8각형이었다. 고구려 절터인 금강사지, 청암리사지, 정릉사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8각형의 목탑

16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1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정사각형으로 변모되었고 재료도 돌로 바뀌었다. 좋은 품질의 화강암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목탑보다는 훨씬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경우 석탑이 본격적으로 조영되기 전 전환기적 석탑으로 모전전탑이 등장하게 된다.[17] 대표적인 예가 분황사탑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분황사탑을 최초의 석탑으로 보고 있다. 아마 당시 불탑은 기본적으로 정방형으로 세우는 것이 기본이었던 것 같다.[18] 분황사탑과 나머지 이번 연구대상 탑은 물론이고 발해 영광탑도 정방형이다.

국내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 층수는 5층, 7층, 9층으로 다양하였다. 분황사탑이 3층까지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9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락동탑과 정암사탑이 7층이며, 나머지 산해리탑, 현리탑이 5층이다. 발해 영광탑도 5층이다. 그러나 탑 높이를 보면 국내 7층탑보다 영광탑이 12.35m(상륜부 포함)로 훨씬 더 높다. 영광탑은 탑 아래 무덤칸이 있었고, 1층 감실이 폭 0.95m, 높이 1.635m의 개구부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탑의 평면, 층수, 높이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영광탑과 국내 모전석탑은 중국 중원지역에 비해 규모는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중원지역은 5층에서 15층으로 규모가 다양했으며, 높이는 21m에서 65m로 영광탑과 국내 모전석탑에 비해 매우 컸다.[19] 중국은 벽돌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한 반면, 한반도 지역은 그렇지 못하였다. 중국 중원지역은 탑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20]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전탑 규모는 영광탑과 국내 모전석탑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물 조영원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 중원지역은 대

17 高裕燮, 1993, 「朝鮮의 塔婆 槪說」,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高裕燮 全集 3, 通文館, 117~118쪽.

18 임세권, 2004,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미술사학연구』 242·243호, 13쪽.

19 이병건, 2008, 앞의 글, 167쪽.

20 高裕燮, 2010a, 앞의 책, 59~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분의 건축물이 평지에 있으므로 그 건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큰 규모로 높게 지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서는 건물을 강조하기 위해 크게 짓는 방법도 있지만 작더라도 높은 곳에 지어 어느 곳에서든 조망될 수 있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영광탑과 정암사탑이다. 영광탑은 장백현 탑산 거의 정상부 구릉지에 우뚝 서 있고, 정암사탑도 적멸보궁 뒤편 급한 경사면을 올라 가파른 경사면에 있어 아래 절 사역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곳에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입면 비례를 보면 영광탑의 경우 1층은 탑의 폭 대비 높이(탑신+옥개부분)가 1 : 1.49이며, 2층 1 : 0.53, 3층 1 : 0.58, 4층 1 : 0.53, 5층 1 : 0.59로 1층은 폭보다 높이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2층부터는 5층까지 1 : 0.5에서 ±0.1 정도로 폭 대비 1/2로 유지되었다. 반면, 정암사탑 경우 1층은 탑의 폭 대비 높이(탑신+옥개부분)가 1 : 1.01이며, 2층 1 : 0.76, 3층 1 : 0.74, 4층 1 : 0.64, 5층 1 : 0.43로, 6층 1 : 0.65, 7층 1 : 0.58로 1층은 폭과 높이가 거의 1 : 1로 유지되다가 2층부터는 2/3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다만 5층부터 7층까지 약간 비례가 줄어드는 현상은 있어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수리 과정에서 비례체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이러한 자료로 보았을 때 발해 영광탑은 일정한 비례체계에 의거 정교하게 조영된 반면 정암사탑을 비롯한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은 이보다는 일정 비례체계에서는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영광탑의 정교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구조형식

1) 기단부

발해 영광탑은 지상에 탑을 세우기 전에 지하에 무덤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즉, 탑은 묘탑(墓塔) 성격이 강하였다. 지하 무덤은 출입구에 해당되는 ① 무덤통로와 무덤에 이르는 ② 무덤길, 시신을 안치하는 ③ 무덤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칸 규모는 길이×너비×높이가 1.9×1.42×1.49m로 시신을 안치하기에 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한 크기이다. 국내 5기의 모전석탑이 감실에 불상 봉안이나 사리함 공간을 탑 신부에 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내 모전석탑은 탑 지하에 무덤칸을 만든 예가 전혀 없다. 즉, 지하 무덤칸 없이 기초를 다진 후 단단한 기단을 구축하고 탑을 쌓아 올렸다. 영광탑을 비롯한 발해 전탑은 탑 밑에 시신을 안치한 무덤칸을 둔 동북아시아 전탑 중에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이는 발해 왕실에서 불교를 높이 숭상했으며,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탑 문화를 왕실 장례 문화까지 승화 발전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21]

현존하는 분황사탑을 비롯하여 국내 대부분의 모전석탑은 단층기단이다.



그림 6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기단부 그랭이질 모습(2021년 10월 필자 촬영)

21 영광탑에서 유골이 수습되지는 않았지만 마적달탑터에서는 중년 남성 유골이 발견되었다. 정효공주무덤탑터에서도 공주와 그의 남편 유골이 관에 넣어져 합장되어 있었고, 영광탑도 무덤칸 규모로 보아 사람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학봉, 1998, 「발해의 탑터」, 『발해불교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38, 149쪽; 이병건, 2008, 앞의 글, 17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한국의 전탑계 모전석탑(국가지정 : 국보·보물)과 발해 영광탑 종합분석표

번호	분류	명 칭	지정현황 소 재 지	건립시기	방위 입지	층수 높이 (m)	색깔 재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조영특징
									탑신석	옥개석	옥개 받침수	옥개 수	낙수면 수	
①	전탑계 모전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북위 035° 50′ 25″ 동경 129° 14′ 01″	국보 제30호 경북 경주시 구황동	선덕여왕 3년 634년 1915년 지금 모습 복원	남향 평지 평야	추정: 9층 현재: 3층 9.3m	흑갈색 회흑색 화성암 안산암	한 변 길이: 13m, 높이: 1.06m 토축 단층기단, 마감은 막돌허튼층쌓기 기단마감 갑석은 그랭이질 장대석마감 시작점~탑신지점까지 36㎝ 차이 경사 네 모서리에 동물상: 사자 2+물개 2 탑신받침 굄 1단(장대석)	현재 3층까지만 남아 있음 회흑색·흙갈색 안산암 벽돌 모양 재단 석재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1층 탑신 四面에 감실 조성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 석재 길이: 30~45㎝, 두께: 4.5~5㎝	옥개받침 위로가며 급해짐 완만한 처마곡선 유도	6 6 5	1	10 10 경사면	화강암 양화	기단부에 그랭이질 보임 배수를 위해 경사를 둠 한반도 始原的 模塼石塔 미륵사지탑과 감실 유사 완만한 처마곡선 유도
②	전탑계 모전석탑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봉감모전오층석탑) 북위 036° 35′ 05″ 동경 129° 04′ 08″	국보 제187호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통일신라	남향 산지 언덕 천변	5층 11m	주황색 퇴적암 수성암질 이암	토석혼합 단층 바닥돌 3단의 석축으로 막돌허튼층쌓기 기단 내부로 갈수록 석재는 가공 안 했음 탑신받침 굄 3단(자연석 1단+벽돌형 2단)	석재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1층 – 높이: 230㎝, 너비: 326㎝ 1층 탑신 남면에만 감실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 2층부터 탑신 중간에 2단 돌출턱 마련	모서리에 경미한 反曲 풍경 구멍 내쌓기: 7~8㎝	7 6 5 5 5	1	5 5 5 5 5	2000년 노반 추가	목재 心柱 흔적 확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기와를 덮은 중기 확인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돌부리 활용 내구성 강화
③	전탑계 모전석탑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북위 036° 39′ 02″ 동경 129° 06′ 51″	보물 제2069호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2리 동편에 급경사 내리막 斷崖 서편에 大雄殿과 山神閣 남편에 日月山房 북편에 요사채 沈默堂 위치 북편에 東西向 半邊川 흐름 현 寺域은 낮은 담장 둘러침	통일신라 말기 ~ 고려 초기	남향 평지 언덕 천변	5층 6.98m	흑회색 흑갈색 점판암	전에는 높이 3.2m 암반을 기단으로 삼았고, 여기에 한 변 너비 2.9m, 높이 3㎝의 낮은 받침을 만들고 5개 층으로 탑 쌓음. 너비 6.5m, 높이 80㎝의 석축기단 마감은 1980년 해체·복원 시 정비된 것임. 이후 최근에는 지표면 고저차로 높이 67~92㎝의 세벌대 화강석 장대석으로 기단부 새로 정리됨. 탑신받침 굄 1단(낮음, 자연석)	일정 크기 벽돌 모양 석재 쌓고, 그 사이 사이를 두께 2㎝의 황토색 흙으로 보강하여 줄눈 역할 1층 탑신은 2m 높이에 12단으로 축조 1층 탑신 남면에만 감실(한 변 62㎝) 화강석 無紋 상·하인방(新材) 화강석 陽刻 唐草紋 좌·우 문설주 목재 문비에 외여닫이문 내 불상 1구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 모서리돌 둥글게 처리: 부드러움 강조 2층부터 급격한 체감(81°) 경북지역 전탑·모전석탑 체감비 유지	일정 크기 석재로 중첩 모서리에는 좀 더 크고 둥근 석재 사용하여 유연 강조	7 6 4 4 4	1	7 6 4 4 5	화강암의 노반+복발+보주 수리 시 보충	분황사모전석탑 양식과 산해리오층모전석탑 계승 일제강점기에는 4층 탑신 일부까지만 있었음 1979년 5층으로 복원됨 옛 사역은 확인되지 않음 영양 모전석탑과 모습, 석재, 축조기법과 유사함 경북지역 전탑·모전석탑은 초층탑신 1면에만 감실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임
④	전탑계 모전석탑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북위 037° 08′ 52″ 동경 128° 13′ 50″	보물 제459호 충북 제천시 장락동 蒼樂寺 터	통일신라 말기 ~ 고려 초기 10C 초	남향 평지 평야	7층 9.1m	회흑색 변성암 세일질 점판암	높은 土壇에 막돌 외벌대 단층기단 여러 매의 자연석으로 구성 탑신받침 굄 1단(7매의 다음은 석재)	1층은 석재로 架構式構造 구축 그 사이를 模塼석재로 채움 석재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1층 탑신 남과 북면에 감실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 석재 – 길이·너비: 28~52㎝, 두께: 4~7㎝ 1㎝ 두께의 회줄눈처럼 보임	짧은 추녀, 수평 추녀 상하관통 풍경 구멍(2~7층) 1층에는 풍경 구멍 없음 처마 직선 처리	8 8 8 7 7 6 6	1	9 8 8 7 7 6 6	낮은 노반 찰주 구멍 보수 시 덮개 보충 원추형 석재 덮개	1층은 가구식구조로 구축 탑신 전체에 灰 밋칠 흔적 (상주 석심회괴탑)
⑤	전탑계 모전석탑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북위 037° 09′ 26″ 동경 128° 54′ 08″	국보 제332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고려시대 ~ 조선시대 18C 수차 중수	서향 산지 기슭	7층 9m	회녹색 퇴적암 수성암질 석회암 瑪瑙石	모죽임 화강암 6단 조성 후 그 위에 탑신받침 굄 2단	일정 크기의 벽돌 모양 석재 1층 탑신 너비: 1.78m, 높이: 1.03m 1층 탑신 서면에만 감실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 문비는 1개 돌로 가운데 문고리 구멍 탑신석 수 : 1→7층으로 17·11·9·7·6·5·3	처마 수평이고 좁은 편 모서리에 경미한 反曲 하단을 위로 깎음	7 6 5 4 3 2 1	1	9 8 7 6 5 4 3	화강암 노반 청동제 상륜	처마 하단 들어올림 추구 규칙적 들여쌓기(낙수면) 규칙적 내쌓기(옥개받침) 모전석재 규모의 규격화
⑦	순수전탑	장백 영광탑 북위 041° 25′ 14″ 동경 128° 11′ 00″	中國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 吉林省 白山市 長白縣 塔山	남북국시대	남향 산지 정상부 구릉	5층 12.35m	회흑색 붉은색 無紋塼	무덤칸이 기단 대체: 기단 필요 없음 무덤칸,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 탑신받침 굄 단수는 층에 따라 다름 1층(0단), 2·3층(2단), 4·5층(1단)	벽돌조 안쌓림과 체감법 1층 남면에 탑실(출입 가능) 2, 3, 5층에 감실 벽 중간에 문자와 꽃무늬 형상화 벽돌 벽돌: 방형·장방형·다각형, 두께 동일 18×18×6, 36×36×6, 16×19.5×6(㎝)	길이쌓기 마구리쌓기 모서리쌓기 혼용 모서리 경미한 反曲 轉角 옥개 처마 현수곡선 유지 모서리 현수벽돌 별도제작	10 9 8 7 6	2	물매 따라 벽돌 덮음	노반 호로형 상륜부 찰주	무덤칸 시신 직접 안치 정방형 평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반도 지역 전탑이 목탑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목탑의 구조형식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륵사지 목탑터와 황룡사지 목탑터가 단층기단이며, 목탑을 충실히 닮았던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도 단층기단이다. 다만 분황사탑 경우 기단을 쌓은 석재에 구조적 횡력에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 그랭이질을 한 돌이 보인다. 목조건축 기술이 전탑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영광탑은 지하에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국내 모전석탑과 같이 기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다. 지하 무덤칸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광탑은 원래부터 기단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탑신부

(1) 탑신 부분

영광탑은 5층 전체 탑신부를 순수하게 벽돌로만 쌓았다. 탑신 중간중간에 문자를 새긴 판석과 여러 형태의 감실이 있지만 이 부분만 특수형 전돌을 따로 제작하여 끼워 넣었다. 순수하게 벽돌로만 탑을 구성하였다.

국내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도 쌓은 재료는 돌이지만 영광탑처럼 돌을 벽돌화시켜 조적식으로 쌓았다. 이 가운데 정암사탑은 1층부터 7층까지 일정한 크기의 벽돌형 돌로 탑신을 구성하였지만 나머지 모전석탑은 그렇지 못하다. 장락동탑의 경우 특이하게도 1층 탑신은 화강암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벽돌형 석재로 채워 넣었다. 그렇지만 2층부터는 벽돌형 석재로만 조적식 탑신을 구성하였다. 또한 산해리탑의 경우 2층부터 5층까지 탑신 중간 부분에 2단씩의 돌출 턱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이나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과 같이 지붕을 구성하기 위해 기와를 얹어 고정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기의 국내 모전석탑 모두 감실이 존재한다. 다만 감실의 위치와 숫자가 다르다. 감실이 있는 위치가 1층 탑신이라는 것은 5기 모두의 공통점이다. 네 방향에 감실을 둔 탑 1기(분황사탑), 남과 북면에 둔 탑 1기(장락동탑), 남면에 둔 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7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의 기와를 얹은 옥개부(2022년 12월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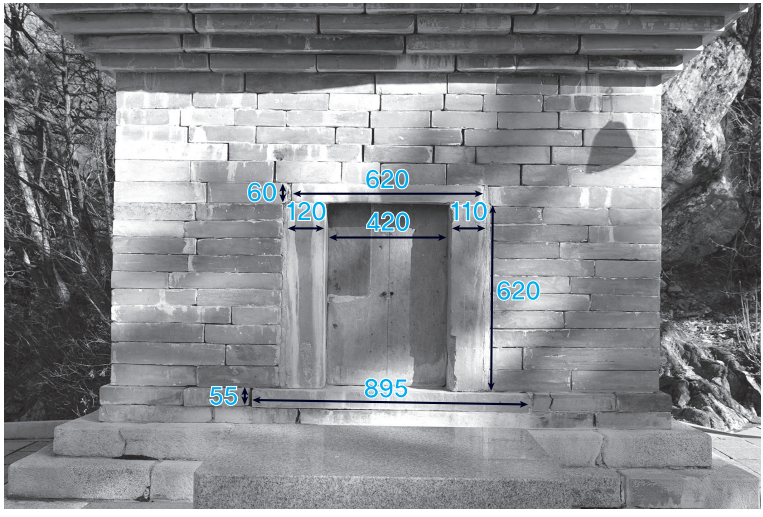


그림 8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1층 감실부 실측 사진(2022년 11월 필자 촬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기(산해리탑, 현리탑), 서면에 둔 탑 1기(정암사탑)이다. 정암사탑은 가파른 절벽에 있으며 정면이 서향이므로 이 방향에 감실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적인 감실의 구성은 석재이며,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로 구성되어 있다. 문틀만 있고 문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문짝은 있되 음각(陰刻)으로 선만 그려 넣어 두 문짝을 형상화한(장락동탑) 경우도 있었다. 반면 영광탑은 1층 남면에 감실이 존재하나 국내 모전석탑처럼 불상을 안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하여 성격이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2) 옥개 부분

전탑 탑신부에서 옥개 부분은 지붕에 해당된다. 한국 전탑계 모전전탑의 옥개부분은 처마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옥개 상하가 층단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목탑이나 석탑처럼 처마를 경쾌하게 내밀지 못하고 짧고 뭉툭해 처마선 끝이 처지거나 끝이 둔해 보인다. 모전석탑도 작고 일정한 크기의 모전재를 사용하여 조적식으로 축조하기 때문에 탑신에서 돌출된 옥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내밀어 쌓아야 한다. 그러나 작은 개개의 돌을 많이 내밀게 되면 쉽게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짧은 처마일 수밖에 없다. 조적식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긴 처마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5기에서 옥개 부분(내쌓기 옥개받침, 옥개, 들여쌓기 낙수면)을 구성하는 층단 수를 보면 〈표 2〉와 같다. 탑들은 내쌓기 옥개받침 수와 들여쌓기 낙수면 수가 위층으로 갈수록 1~2단씩 줄어든다.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가운데 정암사탑 처마도 수평이고 내밀기가 좁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처마 양 끝이 처져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미하지만 모서리에 반곡(反曲)을 두었다. 마지막 돌출된 옥개석 하단부를 깎아내어 처마가 위로 솟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나머지 전탑계 모전석탑에서는 이렇게 옥개석 하단을 깎아낸 사례는 없었다.

내쌓기와 들여쌓기를 한 옥개받침과 낙수면 수에서는 탑마다 차이가 났다. 정암사탑은 아랫면인 옥개받침은 일정하게 줄여나가 1층이 7단(7·6·5·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9 정암사 수마노탑 하부를 깎아낸 옥개석 부재(2022년 11월 필자 촬영)

2·1)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서 7층은 1단이다. 윗면인 낙수면도 1층이 9단(9·8·7·6·5·4·3)이지만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서 7층은 3단이다. 옥개받침보다 낙수면이 2단씩 많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드는 현상이 일정하다. 이는 벽돌형 석재의 규격(두께)이 일정함을 의미한다. 반면 분황사탑, 산해리탑, 현리탑, 장락동탑은 옥개받침과 낙수면 수가 위로 가며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정한 규칙이 보이지 않는다.

영광탑은 정암사탑같이 내쌓기 옥개받침 수를 1단씩 줄여나갔다. 1층에서 5층으로 10, 9, 8, 7, 6단으로 쌓았다. 단, 낙수면은 벽돌로 일정하게 들여쌓은 것이 아니라 물매에 따라 적당하게 벽돌로 덮었다. 국내 순수전탑 가운데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나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처럼 낙수면을 기와로 처리한 경우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영광탑은 한국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현수곡선에 의한 귀솟음이 국내 모전석탑에 비해 두드러졌다. 특이하게도 처마(옥개받침)를 길이면과 모서리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0 영광탑 옥개부 귓마루에 별도 제작된 귀솟음 벽돌 부재(2012년 8월 필자 촬영)

으로 교차해가며 내쌓았다. 또한 처마를 양 끝으로 가며 약간씩 들어 올리다가 옥개 추녀 부분에는 따로 제작한 벽돌을 이용해 처마곡선을 극대화시켰다. 정암사탑도 처마 끝의 석재 하단을 깎아 처마가 들어 올려진 것처럼 꾸몄다. 전탑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처마곡선은 발해 영광탑만 가지고 있는 당대의 대표적인 조영특징이며, 이를 정암사탑도 채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 상륜부

연구대상 5기의 국내 모전석탑 중 상륜부를 갖추고 있는 탑은 정암사탑밖에 없다. 탑 상륜부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노반 위에 벽돌처럼 깎은 2매의 돌이 얹혀 있고, 다시 그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상륜이 설치되었다. 청동제 상륜은 꽃무늬를 뚫새김으로 새긴 오륜탑을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를 줄여 올려놓았다. 그 위에 복발을 두었으며, 보륜 위에는 병을 얹었다. 병의 목에서 네 가닥으로 돌출된 끝부분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맨 꼭대기에는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크게 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수연 모양을 올렸고, 병의 목에서 나온 쇠로 만든 자물쇠인 철쇄는 3층 지붕돌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 상륜부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근세 수리 때 만들어진 것이다.

발해 영광탑에는 호롱불 형태의 간략한 상륜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륜이 명 시기에 파괴되어 1936년에 다시 제작되었고, 지금 것은 1982년에 새로 만들어 올려놓은 것이다. 탑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례감을 볼 때 상륜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상륜 높이는 1.96m에 이른다. 탑 규모로 볼 때 영광탑에도 원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고 웅장한 상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영광탑과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에서 상륜부의 조영특징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발해 시기에 건립된 영광탑과 국내에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대상으로 상호 조영특징을 비교·고찰해보았다. 비교된 항목은 탑의 재료, 평면과 입면형식, 구조형식이다. 구조형식은 다시 기단부, 탑신부(탑신 부분, 옥개 부분), 상륜부로 나누었다. 글의 전개 순서로 제Ⅱ장에서는 5기의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현황을 고찰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영광탑과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을 비교해보았다.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순수 석탑과 석탑계 모전석탑은 대부분 재료가 화강암인 데 반해 연구대상인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은 안산암, 이암, 점판암, 석회암 등 화강암보다 강도가 물러 가공이 잘되는 돌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암사 탑은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는 마노석으로 조영하여 탑의 정교함을 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의 돌 크기를 보면 정암사탑은 길이 30~40cm에 두께 5~7cm로 영광탑과 두께는 비슷하였다. 반면 나머지 4기의 탑은 크기와 두께가 매우 다양하였다. 다듬은 정도도 정암사탑은 영광탑처럼 정교하게 다듬은 반면 나머지 4기의 전탑계 모전석탑은 그렇지 못하였다. 같은 모전석탑이라도 재료나 다듬기 정도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 석탑과 모전석탑 평면형태는 석굴암 삼층석탑과 불국사 다보탑 등 몇몇 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방형이다. 영광탑과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도 모두 정방형 평면형태를 취하였다. 다만 층수는 5층, 7층, 9층으로 다양하였다. 반면 중국 중원지역에 조영된 전탑보다는 대체로 크기가 작았다. 중국은 벽돌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한 데 비해 한반도 지역은 그렇지 못하였다. 조적식으로 구조물을 구축하는 방법도 한반도보다 중국 중원지역이 익숙하다. 이는 또한 건축물 조영 원리와도 관계가 있다. 중국 중원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평지에 있으므로 그 건물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서는 건물을 강조하기 위해 크게 짓는 방법도 있지만 작더라도 높은 곳에 지어 어느 곳에서든 조망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발해 영광탑과 정암사탑이 될 것이다. 높은 산 정상이나 구릉지에 조영되어 어디서나 조망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입면 비례를 보면 영광탑은 위로 올라가며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반면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은 그렇지 못하였다. 재료가 벽돌이 아닌 다양한 크기의 석재로 조영하다 보니 일정한 비례체계를 맞추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5. 국내 모전석탑은 5기 모두 기단을 구축한 반면 영광탑은 기단을 조성하지 않았다. 영광탑은 지하에 무덤칸을 둔 관계로 기단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분황사탑의 경우 기단부 갑석에 그랭이질을 하여 횡력에 강하게 저항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지역의 탑이 목탑에서 시작된 관계로 미륵사지 석탑처럼 목조건축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영광탑을 비롯하여 발해 전탑은 탑 밑에 시신을 안치한 무덤칸을 둔 동북아시아 전탑 중에서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국내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은 모두 1층 탑신부에 감실을 두었다. 정면은 대체적으로 남쪽이었다. 반면 정암사탑은 서쪽이 정면인 관계로 서향을 하였다. 감실의 조성 재료도 일반 전탑처럼 벽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인방+문설주+상인방+문비를 별도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반면 영광탑은 1층 남면에 감실이 존재하나 국내 모전석탑처럼 불상을 안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하여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과 그 성격이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7. 국내 전탑 계열 탑은 층층이 쌓는 조석식이므로 처마 내밀기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전탑계 모전석탑은 처마를 길게 내밀지 못하였다. 정암사탑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옥개(처마) 하단부를 깎아내어 처마가 살짝 들어 올려져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지붕에 날렵함을 더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영광탑의 경우도 옥개 위에 별도로 제작된 벽돌을 붙여 넣어 정암사탑과 같은 효과를 연출하였다. 목조건축의 귀솟음을 채용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영광탑에서 보이는 처마 끝의 아름다운 현수곡선이 정암사탑에서도 보여 한반도 목조건축의 아름다운 처마선 조영 기술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은 기존의 국내 석탑 조영원리를 채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발해 영광탑과도 일정 부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탑계 모전석탑의 수가 많지 않고, 게다가 각 탑마다 조영특징이 다르므로 일정한 조영원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계속적인 상호 분석이 이루어져야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高裕燮, 1993,『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高裕燮 全集 3, 通文館.

_____, 2010a,『朝鮮塔婆의 硏究 上』總論篇 又玄 高裕燮 全集3, 悅話堂.

_____, 2010b,『朝鮮塔婆의 硏究 下』各論篇 又玄 高裕燮 全集4, 悅話堂.

문화재관리국·삼성건축사사무소, 1992,『분황사석탑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박경식, 2008,『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박경식 외 14인, 2017,『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정선군·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박흥국, 2000,『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영양군청, 2017,『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보고서』, 영양군청.

천득염, 2002,『전탑』(빛깔 있는 책들 220), 대원사.

방학봉, 1998,『발해불교연구』, 연변대학출판사.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長白朝鮮族自治縣.

杉山信三, 1944,『朝鮮の石塔』, 彰國社.

논문

안선우, 2008,「慶北 北部地域의 模塼石塔 硏究」,『안동사학』제13집.

이병건, 2008,「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탑의 건축적 의미 연구」,『동북아역사논총』21호.

_____, 2010,「발해 영광탑과 한강이남 전탑의 건축형식 비교연구,『高句麗渤海硏究』第38輯.

_____, 2017,「발굴보고서로 탐구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高句麗渤海硏究』第58輯.

임세권, 2004,「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美術史學硏究』242·243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張馭寰 著, 韓東洙 譯, 1996-12,「長白山 靈光塔의 特徵과 年代鑑定에 관하여」,
『建築歷史硏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발해 영광탑과 한국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 비교

이병건

이 글에서는 발해 시기에 건립된 영광탑과 국내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을 대상으로 상호 조영특징을 비교해보았다. 비교된 항목은 탑의 재료, 평면과 입면형식, 구조형식이다. 구조형식은 다시 기단부, 탑신부(탑신 부분, 옥개 부분), 상륜부로 나누었다. 글의 전개 순서로 제Ⅱ장에서는 5기의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 현황을 고찰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발해 영광탑과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을 비교해보았다.

국내의 순수 석탑과 석탑계 모전석탑은 대부분 재료가 화강암인 데 반해 연구대상인 5기의 전탑계 모전석탑은 이보다 재단이 잘되는 돌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암사탑은 영광탑과 같이 일정 규모(두께·길이)의 돌이 사용된 반면 나머지 4기의 탑은 크기와 두께가 매우 다양하였다. 다듬은 정도도 정암사탑보다 거칠었다.

평면형태와 규모를 보면 중국 중원지역보다 크지 않다. 중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평지에 있으므로 건물을 부각하기 위해 큰 규모로 지어야 한다. 반면 한반도 지역에서는 작더라도 높은 곳에 지어 이를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 영광탑과 정암사탑이 될 것이다. 또한 석재를 재단하여 탑을 적층식으로 쌓다 보니 입면비례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국내 모전석탑은 5기 모두 기단을 구축한 반면 영광탑은 기단을 조성하지 않았다. 영광탑은 지하에 무덤칸을 둔 관계로 기단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분황사탑처럼 기단부 갑석에 그랭이질을 하여 횡력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지역의 탑이 목탑에서 시작된 관계로 목조건축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영광탑은 탑 밑에 시신을 안치한 무덤칸을 둔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은 층층이 쌓는 조석식이므로 시원한 처마 내밀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암사탑의 경우 옥개(처마) 하단부를 깎아내어 처마가 살짝 들어 올려져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영광탑의 경우도 옥개 위에 별도로 제작된 벽돌을 붙여 넣어 정암사탑과 같은 효과를 연출하였다. 영광탑에서 보이는 처마 끝의 아름다운 현수곡선이 정암사탑에서도 보여 한반도 목조건축의 아름다운 처마선 조영 기술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국내 전탑계 모전석탑은 기존의 국내 석탑 조영원리를 채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발해 영광탑과도 일정 부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발해, 영광탑, 전탑계 모전석탑, 조영특징, 동질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Yeong-gwang Pagoda in Balhae and Brick Style Stone Pagoda in South Korea

Lee Byeonggun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Yeong-gwang Pagoda built during the Balhae period and the five brick style stone pagoda in South Korea. The items compared are the material of the pagoda, the plane and elevation form, and the structural form. The structural form was again divided into a base, a tower, and an upper ring. In the order of development of the article, Chapter II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five domestic brick style stone pagoda, and Chapter III compared the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the Yeong-gwang pagoda and the domestic brick style stone pagod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agoda in the two reg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domestic brick style stone pagoda,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tudy, tried to accept the existing principle of building a domestic stone pagoda and has some homogeneity with the Bal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Yeong-gwang Pagoda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Balhae, Young-gwang pagoda, Brick style stone pagoda,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Homogene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7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 편찬

김성환 | 전 경기도박물관장

I. 머리말
II.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 편찬과 역사 편찬 요구
III.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과 『천추금경록』·『세대편년절요』
IV. 신복 일월(臣服日月)·황제 등극 이래 국왕 친조 연월(帝登極已來 國王親朝年月) 등과 『고금록』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100여 년에 걸친 무인집권기, 그중에서 40여 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과 교섭 기간을 끝으로 고려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했다. 몽골의 전략에서 이루어진 원종의 즉위와 복위, 원종의 결정으로 단행된 개경 환도는 몽골(원)의 압제를 뜻했다. 고려는 몽골에 신복(臣服)해야 했고, 이후 원의 일본정벌(征東)에 전초기지인 정동행중서성이 고려에 설치되었다. 고려의 왕위계승자는 원 황실의 투르칵으로, 또 공주와 혼인으로 이후 부마고려국왕이 되었다.

고려는 몽골(원) 황실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았는데, 국왕 친조와 육사(六事)가 그것이었다. 몽골(원)의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 또한 제국사(帝國史)의 일부로 파악되었고, 이에 맞는 역사 편찬을 요구했다. 그것은 몽골(원)의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에, 또 몽골(원)과 고려의 관계가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사가 중심이 되었다. 학계에서는 이를 당대사(當代史)라고 하며, 이 시기 역사 편찬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 간섭기의 역사 편찬은 원과의 관계에서 범위가 '당대사'라는 데서, 방법에서 개찬과 증수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특징을 가진다. 그중에서 현재 전해지는 것은 지극히 일부이지만, 이 자료들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실록의 편찬이다. 『고종실록』과 『충헌왕실록』·『충경왕실록』, 『충렬왕실록』·『충선왕실록』·『충숙왕실록』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왕실 세보류의 편찬으로, 임익(?~1301)의 『선원록』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고려 왕조의 통사 계통의 자료 편찬이다. 정가신(1224~1298)의 『천추금경록』, 오양우(?~1319)의 『국사』, 민지(1248~1326)의 『세대편년절요』·『본조편년강목』,

* 투고: 2023년 7월 17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제현(1287~1367)의 『충헌왕세가』와 『편년강목』 증수 및 국사 편찬, 『금경록』 선정(選定), 이인복(1308~1374)과 이색(1328~1396)의 『본조금경록』 등이 있다. 네 번째는 현대사 자료 편찬이다. 원부(1220~1287)·허공(1233~1291)·한강(?~1303)의 『고금록』, 임익과 김변(1248~1301)의 『선제사적(先帝事跡)』, 이인복의 『고금록』 증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열전 형식의 개별 전기 편찬이다. 이제현의 『김공행군기(金公行軍記)』가 대표적이다. 여섯 번째는 원의 삼사(三史) 편찬과 관련한 자료의 정리로, 송·요·금의 『삼국사적(三國事跡)』이 그것이다. 또 원에서 직접 『고려지(高麗志)』를 편찬하기도 했다.[1]

이 시기의 역사 편찬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그 동향에 대해서는 고려 내부의 일정한 동인과 함께[2] 원의 요구에 의한 편찬과 압력에 따른 개찬, 또는 이를 의식한 보정으로 파악되고 있다.[3] 그렇지만 현전하는 사서가 거의 없어 피상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역사 편찬을 요구한 원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의 입장에서만 그 성격을 검토했던 한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기의 역사 편찬은 보다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편찬과 관련한 지침이 원에서 일정하게 제시되었고, 고려는 이에 맞추어 편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종류 중에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에 해당되거나 그 영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

---

1 이 史書들에 대해서는 추후 각론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 고려의 상고사부터 삼국, 또는 當代까지를 범위로 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도 當代史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후고를 기약한다.

2 내부적인 동인으로는 충렬왕 때 원과의 교섭에서 자국의 역사를 알리려는 데 있었다는 것과 함께 이 시기의 문화적 위기의식이 지적되었다. 정구복, 1981a, 「編纂文化」, 『한국사론』 2, 국사편찬위원회; 정구복, 1981b, 「高麗後期의 歷史認識과 歷史敍述」, 『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3 井上秀雄, 1980, 「高麗時代の歷史書編纂」, 『研究報告』 16, 東北大學日本文化研究所; 김상현, 1985, 「高麗後期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째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독립국으로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1218년(고종 5) 거란 잔당은 새롭게 부상한 몽골에 밀려 고려를 침입했다. 이때 처음 접촉한 고려와 몽골은 이 사건을 두고 서로의 이해를 달리했다. 사신으로 고려를 다녀가다가 변경에서 살해된 주구유(著古與)의 죽음, 몽골의 침구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무인 집정자 최우의 강화 천도, 임연 정권의 붕괴 후 진도·제주도로 옮겨가며 대항했던 삼별초의 난 등에 대한 인식도 달리했다. 몽골(원)에서는 제국(帝國)의 입장에서 고려를 위치시킬 필요가 있었고, 고려에서는 속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틈바구니에서 독립국으로서 자존의식과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원에 적극 설명 또는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고려의 당대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편찬은 이런 측면에서 유효한 방법이었다. 그 서술에서 고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종류 중에 정가신의 『천추금경록』, 오양우 등의 『국사』, 민지의 『세대편년절요』, 원부·허공·한강의 『고금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1278년(충렬왕 4) 7월 원 중서성의 역사 편찬 요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의 역사 편찬 요구의 결과물인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는 물론, 고려에서의 제반 결과물도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논지 전개가 일정한 가설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추론이 거듭되는 한계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잘못 이해한 오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 편찬과 역사 편찬 요구

『고려사』에서는 원에서 역사 편찬을 요구한 몇 차례의 사례가 확인된다. 원의 역사편찬기관이었던 국사원(國史院)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원의 관인(官人)이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고려를 방문하기도 했다.

A-1. 중서성에서 本國累朝事跡과 臣服한 날짜, 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이 親朝한 연월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바치게 했는데, 國史院에 보고하려는 것이었다[『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7월 정해(6일)].

A-2-①. 同修國史로 치사한 任翊과 史館修撰官 金賦에게 명해 先帝事跡을 찬수하게 하였다[『고려사』 권31, 충렬왕 21년 3월 정사(13일)].

A-2-②. 장군 柳溫을 원으로 파견하여 선제사적을 바쳤다[『고려사』 권31, 충렬왕 21년 10월 임술(22일)].

A-3. 원나라 중서성에서 牒文을 보내 이르기를 "成吉思皇帝(칭기즈칸) 이후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史策에서 抄錄하여 바치라고 했는데, 국사원의 건의를 따른 것이다[『고려사』 권35, 충숙왕 12년 12월 계미(7일)].

A-4. 원에서 直省舍人 實德을 보내 宋·遼·金의 三國事跡을 찾았다[『고려사』 권36, 충혜왕(후) 4년 5월 임오(18일) 및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후) 4년 5월].

자료 A-1·3에서는 원의 국사원이 역사 편찬의 요구 주체로 밝혀져 있다. 이와 비교하여 A-4는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역시 국사원에서의 삼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三史) 편찬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료 A-2는 고려에서 쿠빌라이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충렬왕의 자발적인 조치로 짐작된다.

자료 A-1은 1278년(충렬왕 4) 7월에 있었던 조치이다. 2년 전 남송을 아우르고 대일통을 이루어 앞서 편찬하려 했던 북방왕조의 역사인 요사·금사를 넘어 송사까지를 아우르는 삼사 편찬과 함께 제국(帝國)에 복속되어 있던 여러 나라의 사적을 전기 형식으로 편찬하려는 국사원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1276년 6월 편찬의 명이 내려진 『제국신복전기』가 그것이다.[4] 그것은 『평금록』·『평송록』의 찬수와 함께 대원 제국의 판도를 역사 편찬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때 충렬왕은 국왕으로서 첫 번째 친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중서성의 요구는 직접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충렬왕이 귀국한 이후에 추진되어야 했다.[5]

자료 A-2는 1295년(충렬왕 21) 3월과 10월의 조치이다. 동수국사로 치사한 임익과 사관수찬관 김변에게 『선제사적』을 편찬하게 하여 7개월 만인 10월에 장군 유온을 원에 보내 바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그 전해인 1294년 세조 쿠빌라이 황제의 사망으로 6월에 시작된 국사원의 『세조실록』 편찬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6] 이와 관련이 있다면, 중서성을 통한 국사원의 요구가 어떤 형식으로 고려에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세조의 장례를 위해 원에 머물렀던 충렬왕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1294년 8월 귀국 이후 첩문을 통해 전달

---

4 『원사』 권9, 본기9, 세조6, 지원 13년 6월 무인, "詔作平金, 平宋錄 及諸國臣服傳記 仍命平章軍國重事耶律鑄監修國史."

5 충렬왕은 7월 22일 상도를 출발해서 9월 25일 개경으로 돌아왔다.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7월 계묘(22일) 및 9월 을사(25일). 사실 이때 첫 번째 親朝 결과 원의 군대와 다루가치가 철수하여 世祖舊制라고 규정되는 고려와 원 관계의 전형이 마련되었다. 이익주, 1996, 「高麗·元 關係의 構造에 대한 硏究」, 『한국사론』 3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6 『원사』 권18, 성종1, 지원 31년 6월 갑진, "詔翰林國史院修世祖實錄 以完澤監修國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선제사적』이 원의 『세조실록』 편찬 동향에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세조를 이은 성종 테무르 정권에게 고려와 원, 원종 이후 충렬왕과 세조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충렬왕의 의도와 관련한 것이었다.

자료 A-3은 1325년(충숙왕 12) 12월에 시행된 중서성의 첩문이다. 국사원의 요청에 따라 칭기즈칸 황제 이후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사책(史冊)에서 초록하여 바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현의 『김공행군기』가 편찬되었다.[7] 자료 A-4는 1343년(충혜왕 후 4) 5월의 일로, 원에서 첩문을 통해 조치된 것이 아니라 관인이었던 실덕(實德)을 직접 파견하여 송·요·금의 사적을 조사했다. 이것은 그 직전인 3월에 있었던 국사원에서의 송·요·금 삼사 편찬에 대한 순제 토곤테무르의 조서와 관련이 있다.

원 간섭기 고려의 역사 편찬은 복잡다단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원의 요구에 의한 것과 고려 자체적인 것이 있었다. 또 전자에 의한 것도 수차례의 증보와 개찬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으며, 14세기 중반부터는 원의 요구로 편찬되었던 사서들의 개찬도 있었다. 이들을 당대사 편찬을 요구당한 원 간섭기 역사학이라는 평면적인 시선에서 검토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우선 자료 A-1과 관련한 부분만 대상으로 이 시기 역사 편찬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8] 그것은 이 시기 역사 편찬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사원은 원에서 한림과 역사 편찬의 임무를 맡았던 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한림국사원이었다. 1261년(중통 2) 7월 『요사』와 『금사』의 수찬을 요청한 한림학

---

7 『익재난고』 권6, 기,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박종기, 2012, 「원 간섭기 金就礪像의 형성과 當代史 연구」,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8 『선제사적』, 『김공행군기』, 『삼국사적』 등의 편찬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도 원의 역사 편찬 요구 동향과 관련한 것이지만, 자료 A-1과는 시기나 목적이 달랐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승지 왕악(王鶚, 1190~1273)의 건의로 창설되었다. 이때 그는 우승상 사천택(史天澤)을 감수국사, 좌승상 야율주(耶律鑄)와 평장정사 왕문통(王文通)을 감수로 삼아 『요사』·『금사』 편찬을 위한 유사(遺事)를 채방(采訪)하도록 건의했다.[9] 그렇지만 운영은 사실상 관서를 갖춘 1264년(지원 1) 9월부터로,[10] 『태조실록』의 편찬과 『요사』·『금사』의 수찬, 이를 위한 사국(史局) 설치에 대한 왕악의 건의를 쿠빌라이가 수용하면서부터다.[11] 대칸 자리를 두고 아릭부케와의 경쟁에서 최종 승리한 7월 직후의 조치였다. 연호 지원과 함께 『태조실록』의 편찬은 칭기즈칸에서 비롯하는 몽골의 적통을 계승한 쿠빌라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고, 『요사』·『금사』의 편찬은 몽골이 요·금의 북방왕조를 잇는 국가였다는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1273년(지원 10) 몽골은 국가 이름을 대원(大元)으로 바꾸고, 1276년 1월 남송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대일통을 이룩했다.[12] 5월에는 그 사실을 천지와 조종(祖宗)에 고하고,[13] 지지부진하던 『요사』·『금사』의 편찬을 넘어 『송사』를 포함

9 『원사』 권4, 본기4, 세조1, 중통 2년 7월 계해; 姜学科, 2021, 「元代翰林国史院设立过程考辨」, 『齐鲁师范学院学报』 36-3, 齐鲁师范学院文学院.

10 『원사』 권5, 본기5, 세조2, 지원 원년 9월 임신; 권87, 지37, 백관3, 翰林兼國史院. 한림국사원의 장관은 정3품에서 시작하여 1271년(지원 8) 종2품, 1305년(대덕 9) 정2품, 1312년(황경 1) 종1품으로 승격되었고, 실무책임자인 한림학사승지를 비롯한 소속 관료들의 정원이 꾸준히 증가·확대되었다. 고려인으로 국사원에 관원을 역임한 사람으로는 1333년(충숙왕 후 2) 원 제과 제2갑으로 급제해서 한림국사원 검열관을 제수한 이곡(『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과목2, 제과; 권109, 열전22, 이곡), 그의 아들로 1354년(공민왕 3) 역시 원 제과 제2갑으로 급제해서 국사원편수관을 제수한 이색(『고려사』 권115, 열전28, 이색; 『목은집』, 연보, 지정 14년)이 있다. 1344년(충목왕 즉위) 원 제과에 급제한 安輔도 국사원편수관에 추천되었지만 제수되지는 못했다. 『목은문고』 권19, 묘지 및 『동문선』 권128, 묘지, 「鷄林府尹謚文敬公安先生墓誌銘」. 한림국사원의 직제에서 검열관은 4명, 편수관은 10명이 정원이었다. 모두 정8품의 관직이었다.

11 『원사』 권160, 열전47, 王鶚.

12 『원사』 권9, 세조6, 지원 13년 정월 갑신.

13 『원사』 권9, 세조6, 지원 13년 5월 을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삼사 편찬을 추진하여 대일통에 걸맞은 역사 편찬을 추진했다.[14] 그리고 바로 6월에 『평금록』·『평송록』과 함께 『제국신복전기』를 편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때 평장사 국중사(國重事)였던 야율주가 감수국사로 책임을 맡았는데, 그는 몽골 건국에 공이 큰 야율초재의 아들이었다.[15] 이후 국사원은 실록을 비롯한 대원 제국의 역사 편찬을 이끌었다.

하지만 삼사 편찬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16] 또 3종의 편찬사업 중에 진전을 보인 것은 『평송록』만 확인된다. 이 책은 유민중(劉敏中, 1243~1318)에 의해 거의 30년 만인 1304년에 마무리되었다.[17] 『평금록』과 『제국신복전기』의 추진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평금록』과 관련해서는 찰한(察罕, ?~1322)이 만년에 몽골어로 번역한 『태종평금시말(太宗平金始末)』을 비교할 수 있지만,[18] 이 또한 전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제국신복전기』의 편찬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편찬의 명이 내려진 1276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사』「고려전」의 사원(史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전거가 1329년 편찬을 시작해서 1331년 완성된 『경세대전(經世大典)』의 정전 정벌의 고려문에 있고, 『경세대전』의 기록은 『제국신복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19] 그런데 『평송록』의 완성 시기를 참고할 때,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

14 『송사』, 進宋史表.

15 『원사』 권146, 열전33, 耶律楚材.

16 三史 편찬과 관련해서는 鄭夏賢, 1981, 「元朝에 있어서 正統論과 歷史編纂-遼金宋三史의 경우-」, 『공주사대논문집』 19, 공주대학교; 김양섭, 1989, 「遼·金·宋 三史編纂에 대하여-下命時期와 早期 未成要因을 中心으로-」, 『중앙사론』 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古松崇志, 2003, 「脩端「辯遼宋金正統」をめぐって-元代における『遼史』『金史』『宋史』三史編纂の過程-」, 『東方學報』 75,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이개석, 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대구사학』 88, 대구사학회 참조.

17 『흠정사고전서』 史部5, 雜史類, 「平宋錄」.

18 『원사』 권137, 열전24, 察罕.

19 정동훈, 2021, 「『元史』 高麗傳의 史源」, 『동방학지』 1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보이지 않는다. 또 『제국신복전기』의 편찬 명이 내려진 것이 1276년 6월인데, 고려의 예를 참고할 때 이에 대한 국사원과 중서성의 조치가 2년 후인 1278년 7월에서야 각국에 전달된 것을 보면 빠른 시간에 편찬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A-1의 요구를 고려에서 추진해가는 과정과 관련해서 후술할 예정인데, 1291년(지원 28)을 전후한 때로 추측할 수 있다.

『제국신복전기』의 수록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범위에 대해서는 『경세대전』 정전 정벌류와 『원사』 외이(外夷)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경세대전』에서는 정벌에 평송(平宋)을 포함하여, 고려(부 탐라)·일본·안남(安南)·운남·건도(建都)·면(緬)·점성(占城)·해외제번(부 爪哇)·평도자사(平倒剌沙) 등이 있고,[20] 『원사』에서는 고려·일본·안남·면국(緬國)·점성·섬국(暹國)·조왜(爪哇)·유구(瑠求)·삼서(三嶼)·마팔아등국(馬八兒等國)이 외이를 구성하고 있다.[21] 제국(諸國)의 범위는 대략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자료 모두 범위를 동(남)아시아로 국한하고 있어 실상과 차이가 있는데,[22]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23] 편찬의 명이 있었던 1276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때까지 대원의 판도에 속하게 된 고려와 베트남(安南), 미얀마(緬國)·참파(占城) 정도가 포함된다고 짐작된다. 또 『경세대전』의 정전 초포(招捕)에서 1276년 7월 이전에 원의 판도에 편입된 국가·정치

원, 95~97쪽.

20 『元文類』 권41, 「經世大典序錄」; 권용철, 2020, 「元代 政書 [經世大典]의 활용을 위한 신간 소개」, 『중국사연구』 128, 중국사학회. 또 정전 招捕에는 雲南·大理金齒·羅羅斯·車里·烏撒·烏蒙·東川·芒部·八百媳婦·八番順元諸蠻·宋隆濟·廣西兩江·黃聖許·岑氏·思播·海北海南·廣東·江西·福建·浙東·湖北·湖南·四川·西番·遼陽嵬骨·圓明和尙이 실려 있다.

21 『원사』 권208~210, 외이1~3.

22 고병익, 1965, 「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68~169쪽.

23 김호동, 2009,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109, 동양사학회. 서방 3汗國을 제외한 범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체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 A-1과 같은 중서성의 요구는 고려뿐만 아니라 당시 대원에 속한 제국에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4]

제국에서의 역사 편찬 시기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호를 지원으로 바꾼 1264년, 나라 이름을 대원으로 바꾼 1273년, 대일통을 이룬 1276년 정도가 거론될 수 있다. 삼사 및 『평금록』·『평송록』의 편찬 시기를 참조할 때, 1276년이 그 범위에 가까울 듯하다. 즉, 제국에서는 원과의 관계에서 1276년 6월 이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실들을 편찬하여 제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25]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다. 제목에서 유추해보면, 각국의 신복한 사실을 중심으로 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자료 A-1이다. 이에 따르면, 중서성에서는 고려에 본국누조사적, 신복한 날짜, 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이 친조한 연월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 A-1이 『제국신복전기』를 편찬하기 위한 국사원의 편찬지침이었다면, 그것은 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려의 경우에 원에 신복한 시기를 중심으로 전대사(本國累朝事跡)와 당대사(臣服日月, 帝登極已來使介名目, 國王親朝年月)로 나뉘어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6]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이 시기 고려의 역사 편찬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24 이와 별개로 諸國에서 보낸 사신들이 도착하면 예전의 職貢圖를 참고하여 그 나라의 풍속과 토산, 거리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원사』 권15, 세조12, 지원 25년 3월 임인 "禮部言 會同館蕃夷使者時至 宜令有司仿古《職貢圖》繪而爲圖 及詢其風俗, 土產, 去國裏程 籍而錄之 實一代之盛事 從之."

25 『원사』「고려전」의 1276년 이전 기록은 99% 이상 『경세대전』 高麗門의 내용을 생략하거나 요약하는 정도로 작성되었고, 그것은 『경세대전』이 『제국신복전기』의 기록을 史源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정동훈, 2021, 앞의 글, 86~97쪽. 이것은 『제국신복전기』의 편찬 시기를 1276년에서 멀지 않은 시점으로 추측하게 했는데, 편찬 시기이기보다는 『제국신복전기』의 자료수록 시기에 대한 편찬지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26 『원사』에서 『제국신복전기』의 편찬을 위해 고려는 물론 제국에서 편찬되었을 자료뿐만 아니라 이 자료 자체에 대한 어떤 단편도 찾을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과 『천추금경록』·『세대편년절요』

『제국신복전기』를 편찬하라는 쿠빌라이의 명은 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삼사 편찬의 부진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를 편찬하라는 황제의 명은 2년 후인 1278년 7월에야 중서성의 요구로 고려에 알려졌다. 그간 국사원에서 수찬 범례 또는 지침 마련을 위한 제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이라는 기간은 제법 길다. 자료 A-1이 『제국신복전기』의 「고려전기(高麗傳記)」 편찬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원에 신복한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역사인 고려역대제왕의 사적인 전대사와 신복 이후의 관계에 대한 당대사가 모두 실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제국신복전기』를 중심으로 할 때는 고려의 역사가 망라되었겠지만, 고려를 중심으로 할 때는 전대사와 당대사, 두 가지 방향에서 역사 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먼저 전대사 편찬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본국누조사적이다. 본국누조에 대한 범위는 왕실세계를 포함하여 태조부터 고려가 몽골(원)과의 관계를 맺기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그 하한은 두 나라의 관계, 즉 신복한 시기를 어느 때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었다. 충렬왕과 충선왕 때 편찬된 『천추금경록』, 『국사』, 『세대편년절요』 등이 이와 관련해서 검토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세대편년절요』는 『금경록』을 보완(수정) 및 개찬, 증수했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수 있다.

정가신이 편찬한 『천추금경록』에 대해서는 내용과 성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이를 수정 보완한 민지의 『세대편년절요』·『본조편년강목』과 비교하여 약간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B-1-①. (충렬왕) 16년에 세자가 원에 갈 때 鄭可臣과 閔漬 등이 따라갔다. 하루는 황제가 편전에 세자를 불러들여 팔걸이에 기대어 누워서 묻기를 "너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떤 책을 읽느냐?"라고 했다. (세자가) 대답하기를 "제게는 유학자 스승인 정가신·민지가 여기에 있으며, 숙위하는 여가에 때때로 『효경』·『논어』·『맹자』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정가신을 불러와서 시험해보자"고 하여 세자가 데리고 함께 들어가니 (황제가) 갑자기 일어나 冠을 쓰고 책망하며 말하기를 "너는 비록 세자이지만 나의 외손자이고, 저 사람은 비록 陪臣이지만 儒者이다. 어찌 내게 관을 쓰지 않고 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곧 자리에 앉게 하고 본국의 풍속, 세대에 따라 전승된 것, 治亂의 자취를 물었는데, 辰時에서 未時까지 들으면서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 당대의 辭命이 그의 손에서 나온 게 많았으며, 일찍이 『金鏡錄』을 편찬했다.

B-1-②. 황제가 한림학사 撒剌蠻을 시켜 정가신에게 본국이 (원에) 귀부한 연월을 묻게 했다. 정가신이 대답하기를 "태조황제께서 북방에서 나라를 일으키실 때 遼의 얼손으로 金山王子라는 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大遼라 칭하고, 中都의 자녀와 옥과 비단을 약탈하며 동쪽으로 달아나 江東城에 들어가 항거하며 지켰습니다. 조정에서 哈眞과 扎剌을 보내 토벌하게 했는데, 당시에 마침 눈이 많이 와서 길이 험하므로 군량도 계속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趙冲과 金就礪를 파견하여 군대를 구원하고 군량도 공급하여 흉악한 오랑캐를 섬멸했으며, 이를 계기로 글을 올려 東藩으로 삼아줄 것을 청한 바 있습니다. 태조께서 사신을 파견하여 은혜가 두터운 조서를 내려 답했는데, 여기에 이르기를 '그대 나라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힘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굳이 어려우므로, 그 공물로 바칠 방물은 짐이 사람을 보내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무인년에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무릇 76년입니다"라고 했다. … (『고려사』 권105, 열전18, 정가신).

B-2. 충렬왕이 일찍이 민지에게 명해 정가신이 찬술한 『千秋金鏡錄』을 增修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했는데 나라에 변고가 많았던 까닭에 완성할 겨를이 없었다. 후에 權溥와 함께 교열하고 찬술하여 완성했으니 『世代編年節要』라고 이름했다. 虎景大王으로부터 元王에 이르기까지 7권으로 나누었고 世係圖를 갖추어 올렸다. 또 『本國編年綱目』을 찬술하여 위로는 國祖 文德大王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는 고종에서 마쳤는데 책이 무릇 42권이었다. 그 昭穆에 대한 논의는 『편년절요』와 같지 않았다(『고려사』 권107, 열전20, 민지).

B-3. 直史館 吳良遇 등에게 명하여 國史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장차 元에 바치기 위해서였다[『고려사』 권30, 충렬왕 12년 11월 정축(15일)].

B-4. 評理 趙璉을 원에 보내 신년을 하례했고, 왕명으로 『세대편년절요』와 『금경록』을 가지고 가서 바치게 했다[『고려사』 권33, 충선왕 복위년 12월 무오(4일)].

자료 B-1-①은 1291년(충렬왕 16) 정월 원에서 세자였던 충선왕과 쿠빌라이의 대담이고, 자료 B-1-②는 1294년 5월 세조의 상을 치르면서 원에 머물러 있던 충렬왕과 성종 테무르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려사』「정가신」 열전에서는 대담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한림학사 살랄만과 정가신의 필담으로 이루어졌다.[27] 세자였던 충선왕은 1290년 11월 원으로 가서 이듬해 정월 B-1-①의 대담을 했다.[28] 이때 세자의 입원은 숙위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하나가 앞서 있었던 자료 A-1의 조치 결과와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는 『금경록』과 후술할 원부 등이 편찬한 『고금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국누조사적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자료

27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5월 갑인(5일).

28 『고려사』 권30, 충렬왕 16년 11월 정묘(28일) 및 17년 1월 계해(2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3의 『국사(國史)』이다. 『고려사』 세가에서는 정가신의 『천추금경록』에 대해 언급이 없고, 원에 바치기 위한 고려의 역사로 1286년 말 오양우 등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보다 2년 앞서 편찬된 『고금록』의 경우에 역사 편찬의 책임을 맡은 감수국사와 수국사가 참여하여 4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 달리 『국사』는 실무자인 직사관에게 맡겨 편찬하게 했다는 사실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또 편찬의 명만 있고, 이후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금록』의 경우 신복 날짜 등에 대한 민감한 현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국사』는 편찬 범위가 보다 넓고 내용도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국사』가 원에서 요구한 본국누조사적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추론을 더 하자면, 『국사』 편찬은 『천추금경록』을 대상으로 교열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29] 그랬기 때문에 실무자들로만 작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충선왕은 1309년(충선왕 1) 7월 충렬왕의 시호를 청하는 표문을 밀직부사로 치사한 오양우에게 짓도록 하

29 『동인지문오칠』에서는 정가신이 文鑑과 國史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충선왕이 세자로 원 황실에 入侍할 때 함께 가서 쿠빌라이를 알현하고 응대했다고 한다. 『東人之文五七』 권9, 「鄭可臣小傳」 "… 位至僉議中贊 大脩文監國史 初大尉瀋王以世子入侍闕庭 可臣從行 引見世祖 應對稱旨 …." 여기서의 국사는 『천추금경록』을 지칭하지만, 오양우 등의 『국사』와도 일정하게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사』에서는 1378년(우왕 4) 삼소조성도감 설치를 기록하면서 그 근거를 國史에서 찾고 있는데, 여기서의 國史는 『명종실록』으로 짐작된다. 즉, 국사는 특정서명이기보다 史書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과 관련해서 오양우 등의 『국사』와 정가신의 국사는 같은 사서를 지칭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천추금경록』의 개찬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즉, 정가신의 『천추금경록』을 개찬한 것이 오양우 등의 『국사』이고, 이를 다시 개찬한 것이 민지의 『세대편년절요』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정가신의 편찬한 사서를 『천추금경록』, 오양우 등이 개찬한 것을 『국사(금경록)』, 후에 이인복·이색이 편찬한 것을 『본조금경록』으로 부르고자 한다. 『고려사』 등에서의 국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오양우 등의 『국사』를 『구삼국사』와 『삼국사기』를 종합해서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사서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정구복, 1993, 「高麗 初期의 『三國史』 編纂에 대한 一考」,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회, 175~180쪽; 노명호, 2020,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三國史』의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역사학회, 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앞으로의 표문과 전문(箋文)도 오로지 그에게 맡기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30] 이것은 『국사』 편찬에 대한 그의 공을 인정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료 B-1-①을 검토하기로 한다.

자료 B-1-①은 원에서 고려에 요구했던 역사 편찬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쿠빌라이 때 원 국사원에서의 역사 편찬은 우선 한문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몽골어로 축약 번역해서 황제를 모신 자리에서 진독(進讀)한 후 여기서 나온 결과를 증보 또는 수정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다.[31] 『제국신복전기』가 몽골어로 번역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때 국사원의 요구로 고려에서 제출한 역사 편찬의 결과였을 『국사(금경록)』와 『고금록』은 진독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원에서는 쿠빌라이와 한림학사 살랄만 등이, 고려에서는 세자와 정가신·민지, 그리고 통역을 위한 통사(通事) 등이 참석했다. 살랄만은 원의 역사 편찬에 총책임자였던 대사도였던 살리만(撒裏蠻)과 동일인물로 보이며, 당시 국사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한림학사승지 올로대(兀魯帶)도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32]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추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원 세조는 고려의 풍속, 세대의 전승 관계, 치란의 자취 등을 물었고, 정가신은 이에 관해 설명했다. 논의는 진시(오전 7~9시)부터 미시(오후 1~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니 대략 6시간 정도 지속된 것이다.[33] 이때 정가신의 설명은 그가 앞서 찬술하여 원에 제출했다가 개찬된 『국사(금경록)』에 토대하고 있었을 것

30 『고려사』 권33, 충선왕 원년 7월 임인(22일).

31 김호동, 2009, 앞의 글.

32 『원사』 권16, 본기16, 세조13, 지원 27년 6월 정유, "大司徒撒裏蠻 翰林學士承旨兀魯帶 進定宗實錄."; 11월 임술 "大司徒撒裏蠻, 翰林學士承旨兀魯帶 進太宗實錄."

33 당시 세조는 「강남지도」와 함께 고려지도인 「海東輿地圖」를 열람하며 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황실에 들여 험난하고 쉬운 길을 묻기도 했다. 『원사』 권154, 열전41, 홍복원 附 洪君祥. 그의 이런 관심은 征東의 배후기지로서 고려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즉, 『천추금경록』과 같이 『국사(금경록)』는 고려의 풍속, 왕실세계의 전승 관계, 치란의 역사 등을 내용으로 했을 것이다.

C-1. 또 이런 말이 세상에 전해진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한림학사로 충선왕과 교류했던 어떤 사람이 충선왕에게 물었다. '언젠가 들어보니 왕의 선조께서는 당나라 숙종의 후손이라고 하던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숙종은 어려서부터 대궐 문을 나와 본 적이 없고 안녹산의 난 때 靈武에서 즉위했으니 어느 겨를에 동쪽으로 유람하여 아들까지 두었겠습니까?' 왕이 크게 난처해하며 대답을 못하자 곁에 있던 閔漬가 '그것은 우리 國史에서 잘못 썼을 뿐입니다. 숙종이 아니고 선종입니다'라고 응대했다. 한림학사는 '선종이라면 오랫동안 외지에서 고생했으니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수긍했다"(『고려사』, 「고려세계」).

자료 C-1은 의종 때 김관의가 지은 『편년통록』을 주로 하고, 이설(異說)에 대해서는 민지의 『본조편년강목』으로 보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려세계」의 내용 중 일부이다. 그런데 그 시점은 자료 B-1-①과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편년통록』에서의 수준과 같은 「고려세계」는 『국사(금경록)』에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가신은 당 숙종으로 이어지는 왕실계보를 설명했다. 그런데 원의 한림학사는 이런 고려 측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제국신복전기』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고려의 본국누조사적의 결과를 불신하는 것이기도 했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자 배석했던 민지는 우리 『국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대상을 숙종이 아닌 선종으로 수정하여 위기를 모면했다.[34] "선종이라면 그럴지 모르겠다"는 한림학사의 의구심이 있는 듯하

34 당 선종설은 이후 『周官六翼』에도 실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산천, "錢浦 在府西三十六里 周官六翼 唐宣宗隨商船渡海 初到開州西浦 時方潮退泥濘滿渚 從官取船中錢布泥上 然後下陸因名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서도 수긍할 수 있겠다는 반응에서 그렇다. 자료 C-1은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국사(금경록)』의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민지가 지칭하고 있는 『국사』는 다름아닌 정가신의 『천추금경록』을 오양우 등이 개찬한 『국사(금경록)』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개찬한 결과가 민지의 『세대편년절요』였을 것이다.[35]

『국사(금경록)』에 실렸을 「고려세계」는 『편년통록』의 수준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을 반드시 『편년통록』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왕실세계를 당 숙종과 연결시키는 계보는 예종 때 왕명으로 홍관이 편찬한 『세기(世紀)』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예종은 『편년통재』를 열람한 후에 홍관에게 삼한 이래의 사적을 모아 편찬하라는 명을 내렸는데,[36] 『세기』가 그 결과일 수 있다. 당 숙종으로 연결되는 왕실세계는 최소한 『편년통재』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왕실의 당 숙종설은 이미 고려에서도 『당서(唐書)』에 명확한 문헌이 없어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승휴는 "사신(史臣)이 어찌 태자(副君)가 몰래 외국을 유람한 일을 교서(矯書)의 글에 적었겠는가? 명확한 문헌이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 비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37] 그런데 왕실세계를 두고 벌어진 이 같은 논란은 원에도 알려졌고, 1291년 정월에 있었던 대담에서 당 숙종설에 대한 원 한림학사의 질문은 이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짐작된다. 원에서 고려의 왕실세계에 관심을 가져 자체에서

35 『천추금경록』이 『세대편년절요』로 增修된 배경에 대해 『천추금경록』에 脫漏된 부분에 불만을 가진 충렬왕의 명이라는 견해가 있다. 변동명, 1991, 「鄭可臣과 閔漬의 史書編纂活動과 그 傾向」, 『역사학보』 130, 역사학회, 4~14쪽. 하지만 그것은 1291년 고려와 원의 역사 논쟁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36 『고려사』 권121, 열전34, 홍관.

37 『제왕운기』 하권, 「본국군왕세계연대」, 自古受命君 "【唐書曰 肅宗少封忠王 本朝學士洪瓘 所撰世紀曰 唐忠王 遊松岳山 禮八眞仙 宿養子洞居士寶育家 則肅宗來遊明矣 … 或以唐書無明文爲難者 過矣 且唐之史臣 豈以副君潛遊外國之事 筆之於矯書之文耶 無明文 理然】." 「고려세계」에 대해서는 이정훈, 2017, 「고려시대 '고려세계(高麗世系)'에 대한 기록과 인식」, 『역사와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38]

한편, 『천추금경록』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도 견해가 분분하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이 안정복(1712~1791)에 의해 정가신의 사찬(私撰)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39] 하지만 이 책은 관·사찬의 관계 없이 원의 역사 편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에서 편찬한 첫 번째 역사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편찬 시기는 『국사』 편찬의 명이 1286년(충렬왕 12)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40] 『동인지문오칠』에서는 정가신이 문감(文監)과 국사(國史)를 크게 정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국사는 『천추금경록』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양우 등의 『국사』 역시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41] 구체적으로는 후술할 1284년 10월 이후 『고금록』과 함께 『천추금경록』이 원에 보내졌는데, 원에 개찬 요구에 따라 1286년 11월 오양우 등이 편찬한 것이 『국사(금경록)』였다고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료 B-4에서처럼 『국사(금경록)』는 원의 요구에 따라 다시 『세대편년절요』로 개찬

---

38 왕실세계에 대해 선종설을 수긍(?)한 원의 의견대로 『국사(금경록)』의 당 숙종설은 『세대편년절요』에서 당 선종설로 개찬되어 원에 제출되었지만, 고려에서는 여전히 당 숙종설이 함께 전해졌다.

39 『동사강목』 권13하, 충숙왕 4년 4월, "政丞閔漬撰進本朝編年綱目… 【按】…高麗時 鄭可臣嘗私撰金鏡錄 則此時無野史之禁 而忠烈亦命閔漬增修 則自上亦勸其成矣…."

40 후술할 『고금록』이 1284년(충렬왕 10) 10월 완성된 것으로 미루어 거의 같은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추금경록』이 고려 왕실세계를 둘러싼 고려와 원의 논쟁, 1294년 고려의 신복 날짜에 대한 고려와 원의 필담에 근거가 되었던 『국사』와 『고금록』을 계승·보완하기 위해 1294년경 왕명으로 찬술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서는 또 이 책이 왕권의 전제를 반대하여 감계주의적인 입장에서 찬술되었고, 왕실세계에 대해서는 『고려사』에서와 같이 3대를 추증한 사실만 기록하고 설화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실록을 참조하지 않은 태조 이후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조그마한 역사서였다고 한다. 민현구, 1996, 「閔漬」, 『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166~168쪽.

41 정가신의 『천추금경록』과 오양우 등의 『국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고인 「정가신(1224~1298)의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의 찬술과 역사 논쟁」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어 원에 보내졌다. 이때를 전후하여 정가신은 1284년(충렬왕 10) 12월 밀직학사로 하정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고, 1287년에는 경상도안무사를 지냈다.[42]

자료 B-2는 『천추금경록』과 『세대편년절요』의 관계와 그 내용에 대해 전하고 있다. 정가신이 전자를 찬술했고, 충렬왕이 민지에게 이를 증수하도록 했으나 국가에 일이 많아 미루어지다가[43] 후에 권보와 함께 교열하여 완성한 것이 『세대편년절요』였다. 이 책은 호경대왕부터 원종까지를 7권으로 실었고, 왕실의 세계도가 첨부되었다. 여기에서 『천추금경록』에 대한 정보를 약간 얻을 수 있다. 일단 『세대편년절요』가 『금경록』을 증수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사(금경록)』는 대략적인 범위에서 『세대편년절요』와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싣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록 범위가 호경대왕부터 원종 때까지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점은 왕실의 선계에서 『천추금경록』과 『국사(금경록)』는 당 숙종, 『세대편년절요』는 당 선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과 『세대편년절요』에는 『천추금경록』·『국사(금경록)』와 달리 왕실의 세계도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291년 정월 원과의 대담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 『세대편년절요』였다.[44] 특히 당 숙종으로 설정되었던 잘못된(?) 왕실세계를 당 선종으로 바로

---

42 『고려사』 권29, 충렬왕 10년 9월 기해(25일) 및 12월 갑진(1일); 『고려사』 권30, 충렬왕 13년 6월 갑자(5일). 또 정가신은 1291년 僉議贊成事 世子貳師를 제수하여 세자의 스승이 되었고, 이후 세자가 쿠빌라이를 만날 때에는 항시 배석했다. 『고려사절요』 권21, 충렬왕 17년 9월.

43 『고려사』에서는 『세대편년절요』의 편찬이 늦어진 이유를 "國家多故 未暇及焉"이라고 했는데(『고려사』 권107, 열전20, 민지), 직접적인 배경은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가 왕위를 두고 벌인 갈등에 있었다고 짐작된다. 충렬왕이 『천추금경록』을 『세대편년절요』로 개찬하라는 명을 내린 배경도 원과의 관계가 아닌 이와 관련해서 추측되고 있지만(변동명, 앞의 글, 14~20쪽), 직접적인 것은 원과의 대담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44 『세대편년절요』의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閔漬가 동수국사에 임명되는 1299년경명이 내려져 충선왕이 복위하기 이전에 마무리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민현구, 1996, 앞의 글, 166~1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과로 여겨졌다. 이에 민지는 『세대편년절요』를 편찬하면서 「세계도」를 특별히 제작하여 함께 원에 제출했다. 개찬의 결과를 강조하려는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이때 제작된 「세계도」에 대해서는 그의 묘지명에 자세한 내용이 전해진다.

C-2. 公은 일찍이 前世의 자취는 人主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한없이 많아 두루 보기 어렵다고 여겨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올렸다. 무릇 왕도와 패도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세대의 길고 짧음, 도읍을 정하고 연호를 세우는 것, 합해짐과 분열됨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황색·붉은색과 검은색이 혹은 늘어서고 혹은 무리를 이루어 마치 그물에 벼리가 있고 구슬이 꿰어져 있는 것과 같으니 온 세상이 감복하였다. … 神聖(태조)의 계통이 宣宗에게서 나왔다고 서술하여 여러 代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太尉王(충선왕)이 보배처럼 중요하게 여겨 후하게 상을 내려 주었다(「閔漬墓誌銘」, http://db.history.go.kr).

자료 C-2에서 『국사(금경록)』를 증수한 『세대편년절요』가 크게 달라진 점은 왕실세계가 수정된 것이다. 그것은 또 대담을 통해 원으로부터도 공인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적어도 고려 전기부터 당 숙종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왕실세계는 오랫동안의 잘못으로 치부되었고, 그것이 원을 통해 바로잡힌 것이다. 충선왕이 이 「세계도」를 보배처럼 여겼다는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1308년(충선왕 복위) 12월 충선왕은 이듬해의 신년하례를 위해 평리 조연을 원에 보내면서 『세대편년절요』와 『국사(금경록)』를 바치게 했다(자료 B-4). 이것은 두 책을 모두 원의 국사원에 보내 앞서의 결과를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짐작된다. 이때 「세계도」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세대편년절요』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추측된다.[45]

45 이 「세계도」가 독립 저작인지, 『세대편년절요』에 부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실 1278년 본국누조사적과 당대사 편찬에 대한 원의 요구 이후 역사와 관련한 고려와 원의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된 듯하다. 자료 B-1과 C-1은 그 단편을 보여준다. 이에 고려에서는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고, 1307년(충렬왕 33) 11월 충선왕의 명으로 직사관 윤기(尹頎)가 선대 실록 185책을 원에 반출했던 것도[46]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역대실록은 1312년(충선왕 4) 5월 고려로 돌려보내졌는데,[47] 원과의 논쟁이 일단락된 결과일 것이다. 원에 반출된 고려의 역대실록은 후술할 당대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다.[48]

역사서의 명칭에 붙은 '본조(本朝)', '본국(本國)'에서도 그런 동향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대편년절요』는 『편년절요』 또는 『본국세대편년』으로 불렸다.[49] 여기에서의 본국은 원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인 '본국누조사적'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립국으로서 고려의 정체성을 담으려 했던 의도로 해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 용어들이 이 시기에 국한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50] 하지만 이들은 특히 대외관계에서 상대국에 대해 자국을 지칭하는 개

나뉘어 있다. 민현구, 1987, 「閔漬와 李齊賢」,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허흥식, 1988, 「閔漬의 詩文과 사학」, 『교육연구지』 30, 경북대학교.

46 『고려사』 권32, 충렬왕 33년 11월 병술(25일).

47 『고려사』 권34, 충선왕 4년 5월 임인(7일).

48 한편, 고려에서는 왕실세계가 당 황실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원에 드러내고 싶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그것이 당 숙종이든 선종이든 원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도 고려에서 이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유는 부계로 이어지는 고려 왕실과 당 황실의 관계를 모계로 이어지게 된 고려 왕실과 원 황실의 관계와 비교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다.

49 『익재난고』 권9 상, 세가, 「有元贈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翊順功臣太師開府儀同三司尙書右丞相上柱國忠憲王世家」.

50 『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노비 "成宗元年六月 正匡崔承老上書曰 本朝良賤之法 其來尙矣 我聖祖創業之初 …."; 권3, 성종 4년 5월 "王遷延不發兵 國華諭以威德 王始許發兵西會 國華乃還 先是 契丹伐女眞 路由我境 女眞謂我導敵構禍 貢馬于宋 因誣譖 高麗與契丹 倚爲勢援 摽掠生口 韓遂齡之如宋也 帝出女眞所上告急木契 以示遂齡曰 歸語本國 還其所俘 王聞之憂懼 及國華至 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51] 즉, 여기서의 '본조'와 '본국'의 의미는 원을 상대로 한 고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역사를 통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원에서 요구한 본국누조사적의 편찬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가 1284년 10월 이후 『고금록』과 함께 원에 보내졌을 『천추금경록』이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에서 이에 대한 개찬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1286년 11월 직사관 오양우 등에 의해 편찬된 『국사(금경록)』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자료는 『제국신복전기』의 편찬을 위한 고려 측의 본국누조사적으로 제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291년 정월 이를 대상으로 한 진독의 결과 왕실세계에서 당 숙종을 선종으로 개찬한 『세대편년절요』(7권, 세계도 첨부)가 1308년경에 편찬되어 최종본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Ⅳ. 신복 일월(臣服日月)·황제 등극 이래 국왕 친조 연월(帝登極已來 國王親朝年月) 등과 『고금록』

1278년 4월 본국누조사적의 편찬과 함께 중서성에서는 신복한 날짜, (세조)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이 친조한 연월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바치라는 요구도 했다(자료 A-1). 이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정리되어 원에 제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부가 편찬한 『고금록』을 이와 관련해서 검토할

語曰 女眞貪而多詐 前冬再馳木契 言契丹兵將至其境 本國猶疑虛僞 未卽救援 契丹果至 殺掠甚衆 餘族遁逃 入于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兵追捕 呼我戍卒言 女眞每寇盜我邊鄙 今已復讎 整兵而回 於是女眞來奔者二千餘人 皆資給遣還 不意 反潛師奄至 殺掠吾吏民 驅虜丁壯 沒爲奴隸 以其世事中朝 不敢報怨 豈期反相誣告 以惑聖聰 本國世禀正朔 謹修職貢 深荷寵靈 敢有二心 交通外國 況契丹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無路可從 且女眞逃難 受本國官職者 十數人尙在 望召赴京闕 令入貢之使庭辨 庶幾得實 願達天聰 國華許諾."

51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역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고려를 本朝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도 참고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있다.

고려에서는 이에 앞서 『고금록』을 편찬한 경험이 있다. 11세기 후반 송과 요의 관계에서 외교문서의 대부분을 지었던 박인량(?~1096)의 『고금록』이 그것이다. 그는 송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을 떨친 경험이 있고, 압록강 건너편을 경계로 하려는 요에게 대국으로서의 아량을 베풀 것을 청하는 진정표로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한 바 있다.[52] 비서성에 보관되었던 『고금록』(10권)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또 다른 저작으로 신라 이래 고려 전기까지 전래된 기이한 사실을 기록한 『수이전』이 『고금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53] 하지만 『고금록』은 고려와 송·요의 관계와 관련된 자료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서 『요사』에서는 고려에서 편찬한 『대요고금록(大遼古今錄)』과 『고려고금록(高麗古今錄)』이 확인된다.[54] 이 책들이 박인량의 『고금록』과 같은 책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55] 여기서 '고금'의 기점은 고려가 요와 통교한 때가 되지 않을까

52 『고려사절요』 권6, 숙종 원년 9월.

53 곽승훈, 2011,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54~55쪽.

54 『요사』 권42, 지12, 曆象志 下, 曆, "… 聖宗統和十二年 汗州刺史賈俊進新曆 則大明曆是也 高麗所志大遼古今錄 稱統和十二年 始頒正朔改曆 驗矣 大明曆本宗祖冲之法 具見沈約宋書."; 『요사』 권63, 표1, 世表, "契丹王屈戍 武宗會昌二年授雲麾將軍 是為耶瀾可汗 幽州節度使張仲武奏契丹舊用回鶻印 乞賜聖造 詔以奉國契丹為文 高麗古今錄作屈戍."

55 『해동역사』에서는 이를 박인량의 저술로 추측했다. 『해동역사』 권43, 예문지2, 經籍2, 本國書目2, "高麗古今錄 …【按】… 遼史所稱疑卽朴寅亮所撰也." 이에 대해 이를 이 글의 주제인 원부 등이 편찬한 『고금록』으로 파악한 견해가 최근 제출되었다(정동훈, 2023, 「『遼史』 高麗傳의 史源」, 『동양사학연구』 163, 동양사학회, 72~74쪽). 三史 편찬과 관련한 『大遼事跡』이 『遼史』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요사』 권36, 지6, 兵衛志 下, "邊境戍兵【又得高麗大遼事蹟 載東境戍兵 …】"; 권44, 지14, 曆象志 下)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해동역사』에 따라 논지를 전개한다. 『대요고금록』·『고려고금록』에서의 수록 범위가 고려 전기에 이르고 있음은 세조 황제 이후를 범위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편찬된 원부 등의 『고금록』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싶다. 그때는 거란과 접촉이 시작된 922~924년 어간일 수 있고,[56] 942년(태조 25) 양국의 국교가 단절된 후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994년(성종 13)부터일 수도 있다.[57] 즉, 박인량의 『고금록』 10권은 고려가 송·요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작성된 고주(告奏)·표장(表狀) 등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정리한 자료일 수 있다.[58]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1284년(충렬왕 10)에 편찬된 『고금록』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D. 監修國史 元傅, 修國史 許珙·韓康 등이 『古今錄』을 편찬했는데, 10월에 이르러 완성했다(『고려사』 권29, 충렬왕 10년 6월 병자(30일).

『고금록』은 1284년 6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4개월 만인 10월에 완성되었다. 원부가 감수국사로 책임을 맡았고,[59] 수국사로 허공과 한강이 참여했다. 내용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의 『고금록』이 송·요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자료일 것이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역시 1278년 7월 원 중서성의 요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6 『고려사』 권1, 태조 5년 2월 "契丹來遺橐駝馬及氈"; 『요사』 권1, 본기1, 태조 상, 태조 9년 10월 무신, "釣於鴨綠江 新羅遣使貢方物 高麗遣使進寶劍."

57 『고려사』 권3, 성종 13년 2월 "始行契丹統和年號." 『大宋古今錄』의 편찬을 상정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962년(광종 13)부터일 것이다. 『고려사』 권2, 광종 13년; 『송사』 권1, 태조기1, 건륭 3년 11월 병자.

58 『고려사』 권95, 열전8, 박인량, "… 寅亮 文詞雅麗 南·北朝告奏·表狀 皆出其手 嘗撰古今錄十卷 藏秘府 …." 이에 대해 고려와 거란의 역대 국왕의 사적을 기록한 사서라는 견해도 있다. 박한남, 1994, 「《편년통록》과 기타 사서의 편찬」, 『한국사』 17-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85~187쪽.

59 이에 앞서 원부는 1277년(충렬왕 3) 5월 감수국사 柳璥의 책임 아래 동수국사 金坵와 함께 수국사 자격으로 『고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바 있다.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5월 임인(14일). 이때 전 추밀부사 任睦의 史藁를 열어보았는데 빈 종이여서 수찬관 朱悅이 임목을 탄핵할 것을 청했지만, 류경과 원부는 저지하고 들추어내지 못하게 했다. 원부도 직사관이었을 때, 사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사』 권107, 열전20, 원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른 편찬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초의 요구가 있은 지 6~8년이 지난 후에 편찬사업이 이루어진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고려에서 『고금록』과 『국사(금경록)』가 편찬된 1284~1286년을 전후한 시기에 원의 역사 편찬에 대한 동향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는데, 하나는 『제국신복전기』 등의 편찬을 책임졌던 감수국사 야율주가 1282년 10월 중서좌승상에 다시 임명된 사실이다.[60] 다른 하나는 1286년 12월에 국사원이 찬수한 태조 이래의 실록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진독한 후에 찬정하게 하라는 한림승지 살리만의 건의이다.[61] 사실 이 시기는 원이나 고려 모두 일본정벌에 국력을 경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편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야율주가 중서좌승상에 임명되면서 감수국사로서 앞서 명을 받았던 『제국신복전기』 등의 편찬을 챙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고려에서의 『고금록』과 『국사(금경록)』 편찬은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고금록』의 편찬 대상은 세 가지였다. 신복한 날짜, (세조)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이 친조한 연월이 그것이다. 제국에 편입된 고려를 통치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였다. 이 중에 세조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고려 국왕이 친조한 연월에 대한 자료는 작성하는 데 그리 어려울 것이 없었다. 말 그대로 당대사였기 때문이다.[62] 특히 복속국 국왕의 친조는 원에서 신복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1218년 화친 이

60 『원사』 권12, 세조9, 지원 19년 10월 신묘, "以平章軍國重事, 監修國史耶律鑄爲中書左丞相." 야율주는 1년 후에 파직되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원사』 권146, 열전33, 耶律楚材 "二十年冬十月 (耶律鑄)坐不納職印, 妄奏東平人聚謀爲逆, 間諜幕僚, 及黨罪囚阿里沙 遂罷免 仍沒其家貲之半 徙居山後."

61 『원사』 권14, 세조11, 지원 23년 12월 무오.

62 국왕 친조와 사신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동훈, 2017, 「고려 元宗·忠烈王대의 親朝외교」, 『한국사연구』 177, 한국사연구회; 정동훈, 2019, 「고려 원종·충렬왕대 대몽골 사신 인선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7, 한국중세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 국왕 친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몽골과 달리 1270년 초에 비로소 친조한 고려는 복속한 시기가 원 제국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여 늦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복한 날짜, 즉 고려가 원에 귀부한 날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것은 또 '고금'의 기점과도 관련이 있다. 『천추금경록』과 『국사(금경록)』, 『세대편년절요』의 하한이 원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점은 원종(古)과 충렬왕(今)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고금록』보다 늦게 편찬된 『본조편년강목』의 하한이 고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점은 고종(古)과 원종(今)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 고려에 대한 원의 시각도 반영되어야 했다. 두 나라는 그 관계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원은 고려가 신복한 시기를 1218년(고종 5) 카다안과의 강동성 전투 때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때 고려는 항복하고 매해 조공할 것을 청했다고 한다.[63] 그런데 고려는 강동성 전투를 둘러싼 양국 관계를 당시에는 형제 수준의 강화 외교로 기대했다.[64] 고려는 몽골과 사대관계를 맺은 때를 1231~1232년(고종 19)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특히 1232년 4월에는 신하를 칭하는 표문을 올렸다. 이때부터 몽골은 고려의 상국이고, 대국이었다. 그러면서도 고려는 몽골에 대해 상국·대국의 용어와 함께 수평적인 관계에 가까운 귀국(貴國)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여[65] 이때까지 몽골

63 『원사』 권1, 본기1, 태조5, 태조 13년, "是年 伐西夏 圍其王城 夏主李遵頊出走西涼 契丹六哥據高麗江東城 命哈眞, 剳剌率師平之 高麗王皞遂降 請歲貢方物." 이때의 일은 1232년(고종 19) 몽골 황제에게 올린 陳情表에 보다 자세하다.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11월.

64 『고려사』 권103, 열전16, 조충 및 김취려. 사실 고려가 몽골을 사대하는 표문은 1218년 몽골이 거란 토벌을 위해 고려 국경에 들어왔을 때부터 확인되기는 한다. 『동국이상국전집』 권28, 書·狀·表, 「謝蒙古皇帝表【不行】」; 「蒙古國使齎廻 上皇帝表」, "云云 星使鼎來 天書狎至 傴僂拜命 欣悚交懷【中謝】…【此已上 蒙古以討契丹入境時所著】."

65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4월 임술(12일); 송병우, 2015, 「『고려사』 소재 외교문서에 나타난 중국 국가 직접 呼稱語와 고려 自稱語의 유형과 대립 양상」, 『석당논총』 6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려는 1218년의 접촉을 신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원에 설득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66] 신복의 선후는 원에 속한 제국(諸國)의 위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67] 이 시기 고려의 역사 편찬 방향 중의 하나도 이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데 있었다.

몽골 사신인 주구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몽골은 고려가 살해한 것으로 이해했고, 이로 인해 1231년(고종 18) 전쟁이 발발하자 고려 국왕이 항복을 청했다고 했다.[68] 이에 대해 고려는 인근 도적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한 오해로 국교가 단절되었다고 인식했다.[69] 살해 원인에 대한 고려의 수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불구하고[70] 이를 명분으로 한 몽골의 고려 정벌은 끝나지 않았다.

1231년의 강화 천도는 몽골의 입장에서 반역이었고,[71] 이후 그들의 고려 침입은 이를 진압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고려는 몽골이 정벌할 것이라는 소문에 무서워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해명만 했다.[72] 국왕의 친조와 무인집정자의 출륙, 천도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달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73] 이후 휴전과 전쟁을 교차해가면서도 고려는 몽골을 사대했지만, 국왕의 친조와 개경으로의 출륙이 이루어지

66 고려는 쿠빌라이 사후 칭기즈칸 때 몽골에 가장 먼저 복속했다는 '솔선귀부'의 기억을 생산하여 교섭에 적극 활용했다. 고명수, 2014, 「몽골의 '복속' 인식과 蒙麗관계」,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67 『원사』 권7, 세조4, 지원 7년 2월 을미, "詔諭禑曰 汝內附在後 故班諸王下 我太祖時亦都護先附 卽令齒諸王上 阿思蘭後附 故班其下 卿宜知之."

68 『원사』 권2, 본기2, 태종 3년 8월, "是月 以高麗殺使者 命撒禮塔率師討之 取四十餘城 高麗王皞遣其弟懷安公請降 撒禮塔承制設官分鎭其地 乃還."

69 『고려사』 권22, 고종 12년 1월 계미(22일).

70 『고려사』 권23, 고종 18년 12월 경진(29일) 및 19년 11월.

71 『원사』 권2, 본기2, 태종 4년 4월 "高麗叛 殺所置官吏 徙居江華島."

72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9월.

73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11월 「答蒙古沙打官人書」 및 「上皇帝陳情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않는 한 강화의 고려 정부는 몽골에 반란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의 교섭 끝에 국왕을 대신해서 태자의 입조라는 결과를 얻은 몽골은 그곳에 있던 고려 태자를 지원하여 왕위에 즉위시켜 절반의 성공을 했다. 그들은 왕전(王倎)을 3년간 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고려에서 국왕이 사망하는 변수가 생겼다. 따라서 몽골은 고려 세자의 즉위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고려를 회유하여 병탄하려는 계획에서였다.[74] 이제 원종 정권은 전 시대와 달리 몽골제국의 일원에 속하게 되었다. 출륙도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원종이 환국해서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국정을 대리하고 있던 태손에게 출륙을 요구하는 몽골황제의 조서가 접수되었다. 몽골에게 고려 국왕의 친조와 출륙은 사대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원종이 환국해서도 출륙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무인집정자가 김준에서 임연으로 바뀌었고, 1269년(원종 10) 임연은 원종을 폐위시키고 안경공 왕창(王淐)을 옹립했다.[75] 몽골의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히 또 다른 반역이었다.[76] 몽골은 황제의 조서를 통해 원종 정권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고,[77] 원종은 복위할 수 있었다. 12월 임연의 반란 상황을 보고하려고 몽골에 입조했던 원종이 1270년 돌아오면서 5월 전격적인 출륙이 이루어졌다. 이 와중에 임연의 여당(餘黨)으로 알려진 배중손 등이 승화후 왕온(王溫)을 왕으로[78] 삼아 진도를 근거지로 군사적인 행동을 벌였다. 몽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고려 국왕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273년(원

74 『원사』 권4, 본기4, 세조1, 중통 원년 3월 신묘, "陝西宣撫使廉希憲言 高麗國王嘗遣其世子倎入覲 會憲宗將兵攻宋 倎留三年不遣 今聞其父已死 若立倎 遣歸國 彼必懷德於我 是不煩兵而得一國也 帝是其言 改館倎 以兵衛送之 仍赦其境內."

75 『고려사』 권26, 원종 10년 6월 을미(21일).

76 『원사』 권154, 열전41, 홍복원, "至元六年 高麗權臣林衍叛 冬十一月 詔以其軍三千從國王頭輦哥討平之 遷江華島所有臣民 復歸王京 …."

77 『고려사』 권26, 원종 10년 8월 무술(25일); 11월 임자(11일).

78 『고려사』 권26, 원종 11년 6월 기사(1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종 14) 5월 탐라에서 김통정이 제거된 후 비로소 평정될 수 있었다.[79] 이것은 원의 일본정벌을 위한 정지작업이기도 했다. 원으로서는 1218년 이후 반란을 거듭한 고려를 55년 만에 평정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고금록』에는 이런 민감한 현대사가 실려야 했다. 원의 요구에 맞춰 편찬이 이루어졌겠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의 입장을 녹여내야 했을 것이다. 『원사』「본기」에서 주구유의 사망 원인을 고려가 살해했다고 기록한 것과 달리 「고려전」에서 도적에 의한 살해로 정리된 것은[80] 그런 노력의 결과로 여겨진다.

고려의 신복 시기에 대한 원의 관심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1294년 5월에 있었던 충렬왕과 성종 테무르 사이에 오간 필담이 대표적이다. 이때는 쿠빌라이의 장례 기간이었고, 황손이었던 성종이 즉위한 직후였다. 충렬왕과 세자인 충선왕은 원에 있었고, 정가신 또한 마찬가지였다. 신복 시기에 대한 질문은 성종의 지시에 따라 한림학사 살랄만이 충렬왕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충렬왕도 정가신에게 답신을 하도록 했다. 그것이 자료 B-1-②이다.[81] 한림국사원에서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직전에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은 고려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짐작된다.

자료 B-1-②와 관련해서 『고려사』 세가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부분적으로 다른 표현이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세가에서는 거란 잔당이 세운 대요(大遼)의 전신이 대세국(大勢國)이었고, 이를 물리친 공을 포장하기 위해 칭기즈칸이 보낸 사신의 이름을 경도호사(慶都虎思)로 밝히고

---

79 『원사』 권154, 열전41, 홍복원, "至元六年 高麗權臣林衍叛 冬十一月 詔以其軍三千從國王頭輦哥討平之 遷江華島所有臣民 復歸王京 … 八年二月 … 林衍餘黨裴仲孫等 立高麗王禃親屬承化侯爲王 引三別抄軍據珍島以叛 五月 茶丘奉旨 偕經略使欣都進兵討之 破其軍 殺承化侯 其黨金通精率餘衆走耽羅 … 十年詔茶丘與欣都率兵渡海 擊破耽羅 獲通精 殺之 悉免其脅從者 高麗始平."

80 『원사』 권208, 열전95, 외이1, 고려, "(太祖)十九年二月 著古與等復使其國 十二月 又使焉 盜殺之于途 自是連七歲絶信使矣."

81 최윤정, 2013, 「駙馬國王과 國王丞相-13~14세기 麗元관계와 고려왕조 國體 보존 문제 이해를 위한 새로운 모색-」, 『대구사학』 111, 대구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82] 반면에 자료 B-1-②에서는 "그대 나라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힘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어려우니, 공물로 바칠 방물은 짐이 사람을 보내 가져올 것"이라는 원 태조의 조서 내용이 실려 있다.

원의 한림학사 살랄만은 정가신에게 고려의 귀부 연월일에 대해 물었다. 정가신은 대요를 칭한 거란유종의 금산왕자가 고려의 강동성을 점거했을 때 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물리친 사실과 이를 계기로 고려가 원의 동번(東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76년이나 되었다고 하여 원의 태조 황제 때부터였음을 강조했다. 정가신의 이런 설명은 원부 등이 편찬하여 원에 제출한 『고금록』에 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1278년 당대사 편찬과 관련한 첫 번째 요구사항이 신복한 날짜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충선왕은 1309년(충선왕 1) 2월에 『충헌왕실록』을 편찬하라는 명을 내렸다.[83] 이것은 원이 고종의 시호를 '충헌'으로 내림에 따라 1277년(충렬왕 3) 5월에 편찬된 『고종실록』을[84] 이에 맞게 개찬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고려가 고종의 시호를 청하는 표문을 원에 보낸 때가 1309년 7월이고,[85] 시호가 고려에 도착한 때는 1년 뒤인 1310년 7월이다.[86] 따라서 1309년 2월의 『충헌왕실록』 편찬이 1년 6개월 후에 도착할 시호를 예상하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277년 5월의 『고종실록』 편찬이 늦었지만 정상적인 실록 편찬 작업이었다면, 1309년의 『충헌왕실록』은 고종 때 몽골(원)과의 관계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개찬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두 나라의 사대관계 시작을 1231~1232년으로 인식했던 고려의 시각을 원에서의 인식에 맞게 보정할 필요가 있었다. 1291년 세조 쿠빌라이와 고려 세자인 충선왕 사이에

82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5월 갑인(5일).
83 『고려사』 권33, 충선왕 원년 2월 무인(24일).
84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5월 임인(14일).
85 『고려사』 권33, 충선왕 원년 7월 임인(22일).
86 『고려사』 권33, 충선왕 2년 7월 을미(20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었던 대담 역시 그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309년 편찬의 명이 있었던 『충헌왕실록』의 원래 명칭은 『고종실록』이었지만, 편찬과정에서 고종의 시호가 정해지자 이후 『충헌왕실록』으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87] 당대사를 두고 벌어진 두 나라의 인식 차이를 보정하는 것은 고려의 정체성과 국익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충선왕은 고려의 역대실록을 반출하면 안 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실록을 원으로 가져가 원 조정을 상대로 역사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홍중희 등이 벌였던 입성책동에 충선왕은 역대실록은 물론 『국사(금경록)』와 『고금록』 등을 활용하여 고려 왕실이 조상 대대로 원에 신복해온 공적을 강조하며 반대했을 것이다. 그 결과 1312년 원은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88] 원에 반출되었던 역대실록은 이때 고려에 반환되었다.[89] 원의 고려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고려의 역사 편찬 방향이 왜곡될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 고려의 정체성과 국익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원사』에서는 1303년(충렬왕 29) 한림직학사로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왕약(王約, 1252~1333)의 저술로 『고려지』 4권이 있었던 사실을 전한다.[90] 그는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를 이간시킨 오기(吳祈) 등의 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1303년 9월 원을 출발해서 11월 고려에 왔다.[91]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와 그 일당의 처벌을 일단락한 후 1304년 1월 중순 원으로 돌아갔다.[92] 그가 고려에 머문 기간은 고작 4개월여이다.

---

87 『충경왕실록』은 1311년 11월 편찬의 명이 있었고, 1331년 9월 개찬되었다. 『고려사』 권34, 충선왕 3년 11월 경자(3일) 및 권36, 충혜왕 원년 9월 병신(24일).

88 『고려사』 권34, 충선왕 4년 6월 무진(4일).

89 『고려사』 권34, 충선왕 4년 5월 임인(7일).

90 『원사』 권178, 열전65, 王約.

91 『원사』 21, 성종4, 대덕 7년 9월 병인; 『고려사』 권32, 충렬왕 29년 11월 신유(8일).

92 『고려사』 권32, 충렬왕 30년 1월 병인(14일) 및 경오(18일). 吳祈는 1304년 10월 원에서 태형에 처해진 후 安西로 徒配되었다. 『원사』 21, 성종4, 대덕 8년 10월 무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려의 역사부터 지리·풍속·호구·토지·도로 등에 대한 전반을 담은 자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관직 초기에 한림국사원편수관을 지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 책은 그가 고려를 다녀간 후 원의 입장에서 고려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편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천추금경록』·『국사(금경록)』·『세대편년절요』·『고금록』 등과 원에 반출된 역대실록이 『고려지』의 편찬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료는 원이 고려에 요구했던 여러 역사 편찬과 달리 고려를 통치하기 위해 원 조정 나름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고금록』의 수록 범위가 신복한 시기와 함께 세조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이 친조한 연월에 대한 것이라면, 그 시기는 원종과 충렬왕 10년 이전을 아우른다. 그런데 충렬왕 때의 사실은 포함하기 어렵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당대(當代)의 기록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범위는 고려와 몽골이 첫 번째로 접촉한 1218년부터 원종 때까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원종은 친조를 통해 쿠빌라이 정권과 첫 대면을 하고, 원의 전략에 의해 즉위와 복위를 할 수 있었으며, 출륙으로 개경 환도도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 이와 세트로 편찬된 『천추금경록』과 『국사(금경록)』, 『세대편년절요』의 수록 범위가 원종 때까지였다는 점도 이런 추론을 보강할 수 있다.

V. 맺음말

원 간섭기의 당대사 편찬은 이 시기 역사학의 특성 중에 하나로 규정되고 있지만, 고려시대 전체를 당대사(當代史)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그 결과로 편찬된 역사서가 온존하게 전해지지 않아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원의 역사 편찬 동향을 살펴보고, 그 토대에서 고려의 역사 편찬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범위는 일차적으로 1278년 11월의 본국누조사적과 당대사 편찬으로 한정하고자 했다. 이때의 편찬 요구가 원의 첫 번째 것이었고, 그 지침이 이후 편찬된 사서의 편찬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던 통사류와 당대사 편찬은 증수와 개찬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 가운데 고려에서는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1276년 남송에 항복을 받은 세조는 북방의 요·금과 남방의 송을 아우르는 삼사(三史)와 『평금록』·『평송록』, 그리고 『제국신복전기』의 편찬을 명했다. 대일통으로 이룬 제국(帝國)의 판도를 역사 편찬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1278년 중서성에서는 고려에 본국누조사적과 신복(臣服)한 시기 등에 대한 자료를 편찬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국사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원의 『제국신복전기』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원과의 관계에서 전대사(前代史)에 속했던 본국누조사적의 첫 번째 결과물은 『천추금경록』이었을 것이다. 이 사서는 1284년(충렬왕 10) 10월 이후 『고금록』과 함께 원에 보내졌지만, 원과의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어 그 결과가 1286년 11월 오양우가 편찬한 『국사(금경록)』로 정리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천추금경록』은 1284년 10월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당대사는 『고금록』으로 정리되어 원에 제출되었을 것이다.

1291년 정월 원에서 세조 쿠빌라이와 고려 세자 충선왕의 만남이 있었다. 여기에서 고려의 전대사와 관련한 대담이 6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원에서는 제국의 역사 편찬 총책임자였던 대사도 살리만 등이, 고려에서는 정가신·민지 등이 참석했다. 원의 역사 편찬 과정에서 황제를 모시고 진행했던 진독(進讀)과 비슷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고려세계」에 등장하는 당 황실의 존재가 숙종인지, 선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는 증수와 개찬을 통해 반영되었다. 그것이 『천추금경록』과 『국사(금경록)』에서의 당 숙종을 선종으로 보정한 『세대편년절요』였다. 또 그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세계도」가 제작되어 첨부되었다. 1308년(충선왕 복위) 12월 『세대편년절요』와 『국사(금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록)』가 함께 원에 제출된 것도 이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원의 역사 편찬 요구에 대응하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편찬지침을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적극 대처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과 역사 논쟁을 벌여야 했다. 1307년(충렬왕 33) 11월 충선왕의 명으로 반출되었던 선대실록 185책이 5년 만인 1312년(충선왕 4) 5월 고려로 반환된 것 역시 본국누조사적 편찬을 둘러싼 국사원과의 논쟁이 일단락된 결과일 것이다. 고려의 역대실록은 입성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당대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 원에서는 고려의 통치를 위한 자료를 편찬했는데, 왕약의 『고려지』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원부가 편찬책임을 맡은 『고금록』은 1284년(충렬왕 10) 6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0월에 완성되었다. 1278년 원 중서성의 편찬 요구에서 당대사 부분에 해당한다고 추측된다. 『고금록』의 편찬 대상은 세 가지였다. 신복한 날짜, (세조) 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국왕이 친조한 연월이 그것이다. 이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료 편찬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가 원에 귀부한 날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것은 또 '고금'의 기점과도 관련이 있고, 고려에 대한 원의 시각도 반영되어야 했다.

고려와 원은 그 관계에서 몇 가지 인식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가 원에 귀부한 때와 관련한 것이었다. 고려가 몽골과 처음 관계를 맺은 1218년 강동성 전투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있었고, 고려는 사실 원에 신하를 칭한 때를 1231~1232년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또 원은 1218년 이후 반역을 되풀이하는 고려를 삼별초를 제거한 1273년(원종 14)에서야 평정했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차이 역시 정리되어야 했다. 그런데 13세기 후반 고려에서는 원에 신복한 때를 1218년으로 올려 잡고 이를 원에 설득해야 했고, 『고금록』은 이에 대한 고려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여겨진다. 원에서 고종의 시호가 내려오기 1년 전인 1309년부터 『고종실록』을 『충헌왕실록』으로 개찬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고려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했는데, 몽골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주구유의 살해 원인이 『원사』「본기」의 고려에서 「고려전」의 도적으로 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된 것은 그런 노력의 성과로 여겨진다.

충렬왕과 충선왕 때 편찬된 『천추금경록』과 『국사(금경록)』, 『세대편년절요』, 『고금록』은 1278년 11월 원 중서성에서 요구된 본국누조사적과 당대사 편찬의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국누조사적이 전대사에 해당한다면, 신복한 날짜부터 국왕 친조 연월일, 사신 왕래의 명단 등은 당대사에 해당한다. 또 이들은 원의 대일통을 역사 편찬으로 확인하려는 『제국신복전기』의 편찬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은 고려의 역사 편찬 책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양국의 인식 차이를 보정하거나 원의 입장에 따라 개찬하라는 요구를 했고, 고려는 정체성과 국익을 위한 입장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리고 논쟁이 되었던 사실은 이후 개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또 원에서는 고려 통치를 위해 『고려지』 등 별도의 자료가 편찬되기도 했다. 고려에서도 선대실록을 반출하면서까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역사 논쟁을 전개했다. 입성책동의 저지, 주구유 살해 원인에 대한 개찬 등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이상국전집』, 『동문선』, 『동사강목』, 『동인지문오칠』, 『목은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재난고』, 『제왕운기』, 『해동역사』.
『송사』, 『신원사』, 『요사』, 『元文類』, 『원고려기사』, 『원사』, 『흠정사고전서』.

「閔漬墓誌銘」(http://db.history.go.kr)

단행본

이근명 외, 2010,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 2, 신서원.

논문

고명수, 2014, 「몽골의 '복속' 인식과 蒙麗관계」,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고병익, 1965, 「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곽승훈, 2011,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권용철, 2020, 「元代 政書 [經世大典]의 활용을 위한 신간 소개」, 『중국사연구』 128, 중국사학회.
김상현, 1985, 「高麗後期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硏究』, 을유문화사.
_____, 1996, 「민지의 《본조편년강목》」, 『한국사』 21-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김양섭, 1989, 「遼·金·宋 三史編纂에 대하여-下命時期와 早期 未成要因을 中心으로-」, 『중앙사론』 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김호동, 2009, 「元代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의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109, 동양사학회.
노명호, 2020,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三國史』의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역사학회.
민현구, 1987, 「閔漬와 李齊賢」,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1996, 「閔漬」, 『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박종기, 2012, 「원 간섭기 金就礪像의 형성과 當代史 연구」,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박한남, 1994, 「《편년통록》과 기타 사서의 편찬」, 『한국사』 17-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변동명, 1991, 「鄭可臣과 閔漬의 史書編纂活動과 그 傾向」, 『역사학보』 130, 역사학회.
송병우, 2015, 「『고려사』 소재 외교문서에 나타난 중국 국가 직접 呼稱語와 고려 自稱語의 유형과 대립 양상」, 『석당논총』 6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이개석, 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대구사학』 88, 대구사학회.
이익주, 1996, 「高麗·元 關係의 構造에 대한 硏究」, 『한국사론』 3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2003, 「14세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성리학 수용과정의 연구-민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9, 한국역사연구회.
이정훈, 2017, 「고려시대 '고려세계(高麗世系)'에 대한 기록과 인식」, 『역사와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정구복, 1981a, 「編纂文化」, 『한국사론』 2,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81b, 「高麗後期의 歷史認識과 歷史敍述」, 『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93, 「高麗 初期의 『三國史』 編纂에 대한 一考」,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회.
정동훈, 2017, 「고려 元宗·忠烈王대의 親朝외교」, 『한국사연구』 177, 한국사연구회.
_____, 2021, 「『元史』 高麗傳의 史源」, 『동방학지』 1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_____, 2023, 「『遼史』 高麗傳의 史源」, 『동양사학연구』 163, 동양사학회.
鄭夏賢, 1981, 「元朝에 있어서 正統論과 歷史編纂-遼金宋三史의 경우-」, 『공주사대논문집』 19, 공주사범대학교.
최윤정, 2013, 「駙馬國王과 國王丞相 -13-14세기 麗元관계와 고려왕조 國體 보존 문제 이해를 위한 새로운 모색-」, 『대구사학』 111, 대구사학회.
허흥식, 1988, 「閔漬의 詩文과 사학」, 『교육연구지』 30, 경북대학교.

姜学科, 2021, 「元代翰林国史院设立过程考辨」, 『齐鲁师范学院学报』 36-3, 齐鲁师范学院文学院, 山东济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古松崇志, 2003,「脩端「辯遼宋金正統」をめぐって-元代における『遼史』『金史』『宋史』三史編纂の過程-」,『東方學報』75,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井上秀雄, 1980,「高麗時代の歷史書編纂」,『研究報告』16, 東北大學日本文化研究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 편찬

김성환

원 간섭기의 당대사 편찬은 이 시기 역사학의 특성 중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편찬된 역사서가 온존하게 전해지지 않아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원의 역사 편찬 동향을 살펴보고, 그 토대에서 고려의 역사 편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그 범위는 1278년 11월의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과 당대사(當代史) 편찬으로 한정하고자 했다. 이것은 원의 대일통을 역사 편찬을 통해 확인하고자 편찬했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던 역사 편찬은 증수와 개찬이 반복되었고, 그런 가운데 고려에서도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누조사적 편찬의 첫 번째 결과는 정가신의 『천추금경록』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정도의 개찬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결과가 오양우의 『국사(금경록)』였다고 추측된다. 1291년 정월에는 원의 쿠빌라이와 국사원 편찬책임자, 고려의 세자와 편찬책임자가 모인 대담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민지의 『세대편년절요』로 개찬되었다. 또 원과의 역사 논쟁을 위해 충선왕은 고려역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록 185책을 반출하여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고, 원의 『고려지』 편찬에 이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당대사 편찬의 요구는 원부의 『고금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고려가 원에 귀부한 날짜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있었고, 그 시각은 원을 중심으로 정리되면서도 고려의 입장 역시 적극 개진되었을 것이다. 원에서 고종의 시호가 내려오기 1년 전인 1309년부터 『고종실록』을 『충헌왕실록』으로 개찬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충렬왕과 충선왕 때 편찬된 『천추금경록』·『국사(금경록)』와 『세대편년절요』, 『고금록』은 1278년 11월 원 중서성에서 요구된 본국누조사적과 당대사 편찬과 관련이 있다고 추론된다. 편찬과정에서 원은 적극 개입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개찬하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고려에서도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역사 논쟁을 전개했다. 입성책동의 저지, 주구유 살해 원인에 대한 개찬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주제어: 『제국신복전기』,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 『천추금경록』, 『국사(금경록)』, 『세대편년절요』, 『고금록』, 정가신, 민지, 원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Yuan Dynasty's "*Zhuguo-chenfu-chuanji*(『諸國臣服傳記』)" and Historical Compilation of Goryeo Dynasty

Kim Sunghwan

The compilation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late 13th century to early 14th century was an attempt to standardiz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is historical period into one work in Goryeo Dynasty. As a consequence of this, however, the published historical record could not be preserved and transmitted in its original form, and there are limits to understanding its contents and nature. In view of this problem, this essay will examine the trend of the Yuan Dynasty's compilation of historical works. Using this as a basis for comparison, it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Goryeo Dynasty's historical publications, while limiting its sphere to the November 1278 compilations of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本國累朝事跡) and the contemporary history. These are related to the "*Zhuguo-chenfu-chuanji*(『諸國臣服傳記』)", a historical work compiled in order to underscore the Yu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ynasty's great unification. One can confirm that the historical compilation of this work—created in response to Yuan Dynasty demands—went through a second extension and editing process for national benefit, actively stating the country's viewpoint within the Goryeo Dynasty as well.

The first result of the compilation of the Bonguk-nujo-sajeok(History of the Goryeo Period) was Jeong Gashin's *Cheonchu-gumgyeong-rok* (『千秋金鏡錄』). In January of 1291, using this as the object of discussion, Kublai, the ruler of the Yuan Dynasty, together with the chief editor of the royal academy of history(『國史院』), met with the crown prince of the Goryeo Dynasty and his chief editor; as a result of the meeting, this work was once again re-edited into Min Ji's *Sedae-pyeonnyeon-jeolyo*(『世代編年節要』). Also,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King Chungsonwang in regard to the Yuan academic faction's side of the historical debate.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stemming in its turn from "*Zhuguo-chenfu-chuanji*"—led to the works *Cheonchu-gumgyeong-rok* and *Sedae-pyeonnyeon-jeolyo* being published in this continuation of the records. During this process, the Goryeo Dynasty's Annals was brought to the Yuan Dynasty, where it served as the basis for another historical debate, eventually being used in the compilation of the Yuan Dynasty's *Gaolizhi*(『高麗志』).

Due to the demand for the publication of a contemporary history, Won Bu's *Gogum-rok*(『古今錄』) was completed, but the date of the Goryeo Dynasty's return to the Yuan Dynasty fold was in dispute between the two kingdoms; thus, while the focus of the work is mainly on the Yuan Dynasty, the viewpoint of the Goryeo Dynasty was actively expressed as well. Related to this, starting in 1309, one ye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fore Gojong's posthumous epiphet, the *Gojong-silrok* was re-edited into the *Chungheonwang-silrok*.

One can find a connection between the requests for the compilation of *Cheonchu-gumgyeong-rok*, *Sedae-pyeonnyeon-jeolyo*, and *Gogum-rok* during the reigns of King Chungryeolwang and King Chungsonwang and those for the November 1278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 and a contemporary history within the Yuan territory of Zhongshu Official. The Yuan Dynasty authorities actively inserted themselves into the compilation process and demanded that the works be re-edited to reflect their own viewpoint, following up these demands by attempting to confirm the results of the rewrites. With this, an active royal debate was unfolding in the Goryeo Dynasty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what was in its best interest. Examples of this can be found in the re-editing of sections dealing with the obstruction of the provincial incident as well as the murder of Mongolian diplomat.

Keywords: *Zhuguo-chenfu-chuanji*(『諸國臣服傳記』), History of the Goryeo Period (『本國累朝事跡』), *Cheonchu-gumgyeong-rok*(『千秋金鏡錄』), *Guksa(Gumgyeong-rok), Sedae-pyeonnyeon-jeolyo*(『世代編年節要』), *Gogum-rok*(古今錄), Jeong Gashin, Min Ji, Won Bu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8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조원진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조선 전기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III. 조선 후기 기자수봉설과 기자조선 평양설 비판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는 크게 상말주초 기자의 역사성 및 동래의 실제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와 기자조선이 한국사의 체계로 자리 잡은 후대의 기자·기자조선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갑골·금문에 나오는 기자 자료와 기후방정을 비롯한 요령성 객좌에서 출토된 상·주청동기에 대한 분석과 한대 이후 기자동래설의 형성을 다루는 고대사의 영역에 해당된다.[1] 후자의 경우 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기자·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을 다루며 사학사와 사상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2]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성립된 조선은 기자 동래를 인정하고 기자조선을 정사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기자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했다. 기자조선의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부정한 연구는 근대 시기가 되어서야 가능했다.[3] 현재 한국, 북한, 일본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중국학계 일각에서는 기자조선(기씨조

* 투고: 2023년 7월 24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5550)

1 조원진, 2009,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국학연구』 20, 416~429쪽.

2 조선시대 기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박광용, 1980,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고려부터 한말까지의 사서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 한영우, 1982, 「고려~조선전기의 기자인식」, 『한국문화』 3. 이외에 조선시대 학자 개인의 기자 인식에 대한 연구성과는 적지 않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한편 최근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자 등 고조선 관련 사료를 모은 번역집이 발행되어 관련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18~2022,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편』 Ⅰ~Ⅴ).

3 신채호, 1911, 『讀史新論』, 재미한인소년서회; 崔南善, 1929,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을 그대로 인정한다.[4] 기자조선의 역사적 실체가 부정되는 이유는 고고학상으로 고조선문화에 은문화 요소가 없으며,[5] 문헌자료에서 시대에 따라 윤색되는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전승은 위만조선 멸망 이후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6]

조선시대에도 비교적인 시각으로 기자조선의 실체를 의심하거나 관련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인식들이 있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기자를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나[7] 자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자·기자조선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통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조선시대의 기자 인식을 다룬 연구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는 인식만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 기자 동래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주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던 기록의 모순점을 지적하거나, 기자가 도읍한 곳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8]

---

4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는 苗威의 『箕氏朝鮮史』(2019)로 정리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은 조원진, 2021, 「최근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한국사학보』 85, 18~29쪽 참고.

5 김정배,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180~198쪽.

6 江畑武, 1983, 「箕子朝鮮開国伝承の成立」,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18(4); 오현수, 2012 「기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대동문화연구』 79; 박대재, 2016 「기자조선과 소중화」, 『한국사학보』 65; 조원진, 2023a, 「기자 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7 박광용, 1980, 앞의 글, 270~272쪽; 정재훈, 2004, 「조선후기 史書에 나타난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실학연구』 8, 305쪽.

8 이 글에서 관련 사료의 번역은 다음 문헌을 참고했다. 동북아역사재단, 2018~2022,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조선 전기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선진문헌에 기자는 상 말기의 충신이자 현인으로 조선과 무관하게 기록되었다. 하지만 기자 당대보다 약 1,000년이 지난 전한시대에 이르러 『상서대전(尙書大傳)』과 『사기(史記)』에서는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고 하여 기자와 조선을 관련시킨 기사가 확인된다. 그 내용에서 『상서대전』은 기자가 먼저 조선으로 가고 무왕이 봉했다고 했으며 『사기』는 무왕이 먼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여 기록에 차이가 있으나 기자가 이후 주나라에 조회했다는 내용은 같다. 하지만 무왕이 기자를 주나라의 통치가 못미치는 해외에 봉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정황으로 보아 기자의 동래가 사실이었다면 그의 조회는 사실이 아닐 것이며, 조회가 사실이었다면 동래는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다.[9] 이처럼 전한대에 처음 등장한 기자 전승은 기록마다 차이를 보이며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서대전』과 『사기』의 해당 기사는 본래 원본에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0] 하지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막연한 이 전승은 후한 이후 현지 풍속 기사에 기자의 교화 전승을 덧붙인 『한서(漢書)』와 위만 이전 고조선의 왕을 기자의 후손으로 기록한 『삼국지(三國志)』 등의 사례처럼 후대로 갈수록 윤색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결국 고려 후기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우리 문헌에서는 최초로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설정하여 전조선(단군조선)에 이은 기자조선 시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반면 같은 시기의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기자의 동래는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겨가는 원인이 되었을 뿐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왕검조선(고조선)-위만조선'의 2조선 체계를 보여주었다.[11] 이후 조선시대에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여 단군조

9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 연구』, 일조각, 29쪽.

10 조원진, 2023a, 앞의 글, 23~24쪽.

11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과 우리문헌에서 기자조선설이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32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3조선 체계가 확고해졌다.[12]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태조 1년(1392) 예조(禮曹) 전서(典書) 조박(趙璞) 등이 "조선의 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箕子)는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일으킨 임금이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라고 상서했다.[13] 이를 계기로 단군과 기자는 국가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왕조의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한 것도 단군과 기자를 동시에 염두에 둔 것이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올린 글에서 단군조선, 위만조선, 신라, 백제, 후백제, 고구려, 후고구려, 고려가 모두 천자의 명이 없이 나라를 세웠지만 기지만이 주 무왕의 명을 받아 '조선후(朝鮮侯)'가 되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4] 정도전은 기자조선만 유의미한 국호를 갖게 된 이유는 중국의 책봉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기자조선과 그를 계승하여 교화를 실천한 조선왕조만 정통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는 국사와 조선 건국에 성리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유교 중심의 단일한 역사관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15]

조선시대에 단군과 기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양상을 보였다. 태종 12년에는 하윤(河崙)이 단군은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한 사당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건의하여 기자사당에 단군위패를 함께 모시게 했다.[16] 세종대에는 사온서 주부 정척(鄭陟)이 평양의 기자사당에 가서 단군위패가 기자위패보다 낮게 배치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

12 여말선초 기자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있다. 최봉준, 2013, 「李穀의 箕子 중심의 국사관과 고려·원 典章調和論」, 『한국중세사연구』 36; 최봉준, 2014, 「정도전의 箕子 중심의 역사관과 급진적 문명」, 『韓國史學史學報』 29; 최봉준, 2015, 「여말선초 箕子 중심의 역사계승의식과 조선적 문명론」, 『韓國史學史學報』 31.

13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8月 11日 庚申.

14 『三峯集』 卷7 國號.

15 최봉준, 2014, 앞의 글, 84쪽.

16 『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 6月 6日 己未.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단군은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신 분이며 기자보다 무려 1,230여 년 먼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군위패를 기자사당에 모신 것도 잘못이라 지적하면서 단군사당을 따로 세우자고 건의했다. 세종은 정척의 건의를 따라서 시행하라고 예조에 명했다.[17]

세종대에는 기자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세종 10년 평안도 감사가 상소하길 기자사당의 위패가 '조선후기자(朝鮮侯箕子)'로 되어 있는데 기(箕)는 나라 이름이고 자(子)는 작위라 이미 '조선후'라고 하고, 또 '기자'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史記)』에는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나 신하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자는 주나라의 제후가 아니니 '조선후'가 아니라고 했다.[18] 이에 세종은 그 청을 받아들여 '조선후기자지위(朝鮮侯箕子之位)'를 '후조선시조기자(後朝鮮始祖箕子)'로 고쳐 쓰게 하고 단군의 신위판도 '조선후단군지위(朝鮮侯檀君之位)'에서 '조선단군(朝鮮檀君)'으로 고쳐 쓰게 했다.[19] 세종대에 기자는 제후(諸侯)에서 시조(始祖)로 격상되면서 그 독립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20] 이처럼 세종대에는 기자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기자 동래에 대한 『사기』 송미자세가 등의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논의는 자료의 해석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사기』의 기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성종대 편찬된 『동국통감(東國通鑑)』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외기(外紀)에 수록했다.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사기』, 『한서』, 『위략』, 『후한서』 등의 자료를 통해 기자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연나라와 대립한 조선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조선후(朝鮮侯)'라 하여 기자조선이 주나라의 제후임을

17 『世宗實錄』 卷29, 世宗 7年 9月 25日 辛酉.
18 『世宗實錄』 卷41, 世宗 10年 8月 4日 癸巳.
19 『世宗實錄』 卷49 世宗 12年 8月 6日 甲戌.
20 한영우, 1982, 앞의 글, 38~39쪽; 한영우, 2019, 『세종평전』, 경세원, 357~3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백히 했다. 『동국통감』은 기자의 행적을 더 높이 평가하며 기자조선과 주와의 사대관계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서술태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21] 특히 『동국통감』은 기자가 중국인 5,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왔다는 함허자의 기록을 사론에 수록하여 후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표제음주동국사략(標題音註東國史略)』,[22] 『동사찬요(東史纂要)』,[23] 『동사보유(東史補遺)』[24] 등도 기자의 동래 과정에 대해 함허자(涵虛子)가 언급한 『주사(周史)』 기록을 그대로 수용했다.[25] 이에 따라 이들 문헌에는 기자가 중국 사람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피하는데 시서(詩書), 예악(禮樂), 의무(醫巫), 음양(陰陽)·복서(卜筮)의 무리와 백공기예(百工技藝)가 모두 따라왔고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하여 알게 하였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명종대의 학자인 윤근수(尹根壽, 1537~1616)는 『월정집(月汀集)』 권5의 「연경으로 가는 조 첨추를 전송하는 서문」(奉送趙僉樞如京序)과 「연경에 가는 이 첨추를 전송하는 서문」(送李僉樞如京序)에서 광녕성의 기자 유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광녕성 북쪽에는 기자정(箕子井)과 기자묘(箕子廟)가 있고 후관(冕冠)을 쓴 기자 입상(立像)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자정만 남아 있다고 한다. 윤근수는 기자가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기에 행궁이 광녕에 있어 기자정과 기자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윤근수는 배구가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보고 기자를 봉할 당시 영평(永平)에서 요서(遼西)를 걸쳐 동쪽으로 평양(平壤)에 이르는 지역을 전부 기자의 봉지로 삼았다고 해석했다.[26] 그의 연구는 조선 후기 기자조선의 강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

21 한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88~189쪽.

22 『標題音註東國史略』 卷1 前朝鮮.

23 『東史纂要』 卷1 上 箕子朝鮮.

24 『東史補遺』 卷1 箕子朝鮮.

25 함허자(涵虛子)가 인용한 사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태윤, 2019. 「『천운소통(天運紹統)』의 기자(箕子)와 기자조선 기록 고찰」, 『인문사회』 21-1 참고.

26 『月汀集』 月汀先生集 卷5序 奉送趙僉樞如京序; 『月汀集』 月汀先生集 卷5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기에 앞서 만주의 기자 유적을 주목한 선구적인 연구였다.

이후 조선에서 기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 선조대에는 윤두수의 『기자지(箕子志)』와 이이의 『기자실기(箕子實記)』가 편찬되며 기자 자료의 집대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윤두수는 선조 10년(1577)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명나라 사람들로부터 기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충분히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에 윤두수는 기자에 대한 기록과 논평을 모아 『기자지』를 편찬했다. 하지만 일관된 체제를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이는 이를 보완하여 『기자실기』를 편찬한다. 이이는 『기자실기』에서 기자가 무왕 아래에서 벼슬하기를 싫어하여 조선으로 왔고 뒤에 무왕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선에 봉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자는 무왕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진 제후였다고 이해했다. 이이는 선조 15년 명에서 온 사신을 접견할 때 부사(副使) 왕경민이 늘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운데 본국이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기도 했다.[27]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여송은 평양성을 수복하고 성에 들어가 죽은 장졸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튿날에는 기자묘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28] 이에 조선에서도 기자 사당과 유적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기자의 동래와 명군의 구원이 가지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29] 또한 광해군대에는 기자사를 숭인전으로 고치고 선우씨를 기자의 후예로 정하여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30]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기자 및 기자조선의 존재를 매우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문헌에 나타난 기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극

送李僉樞如京序.

27 『宣祖改修實錄』 卷16 15年 11月 1日 乙卯; 『栗谷全書』 栗谷先生全書 卷34 附錄2 年譜 下.

28 『宣祖實錄』 卷34 26年 1月 11日 丙寅.

29 김경태, 2016, 「임진왜란 시기 朝鮮·明관계와 箕子인식의 양상」, 『한국사학보』 65, 183쪽.

30 『光海君日記』 卷52 4年 4月 27日 辛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먼저 선조 36년(1603) 8월 13일 조정에서는 주역의 명이괘(明夷掛)를 강독하며 기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이 이르기를, "기자의 자손은 후세에 아는 자가 없으니 매우 서운하다. 기자가 주(周)나라에 조회하였다는 것은 기자가 아니라 미자일 것이다. 기자는 무왕(武王)만이 함께 도(道)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홍범(洪範)으로 그 도를 전하였을 뿐이고,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은(殷)나라의 유민(遺民)을 거느리고 동으로 향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실로 무왕이 봉(封)한 것도 아니고 주나라에 조회했을 리도 없다. 헛말이 전승되고 잘못을 답습하여 드디어 후세에 전하였으니, 사서(史書)를 지을 때에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도간(陶侃)이 천문(天門)에 올랐다는 것과 범여(范蠡)가 서시(西施)를 배에 싣고 갔다는 것은 옛사람이 다 헛말이라 했다. 도간이 유양(庾亮)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양이 그 말을 꾸며 만든 것이고, 서시는 병란에 죽었는데 오호(五湖)에서 배를 띄우고 놀았다 하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
>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저 교동(狡童)의 노래도 기자의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은 뒤에 임금을 가리켜 교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
>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느 중국 사신이 기자묘(箕子廟)에 알현하고, 시(詩)를 짓기를 '백수에 무왕 만나 봉지를 얻었으나, 황천 가서 성탕을 뵐 낯이 없구나(白首有封逢聖武 黃泉無面見成湯)'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무식한 말이니, 따질 것도 없다."[31]

선조는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였다는 기록을 비판하며 조회를 간 사람은 기자가 아니라 미자라고 보았다. 기자는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은 유민을

31 『宣祖實錄』 卷165 36年 8月 13日 丙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느리고 동으로 향하여 왔으니 무왕이 봉한 것이 아니고 주나라에 조회했을 리도 없는데 헛말이 전승되고 잘못을 답습하여 후세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덕형도 교동(狡童)의 노래도 기자의 말이 아니라고 보면서 나라를 잃은 뒤에 임금을 가리켜 교동이라 할 수 없는데 옛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라 했다. 이러한 해석은 해외 국가인 조선에 무왕이 기자를 봉하고, 이미 동래한 기자가 다시 조회했다는 기록상의 모순이나 '맥수(麥秀)'의 저자를 『사기』는 기자로 기록했으나 『상서대전』은 미자라고 하여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기자 동래 기록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정사신(鄭士信, 1558~1619)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사신은 25세에 문과급제 후 승문원(承文院)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56세에 밀양부사를 역임하기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관직생활을 했다. 그는 선조·광해군조에 걸쳐 벼슬을 하며 임진왜란 이전에는 주로 홍문관이나 사간원 등 내직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도사나 부사 등 외직을 역임했다.[32] 비록 관료생활을 하면서 많은 글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1821년 그의 7대손 정내성(鄭來成)이 정사신의 문집인 『매창문집(梅窓文集)』을 간행했다. 『매창문집』은 5권 3책으로 구성되었고 권4 잡저에 「기자조주수봉변(箕子朝周受封辨)」이 수록되어 있다. 이 논설은 정사신이 광해군 2년(1610) 동지부사로 명에 사신으로 떠날 때 기자묘를 배알하고 지은 것이다.

정사신은 이 논설에서 『사기』 송미자세가에 기록된 기자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판한다. 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사신은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의리(義理)로 따져보았을 때 무왕이 어찌 봉작으로 기자를 얽매겠으며 기자 또한 주나라의 봉작을 받는 것을 달갑게 여겼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신하라고 칭하지 않으면서 봉작(封爵)만 누리는 것은 향당(鄕黨)에서 제 몸만 아끼는 자들도 하지 않는 짓인데 기자와 같은 성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상서(尙書)』 홍범편에

32 김성규, 1996, 「매창 정사신 문학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년에 무왕이 기자를 방문했다'고 한 것은 기자가 주나라를 조근한 것이 아니라 무왕이 기자를 봉한 것이며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무왕과 기자는 서로 대등한 상황에서 대화한 것이지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를 대하거나 신하의 입장에서 나눈 것이 아니라 했다.

정사신은 『사기』의 기자동래 기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사기』에는 기자가 아뢴 홍범을 실은 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지만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미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고 하는데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반문하며 말의 앞뒤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상서』 미자편에서 세 명의 어진이들(仁者)이 자신들의 마음을 역설하며 기자는 '상나라가 멸망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 했는데 만약 무왕에게 조선의 봉토를 수여받았다면 그렇게 말한 근거가 어디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만일 기자가 신복이 되었다면 공자께서 어떻게 세 명의 어진이 중 하나로 칭송했는지 반문한다.

그렇다면 기자가 조선의 군주가 된 것은 누구에게 봉해진 것인지, 아니면 기자는 조선에서 군주가 된 적이 없는 것인지 혹자의 물음에 정사신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기자가 조선에서 군주가 된 것은 없애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무왕이 봉작을 하사한 것은 아니며 기자가 길을 나서 멀리 방외(方外)의 해안에 성교(聲敎)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여 동방의 백성들이 아이들을 들쳐 업고 기자에게 귀부하며 그를 군사(君師)로 추대하고 교조(敎條)를 스스로 세웠다고 보았다. 정사신은 요임금과 동시대라는 단군의 건국 기록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는 단군과 요임금은 같은 시기 재위에 올라 상나라와 주나라 무렵에는 단군의 후예들이 1,000년 이상 이어졌지만 몽매하고 질박하며 중국과 통하지 않는 머나먼 방외의 땅이었다고 설명한다.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던 시기에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기에 기자를 그 땅에 봉할 수 없었으며 단군의 시대가 쇠퇴해진 후에 조선의 백성들은 갓난아기가 자애로운 어머니에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과 같이 기자에게로 귀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왕(武王)과 성왕(成王), 강왕(康王)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주나라에서는 기자가 동쪽 땅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교화시켰음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춘추시대에도 역시 조선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만 성인만 성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공자가 구이(九夷)에 살고자 했던 일은 기자가 조선 땅에 거함을 누추하다 여기지 않고 묵묵히 그 뜻을 미쁘게 여긴 것이라 이해했다.

그렇다면 『사기』의 기자 동래 기사가 실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사신은 사마천의 『사기』 기록이 진나라 이후 야인이 만든 이야기를 잘못 답습하였다고 보았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예전부터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이야기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항상 이것이 진(秦)나라 이후 야인(野人)이 만든 이야기를 사마천의 『사기』에서 답습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가 익숙해져 마침내 믿을 만한 역사로 여기게 되었다. 비록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사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 문제를 미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二聖)의 심사(心事)만 진나라 당시 분서갱유의 여파라고 모함을 받게 했다. …
>
> 또 논하자면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는 이야기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없었던 이야기이다. 만일 당시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맹자가 '공자가 피부병 고치는 의원 집에 묵으셨다'거나 '이윤이 요리하는 재주를 가지고 탕(湯)임금께 등용해주기를 요구했다'거나 '백리해(百里奚)가 진나라의 희생을 기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모두 도리를 근거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온 힘을 쏟았는데 유독 세 명의 어진이(仁者)의 큰 절개에 대한 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리치지 않았겠는가?
>
> 진나라의 분서갱유와 유방(劉邦)과 항우(項羽)의 전쟁이 끝난 뒤에야 방외의 먼 지역에 대한 정보가 흘러 흘러 점차 퍼지게 되었으니 세인들이 비로소 조선이라 불리는 땅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 기자가 교화를 베풀었다는 풍문도 마침내 전해져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주나라 무왕의 대봉건 시대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가 봉토를 수여받고 임금이 되어 홍범구주(洪範九疇)와 팔조법금(八條法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교화를 베풀고 정전제(井田制)와 전부(田賦)의 제도를 기획하였다고 생각했다. 여러 사람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잘못된 이야기를 답습하자 사마천이 『사기』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 '이것은 진나라 이후의 야인이 만든 이야기를 사마천의 『사기』에서 답습한 오류'라고 한 것이다.[33]

살펴본 것처럼 정사신은 당시 은·주에서 조선은 통하지 않는 머나먼 방외의 땅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자를 조선에 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는 이야기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없었으며 진나라 이후에야 중국에서 조선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자의 교화 이야기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기』의 기자 동래 기사는 진나라 이후 야인(野人)들이 만든 이야기를 답습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처럼 정사신이 『사기』 송미자세가의 기자 동래 기사 자체에 의문을 품고 그 허구성을 검토해나간 부분은 근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제기된 기자조선의 허구성을 주장한 논지[34]와도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당시 국제정세와 지리적인 관점에서 조선-은·주가 교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진문헌에 기자동래설이 나오지 않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기자 문제를 파악한 것이다. 그의 논지대로 당시 주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기자를 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통치할 수도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사신의 논리는 사실상 기자 동래와 기자조선도 부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자의 동래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사신의 변론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사신이 『사기』의 기자 동래 기사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정사신의 외교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사신은 일찍이 북경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예를 행

33 『梅窓文集』 卷4 雜著 箕子朝周受封辨.

34 崔南善, 1929,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할 때 조복(朝服)을 입지 않고 다만 현포(玄袍)만 걸치고 들어가 반행(班行)에 참석하는 것을 분통으로 여겨왔다. 이에 예부(禮部)에 나아가 '번국의 사신은 조복을 입고 참반(參班)한다'고 한 명나라 집예(集禮)에 근거하여 논변하기도 했다. 비록 명 측에서 그의 건의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외교관례상 명분을 축적하는 데 기여하고 아무리 상국이라도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는 주체의식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35] 외교관계에서도 드러난 이러한 정사신의 주체의식은 한중 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자 전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변론은 기자조선이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외교현장에서 의연한 모습을 지켜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36]

한편, 이후 기자조선을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평가한 인식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사제강(麗史提綱)』과 『규원사화(揆園史話)』가 있다.[37] 『여사제강』을 편찬한 유계(俞棨, 1607~1664)는 고려시대만 다룬 역사서를 편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 동방은 기자 이후 문자가 있었으나 재적(載籍)이 무징(無徵)하였고, 삼국분쟁에 각기 문사(文史)가 있었으나 역시 전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소재류(所載類)는 모두 황탄하여 족히 빙신(憑信)할 수 없고 또한 세대가 요원하여 국정연혁(國政沿革)과 인물출처가 가히 고신(考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고려 태조의 즉위 후부터 끊어서 편년작서(編年作書)하여 『여사제강』이라 했다.[38]

35 김성규, 1996, 앞의 글, 30~31쪽.
36 김성규, 1996, 위의 글, 44~45쪽.
37 정재훈, 2004, 앞의 글, 305쪽.
38 『麗史提綱』 凡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것은 유계가 고대사를 서술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지만 나아가 기자 동래를 인정하면서도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유계의 이러한 인식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서만 참고한다는 무징불신(無徵不信)의 유교사관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39] 그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황망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자에 대한 문헌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듯하다. 또한 『규원사화』는 숙종 원년에 편찬되었다고 하는데 위서(僞書) 논란이 있는 문헌이기도 하다. 『규원사화』는 기자조선을 배제하고 단군조선만 자세히 다루고 있다.[40]

이처럼 조선 초기에는 기자조선이 정사에 편입되어 한국사의 체계에 자리잡았고 기자조선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기자 동래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으며 기자조선을 불신했던 또다른 흐름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조선 후기 기자수봉설과 기자조선 평양설 비판

조선의 지식인들은 두 차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적(夷狄)으로 여겨왔던 일본과 청의 침략을 경험하고 중국대륙에서 명과 청이 교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명이 멸망하고 재건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유교문화의 정통은 조선에게 있으며 조선이 곧 중화(中華)이고 조선의 문화가 중화문화(中華文化)라는 '조선중화주의'가 나타났다.[41] 이에 조선을 명실상부한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 규정하

39 김경수, 2000, 「『麗史提綱』의 史學史的 考察」, 『韓國史學史學報』 1, 97쪽.

40 한영우, 1975, 「17世紀의 反尊華的 道家史學의 成長: 北崖의 「揆園史話」에 대하여」, 『韓國學報』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 위해 유교문화를 전해준 것으로 인식된 기자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42] 조선 건국 직후에는 역사 속에서 기자를 강조하여 주 무왕과 기자의 관계를 명 태조와 이성계의 관계로 비유하여 조선왕조의 역사적 위상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성계가 명 태조의 제후이듯이 기자는 주 무왕의 봉함을 받은 제후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명나라가 없어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조선을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 규정하기 위해 오히려 주 무왕에 대한 기자의 독자성과 유교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43] 이를 위해 조선 후기에는 기자와 주 무왕과의 관계가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기자가 주 무왕에 의해 봉해졌다는 것(箕子受封說)을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다시 ① 기자가 조선으로 오면서 봉해졌다는 설과 ② 기자가 먼저 도망와서 자립하여 왕이 된 뒤에 무왕의 봉함을 받았다는 설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③ 기자가 무왕과 빈주(賓主) 관계를 맺었다는 설 ④ 전혀 빈주관계나 군신(君臣)관계가 없었다는 설로 구분된다. 조선 전기에는 ①, ② 설이 병존하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서 ③, ④ 설이 등장하게 된다.[44]

한편, 이 시기에는 한국사 특히 고대사 인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정통론(正統論)이라는 사론(史論)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재구성하려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익·안정복 등이 주장한 위만 대신 마한을 정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이나 이종휘가 주장한 부여·고구려계가 단군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는 부여·고구려 중심의 한국사 체계는 새로운 한국고대사의 체계화 시도였다.[45] 그리고 이 시기는 전쟁을 겪으며 강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41 김문식, 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14~18쪽.

42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48~249쪽.

43 허태용, 2015, 「전근대 동국의식의 역사적 성격 재검토」, 『역사비평』 111, 456~457쪽.

44 한영우, 1989,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77~178쪽.

45 이만열, 1976, 「17,8世紀의 史書와 古代史 認識」, 『韓國의 歷史認識』 하, 創作과批評社, 315~3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서 요동을 기자조선을 비롯한 고대국가의 중심 무대로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자조선에 대해 지리 강역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46] 따라서 기자가 온 곳이 평양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기자와 평양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나오게 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기자가 주 무왕에 의해 봉함을 받았다는 기록(箕子受封說)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기자가 동래한 지역 및 기자조선의 중심이 평양이라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접근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기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상덕(林象德, 1683~1719)은 『동사회강(東史會綱)』에서 범례(凡例) 뒤에 논변(論辯)을 부기하였는데 이 중 1조가 「기자봉조선지변(箕子封朝鮮之辯)」이다. 그는 이 논변을 통해 기자가 주 무왕에게 봉함을 받았다는 『사기』의 기록을 검토한다. 그는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하였으나 『한서』 지리지에서는 은나라의 도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고 하였고, 『후한서』에서는 기자가 은나라의 운수가 쇠퇴하자 조선 땅으로 피했다고 했으며, 함허자는 『주사』를 인용하여 기자가 중국에서 5,000명을 데리고 조선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상이한 기사를 대조했다. 이를 통해 『한서』 등에는 기자를 봉했다는 말이 없음을 주목했다. 또한 은나라의 세 어진 이는 각기 스스로 떳떳함으로 선왕에게 헌신하였고 기자는 '상나라가 몰락하여도 나는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한서』의 기록이 옳다고 보았다. 임상덕은 『사기』, 『한서』 등 여러 설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 사마천의 기록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은 진실로 어긋나고 뒤섞인 것이 많아서 굳게 신뢰하기 어

46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25~30, 179~18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렵기에 반고는 이미 그 설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반고가 논하여 서술한 조선인의 성품과 풍속은 인현이 가르친 조목들임이 모두 분명하다. 분명하여 믿을 수 있으니 생각건대 별도로 고증하고 근거한 바가 있는 것이다. 『사기』의 여러 구절이 겨우 송미자세가 중에서만 보여서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것과는 같지 않다. 또한 3대 이전에는 중국의 제도와 문화가 미치는 곳이 넓지 않아서 장강과 회수 사이의 지역까지도 또한 오랑캐의 땅이었다. 하물며 조선은 풍과 박에서의 거리가 만 리나 되니 이 시기에는 오히려 멀고도 황량한 지역에 있었다. 『주례』의 직방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 중국과 통했을 리가 없을 듯하다. 구이(九夷) 팔만(八蠻)과 길이 통하는 날이 되어서야 조선도 역시 통하였을 것이다. 무왕이 기자를 스승으로 높여서 봉토를 줄 때마다 먼 오랑캐의 지역으로 물리쳐버렸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추정해보면 조선 땅으로 피하였다는 이야기가 이치에 가까운 듯하다. 세대가 멀고 문헌의 증명이 없으니 지금은 감히 확신하여 말하지 못하나 역시 반고가 상세히 기록한 이 일의 기록을 감히 버릴 수 없다. 『사기』의 다른 세가 중에 나오는 몇 마디를 취하여서 말한 것은 어떨지 알 수 없다.[47]

임상덕은 『사기』의 기자 전승은 기록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임상덕이 언급한 것처럼 『사기』에는 기자 자료가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기자와 조선을 연결시킨 내용은 송미자세가에서만 확인된다. 그리고 기자 동래 기사로 인해 『사기』 송미자세가의 기자 전승은 여러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당시 조선과 주나라는 만 리나 떨어져 통했다는 근거도 없다. 특히 임상덕은 조선과 주나라의 거리 등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기자 연구를 진일보시켰다고 할 수 있다.[48] 다만 『사기』와 달리 『한서』의 기록은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49] 『한서』 역시

47 『東史會綱』 凡例 下.

48 한영우, 1989, 앞의 책, 178쪽.

49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는 『한서』의 조선전과 지리지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자와 조선을 관련시킨 기록은 지리지에만 발견되며 이 기사도 조선의 풍속 기사에 기자의 현지 주민 교화 기사를 간단히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은 『북헌집(北軒集)』에서 기자가 홍범을 진술한 이유와 기자 동래의 원인을 검토했다. 그는 기자는 은의 남겨진 현인으로 무왕이 기자를 방문하니 홍범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은나라의 망함은 주의 행실 때문이며 무왕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왕에 대해서는 신하가 군주를 몰아낸 형세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기자가 치도(治道)를 전해줄 수는 있어도 그 조정에 입사(入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주나라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자는 주의 영토 내에 거처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조선 땅에 숨었다고 보았다.[50]

유광익(柳光翼, 1713~1780)은 『풍암집화(楓巖輯話)』에서 기자가 주무왕에게 봉해졌다는 기록과 『동국통감』에 인용된 함허자의 글을 검토했다. 먼저 유광익은 평양에 있는 정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주공의 정전도 맹자가 살던 시기까지 이미 찾을 수 없었는데 기자의 정전이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히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51] 또한 기자는 이미 미자의 물음에 "남의 신복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해외 땅으로 피하였기 때문에 무왕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조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옛 책에서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여 마치 무왕이 명령을 내리고 봉함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동국통감』 등도 잘못을 이어받아 시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기』의 기록에서 무왕은 이미 기자를 신하로 여기지 않았는데 기자가 도리어 스스로 신하됨을 달게 여겨 무왕을 조회하러 갔다고 한 것은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거짓이라 보았다.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대에는 기자와 조선의 관계가 아직 유동적이고 기자동래설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井上秀雄, 1982, 「「史記」·「漢書」の東夷王者観」, 『朝鮮学報』 103, 24~27쪽). 한편, 『한서』의 기자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조원진, 2023b, 「『漢書』의 古朝鮮·漢郡縣·箕子 자료에 대한 검토」, 『동양학』 92, 115~119쪽.

50 『北軒集』 卷8 初年錄.

51 『楓巖輯話』 卷1 東方國都記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고 함허자가 『천운소통』을 편찬하면서 『주사』를 인용하여 기자가 중국 사람 5,000명을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갔다고 하였고, 『동국통감』은 이를 그대로 믿어 책에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 한다. 또한 함허자가 살펴본 『주사』의 내용은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52] 유광익은 비교적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양의 정전과 『사기』의 기자가 주 무왕에게 봉해졌다는 기록을 비판했다. 나아가 『동국통감』이 인용한 함허자의 글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기록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다. 그동안 조선의 학자들은 『동국통감』 이후 함허자의 글을 무비판으로 수용해왔었는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점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사기』의 기사를 비판하는 인식은 조선 후기 꾸준히 나왔다. 안정복도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임상덕 등의 견해를 소개하며 후세 사람들은 『한서』와 『후한서』의 기록을 신임하면서 『사기』는 본래 소루(疏漏)하다고 평가했다.[53] 다만 이러한 논의는 『사기』와 함허자의 글을 비판하는데 그쳤으며 『한서』·『삼국지』·『후한서』의 기록을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는 기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조선 후기의 사회 분위기에서 기자 동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리적인 관점으로 기자 동래 문제를 접근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평양의 기자 관련 유적인 기자묘·정전에 대한 문제와 기자가 동래하고 도읍한 곳이 평양인가 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평양의 기자 유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54] 이미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서 "평양 대성산에 2개의 옛 성터가 있는데 하나는 기자 때 쌓아 성안에 구역을 나누어 정전제를 실시했다"고 했으며, "기자묘가 평양성 북쪽 토산 위

52 『楓巖輯話』 卷1 箕子封朝鮮辨疑.

53 『東史綱目』 附 卷上 上 考異.

54 조선 후기 평양의 기자 유적과 기자의 권위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있다. 김창수, 2022,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과 평양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89; 신주엽, 2022,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대구사학』 14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있다"고 기록했다.[55] 정전 유적의 경우 하은주 삼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였던 정전제와 관련되었기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한백겸은 평양 기자의 정전 유적을 직접 둘러보고 저술한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56]을 통해 정전제도를 나름대로 고증한 바 있다. 그는 주자와 맹자는 은대의 정전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이 주장한 정전제도는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둘러본 실증적 고증을 통해 평양에 설치한 정전은 '정(井)'자의 형태가 아닌 '전(田)'자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한백겸의 기자 정전 연구는 이후 많은 학자가 관심을 보이고 평양 정전 유적의 실체를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양의 정전 유적은 동아시아문명의 계승자적 위치에 조선이 자리하고 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57] 하지만 기자 시대의 정전 유적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평양의 기자묘는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의 실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유적이었으나 한편으로 중국문헌에는 이와 상반되는 기록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는 "두예가 말하길 '양국(梁國) 몽현(蒙縣)에 기자총(箕子塚)이 있다'"(杜預云 梁國蒙縣 有箕子塚)고 했다. 이 기록을 인정한다면 기자는 동래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조선의 학자들은 기자가 평양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신빙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국역대총목』,[58]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59] 『풍암집화(楓巖輯話)』, 『기년동사약(紀年東史約)』[60] 등에서는 『대명일통지』에 "몽현에는 기자묘가 없고, 산동(山東) 포정사(布政司) 고적 조에는 평양성 밖에 기자묘가 있다"고 하였는데 두예

55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北界 西京留守官 平壤府.

56 『久菴遺稿』 上 雜著 「箕田遺制說」.

57 이영호, 2009, 「儒敎의 民本思想과 朝鮮의 井田制 受容」, 『퇴계학논총』 15, 253~259쪽.

58 『東國歷代總目』 箕子朝鮮.

59 『燃藜室記述』 別集 卷19 歷代典故 箕子朝鮮.

60 『紀年東史約』 卷1 箕氏朝鮮紀 戊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설은 어디에 근거한지 알 수 없으며 잘못 전해 들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두예의 설을 합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양국 몽현의 기자묘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홍경모(洪敬謨, 1774~1851)와 이규경(李圭景, 1788~1863)에 의해 이루어졌다. 홍경모는 먼저 『총사(叢史)』 동사변의[61]에서 고대사 속의 주요 쟁점을 고증하며 기자를 조선에 봉한 기록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는 일찍이 사마천의 『사기』가 실제 사실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나라가 멸망해도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기자의 뜻으로 은이 망했을 때도 무왕에게 단지 홍범만 베풀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자는 무왕의 신하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무왕도 신하로 삼으려 하지 않았는데 어찌 기자를 봉하고 봉작을 받았을지 반문한다. 홍경모는 기자가 조선으로 피하자 조선 사람들이 추대하여 왕으로 삼은 것이고 무왕은 다시 기자를 빈사(賓師)로 머무르게 한 것으로 이해했다. 주서(周書)에서 기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 말이 없으며 조선이 이때 중국에 복속되지 않았는데 무왕이 어찌 제후로 봉할 수 있었는지 비판한다. 그는 『한서』 지리지에 "은이 쇠퇴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고 한 것이 이치에 맞으며 사마천의 『사기』는 그 실제를 얻지 못한 것과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홍경모는 『관암존고(冠巖存藁)』 기자묘기(箕子墓記)[62]에서 기자묘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그는 『사기색은』에서 "두예가 말하길 양국 몽현에 기자묘가 있다"고 했고, 『수경주』에 "몽현은 박성에 있다"고 하여 몽박은 곧 북박이며, 『청일통지』에 "기자묘가 귀덕부 상구현에 있다"고 했으며 또한 "포주에 기자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몽현의 기자묘를 끌어들인 것이지 별도로 포주에 기자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기자묘 관련 기록을 제시한다. 홍경모는 『당서(唐書)』에 "요동은 본래 기자의 나라이다"라 하였고, 『성경지(盛京志)』에도 "심양 봉천부와 의주·광녕은 모두 조선계이다"라 하였으니 요(遼) 지역이 태반은

61 『叢史』 外篇 東史辨疑.

62 『冠巖存藁』 2 箕子墓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자의 강역으로 요하 이동과 한수 이북은 모두 기씨의 땅이라 보았다. 하지만 후손들이 연 말기에 서쪽 경계 1,000리를 잃으며 요 지역이 중국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그는 몽박과 상구 등은 요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몽박과 상구, 평양에 있는 기자묘 중에서 어느 것이 기자묘인지 검토했다. 홍경모는 결론적으로 기자는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기에 그 장사 지낸 곳은 마땅히 도읍지 근처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짜 기자묘는 기자가 도읍한 평양에 있는 무덤이며 몽박, 상구 등의 무덤은 기자 이후 사군들이 이곳에 장사 지냈기에 기자묘로 통칭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록에 나타난 기자묘가 모두 4곳임을 밝히고 각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기자묘는 평양에 있다고 확신했다.[63] 또한 홍경모는 평양의 정전 유적은 기자의 정전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미 맹자시대에 정전제도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었는데 기자가 실제로 구획한 정전이 당시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홍경모의 연구는 관련 자료를 모아 기자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전제 아래 논지를 전개하였기에 평양의 기자묘를 진짜 기자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64]에서 기자묘와 강역 문제를 다루었다. 이규경은 『수서(隋書)』 배구전에서 "고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가 기자를 봉했다"고 하고, 『대명일통지』에 "'영평부 15리에 고죽군이 보읍으로 받은 나라가 있다'고 했고, 또 '조선성은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봉읍으로 받은 땅이다. 이로써 고죽국과 함께 이웃이 되었다'"는 기록을 소개했다. 이규경은 이를 통해 두예가 말한 양국 몽현에 기자 무덤이 있다는 기록과 평양 토산에 기자 무덤이 있다는 설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배구가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

63 이군선, 2014, 「洪敬謨가 본 古都 平壤과 그 遺蹟」, 『동양한문연구』 39, 244~246쪽.

64 『五州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니라고 하며 고려는 곧 고구려이며, 고구려 강역의 서북은 요수를 넘어 영주를 접했는데 고죽국이 지금의 영평부로 이미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았다. 『정자통(正字通)』에 "지금 영평부에 기자성이 있으며 기자가 이 영평부를 봉읍으로 받았다"고 했으니 지금의 영평은 옛 유·영주 바깥 지역으로 통틀어서 조선이라 일컬어졌다고 이해했다. 따라서 고죽국 역시 봉읍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처음에 기자를 영평에 봉하였기에 기자성이 있다고 했다. 기자는 주나라가 봉한 바를 피하여 지금의 평양에 와서 거하니 역시 바깥 지역을 다스린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고구려는 곧 조선의 땅을 거느렸고 영평 역시 그 지역에 들어갔기에 배구의 말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죽이 춘추 시대 이래로 조선의 차지가 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위략』에 조선과 연나라가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고 했는데 번한은 『한서』에 요동군 속현으로 언급된 만(滿) 땅의 경계로 요산 변두리 요새라고 보았다. 이규경의 주장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강역을 만주로 확장하면서 기자와 고죽을 관련시킨 기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서 나온 것으로 주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견해는 조선 후기 만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만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 지식은 청나라 서적의 입수로 심화될 수 있었다. 숙종 23년(1697) 『성경지(盛京誌)』가 입수되고,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성경지』에 실려 있는 「성경여지전도」를 확대 복제하여 숙종과 비변사에 바쳤다. 조정은 이를 통해 심양·영고탑·오라·선창 등 만주의 주요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65] 남구만은 『약천집(藥泉集)』에서 요동은 애당초 기자가 봉지를 받은 지역이라 보았으며, 평양의 정전 유적이나 함허자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보았다.[66] 이 외에 기자조선의 영역을 만

65 이명종, 2014, 「17·18세기 조선에서 '만주=故土' 의식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문화연구』 58, 225쪽.

66 『藥泉集』 卷10 疏箚 進盛京地圖兼陳北關事箚; 『藥泉集』 卷29 雜著 東史辨證箕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 지역으로 확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홍여하, 유형원, 이익, 안정복[67] 등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여하(洪汝河, 1620~1674)는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68]에서 번한현은 지금의 요양성이며, 요하는 매우 많은데 패수는 그중의 하나로 요양성 서쪽에 있었다고 보았다. 요동 수천 리는 지금의 팔주 지역인데 옛날에는 조선에 속하여 모두 기씨의 소유였다고 이해했다. 평양은 본래 요양의 옛 이름이었지만 기자의 도읍에 옮겨 불렸기에 패수도 대동강으로 옮겨 부른 것이라 판단했다. 지명 이동을 통해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옮겼다고 이해하는 것은 현재 학계의 연구 성과와도 비슷하다.[69] 다만 홍여하는 기자는 요수를 건너 평양에 도읍하였다고 하여 기자가 도읍한 곳은 평양이라고 보았으며, 양국 몽현의 기자묘는 지자(支子)인 중(仲)이나 그 자손의 무덤이라 보았다.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그가 저술한 전국 지리지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70]에서 기자조선의 강역을 검토했다. 그는 오운(吳澐)의 '요하의 동쪽 한수(漢水)의 북쪽은 모두 기씨(箕氏)의 땅이다'라는 주장을 인용하고 『한서(漢書)』,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 『요동지(遼東志)』 등의 기록을 근거로 요하의 동쪽은 기씨(箕氏)의 땅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패수(浿水)는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해석했다.

이익(李瀷, 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71]에서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건국하였고 순임금이 12주를 설치할 때 현재의 요(遼)·심(瀋)에 해당하는 유주(幽州)도 포함되었는데 이곳이 단군과 기자의 옛 영토라고 판단했다.

---

67 이익, 안정복의 기자 인식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0, 「18세기 후반 順庵 安鼎福의 箕子 인식」, 『한국실학연구』 2; 김문식, 2003, 「星湖 李瀷의 箕子 인식」,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참고.

68 『東國通鑑提綱』 卷1 朝鮮紀 上 殷太師.

69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70 『東國輿地志』 總序.

71 『星湖僿說』 卷1 天地門 檀箕疆域; 『星湖僿說』 卷2 天地門 朝鮮地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는 기자의 수도는 평양이었으나 연나라와 국경이 접해 있고 고죽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보았다. 이익은 지금 만리장성 밖으로 요(遼)·심(瀋)의 지역이 모두 조선 영토 안에 있었다고 이해하며 만번한은 지금의 압록강이었다고 해석했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동사강목(東史綱目)』[72]에서 『한서』, 『당서』, 『요사』 지리지, 『요동지』, 『일통지』, 『성경지』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요동의 태반이 기자의 제봉(提封)이 되었다고 보면서 오운이 "요하 이동, 한수 이북이 다 기자의 땅이었다"고 한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기자는 평양에 도읍했다고 이해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역사지리 연구는 단군과 기자의 강역을 평양 일대에 비정하던 설에서 요동·요서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조선 전기 역사가들이 고대의 지명을 한반도 내로 비정하려던 역사인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이었다.[73] 또한 이러한 인식은 역사지리학의 발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안정복에게 지리 고증은 '기자마한정통론'의 논리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한 강목체의 자국사는 다시 문화적 중화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74]

다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기자가 도착한 지역과 기자조선의 중심을 여전히 평양으로 보면서 그 강역을 만주로 확장해보았기에 평양의 기자묘나 기자의 평양 동래를 비판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행을 다녀오며 직접 만주의 지리를 검토하고 돌아온 학자들에 의해 기자조선의 첫 도읍 및 기자가 동래한 지역은 평양이 아니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청나라에 다녀오기 앞서 1773년 평양을 방문하여 기자가 시행했다는 정전제(井田制)의 유적을 돌아보고 「기자전기(箕子田紀)」를 지은 바 있다. 그는 기자전의 유적을 바탕으로 정전(井田)의 이상을 실

72 『東史綱目』 附 卷下 地理考 箕子疆域考.
73 정구복, 2008, 『한국근세사학사: 조선 중.후기 편』, 경인문화사, 59쪽.
74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돌베개, 2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법전(法典)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75] 그리고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칠십 수(壽)를 축하하기 위한 외교 사절단으로 청나라를 방문하고 『열하일기(熱河日記)』를 남기게 된다. 『열하일기』 도강록(渡江錄)에서 그는 『한서(漢書)』, 『명일통지(明一統志)』, 『당서(唐書)』, 『요사(遼史)』, 『금사(金史)』, 『문헌통고(文獻通考)』 등 국내외 방대한 문헌을 인용하여 기자의 봉지를 만주 일대로 파악했다.

박지원은 『금사』[76]와 『문헌통고』에 의하면 광녕·함평은 기자의 봉지(封地)라 했으니 영평·광녕의 사이가 하나의 평양이며, 『요사』에 발해 현덕부는 본래 기자를 봉한 평양성으로 지금의 요양현이라 했으니 요양현도 또 하나의 평양이라고 보았다. 그는 광녕이 평양이었다는 근거로 광녕현에 기자묘가 있어 한관을 씌운 소상을 세웠는데 명나라 가정(嘉靖) 때에 전쟁에 불타버렸다는 기록도 제시했다. 따라서 기자가 처음에는 영평·광녕 지역에 있었는데 연나라 장군 진개에게 쫓겨 2,000리 땅을 잃고 동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후 머무는 곳마다 평양이라 하였는데 대동강에 있는 평양도 그중의 하나이며, 패수도 고구려의 경계 변화에 따라 변했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 있다가 연나라 진개의 침입으로 평양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이동설의 논지와 유사하다. 또한 박지원은 『한서』 지리지에 현도와 낙랑은 있지만 진번과 임둔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한사군은 요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진 땅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보았다. 박지원은 이러한 역사지리적 고증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의 평양만 유일한 '평양'인 줄 아는 우리나라의 고루한 선비들이 패수의 위치도 한반도 안에서만 찾으려는 데 대해 통렬하게 비판

75 염정섭, 2012,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무늬, 197쪽.

76 함평부(咸平府)가 고조선의 땅으로 기자의 봉지였다는 내용은 『금사』가 아니라 『원사(元史)』의 기록(『元史』 卷59 志第11 地理2, "咸平府 古朝鮮地 箕子所封 漢屬樂浪君")에서 확인된다(김명호, 2022, 『열하일기 연구』(수정증보판), 돌베개, 630~6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77]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 평양만 알기 때문에 기자가 평양에 도읍했다 하면 이를 믿고, 평양에 정전(井田)이 있다고 하면 이를 믿으며, 평양에 기자묘가 있다고 하면 이를 믿어서, 만일 봉황성이 곧 평양이라 하면 크게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요동에도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 하고 나무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요동이 원래 조선의 땅이며, 숙신, 예, 맥 등 동이(東彝)의 여러 나라가 모두 위만조선에 예속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오라(烏喇), 영고탑(寧古塔), 후춘(後春) 등지가 본시 고구려의 옛 땅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78]

이처럼 박지원은 기자조선의 첫 도읍을 요동 지역으로 비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양에 있는 기자 관련 유적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홍여하가 지명이동설을 통해 고조선의 도읍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고 파악할 수 있는 논지를 펼치고도 결국 기자가 도읍한 곳은 평양이었다고 한 것과는 대조된다. 비록 박지원이 체계적인 역사서를 편찬하지는 못했으나 그의 이러한 인식은 청에 다녀온 다른 학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은 박지원의 영향을 받은 학자로 볼 수 있는데 그는 1832년에 청나라에 다녀오고 『연원직지(燕轅直指)』를 편찬한다. 『연원직지』에서 그는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의 평양만 알아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고, 평양에 정전이 있으며, 평양에 기자의 묘가 있다고 말하면 믿지만 요동에 평양에 있다고 하면 꾸짖으며 괴이하게 생각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사군의 절반은 요동에 있고 절반은 여진에 있다고 이해했다.[79] 김경선 역시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요동에도 평양이 있었다고 이해했다. 이를 통해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

77 김명호, 2022, 위의 책, 147~148쪽.
78 『熱河日記』 卷1 渡江錄 6月 28日 乙亥.
79 『燕轅直指』 卷1 出疆錄, 11月 24日 鳳凰城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는 인식과 평양의 기자 유적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그쳤으며 기자조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성해응이 평양에 있는 기자묘(箕子廟)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증하자, 이양천(李陽川)이 큰 소리로 "우리나라에 겨우 기자 하나가 있는데 그대는 그것마저 잃어버리고자 하는가? 그 무슨 심사인가?" 하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80]는 당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당대 기자가 조선의 정체성 문제와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잘 말해주며 이러한 기자에 대한 존숭과 관심은 당색과 학파를 떠나 조선의 모든 지식인이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81]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기자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그 기록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은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진 근대 시기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연구가 나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Ⅳ. 맺음말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성립된 조선은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시대에 따라 기자조선이 더욱 강조된 시기가 있었으나 기자조선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자조선을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평가한 인식들도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은 후 기자를 강조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전승을 본격적으

80 『縹蒥乙籤』 卷15 業秘紀5 睡餘演筆 下.

81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비판한 정사신의 인식이 나오기도 했다. 정사신은 『매창문집』에서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이야기는 진나라 이후 야인이 만든 이야기를 사마천의 『사기』에서 답습한 오류라고 보았다. 그는 은·주가 조선과 통하지 않았고 춘추전국시대까지 조선을 알지 못했기에 기자를 봉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대(漢代)가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서 조선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사실상 기자 동래와 기자조선도 부정할 수 있는 논리였다. 이 외에 『여사제강』 등 기자조선의 실체를 확신하지 못한 문헌도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자 정통론의 입장과 결부되어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설을 반박한 견해가 꾸준히 나왔다. 주로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사기』 기록의 문제점이 검토되었으며 함허자의 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만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조선의 강역이 만주까지 이르렀고 요동과 평양에 동일한 지명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를 통해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은 평양은 지금의 평양부가 아니라 요동에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기자가 평양에 왔다는 기록을 무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했다.

조선시대에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그쳤으며 기자 동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 시각에서 기자조선 관련 기록을 검토했던 이러한 인식은 근대 시기 기자조선을 극복하는 연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근대 시기 기자 인식에 주는 과정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久菴遺稿』, 『高麗史』, 『冠巖存藁』, 『紀年東史約』, 『東國輿地志』, 『東國歷代總目』, 『東國通鑑提綱』, 『東史綱目』, 『東史纂要』, 『東史會綱』, 『梅窓文集』, 『北軒集』, 『三峯集』, 『星湖僿說』, 『麗史提綱』, 『燃藜室記述』, 『燕轅直指』, 『熱河日記』, 『藥泉集』, 『五州衍文長箋散稿』, 『元史』, 『月汀集』, 『栗谷全書』, 『朝鮮王朝實錄』, 『叢史』, 『楓巖輯話』, 『縹礱乙籤』, 『標題音註東國史略』.

단행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국내편)』, 새문사.

김명호, 2022, 『열하일기 연구』(수정증보판), 돌베개.

김문식, 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김정배,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동북아역사재단, 2018~2022,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편』 Ⅰ~Ⅴ.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돌베개.

신채호, 1911, 『讀史新論』, 재미한인소년서회.

정구복, 2008, 『한국근세사학사: 조선 중.후기 편』, 경인문화사.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 연구』, 일조각.

한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1989,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_____, 2019, 『세종평전』, 경세원.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논문

김경수, 2000, 「『麗史提綱』의 史學史的 考察」, 『韓國史學史學報』 1.

김경태, 2016, 「임진왜란 시기 朝鮮·明관계와 箕子인식의 양상」, 『한국사학보』 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문식, 2000, 「18세기 후반 順庵 安鼎福의 箕子 인식」, 『한국실학연구』 2.
_____, 2003, 「星湖 李瀷의 箕子 인식」,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김성규, 1996, 「매창 정사신 문학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수, 2022,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과 평양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89.
김태윤, 2019. 「『천운소통(天運紹統)』의 기자(箕子)와 기자조선 기록 고찰」, 『인문사회』 21-1.
박광용, 1980,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 고려부터 한말까지의 사서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
박대재, 2016 「기자조선과 소중화」, 『한국사학보』 65.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신주엽, 2022,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대구사학』 148.
염정섭, 2012,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무늬.
오현수, 2012 「기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대동문화연구』 79.
이군선, 2014, 「洪敬謨가 본 古都 平壤과 그 遺蹟」, 『동양한문연구』 39.
이만열, 1976, 「17·8世紀의 史書와 古代史 認識」, 『韓國의 歷史認識』 하, 創作과批評社.
이명종, 2014, 「17·18세기 조선에서 '만주=故土' 의식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문화연구』 58.
이영호, 2009, 「儒敎의 民本思想과 朝鮮의 井田制 受容」, 『퇴계학논총』 15.
정재훈, 2004, 「조선후기 史書에 나타난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실학연구』 8.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조원진, 2009,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국학연구』 20.
_____,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32.
_____, 2021, 「최근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한국사학보』 85.
_____, 2023a,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_____, 2023b, 「『漢書』의 古朝鮮·漢郡縣·箕子 자료에 대한 검토」, 『동양학』 92.
최남선, 1929,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최봉준, 2013, 「李穀의 箕子 중심의 국사관과 고려·원 典章調和論」, 『한국중세사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 36.
_____, 2014, 「정도전의 箕子 중심의 역사관과 급진적 문명」, 『韓國史學史學報』 29.
_____, 2015, 「여말선초 箕子 중심의 역사계승의식과 조선적 문명론」, 『韓國史學史學報』 31.
한영우, 1975, 「17世紀의 反尊華的 道家史學의 成長: 北崖의 「揆園史話」에 대하여」, 『韓國學報』 1.
_____, 1982, 「고려~조선전기의 기자인식」, 『한국문화』 3.
허태용, 2015, 「전근대 동국의식의 역사적 성격 재검토」, 『역사비평』 111.

江畑武, 1983, 「箕子朝鮮開国伝承の成立」,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18(4).
井上秀雄, 1982, 「「史記」·「漢書」の東夷王者観」, 『朝鮮学報』 10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조원진

이 글은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성립된 조선은 기자 동래를 인정하고 기자조선을 한국사 체계에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자조선을 부정하거나 관련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인식들이 있었다. 기자 전승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주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던 기록의 모순점을 지적하거나, 기자가 도읍한 곳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사신은 『매창문집』에서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이야기는 진나라 이후 야인이 만든 이야기를 사마천의 『사기』에서 답습한 오류라고 보았다. 그는 한대(漢代)가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서 조선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고 이해했다.

조선 후기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사기』의 기사나 『동국통감』에 인용된 출처가 불확실한 함허자의 글을 비판하는 견해가 꾸준히 나왔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은 기자의 도읍지를 지금의 평양으로 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그쳤으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자조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 시각에서 기자조선 관련 기록을 검토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시기 기자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조선, 기자, 기자조선, 『매창문집』, 『열하일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ritical Review on Kija Joseon in Joseon Dynasty

Cho Wonchin

This paper examined critical awareness on Kija Joseon(箕子朝鮮) in the Joseon(朝鮮) Dynasty. Joseon, which established Sung Confucianism as its foundational principle, recognized the theory that Kija(箕子) came to Korea and incorporated Kija Joseon into the Korean history system, though it was somewhat recognized that the Kija Joseon was rejected from a relatively objective viewpoint or that related records had to be critically reviewed. The Kija tradition has been criticized by two views: it contradicts with the record showing that King Wu enthroned Kija as the king of Joseon; and the capital determined by Kija was not Pyongyang.

For example, Jeong Sasin noted in *Maechangmunjip*(『梅窓文集』) that the story in which Kija paid a visit to the Zhou dynasty and King Wu enthroned him as the king of Joseon, which was created by an unrefined man after Qin, was wrongly repeated in *Sagi*(『史記』) o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amacheon. He understood that Chine had not heard about Joseon until the Han dynasty.

There has been continuous criticism against the article of *Sagi*, which argues that Kija was enthroned as the king of Joseon, or Ham Heoja's unauthentic writing quoted in *Dongguktonggam*(『東國通鑑』). Park jiwon's *Yulha Journal*(『熱河日記』) and others negatively recognized the viewpoint that Kija's capital was Pyongyang.

The critical awareness on the Kija Joseon was limited to some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re was a limit in completely rejecting it. Such an awareness, which make records about the Kija Joseon from a relatively objective viewpoint, in spite of the historical limit,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led to a full-fledged reconsideration on the Kija Joseon in the modern times.

Keywords: Joseon(朝鮮), Kija(箕子), Kijajoseon(箕子朝鮮), *Maechangmunjip*(『梅窓文集』), *Yulha Journal*(『熱河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09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식민지 조선 당국의 대응

최은진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I. 머리말
II. 조선총독부의 동향 파악과 태세
III. 경찰과 법원의 정보 보고와 대응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2023년은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1]와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진상 규명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도 없었다.

1923년 9월 1일은 토요일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58분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지역에 진도 7.9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44만여 채의 가옥이 소실(燒失)되는 등 큰 재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날부터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느니, 일본인을 폭행했다느니, 폭동을 일으켰다느니,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느니, 폭탄을 소지하고 투척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경시청을 비롯하여 일본정부 당국은 일관되게 '조선인의 폭동'을 유언비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언비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정보물 인쇄·발행을 통해 그 조장·유포에 앞장섰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불안을 떠넘길 희생양으로 주로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을 지목한 가운데, 대재해로 인한 일본 국민의 좌절을 조선인 학살을 통한 증오로 전화(轉化)하게 만든 것이다.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 내무대신은 9월 2일부터 '조선인 내습(來襲) 폭동'으로 도쿄 및 그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했다. 진재로 혼란한 와중에 성립된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 내각은 유언비어이던 '조선인 폭동, 일부 사회주의자의 선동'을 인정하고, '그 내란으로의 발전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이례적으로 재빠르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9월 3일 간토계엄사령관은 명령의

---

* 투고: 2023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22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23일

1 이 글에서는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로 용어를 통일했다. 한국에서는 '관동대지진'이란 표현이 더 익숙하나 일본에서는 '간토대진재'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정확히 대지진과 그로 인한 재해를 포괄하기 위해 '진재' 개념을 쓰고 지명의 현지 발음을 살려 '간토대진재'로 명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행 목적으로 "불령(不逞)한 거동으로부터 이재자(罹災者)를 보호할 것"을 들어 '불령한 거동'을 상정했다. 계엄령은 학살자들에게 학살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 결과 공공연하게 조직적·계획적인 조선인 '대량 학살(제노사이드)'이 자행되었다.[2] 이날 '조선인 폭동설'이 허위 보도임을 확인했는데도, 일본 군경(軍警)과 관헌이 만든 자경단(自警團, 재향군인회·청년단을 모체로 함)은 며칠간 조선인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6,000여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살해당했다.[3]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개 간토대진재로 인한 피해 현황과 조선인 학살의 진실, 재일조선인의 대응 또는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일본정부의 사후 조치, 이후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기억의 계승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4]과 한국[5]에서 이루어졌다.

---

2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1975,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現代史出版會, 35~36, 47쪽;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1983,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 青木書店, 20쪽; 강덕상, 1998, 「1923년 관동대진재 대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5, 59쪽;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2003,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 6~7쪽; 강효숙, 2018,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전북사학』 52, 284쪽; 이만열, 2023,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년」, 『푸른사상』 43, 10~14쪽; 김강산, 2023,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본 관동대학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 90쪽.

3 姜在彦, 1960, 「關東大震災と朝鮮人迫害」, 『朝鮮問題研究』 4(3·4), 59쪽; 山田昭次, 1993, 「關東大震災の時朝鮮人虐殺責任のゆくえ」, 『歷史評論』 521, 20~21쪽; 강덕상, 1998, 위의 글, 62쪽; 강덕상, 1999,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 47, 178~179, 188, 191~194쪽; 關東大震災85周年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2008, 『震災·戒嚴令·虐殺』, 三一書房, 91쪽;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創史社, 16~46쪽;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2014, 「간토대지진과 지바(千葉)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2쪽; 조경희, 2017,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대구사학』 128, 80쪽; 姜德相, 2020, 『關東大震災』, 新幹社, 209~210쪽.

4 일본 연구로는 姜在彦, 1960, 위의 글; 朝鮮大學校朝鮮に關する研究資料編集委員會, 1963,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眞相と實態』, 朝鮮大學校;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實行委員會, 1974, 『かくさ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일본에서 일어난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해 식민지 조선 당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연구 몇 편에서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참여, 구제활동의 측면에서 주로 분석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식민지 조선 당국의 조선인 '보호' 내지 '구제'의 측면을 강조하고 조선인 '단속' 내지 '차별'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물론 '보호' 내지 '구제'와 '단속' 내지 '차별'은 통치의 양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 내지(內地)로 건너간 조선인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함께 국가적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할 식민지 조선 당국이 조선인 학살 상황에서 과연 보호와 구제의 입장으로 일관했는지, 오히려 단속과 차별에 더 비중을 두지는 않았는지, 실제 식민지 조선 당국

ていた歷史』;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犧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1975, 앞의 책;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犧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1983, 앞의 책; 山田昭次, 1993, 위의 글; 山岸秀, 2002,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早稻田出版; 姜德相, 2003, 『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青丘文化社;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2003, 앞의 책; 關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2004,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日本經濟評論社; 關東大震災85周年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2008, 위의 책; 山田昭次, 2011, 위의 책; 關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2014, 『關東大震災記憶の繼承』, 日本經濟評論社; 姜德相, 2020, 위의 책이 대표적이다.

5 한국에서는 최근 강덕상 외, 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 46; 김인덕, 2015,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49;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2017, 「일본 내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 진상 규명 운동의 현황」, 『한일민족문제연구』 33; 조경희, 2017, 앞의 글; 강효숙, 2018,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전북사학』 52; 김계자, 2019, 「일본의 대지진과 재일조선인」, 『일본연구』 32; 성주현, 2020,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선인; 김도형, 2020, 「관동대지진 한국인 피살자 명부 자료의 분석」, 『북악사론』 12;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편, 2021,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강산, 2022, 「관동대학살에 대해 해외 조선인이 생산한 문건과 그 성격」, 『동국사학』 74; 김진웅, 2022,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지역 조선인 유학생계의 변화와 학생운동의 추이」, 『사림』 82; 배영미, 2022, 「한국 대중문화 속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서사 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43; 김강산, 2023, 앞의 글; 이만열, 2023, 앞의 글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구적으로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연구한 금병동은 조선인 학살 발생에 총독부가 '경악'하면서 이 학살 문제로 일본의 조선통치가 크게 곤란해질까 하여 '민심 안정'을 위한 통첩을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총독부는 대체로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① 조선인 학살 신문기사 방지, ② 귀국 조선인 우대와 박해 사실 은폐, ③ 민족주의계열 신문 감시, ④ 학살 문제 보도기사 압수, ⑤ 학살 사건의 원인을 소위 '불령선인'의 폭행으로 몰기, ⑥ 친일파 동원, ⑦ 조선인 진상 보고회 등 발언 탄압, ⑧ 재조일본인 자경단 조직 저지 등이다.[6] 이러한 총독부의 대응 유형은 지금도 유효한 분석이나,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연구가 진전되지는 못했다.

노주은은 간토대진재 이후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해 대진재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주로 대진재가 발생한 직후 총독부가 취한 초동대응과 총독부 도쿄 출장원사무소의 조선인 수용소 운영, 총독부의 재일조선인 통제책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독부가 진재 처리 과정에 합류하면서 능동적으로 재일조선인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3·1운동 이후 일본 내무성과 총독부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축되면서 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참여가 확대되었고, 이후 간토대진재를 겪으며 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관여가 다시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수용소 업무를 총독부에 일임하여 학살로부터 조선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선전했는데, 이때 총독부는 일본정부가 학살 책임을 회피할 수단이었고 조선인 처리의 실무자 역을 자임했다. 총독부는 간토대진재로 예산이 삭감될까 우려했고, 학살 사건이 총독부 정책에도 영향을

6 琴秉洞 編, 1996, 「解說: 朝鮮人虐殺に關する植民地朝鮮の反應」,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 Ⅳ, 綠蔭書房; 關東大震災85周年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2008, 앞의 책, 98~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미칠까 위기의식을 느껴 적극적으로 진재 처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7]

한편으로 성주현은 간토대진재가 일어난 뒤 총독부가 조선의 중앙과 지방에서 벌인 구제활동에 주목했다. 총독부는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3·1운동 때와 같은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날까 염려했다. 따라서 총독부의 지시로, 또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인 경성부·인천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전주부 등 관의 주도로 구제활동이 이루어졌다.[8]

김광열은 총독부의 구제활동은 조선인 학살 사실을 왜곡·축소하고 그 피해를 무마하려 자기방어적 사후 조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총독부는 간토대진재 발생지역에서 귀국한 조선인들에게 함구령을 내려 조선인 학살 사실이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한인 노동자의 도일을 당분간 금지했다. 그리고 조선문신문의 학살 관련 보도를 통제했다. 다만 총독부는 1924년 6월 이전 조선인 사망자 830명을 선정하여 조위금을 교부했을 뿐이다.[9]

아울러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학계에서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마루모토 겐지(丸本健次),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니시무라 나오토(西村直登) 등이 간토대진재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의 반응을 주로 다루면서,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식민당국의 정보 통제 측면을 다루었다.[10]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총독부의 대응 내용은 소략한 데다가, 이들 연구는 총독부 경무국

---

7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12.

8 성주현, 2014, 「1923년 관동대지진과 국내의 구제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성주현, 2020, 앞의 책, 31~50, 102~111, 170~187쪽.

9 김광열, 2015,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동북아역사논총』 48.

10 田中正敬, 2003, 「關東大震災はいかに傳えられたか」, 『歷史地理敎育』 657; 田中正敬, 2005,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の反應」, 『人文科學年報』 35; 丸本健次, 2005, 「關東大震災に對する植民地朝鮮の反應」, 『アジア民衆硏究』 10; 宮本正明, 2006, 「朝鮮總督府關係史料にみる關東大震災」, 『アリラン通信』 36; 西村直登, 2020,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る朝鮮人の生と記憶」, 同志社大學博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안과가 당시 치안 개황에 대해 요약·정리한 정기간행물인 『치안상황』을 주된 사료로 삼고 있어 그보다 더 기초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며 이 글에서는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직후 식민지 조선 당국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의 조선총독부와 지방의 도(道) 당국, 그리고 '비상'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한 당국으로서 중요한 경찰, 법원이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동향을 파악·보고하고, 이에 어떠한 태세·대응을 취했는지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로써 관동대진재가 식민지 조선 당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총독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조금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서 사료를 추가로 분석하고, 경찰·법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새롭게 자료를 분석하겠다.

여기서 식민당국으로서 경찰과 법원의 대응을 별도로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먼저 경찰은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발생 시 총독부의 방침이 내려오기 전이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정보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미리 경계 태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자성이 있는 당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식민지기였으나, 입법과 행정의 기능이 혼재된 총독부와 별개로 사상 통제 등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던 주체적인 당국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과 법원 각 당국의 정보보고와 대응이 총독부에 전해져 그 태세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반대의 영향도 물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선 연구에서는 대체로 식민지 조선 당국이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상황에서 예산 문제 등 나름의 이유와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선인 보호·구제에 나선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러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일본 내 조선인 학살 상황을 식민지 조선 당국이 일본정부와 함께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진상을 왜곡하면서 학살을 더욱 조장한 측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독부 등이 본국의 '혼란'이 식민지 내 조선인 동요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조선인은 단속으로 일관하고 일본인은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민족 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서무기록 중 하나인 『(1923년 9월) 간토의 진재에 대한 정보』(1923)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이 사료철은 468쪽으로 방대한데, 당시 조선총독부와 경찰, 법원 등이 파악한 정보, 민심의 동향, 그에 대한 대응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목록화하여 일부 언급한 적이 있으나[11] 아직 자세히 분석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금병동 문고의 간토대진재 관계 자료 및 연구[12]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당시 민간에서 작성된 자료, 간토대진재 및 조선인 학살 문제와 관련한 식민지 조선의 반응에 대한 자료집을 참고하겠다. 이 밖에 당시 식민지 조선 내 신문기사를 정리해 본다.

Ⅱ. 조선총독부의 동향 파악과 태세

1. 총독부의 초동 대응과 구제사업

1923년 9월 1일 밤 10시 30분에 사이토 조선총독은 일본의 대진재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2시 경무국에 자세한 소식이 전해져 아침에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경무국장이 사이토 총독을 찾았다. 마루야마 경무국장은

11 성주현, 2020, 앞의 책, 182~184쪽.

12 금병동 문고 중 주로 다음의 자료 및 연구를 참고했다. 山本美 編, 1924, 『大正大震火災誌』, 改造社; 姜在彦, 1960, 앞의 글;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犧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1975, 앞의 책;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犧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1983, 앞의 책; 琴秉洞 編, 1996, 앞의 글; 丸本健次, 2005, 앞의 글; 宮本正明, 2006,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날 오후 6시 반경 조선호텔 연회석상에서 무선통신으로 요코하마의 대화재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9월 2일 새벽 2시의 전보도 공보(公報)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기에 총독부는 우선 대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날 마루야마 경무국장은 국경지역과 경상남도지사에게 "조선 내 인심의 동요와 내지 및 조선 외 '불령선인'과의 연락에 주의·경계"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낸다. 경남도지사 앞으로 전보를 보낸 것은 재일조선인 중 경남 출신자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에서 귀환할 때 이용하는 항구인 부산항이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총독부는 같은 날 서무부 문서과장 구라하시 기자무(倉橋錻)를 도쿄·오사카·나고야로 출장 보내, 구라하시는 일본에서 총독부 진재 처리 정보계 업무를 맡았다. 또 그날 구니토모 쇼켄(國友尙謙) 경무과장, 우에다 이사무(上田勇) 체신국 부사무관, 총독부 속(屬) 1명을 간토대진재 후 상황 조사와 조처를 위해 도쿄로 출장 보내고, 며칠 후에는 시가 기요시(志賀潔) 총독부의원장과 구호반을 구호활동을 위해 진재지로 보냈다.

9월 3일이 되자 공식 전보로 "진재를 이용하여 재류조선인이 방화·투척 및 기타 불령수단"을 행하니 "조선 내 조선인의 동요를 엄중히 단속하고 조선인의 내지 도래(渡來)를 저지"하라는 지시가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으로부터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도착했다. 유언비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식적으로 전한 것이다. 이에 총독부는 9월 4일부터 '요주의인물'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일본 경시청으로부터도 조선인의 도쿄 상경 저지 요청 전보를 받으면서 경계에 더욱 힘썼다.

9월 4일 밤 사이토 총독도 도쿄를 향해 출발하여 9월 5일 아침 부산에 도착해 급히 쌀을 싣고 재해지로 향했다. 사이토 총독이 도쿄로 간 표면적인 목적은 일본의 새로운 내각 조직과 관련해서였고, 구제쌀에 대해 상의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이토 총독은 "소수의 조선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간토의 '조선인 폭동설'을 자인(自認)하고, "선량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일본인과 똑같이 구호"하여 "'일선융화(日鮮融和)'의 결실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총독의 업무는 주로 조선총독부 도쿄 출장원사무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총독부 출장 직원, 출장소 직원들과 함께 주로 진재 정보 보고를 받고 사무를 처리했다. 총독이 일본에 머물며 지시하면서 진재 처리 사무는 수용소에 수용된 재일조선인의 구호 업무와 노동 사역(使役), 조선 송환에 집중되었다. 이 수용소 업무는 일본정부가 관할하던 업무를 총독부에 넘긴 것이었다. 진재 후 일본경찰은 육군과 협조하여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習志野) 보호수용소에서 조선인 3,000여 명을 관리했는데, 이후 이들 대부분을 총독부 출장소가 주관하는 도쿄 아오야마(青山) 수용소로 이송했다. 그리고 그중 노동할 수 있는 조선인은 상애회(相愛會)가 관할하는 니혼바시(日本橋) 수용소로 보냈다. 이후 9월 30일 총독은 조선으로 돌아간다. 총독부가 운영하던 조선인 수용소도 10월 말 폐쇄되고, 일부 수용소의 경우 조선인 노동자 숙박소로 전환되었다.[13]

그 밖에 구제사업으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진재 의연금 모집을 각 국장·부장 및 소속 관서장, 경성 제1차 소속 관서장 등에게 명했다. 간토대진재로 인한 참상(慘狀)에 조선 내 관공리 일동이 의연금을 갹출하여 위자(慰藉) 구조 자금으로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갹출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이재지(罹災地)에 송달하도록, 총독부 앞으로 송금이 기일에 지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것이었다. ① 갹출금은 월 봉급의 약 5/100를 표준으로 하고, ② 갹출금은 국·부에서 취합하여 명세서를 붙여 반드시 9월 25일까지 총독부 회계회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③ 갹출금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대로 통지하기로 했다.[14]

---

13 이상 「總督一行豫定變更乎」, 『매일신보』, 1923.9.6; 「善良なる朝鮮人に對しては遺憾なく保護して居る」, 『京城日報』, 1923.9.16; 田中正敬, 2005, 앞의 글, 33쪽; 노주은, 2007, 앞의 글, 7~10, 16~19, 22~23, 32~33쪽; 琴秉洞, 2008, 앞의 글, 97~100쪽; 조경희, 2017, 앞의 글, 85쪽; 성주현, 2020, 앞의 책, 171~172쪽.

14 政務總監 → 本府 各 局·部長, 第一次 所屬 官署長, 1923년 9월 5일, 「震災義捐金ノ募集ニ關スル件」, 庶務部長 → 本府 各 局·部長, 在京城第一次所屬官署ノ長, 1923년 9월 17일, 「東京方面震災義捐金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檢事局, 1923, 『(大正十二年九月)關東ノ震災ニ對スル情報』, 26, 2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한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진재로 인해 도쿄와 요코하마 2대 도시를 비롯해 각 지방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 우선 식량으로 쌀을 도쿄에 직송하기로 하고 1만 석을 급히 수집할 계획을 수립했다. 쌀 수집에 대해서는 조선곡물무역연합회에 자문한 후 총독부원과 관계 도 당국 직원을 인천과 군산에 파견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진재로 인해 시시각각 미곡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으나 '희생적 정신'에 호소하여 미곡을 특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도쿄에 도착한 후에는 위 가격에 운임 및 기타 실비만 더한 가격으로 매도하게 했다. 도쿄에서 미가가 위의 총 계산액보다 앙등해도 예약된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만일 하락하면 총독부에서 차액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9월 3일 오후 인천에서 쌀 4,700석을 제공하기로 계약되었고, 9월 4일 군산에서 5,150석, 경성에서 150석의 선적(船積)에 착수했다.[15]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도 간토대진재 후 구제사업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진재구호사무소를 설치하고, 적십자 조선본부,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와 함께 쌀·생활필수품 제공, 의류·식료품 등의 위문품 운송, 이재민의 구조, 의연금 모금을 진행했다.[16]

그리고 그해 9월 중순경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조선의 귀족·부호에게 직접적으로 구휼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간토대진재 후 이완용(李完用) 후작이 도쿄에 건너가는데 바로 일본정부와 총독부가 그를 도쿄로 부른 것이었다. 그 용건은 진재에 대해 귀족과 부호의 구휼금을 모집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고종의 조카인 조남승(趙南昇)이 북경(北京)에서 국권회복운동을 할 때 고종이 가지고 있던 한일은행(韓一銀行) 주식 3,000주(株)를 조남승에게 준 것을 이완용, 민병석(閔丙奭)에게 명하여 이를 찾아내 구휼금으로 기부하도록 종용했다.[17]

---

15 「진재 구원: 식량공급계획」, 『동아일보』, 1923.9.6.

16 조경희, 2017, 앞의 글, 85쪽.

17 京城 本町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9일, 「震災ト民心ノ傾向」,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2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총독부의 사건 은폐·왜곡과 조선인 단속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진재 직후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전보를 받은 후에는 조선 내 단속을 강화하며 일반 민심의 동향을 주시했다. 아울러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이 총독부 식민통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18]

이에 우선 조선총독부는 언론을 통제하면서 당시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은폐·축소·왜곡하려 했다. 총독부는 정부기관 이외에는 간토대진재 시 학살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탄압했다. 이에 따라 조선의 민족주의계열 신문기사를 검열·삭제하는 한편, 반대로 도쿄의 조선인들이 폭행했다는 유언비어는 사실처럼 신문에 발표하게 하는 등 선전에 힘썼다.[19] 총독부에 의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그해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학살 사건에 대해 게재 금지 600여 건, 차압 조치 10여 건을 당해 보도가 거의 불가능했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간토대진재 발생 후 10여 일간 주로 일본인들의 참담한 피해 상황을 보도하며 피해자 입장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인 참상은 큰 데 비해 재일조선인은 '안전'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축소 보도하여 진상을 왜곡했다. 심지어 재일조선인을 학살한 자경단이 재일조선인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하기도 했다.[20]

〈표 1〉은 1923년 9~10월 '불온언동'과 유언비어 유포로 단속된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불온언동'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1,300여 명을 검거했다가 훈방 조치하거나 100여 명을 법규 위반 검사 송치, 즉결 처분했다.[21]

---

18 노주은, 2007, 앞의 글, 10~11쪽.

19 田中正敬, 2003, 앞의 글, 65쪽.

20 성주현, 2020, 앞의 책, 38, 41~42, 46쪽.

21 장세윤, 2013, 앞의 글, 307쪽; 이만열, 2023, 앞의 글, 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1923년 9~10월 진재에 관련된 '불온언동' 및 유언비어 단속 일람표

구분	「칙령」 위반										「경찰범처벌규칙」 위반										「보안법」 위반										합계		훈방					
	검사 송치		훈계 방면		즉결				계		검사 송치		훈계 방면		즉결				계		검사 송치		훈계 방면		즉결				계				일본인		조선인		계	
					구류		과료								구류		과료								구류		과료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경기															4	4	3	3	7	7											7	7	26	28	48	52	74	80
충북																																	3	5	96	105	99	110
충남													(1)	(1)	5	5	(1) 1	(1) 1	(2) 6	(2) 6											(2) 6	(2) 6	12	14	48	56	60	70
전북	1	1							1	1					1	1			1	1											2	2			52	67	52	67
전남	1	4							1	4					4	5			4	5											5	9	9	9	70	74	79	83
경북	1	1							1	1			1	1	29	31	1	1	31	33											32	34	5	5	165	186	170	191
경남	6	9	(1) 6	(1) 7					(1) 12	(1) 16			(1) 6	(1) 6	9	9	6	7	(1) 21	(1) 22											(2) 33	(2) 38	23	25	303	323	326	348
황해	6	6							6	6																					6	6	2	2	20	32	22	34
평남	1	1	1	1					2	2					2	2			2	2											4	4	27	33	75	125	102	158
평북																																			12	21	12	21
강원															3	3			3	3	1	1							1	1	4	4	2	2	100	115	102	117
함남							1	1	1	1					4	4			4	4											5	5	5	5	40	40	45	45
함북																																			13	13	13	13
계	16	22	(1) 7	(1) 8			1	1	(1) 24	(1) 31			(2) 7	(2) 7	61	64	(1) 11	(1) 12	(3) 79	(3) 83	1	1							1	1	(4) 104	(4) 115	114	128	1,042	1,209	1,156	1,337

출전: 朝鮮總督府 警務局, 「關東地方震災ノ朝鮮ニ及ホシタル狀況」, 琴秉洞 編, 1996, 앞의 책, 38쪽.
비고: 괄호 안 숫자는 일본인, 괄호 밖 숫자는 조선인을 가리킨다.

〈표 1〉을 보면, 일본 천황이 공포하는 「칙령」 위반의 경우가 조선인 24건 31명 및 일본인 1건 1명,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의 경우가 조선인 79건 83명 및 일본인 3건 3명, 「보안법」 위반의 경우가 조선인 104건 115명 및 일본인 4건 4명으로, 어느 경우에도 조선인 단속이 현격히 심했으며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2]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의 경우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서울에 살던 김용구(金容球, 당시 21세)라는 동아일보사 문선(文選) 견습생이 그해 9월 7~8일 오후 8시경 종로 어느 이발점에 조선인들이 모인 곳에서 9월 8일경 『동아일보』 호외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 호외에서 삭제된 내용은 "이번에 도쿄지방 진재 때 조선인이 음료수에 독약을 투입했다고 하여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어, 지방민도 군대도 매우 분개하여 조선인으로 보이면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죄의 유무를 불문하고 군도(軍刀)로 죽이거나 총살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구금하고 있다는 기사"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9월 21일 동대문경찰서는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1호[사람을 광혹(狂惑)하게 하는 유언(流言)·부설(浮說) 또는 허위의 보도를 한 자]에 따라 김용구를 구류 10일에 처했다.[23] 즉 조선인 학살 상황에 대해 전한 것을 단속하여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이때 '조선인 폭동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총독부는 일본에서 귀국하는 조선인을 위무(慰撫)하거나 피해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유족에게 1인당 100엔의 조의금을 지급하고, 지방관에게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22 「보안법」은 통감부가 1907년 제정했는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또한 총독부는 1912년 「경찰범처벌규칙」을 제정하여 일상생활도 엄격히 단속했는데, 무려 87개 항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경찰관서에서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했다(법제처, 「경찰범처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3 京畿道警察部長 → 法務局長, 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22일, 「流言蜚語取締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2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도 했다.[24] 9월 7일경부터 조선인 이재자가 조선으로 귀국하기 시작했다.[25] 그러나 귀국자가 늘어나는 9월 10~20일에 들어서면,[26] 조선인 학살 정보가 식민지 조선 내 널리 알려져 이전에는 조선인 학살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제 비분강개하는 상황이 된다.[27] 심지어 재일조선인 중에는 귀국해서 경성의 일본인에게 보복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28] 이에 조선총독부는 많은 조선인이 귀국하면서 일본의 정보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에 대응하여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간토대진재에 관련한 정보는 실제 학살 소식이든 유언비어이든 엄격하게 통제하려 했다.[29]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진재 후 조선인 단속을 위해 조선인의 일본 내지 도항을 제한했다. 당시 대진재가 일어난 현장에 가족을 둔 사람이나 방학을 맞아 귀국했던 유학생들이 재일조선인 안부를 우려하며 도항하고자 했다. 또 민간에서 현지에 조사위원을 파견하려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9월 6일부터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일본 도항을 전면 제한했다. 총독부는 '과대한 선전'이 번지

---

24 성주현, 2014, 앞의 글, 183쪽.

25 丸本健次, 2005, 앞의 글, 103쪽.

26 간토대진재로 귀국한 조선인은 1923년 9월 5일까지 1,086명, 9월 30일까지 1만 1,441명, 10월 11일까지는 무려 3만 1,563명, 1924년 1월 31일까지는 4만 8,316명(노동자 90%, 학생 4%, 기타 6%)에 이르렀다고 한다(「귀환한 조선인 벌써 1만여 명」, 『매일신보』, 1923.10.9; 「관동진재 후 귀환 조선인 총수」, 『매일신보』, 1924.3.12; 국사편찬위원회, 1972,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7, 152, 164, 250쪽). 그런데 그중 상당수인 4,000~5,000여 명은 오사카 서쪽 간사이(關西)지방 노동자들로, 진재 후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머무르는 데 위험을 느껴 귀국하거나, 불경기가 이어져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있던 조선인의 송환」, 『동아일보』, 1923.9.21; 「鮮人續續歸國」, 『京城日報』, 1923.10.2).

27 京城 本町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2일, 「震災ト民心ノ傾向」,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63쪽; 宮本正明, 2006, 「朝鮮總督府關係史料にみる關東大震災」, 『アリラン通信』 36, 3쪽.

28 京城 西大門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5일, 「內地震災ニ對スル一般ノ狀況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172쪽.

29 西村直登, 2020,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る朝鮮人の生と記憶」, 同志社大學 博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않도록 조선인의 이동을 금지하라는 일본 내무성 방침에 따라 조선인의 도일 금지를 선언했다. 이에 조선인 노동자 도항 금지에 대한 해제 요구가 9월 말부터 조선 사회에서 거론되었고 점차 노동자 도항 금지 해제 요구가 거세어졌다. 하지만 총독부는 이듬해 6월 1일에 가서야 도항 제한을 철폐한다.[30]

한편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이 활발한 국경지대의 경계를 강화했다.[31]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국외 형세를 고려하여 사찰 경계를 엄밀히 하고자 했다. 즉 노령(露領) 방면의 '불령선인'이 이 기회를 틈타 한꺼번에 조선 국경을 넘어 충돌을 빚을 듯하고, 또 북경·상해(上海)지방 조선인들이 조선 및 일본 내지에서 직접 행동 실행을 기도하고 있으며, 소련 공산당이 진재 구제를 명분으로 비밀리에 적화(赤化) 선전을 계획하고 있고, 간도(間島)지방 '배일(排日)선인'이 조선 내로 들어와 '소요'를 다시 일으키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소식이 총독부에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인과 공산당, 소련인들이 일본의 재해에 '쾌재'를 부르며 '불령선인'들을 선동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총독부는 국경지방의 경비, 해안선의 경계를 매우 엄격히 하려 함은 물론, 국외에 기차, 기선(汽船) 등을 타고 연락·왕래하는 자들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사찰하려 했다.

예를 들어 당시 총독부가 파악한 정보를 보면, 의열단장 김원봉(金元鳳)이 북경에 체재하면서 동지 김창숙(金昌淑) 등과 모의하여, 일본 내지의 진재로 인해 민심이 동요하는 기회에 시급히 여비를 조달하여 부하를 조선 내에 파견하여 '폭거'를 실행하고 인심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32]

---

30 「當分の間鮮人勞動者內地渡航禁止さる」, 『京城日報』, 1923.9.8; 성주현, 2015, 「관동대지진 직후 재일조선인정책」,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31쪽; 조경희, 2017, 앞의 글, 84~85쪽.

31 田中正敬, 2005, 앞의 글, 33쪽.

32 1923년 하반기 의열단은 만주·서울·도쿄 세 방면에서 대규모의 암살·파괴활동을 전개한다는 광역거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에 북경으로 의열단의 본거를 옮긴 김원봉이 거사계획을 밀의하고 그해 9월 중순 선발대를 국내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정보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한 총독부는 고려공산당이 상해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9월 7일 또는 12일경 그 선전부의 대표들이 모여 일본 내지에 대한 주의 선전 건에 대해 결의한 점에 주목했다. 고려공산당은 이번 진재를 틈타 선전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관헌의 경계가 엄격하여 출입이 곤란하니 당분간 상황을 엿보아 빈틈을 노려 일본 내지에 선전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도쿄,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회주의자, 조선인 유학생, 노동자 등과 결탁하여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여 다수의 동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했다는 정보를 총독부가 입수한 상태였다. 나중에 실제로 고려공산당은 당원 약 70명을 무송현(撫松縣)에 숨어 있게 하면서 조선 내 선전 계획을 세우다가, 25명이 장백부(長白府) 방면으로 남하하고, 잔여 세력은 임강현(臨江縣), 집안현(輯安縣), 관전현(寬甸縣) 방면으로 분할 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와 서간도 국경지방에 있는 독립군 무장단체도 암호 전보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이번 진재를 기회로 하여 조선 국경에 침입하는 비밀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33] 한편 나중에 10월 초쯤 임시정부는 간토대진재 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하여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국무원(國務院)에서 포고문을 각국 언어로 인쇄·배포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서간도지방에서는 환인현(桓仁縣)에 있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총장 김동삼(金東三), 부총장 채상덕(蔡相德)이 일본 내지 진재를 기회로 삼아 조선 내 민심을 선동하여 일제히 만세를 고창하는 운동을 일으키도록 선전원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미 9월 10일경 부하 6명을 조

숙이 여기에 관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일본 거사는 오히려 간토대진재 후 조선인 학살과 단속이 이어지면서 거사 준비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김영범, 『의열투쟁 I: 1920년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75~177, 236쪽).

33 하지만 이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임시정부와 만주 일대 독립군은 전보로 연락을 주로 취하지 않았다(김희곤,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 I : 상해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9~1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 내에 잠입시킨 상태였다.[34]

이렇게 조선인 사찰과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진재 시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그 발생 당초부터 단 한 건도 의견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총독부는 일본정부와 보조를 맞춰 조선인 학살 은폐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듬해까지도 총독부는 책임 있는 성명은 고사하고 당국자 의견이라 할 만한 담화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35]

추가적으로 지방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도 당국의 대응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은 각 도에 통첩하여 '유언'에 인심이 혹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라고 명했다. 그 '유언'이란 '조선인 학살'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36]

도에서는 주로 도경찰부가 나서 '민정 사찰'을 했는데, 대체로 첫째, 간토대진재에 대한 부민(部民)의 감상, 둘째, 의연금 모금에 대한 감상, 셋째, 유언비어에 대해 조사했다.[37]

『(1923년 9월) 간토의 진재에 대한 정보』에서는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9월 5일 간토대진재에 대한 민정(民情)에 대해 경무국장, 각 도지사,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검사,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검사, 함흥보병 제37여단장과 제74연대장, 도내 각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도쿄 부근 진재와 관련해서 강원도 인민의

---

34 이상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 外務次官 등, 1923년 9월 13일, 「國外ノ形勢ニ鑑ミ査察警戒ヲ嚴密ナラシムル件」,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 外務次官 등, 1923년 9월 23일, 「京濱地方震災ニ關スル國外情報(其6)」,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 外務次官 등, 1923년 9월 23일, 「京濱地方震災ニ關スル國外情報(其7)」,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 外務次官 등, 1923년 10월 5일, 「京濱地方震災ニ關スル國外情報(其13)」,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 外務次官 등, 1923년 10월 13일, 「京濱地方震災ニ關スル國外情報(其21)」,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287~289, 302, 307, 395, 458~459쪽.

35 「진재 시의 조선인 殺戮 사건과 팸플릿 정책」, 『동아일보』, 1924.2.27.

36 「流言に惑はず安心せよ」, 『京城日報』, 1923.9.7.

37 성주현, 2020, 앞의 책, 184~1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감상을 보면, 춘천지방에서는 9월 2일 오전 10시 매일신보사 춘천지국에서 읍내 각 요소(要所)에 "이번 대지진으로 도쿄, 요코하마 시가는 완전히 쓰러졌다. 불이 나 지금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 전 시가가 전멸했다"는 게시문을 붙였다. 이에 일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놀라워했다고 한다. 일부 조선인들은 앞서 평양 지방의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아직 그 구제에 분주한데, 지금 또 내지에 진재로 참상이 벌어져 일본인이 진재를 두려워하여 조선, 만주 등지의 안전한 지대를 선택하여 올까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평강군(平康郡) 평강읍(平康邑) 내 일본인들은 이번 도쿄 부근의 진재는 실로 전에 없던 참화(慘禍)이므로, 9월 3일 정오 조선총독 앞으로 궁성(宮城)에까지 재해가 미친 사실에 매우 공구(恐懼)하니 위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38]

이처럼 도의 상황을 보면, 간토대진재 소식이 공식 전보보다도 하루 정도 빨리 9월 2일경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토 총독은 이미 9월 1일 밤 간토대진재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9월 2일 새벽 2시에 공식 전보는 아니지만 전보를 받은 마루야마 경무국장이 이날 아침 사이토 총독에게 이에 대해 보고한 후, 국경지역과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재빠르게 각 도에 소식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방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안전한 조선으로 많이 이주해 와서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한 점이 눈에 띈다. 진재 후 총독부는 조선인이 일본에 건너가는 것은 제한했지만, 일본인이 조선에 오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독부는 최대한 조선인은 단속하고, 일본인은 보호하도록 민족적으로 구분하여 조처했다.

---

38 江原道 → 警務局長, 各 道知事,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春川支廳 檢事, 鐵原支廳 檢事, 咸興步兵 第37旅團長, 咸興步兵 74聯隊長, 道內 各 警察署長, 1923년 9월 5일, 「民情彙報」,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21~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경찰과 법원의 정보 보고와 대응

1. 경찰의 조선인 운동 경계 및 경제적 위기 우려 보고

간토대진재에 대한 공식적인 전보가 오기 전날인 9월 2일, 이미 종로경찰서장은 경성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 앞으로 서울 시내 정황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서울청년회에서 기념회를 거행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그 간부가 출두하여 기념회 개최를 희망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보고한 이유는 서울청년회[39]는 간토대진재를 계기로 사회주의운동을 일으킬까 경찰 당국이 가장 경계·감시하는 단체였기 때문이다.[40]

도쿄에서 간토대진재에 대한 공식 전보가 온 다음 날인 9월 4일에 바로 종로경찰서장은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간토대진재에 대한 '민중의 감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일부 학생 및 주의자로 간주할 만한 무리가 서서히 상하 계급과 통하며 이번 대재해에 대해서 동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번 재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정치적 논평은 거의 없지만, 경제 방면에서 논평하여 그 장래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① 간토대진재 구제에 큰 비용이 필요해지면서,[41] 그 영향이 조선에 미쳐 예년의 보급금이 중지되지 않을까 걱정했다.[42] 게다가 각 개인에 대한 납세율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

---

39 서울청년회는 1921년 서울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청년단체로, 상해파(上海派) 고려공산당 국내 세력과 대립하여 당 조직을 지향한 고려공산동맹을 조직했다. 이후 전위 조직체인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기 위해 화요파와 경쟁하다가 1929년 8월 해체되었다.

40 京城 鍾路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2일, 「市內情況報告ノ件(第二報)」,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6~12쪽.

41 간토대진재로 인한 손해액은 백수십억 엔에 달했다고 한다(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23, 『(大正)大震災大火災』, 89쪽).

42 조선총독부는 1924년도 보급금으로 3,000만 엔을 요구하려다가 간토대진재의 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② 현재도 금융 핍박, 곧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인데 이번 재해의 결과 이것이 더욱 심해지고, 물가는 모두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43] 예를 들어 당시 필수품인 쌀은 2배로 가격이 올라, 조선처럼 무산자(無産者)가 다수인 곳에서는 당장 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 이에 당국이 '간상배(奸商輩)'를 단속해 주기를 희망했다. ③ 건축 재료, 의류는 물론 식량, 쌀값 등의 폭등을 피할 수 없는 때 반드시 폭동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④ 경성부 내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쌀값이 앙등할 것을 예상하여 쌀을 매점매석하고, 특히 정미상(精米商), 백미상(白米商) 등 미곡상이 쌀값을 더 올렸다. ⑤ 일본은행이 소실되어 중국 은(銀)의 시세에 커다란 변동이 생겼는데, 재해 전에는 일본 돈 1엔에 대해 중국 돈 1엔 30전 정도이던 것이 재해 후에는 정반대로 일본 돈 1엔에 대해 중국 돈 90전 정도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변동할 것으로 보였다. ⑥ 일본 내지의 보험회사(생명화재 포함)는 모두 이번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경성에 있는 이들 회사의 지점 모두 내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본사와 동일한 보조를 취할 것이므로 가입자에게 커다란 관계가 있어 지불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⑦ 한성은행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한성은행 도쿄지점에 예금 600만 엔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당한 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재해로 인해 대출금이 회수될 전망은 없고 예금자는 전부 인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혹 은행이 망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셋째, 일본제국의 수도인 도쿄가 전멸한 것은 일본이 이전부터 취해 온 식민지 정책이 참혹했던 결과로, 이번 사변은 소위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되

향으로 치수사업계획을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1,000만 엔을 삭감하여 2,000만 엔을 요구했다(「내년도의 보급금」, 『매일신보』, 1923.10.11).

43 그렇지 않아도 1923년에 조선 서부지방은 대수해(大水害)를 입어 금융의 핍박을 받고 물가가 등귀하는 상태였다(江原道警察部長 → 警務局長, 各 道知事, 朝鮮憲兵隊司令官,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春川·鐵原支廳 檢事, 咸興步兵 第37旅團長, 咸興步兵 第74聯隊長, 道內 各 警察署長, 1923년 9월 23일, 「內地震災ニ對スル部民ノ感想(第10報)」,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2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다는 것이었다.

넷째, 고학생(苦學生)들은 매 시각 발행되는 신문의 호외를 보고 좋아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정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이번 재해로 인한 실업자 구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들이 주의자와 공명하여 일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주의자가 은밀히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섯째, 보천교, 천도교, 조선교육협회, 기독교회, 불교청년회 등이 이번 재해에 조금도 동정을 표하지 않고 도리어 환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고학생 회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민심을 선동하고자 하면서 우선 학생 방면을 선동하려고 하여, 공사립 학교 학생의 동맹휴교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곱째, 이번 재해에는 유족 가운데 주의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보고 있어 철저히 단속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여덟째, 이번 대재해에 대해서 유족들은 크게 동정하고 있으니, 이재민 구조와 관련하여 셋쇼노미야(攝政宮)[히로히토(裕仁), 훗날 쇼와(昭和) 천황] 전비(典費) 등의 반을 할당하여 여기에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홉째, 이번 재해 시 많은 궁성(宮城)을 개방하여 이재민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일은 민주국(民主國) 건설의 전조(前兆)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44]

그 밖에 강원도경찰부장도 도내 평강(平康)지방 민간에서 대진재로 인해 일본 내지의 은행과 회사가 다수 소실되어 일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진재 이재민 구원을

---

44 京城 鍾路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4일, 「東京地方震災ニ對スル部民ノ感想」,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17~20쪽; 京城地方法院 開城支廳 檢事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3일, 「震災ニ關スル民心ノ傾向」,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1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한 의연금 모집에 열성인데, 이는 결국 호세(戶稅) 및 기타 세금으로 부과·징수되지 않겠는가 지방민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회양(淮陽)지방의 일부 민간에서는 배일사상을 품은 '불령 무리(徒輩)'가 일본 내지의 진재를 기회로 하여 음모를 기도하는 자가 많다고 보고했다. 또한 조선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 및 기타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이들 '불령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면에서 원조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었다.[45]

위 경찰의 '민중' 동태에 대한 보고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간토대진재가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논의가 오간 점이다. 간토대진재 구제에 큰 비용이 필요해지면서 일본정부가 조선에 보내던 예년의 보급금이 중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각 개인의 납세율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했으며, 금융 핍박이 더 심해지고 쌀값 등 물가가 폭등하여 당장 생활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염려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 당국은 '폭동'이 발발하지 않을까 주시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는 제 물가 등귀를 우려하여 칙령 「폭리취체령(暴利取締令)」[46]을 시행했다. 「폭리취체령」은 꽤 효과가 있어 그 발포 후 물가가 앙등하지는 않고, 쌀값도 이전보다 조금 상승하는 데 그치고 곧 하락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치안 부문에서는 유언비어 단속 등을 위해 「치안유지령」[47]을 적용하는 등 나름의 방책을 강구했다. 더욱이 진재에 대해 '불온한 언동'을 한 자는 징역에 처하

45 江原道警察部長 → 警務局長, 各 道知事,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春川·鐵原支廳 檢事, 朝鮮憲兵隊司令官, 咸興步兵 第37旅團長, 咸興步兵 第74聯隊長, 道內 各 警察署長, 1923년 9월 15일, 「內地震災ニ對スル部民ノ感想(第6報)」,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151~152쪽.

46 「폭리취체령」이 9월 10일 일본 척식국 통신에 따라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시행의 필요가 적은 것은 오히려 환희하는 바이라」, 『매일신보』, 1923.9.12).

47 9월 7일 과거 두 번이나 유산된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부활시킨 「치안유지령」이 긴급 칙령으로 공포되어, 치안을 해치는 사항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1925년 「치안유지법」의 전신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는 명령이 발포되었다는 말도 전해졌다.[48] 또 경찰은 한편으로 고학생, 실업자, 보천교, 천도교, 기독교회, 불교청년회, 조선교육협회, 유족 등이 소위 '주의자'와 연대하여 민심을 선동하여 동맹휴교 등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경계했다.

그러나 간토대진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거의 경제적 영향이 없는 지역도 있었고, 오히려 쌀값이 폭등하여 대지주가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9월 13일 인천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고한 '민심 경향 및 기타에 관한 건'을 보면, 간토대진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 처음에는 우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에 재해 소식이 보도되자 실제 일시적으로 특종 물품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상인들도 이번에 발포된 「폭리취체령」이 조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자 크게 경계하는 태세를 보였다. 수요자들도 내지의 진재 발생 당시에는 여러 물가의 폭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활난을 걱정했다. 하지만 일부 대지주는 쌀값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지방 주민들은 거의 자작하거나 자급자족하는 자가 많아 특별히 걱정할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가가 하락하는 곳도 있었고, 「폭리취체의 건」 부령(府令)이 발포되어 쌀값이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49] 또

---

48 京城西大門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4일, 「內地震災ニ對スル一般ノ狀況ニ關スル件」, 春川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5일, 「東京地方震災ニ對スル部民ノ感想」,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164, 169~170쪽.

49 仁川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3일, 「民心ノ傾向其他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38~40쪽; 「米界의 前途觀」, 『조선일보』, 1923.9.16. 일본에서는 간토대진재 직후 상공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간토대진재로 물가가 등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본정부가 비상수단으로 「징발령(徵發令)」, 「폭리취체령」, 「지불연기령(支拂延期令)」을 발동하고 생활필수품 수입관세를 감면하면서 일부 소수의 물가가 등귀했다가도 곧 1~2할 정도 하락했다고 한다(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23, 앞의 책, 103쪽; 山本美 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경기도경찰부장은 간토대진재로 다소 물가가 오른다 해도 당국에서 폭리 단속에 대한 준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성과 인천의 재고 미곡은 약 8만 석으로 반년 양식은 되고, 또 햅쌀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쿄 일대 식량 공급과 생활 안정이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여, 경성의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길어야 한 달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50]

2. 법원의 체제 수호 자세와 일본인-조선인 충돌 대비

간토대진재에 대한 공식 전보가 온 바로 이튿날인 1923년 9월 4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은 종로경찰서장에서 보고받은 내용의 대개를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고등법원 검사장, 경성복심법원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즉 도쿄 진재에 대한 정보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감상이 주로 학생들에 의해 전해져서 이를 믿는 자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첫째, 일본제국의 운명도 끝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이지(明治) 폐하의 시대는 치정(治政)이 구석구석까지 미쳐 미동(微動)도 없이 사시사철 사람들이 평화로웠는데, 다이쇼 시대 지금은 심히 이에 미치지 못해, 즉 정쟁(政爭)이 그치지 않고 노동쟁의라는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으며 이에 더해 미증유의 천변(天變)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문제는 아무리 수완가라고 해도 수습할 수 없고 사회조직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 공산제의 실현을 촉진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가 천재(天災)를 기회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한편, 무산자는 실업하여 궁핍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정치 중심을 확고히 하며 이를 진압

1924, 앞의 책, 94~95쪽).

50 「조선에는 물가가 폭등할 리가 없다」, 『매일신보』, 1923.9.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야 하나, 무산자(無産者) 운동 봉기가 일어나도 제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머지않아 동양의 사회조직에 일대 개혁"이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일본은 세계 제일의 지진국이자 화재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리학 연구는 세계 제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리학자 중 과거 30년 이내에 일본이 물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적중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 유산자(有産者) 계급'은 "이번 재해는 미증유의 것으로 일본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과 동양 각국에 누를 끼쳐 손해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무산자 및 주의자들이 '준동(蠢動)'을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서울청년회 관계자 다수가 검속 중이나 그들이 석방되면 이러한 '동요'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이번 대진재 복구에 커다란 국비가 필요하게 되면서, 조선총독부에 대한 예년의 보급금을 지불하지 못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조선 민족은 경제상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번 진재로 인해 내지 일본인 다수가 조선에 이주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이때까지 조선인이 소작해 왔던 토지의 소작권을 빼앗아 일본인에게 주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조선 이주 일본인이 많아지면서 면장, 순사 등 관공리도 조선인보다 일본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인 생활에 커다란 불안이 생겼다고 했다. 이에 조선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 행동에 나서, 천도교청년당, 조선교육협회, 노동연맹회 등 단체가 같은 의견을 갖고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점을 걱정했다. 그리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의 충돌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실제로 9월 중순경 부산에서는 대자본의 미곡무역회사인 스즈키(鈴木)상점을 조선인들이 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으로 조선 재주 주의자가 일본 내지 재주 주의자와 이번 기회에 연대하여 함께 활동하지 않을까 우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51] 이에 심지어 재조일본인 중에는 조선인에게 위협을 느껴 한밤중에도 칼(刀)이나 검(劍), 엽총 등의 무기를 호신용으로 휴대하고 있는 자도 생겼다.[52]

이처럼 경성지방법원에서는 간토대진재 이후 '괴소문'이 퍼져 일본제국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공산주의가 확산할까 우려했다. 특히 경찰 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 조선인과 경제적으로 충돌하면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며 대비하려 한 점이 눈에 띈다.

각 법원 지청 검사들도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앞으로 민심의 경향에 대해 보고했다. 예컨대 9월 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는 간토대진재에 대한 관할 지역 민심의 경향과 관련하여, 특히 사회주의적·무정부주의적 경향이 있어 이를 시찰하여 총독부에 수시로 통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할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범죄가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진재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53] 무엇보다도 각지 법원에서는 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를 가능한 한 처벌하려고 했다.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는 고등법원 검사장에게도 민심의 경향에 대해 보고한다. 특히 일본에서 은밀히 귀국하여 유언을 퍼뜨려서 선동을 감행하거나 오해로 인심을 혹란(惑亂)시키고 '불온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어 엄중히 시찰하고 정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범처벌규칙」, 「보안법」 등 국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경찰서와 합동하여 가차 없이 이

51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 法務局長, 高等法院 檢事長, 京城覆審法院 檢事長, 1923년 9월 4일, 「東京震災ニ對スル一部ノ民ノ感想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앞의 책, 1~5, 7~9, 13~15쪽.

52 京城 本町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17일, 「震災ト民心ノ傾向」, 京城 西大門警察署長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22일, 「內地震災ニ對スル一般ノ狀況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284, 317쪽.

53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 檢事 →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1923년 9월 7일, 「民心ノ傾向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27~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을 검거하여 송치하겠다고 보고했다.[54] 이와 같이 법원으로 전해진 간토대진재 관련 식민지 조선 내 민심에 관련한 정보 보고는 고등법원장에까지 전해졌다.[55] 이러한 보고를 보면, 법원은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로 인한 조선인 '동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찰범처벌규칙」이나 「보안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관계자들을 처벌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진상을 왜곡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총독부는 언론을 통제하면서 당시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은폐·축소·왜곡하려 했다. 아울러 총독부는 간토대진재 후 조선인 단속을 위해 조선인의 일본 내지 도항을 제한했다. 한편 총독부는 독립운동이 활발한 국경지대의 경계를 강화했다. 총독부 경무국은 국외 형세를 고려하여 국경지방의 경비, 해안선의 경계를 매우 엄격히 하고, 국외에 연락·왕래하는 '불령선인'들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사찰하려 했다. 하지만 총독부는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건대 총독부가 3·1운동 또는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을 겪으며 이후 능동적으로 재일조선인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선행연구의 분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상황을 보면,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안전한 조선으로 많이 이주해 와서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했다. 진재 후 총독

54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 檢事 → 高等法院 檢查長, 1923년 9월 11일, 「民心ノ傾向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97~102쪽.

55 高等法院 檢事長 → 地方法院 檢事正, 支廳 檢事 및 檢事事務取扱, 1923년 9월 6일, 「民心ノ傾向ニ關スル件」, 京城覆審法院 檢事長 → 地方法院 檢事正, 地方法院 支廳 檢事 및 檢事事務取扱, 1923년 9월 6일, 「民心ノ傾向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위의 책, 24~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는 조선인이 일본에 건너가는 것은 제한했지만, 일본인이 조선에 오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조선인은 단속하고, 일본인은 보호하도록 민족적으로 구분하여 조처한 것이다.

경찰은 '치안 유지'를 먼저 신경 쓰며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의 영향으로 조선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계했다. 경찰은 간토대진재에 대한 공식 전보가 오기 전부터 서울청년회 등 사회주의단체가 간토대진재를 계기로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킬까 가장 경계·감시했다. 또한 경찰은 한편으로 고학생, 실업자, 보천교, 천도교, 기독교회, 불교청년회, 조선교육협회, 유족 등이 소위 '주의자'와 연대하여 민심을 선동하여 동맹휴교 등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경계했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하에서도 총독부가 우선시했던 '치안제일주의'의 방침이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을 겪으며 경찰당국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 것이다. 한편으로 경찰은 식민지 조선이 간토대진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주시하며 보고했다. 간토대진재 구제에 큰 비용이 필요해지면서 일본정부가 조선에 보내던 예년의 보급금이 중지되지 않을까, 각 개인의 납세율이 가중되지 않을까, 금융 핍박이 더 심해지고 쌀값 등 물가가 폭등하여 당장 생활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우려했다. 당국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법원에서는 간토대진재 이후 '괴소문'이 퍼져 일본제국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공산주의가 확산할까 우려했다. 이에 법원이 나서서 사상 통제를 우선시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려 했다. 대진재를 빌미로 '체제 수호'를 위한 통제와 탄압이 거세진 것이다. 각지 법원에서는 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를 가능한 한 처벌하려고 했다. 법원은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로 인한 조선인 '동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찰범처벌규칙」이나 「보안법」 등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계자들을 검거하려 했다. 또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 조선인과 경제적으로 충돌하면서 '동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려 했다.

이상으로 이 글에서는 간토대진재 100주년을 맞아 아직 연구가 미흡한 주제에 대해 사료를 발굴·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는 무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다도 간토대진재 당시 조선인 피해 현황과 학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일본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기억을 계승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료가 산재해 있다. 예컨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금병동 문고와 박경식 문고에 포함된 방대한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관련 자료 및 연구서를 비롯하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헌정자료인 「간토대진재 대책협의회 기록」,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서한(書翰): 간토대진재 이후의 시국에 관한 의견」, 「한상룡의 서한: 간토대진재 이후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편지」,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모리야 에후(守屋榮夫) 문서 중 도쿄부지사 히라쓰카 히로요시(平塚廣義)-도쿄시장 니시쿠보 히로미치(西久保弘道) 서간(書簡),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와사키시(川崎市) 후레아이관 소장자료인 '간토대진재 시 학살된 조선인 유골을 발굴하고 위령하는 회'의 『회보』,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카이노(猪飼野) 샛바람문고 소장자료인 잡지 『글방』[현대어학숙(現代語學塾)], 규슈대학(九州大學) 조선사학연구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문고 자료인 잡지 『백엽(白葉)』[백엽동인회(白葉同人會)] 등의 자료 중 미검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京城日報』.

국사편찬위원회, 1972,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7.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 『(大正十二年九月)關東ノ震災ニ對スル情報』.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23, 『(大正)大震災大火災』.

山本美 編, 1924, 『大正大震火災誌』, 改造社.

琴秉洞 編, 1996,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 Ⅳ, 綠蔭書房.

단행본

성주현, 2020,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선인.

姜德相, 2020, 『關東大震災』, 新幹社.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犧牲者追悼行事實行委員會, 1975,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歷史の眞實』, 現代史出版會.

關東大震災85周年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2008, 『震災·戒嚴令·虐殺』, 三一書房.

關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2014, 『關東大震災記憶の繼承』, 日本經濟評論社.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查團, 2003,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 日本辯護士連合會勸告と調查報告』.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犧牲者追悼·調查實行委員會, 1983,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 關東大震災と朝鮮人』, 靑木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강덕상, 1998, 「1923년 관동대진재 대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5.

_____, 1999,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강효숙, 2015,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학살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 日辯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7.

_____, 2018,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민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

김강산, 2022, 「관동대학살에 대해 해외 조선인이 생산한 문건과 그 성격」, 『동국사학』 74.

_____, 2023,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본 관동대학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

김광열, 2015,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동북아역사논총』 48.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2014, 「간토대지진과 지바(千葉)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_____, 2017, 「일본 내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 진상 규명 운동의 현황」, 『한일민족문제연구』 33.

성주현, 2014, 「1923년 관동대지진과 국내의 구제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_____, 2015, 「관동대지진 직후 재일조선인정책: 식민지조선 언론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만열, 2023,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년」, 『푸른사상』 43.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 46.

조경희, 2017,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

姜在彦, 1960, 「關東大震災と朝鮮人迫害」, 『朝鮮問題研究』 4(3·4).

宮本正明, 2006, 「朝鮮總督府關係史料にみる關東大震災」, 『アリラン通信』 3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山田昭次, 1993,「關東大震災の時朝鮮人虐殺責任のゆくえ」,『歷史評論』521.
西村直登, 2020,「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る朝鮮人の生と記憶」, 同志社大學博士學位論文.
田中正敬, 2003,「關東大震災はいかに傳えられたか」,『歷史地理敎育』657.
_____, 2005,「關東大震災と朝鮮人の反應: その意識を考察する手がかりとして」,『人文科學年報』35.
丸本健次, 2005,「關東大震災に對する植民地朝鮮の反應」,『アジア民衆硏究』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식민지 조선 당국의 대응

최은진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진상을 왜곡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언론을 통제하면서 당시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은폐·축소·왜곡하려 했다. 아울러 총독부는 간토대진재 후 조선인 단속을 위해 조선인의 일본 내지 도항을 제한했다. 한편 총독부는 독립운동이 활발한 국경지대의 경계를 강화했다. 총독부 경무국은 국외 형세를 고려하여 국경지방의 경비, 해안선의 경계를 매우 엄격히 하고, 국외에 연락·왕래하는 '불령선인'들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사찰하려 했다. 지방의 상황을 보면, 특히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내지에서 안전한 조선으로 많이 이주하여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식민지 조선 당국은 최대한 조선인은 단속하고, 일본인은 보호하도록 민족적으로 구분하여 조처했다.

경찰은 간토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의 영향으로 조선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계했다. 한편으로 경찰은 식민지 조선에 경제적 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주시했다. 법원은 간토대진재 이후 일본제국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가 활동하는 것을 가능한 한 탄압하려 했다. 또한 식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 조선인과 경제적으로 충돌하면서 '동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려 했다.

주제어: 간토대진재, 조선총독부, 경찰, 법원, 학살, 제노사이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olonial Joseon Authorities Response to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and Massacres of Koreans

Choi Eunji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focused on covering up, minimizing, and distorting the truth about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and the massacres of Koreans. First of all,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ntrolled the media and tried to conceal, minimize, and distort the truth of the massacres of Korean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lso restricted Korean crossing to Japan in order to crack down on Koreans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The authorities organized their actions along ethnic lines to crack down on Koreans and protect Japanese as much as possible.

The police were wary of a Korean movement in the wak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and the massacre of Koreans.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kept an eye out for economic crises among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lonial Korea.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the courts sought to punish communist, socialist, and anarchist as much as possible that threatened the Japanese imperialist system. They also worried and prepared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Japanese immigrants to colonial Korea would lead to economic conflicts with Koreans and cause “agitation”.

Keywords: The Great Kanto Earthquake Disast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olice, court, massacre, genocid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10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이원택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항길고택과 항길고택문고에 대하여
III. 『항길고택일기』에 대하여
IV.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원문 및 역주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항길고택일기'[1]에 기록된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를 한글로 역주하고 일기 원본 이미지와 함께 학계에 제공하여,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搜討)에 대한 토론 및 실증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강원도 동해시에 세거(世居)하고 있는 '항길고택(恒吉古宅)'과 그 집안에서 대대로 지켜내려 온 '항길고택문고(恒吉古宅文庫)'를 소개할 것이다. 둘째, 항길고택문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항길고택문고 속의 『항길고택일기』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일기에 수록된 울릉도 수토(搜討) 관련 기사를 뽑아내어 원본의 이미지, 한문 원문, 한글 역주 등을 울릉도·독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항길고택일기』에 수록된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를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서로 다른 주제를 나열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필자는 마치 풍경화의 원근법과 같은 이러한 방식이 『항길고택일기』에 접근하는 순차적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의 궁극적인 포커스는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의 역주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포커스를 논문의 제목으로 삼았다.

'항길고택'은 강릉김씨 감찰공파 파조(派祖) 김자현(金子鉉)의 후손들이 세거해왔던 유서 깊은 고택이다.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삼척부에 속하였으나, 근

* 투고: 2023년 7월 23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3년 8월 18일

1 '항길고택일기'는 책력(冊曆)에 주요한 사항들을 기록한 비망록 성격의 일기로서, 현재 약 123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일부는 책자의 형태로 묶여 표지에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표지가 없이 묶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틀어 '항길고택일기'라고 칭하겠다.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조선왕조실록』으로 표기하듯이, 항길고택일기도 전체를 가리켜서 『항길고택일기』로 표기하고자 한다. 추후 저자별로 일기의 제목이 확인 또는 확정되면,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이후 잦은 행정 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강원도 동해시에 속해 있다. 오랜 세월 전해오던 고택의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공장 건설로 철거되어 지금은 그 모습을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다. 후손들이 현재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다.

'항길고택문고'는 강릉김씨 감찰공파 항길고택에서 대대로 보존해온 서적과 문서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1961년으로 추정되는 신축년(辛丑年)에 만들어진 『도서목록(圖書目錄)』이라는 책자에 '항길문고(恒吉文庫)'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항길고택문고'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겠다.

항길고택문고는 유구한 세월 동안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보존되어온 항길고택 가문의 귀중한 유산이다. 항길고택 14대 종손으로 성균관 부관장을 역임한 고(故) 김남용(金南容) 선생은 한길고택 소장 고문서가 해설과 함께 영인되어 책으로 발간되었을 때, 그 책의 인사말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이 고문서는 500여 년간 수난을 겪으면서도 지켜온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고문서들은 임진왜란(1592년), 병자호란(1639년)과 같은 국난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근세에 와서는 한일합방(1910년)에 이어 1937년 삼척개발공사(三陟開發公社)로 누대에 걸쳐 내려오던 세거지(현 동부메탈 위치)를 강제로 철거당해 용정해변으로 집단이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족상잔인 6·25 사변 피난길에는 고문서들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깊이 묻어두어 무사히 보존하고, 각종 재난과 변화불측한 시대의 변천에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여온 조상님의 정성과 슬기를 되새겨봅니다.[2]

항길고택은 이처럼 오랜 세월 지켜온 가문의 소중한 문화 유산 항길고택문고를 2018년 10월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하였다. 기증 당시 언론 보도[3]에서 볼

2 배재홍, 『동해시 고문서』 2(동해문화원, 2008), 7쪽의 고문서 소장자의 인사말 중에서 인용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있듯이, 관찬 사료에서 현재까지 찾지 못한 울릉도 수토 관련 기록들이 『항길고택일기』에 수록되어 있던 사실이 주목받았다. 항길고택에서도 동북아역사재단에게 독도 수호를 위해 울릉도·독도를 열심히 연구해달라고 하면서, 항길고택일기를 쓴 선조들의 문집, 족보들을 비롯한 고서적과 호구단자 등 고문서 일체를 연구 자료로 기증한다고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도 항길고택문고를 기증받으면서 독도 체험관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기증받은 귀중 자료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면서, 울릉도·독도 연구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다행히 최근에 독도체험관이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본격적으로 항길고택문고를 연구, 교육, 전시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항길고택문고를 기증받기 전에 이미 일시 대여해 온 『항길고택일기』의 일부를 고해상도 이미지 자료로 만들었으며, 기증받은 후에 일기의 나머지 전체를 이미지 자료로 만들었다. 그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영인본 제작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인본 제작이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반에 공개가 지연되었다. 필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항길고택일기』 영인본 간행 사업 담당자로서, 영인본 간행을 기다리던 기증자인 항길고택[4]과 울릉도·독도 연구자들[5]에게 그동안 깊은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이 글을 통하여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에 대한 이미지 및 번역문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갚으려 한다.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는 그 분량이 많지 않지만, 『조선

---

3 연합뉴스, 「관찬사료서 빠진 울릉도 수토 기록된 일기 기증」, 2018.10.25,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133900005?section=search

4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항길고택문고를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이끌어 주신 한길고택의 고 김남용 선생의 따님 김상래 여사께 이 지면을 빌려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5 2018년 7월 필자와 함께 항길고택을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 기증이 성사되도록 협력해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백인기 박사 및 울진봉평리신라비전시관장 심현용 박사께도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각사등록』 등 주요 관찬 사료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이미 울릉도 수토 관련 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 적이 있고,[6] 사진 이미지 또한 지역 방송에서 몇 컷이 소개되기도 하였다.[7] 이 글에서는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 이미지 전체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한문 원문 및 한글 역주를 관련 학계에 제시하니, 많은 비판·토론과 함께 울릉도·독도 연구 및 홍보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항길고택과 항길고택문고에 대하여

1. 항길고택

'항길고택(恒吉古宅)'은 강릉김씨 감찰공파 운곡(雲谷) 김자현(金子鉉, 1404~1501)의 후손들이 강원도 삼척(현재 동해시)에서 세거해왔던 고택을 가리킨다. 김자현은 현감 정(玎)의 아들로, 1426년(세종 8) 생원에 급제하여 음관(蔭官)으로 이천교도(伊川敎導)를 지내다가 1447년(세종 29)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 병조정랑(兵曹正郞), 사헌부 감찰(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지방관으로 청양(靑陽), 청하(靑河) 등의 현을 다스렸고, 만년에 고향인 강릉부 교수(敎授)를 지내면서 교육에 힘쓰다가 삼척 무릉계곡의 산수 경관이 좋아 취병산 아래에 터를 잡고 정착한 입향조이다.[8]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삼척에서 세거해왔는데,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지

6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7 2014년 8월 16일에 방영된 〈포항MBC 광복절 특집다큐멘터리 독도전〉 참고.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독도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8 배재홍, 2008, 『동해시 고문서』 2, 동해문화원, 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못하자 향청, 향교, 서원 등에서 재지사족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향론을 주도하였다. 〈그림 1〉은 강릉김씨 21세 감찰공파 파조 김자현으로부터 39세 김남용까지 이어지는 가계도(家系圖)이다.[9] 25세 김인지(金仁祉) 이후 장손으로 줄곧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김남용은 김태진의 손자로서 족보상 39세가 되는데, 자신을 항길고택의 "14대 종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김인지(金仁祉)로부터 14대 장손이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가계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33세 김시학(金時鶴, 1779~1830)에서 34세 김구혁(金九爀, 1798~1874)을 후사(後嗣)로 세운(立後) 점이다. 김구혁은 김시학의 후사로 들어와서 항길고택의 대를 이어갔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생각된다. 그는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삼척 지방에서 순조, 헌종, 철종대에 향청 별감, 향교 도유사, 용산서원 도유사, 경행사 별유사 등을 역임하였다. 김구혁은 애헌(艾軒) 최종원(崔鍾遠) 문하에서 수학하고, 『성학요설(聖學要說)』, 『척주절의록(陟州節義錄)』 등을 저술하고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을 찬술하였다. 항길고택문고의 『도서목록』에도 그의 저술이 상당수 실려 있다. 또 그는 선대가 남긴 문적들을 정리하여 유사(遺事) 형태로 편집하였다.

김구혁은 강릉김씨 봉정파(鳳亭派) 김종집(金宗鏶)의 셋째 아들로 조부는 김광필(金光弼), 증조부는 김효지(金孝之), 고조부는 김수한(金壽漢)이다. 그는 "19세 되던 순조 16년(1816)에 부친의 명으로 한길댁 김시학의 양자로 들어갔으며, 애헌(艾軒) 최종원(崔鍾遠)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효행과 덕행으로 당시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었다"고 한다.[10]

---

9 이 가계도는 『동해시 고문서』 2(동해문화원, 2008)의 20쪽에 실려 있는 가계도를 약간 수정하여 만들었다. 38세 헌기(憲起)와 39세 남용(南容)을 추가하였다. 또 고 김남용 선생이 자신이 항길고택 14대 종손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추론하면, 25세 인지(仁祉)의 14대 종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25세에 인수(仁壽), 인복(仁福), 인록(仁祿)을 추가로 기입하였다.

10 배재홍, 2003, 『국역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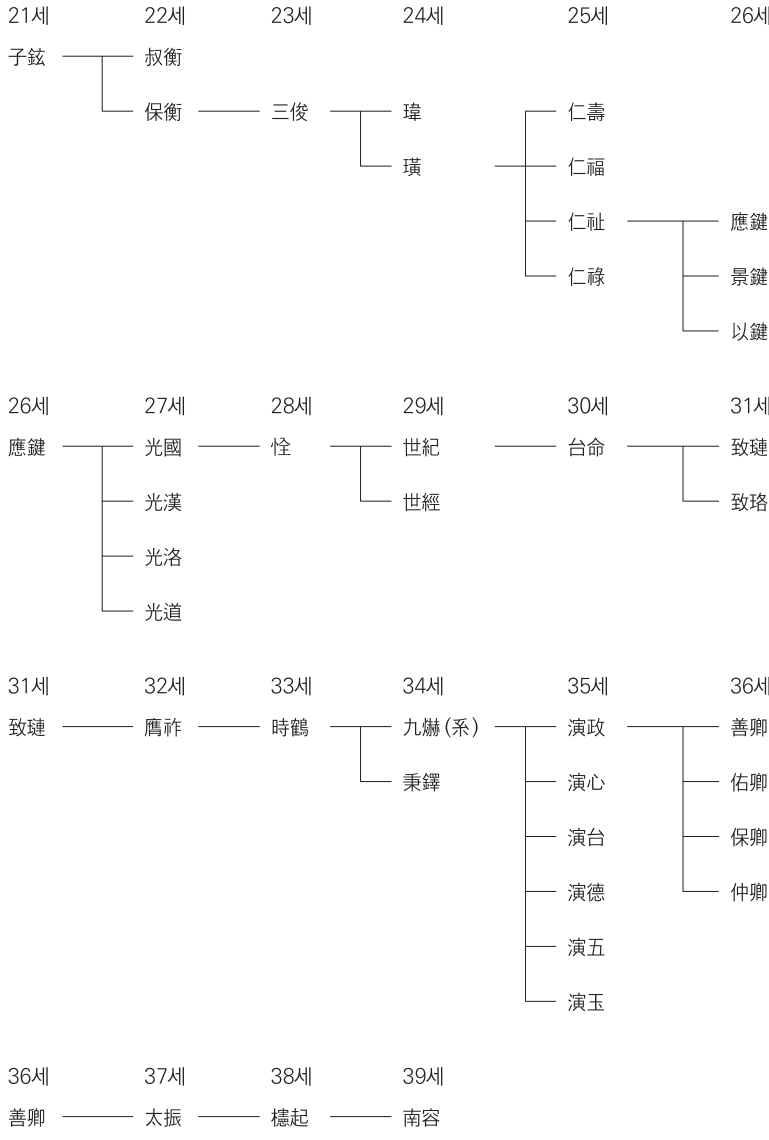


그림 1 항길고택의 가계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구혁(1798~1874)의 양부는 속재(俗齋) 김시학(金時鶴, 1779~1830)이고, 조부는 죽헌(竹軒) 김응조(金膺祚, 1755~1817), 증조부는 매암(梅菴) 김치련(金致璉, 1720~1794), 고조부는 용장(龍庄) 김태명(金台命)이다. 그리고 김구혁의 가계는 아들 김연정(金演政, 1820~1898), 손자 김선경(金善卿, 1843~1885), 증손자 김태진(金泰振, 1875~1929)으로 이어진다.

김시학은 순조와 헌종대에 향청의 별감과 좌수, 향교의 장의와 도유사, 용산서원 도유사, 경행사 장의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에 관한 사적으로 김구혁이 편집한 『속재유사(俗齋遺事)』가 있다. 증조부 김치련(金致璉)도 『매암유고(梅菴遺稿)』를 남겼다. 김구혁의 아들 김연정은 철종, 고종대에 향교 장의, 용산서원 장의와 도유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해시 송정동의 항길고택에는 '속재(俗齋)', '죽헌(竹軒)'이라는 현판과 함께 현대에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 '항길(恒吉)'이라는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죽헌'과 '속재'의 현판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항길'의 현판은 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항길'이라는 현판을 거론한 김에, 여기서 항길고택과 관련된 '환길댁', '한길댁', '항길댁' 등 몇 가지 명칭을 살펴보자.

먼저 김자현이 강릉에서 삼척으로 이주했던 곳에 대해 무릉계곡의 쇄운리(灑雲里) 취병산 아래라고 하는 곳도 있고, 용정리(龍井里) 취병산 아래라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현재 쇄운동과 용정동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곳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에 쇄운리에 정착했다가 후세에 용정리로



속재(俗齋) 죽헌(竹軒) 항길(恒吉)

그림 2 항길고택에 걸려 있는 현판들(2018년 필자 촬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용정리에서는 1930년대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길고택의 김남용(金南容)이 작성한 원고 『항길댁통사(기1)초(恒吉宅通史(其一)抄)』의 「항길장(恒吉庄)」이라는 글을 보면 "용정리에 있다. 누워 있는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형국인데, 정축년에 허물고 북삼화학공장이 되었다. 중종 임오년 가정 원년 십일월 십팔일 장녀에게 준다(在龍井里, 臥龍弄珠形, 丁丑廢爲北三化學工場. 中宗壬午 嘉靖元年十一月十八日許與長女.)"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처음에 쇄운리에 거처했다가, 후에 용정리로 이주하였는데, 정축년(1937) 북삼화학공장[11]이 들어서면서 고택이 헐리고, 용정 해변으로 강제 이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항길고택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 같다. 일찍이 배재홍은 '환길댁'(桓吉宅)과 '환길댁생활일기'라고 칭하기도 하고,[12] '한길댁'과 '한길댁생활일기'라고 칭하기도 하였다.[13] 2018년 봄 무렵 필자가 현지 조사를 준비하며 전화로 배재홍 교수께 그 연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댁이 큰 길가에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한길댁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해주었다. 그리고 현재 '한길댁'의 위치 등 여러 가지를 친절히 가르쳐주었다.

2018년 여름 필자는 이른바 '한길댁생활일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항길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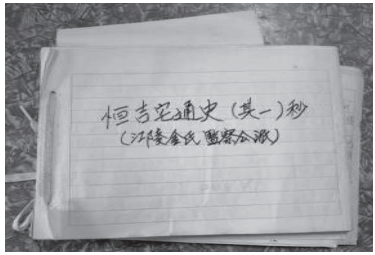
---

11 [한국학중앙연구원디지털삼척문화대전-근대산업의발상지, 삼척중공업지대(http://www.grandculture.net/samcheok/toc/GC06700018)]에는 "북삼화학공사(北三化學公社)는 당시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현 동해시 송정동]에 있었으며 석회질소 비료공장으로 1937년 4월 1일에 기공하고 1939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삼척개발주식회사 북삼화학공업소로 조업을 개시하였다"고 하고, 또 "백연화학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은 당시 삼척군 북평읍 쇄운리(현 동해시 북삼동)에 있었"고, "삼화제철공장은 무릉계곡 부근인 삼화와 양양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제철하기 위한 공장으로, 현재의 동해시 북삼동에 1943년 4월 25일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북삼화학공장이 용정리가 아니라 송정리에 있다고 한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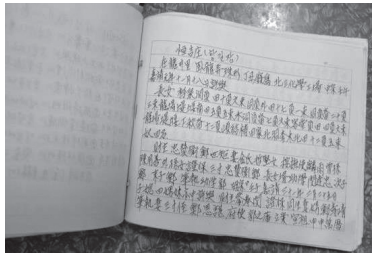
12 배재홍,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우물이있는집, 2007)의 여기저기에서 사용하고 있다.

13 배재홍, 201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恒吉宅通史(其一)抄』 표지



「항길장(恒吉庄)」 부분



고택 소장 병풍: 恒吉古宅 世傳忠孝

그림 3 항길(恒吉)이라고 쓰인 원고와 병풍(2018년 필자 촬영)

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당시 '항길(恒吉)'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항길댁'의 발음을 편리한 대로 취하여 '한길댁'으로 부르지 않았나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판의 항길(恒吉)은 『주역』의 항괘(恒卦)에서 따온 것으로 집안에 항상 길(吉)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길'이라는 현판이 지금도 붙어 있고, 14대 종손 김남용도 그가 직접 쓴 앞의 원고에 '항길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그림 3) '항길'로 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음 절에 제시한 『도서목록』의 사진(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길문고'라는 용어도 가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사진[14]에서나 볼 수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의 고택은 철거되고 없으나,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개발에 따른 잦은 이주 등 온갖 어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움 속에서 '항길문고' 등 오랜 역사적 유물과 유산을 지켜낸 노고를 치하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길댁' 대신에 후례(厚禮)의 뉘앙스가 들어간 용어 '항길고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항길문고'는 '항길고택문고'로, '한길댁생활일기'는 '항길고택일기'로 칭할 것을 아울러 제안한다. '항길고택'이라는 용어는 앞의 병풍 사진에서처럼 지난 세기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2. 항길고택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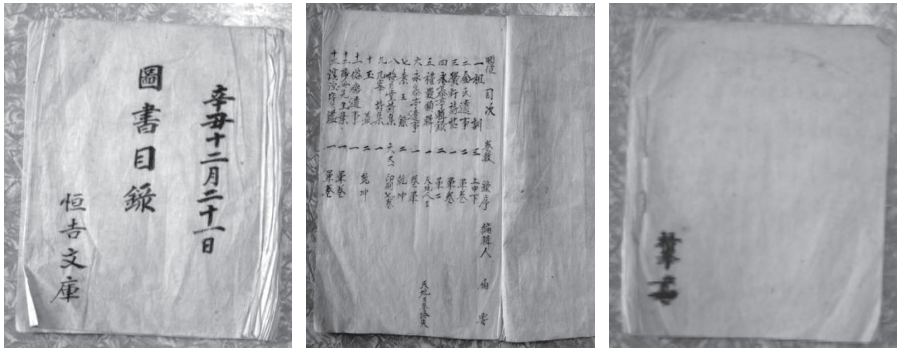
다음으로 '항길고택문고'에 대해 알아보자. 항길고택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도서목록』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목록은 표지 사진[(辛丑十二月二十一日)圖書目錄(恒吉文庫)]에서 볼 수 있듯이 신축년, 즉 1961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2018년 이 목록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신축년은 2021년은 될 수 없고, 1961년쯤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항길고택문고의 다수 서적에 '김남용인(金南容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아마도 이 『도서목록』을 만들 때 장서인을 찍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목록의 작성자 혹은 필사자인 듯 여겨지는 뒤표지에 쓰인 '오봉(梧峯)'이 누구의 호(號)인지 잘 모르겠다. 김남용을 비롯한 그의 가까운 선대 중에 '오봉'이라는 호를 족보에서 찾지 못하였다.

이 『도서목록』에는 총 201점의 도서 및 기물(器物)의 제목이 실려 있는데, 책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 그리고 여러 예식에 사용된 다양한 기물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많은 고문서는 『도서목록』에 실리지 않았다. 다소 길지만 항길고택문고의 『도서목록』을 알기 쉽게 컴퓨터에 입력한 현대식 표[15]를 만들어 이 글의 부록으로 제시하니, 연구에 참고가 되기를

14 배재홍, 『동해시 고문서』 2(동해문화원, 2008)의 앞부분 화보란에 1937년 항길고택이 철거되기 전의 옛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이 실려 있는데, 당시의 모습을 참고할 수 있다.

15 이 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백인기 박사가 2018년 만들어 필자에게 제공한 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지(앞) 본문 표지(뒤)

그림 4 『도서목록』의 표지와 본문(2018년 필자 촬영)

바란다.

항길고택문고에 대한 사료 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두 차례 행하여졌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사료관(The Archives of Korean History)으로 들어가면, 「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자료(사료군 DGW014)」를 열람할 수 있다. 그 아래 하위 사료 계열을 2건, 즉 「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족보(DGW014_01)」와 「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고서 고문서(DGW014_02)」로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은 사료 이력에 "족보는 국사편찬위원회 1997년 사료 수집 지원 사업으로 간접 수집하였고, 고서·고문서는 1999년에 직접 수집하였다"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소장처는 "강원 동해 강릉김씨"로, 소장자는 "김남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모두 공개 자료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할 수도 있다.

항길고택문고 소장 자료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시계열적으로 잘 보존된 족보였다. 「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족보(DGW014_01)」는 다시 11건으

셀 파일을 필자가 한글 파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백인기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족보(DGW014_01)」 목록

번호	자료명	연도	생산자	비고
1	江陵金氏族譜	明宗 20年(1565)	江陵 金氏	영인본
2	江陵金氏世譜－1714年	肅宗 40年(1714)	江陵 金氏	–
3	江陵金氏世譜－1743年	英祖 19年(1743)	江陵 金氏	–
4	江陵金氏世乘	正祖 21年(1797)	江陵 金氏	–
5	江陵金氏派譜	憲宗 12年(1846)	江陵 金氏	–
6	江陵金氏三陟派世乘	哲宗 2年(1851)	江陵 金氏	–
7	江陵金氏世譜－監察公派	哲宗 2年(1851)	江陵 金氏	–
8	江陵金氏世譜－1873年	高宗 10年(1873)	江陵 金氏	–
9	江陵金氏(辛丑)世譜	1901	江陵 金氏	–
10	江陵金氏世譜－評議公派	純宗 3年(1908)	江陵 金氏	–
11	江陵金氏世譜－1920年	1920	江陵 金氏	–

로 나누어 파일을 만들었는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16]

이 중에서 '강릉김씨 을축보'(乙丑譜, 1565)로 널리 알려진 『강릉김씨족보(江陵金氏族譜, 1565)』는 현존하는 문화유씨족보, 안동권씨족보에 이어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항길고택문고의 목록에 을축보가 실려 있으나, 을축보의 원본은 항길고택에 소장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표 1〉에 나온 을축보는 영인본을 DB화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강릉김씨 을축보'를 검색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사로 연결되는데, 이 기사에는 강릉김씨 을

16 〈표 1〉과 〈표 2〉 그리고 〈부록 3〉은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의 고민정 박사가 종으로 고문서, 고서(문집), 족보 순으로 배열하고, 횡으로 일련번호, 자료명, 구분, 소장처, 연도, 발급자, 수급자, 해제 순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토대로, 필자가 한글 파일로 바꾸면서 양식도 대폭 간소화하고, 도표도 족보, 고문서, 문집 등 3개로 나누어, 이 글에 실었다. 파일을 제공해주신 고민정 박사께 감사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축보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강릉김씨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17] 그런데 이 기사의 참고문헌에 차장섭의 논문[18]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논문의 각주 7)에는 "강릉김씨 을축보는 원래 동해시 송정동에 소장되어왔던 것으로 20여 년 전에 작성된 이 소장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같은 집안 친족인 울산에 있는 김기환(金起渙)씨가 소장하고 있으며, 1994년 강릉김씨 재경화수회(在京花樹會)에 의해 영인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아마도 백과사전 집필자가 이 논문의 각주를 읽지 못하여 잘못 서술한 듯싶다.

「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고서 고문서(DGW014_02)」는 다시 357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고문서가 353건이고, 고서가 4건이다.

항길고택의 고문서는 호적표(戶籍表), 준호구(準戶口), 호구단자(戶口單子) 등 호구문서와 다양한 내용의 소지(所志), 향청이나 여러 행사의 임무에 차정하는 임명장으로 쓰인 첩(帖), 그리고 추증(追贈)이나 수직(壽職)으로 받은 교지(敎旨)가 다수 남아 있다. 항길고택의 고문서 353건의 목록은 이 글의 본문에 싣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 이 글의 부록에 싣는다. 그런데 항길고택의 고문서 353건의 목록에 입향조 김자현의 문과 급제 홍패(紅牌)는 누락되었다. 이 문서는 15세기의 문서로 항길고택 고문서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이다.[19]

끝으로 고서 4건은 『속재유사(俗齋遺事)』, 『구봉유집(九峰遺集)』, 『구봉집(九峰集)』, 『구봉잡록(九峰雜錄)』이다. 그런데 『구봉집』과 『구봉잡록』의 생산자를 김시학(金時鶴)으로 표기해놓았는데, 이는 오류로 보인다. 속재(俗齋)는

17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1079

18 차장섭, 1997,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 41쪽.

19 이 홍패는 강릉김씨 감찰공파의 파조 김자현의 문과급제 증서로서 감찰공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고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항길고택에서는 이 문서까지 동북역사재단에 일괄 기증하려고 하였으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문서가 가문을 상징하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가문에서 보물로 보관하기를 권하였다. 그래서 이 홍패는 여전히 항길고택에서 소장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고서 고문서(DGW014_02)」 중 문집 목록

번호	자료명	연도	저자	비고
1	俗齋遺事	–	金時鶴	金九嫌 편
2	九峰遺集	–	金九嫌	–
3	九峰集	1875	金九嫌	–
4	九峰雜錄	–	金九嫌	–

김시학의 호(號)며, 구봉(九峰)은 김시학의 양아들 김구혁(金九嫌)의 호다. 『구봉집』과 『구봉잡록』의 생산자는 김구혁이다. 『속재유사』도 양부 김시학이 남긴 시, 제문, 서간 등과 양부에 대한 제문과 행장 등을 모아 김구혁이 편찬한 책이다.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항길고택문고의 영인, 번역 및 연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한길고택문고에 들어 있는 허목의 『척주지(陟州誌)』, 김구혁의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과 『척주절의록(陟州節義錄)』, 김종언의 『척주지(陟州誌)』를 묶어 삼척문화원에서 『척주집(陟州集)』이라는 이름으로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이 『척주집』을 대본으로 하여 1997년에는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번역으로 『완역 척주집』을 삼척시에서 간행하였다. 2001년에는 배재홍의 번역으로 『국역 척주지』를 삼척시립박물관에서 간행하였다. 2003년에는 역시 배재홍에 의해 영인 번역되어 『국역 척주선생안』이 삼척문화원에서 간행되었다.

또 항길고택의 고문서는 배재홍에 의하여 『동해시 고문서』 2(동해문화원, 2008)로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총 371건의 고문서를 수록하였다.

그동안 항길고택문고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논문과 저작이 산출되었다.

첫째,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잘 간직된 항길고택의 호구 자료를 활용하여 정경숙이 2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강릉김씨 호구단자 분석연구-18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한길고택 고문서의 유형별 및 시대별 분포 현황[20]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연대미상	계
호구 자료			6	20	44	34	3	107
소지류			2	21	20	3	8	54
첩			1	25	14	1		41
교지류	1			16	9			26
상서					24			24
망기				2	19		1	22
명문			5	6	8	1		20
서목				11	1		6	18
고목				16				16
분재기		7	1	1			1	10
첩정							8	8
도형				1	3			4
단자					3		1	4
고음					3			3
상언			1		2			3
입안			2		1			3
통문					1		1	2
기타				1	1	2	2	6
계	1	7	18	120	153	41	31	371

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인문학보』 제16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와 「강릉김씨 호구단자 분석연구(2)-19세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인문학보』 제17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가 그것이다. 그리고 배재홍의 『조

20 배재홍, 2008, 앞의 책, 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2007)에는 「조선후기 삼척지방 강릉김씨 전계의 호구 자료」가 실려 있다.

둘째, 항길고택문고 자료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시계열적으로 빠짐없이 보존된 족보였다. 차장섭의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강릉김씨 족보를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 2집, 1997)가 선구적인 연구이다.

끝으로 배재홍은 항길고택문고 중 『항길고택일기』를 주요 자료로 삼아 「18세기 말 정조연간 강원도 삼척지방 이상기후와 농업」과 「강릉김씨 환길댁 부조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삼척지방의 결혼식 부조문화」(이상 2007년에 간행된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에 수록됨)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배재홍은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2011)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도 『항길고택일기』가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Ⅲ. 『항길고택일기』에 대하여

『항길고택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사료조사에서 누락되었다. 아마도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오래되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기록한 일반적인 일기와 달리, 책력(冊曆)을 그대로 사용하여 상단 여백 및 해당 날짜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해놓아, 사료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게다가 『항길고택일기』는 균일하게 묶여 있지도 않고, 표지가 없는 것도 있다. 한길고택문고의 『도서목록』(1961)에는 일기의 이름이 3개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도서목록』에 등재된 『동우광음(東愚光陰)』, 『구봉광음(九峯光陰)』, 『속재거저(俗齋居諸)』[21] 등과 함께, 『항길고택일기』에는 이 『도서목록』에

21 '거저(居諸)'는 『시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광음(光陰)과 같이 일기라는 뜻으로 쓰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도서목록』 속의 일기 제목들

차례	서명	권수
67	동우광음(東愚光陰)	2
68	구봉광음(九峯光陰)	2
86	속재거저(俗齋居諸)	1


동우광음(東愚光陰)


정중심반(靜中心伴)


속재거저(俗齋居諸)


면속재광음
(免俗齋光陰)

그림 5 『항길고택일기』의 표지들(2018년 필자 촬영)

등재되지 않은 『면속재광음(免俗齋光陰)』과 『정중심반(靜中心伴)』도 있고, 또 제목 없이 묶여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같은 책에 묶인 책력이 순서대로 묶이지 않은 것도 있고, 시대가 동떨어진 책력이 서로 뒤섞인 책자도 있다. 〈표 5〉는 현재 묶여 있는 상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5〉에 나타난 상태로 묶인 책자는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 차례로 열람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사진을 찍어 디지털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하면서, 낱권의 책력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일기가 기록된 책력 전체는 총 123권이 되었다. 시작 연도는 1747년(영조 23)이고 마지막 연도는 1904년(광무 8)이다. 총 123년간의 일기인 셈이다. 중간에 누락된 연도는 1700년대의 경우 1749년(영조 25), 1750년(영조 26), 1751년(영조 27), 1752년(영조 28), 1759년(영조 35), 1760년(영조 36), 1761년(영조 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5〉 항길고택일기 제본 상태 일람표[22](보정면수[23] 포함)

연번	제목	부제	첫째 간지	상세 목차	면수 (보정)
1	東愚光陰	自乙未至丁酉	_	辛酉年(1801, 순조 1)	226
				丁酉年(1897, 광무 1)	
				丙申年(1896, 건양 1)	
				甲辰年(1904, 광무 8)	
				己亥年(1779, 정조 3)	
				壬寅年(1902, 광무 6)	
				癸卯年(1903, 광무 7)	
				壬戌年(1802, 순조 2)	
2	_	自甲子至癸酉	_	癸酉年(1873, 고종 10)	364
				壬申年(1872, 고종 9)	
				辛未年(1871, 고종 8)	
				庚午年(1870, 고종 7)	
				己巳年(1869, 고종 6)	
				戊辰年(1868, 고종 5)	
				丁卯年(1867, 고종 4)	
				丙寅年(1866, 고종 3)	
				乙丑年(1865, 고종 2)	
				甲子年(1864, 고종 1)	

22 〈표 5〉는 『항길고택일기』를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업체 (주)주목에서 만든 엑셀 파일을 필자가 한글 파일로 바꾸면서 조금 수정한 것이다.

23 '보정 면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늘어난 면수를 말한다. 각 연도별로 구분을 위해 책력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이미지로 만들어 보정하고, 또 책력의 뒷면에 기록이 있을 경우 이것을 촬영하여 이미지로 만들어 이어 붙인 것도 보정 면수에 포함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제목	부제	첫째 간지	상세 목차	면수 (보정)
3	東愚光陰	自甲戌 至庚辰(甲申)	–	甲申年(1884, 고종 21)	228
				癸未年(1883, 고종 20)	
				壬午年(1882, 고종 19)	
				辛巳年(1881, 고종 18)	
				庚辰年(1880, 고종 17)	
				己卯年(1879, 고종 16)	
				戊寅年(1878, 고종 15)	
				丁丑年(1877, 고종 14)	
				丙子年(1876, 고종 13)	
4	大淸光緖 十四年時憲書	自乙酉至甲午	–	甲午年(1894, 고종 31)	344
				癸巳年(1893, 고종 30)	
				壬辰年(1892, 고종 29)	
				辛卯年(1891, 고종 28)	
				庚寅年(1890, 고종 27)	
				己丑年(1889, 고종 26)	
				戊子年(1888, 고종 25)	
				丁亥年(1887, 고종 24)	
				丙戌年(1886, 고종 23)	
				乙酉年(1885, 고종 22)	
5	–	–	癸酉年 (1753, 영조 29)	癸酉年(1753, 영조 29)	244
				丁卯年(1747, 영조 23)	
				戊辰年(1748, 영조 24)	
				乙亥年(1755, 영조 31)	
				丁丑年(1757, 영조 33)	
				戊寅年(1758, 영조 34)	
6	–	–	癸巳年 (1773, 영조 49)	癸巳年(1773, 영조 49)	9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제목	부제	첫째 간지	상세 목차	면수 (보정)
7	靜中心伴	–	–	庚子年(1780, 정조 4)	454
				辛丑年(1781, 정조 5)	
				壬寅年(1782, 정조 6)	
				癸卯年(1783, 정조 7)	
				甲辰年(1784, 정조 8)	
				乙巳年(1785, 정조 9)	
				丙午年(1786, 정조 10)	
				丁未年(1787, 정조 11)	
				戊申年(1788, 정조 12)	
				己酉年(1789, 정조 13)	
				庚戌年(1790, 정조 14)	
				辛亥年(1791, 정조 15)	
				壬子年(1792, 정조 16)	
				癸丑年(1793, 정조 17)	
				甲寅年(1794, 정조 18)	
8	–	–	乙卯年 (1795, 정조 19)	乙卯年(1795, 정조 19)	762
				丙辰年(1796, 정조 20)	
				丁巳年(1797, 정조 21)	
				戊午年(1798, 정조 22)	
				己未年(1799, 정조 23)	
				庚申年(1800, 정조 24)	
				丁卯年(1807, 순조 7)	
				戊戌年(1778, 정조 2)	
				乙丑年(1805, 순조 5)	
				丙寅年(1806, 순조 6)	
				甲子年(1804, 순조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제목	부제	첫째 간지	상세 목차	면수 (보정)
8				壬申年(1812, 순조 12)	
				癸酉年(1813, 순조 13)	
				戊辰年(1808, 순조 8)	
				己巳年(1809, 순조 9)	
				甲戌年(1814, 순조 14)	
				庚午年(1810, 순조 10)	
				辛未年(1811, 순조 11)	
				乙亥年(1815, 순조 15)	
				丙子年(1816, 순조 16)	
				丁丑年(1817, 순조 17)	
				戊寅年(1818, 순조 18)	
				己卯年(1819, 순조 19)	
				庚申年(1820, 순조 20)	
				辛巳年(1821, 순조 21)	
				壬午年(1822, 순조 22)	
				癸未年(1823, 순조 23)	
				癸亥年(1803, 순조 3)	
9	九峯光陰	自丙辰至癸亥	_	癸亥年(1863, 철종 14)	314
				壬戌年(1862, 철종 13)	
				辛酉年(1861, 철종 12)	
				庚申年(1860, 철종 11)	
				己未年(1859, 철종 10)	
				戊午年(1858, 철종 9)	
				丁巳年(1857, 철종 8)	
				丙辰年(1856, 철종 7)	
10	俗齋居諸	_	_	辛亥年(1851, 철종 2)	144
				庚戌年(1850, 철종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번	제목	부제	첫째 간지	상세 목차	면수 (보정)
10				己酉年(1849, 헌종 15)	
				戊申年(1848, 헌종 14)	
11	免俗齋光陰	–	–	丁未年(1847, 헌종 13)	230
				丙午年(1846, 헌종 12)	
				乙巳年(1845, 헌종 11)	
				甲辰年(1844, 헌종 10)	
				癸卯年(1843, 헌종 9)	
				壬寅年(1842, 헌종 8)	
				辛丑年(1841, 헌종 7)	
				庚子年(1840, 헌종 6)	
12	–	–	己亥年 (1839, 헌종 5)	己亥年(1839, 헌종 5)	468
				戊戌年(1838, 헌종 4)	
				丁酉年(1837, 헌종 3)	
				丙申年(1836, 헌종 2)	
				乙未年(1835, 헌종 1)	
				甲午年(1834, 순조 34)	
				癸巳年(1833, 순조 33)	
				壬辰年(1832, 순조 32)	
				辛卯年(1831, 순조 31)	
				庚寅年(1830, 순조 30)	
				己丑年(1829, 순조 29)	
				戊子年(1828, 순조 28)	
				丁亥年(1827, 순조 27)	
				丙戌年(1826, 순조 26)	
				乙酉年(1825, 순조 25)	
				甲申年(1824, 순조 24)	
계					3,8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62년(영조 38), 1763년(영조 39), 1764년(영조 40), 1765년(영조 41), 1766년(영조 42), 1767년(영조 43), 1768년(영조 44), 1769년(영조 45), 1770년(영조 46), 1771년(영조 47), 1772년(영조 48), 1774년(영조 50), 1775년(영조 51), 1776년(영조 52), 1777년(정조 1)이고, 1800년대는 1852년(철종 3), 1853년(철종 4), 1854년(철종 5), 1855년(철종 6), 1874년(고종 10), 1875년(고종 11), 1895년(고종 32), 1898년(광무 2), 1899년(광무 3)이고, 1900년대는 1900년(광무 4), 1901년(광무 5)으로, 총 33년이 누락되었다.

일기가 쓰인 연대 및 저자들의 생몰연대를 대조해보면, 일기의 저자는 매암(梅菴) 김치련(金致璉, 1720~1794), 죽헌(竹軒) 김응조(金膺祚, 1755~1817), 속재(俗齋) 김시학(金時鶴, 1779~1830), 구봉(九峯) 김구혁(金九爀, 1798~1874), 동우(東愚) 김연정(金演政, 1820~1896), 죽하(竹下) 김선경(金善卿, 1843~1885), 소하(小下) 김태진(金泰振, 1875~1929) 등으로 추정된다. 『속재거저』, 『면속재광음』, 『구봉광음』, 『동우광음』 등은 제목에 저자들의 호(號)가 들어가 있어 저자를 추론할 수 있지만, 책력이 뒤섞인 경우가 있고 또 제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기의 저자를 특정하는 문제는 향후 정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일기에는 울릉도 수토 연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각사등록』 등 관찬사료에서 수토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이 일기에만 기록이 남아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중앙의 정치가 문란하여 울릉도 수토도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24] 이 일기 자료에 의하면 세도정치 시기에도 수토가

24 배재홍은 그의 논문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대구사학』 103호)의 121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는 18세기까지 실시되고 19세기에는 정치적 해이함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위 〈표 1〉을 보면 울릉도 수토는 고종 18년(1881)까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6〉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목록

번호	연도	기사 내용	비고
1	1787(정조 11년)	진영료미(料米) 또는 진료(鎭料)	
2	1787(정조 11년 8월)	임시 수토	배재홍
3	1789(정조 13년)	울릉도 수토료미	
4	1799(정조 23년 3월)	삼척 진영료미	
5	1801(순조 1년)	삼척 진영료미와 울릉도 수토료미	
6	1801(순조 1년 1월 7일)	영장 김최환 부임	
7	1801(순조 1년 3월 30일)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8	1807(순조 7년 2월 7일)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9	1809(순조 9년 3월)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10	1811(순조 11년 3월)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11	1813(순조 13년 2월 21일)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12	1819(순조 19년 3월)	울릉도 수토료미	
13	1819(순조 19년 윤4월 9일)	수토선 출발 및 후망	배재홍
14	1823(순조 23년 3월)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15	1824(순조 24년 12월 18일)	울릉도 수토료미	
16	1825(순조 25년 9월)	울릉도 수토료미	
17	1826(순조 26년 8월)	선정비 및 전별연	
18	1827(순조 27년 3월 22일)	영장 하시명 부임	
19	1829(순조 29년 4월 3일)	후망 수직	배재홍
20	1841(헌종 7년 2월)	울릉도 수토료	
21	1843(헌종 9년 4월 3일)	후망 수직	배재홍
22	1845(헌종 11년 3월 17일)	울릉도 수토료미	배재홍
23	1845(헌종 11년 4월 3일)	후망 수직	
24	1859(철종 10년 4월 9일)	삼척영장 울릉도 수토 출발	배재홍
25	1859(철종 10년 4월 18일)	평해 구미진 출발	배재홍
26	1859(철종 10년 4월 25일)	망상 어내진 정박	배재홍
27	1859(철종 10년 4월 26일)	삼척영장 복귀	배재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년마다 매우 규칙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일기 자료에는 수토 관련 세금인 수토료미(搜討料米), 수토선의 도착을 탐지하기 위한 후망군(候望軍)의 운용 등 수토 관련 자료가 다수 기록되어 있어, 향후 조선후기 수토제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배재홍은 자신의 논문에서 『항길고택일기』에 기록된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15개를 뽑아내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 실시 현황'이란 표의 12개 연도에 수록하였는데,[25] 〈표 6〉에서 비고란에 '배재홍'이라고 표시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배재홍은 〈표 6〉 가운데 울릉도 수토료미를 수토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일기의 기록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매 결 단위로 환산하여 표로 만들어 그의 논문에 제시하였다.[26]

그리고 『항길고택일기』에는 〈표 6〉에 수록한 것 외에도, 삼척영장의 부임과 이임 관련 기사가 상당수 더 있으나 복잡하여 이 글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다. 이들 기사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잘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여 다음번의 연구 과제로 미루어둔다.

Ⅳ.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의 원문 및 역주

(1) 『항길고택일기』(1787, 정조 11년)

鎭料, 白米三斗五升, 粘米五升. 진료(鎭料)[27]는 백미(白米) 3말 5되, 점미(粘米)[28] 5되이다.

25 배재홍, 2011, 앞의 글, 117~118쪽 참조.

26 배재홍, 2011, 위의 글, 139쪽의 "〈표 4〉 조선후기 삼척부의 토지 1결당 수토료 납부 현황" 참조.

27 진료(鎭料): 진료는 삼척진영(三陟鎭營)의 군졸들에게 지급되는 곡물인 듯하다. 삼척의 백성들이 울릉도 수토를 담당하는 삼척진영에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항길고택일기』(1787, 정조 11년 8월[29])

> 鬱島有賊徒云, 三陟江陵單擧搜討飭關來到. 故今月十一日, 發舡盍珎竹邊津, 十六日鷄鳴, 廻還本邑, 異事也.
> 울릉도에 도적 떼가 있다고 하여, 삼척과 강릉에 단독으로 수토를 거행하라는 관문(關文)이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이달 11일 울진 죽변진(竹邊津)으로 배를 출발시켜 16일 닭이 울 무렵 본 읍으로 되돌아왔는데, 특별한 일이었다.

(3) 『항길고택일기』(1789, 정조 13년)

> 田米二斗七刀, 大米九刀, 以盍陵島料米卽內.
> 전미(田米) 2말 7되와 대미(大米) 9되를 울릉도 수토료미(搜討料米)로 납부하였다.

(4) 『항길고택일기』(1799, 정조 23년 3월)

> 八結, 鎭營粮米, 正租代太壹石九斗式分給, 古今亦無事也.
> 팔결(八結), 진영량미(鎭營粮米), 정조(正租)를 대신하여 콩(太) 1석 9되씩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고금에 없었던 일이다.

(5) 『항길고택일기』(1801, 순조 1년)

> 鎭營料米, 前以還租出給, 八結, 結作伍米捧內言. 自己未代給太, 而至于上年, 又以粟換給, 古今所無之事. 民何支扶乎? 盍陵島料米, 亦以此粟換大米, 督持.
> 삼척 진영료미(鎭營料米)는 전에는 조(租)로 바꾸어 출급(出給)하였는데, 팔결에 대

글의 울릉도 수토 사료에 포함시켰다. 삼척의 백성들은 매년 부과되는 이 진료와 함께, 울릉도 수토가 있는 해에는 추가로 울릉도 수토료(搜討料)를 부담하였다.

28 점미(粘米): 점미는 찹쌀이다.

29 배재홍은 일기의 날짜를 12일로 특정하였으나, 내용상 12일로 특정할 수 없기에 8월이라고만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번 수토는 정기적인 수토가 아니고, 특별한 사건 때문에 진행한 임시 수토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결당 오미(伍米)씩 작성하여 봉납(捧內)했다고 한다. 기미년(己未年)부터 콩으로 대신 지급하였는데, 저번 해에 이르러 또 속(粟)으로 바꿔 지급하였으니, 고금에 없었던 일이다. 백성이 어찌 지탱하겠는가? 울릉도 수토료미(搜討料米)도 또한 이 속(粟)을 대미(大米)로 바꿔 독촉하여 가져간다.[30]

(6) 『항길고택일기』(1801, 순조 1년 1월 7일)

新營將金最煥到任.
신영장 김최환이 도임하였다.

(7) 『항길고택일기』(1801, 순조 1년 3월 30일)

盃島料米, 八結, 大米二斗八合, 田米二斗七刀四合四夕, 內收.
울릉도 수토료미(搜討料米)는 팔결(八結)에 대미(大米) 2말 8홉, 전미(田米) 2말 7되 4홉 4석을 거두어들인다.

(8) 『항길고택일기』(1807, 순조 7년 2월 7일)

盃島料米, 每結, 白米二刀, 田米三刀五合式收.
울릉도 수토료미(搜討料米)로 매 결당 백미 2되, 전미 3되 5홉씩 거둔다.

(9) 『항길고택일기』(1809, 순조 9년 3월)

盃島粮米, 每結, 田米四刀, 大米二刀.
울릉도 수토량미(搜討粮米: 수토료미)는 매 결당 전미는 4되이고, 대미는 2되이다.

30 삼척 진영료미와 울릉도 수토료미의 부과 실태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바, 삼척진영의 세금 수취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 『항길고택일기』(1811, 순조 11년 3월)

> 盍島粮, 每結, 田米四刀, 大米一刀式, 收內.
> 울릉도 수토량미(搜討粮米: 수토료미)는 매 결당 전미 4되, 대미 1되씩 거둬서 납부한다.

(11) 『항길고택일기』(1813, 순조 13년 2월 21일)

> 盍島料米, 每結, 田米三刀一合, 大米二刀式收.
> 울릉도 수토료미(搜討料米)는 매 결당 전미 3되 1홉, 대미 2되씩 거둔다.

(12) 『항길고택일기』(1819, 순조 19년 3월)

> 搜討料米, 一結, 大米二刀, 小米三刀三合式收.
> 울릉도 수토료미(搜討料米)는 1결에 대미는 2되, 소미는 3되 3홉씩 거둔다.

(13) 『항길고택일기』(1819, 순조 19년 윤4월 9일)

> 鎭將以鬱島入去次, 發向平邑. 沿海諸邑結幕[31]候望.
> 삼척진 영장이 울릉도로 들어가려고 평해읍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바닷가의 여러 읍에서 천막을 치고 멀리 망을 보았다.

(14) 『항길고택일기』(1823, 순조 23년 3월)

> ○討料○, ○○○報, ○○小大米各收○.[32]
> 수토료미(搜討料米)는 ○○○보(報)하고, ○○ 대미와 소미를 각각 납부한다.

---

31 원문에 "盍島入去發次向平邑"으로 되어 있는데, 去와 發 사이의 교정 표시에 따라 두 글자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 "沿海諸邑結幕" 부분은 글자가 흐려서 판독이 어려운데, 전후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판독하였다.

32 글자가 흐려 판독이 어려우나, "○討料○"는 지금까지의 용법을 볼 때 "搜討料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항길고택일기』(1824, 순조 24년 12월 18일)

搜討料白米十石, 自本邑年年擔當, 已爲屢百年流規, 本官議于巡使, 移于蔚珍·平海兩邑, 本倅德惠, 口碑難忘, 故記之耳.
울릉도 수토료 백미 10석은 본 읍이 해마다 담당하여 이미 수백 년이 흐른 상규가 되었는데, 본관(本官: 삼척부사)이 순찰사(巡使)와 상의하여 울진과 평해 두 읍으로 옮겼으니, 본 읍 우두머리의 은덕과 혜택은 입으로 외우고 비석에 새겨 잊을 수 없기에 그것을 기록한다.[33]

(16) 『항길고택일기』(1825, 순조 25년 9월)

鬱陵島搜討時料, 大米十六石餘斗, 自古及今, 本邑結役當之. 今本倅閔師[34]寬與營門相議, 移定蔚珍[35]邑, 此是莫大之澤.
울릉도 수토시 양료(粮料)로 대미(大米) 16석 몇 말을 예부터 지금까지 본 읍의 결역(結役)으로 그것을 충당하였다. 지금 본 읍의 우두머리 민사관(閔師寬)이 영문(營門)[36]과 상의하여 울진읍(蔚珍邑)에 배정하였으니, 이는 막대한 혜택이다.

(17) 『항길고택일기』(1826, 순조 26년 8월)

舊官閔師[37]寬, 以善政不忘, 爲立碑於東門外. 餞別自鄕中慰床, 所過遠德近德, 各其慰行. 前後所無以記之.

가 거의 확실하다. 중간의 "○○"도 문맥상 "每結"이나 "一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의 "○"은 문맥상 "納"이나 "內"가 되어야 할 것 같다.

33 비슷한 내용이 배재홍의 『국역 척주선생안』(134쪽)의 부사 민사관(閔師寬) 조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갑신년(1824, 순조24) 정월에 부임하였다. … 진미(鎭米)를 울진과 평해로 이전하였다. 이 때문에 불망비(不忘碑)를 세워 그를 칭송하였다(甲申正月來. … 鎭米移蔚·平兩邑, 是故立石頌之.).

34 원문에는 思로 되어 있으나, 師로 바로잡는다.

35 珍 자 다음에 平海가 빠진 듯하다. 바로 앞 1824년 12월의 기사에서는 울진과 평해라고 하였다.

36 영문(營門): 강원 감영의 관찰사를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관 민사관(閔師寬)에게 그의 선정(善政)을 잊지 못하여 동문 밖에 비석을 세워주었다. 전별(餞別)은 고을 안에서부터 상을 차려 위로했으며, 지나가는 원덕과 근덕에서도 각각 위로 행사를 하였는데, 전후에 없었던 일이기에 그것을 기록하여둔다.

(18) 『항길고택일기』(1827, 순조 27년 3월 22일)

新營將河始明到任.
새 삼척영장 하시명(河始明)이 부임하였다.[38]

(19) 『항길고택일기』(1829, 순조 29년 4월 3일)

越松搜討候望守直, 本村六統給書.
월송만호의 수토선이 돌아오는 것을 망보는 것을 수직하라고 본촌 6통에 문서를 보냈다.[39]

(20) 『항길고택일기』(1841, 헌종 7년 2월)

搜討, 田[40]米參斗三升受來, 改量十一升, 舂精十升, 故每結加受二升三合式, ○役.
수토료(搜討料)는 전미(田米) 3말(斗) 3되(升)를 받아왔는데, 11되로 양을 바꾸어 10되를 찧을 수 있으므로, 매 결(結)마다 2되 3홉(合)씩 더 받는다. 역(役)을 부과한다.

---

37 원문에는 思로 되어 있으나, 師로 바로잡는다.

38 하시명은 수토를 하고 첩정(牒呈)을 감원감사에게 올리고, 강원감사는 그 첩정을 근거로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그 장계가 『일성록(日省錄)』(순조 27년 5월 19일)에 실려 있다.

39 수토선이 어디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간에서 후망수직군(候望守直軍)을 징발하였는데, 삼척영장의 수토뿐만 아니라 월송만호가 수토를 담당할 때에도 삼척지방의 후망수직군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기사를 통해 1829년 4월에 월송만호가 수토했음을 알 수 있다.

40 田: 料 자 위에 田 자를 겹쳐 쓴 것으로 보인다. '搜討料田米'로 써야 하는데, 田 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 『항길고택일기』(1843, 헌종 9년 4월 3일)

搜討候望守直軍, 三牌晝給.
수토선이 돌아오는 것을 망보는 수직군(守直軍)으로 세 무리의 부대를 낮에 보냈다.

(22) 『항길고택일기』(1845, 헌종 11년 3월 17일)

盍陵搜粮, 小米, 每結, 二升式收內.
울릉도 수토 양료(粮料)로 소미를 매 결당 2되씩 거두어 납부한다.

(23) 『항길고택일기』(1845, 헌종 11년 4월 3일)

搜討候望守直軍, 三牌晝給.
수토선이 돌아오는 것을 망보는 수직군(守直軍)으로 세 무리의 부대를 낮에 보냈다.

(24)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9일)

營將鬱陵島發行, 姜在毅.
영장(營將: 삼척영장)이 울릉도로 출발했는데, 강재의(姜在毅)이다.

(25)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18일)

平海九尾津發船.
평해(平海) 구미진(九尾津)에서 배가 출발하였다.

를 빠뜨리고 썼다가 후에 料 자 위에 田 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수토료(搜討料)라는 용어는 일기에 자주 나오지만, 수토전(搜討田)이라는 용어는 일기에서 찾을 수 없다. 田 자를 뒤로 붙여 田米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6)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25일)

夕, 搜討船泊望祥面於乃津.
저녁에 수토선(搜討船)이 망상면(望祥面) 어내진(於乃津)에 정박하였다.

(27)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26일)

鎭將還營.
진장(鎭將: 삼척진 영장)이 삼척진영(三陟鎭營)으로 돌아왔다.

V. 맺음말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조선 정부의 해양도서 관리정책의 중요한 방식이었던 수토정책과 수토제 연구로 초점이 모아져서 진행되었다. 명청시대 중국의 해금정책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도 해금정책을 실시하여 동아시아 해양은 해금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해금정책에 따라 조선 정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은 비워두면서 섬을 관리하는 방식을 영토 관리의 기조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비워둔 섬에 몰래 사람들이 도망해 들어가거나 섬에서 몰래 거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쇄환정책이나 수토정책을 실시하였다.

울릉도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쇄환정책이란 이름으로 영토를 관리하였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울릉도에 주기적으로 군대를 보내 순찰을 하는 수토제도를 만들어 200여 년 동안 적극적으로 영토를 관리하였다.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항길고택일기』에 울릉도 수토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배재홍에 의해 보고되었고, 울릉도·독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항길고택일기』는 1990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에 이루어진 국사편찬위원회의 두 차례 사료 조사에서 누락되었고, 또 사료 원본 자체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이 쉽지 않아 후속 연구가 많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지난 몇백 년간 『항길고택일기』 등 가문의 고문헌 자료를 대를 이어 관리해온 항길고택의 내력을 소개하고, 이어서 항길고택의 고문헌 및 고문서를 망라한 항길고택문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항길고택문고를 소개하기 위하여 항길고택에서 작성한 『도서목록』을 도표로 만들어 이 글의 부록으로 실어 처음으로 지면에 공개한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항길고택문고의 중요 사료를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표로 만들어 이 글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항길고택문고 관련 연구를 소개하여 학계의 관심사와 연구 진행 상황을 일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길고택일기』의 제본 상태 및 구성 등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하고,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를 뽑아내 한문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 그리고 일기 원본의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독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일성록』·『각사등록』 등 관찬 사료에서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내용의 사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 수토를 하러 간 군인들에게 지급할 울릉도 수토료 또는 수토료미를 울릉도 수토가 있는 해에는 삼척의 주민들이 어김없이 납부하였던 사실이 기록된 것은 『항길고택일기』에서만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둘째, 울릉도 수토를 하러 출발할 때와 수토를 마치고 돌아올 때, 후망 수직군(候望守直軍)을 조직하여 무사히 배가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후망에 대한 기록은 아마도 이 『항길고택일기』 외에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삼척지방의 후망 수직군은 삼척영장이 수토할 때는 물론이고 월송만호가 수토할 때도 삼척지방에서 똑같이 운용되었다는 사실도 『항길고택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셋째, 19세기 초중반 이른바 세도정치 시기에는 정치 일반이 문란하였으므로 울릉도 수토제도 역시 문란해져서 수토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항길고택일기』의 수토 관련 기사의 내용이 알려지고, 또 『각사등록』의 수토 관련 기사도 알려져 두 자료가 결합되자, 세도정치 시기의 울릉도 수토가 오히려 앞 시대보다 더 규칙적으로 잘 시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끝으로 필자는 초서를 읽지 못하는 데다가, 일기와 같은 특수한 문서들을 읽어본 경험이 많지 않다. 게다가 『항길고택일기』의 경우, 책력 위에 덧 쓴 글이고, 오랜 세월 동안 습기와 벌레에 종이가 해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다. 분량이 많지 않은 원문과 번역이지만, 막상 내놓으면서 두려움이 앞선다. 잘못된 곳은 앞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圖書目錄(恒吉文庫)』, 『陟州先生案』, 『恒吉古宅日記』.

단행본

배재홍, 2003, 『국역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_____, 2007,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우물이있는집.

_____, 2008, 『동해시 고문서』 2, 동해문화원.

논문

배재홍, 2004, 「18세기 말 정조연간 강원도 삼척지방 이상기후와 농업」, 『대구사학』 75.

_____,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정경숙, 1993, 「강릉김씨 호구단자 분석연구-18세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인문학보』 16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_____, 1994, 「강릉김씨 호구단자 분석연구(2)-19세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인문학보』 17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차장섭, 1997,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

기타 자료

연합뉴스, 「관찬사료서 빠진 울릉도 수토 기록된 일기 기증」, 2018.10.25,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133900005?section=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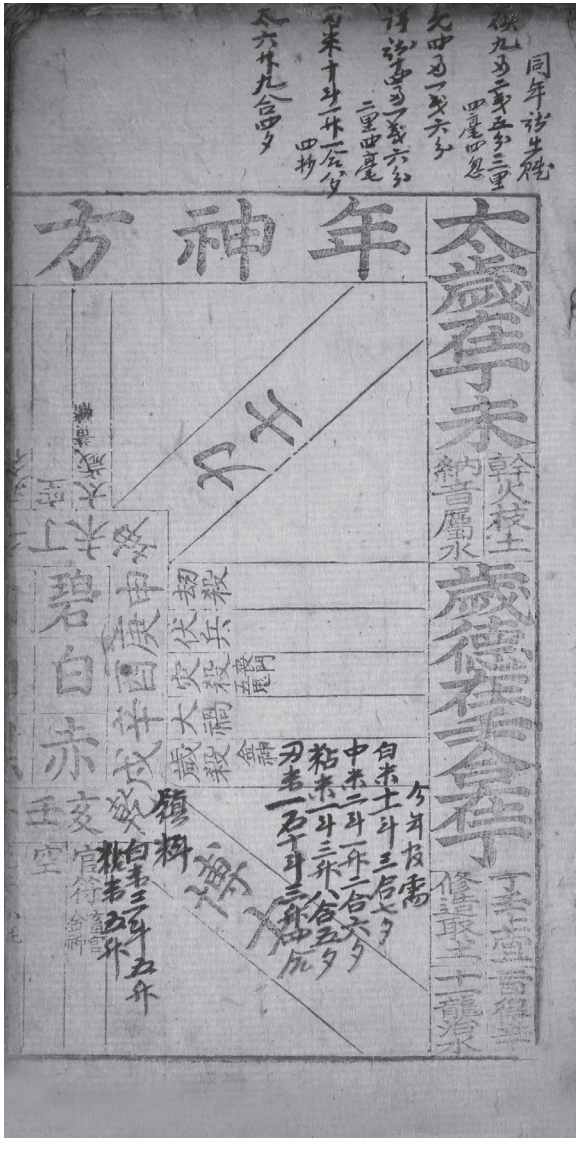
〈포항MBC 광복절 특집다큐멘터리 독도전〉, 2014.8.16,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독도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107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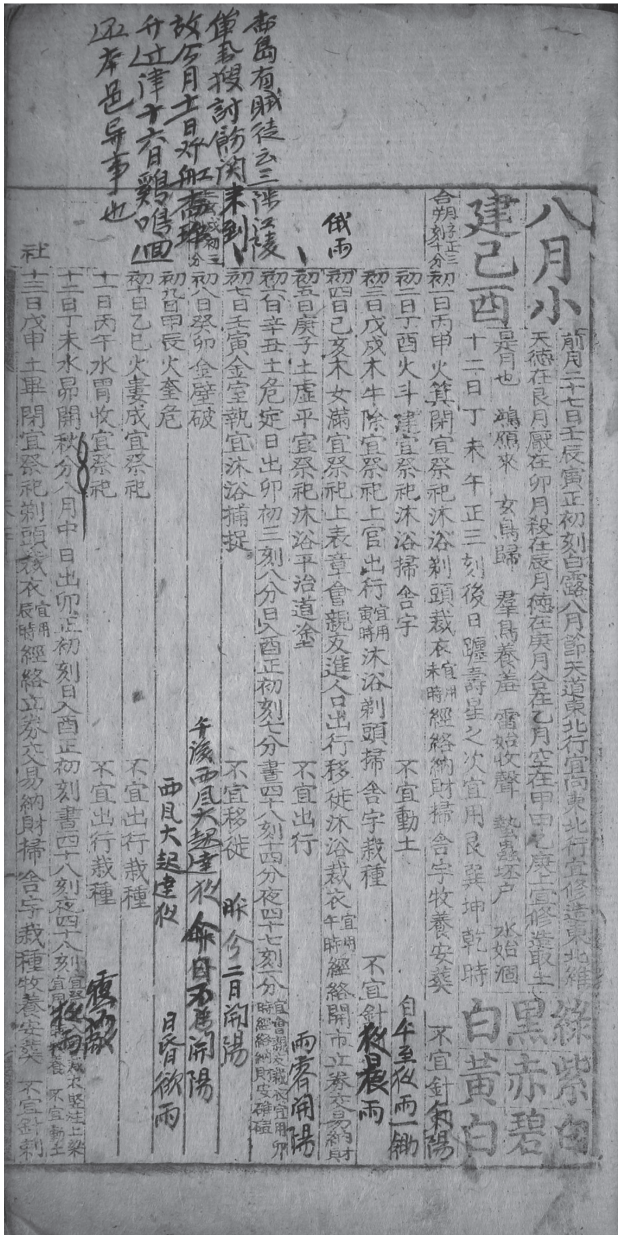
부록 1.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원본 이미지

1. 『항길고택일기』(1787, 정조 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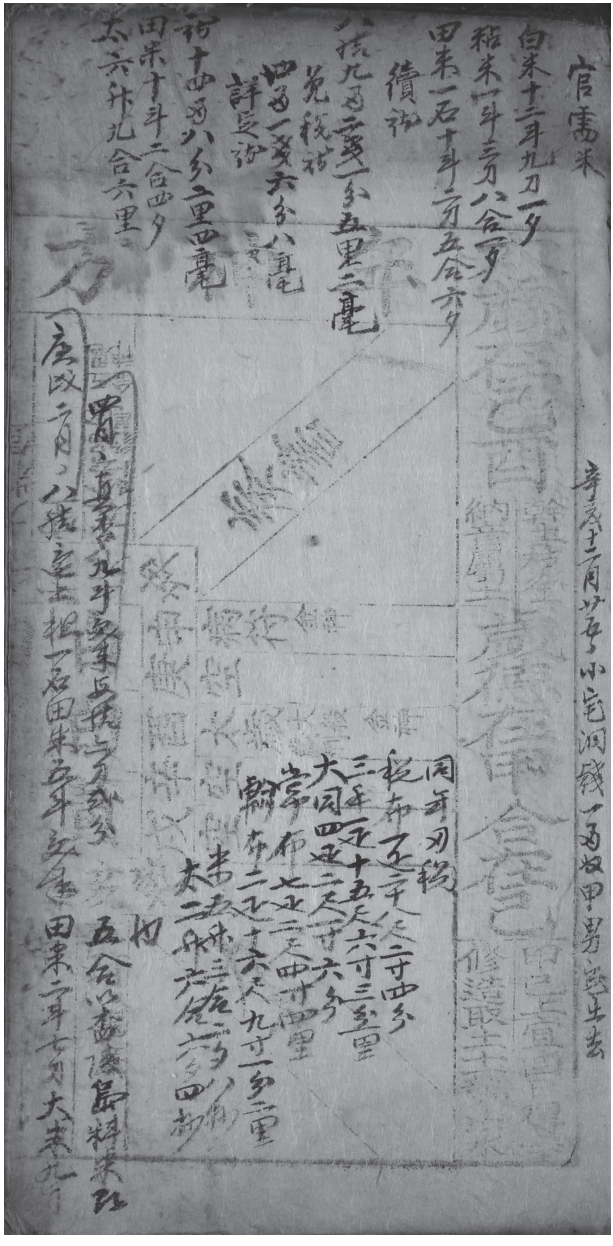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항길고택일기』(1787, 정조 1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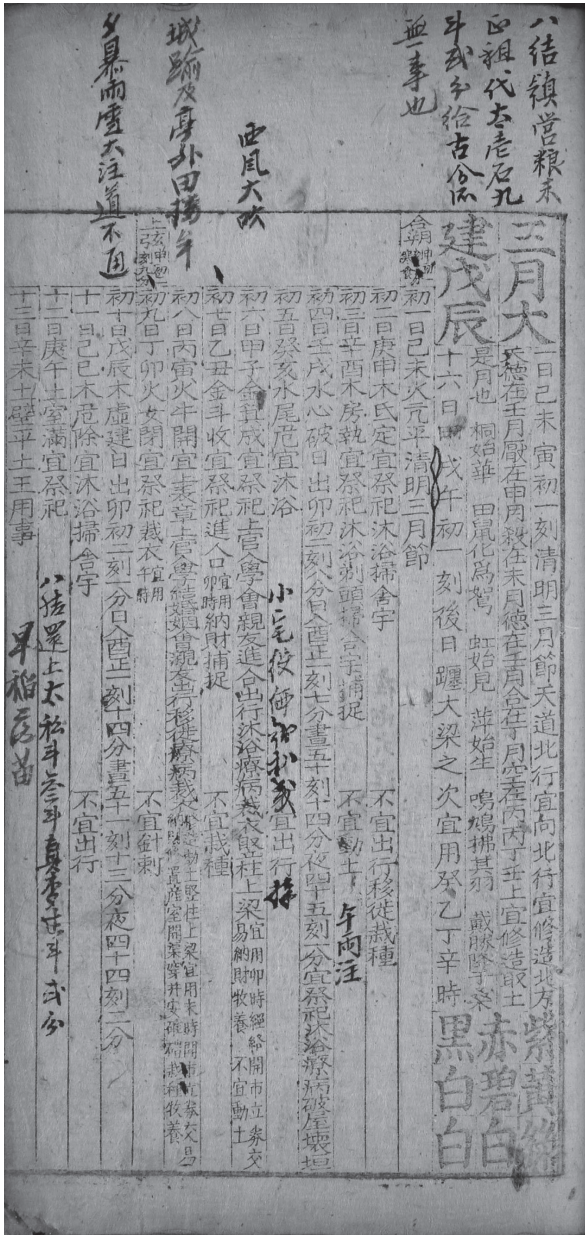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항길고택일기』(1789, 정조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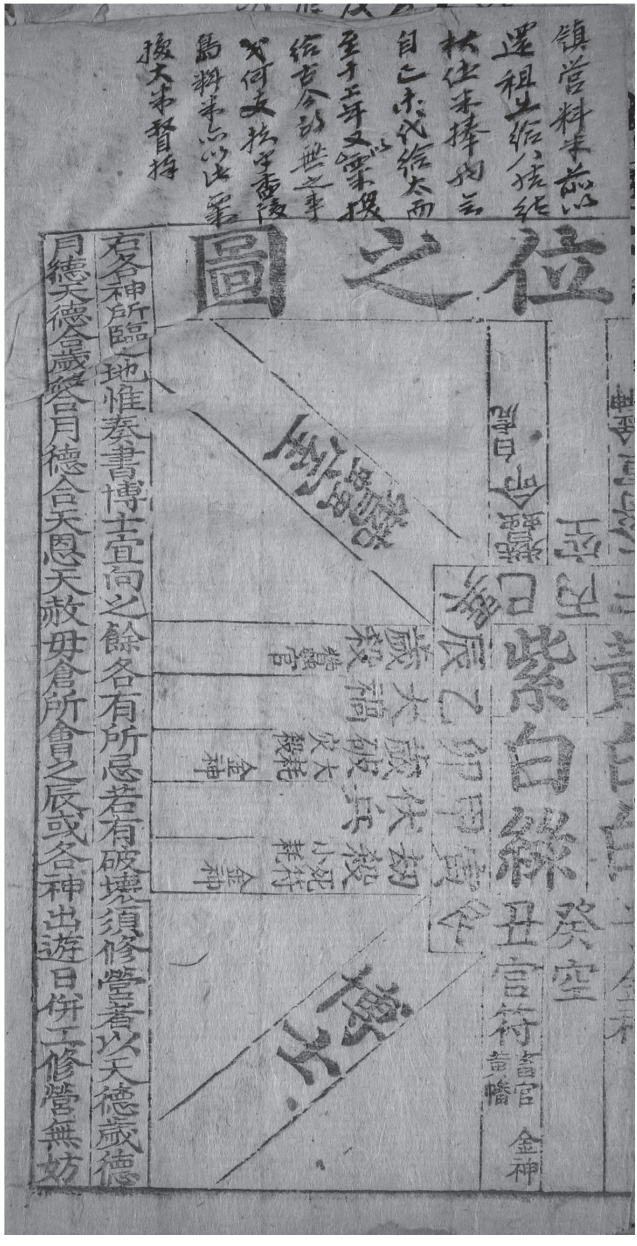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항길고택일기』(1799, 정조 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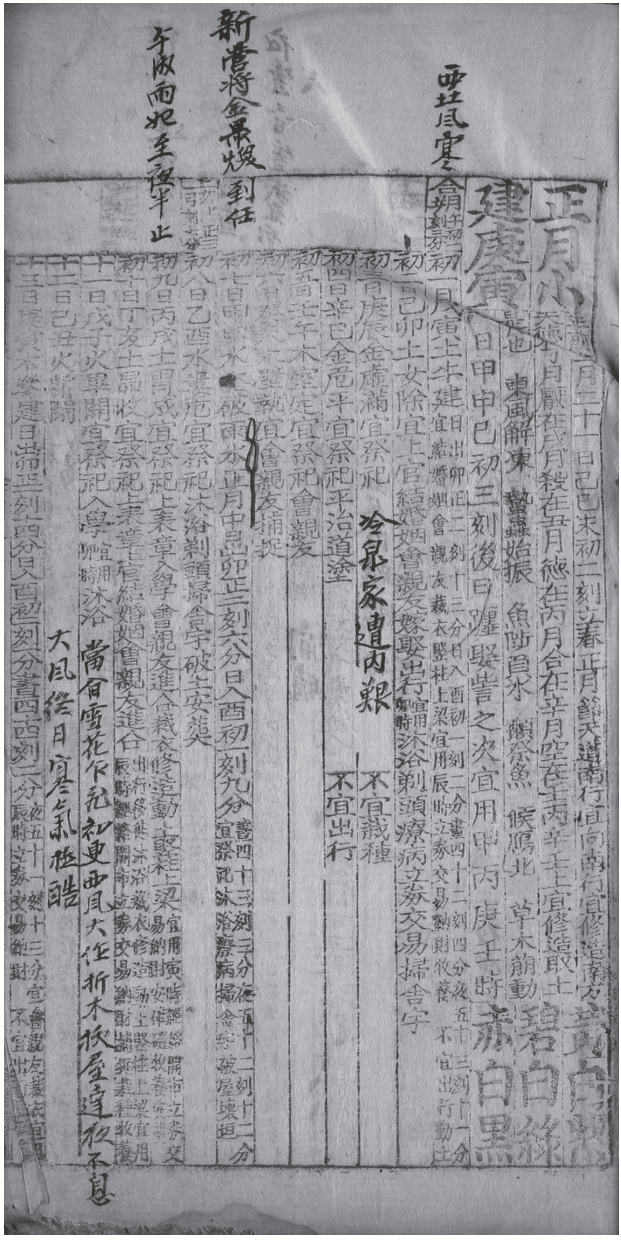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항길고택일기』(1801, 순조 1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항길고택일기』(1801, 순조 1년 1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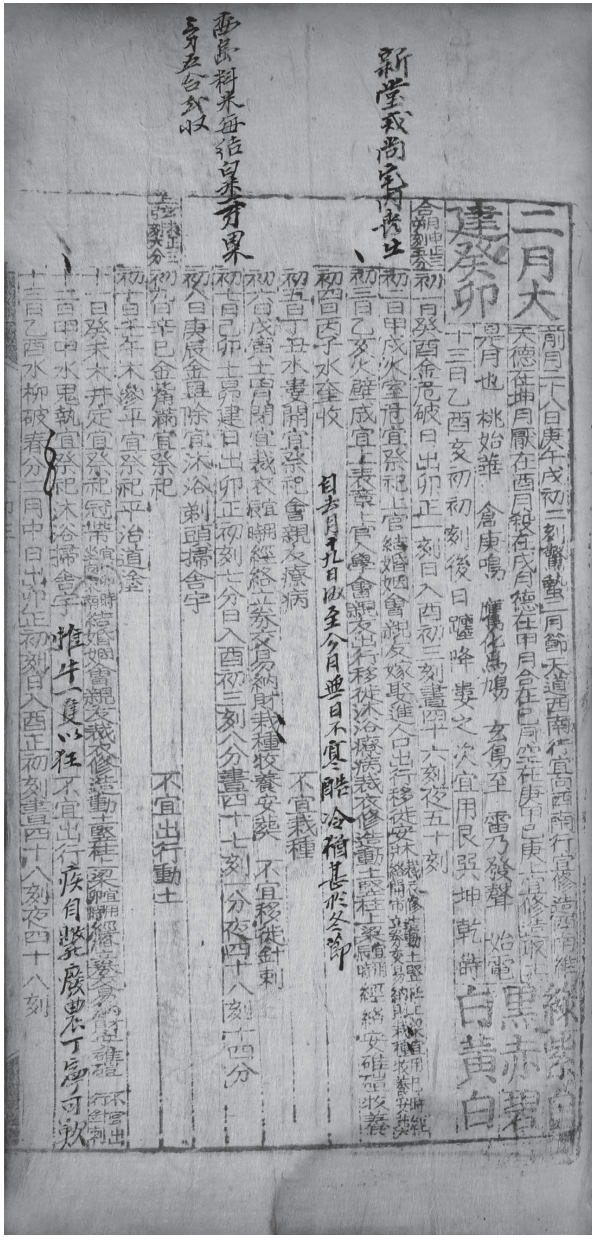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항길고택일기』(1801, 순조 1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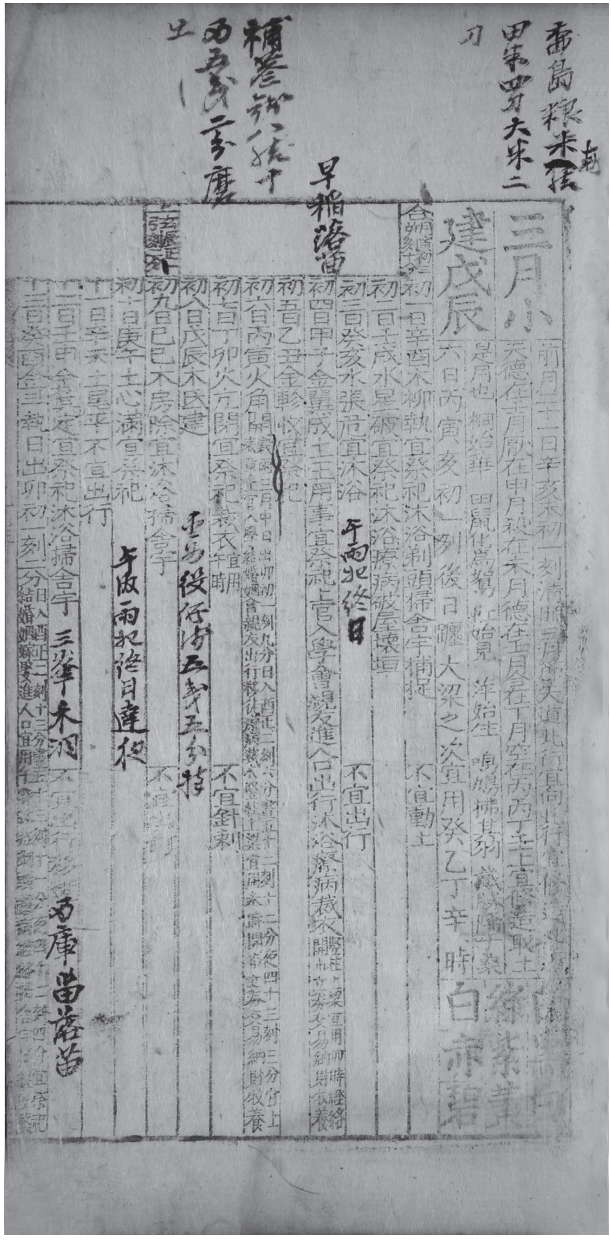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항길고택일기』(1807, 순조 7년 2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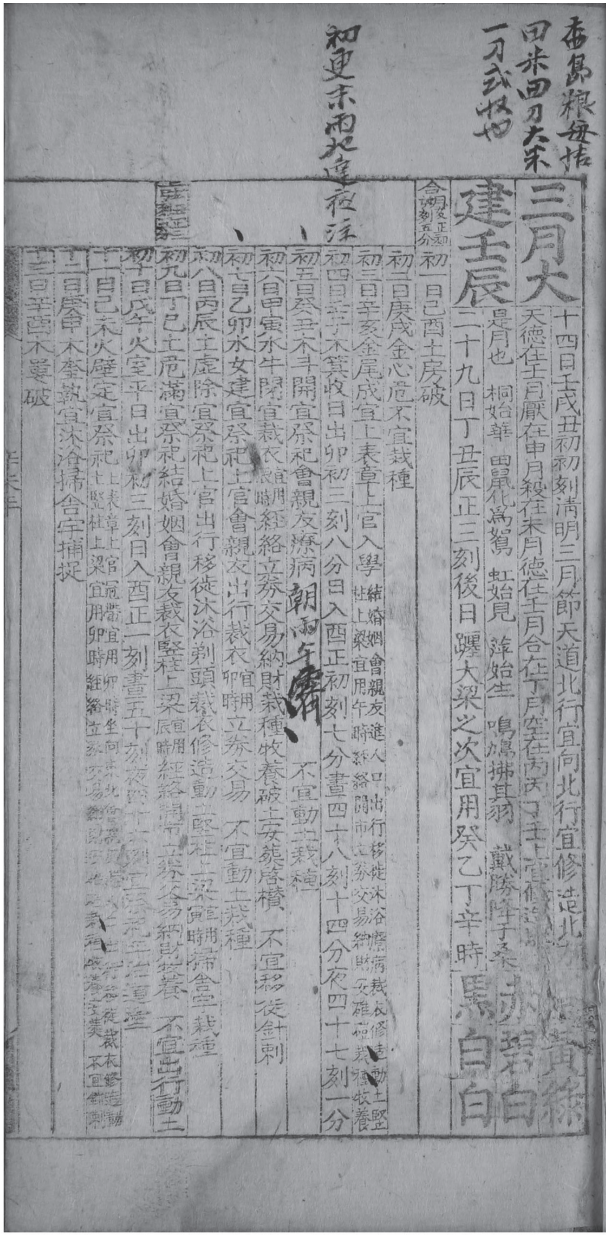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항길고택일기』(1809, 순조 9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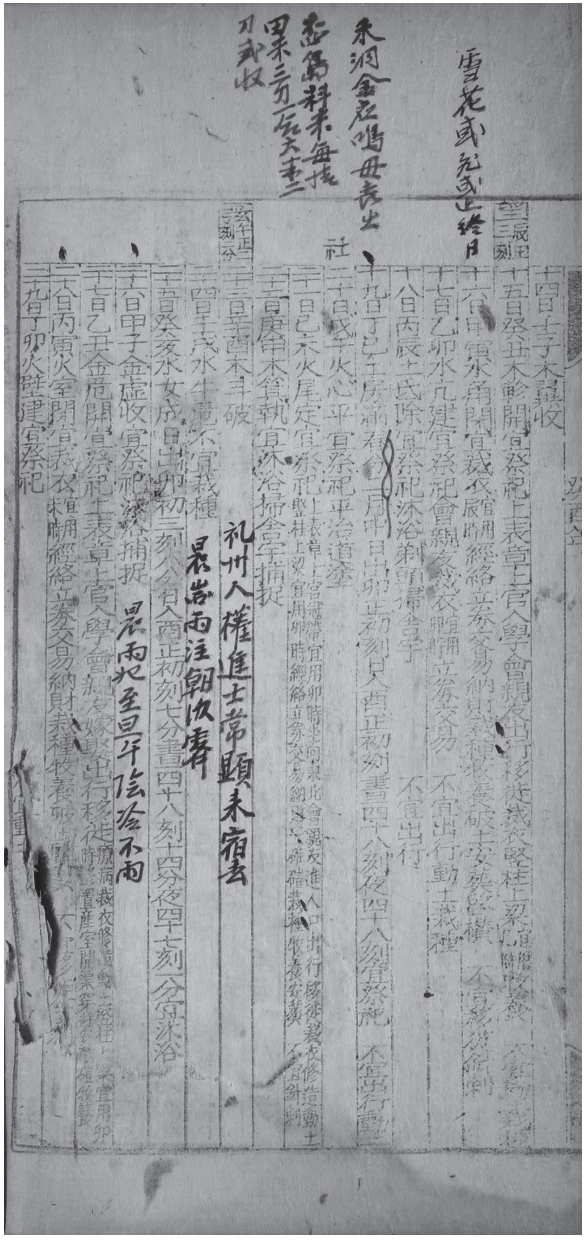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 『항길고택일기』(1811, 순조 1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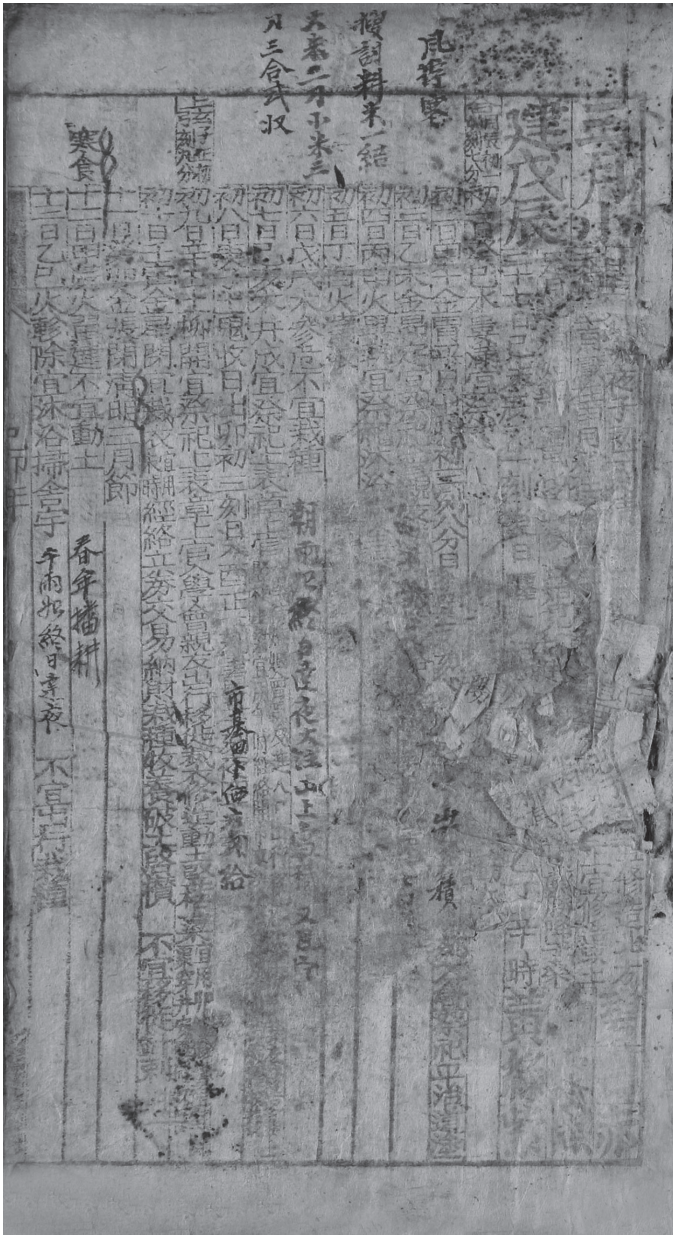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항길고택일기』(1813, 순조 13년 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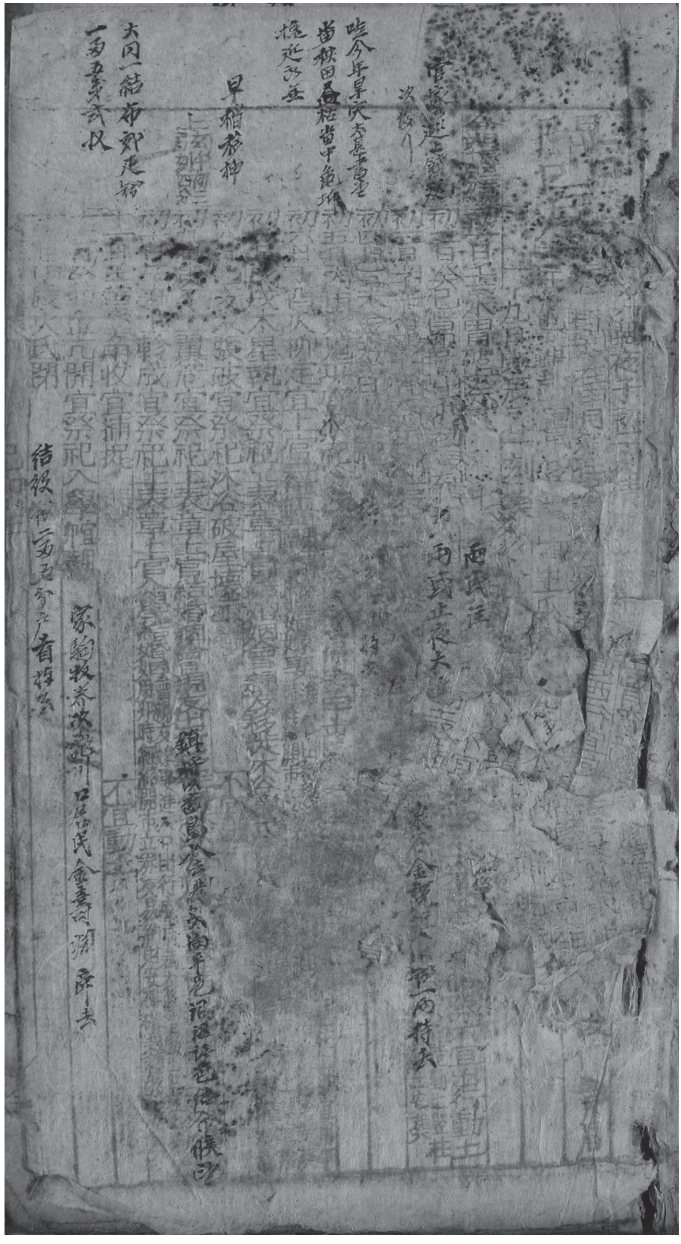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 『항길고택일기』(1819, 순조 19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 『항길고택일기』(1819, 순조 19년 윤4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항길고택일기』(1823, 순조 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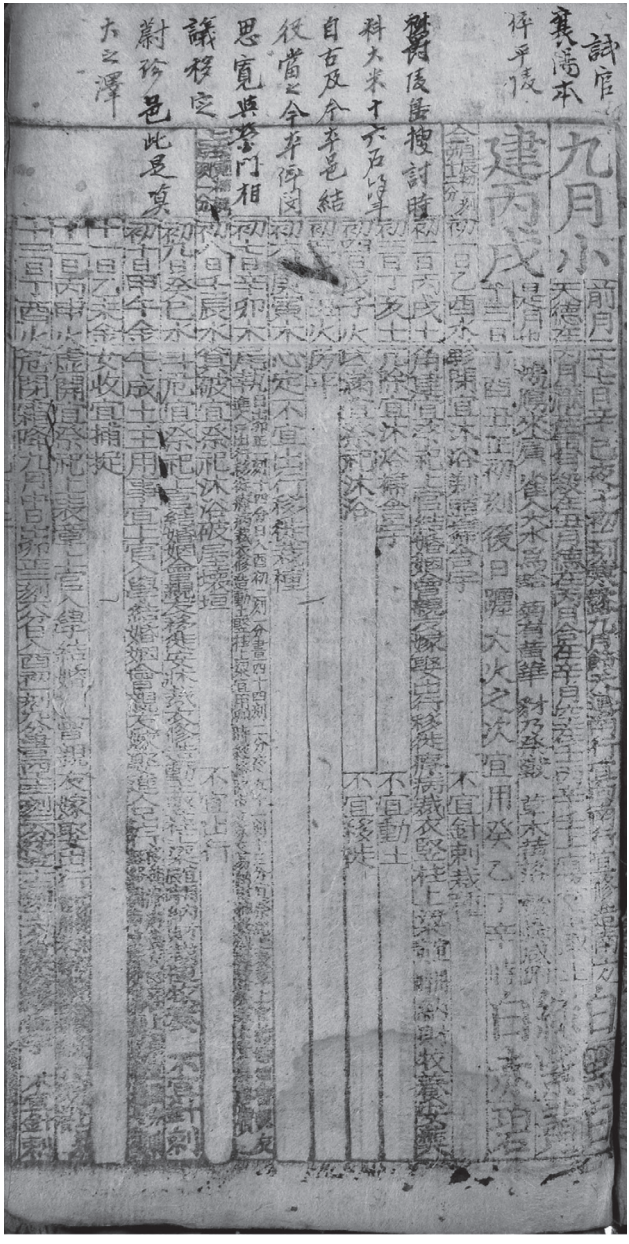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항길고택일기』(1824, 순조 24년 1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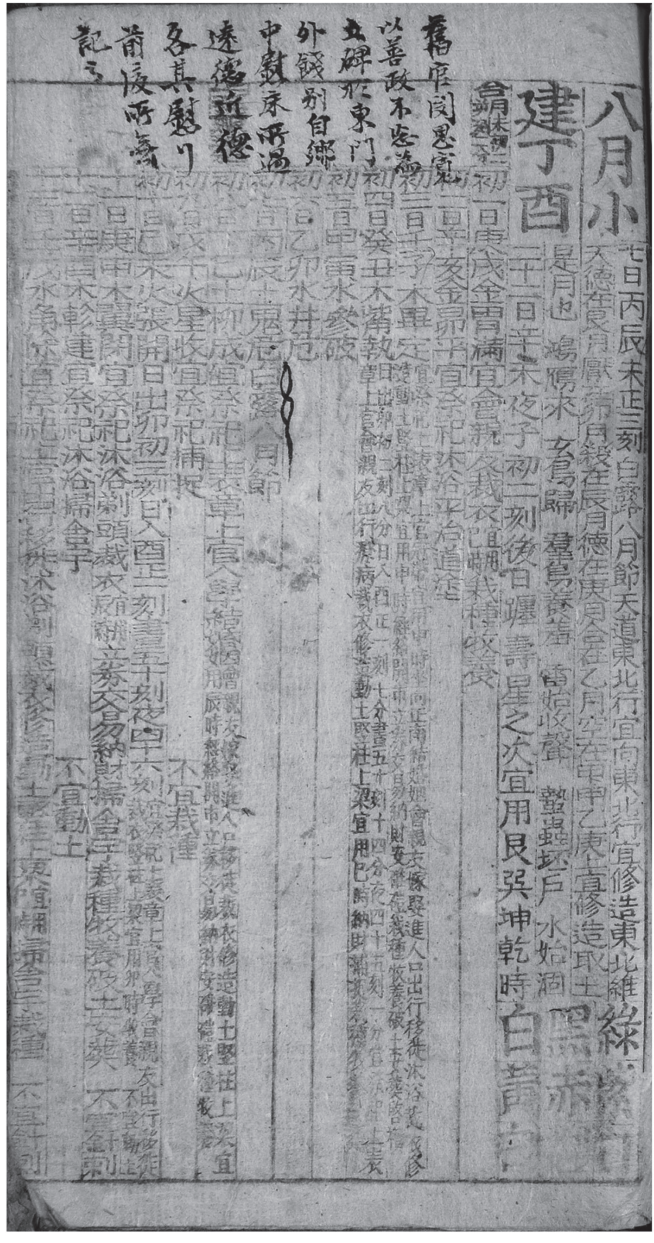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6. 『항길고택일기』(1825, 순조 2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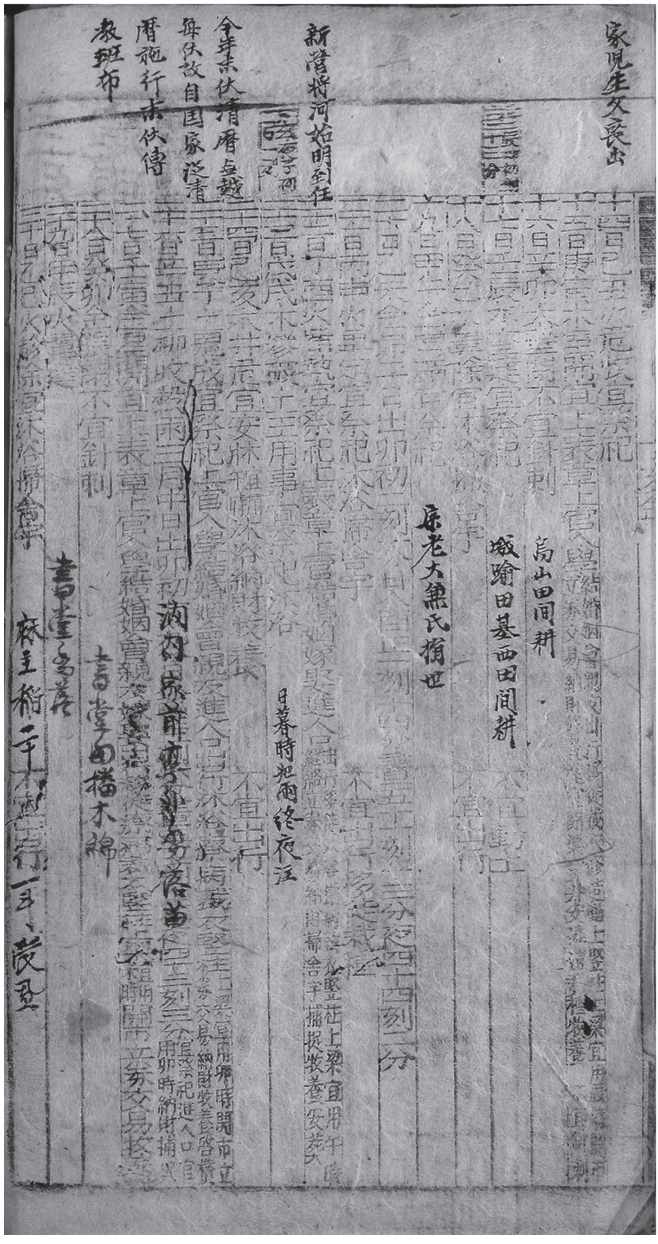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 『항길고택일기』(1826, 순조 2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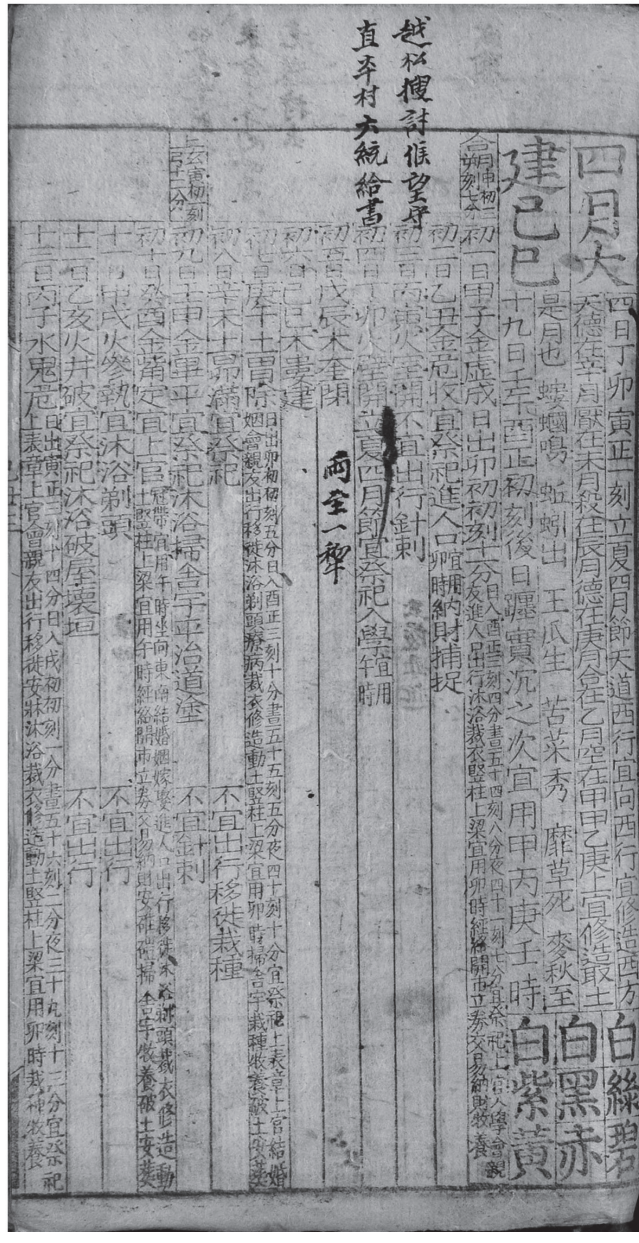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 『항길고택일기』(1827, 순조 27년 3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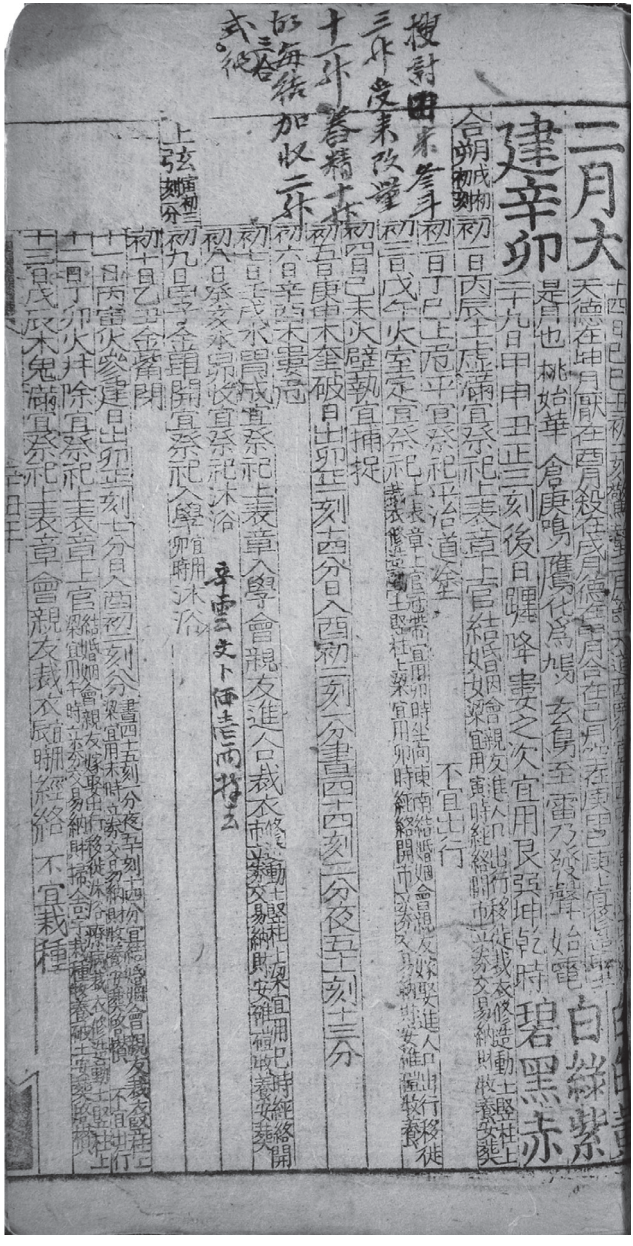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 『항길고택일기』(1829, 순조 29년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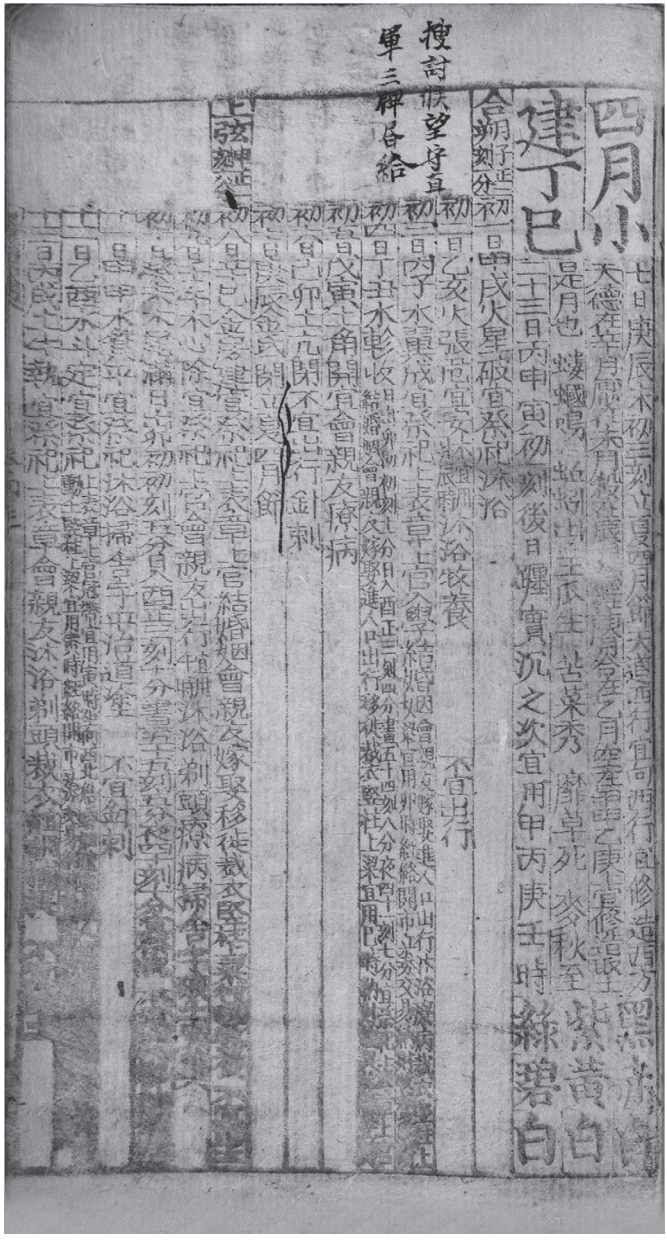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 『항길고택일기』(1841, 헌종 7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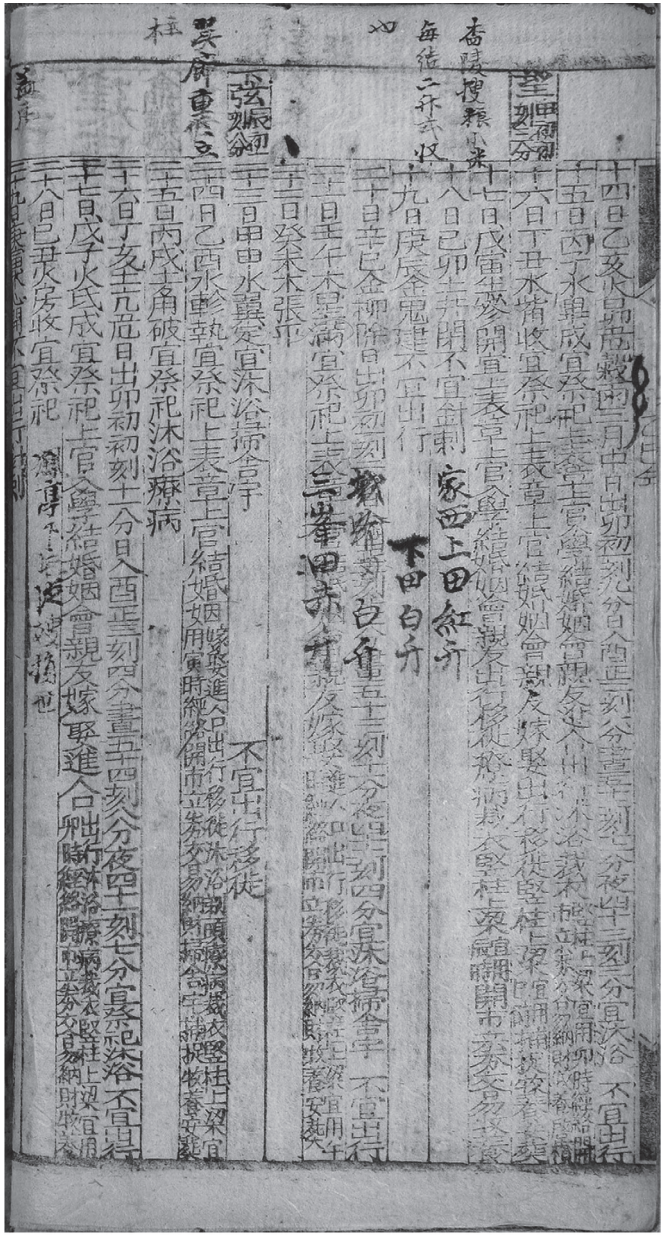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 『항길고택일기』(1843, 헌종 9년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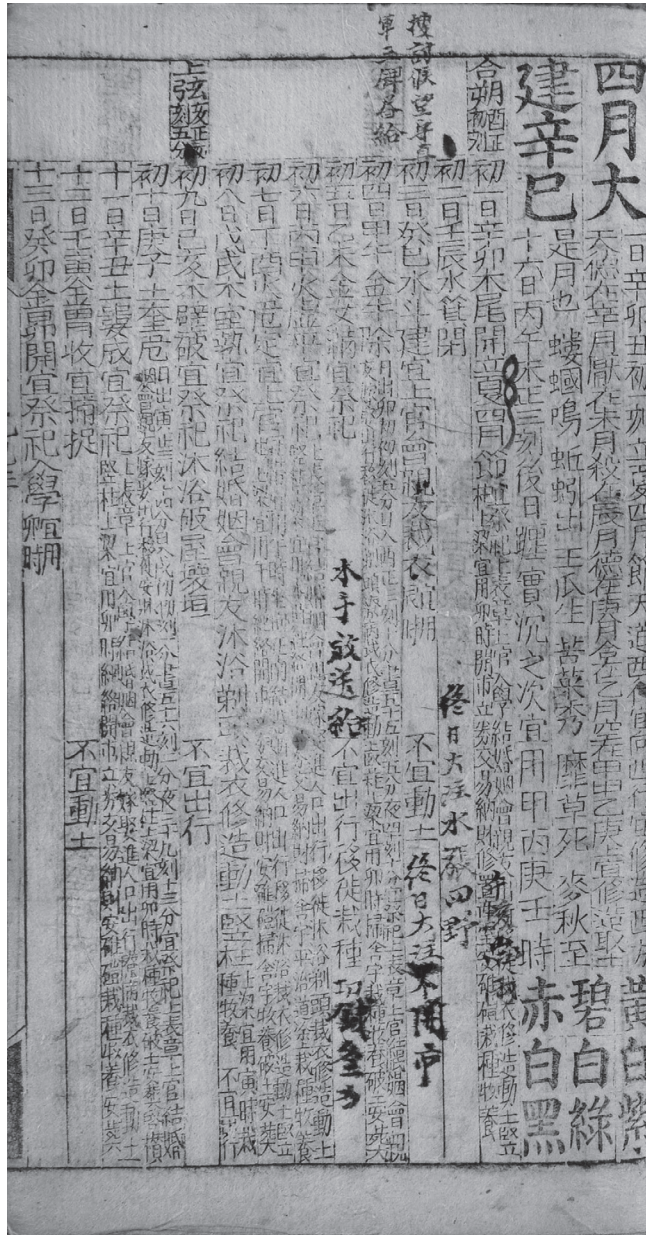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 『항길고택일기』(1845, 헌종 11년 3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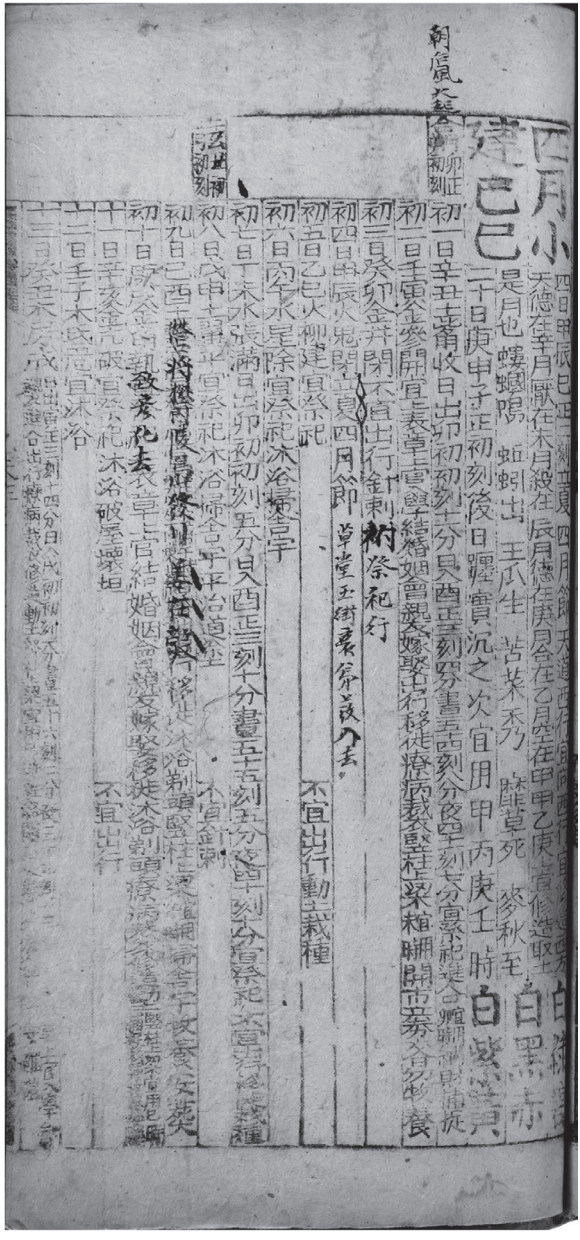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3. 『항길고택일기』(1845, 헌종 11년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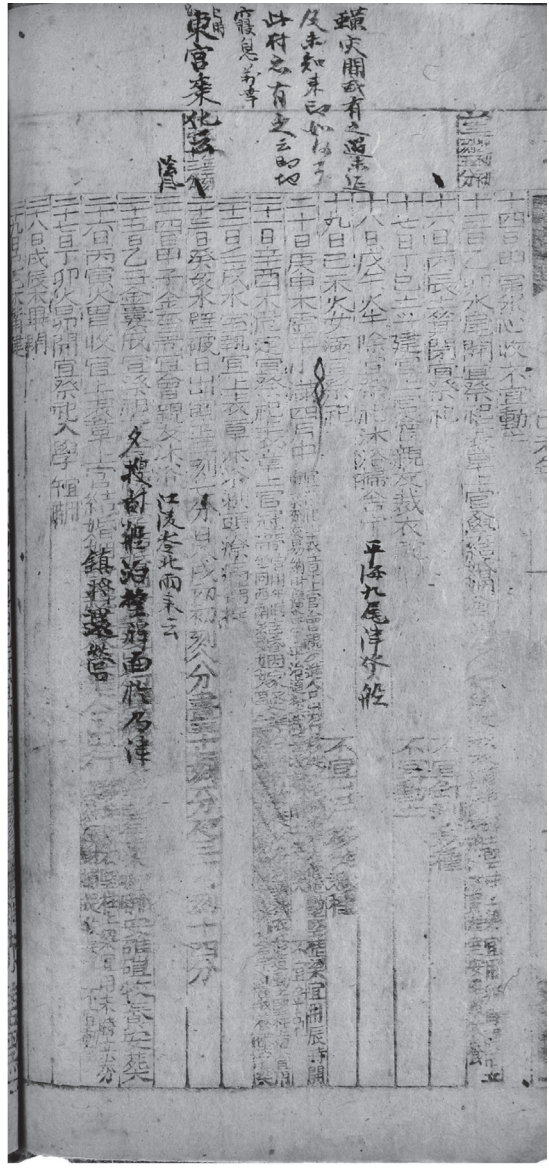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4.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5.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18일)
26.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25일)
27. 『항길고택일기』(1859, 철종 10년 4월 26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록 2. 『圖書目錄』(辛丑十二月二十一日, 恒吉文庫)

(중간에 번호가 없는 빈칸은 원본의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표시한 것임.)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1	祖訓	3	上中下		
2	金氏遺事	2	單卷		
3	聾軒詩帖	1	單卷		
4	永慕亭輯錄	2	單二		
5	禮疑類輯	1	天地人三		天地二卷紛失
6	永慕亭遺事	1	卷單		
7	素王錄	2	乾坤		
8	梅月堂詩集	6 又 1	印刷七卷		
9	九峯詩集	1			
10	玉叢	2	乾坤		
11	俗齋遺事	1			
12	陟州先生案	1	單卷		
13	溟源寶鑑	1	單卷		
14	雜詩	1			
15	漢書	2	乾坤		
16	天機大要	1	卷下		上卷紛失
17	海嶽詩律	1	單一		
18	梅菴遺稿	1	單一		
19	湖海集	1			
20	艾軒遺稿	1			
21	心經	2	乾坤		
22	蘭雪軒集	1	全		
23	硎鍥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24	事文類會	4	天地人才		事物類抄
25	古文眞寶後集	1			
26	古詩	1			
27	楚辭	1	單一		
28	燕石	1		梅菴	
29	錄記光陰	1			
30	楓嶽記	1			
31	明齋集	1	抄天		
32	釵南集	1			
33	額珠	1	卷初		
34	玉篇	2	古上下		
35	綱鑑會要	2	卷二		
36	草簡牘	1	抄		
37	珠聚	1			
38	東隣	1			
39	濂洛	1			
40	大象精選	1			
41	新唐	1			
42	香山集	1			
43	秘訣	1	藥秘方單		
44	雜記	1	藥秘方單		
45	永慕亭上樑文	1			
46	先代墓碣銘	1	幷號		
47	董玄宰	1			
48	江陵金氏家乘帖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49	九峯公遺集	1			
50	笏屛風	5			
51	永慕藏帖	5	各帖		
52	譜帖印木板	1	派曲型調製品		
53	永慕亭事蹟	1			
54	龍井.城峙派宗帖	1			
55	四禮撮要	1			
56	司憲府監察公墓碣銘	1			
57	戊申譜草單	1			
58	戊寅普草單	1			
59	九峯公行狀	1			
60	永慕亭詩序	1			
61	褒彰完議文	1			
62	素王事記	1	單		
63	古要覽	1	書冊目錄		
64	道庄先生遺事	1			
65	詩會曲	1			
66	杜律全	1			
67	東愚光陰	2			
68	九峯光陰	2			
69	漢書	1	坤		乾紛失
70	聖學要說	3	論言		
71	聖學要說	1	中庸大學		
72	三國誌	1			
73	韻考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73	龍山書堂篆	1			
74	御製綸音	2			
75	朱詩雅頌	1			
76	代唐宮詩集	1			
77	逐客書	1			
78	馬史	1			
79	聖學要說	5	易經一二三四五		
80	聖學要說	3	書傳一二		
81	聖學要說	3	禮記一二三		
82	草史集	1	全		
83	祝式	1			
84	文章部	2	單		
85	唐釋合部	1			
86	俗齋居諸	1			
87	湖海亭遺集	1			
88	陟州節義錄	2	上下		
89	龍山書院錄	1			
90	荊鄕歌	1			
91	陟州誌	2	上下		
92	聖學十圖	1			
93	陟州誌	1	單		
94	鄕約文	1	單		
95	畵聲	2	抄一二		
96	袖寶	2			
97	瀛洲採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98	李白靑蓮詩	1			
99	正音通釋	1			
100	經傳類彙	4	春夏秋冬		
101	宋朝君寶鑑	2	乾坤		
102	擊蒙要訣	1	上下合部		
103	長篇	2	卷一二		
104	波勃	1			
105	葩經	2	乾坤		
106	朱詩雅頌	1	單		
107	壺肇公實記	1			
108	雲梯	2			
109	九峯雜錄	7	卷一二三四五六七		
110	家禮 大喪禮	2	乾坤(大)		
111	家禮	4	元亨利貞		
112	增補會靈	2	仁義禮智卷一二		
113	近思錄	3	天地人		
114	景行祠事蹟	2			
115	先賢遺事	2	卷		
116	魯史	2	乾坤		
117	楚裔	1			
118	史略	2	一六		
119	四言五律	1			
120	花鳥	1			
121	文章部	1	單		
122	渭村派家乘	1			
123	陟州鄕史	1	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124	鄕約記	1			
125	楚裔	1			
126	思無邪篆	1	古 簇子		
127	東海退潮碑文	1	古 簇子		
128	告淸祭祀笏記	1			
129	四時祭笏記	1			
130	大小襄禮笏記	1			
131	慕先篆	1	古 簇子		
132	孝忠篆	1	古 簇子		
133	柳箱子	10	古 書字 家寶傳之子孫		
134	皮箱子 外門製品	3	古 敎旨 各通往復京鄕書翰		
135	柳箱子	2	先代單子		
136	楸箱子 長品	1	紅牌 古硯		
137	懸板	5	竹軒俗齋小下		
138	關東八景畵帖	1	連幅屛風畵各枚 貸澐齋		
139	楸櫝	2	喪用小型		
140	楸櫝	5	奉安四大型		
141	乙丑譜	1	草單		二卷
142	辛丑譜	2	草單		二十二卷內
143	丁巳譜	2	草單		二卷
144	丙子譜	4	原秩		
145	癸未〃	6	〃		
146	戊申〃	6	〃		
147	辛亥〃	2	〃		
148	辛丑〃	3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149	甲子〃	6	〃		
150	戊寅〃	8	〃		
151	庚申〃	12	〃		
152	丁酉〃	9	〃		
153	壬寅譜	1	原秩		龍井派
154	懶齋遺集	1			
155	七菴遺稿	1			
156	九峯俗齋竹軒集	1			
157	溟王陵, 洪原公 墓碣銘	2			
158	石荷遺稿	1			
159	金蘭史	1			
160	追遠齋上樑文	1			
161	千字文	1			
162	童蒙先習	1			
163	馬相譯	1			
164	小學	2			
165	明心寶鑑	1			
166	通鑑	15			
167	大學	1			
168	孟子	12			
169	論語	6			
170	詩傳	23			
171	書傳	5			
172	古詩集 合篇	1			
173	算術數學法(古)	1	二歸三歸, 四歸靈算法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順位	目次	卷數	錄序	編輯人	摘要
174	喪屛	2	墨書併書一, 白書一		
175	祭屛	1	二雙待座		
176	祭床	2			
177	香爐	1			
178	香盒	1			
179	茅床	1			
180	燭臺	2			
181	紗扇	1	黃毛柄		
182	廟屛	1			
183	政鏡圖	1			
184	樗棋	1			
185	大屛	1			
186	主櫝 大型	5			
187	主櫝 小型	2			
188	櫃	1			
189	祭器	4	鍮器合飯器		
200	果炙板	11	大七 中四		
201	木製皿	30	古10 新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록 3. 「강원도 동해시 강릉김씨 소장 고서 고문서(DGW014_02)」 중 고문서 목록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001	所志(金聖祚)	辛酉年 12월	金聖祚	城主
002	所志(金仁奎)	辛酉年 12월	金仁奎	城主
003	所志(金漢祚)	丁丑年 9월	金漢祚	城主
004	所志(金世紀)	甲申年 3월	金世紀	都護府
005	所志(金世紀)	丙戌年 3월	金世紀	都護府
006	所志(金光道)	壬戌年 11월	金光道	–
007	所志(金旻)	壬申年 3월	金旻	–
008	所志(金世紀)	乙酉年 3월	金世紀	–
009	所志(金致璉)	乙酉年 2월	金致璉	–
010	所志(金致璉)	庚丑年 12월	金致璉	–
011	所志(金致璉)	乙亥年 8월	金致璉	–
012	所志(金致璉)	乙卯年 8월	金致璉	–
013	所志(金致璉)	甲午年 2월	金致璉	–
014	所志(金致璉)	甲午年 정월	金致璉	–
015	所志(金致璉)	癸巳年 윤3월	金致璉	–
016	所志(金致璉)	癸巳年 윤3월	金致璉	–
017	所志(金致璉)	壬辰年 8월	金致璉	–
018	所志(金致璉)	壬辰年 6월	金致璉	–
019	所志(金致璉)	壬辰年 3월	金致璉	–
020	所志(金致璉)	壬辰年 2월	金致璉	–
021	所志(金台命)	己卯年 6월	金台命	–
022	所志(金致璉)	乙亥年 5월	金致璉	–
023	所志(金致璉)	乙酉年 2월	金致璉	–
024	所志(金致璉)	乙酉年 6월	金致璉	–
025	所志(金致璉)	癸巳年 10월	金致璉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026	所志(金性嫺)	辛亥年 정월	金性嫺	–
027	所志(張春學)	辛卯年 12월	張春學	–
028	所志(朴召史)	辛卯年 9월	朴召史	–
029	所志(金婢 壬分)	庚申年 12월	金婢 壬分	–
030	所志(金孟建)	辛卯年 9월	金孟建	–
031	所志(金生員宅 奴 禮釗)	庚戌年 12월	金生員宅 奴 禮釗	–
032	所志(金生員宅 奴 禮釗)	辛丑年 9월	金生員宅 奴 禮釗	–
033	所志(金生員宅 奴 禮釗)	丙子年 8월	金生員宅 奴 禮釗	–
034	所志(朴乙乭)	乙卯年 10월	朴乙乭	–
035	所志(金泰振)	癸卯年 3월	金泰振	–
036	所志(金護軍宅 奴 禮釗)	壬寅年 5월	金護軍宅 奴 禮釗	–
037	所志(金敎心)	庚戌年 12월	金敎心	–
038	所志(金寅政)	乙亥年 6월	金寅政	–
039	所志(金九嫺)	丁未年 5월	金九嫺	–
040	所志(金九嫺)	庚子年 3월	金九嫺	–
041	所志(金九嫺)	庚子年 2월	金九嫺	–
042	所志(金九嫺)	庚子年 2월	金九嫺	–
043	所志(金致璉)	壬辰年 3월	金致璉	–
044	所志(金時鶴)	辛卯年 정월	金時鶴	–
045	所志(金時鶴)	壬子年 7월	金時鶴	–
046	所志(金時鶴)	壬午年 7월	金時鶴	–
047	所志(金九嫺)	丁未年 5월	金九嫺	–
048	上書(金仁政)	己巳年 11월	金仁政	–
049	上書(崔晉顯)	己巳年 9월	崔晉顯	–
050	上書(崔晉顯)	己巳年 2월	崔晉顯	–
051	上書(崔晉顯)	戊寅年 11월	崔晉顯	–
052	上書(崔晉顯)	戊午年 8월	崔晉顯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053	上書(崔晉顯)	辛未年 7월	崔晉顯	–
054	上書(李啓沼)	辛巳年 4월	李啓沼	–
055	上書(金敎喜)	庚申年 9월	金敎喜	–
056	上書(金敎喜)	庚申年 6월	金敎喜	–
057	上書(金敎喜)	庚申年 12월	金敎喜	–
058	上書(金敎喜)	辛酉年 정월	金敎喜	–
059	上書(金敎喜)	辛酉年 1월	金敎喜	–
060	上書(金載坤)	丙午年 12월	金載坤	–
061	上書(金泰振)	丙申年 11월	金泰振	–
062	上書(金億奎, 金載坤 등)	庚戌年 2월	金億奎, 金載坤 등	–
063	上書(鄭翼南, 洪周燮 등)	庚戌年 2월	鄭翼南, 洪周燮 등	–
064	上書(洪秉赫 등)	甲寅年 5월	洪秉赫 등	–
065	上書(洪秉赫 등)	辛亥年 1월	洪秉赫 등	–
066	上書(洪景燮 등)	戊申年 12월	洪景燮 등	–
067	上書(崔翼浩 등)	戊申年 12월	崔翼浩 등	–
068	上書(鄭翼南 등)	丙辰年 2월	鄭翼南 등	–
069	上書(鄭翼南 등)	–	鄭翼南 등	–
070	上書	丁丑年 6월	–	–
071	上言(李啓沼 등)	同治 13년(1870) 8월	李啓沼 등	–
072	上言(金景鍵)	萬歷 43년(1615) 1월	金景鍵	–
073	上言(李啓沼 등)	同治 10년(1871)	李啓沼 등	–
074	戶口單子(金敎喜)	同治 6년(1867) 1월	金敎喜	–
075	戶口單子(金演政)	同治 9년(1870) 1월	金演政	–
076	戶口單子(金演政)	同治 12년(1873) 1월	金演政	–
077	戶口單子(金演政)	光緖 2년(1875) 정월	金演政	–
078	戶口單子(金演政)	–	金演政	–
079	準戶口(金膺祚)	嘉慶 6년(1801) 2월	三陟府	金膺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080	戶口單子(金時鶴)	道光 11년(1831) 1월	金時鶴	–
081	戶口單子(金時鶴)	道光 17년(1837) 정월	金時鶴	–
082	戶口單子(金時鶴)	道光 20년(1840) 정월	金時鶴	–
083	戶口單子(金九嫾)	道光 29년(1849) 정월	金九嫾	–
084	戶口單子(金九嫾)	咸豊 2년(1852) 정월	金九嫾	–
085	戶口單子(金九嫾)	咸豊 11년(1861) 정월	金九嫾	–
086	準戶口(金恮)	康熙 11월(1672) 10일	三陟府	金恮
087	準戶口(金世紀)	康熙 59년(1720) 7월	三陟府	金世紀
088	準戶口(金恮)	康熙 20년(1681) 8월	三陟府	金恮
089	戶口單子(金台命)	–	金台命	–
090	戶口單子(金台命)	–	金台命	–
091	戶口單子(金台命)	–	金台命	–
092	戶口單子(金膺祚)	嘉慶 9년(1804) 정월	金膺祚	–
093	準戶口(金恮)	康熙 5년(1666) 8월	–	金恮
094	準戶口(金恮)	康熙 15년(1676) 2월	–	金恮
095	準戶口(金恮)	康熙 17년(1678) 5월	–	金恮
096	準戶口(金恮)	康熙 32년(1693) 7월	–	金恮
097	準戶口(金世紀)	–	–	金世紀
098	戶口單子(金時鶴)	道光 14년(1834) 1월	金時鶴	–
099	等狀(金聲五 등)	甲申年 2월	金聲五 등	–
100	等狀(金運祥 등)	丙午年 12월	金運祥 등	–
101	等狀(金時鶴 등)	戊子年 2월	金時鶴 등	–
102	等狀(金漢祚 등)	壬午年 3월	金漢祚 등	–
103	等狀(金漢祚 등)	壬午年 3월	金漢祚 등	–
104	議送(金九嫾 등)	丁未年 11월	金九嫾 등	–
105	戶口單子(金秉熙)	己卯年	金秉熙	–
106	戶口單子(金時鶴)	壬午年	金時鶴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107	戶口單子(金時鶴)	乙酉年	金時鶴	–
108	戶口單子(金時鶴)	戊子年	金時鶴	–
109	戶口單子(金世紀)	癸卯年	金世紀	–
110	戶口單子(金膺祚)	丙子年	金膺祚	–
111	戶口單子(金膺祚)	–	金膺祚	–
112	戶口單子(金台命)	丁卯年 4월	金台命	–
113	戶口單子(金台命)	丙子年 정월	金台命	–
114	戶口單子(金台命)	乾隆 24년(1759) 정월	金台命	–
115	戶口單子(金致璉)	乾隆 42년(1777) 정월	金致璉	–
116	戶口單子(金勝玉)	乙酉年	金勝玉	–
117	戶口單子(金演政)	–	金演政	–
118	戶口單子(金演政)	庚辰年	金演政	–
119	戶口單子(金演政)	庚辰年	金演政	–
120	戶口單子(金演政)	甲戌年	金演政	–
121	戶口單子(崔華)	丁酉年 7월	崔華	–
122	戶口單子(金膺祚)	辛酉年	金膺祚	–
123	戶口單子(金膺祚)	甲子年	金膺祚	–
124	戶口單子(金膺祚)	丁卯年	金膺祚	–
125	戶口單子(金膺祚)	庚午年	金膺祚	–
126	戶口單子(金膺祚)	癸酉年	金膺祚	–
127	戶籍表(金秉鐸)	建陽 1년(1896)	–	金秉鐸
128	戶籍表(金秉鐸)	光武 1년(1897)	–	金秉鐸
129	戶籍表(金秉鐸)	光武 2년(1898)	–	金秉鐸
130	戶籍表(金秉鐸)	光武 4년(1900)	–	金秉鐸
131	戶籍表(金秉鐸)	光武 5년(1901)	–	金秉鐸
132	戶籍表(金秉鐸)	光武 6년(1902)	–	金秉鐸
133	戶籍表(金秉鐸)	光武 7년(1903)	–	金秉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134	戶籍表(金秉鐸)	光武 9년(1905)	–	金秉鐸
135	戶籍表(金秉鐸)	光武 10년(1906)	–	金秉鐸
136	戶籍表(金演台)	建陽 1년(1896)	–	金演台
137	戶籍表(金演台)	光武 1년(1897)	–	金演台
138	戶籍表(金演台)	光武 2년(1898)	–	金演台
139	戶籍表(金演台)	光武 4년(1900)	–	金演台
140	戶籍表(金佑卿)	建陽 1년(1896)	–	金佑卿
141	戶籍表(金佑卿)	光武 1년(1897)	–	金佑卿
142	戶籍表(金佑卿)	光武 2년(1898)	–	金佑卿
143	戶籍表(金佑卿)	光武 4년(1900)	–	金佑卿
144	戶籍表(金佑卿)	光武 5년(1901)	–	金佑卿
145	戶籍表(金佑卿)	光武 6년(1902)	–	金佑卿
146	戶籍表(金佑卿)	光武 7년(1903)	–	金佑卿
147	戶籍表(金佑卿)	光武 9년(1905)	–	金佑卿
148	戶籍表(金宅卿)	光武 5년(1901)	–	金宅卿
149	戶籍表(金鐸卿)	光武 6년(1902)	–	金鐸卿
150	戶籍表(金鐸卿)	光武 7년(1903)	–	金鐸卿
151	戶籍表(金鐸卿)	光武 8년(1904)	–	金鐸卿
152	戶籍表(金鐸卿)	光武 9년(1905)	–	金鐸卿
153	戶籍表(金鐸卿)	光武 10년(1906)	–	金鐸卿
154	戶籍表(金鐸卿)	光武 10년(1906)	–	金鐸卿
155	戶籍表(金泰振)	建陽 1년(1896)	–	金泰振
156	戶籍表(金泰振)	光武 1년(1897)	–	金泰振
157	戶籍表(金泰振)	光武 2년(1898)	–	金泰振
158	戶籍表(金泰振)	光武 5년(1901)	–	金泰振
159	戶籍表(金泰振)	光武 6년(1902)	–	金泰振
160	戶籍表(金泰振)	光武 7년(1903)	–	金泰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161	戶籍表(金泰振)	光武 8년(1904)	–	金泰振
162	戶籍表(金泰振)	光武 9년(1905)	–	金泰振
163	戶籍表(金泰振)	光武 10년(1906)	–	金泰振
164	戶籍表(金泰振)	光武 10년(1906)	–	金泰振
165	戶籍表(金泰振)	光武 11년(1907)	–	金泰振
166	戶籍表(金海振)	光武 10년(1906)	–	金海振
167	戶籍表(金振富)	光武 10년(1906)	–	金振富
168	統表	建陽 1년(1896)	–	–
169	統表	光武 5년(1901)	–	–
170	統表	光武 6년(1902)	–	–
171	統表	光武 7년(1903)	–	–
172	統表	建陽 1년(1896)	–	–
173	許與文記	嘉靖 원년(1522) 11월	–	–
174	許與文記	嘉靖 원년(1522) 11월	–	–
175	許與文記	嘉靖 13년(1534) 10월	–	–
176	許與文記	萬曆 13년(1585) 6월	–	–
177	許與文記	萬曆 23년(1595) 6월	–	–
178	許與文記	萬曆 45년(1617) 7월	–	–
179	許與文記	康熙 46년(1707) 12월	–	–
180	許與文記	–	–	–
181	立案	順治 4년(1647)	–	–
182	立案	–	–	–
183	明文	萬曆 12년(1584) 10월	閔思誠의 妻 金氏	金仁壽
184	明文	同治 11년(1872) 10월	金秉緯	金演政
185	明文	道光 15년(1835) 11월	鄭九鉉	鄭才日
186	明文	康熙 38년(1699) 12월	–	崔立茂
187	明文	康熙 18년(1679) 5월	金協	郭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188	明文	癸酉년 3월	–	–
189	明文	康熙 21년(1682) 5월	金世彬	屎應加伊
190	明文	道光 5년(1825) 2월	時鶴	宗中
191	明文	–	李	–
192	明文	乾隆 2년(1737) 10월	郭世	金台命
193	明文	癸酉년 3월	金恮	五寸族長
194	明文	同治 10년(1871) 5월	李判東	金生員
195	立後文記	嘉慶 21년(1816) 9월	宗鏶	金秉熙
196	明文	乾隆 47년(1782) 11월	金尙采	鄭七奉
197	明文	乾隆 16년(1741) 12월	金聖基	金致璉
198	明文	乾隆 35년(1770) 1월	崔始慶	金致璉
199	明文	康熙 48년(1709) 10월	張貴山	金世紀
200	明文	大正 13년(1924) 4월	孔東植	金氏宗中
201	明文	道光 16년(1836) 10월	鄭九鉉	鄭才日
202	單子	庚午年 5월	–	–
203	單子	丙午年 10월	金九嫩	–
204	單子	乙未年 정월	金時鶴	–
205	單子	辛巳年 11월	崔己福	–
206	差定帖(金秉熙)	辛未년 7월	三陟都護府事	金秉熙
207	差定帖(金台命)	乙亥年 8월	三陟都護府事	金台命
208	差定帖(金膺祚)	甲戌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09	差定帖(金台命)	甲申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台命
210	差定帖(金致璉)	壬辰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11	差定帖(金膺祚)	乙巳年 2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12	差定帖(金膺祚)	辛酉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13	差定帖(金時鶴)	乙酉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時鶴
214	差定帖(金秉熙)	癸酉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秉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215	差定帖(金膺祚)	辛丑年 2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16	差定帖(金膺祚)	辛丑年 9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17	差定帖(金膺祚)	丙午年 4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18	差定帖(金膺祚)	庚戌年 3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19	差定帖(金膺祚)	辛酉年 2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20	差定帖(金恮)	康熙 22년(1696) 11월	三陟都護府事	金恮
221	差定帖(金台命)	壬申年 6월	三陟都護府事	金台命
222	差定帖(金台命)	乙卯年 2월	三陟都護府事	金台命
223	差定帖(金致璉)	甲戌年 6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24	差定帖(金致璉)	戊寅年 10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25	差定帖(金致璉)	己卯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26	差定帖(金致璉)	庚辰年 7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27	差定帖(金致璉)	甲申年 5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28	差定帖(金致璉)	丙戌年 8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29	差定帖(金致璉)	庚寅年 10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0	差定帖(金致璉)	壬辰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1	差定帖(金致璉)	壬辰年 6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2	差定帖(金致璉)	甲午年 4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3	差定帖(金致璉)	甲辰年 6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4	差定帖(金致璉)	甲辰年 9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5	差定帖(金致璉)	戊申年 2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36	差定帖(金時鶴)	丁酉年 11월	三陟都護府事	金時鶴
237	差定帖(金時鶴)	乙未年 7월	三陟都護府事	金時鶴
238	差定帖(金時鶴)	甲午年 5월	三陟都護府事	金時鶴
239	差定帖(金時鶴)	壬午年 7월	三陟都護府事	金時鶴
240	差定帖(金時鶴)	辛卯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時鶴
241	差定帖(金世起)	甲辰年 정월	三陟都護府事	金世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242	差定帖(金致璉)	甲午年 7월	三陟都護府事	金致璉
243	差定帖(金膺祚)	壬申年 7월	三陟都護府事	金膺祚
244	敎旨(金光國)	乾隆 38년(1773)	–	金光國
245	敎旨(金光國의 처 崔氏)	乾隆 38년(1773)	–	金光國의 처 崔氏
246	敎旨(金恮)	乾隆 38년(1773)	–	金恮
247	敎旨(孺人 朴氏)	乾隆 38년(1773)	–	孺人 朴氏
248	敎旨(金世紀)	乾隆 38년(1773)	–	金世紀
249	敎旨(孺人 洪氏)	乾隆 38년(1773)	–	孺人 洪氏
250	敎旨(金台命)	乾隆 31년(1766)	–	金台命
251	敎旨(金台命)	乾隆 32년(1767)	–	金台命
252	敎旨(金台命)	乾隆 38년(1773) 5월	–	金台命
253	敎旨(金台命)	乾隆 38년(1773)	–	金台命
254	敎旨(金台命)	乾隆 38년(1773)	–	金台命
255	敎旨(金台命)	乾隆 38년(1773) 2월	–	金台命
256	敎旨(金台命)	乾隆 39년(1774)	–	金台命
257	敎旨(金台命)	乾隆 39년(1774)	–	金台命
258	敎旨(金台命의 처 崔氏)	乾隆 38년(1773)	–	金台命의 처 崔氏
259	敎旨(金致璉)	乾隆 59년(1794)	–	金致璉
260	敎旨(金時鶴)	光緖 17년(1891) 8월	–	金時鶴
261	敎旨(金九嫺)	光緖 17년(1891) 8월	–	金九嫺
262	敎旨(孺人 辛氏)	光緖 17년(1891) 8월	–	孺人 辛氏
263	敎旨(孺人 洪氏)	光緖 17년(1891) 8월	–	孺人 洪氏
264	敎旨(金演政)	光緖 19년(1893) 정월	–	金演政
265	敎旨(金演政)	光緖 19년(1893) 정월	–	金演政
266	官誥(金泰振)	光武 6년(1902) 9월	–	金泰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267	敎旨(空名帖)	光緖 17년(1891) 및 19년(1893)	–	孺人
268	鄕校書目	壬午年 정월	鄕校 齋任	삼척부
269	留鄕所書目	壬辰年 6월	留鄕所 座首	삼척부
270	道下面龍井村民等書目	辛亥年 2월	村民 12인	삼척부
271	沃原還倉上捧上鄕所書目	乙亥年 10월	別監 金	삼척부
272	沃原還倉上捧上鄕所書目	乙亥年 6월	別監 金	삼척부
273	留鄕所書目	癸巳年 윤3월	座首 金	삼척부
274	鄕所書目	甲申年 6월	座首 崔	삼척부
275	所達面踏監官書目	乙卯年 8월	監官 金	삼척부
276	沃原倉還上分給鄕所書目	乙卯年 3월	別監 金	삼척부
277	沃原倉還上分給鄕所書目	乙亥年 8월	別監 金	삼척부
278	留鄕所書目	壬辰年 4월	座首 金	삼척부
279	留鄕所書目	壬辰年 7월	座首 金	삼척부
280	留鄕所書目	壬辰年 4월	座首 金	삼척부
281	三陟府留鄕所書目	壬辰年 9월	座首 金	삼척부
282	所志	辛亥年 12월	金生員 奴 禮釗	삼척부
283	道下面面任書目	辛亥年 12월	面任 金	삼척부
284	留鄕所書目	癸巳年 2월	座首 金	삼척부
285	留鄕所書目	癸巳年 10월	座首 金	삼척부
286	告目(禮吏 金)	癸巳年 정월	禮吏 金	삼척부
287	告目(座首 金)	壬辰年 8월	座首 金	삼척부
288	告目	壬申年 7월	–	座首
289	告目(金必洛)	乙亥年 9월	金必洛	別監 金
290	告目(金德麗)	甲辰年 7월	金德麗	座首 金
291	告目(金次乭)	癸巳年 12월	金次乭	–
292	告目(金弘麗)	乙酉年 2월	金弘麗	別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293	告目(金萬鍾)	辛卯年 10월	金萬鍾	別監
294	告目(金薈浹)	辛卯年 10월	金薈浹	別監
295	告目(沈松一)	癸巳年 12월	沈松一	座首
296	告目(鄭改佑)	癸巳年 10월	鄭改佑	座首
297	告目(金應奎)	辛卯年 7월	金應奎	–
298	告目(金萬鍾)	辛卯年 7월	金萬鍾	–
299	告目(鄭改佑)	癸巳年 2월	鄭改佑	좌수
300	告目(沈松一)	甲午年 정월	沈松一	좌수
301	告目(金萬鍾)	辛卯年 9월	金萬鍾	좌수
302	告目(沈松一)	甲午年 11월	沈松一	좌수
303	戶籍單子(金台命)	1753	金台命	–
304	戶籍單子(金致璉)	乾隆 45년(1780) 정월	金致璉	–
305	戶籍單子(金致璉)	乾隆 48년(1783) 정월	金致璉	–
306	戶籍單子(金致璉)	己酉年(1789) 정월	金致璉	–
307	戶籍單子(金致璉)	壬午年(1792) 정월	金致璉	–
308	戶籍單子(金致璉)	己卯年(1795) 정월	金致璉	–
309	戶籍單子(金膺祚)	戊午年(1798) 정월	金膺祚	–
310	準戶口(金台命)	乾隆 33년(1768)	三陟府	金台命
311	準戶口(金台命)	乾隆 39년(1774)	三陟府	金台命
312	準戶口(金致璉)	乾隆 51년(1786)	三陟府	金致璉
313	準戶口(金時鶴)	道光 23년(1843)	三陟府	金時鶴
314	準戶口(金時鶴)	道光 26년(1846)	三陟府	金時鶴
315	準戶口(金九嫝)	咸豊 8년(1858)	三陟府	金九嫝
316	準戶口(金演政)	–	三陟府	金演政
317	明文	嘉慶 14년(1809) 2월	金三成	金秉熙
318	明文	道光 원년(1821) 2월	金秉熙	宗中
319	上書	乙亥년 11월	金宗鏶 등 16인	城主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320	景行祠掌議望記	乙丑年 3월	–	–
321	景行祠別有司望記	壬寅年 10월	–	–
322	景行祠都次知望記	辛亥年 3월	–	–
323	龍山書院都有司望記	壬寅年 2월	–	–
324	龍山書院都有司望記	辛亥年 8월	–	–
325	龍山書院都有司望記	戊辰年 8월	–	–
326	龍山書院掌議望記	己酉年 11월	–	–
327	龍山書院都有司望記	丁卯年 9월	–	–
328	田結査핵都廳望記	乙卯年 2월	–	–
329	鄕校掌議望記	戊午年 8월	–	–
330	鄕校掌議望記	辛巳年 10월	–	–
331	鄕校都有司望記	乙未年 정월	–	–
332	鄕校掌議望記	癸巳年 5월	–	–
333	鄕校都有司望記	辛丑年 10월	–	–
334	鄕校都有司望記	丙午年 2월	–	–
335	鄕校掌議望記	丁巳年 12월	–	–
336	鄕校齋掌議望記	癸未年 2월	–	–
337	望記	壬申年 2월	–	–
338	有司望記	乙未年 정월	–	–
339	鄕校卜數着檢別有司望記	甲午年 12월	–	–
340	鄕校都次知望記	癸卯年 2월	–	–
341	牒報	己酉年 10월	龍潭都廳 金	도호부사
342	牒報	己丑年 5월	鄕校 齋任	도호부사
343	牒報	辛亥年 2월	道下面 龍井村民	도호부사
344	牒報	壬辰年 2월	蘆谷面 風憲	도호부사
345	牒報	辛卯年 2월	道下面龍井洞洞任	도호부사
346	牒報	己未年 12월	道下面 面任	도호부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347	牒報	乙酉年 3월	鄕所	도호부사
348	牒呈	辛丑年 5월	有司 金	都廳
349	立案	光緖 3년(1877) 4월	禮曹	金演心의 처 洪氏
350	許與文記	嘉靖 31년(1552) 2월	–	–
351	和解調書謄本	明治 45년(1912) 1월	–	–
352	本邑邑誌	–	–	–
353	加髢申禁節目	–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이원택

이 글의 목적은 '항길고택일기'에 기록된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를 한글로 역주하고 일기 원본 이미지와 함께 학계에 제공하여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搜討)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강원도 동해시에 세거(世居)하고 있는 '항길고택'(恒吉古宅)'과 그 집안에서 대대로 지켜내려 온 '항길고택문고(恒吉古宅文庫)'를 소개할 것이다. 둘째, 항길고택문고의 '항길고택일기'에 수록된 울릉도 수토(搜討) 관련 기사를 뽑아내 원본 이미지, 한문 원문, 한글 역주 등을 울릉도·독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항길고택일기에 수록된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는 첫째, 현재까지 관찬 사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의 사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울릉도 수토료 또는 수토료미가 울릉도 수토가 있는 해에는 어김없이 징수되었다. 또 울릉도 수토를 하러 출발할 때와 수토를 마치고 돌아올 때, 후망수직군을 조직하여 무사히 배가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후망에 대한 기록 역시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둘째, 19세기 초중반 이른바 세도정치 시기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정치 일반이 문란하였으므로 울릉도 수토제도 역시 문란해져 수토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항길고택일기』의 수토 관련 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도정치 시기의 울릉도 수토가 오히려 앞 시대보다 더 규칙적으로 잘 시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제어: 독도, 항길고택일기, 울릉도 수토, 울릉도 수토료, 후망수직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ranslation of Some Hand-Written Memo abou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in Hang-gil Old House Diary and its Historical Value

Rhee Wontae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research on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in the late Joseon Dynasty, providing translation of some hand-written memo abou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in Hang-gil Old House Diary and its original photograph to academia.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s. First, the paper introduces Hang-gil Old House, which has been long sited in Donghae-city, Gangwon-province, and Hang-gil Old House Archives, which has been kept by the family for generations. Second, the original photo images, Chinese character, and Korean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Ulleungdo and Dokdo research by extracting memos abou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from Hang-gil Old House Diary.

The historical value of the memos abou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in the Hang-gil Old House Diary is as follows. First, som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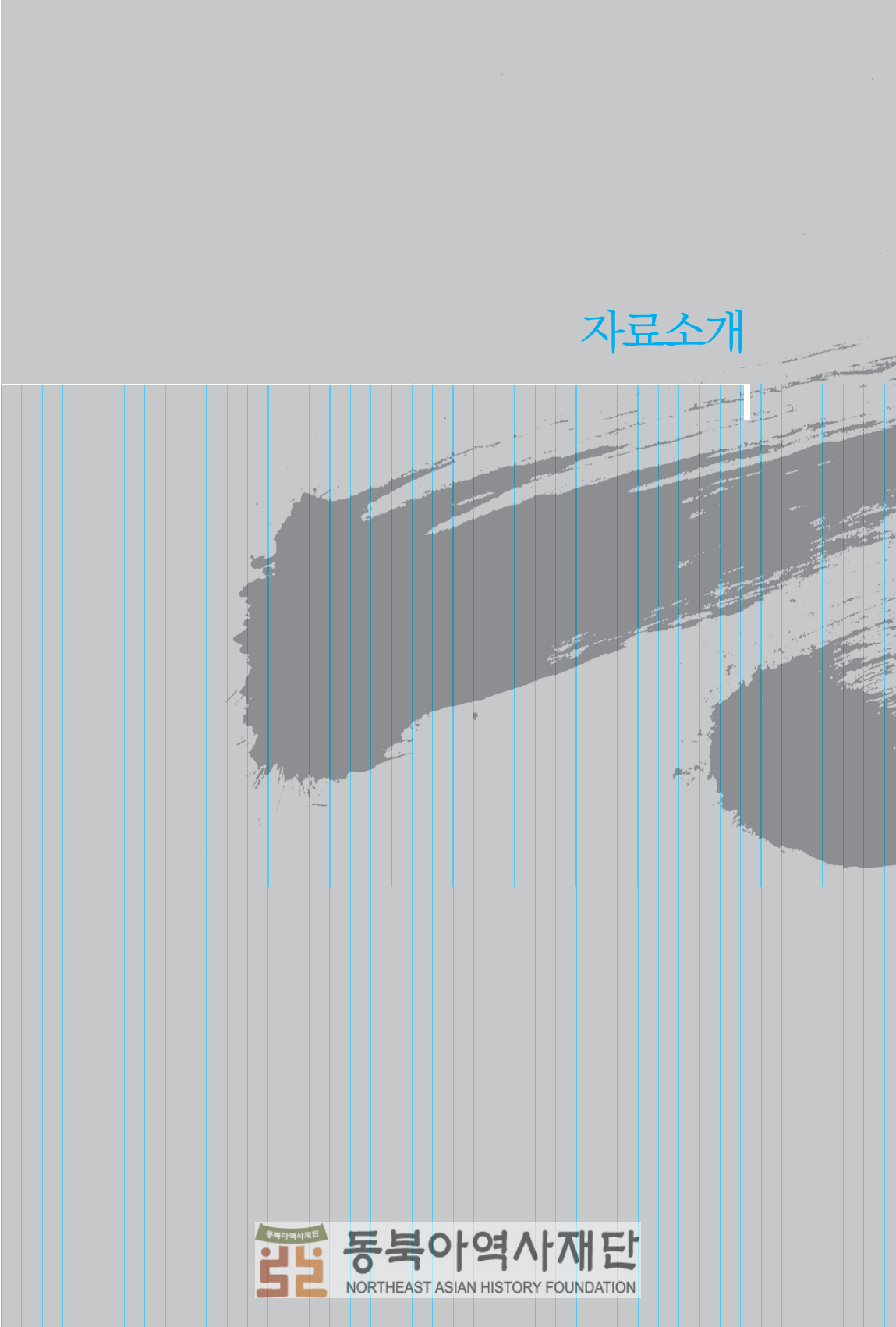
memos are unique historical materials that have not been found in Joseon governmental historical records so far. Especially the tax for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was collected in the year when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was performed. Also, when leaving for and returning from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the records about surveillance unit for the distant sea are difficult to find anywhere else. Second, during the oligarchial, so-called Sedo, politics in the early to mid-19th century, there were some opinions tha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would not have been properly carried out due to the disorder of the politics. As the memos and contents of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in Hang-gil Old House Diary became known, it was revealed that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during the Sedo politics was implemented more regularly than in the previous era.

Keywords: Dokdo, Hang-gil Old House Diary,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tax for the territorial patrol of Ulleungdo, surveillance units for the distant se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11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西豐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이종수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발굴 및 보고서 발간 과정
III. 내용 분석 및 검토
IV. 풀어야 할 수수께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서풍 서차구고분군은 발견 당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고분군의 규모와 출토유물의 품격 면에서 요동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 내용상으로도 북방문화, 중원문화, 송눈평원 일대와 현지의 토착문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굴 초기부터 무덤 축조 집단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필자 역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부여와 관련하여 서차구고분군을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1]

서차구고분군은 1945년경 처음 발견되어 무차별적 도굴이 자행되다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56년에서야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무덤이 훼손되었고, 부장 유물 역시 파괴 혹은 반출되어 유적의 정확한 전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군다나 수습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굴보고서가 미발간되어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발굴 이후에 발표된 간보 형태의 보고서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서차구고분군은 풀지 못한 수많은 수수께끼를 품게 되었다. 다행히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2]에서 10여 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2022년 1월 정식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서차구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발굴보고서의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 李鍾洙, 2004,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博士學位論文.

2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은 1954년 동북지구문물공작대로 출발하여 동북박물관 문물공작대로 활동하다 1959년 요령성박물관 문물공작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7년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로 독립하였고, 2018년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으로 바뀌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작성되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서차구고분군에 숨어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Ⅱ. 발굴 및 보고서 발간 과정

1. 발굴 과정

서차구고분군의 발견과 발굴 과정에 대해서는 손수도(孫守道)의 논문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3] 이 유적은 1945년 이후 촌민들이 유적이 위치한 산비



그림 1 발굴조사 전 도굴 모습[보고서(하) 도판 2]

3 孫守道, 1957,「西岔溝古墓群被掘事件的教訓」,『文物參考資料』1期, 文物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탈을 경작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무덤에서 금·은제 유물이 출토되자 현지 주민들에 의해 간간이 도굴이 이루어졌다.

1955년 봄, 무덤에 금은보화(金銀寶貨)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서 도굴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서풍현 정부에서 도굴을 제지하고, 요령성문화국(遼寧省文化局)에 유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당시 문화국에서 출토 유물을 연대가 늦고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도굴을 저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무차별적인 도굴이 자행되어 밤에도 촛불을 켜놓고 작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도굴된 유물의 수량은 옥석·유리 제품의 경우 몇 광주리에 달했으며, 철기와 청동 제품은 몇백 근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이 중 토기류는 대부분 현장에 버려져서 파손되었고, 금·은과 구슬 등의 장식품류는 직접 사용하거나 매매되었으며, 청동기와 철기류는 고물상과 폐청동수집소에 팔리거나 버려졌다. 당시 고물상에서는 청동제품만 수집한 관계로 일부 사람들은 철검의 손잡이에 달린 청동제 손잡이만 떼어내 팔아넘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56년 5월 17일 현지 주민이 심양의 동북박물관(東北博物館)으로 찾아와 관련 유물과 함께 도굴 상황을 신고하였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심각한 유적 훼손 상황을 보고받은 후, 즉각 손수도를 책임자로 하는 발굴팀을 구성하여 5월 29일 발굴을 시작하였다.

발굴은 유적 전체에 600여 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범위를 확인한 후, 무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동서 15m, 남북 10m 크기의 그리드 94개를 설치한 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먼저 유적 중앙부의 도굴된 무덤을 대상으로 규모와 특징, 부장 양상 등을 파악하였고, 점차 주변으로 확대하여 72개의 그리드를 차례로 발굴하였다. 3개월 5일간에 걸친 발굴 결과 63기의 무덤과 562기의 도굴갱(盜掘坑)이 조사되었다. 박물관에서는 발굴과 동시에 무덤에서 도굴된 유물을 회수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전문가 2명을 파견하

版社;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8·9期,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유적 주변 10개 촌락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5,323점의 유물을 회수하였다. 회수 과정에서는 유물의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출토 무덤의 구조와 위치, 부장품 출토 상황과 조합 관계 등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이후 발굴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보고서 발간 과정과 구성의 특징

서차구고분군에 대한 긴급 구제발굴이 완료된 이후 박물관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해서는 곽대순(郭大順)과 임운(林沄)이 쓴 서문과 전립곤(田立坤)이 작성한 후기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당시 서차구고분군 발굴은 요령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였고, 그 성과 역시 대단하여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959년 중국역사박물관(中國歷史博物館)[4] 신관(新館) 건립 특별전에 서차구고분군 출토유물이 전시되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1959년 12월 관장인 이문신(李文信)을 책임자로 하여 손수도, 진대위(陳大爲), 주귀(朱貴) 등이 참여한 보고서 작업팀이 결성되었다. 1960년 9월경에 초고가 완성되어 『중국전야고고보고집(中國田野考古報告集)』 총서 중의 한 편으로 출판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었다. 1980년대 들어 진대위를 중심으로 다시한번 보고서 출간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고, 보고서 발간 책임자였던 이문신이 사망하고, 진대위, 손수도 등이 퇴임하면서 보고서 자료는 창고 한쪽에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87년 요령성박물관 문물공작대가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로 독립하면서 발굴 자료와 보고서 초고는 모두 연구소로 옮겨졌고, 출토유물은 그대로 요령성박물관에 남게 되면서 서차구고분군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

4 중국역사박물관은 1912년에 개관하였으며, 2003년 중국혁명박물관과 합병하여 중국국가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6년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 주도로 미발간 보고서 정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에 우하량(牛河梁)유적, 강녀석(姜女石)유적, 풍소불묘(馮素弗墓), 해성(海城) 선인동(仙人洞)유적, 사해(查海)유적, 금우산(金牛山)유적 등 중요 유적의 미발간 보고서를 출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서차구유적은 요령성박물관에서 진행한 발굴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 원장이었던 전립곤의 주도로 요령성박물관과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이 공동으로 서차구유적 발굴보고서를 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책임은 길림대학의 반령(潘玲) 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다행히 이 사업이 2011년 국가사회과학기금(國家社會科學基金) 항목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간 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요령성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유물을 모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로 옮겨 유물 분류와 실측, 촬영, 유물 기술, 유적 항공촬영 등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금속류와 구슬류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2017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유물 정리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2019년 발굴보고서 초고도 완성되었다. 다만 정식 보고서는 여러 차례의 교정과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1월에야 초판이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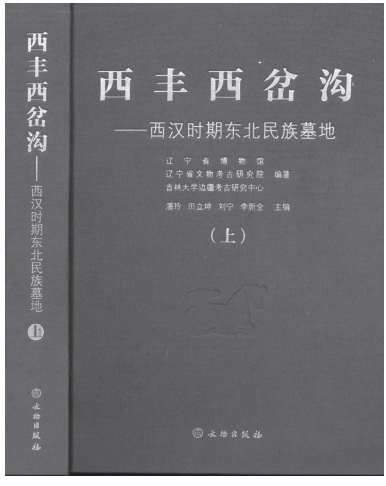


그림 2 보고서 표지(상권)

보고서의 제목은『西豐 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이다. 편저(編著)는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기관인 요령성박물관,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편(主編)은 보고서 발간 책임자인 반령과 함께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장 전립곤, 요령성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물관장 유녕(劉寧), 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 부원장 이신전(李新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대략 1,200페이지에 이른다. (상)권은 본문에 해당되며, 목차는 제1장 서론, 제2장 무덤, 제3장 정리갱 출토유물, 제4장 비발굴정리유물, 제5장 출토유물 분류, 제6장 연대·문화성격과 족속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권은 각종 표와 유물 분석자료, 원보고서 자료, 후기 등을 싣고 있으며, (하)권은 도판으로 유적과 유물, 분석 관련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Ⅲ. 내용 분석 및 검토

보고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상)권은 곽대순과 임운의 서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곽대순과 임운은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고고학자로, 두 명의 석학이 서문을 장식함으로써 발굴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장 서론

서론에서는 유적의 지리환경과 역사연혁, 발견과 발굴 과정 및 무덤 구획, 자료정리와 보고서 편제, 원보고서 기록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고 있다.

1) 자연지리적 특징

서차구고분군은 요령성 서풍현 서풍진 집중촌(執中村) 서쪽 구릉상에 위치하며, 지리좌표는 동경 124.6.51.78, 북위 42.7.34.55이다. 구릉은 동북에서 서남 방향의 평면이 "人"형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해발고도는 235~274m이나 상대고도는 30m 내외로 나지막하다. 무덤은 산 능선의 양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 유적 전경[좌: 보고서(하) 도판1, 우: 필자 촬영]

바른 동쪽 사면과 대지에 넓게 분포해 있으며, 대략적인 면적은 1만 2,000m^{2}이다. 구릉 동남쪽과 서쪽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2) 조사 방법

발굴조사 시 유적은 지형과 출토유물, 무덤 분포 밀도의 차이에 따라 동구(東區), 중구(中區), 서구(西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동구는 산 정상부와 동쪽 능선 구간으로 산 정상부에서 무덤 5기, 동쪽 능선에서 3기가 조사되었다. 중구는 구릉 중앙의 산비탈과 서쪽 능선 중상부로 구릉 중앙 산비탈에서 9기, 서쪽 능선 중상부에서 16기가 발굴되었다. 서구는 서쪽 능선 하부와 서쪽 능선의 동쪽 구릉으로 서쪽 능선 하부에서 무덤 30기가 조사되었으나 서쪽 능선 동쪽 구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덤의 중심부는 중구에 해당되며, 동구와 서구는 가장자리로 볼 수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면적이 가장 작음에도 발굴된 무덤의 수량이 가장 많은 편인데, 이는 출토유물의 양상을 통해 볼 때, 고분군의 핵심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이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分区 / 清理区及墓葬	东区		中区		西区	
	岗顶	东岗梁	岗洼	西岗梁中上部	西岗梁下部	西岗梁东坡
清理区	1、8、9、10、11、18、19、20、26、27、28	1、2、3、4、5、6、7、11、12、13、14、15、16、17、20、21、22、23、24、25、28、29	29、30、31、32、34、35、36、37、38、39、41、42、43、44、45、46	48、49、50、51、52、53、55、56、57、58、59、60、61、62、66、67、68、69、70、71、72、77、78、79、85	72、73、74、75、76、80、81、82、83、84、86、87、88、89、90、91、92、93、94	53、54、60、61、62、63、71、72
墓葬	M53、M55、M56、M57、M58	M48、M51、M54	M37、M42、M43、M44、M46、M47、M49、M50、M52	M11、M13、M14、M18、M20、M21、M22、M23、M24、M26、M29、M45、M59、M60、M62、M63	M1、M2、M3、M4、M5、M6、M7、M8、M9、M10、M12、M15、M16、M17、M19、M25、M27、M28、M30、M31、M32、M33、M34、M35、M36、M38、M39、M40、M41、M61	

그림 4 서차구고분군 유구 분포도 및 정리표[상: 보고서(상) 도면 3, 하: 보고서(상) 표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제2장 무덤

제2장에서는 발굴된 63기의 무덤 구조와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무덤의 방향은 서남-동북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모두 장방형 토광묘로 관곽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 1.8m 내외, 너비 0.7~9.8m, 깊이 0.84~0.85m이다. 장법은 모두 단인일차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장품은 무덤의 규모와 신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토기는 남녀 공통으로 1~2점 정도가 매납되며, 남성 무덤에는 주로 철검·철모·청동 혹은 철제 화살촉 등의 무기류가 부장되고, 여성 무덤에는 생활용구와 구슬 등의 장식품이 다수 부장되고 있다.

부장품의 배치는 묘광 상단부 모서리 부분에 토기류, 묘광 상단부 동쪽에는 철검 등 무기류, 시신의 목 부분과 허리 부분에는 구슬류와 패식 등 장식품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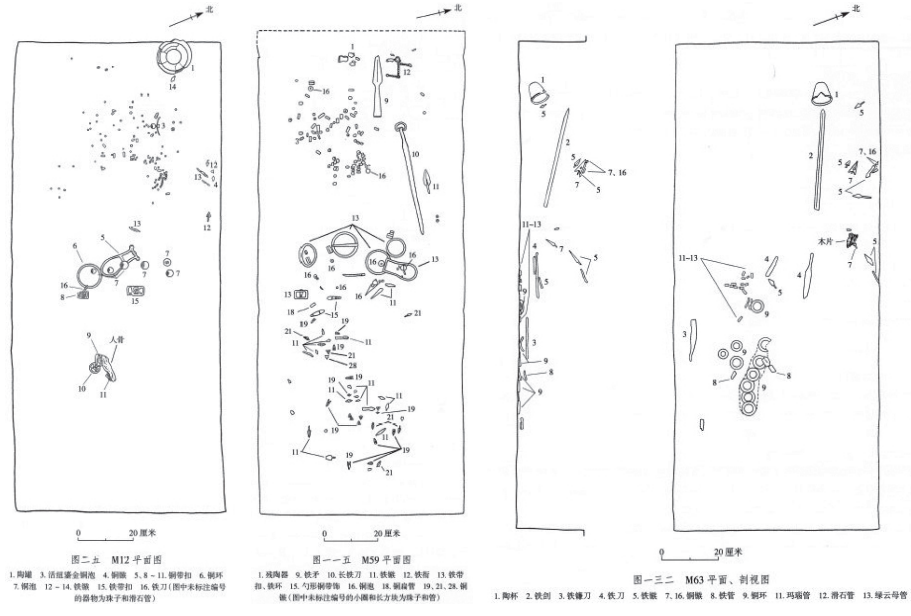


그림 5 무덤 평·단면도[보고서(상) 좌: M12, 중: M59, 우: M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중되며, 생산공구나 생활용구, 마구류 등은 다리 아래에 놓여 있다. 부장품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동포로 의복 혹은 요대나 말의 피대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것들이다. 패식과 대구 등의 허리띠 장식 수량도 많은 편으로 허리띠 아래에 동환, 구형대식, 동령, 추식 및 반량전과 오수전 등의 동전을 매달고 있다.

발굴된 63기의 무덤은 규모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대부분 중소형무덤에 해당되며, 묘주의 신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금된 거마구, 요대구, 동병 철검, 홍의도(紅衣陶), 동경(銅鏡) 등 비교적 높은 신분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위세품은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세품이 출토된 무덤들은 대부분 중부에 위치해 있어 이 구역 묘주의 신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제3장~제5장 출토유물의 특징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도굴된 정리갱과 수습 및 회수된 유물을 종류별로 기술하고 있다. 출토 혹은 회수된 유물은 모두 4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발굴이 이루어진 63기 무덤 내에서 출토된 유물, 둘째는 도굴된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로 대부분 토기 및 소형 기물이 해당된다. 셋째는 회수 혹은 징집한 유물, 넷째는 이미 외부로 흘러나가 회수되지 않은 유물이 해당된다. 유물번호는 요령성박물관 수장번호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재질에 따라 토기, 청동기, 철기, 금은기, 석재와 기타 재질로 분류하였다.

1) 토기

출토 혹은 수습된 토기 중 복원된 토기는 145점으로 협사질 토기가 135점, 니질토기가 10점이다. 굵은 모래가 혼입되어 있는 협사질 토기는 모두 동북지역의 토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도색은 황갈색·회갈색·갈색이 주를 이루며, 일부는 표면에 마광(磨光) 처리가 되어 있다. 대부분 무문토기이나 일부에 비점문(篦點紋), 돌대문(突帶紋), 기하학문(幾何學紋), 진주문(珍珠紋) 등이 시문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홍의도호(K70-538) 2. 관(Z135:27) 3. 두(K51-382:8) 4. 니질도호(M49:5)

그림 6 무덤출토 토기[보고서(하)]

어 있고, 일부 호의 경우 홍의(紅衣)가 입혀져 있다. 주요 기종으로는 호(壺), 관(罐), 완(碗), 발(鉢), 배(杯), 력(鬲), 두(豆) 등이 있으며, 수량은 소형 배가 가장 많다. 호는 경부의 형태에 따라 창구호(敞口壺), 곡경호(曲頸壺), 사경호(斜頸壺), 고경호(高頸壺), 속경호(束頸壺), 왜경쌍이호(矮頸雙耳壺)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은 손잡이의 유무와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8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손잡이의 형태는 가로방향, 세로방향, 꼭지모양, 기둥모양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쌍이관(雙耳罐)은 대부분 가로방향 손잡이가, 단이관(單耳罐)은 세로방향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일부에는 구연과 경부에 돌대문, 비점문, 그물문, 진주문 등이 장식되어 있다. 완과 발 역시 구연부에 진주문, 비점문, 돌대문 등이 장식되어 있다.

니질토기는 모두 회색으로 주요 기종은 호, 관, 두 등이며, 경부에 파도문, 철현문(凸弦紋), 승문(繩紋) 등이 장식되어 있다. 이들 토기는 모두 중원 한식 토기이거나 모방하여 제작한 것들이다.

2) 청동기

청동기는 모두 3,245점이 출토되었으며, 종류로는 공구류·무기류·대구(帶具) 및 복식류·거마구(車馬具)·동경·동전·용도불명기 등이 있다. 이 중 대구와 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동부(M6:4) 2. 동도(Z161:2) 3. 동모(Z10:2) 4. 동촉(Z121:33, 考3939-10, 考40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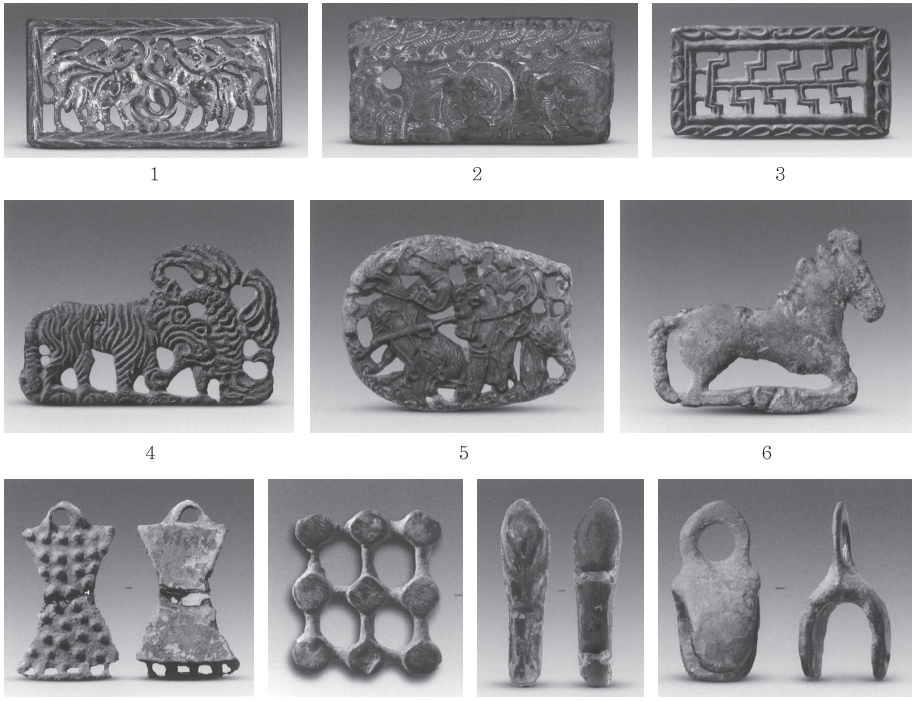
그림 7 청동 공구류 및 무기류[보고서(하)]

식에 장식으로 사용된 소형 청동기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특히 동포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기류 중에는 화살촉의 수량이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거마구와 공구류는 수량이 적은 편이다.

공구류는 부(斧)와 도(刀) 두 종류에 불과하며 수량도 단 3점에 불과하다. 무기류는 절대다수가 청동화살촉이고, 3점의 동모와 동검도 1점 출토되었다고 하나 회수되지 않아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청동화살촉은 564점으로 크게 공공촉(銎孔鏃), 삼릉촉(三棱鏃), 관공촉(管銎鏃) 등으로 구분된다.

대구와 복식은 각종 형태의 패식(牌飾)·구형대식(勾形帶飾)·추식(墜飾)·대구(帶扣)·대구(帶鉤)·동포(銅泡)·동패(銅貝)·동령(銅鈴)·동환(銅環)·동륜(銅輪) 등을 포함한다. 동패식은 모두 33점으로 구형누공동물문패식(矩形鏤孔動物紋牌飾)·구형천부조동물물패식(矩形淺浮雕動物紋牌飾)·구형누공계제문패식(矩形鏤孔階梯紋牌飾)·"P"자형누공동물문패식("P"字形鏤孔動物紋牌飾)·타방형누공패식(椭方形鏤孔牌飾)·마형패식(馬形牌飾)·아요형패식(亞腰形牌飾)·연주문패식(連珠紋牌飾) 등으로 구분된다. 일부는 표면에 도금이 되어 있다. 동물의 종류로는 소·낙타·말·새·신수(神獸)·그리핀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구형누공동물문패식(A37:2-2) 2. 구형천부조동물물패식(Z118:6) 3. 구형누공계제문패식(Z164:4-1)
4. "P"자형누공동물문패식(Z149:2) 5. 타방형누공패식(Z115:6-1) 6. 마형패식(考3973.1)
7. 아요형패식(Z84:2) 8. 연주문패식(Z35:5) 9. 구형대식(M59:15-1) 10. 추식(考3970.1)

그림 8 청동 패식류 및 대식류[보고서(하)]

마무사와 다양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대구(帶扣)는 북방식과 중원식으로 구분되며, 동포는 2,005점으로 수량이 가장 많다. 형태와 문양에 따라 문양이 없는 원형동포, 문양이 장식된 원형동포, 타원형동포, 동물조형 동포(토끼형, 물고기형, 소라형), 특수형태 동포 등으로 구분된다. 동령은 모두 149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93점이 북방식이고, 48점은 중원식, 8점은 특수형이다. 북방식은 구멍이 없거나 혹은 삼각형 구멍이 뚫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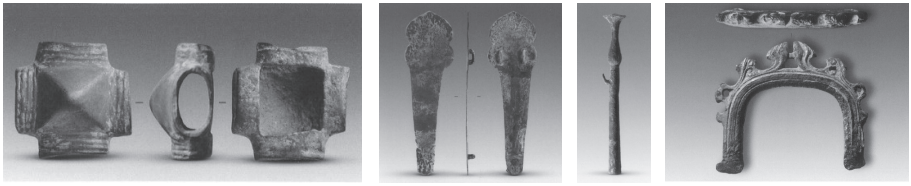


1. Ac형북방식대구(M12:5) 2. F형북방식대구(Z26:2) 3. A형중원식대구(Z163:12) 4. A형대구(K53-441:9)
5. 무문양동포(考3951-1) 6. 유문양동포(考3957-n) 7. 웅문동포(Z59:1) 8. 타원형동포(考4060-3)
9. 토기형동포(考3963-2) 10. 물고기형동포(考3963-1) 11. 소라형동포(考3959-1) 12. 쌍연주형동포(Z152:5)
13. 북방식A형동령(K52-485:13) 14. 북방식B형동령(M21:4) 15. 중원식유문동령(考4045-4) 16. 중원식무문동령(考3967-7)

그림 9 청동 대구, 동포, 동령[보고서(하)]

것으로 구분되며, 중원식은 문양이 장식된 것과 문양이 없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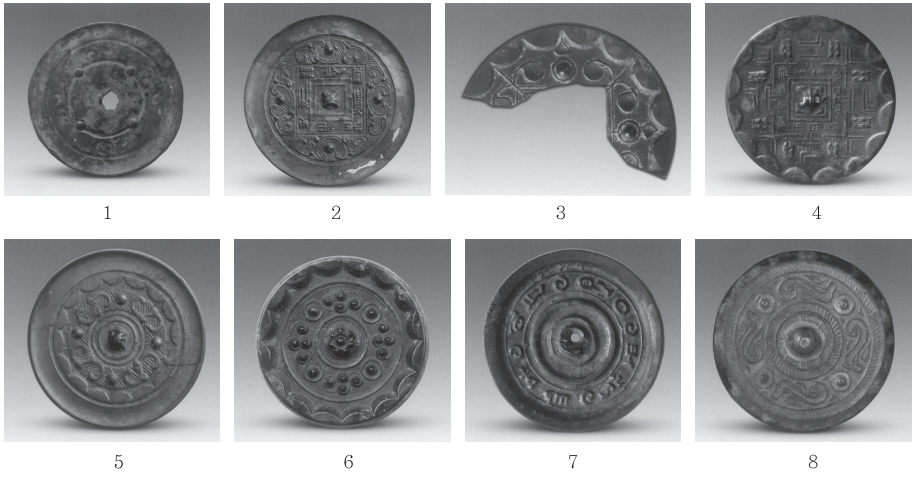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절약(Z3:19) 2. 당노(Z95:1) 3. 개궁모(考3981.2) 4. 도금청동차의(Z183:4)

그림 10 청동 거마구[보고서(하)]

거마구는 모두 17점으로 말의 몸에 부착하는 기물과 마차에 장식하는 기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편관(扁管), 절약, 당노, 방울 등이 있으며, 후자는 개궁모(盖弓帽), 수레고삐 고리인 차의(車轙) 등이 있다. 이러한 거마구들은 대부분



1. 반리문경(Z151:1) 2. 반훼문경(Z13:15) 3. 화엽문경(考3996.8) 4. 초엽문경(Z182:3)
5. 사유사리문경(Z37:1) 6. 성운문경(國0043-2) 7. 일광명문경(Z107:7) 8. 사유사훼문경(M15:2-1)

그림 11 동경류[보고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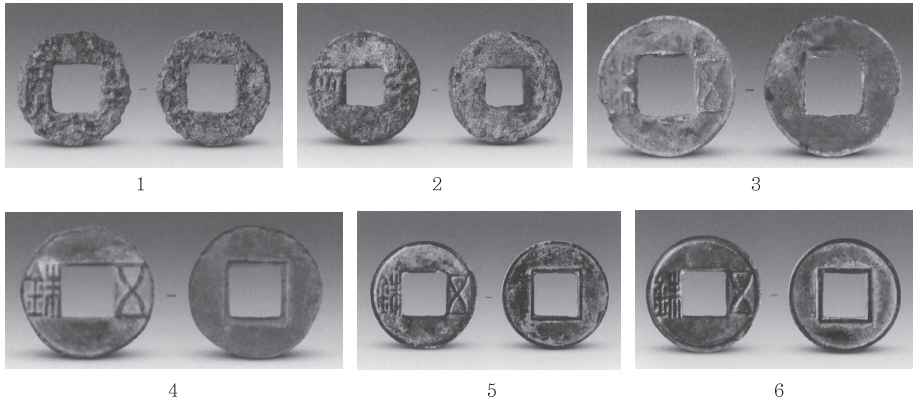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금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신분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동경은 모두 40점[5]으로 반리문경(蟠螭紋鏡) 6점, 반훼문경(蟠虺紋鏡) 6점, 화엽문경(花葉紋鏡) 1점, 초엽문경(草葉紋鏡) 8점, 사유사리문경(四乳四螭紋鏡) 6점, 사리문경(四螭紋鏡) 2점, 성운문경(星雲紋鏡) 7점, 일광명문경(日光銘文鏡) 3점, 사유사훼문경(四乳四虺紋鏡) 1점 등이다.

동전은 대략 50여 점이며, 일화원전(一化圓錢) 2점, 반양전(半兩錢) 23점, 오수전(五銖錢) 25점 등으로 반양전과 오수전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굴된 유물을 회수할 당시에 촌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 곳에서 반양전과 오수전이 중복되어 10목이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청동 제품이 출토되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그 현황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1. 반양전B형(K60–476:7) 2. 반양전C형(Z314:16) 3. 오수전A형(K13–135:13)
4. 오수전B형(考3999.6) 5. 오수전C형(K70–520:5–2) 6. 오수전D형(K70–520:5–1)

그림 12 동전류[보고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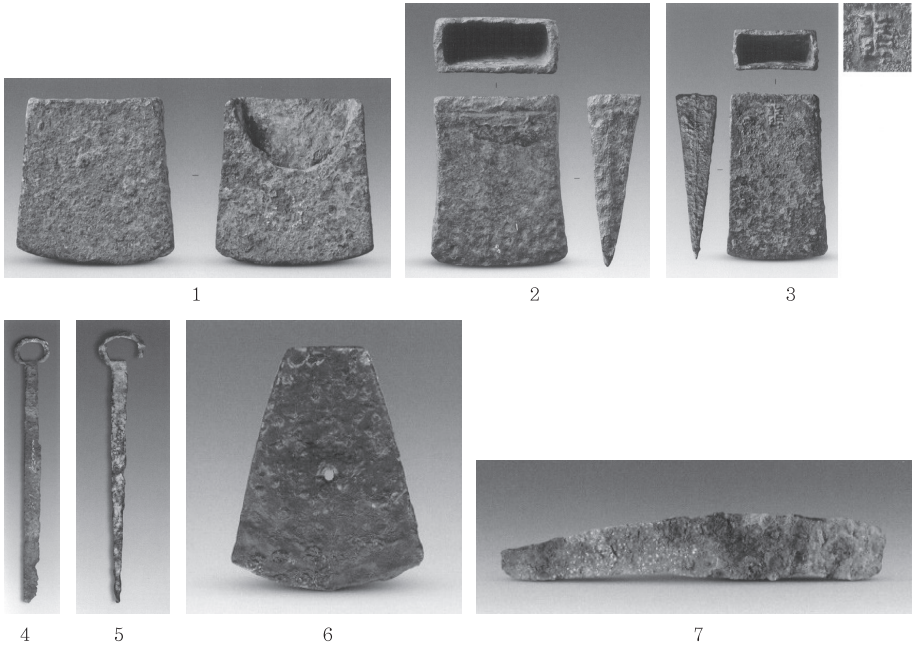
5 보고서에서는 40점과 약간의 잔편이 잔존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손수도의 「西岔溝古墳西漢銅鏡斷代研究」에는 모두 77점이 출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철기

철기는 528점으로 용도에 따라 농공구류·무기류·대구 및 마구류·음용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무기류의 수량이 가장 많은데 화살촉 수량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공구류는 환수도와 환수추의 수량이 가장 많아 전체 철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와 마구의 수량이 적은 편으로 전체의 19%이며, 농기구류는 전체의 4.5%, 음용기는 1점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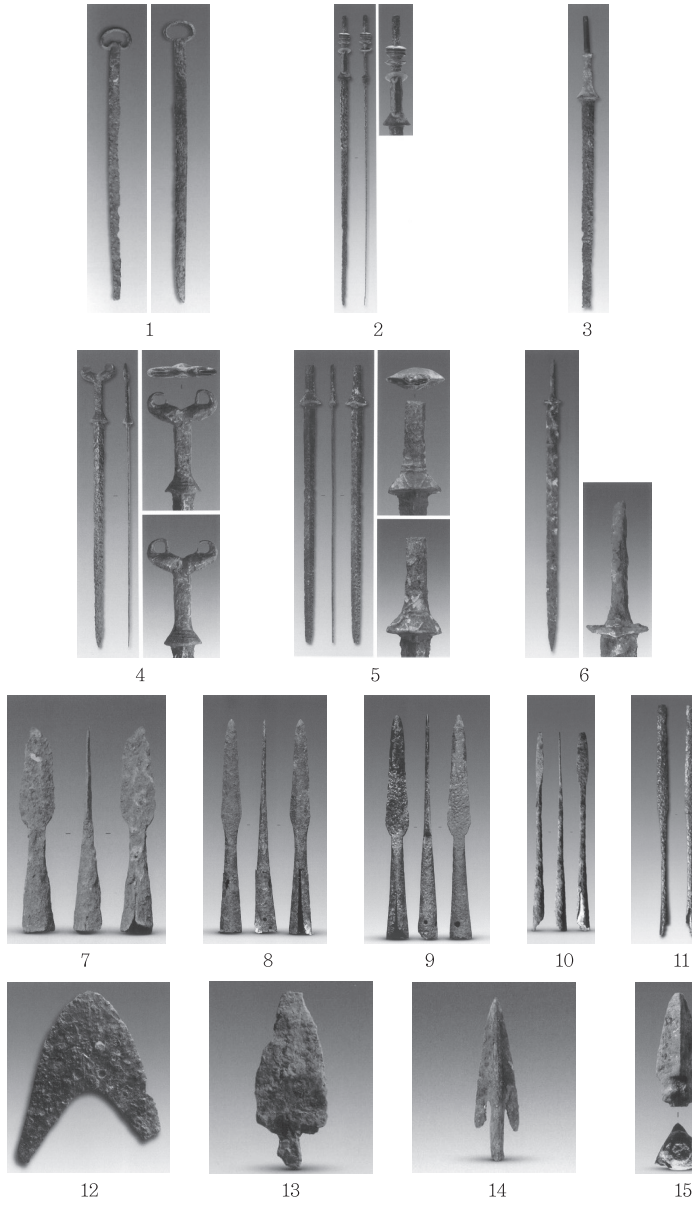
농공구류는 모두 147점으로 종류로는 자귀(鋮)·도끼(斧)·괭이(钁)·칼(刀)·송곳(錐)·쟁기(鋤板)·낫(鎌) 등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考4045.1"로 명명된



1. 자귀(K29-212:6) 2. 도끼(Z26:4) 3. 괭이(考4045.1)
4. 환수도(Z82:4) 5. 환수추(Z109:3) 6. 호미판(國0213) 7. 낫(M63:3)

그림 13 철제 농공구류[보고서(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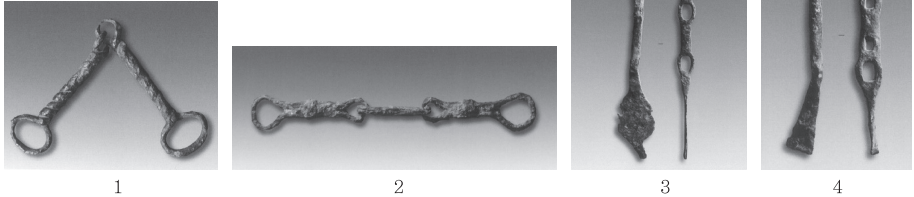
1. 환수도(좌:M59:10,우:Z22:1) 2.원주식Aa형동병철검(Z157:1) 3. 원주식Ab형동병철검(Z35:1)
4. 촉각식A형동병철검(Z109:1) 5. 촉각식B형동병철검(Z112:1) 6. 중원식철검(Z135:28)
7. A형철모(考3934.8) 8. Ba형철모(Z188:1) 9. Bb형철모(Z163:1) 10. Ca형철모(Z188:1) 11. Cb형철모(Z53:1)
12. 무정편체형(K60-362:9) 13. 쌍익형(K60-476:11-1) 14. 삼익형(國0040-1) 15. 삼릉형(考4083-24)

그림 14 철제 무기류[보고서(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괭이의 경우 자루 구멍 아래에 "요(遼)"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서한 요동군 철관(鐵官)의 표기로 이 철제 괭이는 요동군 관영 제철 공방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구로 사용된 철도는 모두 76점으로 그중 환수철도가 54점, 손잡이에 아무런 조형이나 장식이 없는 것이 3점, 손잡이가 달린 것이 1점, 훼손된 잔편이 18점이다. 철제 낫은 1점에 불과하다.

무기류는 278점으로 종류로는 도(刀)·검(劍)·모(矛)·촉(鏃), 학 부리 모양 도끼(鶴嘴斧) 등이 있다. 철도는 3점으로 길이가 50cm 내외이며, 환수의 형태에 따라 하트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된다. 철검은 완형 45점과 검신 잔편 10여 점이 출토되었다. 검 손잡이의 차이에 따라 북방식 동병철검(35점)과 중원식 철검(10점)으로 나뉘며, 북방식 동병철검은 검병의 형태에 따라 다시 원주식과 촉각식으로 구분된다. 철모는 44점으로 절대다수가 단조로 제작되었으며, 소량만 주조로 제작되었다. 날과 자루 끼움 부분(骹部)의 형태에 따라 3형으로 분류하였다. 화살촉은 모두 185점으로 그중 112점이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73점은 정리갱 혹은 회수된 것들이다. 형태에 따라 화살대에 꽂히는 부분이 없는 편평한 형태(無鋌扁體), 쌍익(雙翼), 삼익(三翼), 삼릉(三棱), 사릉(四棱), 추형(錐形), 관공(管銎), 착형(鑿形) 등으로 구분된다.



1. 2절마함(M35:5-1) 2. 3절마함(Z13:1) 3. 2공마표(Z13:3-2) 4. 4공마표(考39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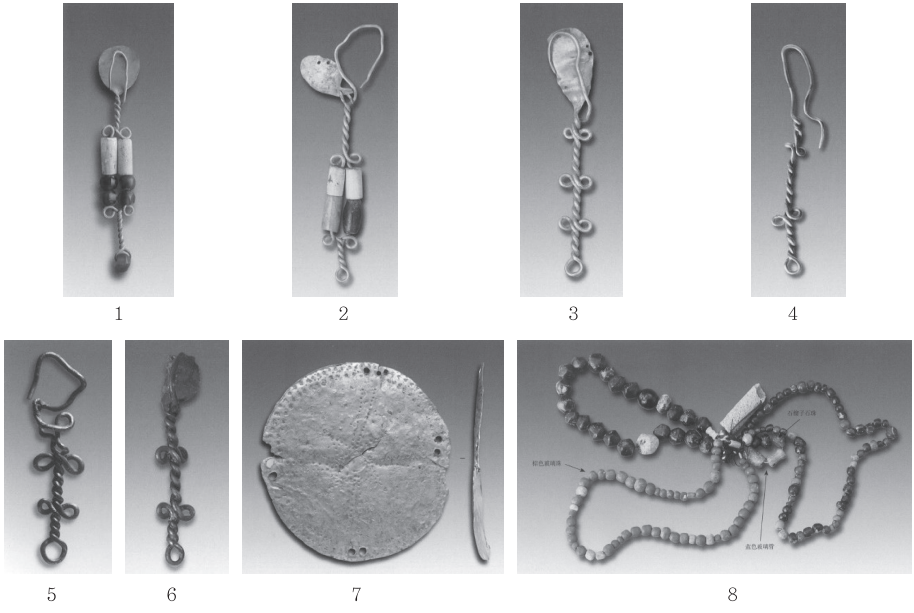
그림 15 철제 함과 표[보고서(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구(帶具)와 마구류는 모두 101점으로 대구는 철환(鐵環), 대구(帶扣), 대구(帶鉤) 3종이며, 마구는 함(銜)과 표(鑣)가 있다. 함은 38점으로 2개 또는 3개의 절을 이어 만들었다. 표는 21점으로 대다수는 중앙에 2개를 대칭으로 구멍이 나 있으며, 일부는 4개의 구멍이 있는 경우도 있다.

4) 금은기 및 구슬류

금은기는 모두 16점으로 이식(耳飾)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은 도굴된 후 회수되지 않아 정확한 수량은 파악할 수 없다. 금이식은 9점으로 한 줄의 금실을 꼬아 만들고 있으며, A형은 중간에 대칭으로 구슬을 끼우고 있고, B식은 구슬 없이



1. A형금이식(M16:4) 2. A형금이식(考4018-1) 3. B형금이식(考4018-5) 4. B형금이식(考4018-2)
5. A형은이식(Z106:4) 6. B형은이식(Z13:2) 7. 금판(K12-77:52) 8. 각종 구슬류(考4086 제1조)

그림 16 금은제 귀걸이·금판 및 구슬류[보고서(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리 형태로만 꼬고 있다. 양자 모두 끝은 귀에 걸 수 있도록 판과 둥근 고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은이식은 6점으로 그 형태는 B형 금이식과 동일하다. 구슬류는 수량이 많은 편으로 형태는 원구형, 대과릉형, 원주형, 편평장방형 및 육각형 등으로 구분된다. 유리질 제품이 1,426점, 마노 계통 1,002점, 천하석과 녹운모 계통이 3,031점, 활석 415점이다. 이 밖에도 소량의 압제 세석촉, 마제 역석, 연마기 등이 출토되었다.

4. 제6장 연대 및 조영 집단 검토

제6장은 발굴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발굴조사에 대한 개관부터 무덤의 연대, 문화 성격, 사회구조, 경제형태, 무덤 조영 집단의 족속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다룬 무덤과 출토유물에 대한 개설을 제외하고 각 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절 연대

보고서에서는 무덤에서 출토된 중원문화 계통의 유물, 흉노문화 계통의 유물 그리고 한서이기문화계통 유물을 토대로 연대를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절대 편년이 가능한 중원식 동경과 동전이 주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묘주의 생몰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원지역의 고위 계층 무덤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 고분군의 연대를 비정하고 있다.

동경은 출토된 40여 점을 형식 분류하고, 그 특징을 토대로 중원지역 출토품과 비교하여 연대를 설정하고 있다.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사리문경(四螭紋鏡)으로 전국 만기에 제작되어 서한 중기까지 사용되었으며, 반리문경(蟠螭紋鏡)·반훼문경(蟠虺紋鏡)·화엽문경(花葉紋鏡) 등은 서한 조기에서 중기, 사유사리문경(四乳四螭紋鏡)·일광경(日光鏡)·사유사훼문경(四乳四虺紋鏡) 등은 서한 중기에서 만기까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무덤 출토 동경의 제작과 사용연대는 대부분 서한 조기에서 중·만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전의 경우 일화원전은 전국 연나라에서 제조되어 한초까지 사용되었다. 반량전은 A형(2점)의 경우 팔수반양(八銖半兩)으로 서한 조기 고후(高后) 시기에 제조된 것이며, B형(4점)은 삼수반량(三銖半兩)으로 한초에, C형(10점)은 사수반량(四銖半兩)으로 문·경제 시기에 제조·유통되었다. 오수전은 대부분 무제 시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다만 이들 동전은 당시 화폐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허리띠에 착용하는 장식품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용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덤에서 출토된 니질토기 A와 B형 관의 경우 주로 동북지역 서한 전·중기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유금타원형쌍량동포·토끼형 동포·소라형 동포·동패(銅貝)·웅문유금동포(熊紋鎏金銅泡) 역시 서한 조·중기 중산왕(中山王) 유승(劉勝)의 무덤인 만성한묘(滿城漢墓) 1호, 유관(劉寬)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산동(山東) 장청제북왕묘(長淸濟北王墓), 강도왕(江都王) 유비(劉非)의 무덤인 대운산(大雲山) 1호 한묘 등 신분이 매우 높은 무덤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서차구고분군의 조영 시기와 위상을 짐작케 한다.

흉노계통 유물 중 연대 편년이 가능한 것으로는 얕게 부조된 동물문 도금 동패식, 운기봉조문(雲氣鳳鳥紋)이 장식된 도금 당노, 하트 모양의 도금된 동패식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은 대부분 한 무제 시기의 오수전과 동경, 웅문동포 등과 공반 출토되고 있어 연대를 서한 중·만기로 비정할 수 있다. 한서이기문화 계통 유물로는 홍의도, 야요형 동패식, 방울형 청동기, 금실과 은실로 꼬아 만든 귀걸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물 역시 한 무제 시기의 오수전과 함께 발견되고 있어 서한 중·만기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고분군의 연대는 대략 서한 조기 늦은 단계에서 서한 중·만기까지로 기원전 2~1세기에 해당된다.

2) 제3절 문화성격

이 절에서는 출토유물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요소를 분석하여 한서이기문화 요소, 중원문화 요소, 흉노문화 요소, 보산문화 요소, 부여문화 요소 등으로 나누고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사용 집단 분석에서도 동일 내용이 반복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어 여기서는 문화 요소별 유물만 간략하게 소개토록 하겠다.

한서이기문화 요소는 토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홍의도를 들 수 있으며, 서한 중기 전후 한서이기문화에서만 유행한 기종이다. 또한 절복상구호·곡경호·사경호·력·A형 단이대구협사도관(單耳大口夾砂陶罐) 등도 한서이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구관·배·완·력의 구연부에 장식된 진주문, 각치문, 비점문 조합 역시 한서이기문화의 문양적 특징이다. 이 밖에도 편신무정철촉·유엽형 압제 석촉·야요형 동패식·방울형 동기·금귀걸이·천하석과 녹운모 구슬의 형태 등에서 한서이기문화와 유사성이 확인된다.

중원문화계통의 유물로는 니질토기·동경·화폐·도금된 청동 거마구·철제 마구류·중원식 동대구·중원식 철검·환수장철도·동모·각종 도금된 동포·철제 공구류·삼릉형 철정·동전형 동패식 등이 있다. 특히 "요(遼)"자 관(款) 철곽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요"는 서한 요동군 철관의 관영 작방 표기이다.

흉노문화계통의 유물로는 소형 청동기·각종 형태의 투조 동물문과 계단문 패식·청동 추식·구형대식·동대구(북방식 Aa, Ab, B, C형)·동륜 등으로 이 종류 유물은 모두 요대구이거나 혹은 요대 아래에 장식한 물건들이다. 토기 중에는 Aa형 속경협사도호와 A형 무이대구협사도관만 기형 면에서 흉노 토기와 유사하다.

토착계통의 보산문화 요소가 확인되는 유물로는 협사질 토기에 장식된 가로 혹은 세로 방향의 꼭지 혹은 손잡이, 깊은 갱점문(坑點紋), 명기화된 소형 대구관과 배 등이 있다. 부여문화 요소로는 Ca형 상구협사도호, 쌍이고복협사도관 등이 있다. 이들 토기는 포자연전산과 유수 노하심중층고분군에서 출토된 횡이호와 유사하다. 보고서에서는 촉각식 동병철검의 경우 부여의 전유물이 아니라 송화강 유역에 형성된 일종의 지역성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무덤에 말이빨을 매납하거나 고분군 중심구에 말 두개골을 매납한 구덩이가 확인되는 현상은 부여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차구고분군에서 유수 노하심중층고분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에서는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의 주체를 송눈평원 서남부에서 남하한 한서이기문화 주민 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이 남하하면서 제이송화강 유역의 조기 부여문화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화 요소를 흡수하였고, 길림합달령 일대에 도착한 이후에는 현지의 보산문화 주민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서한 요동군에 인접해 있고, 동시에 흉노 세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손쉽게 중원문화와 흉노문화 요소를 흡수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차구고분군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외래요소 유물로 유리구슬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의 산지를 분석한 결과 깊은 남색의 갑유리 구슬은 남아시아산, 얕은 남색의 내납 유리구슬은 로마산, 소량의 대조문 삼각형 유리추는 지중해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흉노식 동대구 성분에도 신청동이 함유되어 있는데, 도와·미노스크 분지 등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러한 자제들은 모두 교류와 교역 등을 통해 이곳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제4절 사회구조 및 경제형태

사회구조는 고분군의 전체적인 발굴 양상과 출토유물을 통해 무덤의 등급과 신분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은 크게 3개 계층으로 나뉘는데, 무덤에 고급 한식 마차가 부장된 무덤은 수령급의 최상위 계층에 해당되고, 중심구역에 위치하며, 철검·동경·동패식·금이식 등이 부장된 무덤은 상위 계층으로, 고분군의 변두리에 위치하며, 무덤의 규모도 작고 부장 유물 등급과 수량도 적은 무덤은 신분이 낮은 중하위 계층으로 파악하였다.

중심구역인 중구는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심하게 도굴되어 발굴된 무덤의 수는 적으나 규모와 출토유물의 특징을 통해 볼 때 신분이 매우 높은 최상위 혹은 상위 계층이 사용했던 공간으로, 동구와 서구는 고분군의 변두리에 해당되며, 무덤의 규모와 출토유물을 토대로 주로 중하위 계층이 사용한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중구의 경우 홍의도·곡경호·사경호·기하문토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울형 청동기·야요형 동패식 등 한서이기문화 전통이 포함된 유물 대다수가 출토되고 있어 무덤 사용 세력을 송눈평원에서 남하해 온 한서이기문화 주민 혹은 그 후예로 추정하였다. 특히 한식 거마구를 매납한 무덤을 가장 높은 계급의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차구고분군의 경제형태는 무덤에서 출토된 다량의 농공구류와 무기류를 통해 유추하고 있다. 청동과 철제 화살촉·동병철검·철모·장철도·골촉·압제석촉 등의 무기류·환수철도·철추·철분·철곽 등의 농공구류는 이 지역에서 수렵과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 밖에도 야생 당나귀 골격, 말 이빨과 말 머리, 소량의 소·돼지 뼈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 골격이 확인되고 있어 목축업도 함께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순수한 유목 집단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정착하여 반농반목의 생활을 영위하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4) 제5절 족속 검토

이 절에서 서차구고분군 관련 이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고분군에 반영된 사용 집단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노, 부여, 오환으로 나누어 각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집필자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손수도의 흉노설, 오영증(吳榮曾, 필명 曾庸)의 오환설, 전운(田耘)의 부여설 등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었다. 1990년대 들어 정군뢰(鄭君雷)가 서차구고분군의 원문화 요소는 북방에서 남하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고, 2000년대 들어 반령이 한서이기문화인들이 남하하여 요령성 북부 일대에 자리 잡은 것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고분군에 반영된 주민 집단의 특징은 모두 4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 고분군의 중심 연대는 서한 조기의 만기 단계에서 서한 중기까지이며, 중·만기에서 점차 쇠락하여 소멸하고 있다. 둘째, 무덤의 주체는 송눈평원 서남부에서 남하한 집단으로 비록 남하해서 이 지역에 도착한 시간이 길지 않지만 이미 제이송화강 유역의 부여 선주민과 현지의 원 거주민 집단과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다. 셋째,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은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했으며, 문화 내용상에서 한서이기문화 외에도 중원문화, 흉노문화, 보산문화, 제이송화강 유역과 조기 부여문화 요소가 모두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서차구고분군을 비롯한 동일 유형의 유적들은 서한 중·만기에 대부분 소멸되는데, 이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무덤에서 출토된 다량의 중원문화 요소 유물과 지리적으로 요동군의 변새(邊塞)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조영 집단은 서한의 군사적 타격으로 인해 와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서차구고분군의 조영 집단을 서한 요동군 변새 바깥쪽에 있었던 한 부류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방민족으로 규정하고 본문에서 흉노설, 부여설, 오환설에 대해 문제점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집필자는 이미 무덤 조영 주체를 송눈평원 서남부에서 남하한 집단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실체를 오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흉노설과 부여설에 대해서는 한계와 문제점을 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오환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⑴ 흉노설

보고서에서는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이 흉노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복원된 토기 145점 중 2점만 흉노 토기와 비슷하다는 점, 둘째, 무덤에서 출토된 흉노문화 유물들은 흉노의 세력 범위뿐만 아니라 흉노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타 지역에서도 모두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이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서한 시기 흉노가 밖으로 전파시킨 대표적인 문화 요소들이며, 흉노인들이 직접 사용한 기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동 장식품 관련 유물들은 무역 등의 수단을 통해 원거리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토기는 직접적으로 사용 집단의 문화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은 흉노가 아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부여설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이 부여가 아니라는 근거로 첫째, 부여문화 요소로 볼 수 있는 횡이도호는 부여뿐만 아니라 천산산맥과 길림합달령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형식으로 부여만의 전형적인 토기 양식이 아니라는 점, 둘째, 무덤의 구조와 출토유물에서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유수 노하심중층고분군의 경우 서차구고분군에 비해 조영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영향을 준 것이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부여의 중심 문화인 포자연유형의 경우 발굴 자료가 적어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로서는 서차구고분군의 조영 주체가 부여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오환설

마지막으로 오환설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서차구고분군의 주체로 파악한 만큼 문헌과 고고학자료를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논지를 증명해나가고 있다. 먼저 『사기』·『한서』·『후한서』·『삼국지』 등의 오환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출자와 사회경제 형태, 관혼상제(冠婚喪祭)등의 습속, 오환과 흉노·서한과의 관계를 차례대로 분석하고 있다.

논지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오환의 출자와 관련하여 동호(東胡)가 흉노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면서 잔존세력 중 일부가 오환산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면서 그 지명으로 족명을 삼았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서차구고분군 조영 주체인 한서이기문화인들이 송눈평원 서부에서 요동 북부로 이동해 온 것과 부합되며, 고분군의 조영 시기 역시 한초라는 점에서도 시간적으로 오환의 이동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고분군에서 다량의 청동 혹은 철제 화살촉이 출토되고, 철검과 철모 등의 무기류와 마구류, 말 이빨 등이 출토된 점을 들어 문헌 기록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내용과 부합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오환과 흉노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에 오환은 성립 초기 흉노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속 관계에 있었으나, 한 무제 이후 흉노의 힘이 약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여러 차례 흉노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무덤에서 출토된 다량의 요대구 및 요대 관련 구형 동대식, 동추식 등이 흉노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점, 개단문 동패식의 합금 성분이 도와·미노신스크분지 흉노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넷째, 오환과 서한과의 관계에 대해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소제(昭帝) 원봉(元鳳) 3년(기원전 78년) 요동 오환이 변새를 침범해 오자 한은 두 차례에 걸쳐 오환을 공격하여 오환왕 3인과 6,000여 명을 참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환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이후 한에 복속하여 흉노로부터 한의 보새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문화적으로는 서차구고분군에서 비교적 많은 중원문화 요소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위신재와 무기류, 마구류 등으로 당시로서는 첨단기술로 제작된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최상급의 유물을 부장한 최고 계층의 인물과 상층 사회가 존재하고 전투력이 매우 높은 집단임에도 짧은 시간 내에 쇠락, 소멸하고 있다는 점은 한의 두 차례 공격이 치명적이었음을 설명해준다. 이후 이들이 점차 변새의 내지로 이동하면서 서차구고분군 역시 자연스럽게 폐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이 내지로 이동한 근거로 요양(遼陽) 삼도호(三道壕)유적에서 출토된 진주문 장식 대구관, 영구(營口) 발어권(魰魚圈)유적에서 출토된 동륜(銅輪)과 동령의 형식, 활석관(滑石管)과 유리구슬 장식이 모두 서차구고분군 출토품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한서이기문화인들 남하의 또 다른 예로 압형호(鴨形壺)가 요서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요서지역에서 출토되는 압형호의 형태가 한서이기문화 출토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서이기문화인들이 요서지역으로도 남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한 중기 이전 한서이기문화인들은 송눈평원 서부에서 대량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남하 노선은 동과 서 두 갈래로 서쪽 노선은 요령성 서부의 조양지역이며, 동쪽 노선은 요령성 북부지역으로 서차구고분군과 채람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서선의 경우 지금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뚜렷한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동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쳐 간 경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집필자는 서차구고분군을 송원평원 서남부에 살던 한서문화이기인들이 남하하여 요동 북부에 정착하면서 만든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은 오환의 한 갈래로 서한 조·중기 요동 새외에서 활동한 흉노 좌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흉노가 요동 변군의 침략하는 데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 무제 시기 위만조선이 붕괴되고, 흉노가 서북쪽으로 이동하자 좌부 역시 서쪽의 운중군(雲中郡) 새외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요동 새외의 오환인들은 여전히 이 지역에 남게 되었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요동 변새를 자주 침입하자 소재 시기에 한의 3차례 대규모 공격을 받고 세력이 약화되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점차 요동과 요서의 장성 내지로 이주하여 흉노로부터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서차구고분군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될 경우 문헌상에 오환과 선비가 동호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기록과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과 선비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이 체질인류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 두 유적의 문화 내용이 다른 점 등을 들어 오환과 선비는 서한 전기와 동한 시기에 각각 송눈평원과 대흥안령 일대에서 남하한 두 종류의 다른 집단으로 보고, 이들 간에는 동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록은 서진(西晉) 이래 역사가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Ⅳ. 풀어야 할 수수께끼

보고서 발간 책임자인 반령은 필자와 길림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함께한 동기이다. 그녀는 1989년 길림대학을 졸업하고 흑룡강성 가목사시(佳木斯市) 문물관리참(文物管理站)에서 근무하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와 열정적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학문을 탐구하던 학우였다. 흑룡강성 출신으로 러시아에 능통했으며, 북방문화, 특히 흉노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러시아 자바이칼지역의 이불가 흉노성지와 고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길림대학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 서차구고분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2021년 서안(西安) 서북대학(西北大學)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반령의 흉노에 대한 관심은 자바이칼지역에서 시작하여 호륜패이(呼倫貝爾) 평원과 동북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눈강 유역의 평양묘장(平洋墓葬)과 한서이기문화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고, 결과적으로 서차구고분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송눈평원 일대 한서이기문화인들은 먼저 자바이칼지역의 북방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후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요령성 북부지역으로 남하하였고, 현지의 토착민뿐만 아니라 제이송화강 유역의 부여 선주민들과 문화적 융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서차구유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문화를 영유한 집단은 문헌기록상의 오환이며,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초기에는 흉노 좌부에 속해 요동 변군을 침략하는 데 선봉 역할을 하거나 흉노를 공격하여 약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한 중·만기에 접어들어 한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 한에 복속되어 내지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쇠락·소멸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근 50년 동안 창고에 쌓여 있던 출토유물과 보고서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은 발굴보고서를 간행한 본 사람이라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의 어려움은 제1장 서론의 자료 정리와 보고서 편집 과정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집필자는 보고서의 장점으로 먼저 과거에 작성된 초고와 꼼꼼하게 비교하여 유물 분류를 새롭게 하고, 사진 실측과 3D 스캔을 활용하여 실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무덤과 유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를 새롭게 작성하고, 철기와 유리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노고 덕분인지 서차구고분군 발굴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중국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출간된 다른 발굴보고서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주변 지역 동일 문화내용을 가진 유적과의 비교 검토가 미흡하다. 서차구고분군 주변에는 동일 문화내용을 가진 동료(東遼) 석역북산(石驛北山)고분군과 채람(彩嵐)고분군 같은 유적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서풍 영순묘지(永淳墓地)를 비롯하여 조병산(調兵山) 대명북산(大明北山), 강평(康平) 동관오과수묘지(東關五棵樹墓地) 등 요하 상류 일대에서도 유사한 문화내용을 가진 유적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6] 보고서에는 이들 자료와 비교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한서이기문화인들과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을 오환으로 비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 보고서에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을 오환으로 비정하였다. 그렇다면 서차구고분군의 주체인 한서이기문화인들도 오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철제 화살촉이 다량 출토된다는 점이 오환이 기사(騎射)에 능통했다는 문헌 기록과 부합된다는 내용 외에는 한서이기문화인들이 오환이라는 고고학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환의 유적으로 비정된 유적들로는 서차구고분군 외에도 송눈평원지역의 평양묘장과 흥륭산(興隆山)고분,[7] 내몽골 화림객이(和林格爾) 동한벽화묘, 내몽골 통료(通遼) 과이심좌익중기(科爾沁左翼中旗) 육가자(六家子)고분군[8]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적의 문화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다르고, 공간적인 분포 범위 역시 너무 넓다는 점에서 단일 족속의 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오환의 고고학적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서이기문화인

6 楊麗敏·許志國, 2012, 「西豐永淳墓地土坑墓辨析」, 『遼寧省博物館館刊』, 遼寧省博物館.

7 米文平, 1999, 「平洋墓葬爲烏丸遺迹論」, 『北方文物』 3期.

8 韋正, 2009, 「鮮卑墓葬研究」, 『考古學報』 3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을 오환으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마치 필자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포자연유형 관련 자료가 적어 서차구고분군의 조영 주체가 부여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한서이기문화가 오환의 문화라는 합당한 고고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고서에서 한서이기문화인들의 또 다른 남하 근거로 요서지역에서 발견된 압형호와 곡경호·고경홍의도 등을 들고 있다. 압형호는 조양시(朝陽市) 쌍탑구(雙塔區) 팔보촌(八寶村) 묘전지(廟前地)에서 수습된 2점이 있고, 곡경호는 건평현(建平縣) 수천(水泉)유적 출토 곡경호 1점(조양시박물관 소장), 건평 태평장향(太平庄鄕) 출토 고경호(건평박물관 소장) 등이 그 형태 면에서 평양묘장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들 토기는 현지에서 신석기시대 소하연문화(小河沿文化) 혹은 청동기시대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 유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한서이기문화 토기의 태토가 이 당시 토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벌어진 오류라 지적하고, 기원전 2~1세기 전후 한서이기문화의 범위가 요서지역은 우북평, 요서군내까지, 요동지역은 요령성 북부와 길림성 남부지역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압형호가 송눈평원 일대 한서이기문화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호륜패이 초원의 완공(完工)무덤과 요서지역의 묘전지(廟前地) 채집품, 길림성 남부지역 후석고묘(猴石古墓)에서도 동일 기종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화의 주체가 한서이기문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서이기문화인들의 직접적인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9] 또한 결정적으로 서차구고분군에서는 압형호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한서이기문화인의 남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차구고분군은 발굴 66년 만에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 발간으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의문들이 일부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수

9 張偉, 2009,「東北地區鴨形壺研究」,『文物』6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고 그 해답은 보고서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조선부여사연구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 관련 집담회를 가진 바 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필자가 발굴보고서를 해제하여 발표하였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자 파트에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고대사 속에서 서차구의 의의를 다시 살펴보자는 발표(경희대 강인욱)부터 흉노계 동물문 패식을 주제로 한 발표(경희대 한진성), 철기의 성분 분석과 제작 기법에 대한 발표(한림대 심재연), 중원계 유물과 장례 습속에 대한 발표(목포대 김동일), 동병철검의 특징에 대한 발표(동북아역사재단 배현준) 등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진성의 경우 흉노 세력 범위 내에서 출토된 모든 흉노계 동물문 패식을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출토된 동물문 패식과 비교하여 서차구 출토품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더불어 송눈평원 지역 한서이기문화에서 출토된 금동패식과는 형태와 문양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서이기문화=서차구고분군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보고서의 주장과는 다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런 연구들이 집대성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서차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덤 출토 유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경우 한서이기문화가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유물에 대한 설명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덤에서 출자가 서로 다른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물을 대상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출토 유물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이 종합되었을 때 비로소 서차구고분군의 숨어 있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헌사 방면에서 당시 동북지역 세력 집단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차구고분군 조영 세력이 활동할 당시 동북지역은 흉노와 한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구고분군을 중심으로 보면 동북쪽에는 부여, 남쪽에는 위만조선, 남서쪽은 한, 서쪽은 흉노가 포진해 있었다. 이들 세력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교류 양상을 파악해봄으로써 서차구고분군 조영 집단의 정체성과 종족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서차구고분군 소멸 이후 동일 문화내용이 가장 많이 보이는 노하심중층고분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서차구고분군에서 출토된 원주식동병철검이 최근 한반도 중부 충북 오송에서 발견된 예가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차구 조영 집단의 족속이 누구인지를 찾는 작업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서차구유적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부여와 관련된 유적으로 비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부여에서 오환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금번 보고서에 서차구고분군 조영 세력을 오환으로 못 박음으로써 향후 정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족속을 찾는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서차구고분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구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楡樹老河深』, 文物出版社.

孟克巴雅尒, 2016,『烏桓歷史若干問題研究』, 內蒙古大學出版社.

潘玲, 2007,『伊沃爾加城址和墓地及相關匈奴考古問題研究』, 科學出版社.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西豊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林幹, 1989,『東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90,『平洋墓葬』, 文物出版社.

논문

박양진, 2018,「고대국가 부여의 고고학적 연구」,『고대국가 부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오강원, 2018,「西豊縣 西岔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湖南考古學報』 제58輯.

李鍾洙, 2004,「夫餘文化研究」, 吉林大博士學位論文.

_____, 2007,「西岔溝 古墳群의 性格과 使用集團에 대하여」,『白山學報』 77.

林沄, 1993,「西岔溝式銅柄鐵劍與老河深·彩嵐墓地的族屬」,『馬韓百濟文化』 제13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靳維柏, 1988,「關于鮮卑早期文化的再認識」,『北方文物』 3期.

孟克巴雅尒, 2018,「烏桓山地理方位再考」,『內蒙古社會科學』 2期.

米文平, 1999,「平洋墓葬爲烏丸遺迹論」,『北方文物』 3期.

潘玲, 2013,「烏桓, 扶餘抑或匈奴? 西岔溝墓地族屬之謎」,『大衆考古』 3期.

范恩實, 2012,「論西岔溝古墓群的族屬-兼及烏桓·鮮卑考古文化的探索問題」,『社會科學戰線』 4期.

孫守道, 1957,「西岔溝古墓群被掘事件的教訓」,『文物參考資料』 1期.

_____, 1960,「"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文物』 8·9期.

_____, 1993,「再論"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文化內涵·族屬及國別問題」,『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蒙古文物考古』1·2期.
_____, 1995,「西岔溝古墓群西漢銅鏡斷代研究」,『遼海文物學刊』1期.
楊麗敏·許志國, 2012,「西豐永淳墓地土坑墓辨析」,『遼寧省博物館館刊』, 遼寧省博物館.
劉升雁, 1983,「東遼縣石驛公社古代墓群出土文物」,『博物館研究』3期.
_____, 1985,「東遼縣石驛公社古墓群出土文物的研究」,『博物館研究』1期.
李龍彬·徐政·梁振晶, 2011,「遼寧西豐縣永淳遺址及墓地的發掘」,『考古』3期.
韋正, 2009,「鮮卑墓葬研究」,『考古學報』3期.
張柏忠, 1989,「內蒙古科左中旗六家子鮮卑墓群」,『考古』5期.
張錫瑛, 1984,「試論我國北方和東北地區的"觸角式"劍」,『考古』8期.
張偉, 2009,「東北地區鴨形壺研究」,『文物』6期.
田耘, 1984,「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黑龍江文物叢刊』1期.
鄭君雷, 1997,「中國東北地區漢墓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_____, 1999,「烏桓遺存的新線索」,『文物春秋』2期.
曾庸, 1961,「遼寧西豐西岔溝古墓群爲烏桓文化遺迹論"」,『考古』6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12

조선 전기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木村拓, 汲古書院, 2021)

박정민 | 전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I. 머리말
II. 구성과 내용
III. 성과와 한계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본 책의 저자인 기무라 다쿠(木村拓) 선생은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출신으로 1976년생이다. 도쿄대학(東京大学)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선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가고시마 국제대학(鹿児島国際大学)의 준교수를 거쳐 2023년 4월부터 주오대학(中央大学) 문학부 준교수로 재임 중이다. 기무라 선생은 1년간 서울대학교에 방문학생으로 온 적이 있고, 이후에도 자주 한국을 왕래하며 한국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아울러 일본뿐만 한국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한 학자이다.

서평자와 기무라 선생(이하 필자)은 같은 시기 비슷한 연구 대상을 연구하고 있어 이전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서평자는 2017년에 규슈대학(九州大学) 인문과학연구원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하였는데, 마침 필자가 가고시마 국제대학에 자리를 잡아 가고시마에 방문하였다. 그의 환대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도공들이 전래한 사쓰마 도기의 생산지를 함께 답사하였고, 그가 임진왜란까지 관심분야가 확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마 이러한 결과가 최근 발표한 『壬辰戦争と東アジア－秀吉の対外侵攻の衝撃－』(川西裕也·中尾道子·木村拓 編, 2023, 東京大学出版会) 등으로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2017년 당시 조선학회(朝鮮学会)와 조선사연구회(朝鮮史研究会) 등에서도 만나 교류하며 조선 전기 대일·여진인 관련 정책과 인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필자가 지난 2021년에 출간한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이하 본서)는 2012년에 제출한 『朝鮮前期の事大交隣と羈縻－「侯国」的対外政策の形成と変容』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전폭적으로 개정하고, 증보하여 제출한 것이다. 제목의 변경에서도 보이듯이 부제에 쓰였던 '후국(侯國)'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조선의 입장과 외교를 살펴보았다. 즉, 15~17세기 전기까지 동아시아 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질서를 조선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선의 후국적 입장을 다방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서의 구성과 내용, 성과와 의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Ⅱ. 구성과 내용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서는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면 2부의 내용에 각각 4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절 제목을 원문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序章　本書への導入(신고)
　一　本書の目的
　二　先行研究の議論とその限界
　三　本書の構成と概要
第一部　朝鮮の外交論理·秩序
第一章　朝鮮世宗代における女真人·倭人への授職の対外政策化(2012)
　一　授職の対外政策化前史
　二　授職の対外政策化とそれ以後
　三　女真·倭人の官教における印の変更とその意味
　補論　朝鮮の国王印と侯国的立場(新稿)
第二章　朝鮮による女真人酋長への授職と羈縻－明の品帯を超えて(2008)
　一　女真人羈縻における品帯の意味
　二　都万戸授与による女真人酋長の羈縻
第三章　朝鮮による女真人·倭人への授印政策(2004 の一部を増補)
　一　印信と図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二　女真人·倭人への授印政策の意味

三　女真人·倭人への授印政策と侯国的立場

第四章　朝鮮の対馬認識の体系的考察−一五世紀を中心として(2015)

一　朝鮮の対馬認識の変遷

二　朝鮮の「藩籬」としての対馬の性格−豆満江流域の女真人集落との対比から

第五章　朝鮮の対日外交秩序の新たな理解−『海東諸国紀』を手掛かりとして(2015)

一　『海東諸国紀』のなかの「日本国」

二　対日外交秩序における「日本国」

三　対日外交秩序の新たな理解

第二部　朝鮮の外交と「私交」問題

第六章　朝鮮初期における室町幕府への遣使の目的(2020)

一　太祖·太宗代−頻繁な使節往来までの前史

二　太宗代−倭寇対策のための遣使

三　世宗代−「交隣の礼」履行のための遣使

四　室町幕府への遣使の再途絶

第七章　一五世紀前半朝鮮の対日「交隣」と「私交」−明に送られた世宗の行実を手掛かりとして(2016)

一　明の「東藩」の立場と対日通交

二　明の「東藩」の立場と「私交」·「交隣」

第八章　朝鮮世宗による事大·交隣両立の企図(2011)

一　世宗による被虜明人張清らの送還の意味

二　交隣使節の接待をめぐる世宗と臣下の立場

第九章　朝鮮の交隣文書における図書使用の理由(2004 の一部を増補)

一　書契における印の選択

二　世宗による印信使用の提案の意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三　図書使用と「私交」問題

終章　一七世紀前半朝鮮の対日本外交の変容−「為政以徳」印の性格変化をめぐって(2007)

一　対日本国書と「為政以徳」印

二　「為政以徳」印の性格変化−図書から璽宝へ

三　対日本外交の変容−国書の「公文書」化

본서의 내용을 각 장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본서는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구분된다. 제1부는 조선의 외교 이론과 질서를 여진인과 왜인에게 행했던 수직(授職)과 도서(圖書)·인신(印信)의 수여 의미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의 대일 외교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부는 원칙적으로 명의 일원론적 질서하에서 주변국과 외교를 하는 것은 '사교(私交)'로 명에 문죄(問罪)를 받을 수 있었던 조선이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상으로 대일외교를 고찰하였다.

서장에서는 명이 지향한 국제질서와 달리 후국이었던 조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과 류큐(琉球), 여진에 대한 외교를 실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조선의 외교는 소국이 자국의 보존을 위해 행하는 "외교로서의 사대"가 아닌 소국이 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자국을 구조적으로 편입시키려는 "구조로서의 사대"로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조선이 왜 "구조로서의 사대"를 목표로 했는지 다양한 사례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책봉체제론을 조선의 대일 외교에 적용한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학설이 정설화되었다. 즉, 조선이 책봉체제를 전제로 일본과 대등 외교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일본 영주 등과 상하 관계 혹은 군신 관계가 맺어졌다는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와 손승철 등의 비판적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조선의 대 일본·류큐·여진 외교에 후국적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책봉체제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대등외교'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대일 외교 질서상 후국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를 구현하고자 본서를 출간하였다.

제1장은 세종 20년대(1430년대 말~1440년대 말)에 조선이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과 대마·일기·치쿠젠(筑前)의 일본인에게 수직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은 원래 향화인에게 실직(實職)인 오위직을 주고, 시위(侍衛)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종 20년대에 두만강 유역 4진의 설치가 완료되고, 대마 해역의 왜인 통교책이 효과를 거두며 여진인과 왜인의 수직 정책이 변화하였다. 즉, 수직의 주목적이 시위에서 기미(羈縻)로 변화하였고, 관직도 실직에서 산직(散職)으로 바꾸어 그 대상을 향화인에서 비향화인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수직 여진인과 왜인에게 발급한 관교(官敎)에도 나타났다. 조선은 일반 관료에게 '보(寶)' 자와 같은 국왕 도장의 사용을 하였다. 하지만 수직 여진인과 왜인에게는 '보' 자 대신 명에서 하사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날인하였다. 조선은 '조선국왕지인'을 사용하여 두만강 유역과 대마 해역에 거주하는 여진인과 왜인의 군신 관계를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정당화하였고, 후국적 입장에서 대외정책으로서의 수직을 행하였다.

제2장은 조선이 만호직을 여진인 추장에게 수여한 배경에 조선의 후국적 입장이 투사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조선이 관직을 내린 여진인 가운데 상당수는 명의 관직도 가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명의 관직을 가진 여진인에게 조선의 관직을 수여할 때 명의 관직과 본거지의 지위 고하(高下)를 기준으로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추장에게 수여한 관직이 도만호였던 점에 착안하였다. 조선의 관복 제도는 '이등체강'의 원칙을 가지고 정비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조선 역시 명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에게 2품 당상관직을 임명해야 하였다. 조선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품계를 수반하지 않는 관직인 만호직을 병용하여 금대와 2품 당상관직을 주었다. 그 결과 도만호는 조선이 인정한 추장으로 지위를 보이는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명의 관직을 가지지 않은 왜인에게는 오위직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직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왜·야인'이라고 한데 묶여 있었지만 실제 정책은 반드시 대칭되지 않았던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제3장은 조선이 여진인과 왜인에게 내린 '인(印)' 정책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방식에 후국적 입장이 관계되었다고 보았다. 그동안 수도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진인과 왜인에게 각각 인신과 도서를 구분해서 줬는지 살펴본 적이 없었음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여기에서는 인신과 도서의 성격을 확인하고, 여진인에게는 공적 성격을 지닌 인신, 사인(私印)의 성격을 가진 도서를 왜인에게 수여한 배경을 분석하였다. 여진인에게 인신을 준 것은 1405년(태종 5)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1443년(세종 25)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의 사례만 발견된다. 조선은 여진인에게 인신이나 도서를 수여하지 않았으나 당시 조선의 세력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 긴박한 상황 등으로 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추장들과 달리 그들의 권위를 높이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410년에 구주절도사가 인신을 요구하였으나 의정부가 '인장과 부절은 후국이 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반대하였고, 태종 이래 이 원칙이 지켜졌다. 반면 '도서라면 후국에서 하사할 수 있다'는 명분에 의해 1418년(세종 즉위)부터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70여 명의 수도서왜인이 발견된다. 수도서왜인은 '유토유민(有土有民)'의 영주층으로 조선과 군신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의 하사가 가능한 것이다. 즉, 동맹가첩목아와 동소로가무는 조선의 영토 안에 거주하였기에 군신 관계가 성립하여 인신을 주었고, 왜인은 군신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를 준 것이다. 특히, 왜인에게 수여한 도장이 도서라는 것은 중국이 주변 여러 민족에게 실시한 수인 정책과 다른 점이다.

제4장은 조선의 대마 인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해동정(1419년)을 기준으로 조선은 대마도를 ① '대마=번리(藩籬)', ② '일본국 소속'이라고 보는 '이층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조선에서 대마도주에 대한 수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같은 '번리' 인식을 가지고 있던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에 대한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직과 다르게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대마도주가 일본국에 소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대마도주가 조선에 보인 자세도 중요하다. 대마도주는 '일본국수호(日本國守護)'의 지위에 기초한 대조선 통교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의 '번리'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독특한 '이층구조'가 유지되었다고 본 것이다.

제5장은 『해동제국기』를 중심으로 조선의 대일 외교는 '일본국'이라는 틀이 있음을 밝히고 조선 전기 대일 외교 질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와 손승철은 명 중심의 국제질서와 무관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를 주장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일본국'이라는 틀이 간과되었다. 여기에 필자는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전제로 한 '일본국'이라는 틀이 대일 외교의 기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외부적으로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 기반하여 조선과 일본을 대등한 국가로 설정한 한편, 조선 중심의 화이론적 질서에 근거하여 일본인 통교자를 조선에 종속시키는 기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제2부는 명의 후국의 입장이었던 조선의 외교가 '사교'로서 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조선이 대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제6장은 조선이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에 사신을 보낸 사례를 총정리하였고, 태조대~세종대 무로마치 막부로 파견한 사신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은 고려의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심하였다. 조선의 건국 시점에 이르면 이들의 침입은 절정을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왜구금압은 중요한 외교 사안 중 하나였다.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승려 각추(覺鎚)를 무로마치 막부에 파견하여 왜구금압을 요청하였다. 태종대는 태조대(2회)보다 빈번하게(1402, 1403, 1404, 1406, 1407, 1408, 1410, 1413)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는 '교린의 신(信)'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질적 파견 목적은 왜구의 금압이었다.

그런데 세종대의 사신 파견 목적은 이전과는 양상이 달랐다. 태종대 후반 조선에서 파악한 것처럼 왜구금압 능력이 없는 일본 국왕에게 사신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인식도 있었지만, '교린'의 이념을 실제적 의미로 부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즉, 무로마치 막부와 통교를 이웃나라 간에 행해야 할 '교린의 예(禮)'로 등치시킨 것이다. 세종은 중국에서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주의 '예'의 이행을 위해 사신을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 말에 일본 내부에서 조선 사신이 오면서 아시카가 요시카쓰(足利義教)의 살해나 아시카쓰(足利義勝)의 병사(病死) 등 재앙이 일어난다는 풍문이 있었고, 무로마치 막부에서 사신을 박대하는 일 등이 일어났다. 결국 세종은 무로마치 막부에 사신 파견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제7장은 세종 사후 명에 부고를 고하고, 시호를 청하면서 그의 생전 사적(事跡) 등을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세종은 '교린'의 이념하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지만, 그 의도와 관계없이 명에게는 '사교(私交)'로 인식되어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였다. 따라서 세종은 실제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음에도, 명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다.

명은 왜구 문제 등으로 일본을 적성국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명의 동번 입장에서 왜구 대책을 위해 대일 통교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제 1418년(태종 18)에 왜구의 포로였던 명나라 사람을 송환하자 예부에서 조선이 일본과 교친(交親)한 죄를 물으라고 주청하였다. 영락제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는 조선에서 동번의 입장에서 왜구 대책을 위해 대일 통교를 한다는 명분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실상 조선의 대일 통교는 '교린'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세종 사후 명에 보낸 내용에서는 왜구 대책을 위한 통교로 덧입혀 '사교'를 분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이 대일 통교에서 '교린'을 주장할 수 없는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노정한다.

제8장은 제7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세종이 어떻게 타개해나갔는지 보여준다. 즉, 명에 대한 '사대의 예'를 준수하면서 일본 통교를 '사교'가 아닌 '교린의 예'로 정당성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과 신하들이 피로명인(被擄明人) 장청 등의 송환과 일본 사절, 류큐 사절의 접대 등을 분석하여 조선의 사교 문제에 대한 자세와 대응을 규명하였다.

1423년(세종 5) 12월에 피로명인 장청 등 남녀 12명이 일본에서 도망쳤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조정은 반년 만에 이들을 명에 송환하였다. 이후 피로명인의 송환 여부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 사례가 인용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신료들 모두 여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명에서 조선이 일본과 '사교'했다고 생각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세종은 '일본과 통교를 명은 이미 알고 있다'며 '예에 근거한 자국의 교린을 명에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대와 교린의 양립을 기도하였다.

제9장은 제7장과 제8장에서 보았던 '사교' 문제에 대한 세종과 신하들의 차이가 일본과 류큐에 발급하는 문서에 발현되었고, 이는 조선의 후국적 외교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였음을 논증하였다. 세종은 일본과 류큐의 통교는 '교린의 예'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신하들은 명이 조선에서 일본·류큐와 통교를 인정하는 것은 동번인 조선이 왜구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들은 일본·류큐와 통교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인신(官印)이 아닌 도서(私印)를 이용하여 '사교' 문제를 회피하려 하였다. 그리고 일본·류큐와 통교하는 데 도서를 이용한 것은 권의(權宜)였음을 명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제1부와 제2부의 내용을 통해 필자는 조선이 15세기에 후국적 입장에서 일본·류큐·여진인에 대한 외교 질서를 구축하고, 이에 동반되는 '사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지 밝혔다. 종장은 이를 토대로 조선의 대일 외교 문서에 사용한 도서인 '위정이덕(爲政以德)' 인의 성격 변화를 토대로 명청 교체에 의한 '사교' 문제가 소멸된 경위를 고찰하였다. 조선은 앞서 본 것처럼 일본에 보낸 국서에 도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1624년(인조 2)부터 도서에서 인신으로 변화하였다. 즉, '위정이덕' 인에서 '시명지보(施命之寶)' 인으로 교체된 것으로, 대일본 문서가 공문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의 쇠퇴에 따른 국제적 권위 실추를 배경으로 조선이 일본과 통교를 '하늘의 신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교'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후국 입장의 외교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성과와 한계

본서의 의의와 성과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기본으로 류큐와 여진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본서에서 섬세하게 정리한 것처럼 그동안 당대의 국제질서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었다(본서 서장 참조).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과 일본,[1] 혹은 조선과 여진의 관계[2] 등을 통해 국제질서의 이론체계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일본과 여진 등을 위주로 한 것은 양자를 모두 섭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을 폭넓게 바라본다는 점만으로 본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양자의 수직정책과 수인정책 등을 통해 조선이 어떠한 외교 논리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왜·야인'이라고 묶여 '교린' 체제 안에서 조선의 외교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변용하였던 질서를 증명하였다. 조선은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인신무외교'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렇다면 주변의 일본·류큐·여진과 교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은 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였다. 그렇다면 '사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세종 등은 이에 대한 정당화

---

1 中村榮孝, 1965, 『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한문종, 1996a, 「조선 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関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長節子, 2002,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민덕기, 2007,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舍;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 푸른역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리 등을 만들었다. 그래서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조선의 화이론적 외교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바라본 것이다. 즉, 조선의 대일 외교에서 후국적 입장이 나타난다는 것을 논증한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논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도서와 인신 등 외교문서에 날인한 인(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조선 국왕은 명으로부터 받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사용하다가 세종대부터 '국왕행보(國王行寶)' 인, '국왕신보(國王信寶)' 인 등으로 교체하였는데, 신보가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에 사용된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이러한 도장의 사용은 후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신과 도서의 연원과 제도 정비·의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선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는 데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본고는 이들의 사용 의미와 사례, 논리 등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신 관계에 속한다고 여긴 여진인 추장에게 인신을 수여한 반면 왜인에게 도서를 주어 군신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도서를 날인했던 것은 공문서가 아니라 사적 교류였던 것임을 밝히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본서는 조선 전기 조선의 교린 대상이라고 알려진 일본·류큐·여진의 관계를 수직과 도서·인신의 수여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장절을 구성하였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이 이러한 독자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에서 벗어나 '사교'라는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 점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논리를 다양한 사례와 각도로 접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집과 인장, 대마도 종가 문서 등 일본 측 사료까지 폭넓게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1402년(태종 2)에 무로마치 막부에 파견된 관리를 찾기 위하여 변계량의 시를 분석하여 박비가 그 대상자였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그의 사료구사 능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에 치중하여 넓은 시기와 지역을 아우르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본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일정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처럼 훌륭한 연구임에도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도 있다. 먼저, 필자도 지적하였지만, 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 15세기의 사례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16세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명·청 교체기의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조선의 후국적 입장이 변화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물론 조선 왕조의 초반기인 15세기에 일본과 류큐, 여진 등에 대한 외교 질서를 구현해내고 이러한 내용이 16세기에도 큰 변화가 없다가 17세기 명·청 교체기에 이르러 변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는 16세기도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입장 차이로 폭력과 약탈, 불법 무역 등이 자행된 시기였다.[3] 일본의 각 지역과 통교에서도 연산군대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중종대의 삼포왜란 등이 일본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4] 조선과 여진의 관계도 내조와 접대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점차 조선의 통제력에 반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밀하게 16세기의 관계까지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으로, 본서의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는 용어인 '후국'에 대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제후국이라는 용어 대신 여기에서는 그 약어로 추정된다. 물론 서장에서 정도전이 쓴 『조선경국전』의 "본국은 사대하는 것을 예로 한다. … 후도(候度)를 닦고, 맡은 바 직무를 보고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을 근거로 하였다. 즉, 조선은 '예'에 기반하여 후국의 지켜야 할 법도를 지키며 천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도전이 제기한 '후국의 천자국에 대한 사대'라는 틀이 계승되며 명의 후국이라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쓰는 제후국이라는 표현 대신 왜 '후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조선왕조실록』과 『명실록』을 검색해도 대부분 제후국이 나오고, '후국'은 1535년 4월의 사례가 유일하다.[5] 따라서 '후국'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왜 후국이

3 구도영, 2018,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태학사.

4 한문종, 1996a, 앞의 글.

5 『중종실록』 권79, 30년 4월 21일 신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조선의 외교를 "구조로서의 사대"를 목표로 한 것을 논증하였다. 조선이 일본과 여진 등에 실시한 외교 정책을 보면 명 중심의 외교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에 대한 조선의 대응과 자세 등을 살펴보며 증명하였다. 서평자 역시 큰 틀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한다. 하지만 조선이 이들에게 실시한 외교의 한 축은 '권도(權道)'로 불린 유연성이다. 조선은 일본과 여진 등의 관계 설정을 위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변수에 고민하였고, 그때마다 권도로 대표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본서의 장점인 탄탄한 논리구조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기 쉽지 않았겠지만, 예외적 사례에서 발견되는 정형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조선과 여진 관계에서도 여러 층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면 더 좋은 연구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두만강 유역 여진인과 그렇지 않은 집단인 건주여진, 해서여진에 대한 외교 정책이 달랐기 때문이다. 필자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Ⅳ. 맺음말

서평자는 조선 전기 여진 관계를 주로 공부하고 있다. 이 분야를 선택한 계기 중 하나가 대학원 시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수업을 자주 들으면서 같은 교린의 대상이었던 여진에 대해 조선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무라 선생의 연구를 대학원 시절부터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평자는 조선 전기 여진인의 내조 양상을 분석하여 그 형식이 마치 중국과 주변 여러 민족이 중국에게 행한 조공과 비슷했고, 최소한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에 대해 명 못지않게 조선의 질서를 투영하였음을 검토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 전기 국제질서는 명을 정점으로 하고, 그 속에서 다시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기무라 선생이 상정한 조선과 일본의 외교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평자가 몇 가지 한계와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서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 일본 관계를 중심으로 류큐와 여진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였다는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서평자가 본서의 내용과 논리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필자와 여러 연구자께서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 필자가 오랜 기간 본서의 완성을 위해 고민하고, 논증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서평자의 소개글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한국 학계에 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많은 한국 학자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활동과 새로운 시각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 학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구도영, 2018,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태학사.

민덕기, 2007,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_____, 2010,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손승철, 1994,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샘.

_____, 1999, 『근세조선의 한일관계연구』, 국학자료원.

윤유숙, 2005,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 푸른역사.

한문종, 2001, 『조선전기 향화수직왜인연구』, 국학자료원.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_____, 2018, 『조선시대 번호 연구』, 경인문화사.

関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檀上寬, 2012, 『明代海禁H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木村拓, 2021, 『朝鮮王朝の侯國的立場と外交』, 東京: 汲古叢書.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東京: 吉川弘文館.

中村榮孝, 1965, 『日鮮関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京都: 同朋舍.

논문

정다함, 2008, 「조선초기 야인과 대마도에 대한 번리·번병인식의 형성과 경차관의 파견」, 『동방학지』 141.

한문종, 1996a,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6b, 「조선전기의 수도서왜인」, 『한일관계사연구』 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3..81.013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항미원조』 서평

– 『항미원조』(백지운, 창비, 2023)

한 담 | 전남대학교 중국인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II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2020년 항미원조 참전 7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즉 항미원조전쟁 기억이 화려하게 귀환했다. 최근 격화된 중미 패권갈등 속에 '대미항전(對美抗戰)'이 강조되면서 그간 공공연한 금기처럼 여겨졌던 항미원조 기억이 해금되고 대대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전쟁의 주적이었던 '미군'을 전면에 등장시킨 항미원조 영화와 드라마는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바야흐로 항미원조전쟁 기억은 중국 대중을 '저항적 내셔널리즘'으로 단합시키는 문화정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냉전 시기와 다름없는 중국의 전쟁관과 이에 입각하여 제작된 영상물은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 속속 보도되면서, 최근 악화된 한국사회의 반중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한국전쟁 기억에서 전쟁 시기 총을 겨누고 싸운 중국의 존재는 기이할 정도로 지워져 있다. 중미 갈등의 기류를 타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가까스로 마주하게 된 한국전쟁의 또 다른 타자, 중국의 존재를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됐나? 중공군 하면 떠오르는 '인해전술'의 단어처럼 거대한 규모의 덩어리로 상상되는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넘어, 이제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로 중국을 마주해야 할 때다. '중국에 한국전쟁, 즉 항미원조전쟁이 무엇이었나'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백지운의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이하 『항미원조』)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풀어가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개혁개방 이후 오랜 시간 잊혀진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은 2010년대부터 TV 다큐멘터리 제작이 활성화되며 대중문화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기 1기인 2016년에는 항미원조 역사를 원톱으로 다룬 드라마 〈38선〉과 영화 〈나의 전쟁〉이 공개되면서, 대중문화 속 항미원조 서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사, 역사 분과에 집중된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항미원조전쟁 연구도 아시아 냉전 연구 차원의 사회, 문화연구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1] 특히 중국인의 집단적 사유체계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 정치적 영역의 전쟁 자체보다 문화적 차원에서 항미원조 서사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또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 텍스트를 활용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일부 시기나 특정 텍스트를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한계가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마오쩌둥 시기,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부터 2020년까지, 특정 시기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해당 시기의 문화징후를 포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의 변화와 지속을 이해할 수 있는 항미원조 기억의 재현과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문학 텍스트와 항미원조전쟁 기억의 재부흥기라 할 수 있는 2020년 이후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2] 따라서 마오쩌둥 시기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기를 관통하는 본 저서는 중국의 항미원조전쟁과 집단기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총 4개의 장,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

1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抗美援朝文學에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인식: 1950년대를 중심으로』(손해룡, 2012,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백원담·임우경 엮음, 2013, 문화과학사), 「전쟁의 정치적 변용: 50~60년대 '항미원조' 전쟁영화를 중심으로」(이승희, 2014, 『사이間SAI』),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김란, 2017, 『역사비평』), 『新中國的自我認知與世界想象-以1950-1970年代抗美援朝文藝爲中心』(韓潭, 2018,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탈혁명시대 중국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난처함」(한담, 2018, 『중국현대문학』), 「1958년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의 정치성과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한담, 2019, 『중국문화연구』), 「중국 신시기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재구성 고찰」(한담, 2020, 『중국학』), 「시진핑 시대, '항미원조' 전쟁의 귀환과 문화 내셔널리즘」(한담, 2021, 『중국인문과학』) 등이 있다.

2 김란, 2017,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역사비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장. 의도된 망각

01. 백악관에 울려퍼진 항미원조의 선율

02. 냉전이 억누른 기억

03. 기억의 관리와 기념의 굴곡

제2장. 기억의 해빙

01. 두 편의 금지작과 한 편의 상영작: 〈항미원조〉 〈북위38도선〉 그리고 〈38선의 여병〉

02. 펑더화이의 문제적 복권: 〈펑대장군〉, 〈삼선의 펑더화이〉, 〈펑더화이 원수〉

03. 포스트혁명 전쟁서사와 원작의 귀환: 〈단원〉, 〈영웅아녀〉, 〈나의 전쟁〉

제3장. '승리한 전쟁'의 안과 밖

01. 귀환한 항미원조 서사의 이념적 빈곤

02. 결사항전의 기억과 부유하는 사연들: 〈압록강을 건너〉

03. 스포트라이트가 밝힌 것과 덮은 것: 〈장진호〉 〈장진호 수문교〉

제4장. 소인물의 역사: 〈금강천〉

이 책은 항미원조 기억이 20세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중국에서 억눌려온 상황과 그 원인을 탐구한 제1장을 제외하고, 제2장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제3장과 제4장은 2020년대의 문화적 재현을 중심으로 항미원조가 어떻게 기억되어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목차상으로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해당 시기의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쟁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방대한 사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어 주제별로 마오쩌둥 시기와 포스트마오쩌둥 시기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또한 저자는 중국 대중에게 전쟁 기억이 귀환하는 과정이 단순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아니며, 비록 제한적이나, 그 여정 곳곳에는 기층의 목소리와 시선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숨겨져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숨은 그림을 찾아내기 위해, 본서는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국가지도자 담화와 『인민일보』 사설 등의 공식서사 및 다큐멘터리, 지원군 사령부와 참전용사의 실록이나 회고록 같은 반(半)공식 서사를 교차적으로 읽어나가는 독법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마오쩌둥 시기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기를 넘나드는 방대한 사료 검토와 더불어, 주제별 입체적인 읽기가 가능한 저자의 공력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할 수 있다. 본 서평에서는 목차의 순서대로 핵심적 내용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1. 항미원조 기억의 이중성

2020년 항미원조전쟁 참전 70주년을 기점으로, 잊혀진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기억이 회귀한 가장 큰 배경에는 최근 격해진 중미 패권 다툼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지난 70여 년 내내, 항미원조전쟁의 기억과 서사가 국제정치, 특히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제1장에서는 이러한 '의도된 망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서술하고, 1960년 이래 10년 단위로 열린 항미원조 기념식의 규모와 방식, 『인민일보』 기사 등의 공적 서사 자료를 통해, 항미원조 기억과 서사가 미중 관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항미원조 기억이 미중 관계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항일전쟁과 해방전쟁(국공내전)과 달리, 항미원조전쟁은 정전 후에도 미중 간의 적대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미국의 핵 위협에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둘째, 1950년대 말부터는 중소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냉전시대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미중 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과 중소 갈등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데탕트 국면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손을 잡고 소련에 공동대응하는 '연미항소(聯美抗蘇)'의 길을 택해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항미원조전쟁 기억은 겉으로는 미 제국주의에 승리한 영광의 역사로 구가되면서도 안으로는 교묘하게 억눌려온 이중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미중 적대적 공조체제'가 유지되던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냉전의 역설적 부산물이라고 정의한 저자는 미중 관계 악화 속에 맞이한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참전 70주년 기념 담화가 "1970년대 이후 미중 데탕트를 계기로 형성된 미중 공조체제의 역사적 시한이 다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2. 기억의 해빙: 2000년대~2010년대까지의 항미원조 전쟁기억

제2장에서는 오랜 시간 금기와 망각 상태에 방치된 항미원조전쟁 기억이 2000년대부터 대중매체로 진입하는 과정을 2016년까지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2000년에는 참전 50주년을 기념하여 영화 〈북위 38도선〉, 30부작 드라마 〈항미원조〉가 제작됐으나 끝내 공개되지 못했다. 저자는 이 시기 한국전쟁을 조명한 대작들이 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대거 출간된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했던 중요 인물들의 회고록과 실록에 주목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인 펑더화이의 생전 일기를 모아 편집한 〈펑더화이 자술〉(1981), 지원군 부사령관이자 병참부 사령관이었던 홍쉐즈의 〈항미원조전쟁의 기억〉(1991), 펑더화의 보좌관 양펑안과 왕텐청의 논픽션 〈조선전쟁의 운전자〉(1992) 등이 그것이다.

1부에서는 반공식적 자료들, 특히 영화 〈북위 38도선〉의 시나리오 원재료가 된 〈조선전쟁의 운전자〉의 내용을 토대로, 미공개된 두 작품에 담긴 전쟁의 내밀한 사건과 일화들을 소개함으로써, 2020년 최근과는 사뭇 달랐던 2000년 전후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중국사회의 감각과 시선을 가늠한다. 또한 여병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낭만적 기법으로 전쟁의 한 단면만 그려냄으로써 유일하게 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된 영화 〈38선의 여명〉을 통해서는, 항미원조전쟁을 기념하면서도 이 전쟁 기억이 불러올 수 있는 대중의 '반미' 민족주의는 조절해야 했던 2000년의 중국 사회 분위기를 포착해낸다.

2부에서는 항미원조전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펑더화이 장군과 그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해 논하고 있다. 2000년대 첫 10년간, 대중매체에서 항미원조 역사는 혁명 위인의 생애 일부 혹은 항일·해방전쟁 등 중국 공산당의 혁명사 과정 중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다뤄져왔다. 그런데 2016년 항미원조 역사를 원톱으로 다룬 드라마 〈38선〉과 영화 〈나의 전쟁〉이 공개되면서 대중문화 속 항미원조 서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같은 해에 공개된 드라마 〈펑더화이 원수〉(이하 〈원수〉)는 항미원조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뤘을 뿐 아니라(총 36부 중 25~33부), 1978년 복권된 이후에도 국가의 공적 기억으로 진입하지 못한 펑더화이 장군의 혁명 과업 전모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드라마 〈펑대장군〉(1988), 〈삼선의 펑더화이〉(1995)가 펑 장군의 실각 이후 문화대혁명 직전까지를 다루었다면, 〈원수〉는 그가 혁명에 뛰어들기 시작한 청년기부터 실각 이후 만년까지를 모두 담아내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래 46부작으로 시작한 〈원수〉는 돌연 36부작을 끝으로 종영하며 루산회의, 삼선건설, 문혁으로 이어지는 실각 이후 펑의 만년의 생애가 공개되지 못했다.

저자는 펑 장군을 둘러싼 문화적 이슈와 사료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의 위상이 격하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펑 장군의 실각을 꼽는다.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었던 펑 장군과 항미원조전쟁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그의 실각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소관계 악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문혁보다 더 금기시되는 대약진운동 전후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의 만년 생애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원수〉와 2020년 대하드라마 〈압록강을 건너〉의 비교를 통해, 승리의 전사(戰史)와 전장의 참혹한 실상의 간극, '38선 이남으로 진격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지원군 사령부와 당 중앙 결정 사이의 갈등 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불과 4년 만에 항미원조전쟁 해석에 대한 중국사회의 달라진 기후를 보여준다.[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부에서는 2016년 영화 〈나의 전쟁〉을 중심으로, 이 영화의 소재가 된 1964년 홍색경전영화 〈영웅아녀〉와 1962년 바진의 소설 〈단원〉을 분석하여, 포스트 혁명시대 전쟁서사인 〈나의 전쟁〉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만든다. 먼저, 저자는 2016년이라는 시점을 혁명 역사의 격류에 휩쓸려간 개인의 삶을 찾아 위로하는 방식으로, 역사와 개인의 화해를 이뤘던 펑샤오강 류(영화 〈집결호〉, 〈대지진〉, 〈방화〉)의 포스트혁명 서사가 점차 역사와의 불화를 깨끗이 극복한 〈전랑〉적 서사로 대체되던 때라고 감각한다. 그런 점에서, 항미원조라는 거대역사가 익명화된 〈나의 전쟁〉은 애초부터 역사와 개인의 화해가 불가능한, 〈전랑〉적 서사로 대체되는 과정의 산물이다. 영화 속 역사의 부재는 곧 적아의 대립이 필수적인 전쟁 서사에서 타자의 부재를 가져왔으며, 타자의 부재는 결국 자아 '나'는 누구인지를 답할 수 없게 되는 포스트 혁명시대 항미원조 서사가 마주한 곤경이었다.[4] 저자는 이 문제를 영화의 토대가 된 〈영웅아녀〉, 〈단원〉을 함께 놓고, 주인공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무엇이 재해석되었는지를 분석하며 〈나의 전쟁〉은 〈영웅아녀〉의 혁명적 낙관주의에 가려진 원작 〈단원〉의 귀환이었다고 서술한다.

3. 기억의 귀환과 이념적 빈곤: 2020년대 항미원조 전쟁기억

긴 내전 끝에 막 성립된 불완전한 신생 국가, 그것도 제공권도 갖추지 못한 전근대적인 군대가 세계 최강의 미군과 맞서 싸운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한반도의 전장을 전방으로, 중국의 전 국민을 광대한 후방으로 싸운 항미원조전쟁

3 저자는 2016년 드라마 〈원수〉에는 그간 꾸준히 쌓여온 복수의 텍스트가 켜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4년이라는 시간 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 안에 있는 중국 대중매체의 특성상, 복수의 텍스트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이기 때문에, 서평자는 '불과 4년 만에 항미원조전쟁 해석에 관한 중국사회의 달라진 기후'라고 서술했다.

4 한담, 2018, 「탈혁명시대 중국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난처함」, 『중국현대문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당시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전 인민적인 동원을 모두 공산당의 세뇌나 국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강압에 의한 수동적인 결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항미원조전쟁을 가능하게 한 정신적 에너지와 중국의 당시 시대정신이 무엇이었나를 살피는 것은 중국인의 한국전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전선에서 병사들과 수 개월간 생활하며 항미원조 문예를 창작한 작가 바진이 본 지원군의 응집된 힘은 봉건사회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 땅을 분배받은 '농민' 병사, 그들이 집과 조국을 하나의 존재로 느끼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제2장 3부). 사회주의 문예인 항미원조 문예는 정치적 선전 및 교육 기능이 강하며, 궁극적으로 인민 대중에게 사회주의 세계관을 내면화시키고 이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의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주인공인 지원군의 자아 형상은 사회주의 신인(新人)의 모범으로서 달라진 중국과 그에 걸맞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기능했다. 이러한 문예 작품을 통해 대중들은 지원군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미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조선과 조선 인민을 지켜냄으로써, 과거와는 달라진 자신을 인지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신중국의 위상과 신 주체로서의 자신을 인지하는 과정을 추체험했다.[5] 이것이 문예를 통한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이라면, 제3장 1부에서는 '인민전쟁'과 '사회주의 국제주의'의 이념적 범주를 통해, 마오쩌둥 시기 항미원조전쟁이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으로 대표되는 중국혁명의 일환이었고, 사상적 차원에서 인민전쟁의 연장이자 확장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제주의 대의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증명한다.

1953년의 담화 〈항미원조의 승리와 의미〉에서, 마오쩌둥은 전쟁 승리의 요인을 (지원군 전사들의 방공초와 갱도전 창안을 예로 들며) 인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는 '인민전쟁', 전 인민의 지원, 중조 양국 인민의 협력 전투로 꼽는다. 저자는 허자오톈의 논의를 빌려, 여기서 '인민'의 개념이 마르크스 이론에서의

5 韓潭, 2018, 위의 글, 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급적 주체가 아닌, 자기 안에 잠재된 혁명성과 자발성을 끌어내는 자기 개조를 통해 누구나 계급적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는 역동적 주체론에 따른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인민'은 계급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초월하는 일종의 정서적·심리적 공동체였고, 당시 중국인에게 항미원조, 동방, 항미원월, 반둥과 같은 기호들을 통해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국제주의적 감각을 향유하고 있었다. 저자는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가 대부분이었던 중국 대중에게 '국제주의'라는 낯선 구호가 순식간에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인민' 개념에 내포된 타자와의 연대라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가주석의 담화에서 인민전쟁은 자취를 감췄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자발성과 당의 영도 관계가 전복되었으며, 『인민일보』의 사설에서도 아시아 인민의 우의와 연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미중대결 기류를 타고 귀환한 항미원조전쟁은 그것이 애초에 지니고 있던 정치성과 이념성의 요체를 상실한 채 애국주의와 중화주의라는 협소한 내셔널리즘의 구호들로 채워졌고, 공적서사에서 과잉 사용되는 '정의'라는 단어가 그 이념적 빈곤을 포장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2부와 3부에서는 2020년 참전 70주년을 맞아 제작된 블록버스터급 주선율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이하 〈압록강〉)와 영화 〈장진호〉, 〈수문교〉를 각각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항미원조전쟁이 대대적으로 소환되는 최근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서사의 제방이 터지기 시작하면 모종의 사유 공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서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전투와 이와 관련된 공식, 반공식적 서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주선율뿐만 아니라 주선율을 지탱하는 서사의 행간까지 살피는 독법을 취한다.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40부작의 대하드라마 〈압록강〉은 시진핑 주석의 기념 담화 안에 서사 지침이 응축될 만큼,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낸 귀환한 항미원조 서사의 모범(模範)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드라마가 한국전쟁의 당사국 어디에도 시도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 기간의 국면별 정세변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 지휘부의 지략대결, 전장과 전투의 구체적 장면들을 거대한 파노라마 안에 그려냈다고 평가한다. 드라마는 중미 수뇌부와 양측 군 사령부를 주축으로 하는 상층서사, 허구지만 실제 전거를 갖는 개인서사, 그리고 둘 사이에 있는 지원군의 기층서사라는 세 층위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상층부의 서사를 떠받치는 기층서사로, 여기에는 2010년대 제작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참전용사들의 구술이 대거 활용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기층 병사들이 겪는 혹독한 전투 현장과 중공 수뇌부가 있는 중난하이에서 전투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차를 짚어낸다.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 드라마에서 기존의 항미원조전쟁 서사에서 주변화됐던 4~5차 전역(1951.1.25~6.10)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에 주목하여, 그 전투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길어올렸다는 점이다. 저자는 공적, 반공적 사료를 토대로, 국민당 기의부대의 한강 방어전, 화천저수지 전투의 180사단, 철원전투의 63군 등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하거나 지원군이 수세였던 전투인 탓에 잊혀진 역사를 밝혀냄으로써, 비록 제한적이지만 공적서사에서 기록되지 못했던 본 드라마의 숨은 그림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압록강〉이 시진핑 시대에 귀환하는 항미원조 서사가 전체적으로는 공적서사에 견인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항미원조 서사 공간이 넓어지는 순기능이 따라오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3부에서 다루는 장진호 전투는 2차 전역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싸움(1950.11.25.~12.24.)을 말한다. '장진호의 악전'과 '상감령의 혈전'의 강조는 시진핑 시대 항미원조 서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상감령이 마오쩌둥 시기 항미원조의 상징으로 각인됐다가 개혁개방 이후 잊혀진 이름이었다면, 장진호는 종래 항미원조전쟁 서사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전투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지원군의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빚은 2차 전역 동부전선이 승리보다는 고난의 상징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진호 전투가 최근 10여 년 전부터 다큐멘터리를 통해 조명되기 시작하더니, 참전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블록버스터 영화가 잇달아 제작되며 시진핑 시대에 화려하게 귀환한 항미원조 서사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저자는 애플맨의 〈장진호 동쪽〉, 군사(軍史)인 〈20군 사화〉, 다큐와 참전용사의 구술 등을 바탕으로, 영화 〈장진호〉와 〈수문교〉에서 다룬 신흥리 전투와 수문교 폭파 작전이 지원군 스스로도 대승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혹한, 보급 부족, 지도부 실책 등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음을 밝혀낸다. 그렇다면 문제는, 항미원조 집단기억에서 가장 어둡고 아팠던,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 전투가 영화 〈장진호〉를 통해 '승리'의 서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의 크고 작은 왜곡과 기존의 장진호 기억에 붙어 있던 공적인 언어로 구조화되지 않고 부유하던 정서와 감응의 사라짐이다. 저자는 〈장진호〉의 스포트라이트가 항미원조전쟁을 선택적으로 소환함으로써,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동부전선에 관한 중국의 공적, 반공적 서술의 행간에 숨겨진 감정과 정서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단순 명쾌한 감정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짚어내며, 항미원조 기억의 가장 어두운 역사마저 '승리'의 '긍정적 에너지'로 재조직하는 시진핑 시대의 일면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4. 대안 서사의 가능성: 소인물의 역사 〈금강천〉

제4장에서는 항일, 해방전쟁과 더불어 항미원조전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사로 귀환하고 있는 최근, 거대역사의 항미원조전쟁을 미시사로 보여준 영화 〈금강천〉을 분석한다. 2020년 항미원조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며 출시된 〈금강천〉은 7·13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금강천의 교량이 미군 폭격으로 네 차례 파괴되고 그때마다 지원군에 의해 보수되는, 7월 12일 단 하루의 이야기를 다룬다. 제공권을 갖추지 못했던 중국군이 미군의 무차별한 폭격에 맞서 무너진 다리를 수리하고 약속된 시간에 전투에 투입되어 끝내 승리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마오쩌둥 시기부터 자주 활용된 항미원조 서사의 스테레오 타입이다. 하늘의 전투기와 땅의 고사포 간 대결이라는 이 영화의 메인 플롯도 전형적인 주선율 영화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영향을 받은 이 영화는 비록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하나의 사건을 지원군 사병 류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 미군 전투기 조종사 스미스, 고사포 부대의 다른 시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여주는 기법을 통해 '항미'라는 거대역사 이면에 숨겨진 미시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감독의 시선에 담긴 미시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소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다. 즉, 감독 관후에게 역사서에 기록된 영웅들의 행적은 모두 원경에서 바라본 기록일 뿐이다. 카메라 렌즈를 바짝 당겨 근거리에서 그 '희생'의 순간을 들여다보면, '희생'이라는 공적 서사로 설명되지 않은 온갖 소쇄한 요소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고사포 반장 장레이를 통해 감독이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자의 분석을 따라가보자.

영화 속 교량을 파괴하는 미군과 지키려는 중국군의 대결구조는 점차 미군 조종사 앤드루 힐과 고사포반 반장 장페이의 대결로 좁혀진다. 그런데 원래 고사포반 반장은 담이 크고 제멋대로인 관레이였다. 하지만 그는 금연 규정을 어겨 반장의 지위와 1호 고사포 지휘권을 장페이에게 빼앗긴다. 관레이에 반해 장페이는 소심하고 겁이 많다. 장페이는 포탄을 아끼느라 교량을 폭파한 미군 전투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관레이에 비웃음을 당한다. 그러나 장페이는 전투기를 격추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노출되어 관레이를 비롯한 1호 고사포 대원 전원을 잃자,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는 포대 주위에 불을 붙여 위치를 일부러 노출시키고 미군 힐을 자극하며 미친 듯이 포를 쏘기 시작한다. 지상과 공중의 광기에 가까운 이 대결은 결국 힐과 장페이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멀리서 이 대결을 바라보는 사병 류하오의 눈에는 도강하는 주력부대를 위한 고사포대의 희생으로만 보이지만, 이러한 장페이의 결단에는 동료 대원을 잃은 쇼크, 복수심, 오기, 증오 등 '희생'이라는 공적 서사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삶과 죽음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충동적인 감정과 희생정신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감독이 그 희생의 순간을 파고들어 펼쳐 보인 것은 바로 거대역사와 미시세계 사이의 광활한 간극이었다. 즉, 역사의 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 순간은 종종 이렇게 소인물의, 때로는 대의보다는 사사로운 이기심과 소소한 공명심, 충돌적인 감정과 우발적 계기가 한데 엉겨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간으로 만든 교량은 그러한 감독의 메시지를 시각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강천〉은 관후가 오마주한 〈덩케르크〉나 그의 항일전쟁 영화 〈팔백〉처럼 반전 메시지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다만, 저자는 "주선율 사이로 숨겨둔 하위선율로부터 전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과 목소리를 비집고 나온" 대안 서사로 이 영화를 주목하며, 향후 '영웅적 희생'보다 '살아남는 것'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반전 메시지가 담긴 항미원조 서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Ⅲ. 맺음말

『항미원조』가 다루는 시기와 내용의 폭이 넓어, 필자가 저자의 문제의식과 핵심 내용을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저서의 연구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마오쩌둥 시기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기를 관통하는 본서는 일부 시기나 특정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의 항미원조전쟁과 집단기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둘째, 1980년대 이래 나온 다큐멘터리, 지원군 사령부와 참전용사의 실록이나 회고록 같은 방대한 반(半)공식적 텍스트의 활용은 공백 상태에 있는 2000년대 항미원조 서사 연구를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미원조 문화 연구 영역을 대거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6] 또한 2020년대 이래 영화, 드라

6 이러한 반공식적 텍스트에 주목하여 중국군 포로의 송환 이후의 삶을 고찰한 기존 연구로는 임우경,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한국전쟁 귀환 포로와 신중국 영웅 서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 분석에서는 반공식적 텍스트와 더불어 군사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문화 내셔널리즘 특징에 집중된 기존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7]

이처럼 중국의 한국전쟁을 이해하는데 본서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다만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와는 대조적으로, 마오쩌둥 시기의 논의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문학과 같은 대중 서사가 많이 다뤄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서에서 마오쩌둥 시기는 항미원조 기념식의 규모와 방식, 국가지도자의 담화, 『인민일보』 기사 등의 공적 서사 자료를 토대로 항미원조 기억의 이중성과 기존에 이 전쟁에 내재된 '인민전쟁', '사회주의 국제주의' 이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런데 당시 국민 대다수가 문화 수준이 낮은 농민이었다는 점에서, 공적 서사 차원의 국가의 추상적이고 난해한 정치 서술이 대중에게 곧바로 수용되고 내재화될 수 있었을까? 대다수의 평범한 중국인에게 이 전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을 통해 심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적 서사와 대중 사이의 간극을 메워준 대중 서사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본서에 포함되지 않은 1980년대 초에 나온 영화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한다면, 2000년에 나온 대중서사, 특히 유일하게 공개된 영화 〈38선의 여명〉에 대한 논의를 전 시기와 연장선상에서 고찰함으로써 보다 많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방대한 사료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마오쩌둥 시기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기를 관통하며 '중국의 항미원조'를 하나의 저작으로 엮어낸 본서는 필자를 비롯한 항미원조전쟁을 주목해 온 연구자에게 매우 고무적이고 지적 자극을 주는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 대중에게

의 그늘」(『중국학보』, 2015), 이사사·손준식, 「헌신의 대가: 한국전쟁 중국군 포로의 귀국 이후 삶」(『역사학연구』, 2018) 참고.

7 「시진핑 시대, '항미원조' 전쟁의 귀환과 문화 내셔널리즘」(한담, 2021, 『중국인문과학』), 「중국 항미원조 영화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재현 양상과 한계」(한담, 2022, 『강원사학』)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항미원조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든 비극적인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이 각자의 독백을 넘어 불편한 타자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때, 진정한 의미에서 종전과 평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늦지 않게 한국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로 중국을 바로 마주해야 할 때, 이 책은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 · 의결 ·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 · 심의 · 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 · 중관계연구소, 한 · 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1호(2023. 9)

초판 1쇄 발행 2023년 9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